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연구 18

2014 통일의식조사

박명규 · 강원택 · 김병로 · 김병조 · 송영훈 · 장용석 · 정은미

서 울 대 학 교
통일평화연구원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연구 18

2014 통일의식조사

인 쇄 2014.12.24
발 행 2014.12.31

발행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발행인 박명규
저 자 박명규 · 강원택 · 김병로 · 김병조 · 송영훈 · 장용석 · 정은미

등 록 119-82-67975(2006.7.7)
주 소 151-742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전 화 02) 880-4052~4
팩 스 02) 874-7305
홈페이지 http://tongil.snu.ac.kr

디자인 · 제작 (주)다해미디어

가 격 10,000원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4

※ 이 보고서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사전 서면 허락없이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사도서목록(CIP)

(2014) 통일의식조사 /
저자: 박명규, 강원택, 김병로, 김병조, 송영훈, 장용석, 정은미.
-- 서울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4
p. ; cm. --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연구 ; 18)
권말부록 수록
ISBN 978-89-968013-9-9 93340 : ₩10000
통일 의식 조사[統一意識調査]
340.911-KDC6
320.9519-DDC23 CIP2015001155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연구 18

2014 통일의식조사

CONTENTS

목 차

서장 18

제1부 기초분석

제1장 통일에 대한 인식 34

1. 통일의 필요성과 이유 36
2. 통일의 추진 방식과 가능시기 43
3. 통일 편익에 대한 기대 50
4. 통일과 민주주의 60
5. 희망하는 통일한국의 체제 64
6. 소결 68

제2장 북한에 대한 인식 73

1. 남북한 관계 인식 74
2. 북한의 변화와 정권안정성에 대한 인식 78
3.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 81
4. 북한위기의식 86
5. 북한사회에 대한 친숙성 92
6. 소결 94

제3장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99

1. 서론 99
2.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101
3. 대북 정책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인식 108
4. 바람직한 최우선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125
5. 소결 135

제4장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139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141
2.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 144
3. 북한이탈주민 수용에 대한 견해 152
4.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역할 및 정책에 대한 태도 155
5. 다문화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 162
6. 소결 169

CONTENTS

목 차

제5장 주변국과의 관계 인식 173

1. 서론 173
2. 가장 가까운 주변국, 가장 위협적인 주변국 176
3. 주변국의 국가이미지 183
4. 통일을 위한 주변국의 역할과 기대 193
5. 소결 199

제2부 심층분석

제6장 사회 계층과 통일·북한 인식 205

1. 서론 205
2. 통일에 대한 인식 208
3. 북한에 대한 태도 214
4. 대북 정책 219
5. 계층별 정치 성향 분석 225
6. 소결 230

제7장 세대와 민주적 가치 233

1. 서론 233
2. 세대와 통일의식 235
3. 민주적 가치와 통일의식 256
4. 소결 275

결장 282

부록 297

CONTENTS

표 목차

〈표 1-1-1〉 통일의 추진 방식과 통일의 필요성 문항 간 교차분석(2014) 45
〈표 1-1-2〉 통일 편익 기대감과 통일대박론 공감도의 교차분석 51
〈표 1-2-1〉 남북 간 이질성에 대한 인식 94
〈표 1-3-1〉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102
〈표 1-3-2〉 연령대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 비율 103
〈표 1-3-3〉 광역권별 대북정책 만족 비율 104
〈표 1-3-4〉 교육수준별 대북정책 만족 비율 104
〈표 1-3-5〉 정치성향별 대북정책 만족 비율 105
〈표 1-3-6〉 경제상황에 대한 만족도별 대북정책 만족 비율 106
〈표 1-3-7〉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별 대북정책 만족 비율 106
〈표 1-3-8〉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북한 책임 인식별 대북정책 만족 비율 107
〈표 1-3-9〉 통일에 대한 분야별 기여 인식 비율 108
〈표 1-3-10〉 통일을 위한 분야별 시급성 인식 비율 109
〈표 1-3-11〉 북한주민 생활에 대한 대북지원 효용성 110
〈표 1-3-12〉 광역권별 대북지원 효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 비율 111
〈표 1-3-13〉 경제상황 만족도별 대북지원의 효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 비율 111
〈표 1-3-14〉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남북경제협력의 기여 인식 112
〈표 1-3-15〉 광역권별 남북경제협력의 북한개혁개방 기여에 대한 긍정적 인식 비율 113

〈표 1-3-16〉 경제상황 만족도별 남북경제협력의 북한개혁개방 기여에 대한 긍정적 인식 비율 113
〈표 1-3-17〉 대북정책 주요 현안에 대한 동의나 찬성 비율 114
〈표 1-3-18〉 연령대별 개성공단 유지에 대한 찬성 비율 115
〈표 1-3-19〉 광역권별 개성공단 유지에 대한 찬성 비율 115
〈표 1-3-20〉 연령대별 남북합의 계승에 대한 동의 비율 116
〈표 1-3-21〉 광역권별 남북합의 계승에 대한 동의 비율 116
〈표 1-3-22〉 연령대별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찬성 비율 117
〈표 1-3-23〉 광역권별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찬성 비율 118
〈표 1-3-24〉 연령대별 북핵 해결 전 대북지원 중단 찬성 비율 118
〈표 1-3-25〉 광역권별 북핵 해결 전 대북지원 중단 찬성 비율 119
〈표 1-3-26〉 연령대별 정부의 대북 삐라 살포 차단에 대한 찬성 비율 120
〈표 1-3-27〉 광역권별 정부의 대북 삐라살포 차단에 대한 찬성 비율 120
〈표 1-3-28〉 연령대별 정부의 북한인권 문제 제기에 대한 찬성 비율 121
〈표 1-3-29〉 광역권별 정부의 북한인권 문제 제기에 대한 찬성 비율 121
〈표 1-3-30〉 교육수준별 정부의 북한인권 문제 제기에 대한 찬성 비율 122
〈표 1-3-31〉 정치성향별 정부의 북한인권 문제 제기에 대한 찬성 비율 123
〈표 1-3-32〉 한국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인식 123
〈표 1-3-33〉 연령대별 한국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찬성 비율 124

〈표 1-3-34〉 광역권별 한국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찬성 비율 124
〈표 1-3-35〉 정치성향별 한국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찬성 비율 125
〈표 1-3-36〉 최우선시 해야 할 바람직한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126
〈표 1-3-37〉 대북정책 만족도별 최우선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2014) 127
〈표 1-3-38〉 광역권별 최우선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2014) 127
〈표 1-3-39〉 최우선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별 대북지원에 대한 긍정적 인식 비율 128
〈표 1-3-40〉 최우선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별 남북합의계승 동의 비율 129
〈표 1-3-41〉 최우선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별 개성공단 유지 찬성 비율 129
〈표 1-3-42〉 최우선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별 금강산관광 재개 찬성 비율 130
〈표 1-3-43〉 최우선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별 북핵 해결 전 대북지원 중단 찬성 비율 131
〈표 1-3-44〉 최우선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별 정부의 대북 삐라살포 차단 찬성 비율 131
〈표 1-3-45〉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남한의 책임 인식별 최우선 대북정책 인식(2014) 132
〈표 1-3-46〉 최우선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별 북한과의 대화 가능 인식 비율 133
〈표 1-3-47〉 최우선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별 북한 변화 인식 비율 133
〈표 1-3-48〉 통일에 대한 인식별 최우선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134
〈표 1-4-1〉 다문화에 대한 태도 163
〈표 1-4-2〉 다문화 지향성과 수용성 164
〈표 1-4-3〉 다문화 지향성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2014) 166

〈표 1-4-4〉 다문화 우려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2014) 167
〈표 1-4-5〉 다문화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의 상관관계(2014) 168
〈표 1-5-1〉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국가 177
〈표 1-5-2〉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181
〈표 1-5-3〉 미국의 국가이미지 185
〈표 1-5-4〉 한반도 전쟁 시 미국의 태도 예상 186
〈표 1-5-5〉 중국의 국가이미지 187
〈표 1-5-6〉 한반도 전쟁 시 중국의 태도 예상 188
〈표 1-5-7〉 일본의 국가이미지 189
〈표 1-5-8〉 한반도 전쟁 시 일본의 태도 예상 190
〈표 1-5-9〉 러시아의 국가이미지 191
〈표 1-5-10〉 한반도 전쟁 시 러시아의 태도 예상 192
〈표 1-5-11〉 통일을 위한 주변국의 협조 필요성 193
〈표 1-5-12〉 북한과 미국의 가상월드컵 게임에서 응원할 팀 195
〈표 1-5-13〉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공조' 중 중요한 것 197
〈표 1-5-14〉 북중협력 강화에 대한 인식 198
〈표 2-6-1〉 통일의 필요성 208
〈표 2-6-2〉 통일에 대한 태도 209
〈표 2-6-3〉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 210

〈표 2-6-4〉 통일이 남한에 이익? 211
〈표 2-6-5〉 통일이 개인에 이익? 211
〈표 2-6-6〉 '통일 대박론' 에 대한 공감 여부 212
〈표 2-6-7〉 통일과 남한 민주주의 212
〈표 2-6-8〉 통일과 북한 민주주의 213
〈표 2-6-9〉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 215
〈표 2-6-10〉 북한과 대화 타협 가능 여부 216
〈표 2-6-11〉 북한 정권 통일 원할까 216
〈표 2-6-12〉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217
〈표 2-6-13〉 북한 핵무기 보유로부터 위협 217
〈표 2-6-14〉 바람직한 대북 정책 219
〈표 2-6-15〉 이전 정부의 남북한 합의 사항 계승해야 한다 220
〈표 2-6-16〉 구체적 대북 정책에 대한 태도 221
〈표 2-6-17〉 최근 남북한 관계 악화의 책임 소재 223
〈표 2-6-18〉 현 정부 대북 정책 만족도 224
〈표 2-6-19〉 계층별 지지 정당의 비율 226
〈표 2-6-20〉 계층별 이념 성향 227
〈표 2-6-21〉 박근혜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 227

〈표 2-7-1〉 통일대박론에 대한 성별 세대별 공감정도(2014) 239
〈표 2-7-2〉 성별·세대별 통일이익의 변화(2013, 2014) 241
〈표 2-7-3〉 성별·세대별 통일에 대한 견해(2007~2014) 243
〈표 2-7-4〉 성별·세대별 통일이유에 대한 견해(2014) 247
〈표 2-7-5〉 성별·세대별 통일이후 사회문제에 대한 견해(2014) 249
〈표 2-7-6〉 성별·세대별 북한정권에 대한 평가(2014) 251
〈표 2-7-7〉 성별·세대별 대북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2013, 2014) 253
〈표 2-7-8〉 성별·세대별 대북정책 및 대통령직무 만족도(2012~2014) 256
〈표 2-7-9〉 한국 현대사 주요 사건에 대한 평가 258
〈표 2-7-10〉 2007~2014년 성분행렬 259
〈표 2-7-11〉 민주적 가치 내면화 수준별 특성 263
〈표 2-7-12〉 민주적 가치와 통일에 대한 견해(2014) 266
〈표 2-7-13〉 민주적 가치와 통일 이유(2014) 267
〈표 2-7-14〉 민주적 가치별 통일과 남북한 민주주의(2014) 268
〈표 2-7-15〉 민주적 가치와 통일한국의 정치체제(2014) 270
〈표 2-7-16〉 민주적 가치와 대북인식(2014) 271
〈표 2-7-17〉 민주적 가치와 통일대박론(2014) 274

CONTENTS

그림 목차

〈그림 1-1-1〉 통일의 필요성 38
〈그림 1-1-2〉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 41
〈그림 1-1-3〉 통일의 추진 방식 44
〈그림 1-1-4〉 통일이 가능한 시기 48
〈그림 1-1-5〉 통일 편익에 대한 기대감: 남한사회와 개인 ('이익이 된다' 응답 추이) 51
〈그림 1-1-6〉 통일 이후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 ('개선될 것이다' 응답 추이) 57
〈그림 1-1-7〉 통일 대박론에 대한 공감도 59
〈그림 1-1-8〉 남한의 민주주의와 통일 62
〈그림 1-1-9〉 통일과 북한 민주주의의 관계 64
〈그림 1-1-10〉 통일한국의 체제 66
〈그림 1-2-1〉 남북한 관계 인식 75
〈그림 1-2-2〉 북한 '협력대상' 인식의 지역별 변화 추이 77
〈그림 1-2-3〉 연령대별 북한 '협력대상' 인식 78
〈그림 1-2-4〉 지역별 북한정권 신뢰도 82
〈그림 1-2-5〉 정치성향별 북한정권 신뢰도 84
〈그림 1-2-6〉 세대별 북한정권 신뢰도 84
〈그림 1-2-7〉 남북한 상호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88
〈그림 1-2-8〉 지역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89

〈그림 1-2-9〉 정치적 성향에 따른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90
〈그림 1-2-10〉 세대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91
〈그림 1-2-11〉 북한사회 인지도 92
〈그림 1-4-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142
〈그림 1-4-2〉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 동네이웃 145
〈그림 1-4-3〉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 직장동료 147
〈그림 1-4-4〉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 사업동업자 149
〈그림 1-4-5〉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 결혼상대자 151
〈그림 1-4-6〉 북한이탈주민 수용에 대한 견해 153
〈그림 1-4-7〉 북한이탈주민의 역할: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 156
〈그림 1-4-8〉 북한이탈주민 지원확대에 대한 태도 158
〈그림 1-4-9〉 북한이탈주민으로 인한 취업의 어려움 159
〈그림 1-4-10〉 북한이탈주민의 조직 내 경쟁의 필요성 161
〈그림 2-7-1〉 세대별 통일의 필요성(2007~2014) 237
〈그림 2-7-2〉 통일 필요성과 통일이익(2007~2014) 240
〈그림 2-7-3〉 통일에 대한 견해(2007~2014) 245
〈그림 2-7-4〉 통일 후 사회문제에 대한 전망(2007~2014) 248
〈그림 2-7-5〉 북한정권에 대한 평가(2007~2014) 250
〈그림 2-7-6〉 대북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 252
〈그림 2-7-7〉 대북정책 및 대통령직무 만족도 255
〈그림 2-7-8〉 2007~2014 성분도표(베리멕스 회전후) 260
〈그림 2-7-9〉 민주적 가치 '약', '중', '강' 분포의 변화(2007~2014) 261
〈그림 2-7-10〉 민주적 가치와 통일의식(2014) 265
〈그림 2-7-11〉 민주적 가치와 북한정권에 대한 인식(2014) 272
〈그림 2-7-12〉 민주적 가치와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2014) 273

2014 통일의식조사

서 장

서 장

해방 70주년을 앞둔 2014년은 박근혜 정부 2년차이자 북한 김정은 정권 3년차에 해당하는 해이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새로운 진전이 있으리라는 기대가 컸다. 신년 초 북한의 공동사설이 '북남관계의 개선'을 주장하였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통일대박론'을 피력하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전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실제로 2월에 고위급회담이 성사되고 추운 날씨에도 이산가족상봉이 이루어짐으로써 그런 기대감을 더욱 고조하였다. 하지만 그 불씨는 큰 동력을 얻지 못하였고, 남북관계는 긴장과 대립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201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되돌아볼 때 남북관계는 이전의 상태로부터 별로 개선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는 더욱 어려워진 모습이다.

그렇다고 2014년을 일방적인 상황악화의 해로만 서술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관계 자체의 호전은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남북관계의 향후 전망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화들이 나라 안팎에서 다양하게 진행되었고 그런 요인들을 한반도의 미래전망과 관련하여 새롭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당장 실현되지는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정책적 방향과 국내외 여론에 영향을 미칠 여러 조치나 계기들, 국제환경의

변화들을 역사변동의 긴 맥락과 호흡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 해의 남북관계를 정치현상을 중심에 둔 채 결과론적이거나 사후적으로 단순화하여 해석하는 것에서 벗어나, 사회저변과 국제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의미한 변화의 흐름들과 연관하여 정확하게 읽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2014년 남북관계는 몇 가지 특징적인 측면이 있다. 첫째, '통일대박'이라는 말에서 표현되는 바와 같이 한국정부와 사회에서 통일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1월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다" 라고 표현함으로써 많은 전문가와 국민들이 본격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3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은 드레스덴 선언을 통하여 이산가족상봉의 정례화, 모자보건 1,000일 패키지 사업, 남·북·중, 남·북·러 삼각협력 등을 제안했다. 7월에는 통일준비위원회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여 국내외 일각의 통일회의론이나 비용중심의 통일부담론을 극복하고 통일이 국가경쟁력의 상승, 남북한 주민의 상생과 행복 구현을 가져오는 긍정적 미래비전임을 환기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런 통일담론의 확대가 북한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남북관계를 전환시키는 동력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북한이 한국정부의 통일대박론의 내용이나 의도, 그 추진방식 등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까닭에 처음부터 관계개선의 동력을 얻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북한은 박근혜 정부의 드레스덴 구상에 대해 거부감을 매우 강하게 표시하였고 한국의 통일논의 전반을 흡수통일의 시도라고 비난하였다. 통일논의가 남북관계의 긴장심화로 이어지는 현실은 안타깝지만 남북

관계의 진전, 평화공존의 문제와 통일과정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준비가 절실함을 깨닫게 해준 계기이기도 하다. 또 통일방식과 관련하여 작은 신뢰, 작은 통일, 인도적 문제부터 점진적으로 통합수준을 높여가자는 입장과 보다 근본적인 정치군사적 문제로부터 접근하자는 입장 사이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새로운 지혜가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 북한의 핵무장, 경제개발 병진노선을 고수하려는 북한과 그 불가능성을 인지시키려는 한국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이처럼 통일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남북관계의 성격 자체에 대한 성찰이 요청된 상황이 2014년의 큰 특징이라 하겠다.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적 인식의 확산이다.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활동 결과가 보고서로 발표되면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한 대북압박이 한층 강화된 한 해였다. 국제사회의 대북인권결의안은 3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그리고 11월 유엔총회 제3위원회와 12월의 유엔총회에서 압도적 다수로 통과 되었다. 북한에 거주하는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지속적이고 전면적인 압박이 북한인권에 대한 전례없는 국제적인 관심을 환기하고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계속하여 무시하거나 항변하는 것으로만 일관할 수 없음을 점차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북한이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에서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의 근황을 방송을 통해 공개하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반응양식을 모색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에 대한 압박은 북한주민의 삶에 대한 정권

의 보호책임을 지적하고 '인권에 반한 죄' 에 대한 국제적 제재가능성을 논함으로써 북한체제의 성격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 제기의 중요성과는 별개로 이러한 압박이 현실적으로는 북한의 강한 반발을 야기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을 높일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북한은 국제사회의 압박에 대응하여 유럽과의 인권대화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거나 유엔총회에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외교활동을 펼치기도 하였지만, 대북인권결의안 통과를 미국의 적대적 정책의 소산이자 전쟁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응분의 대응을 호언하였다. 특히 이번의 결의안이 북한인권침해의 최고 책임자로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 법정에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반발과 긴장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에 소니사 제작 영화 '인터뷰' 해킹 사건의 배후로 북한이 지목되고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올릴 것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면서, 북미간의 긴장이 더욱 높아지는 형태로 이 해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셋째, 인적 교류 및 인도적 지원은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하였고, 그 상태에서 새로운 동력회복을 위한 민간단체의 여러 노력들 지속된 한 해였다. 이산가족 상봉이 2월 20일부터 22일, 23일부터 25일 사이에 금강산에서 이뤄졌던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한국 측 82가족, 북한 측 88가족이 상봉을 하여 마음에 맺힌 한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후 이상가족상봉의 정례화를 위한 제안이 몇 차례 오고 갔으나 결국에는 정치적 이유로 성사되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지만, 앞으로도 정책적 의지와 일정한 계기가 마

련되면 다시 논의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만든다. 드레스덴 선언은 인도적 지원과 북한 민생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다양한 교류와 지원의 확대가능성을 담고 있었지만, 북한의 거부와 정책추진의 신중함이 더해져 현실화되지는 못했다. 다만 9월 30일 한국 민간단체가 처음으로 내륙을 통한 수송으로 대북지원을 진행하면서, 남북 간 직접적인 인도적 교류를 위한 계기를 마련한 것은 향후 그러한 전환의 가능성을 기대하게 만든 사례라 하겠다.

인천아시안게임을 통해 남북 간 인적 접촉이 부분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 또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스포츠 교류는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이번 인천아시안게임에서 북한 선수단이 선전하고 그에 따라 북한 최고의 실세 3인방, 황병서, 최룡해, 김영건 등이 방남을 한 것은 주목할 일이다. 한국과 북한처럼 정치적 갈등이 첨예한 관계에서는 스포츠에 의한 인적접촉이 남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여는 데에 극적 효과가 있었다. 일찍이 1991년 일본에서 열린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활약한 남북단일팀이 선사한 감동은, 남북한 주민들의 마음의 통합이라는 차원에서 역사적인 것이었다. 단절된 남북관계가 개선되기 위해서 정치·군사 이외의 분야에서도 협력 가능성을 열어 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남북경협과 관련해서는 담론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특히 컸던 한 해라 하겠다. 통일대박론이 통일의 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논의되면서 통일이 남북한 모두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확산되었다. 당연히 남북 간 경제협력의 필요성, 개성공단의 역

할, 북한의 경제회복을 위한 국내외 투자 등이 논의되었다. 통일준비위원회에도 '경제분과' 중심으로 통일의 경제적 효과를 계량화하고 정책화하기 위한 노력을 보였다. 북한이 광범위하게 시장상황을 허용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라도 경제행위의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개선조치를 내린 것이나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투자유치를 적극 모색하는 등의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2013년에 우여곡절을 거쳐 재가동된 개성공단이 큰 문제없이 잘 운영됨으로써 남북경협의 거의 유일한 현장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2014년 한 해의 남북 간 경제협력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진전되지 못하였다. 개성공단의 재가동 이후 남북 간에 개성공단 국제화나 안정화를 위해 좀더 협력하기로 한 실무회담의 성과도 그다지 크지 않은 형편이다.

남북경협과 관련하여 가장 큰 현안은 역시 5.24조치의 존폐여부와 관련한 논란이었다. 2014년 한 해 동안 끊임없이 이 조치의 효과와 필요성을 둘러싸고 논의가 진행되었다. 경제 제재조치가 북한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 수단인 만큼 북한의 실질적인 선행조치가 없는 한 5.24조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대북압박효과보다는 남북경협에 참여했던 남한기업에게 결과적으로 피해를 가져오고 남북 간 경제협력의 가능성을 모두 북중교역으로 전환하여 장기적인 통일 전망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 온다는 주장이 계속 대립하였다. 정부 역시 일정한 개선조치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정책적으로는 유지 기조를 고수함으로써 남북경제협력의 동력은 크게 제약되었던 한 해였다. 부분적으로는 하산–나진을 경유하여 러시아의 석탄을 실어오는 물류협력이 가시화되고 남–북–러 3각협력구상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등 유연한 변화도 이루어졌다. 2015년에도 5.24조치의 지속 여부 및 남북경협의 동력회복방안이 중요한 관심사로 지속될 것으로 여겨진다.

다섯째로 2014년은 남북관계에서의 긴장과 갈등이 한국사회 내부의 남남갈등을 다시 심화시킨 한 해였다. 대표적으로는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남북간 갈등을 꼽을 수 있다. 북한정권의 3대 세습과 인권침해 실상을 알린다는 명분으로 대북전단 살포가 일부 탈북자 단체들을 중심으로 계속되었고 이에 대한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졌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이를 제지할 수 없다는 주장과 북한의 도발이 우려되는 안보의 위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제지를 촉구할 수 있다는 주장은 한국사회 내부의 이념적 논란과 연결되어 팽팽하게 대립했다. 실제 10월 10일 대북전단을 담은 풍선을 향해 북한에서 발사한 고사총탄이 경기도 연천지역에 떨어지면서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한 긴장이 심화되었을 뿐 아니라, 해당 지역주민과 탈북자단체 사이, 보수단체와 진보단체 사이의 설전과 대립이 부각되기도 하였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이 점차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지만 인권적 가치와 안보의 가치가 충돌하는 사안으로서 여론과 전략적 이익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이런 한국사회 내부의 갈등은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나 생각의 변화와 맞물려 있다. 2014년에 새로운 핵실험은 없었으나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은 반복되었고 4월 이후 경기도 파주와 백령도, 강원도 삼척 지역에서 발견된 비행물체가 북한이 운용하는 무인항공기로

밝혀지면서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한 논의도 나타났다. 북한인권문제가 국제적 사안으로 부각되면서, 국내에서도 북한사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부정적으로 변화하는데 일조했다. 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북한추종적 활동에 대한 검찰 수사, 통합진보당 해산청구를 둘러싼 헌법재판소 결정 등이 이어지면서 한국의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의 틀 속에서 북한과 북한체제를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통일의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 로 받아들이고 있는 남북관계에서의 특수성의 내용은 시기별로 달리 이해되어 왔다. 동포애와 형제애에 기초한 민족관계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또 다른 모습들, 즉 안보위협의 대상이라는 적대적 성격과 국제사회의 다른 주체라는 준주권적 성격을 한국사회가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가 큰 문제로 부각된 한 해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변화와 혼동의 바탕에는 국민들의 의식, 북한이나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깔려있다. 세계적으로 냉전적 인식틀이 완화된 상황에서도, 북한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적대성과 통일지향성은 이율배반적으로 한국 사회에 공존하고 있다. 북한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남북한 각각이 서로에게 특수한 외부적, 내부적 환경변수로 작동한다. 일상적인 관심사로 보면 경제문제, 일자리, 복지문제, 교육문제 등이 북한문제보다 더 앞서지만, 한국 국민들의 공동체적 삶의 전반, 정치행위의 영역, 미래전략의 방향, 국제적 공간감각 등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북한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 판단, 이해, 정서의 흐름은 매우 중요한 변수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지금 한국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 태도, 향후 교류

와 협력, 통일에 대한 생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일에 대한 담론을 더욱 활성화하고 실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이고 21세기 한국사회의 미래비전을 설정하고 정치의 질과 폭을 규정하는데 있어서도 주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국민들의 통일의식은 단지 정부의 정책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 한정되지 않고 북한의 중장기적 대남전략, 남북관계에의 대응양식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주변국가, 국제사회의 대한반도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매년 국민들의 통일의식을 조사하고 이를 심층 분석하여 그 추이와 지향, 태도와 정서를 확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책은 통일, 북한 및 남북관계에 대한 2014년도 국민들의 의식과 태도를 조사, 분석한 것이다. 이 조사는 매년 7월 말에서 8월 초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올해도 같은 시기에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조사가 실사되었다. 연례조사이기 때문에 격주 간 조사 혹은 월례조사보다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8년에 걸쳐 정기적으로 조사를 시행함으로써 보다 긴 시간의 축에서 장기적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즉 매년 동일한 시기에 조사하는 자료의 일관성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통일의식과 대북인식이 어떻게 달라지거나 유지되는지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개발에 활용하는 데 아주 유용하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 및 남북관계, 대외관계, 통일 등에 대 국민들의 집합적 태도나 인식은 쉽게 조사시점에 따라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례조사 자료의 타당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2007년부터 매년 거의 동일한 항목

으로 엄격한 조사방법에 입각한 종합적 의식자료를 얻음으로써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 지향이 해마다 어떻게 달라져 오고 있는지 그 추세와 경향, 흐름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제공되는 실증적 자료는 급변하는 상황에서 유의미한 정책을 구상하고 사회적 합의를 얻어내는 현실적 유용성 못지않게 유동적인 현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패턴을 확인하는 이론적 작업에도 도움이 된다. 나아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연구진은 가치와 제도, 개인과 공동체, 민족과 세계, 정치와 경제 등 한국사회를 가로지르는 다양한 지향들의 결합양상, 심층적 가치체계와 집단정서를 확인하는 종합적 연구에서 이 자료를 유용하게 활용하기를 희망한다. 이 조사는 매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약 3주 동안 1대1 개별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다. 통일문제와 관련된 국내외 상황의 변화에 따라 조사문항이 신설이 요구되지만, 해마다 정기적인 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축적하고 통일과 북한, 주변국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변화를 통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조사의 내용과 항목이 일관적일 필요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모든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지만 쟁점적 이슈에 대해서 소수의 문항만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 있다. 기본적인 원칙은 조사문항의 기본적 틀을 크게 바꾸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다. 다만 2014년 상반기 한국사회의 화두였던 통일대박론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종합적 통일정책 인식과 평가에 대한 조사문항을 추가하였다.

2014 통일의식조사의 내용은 다른 해와 마찬가지로 크게 다섯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다섯 부문은 구체적으로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북한에 대한 인식과 태도,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북한이탈주민

에 대한 태도,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다. 첫 번째 부문은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통일의 필요성과 그 이유,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대북정책들의 현실적 효과에 대한 평가 및 태도, 남북관계 현안들의 시급성, 통일이 남한 전체 혹은 응답자 개인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인지에 대한 평가, 통일이 남북한의 정치발전에 미치는 영향, 통일대박론에 대한 공감의 정도 등과 관련된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부문은 북한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련된 질문들로 이루어져 있다.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지에 대한 질문을 비롯하여 북한 정권의 신뢰성과 통일에 대한 태도, 북한의 변화 가능성, 그리고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등에 대한 물음이 포함되어 있다. 또 응답자가 북한과 관련된 지식 정보와 경험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남북한의 차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보유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등도 조사하였다. 또한 김정은 정권이 향후 안정될 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도 조사하고 있다.

세 번째 부문은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및 태도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대북 지원 정책이 북한주민의 생활개선에 미치는 영향과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질문들이 포함되었다. 개성공단의 지속 여부, 금강산 관광의 재개 문제, 대북 지원의 북핵 연계, 대북 삐라 살포문제, 북한인권 문제 등 구체적인 정책 사안에 대한 평가 문항도 이 부문의 주요 조사항목이다.

조사의 네 번째 부문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및 태도이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친근감과 이들과의 관계 형성에 대한, 북한이탈

주민의 수용에 대한 견해와 이들이 남한 사회에서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정부의 정책에 대한 견해 등을 포괄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와 다문화 수용성과 포용성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문항들도 계속 조사에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부문은 국제관계에 대한 인식으로, 주로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한반도 주변국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적 위상이 무엇이며 이 국가들이 한국인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이해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이들 주변 4대 강국이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에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 그리고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입장이나 각국의 협력 태도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있다. 남북교류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북중관계가 밀접해지는 것을, 우리 국민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작업니다.

이상과 같이 설문조사의 근간을 이루는 다섯 가지 영역이외에도 통일의식조사는 기초적 배경변수로서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조사하고 있다. 기초적 배경변수로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소득수준, 거주지역, 결혼여부, 종교, 정치성향을 조사하여서 다양한 교차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인구학적 배경변수는 주요 항목에 대한 기초 교차분석, 심층 분석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활용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통일의식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위한 여러 가지 기타 변수를 포함했는데, 그 질문들은 주로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것이다. 해방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한 질문과 현재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현실 등에 대한 질문들이 있다.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만족도,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남한사회의 민주주의 수준, 한반도의 전쟁 발발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평가, 북한을 국가로 인식하는지 여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응답자들의 정당지지도 또한 함께 조사하고 있다.

2014년 통일의식조사는 2014년 7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21일 동안 실시하였다. 조사의 모집단은 전국 16개 시도(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제주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 남녀 전체였다. 세종특별자치시는 독자적인 행정구역이지만 인구가 적어 충청남도의 권역에 포함하였다. 모두 1,200명을 유효표본으로 실시된 이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고 ±2.8%이다. 표본추출은 다단층화무작위추출법(multi-stage stratified sampling)을 이용하였다. 표본추출은 통계청의 2013년 5월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조사 표본을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배분하고 난 후, 해당 층 내에서 존재하는 전화번호 리스트를 무작위 추출하였다. 인구비율이 낮은 제주도와 강원도는 우선적으로 충분한 통계분석이 가능할 만큼 우선 할당을 하고, 나머지 지역은 인구비율에 따라 표본할당이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이루어졌으며,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이용한 1대1 개별면접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면접 시행에 앞서 실사책임자(supervisor)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소속 전문 면접원 중 적격자를

선발하였다. 이렇게 선발된 면접원들은 조사방법과 조사내용에 대해 두 시간의 오리엔테이션과 두 차례에 걸쳐 사전 연습 면접을 받았다. 이 과정을 통해 조사 방법과 질문지 내용에 익숙하게 하고 문제점을 미리 발견하고 지적함으로써 비표본 오차(non-sampling error)를 최소화하고 또 면접과정의 표준화(standardization)를 시도하였다. 면접원은 면접 중 발생할 수 있는 우발상황에 대한 대처법도 포괄적으로 교육받았다. 담당연구원 및 실사책임자는 매일 회수된 질문지에 대해서 면접원 입회 하에 검토하였으며, 문제점 발견 즉시 면접원 교육을 행하는 품질 통제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오차를 줄이고자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완성된 질문지 중 30% 이상을 무작위 추출, 응답자에게 전화를 걸어 면접내용을 검증하여 응답의 허위기재, 조작이 발견될 경우 해당 면접원이 조사한 질문지 전체를 무효로 하고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원자료는 편집(editing), 코딩(coding), 입력(punching) 과정을 거쳐 통계패키지인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버전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전산처리를 하였다. 질문항목별 기본 빈도는 이 책의 부록에 수록되어 있으며,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가구소득, 지역, 정치적 성향, 종교 등의 배경 변수와의 교차분석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부록에 제시된 통계는 가중치가 적용된 것이며, 본문에서는 경우에 따라 교차분석 등을 위하여 문항별 가중치가 아닌 원자료를 활용하기도 한다. 서울대학교 통일의식조사의 원자료는 1년 후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을 통하여 설문지, 코드북과 함께 제공되고 있다.

2014 통일의식조사

제1부 기초분석

제1장 통일에 대한 인식

제2장 북한에 대한 인식

제3장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제4장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제5장 주변국과의 관계 인식

제1장

통일에 대한 인식

올해는 어느 때보다 통일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과 시도들이 도드라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1월 내외신 기자회견에게 '통일은 대박이다' 라는 주장을 내세워 통일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주도했다. 이후 통일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구상과 정책은 봇물처럼 쏟아졌다. 2월 취임 1주년을 맞아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박 대통령은 "한반도에 통일의 역사적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통일을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 고 주장하며, 대통령 직속의 통일준비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공표했다. 이후 3월 박근혜 대통령은 독일을 방문하여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드레스덴 선언' 을 발표했다. 이 선언을 통해 박 대통령은 인도적 문제 우선 해결, 북한지역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한 주민 동질성 회복을 골자로 한 세 가지 사항과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북한에 제안했다. 7월 15일에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관의 주요 인사 50명으로 조직한 통일준비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였다.

하지만 남북관계는 '5.24' 틀에 갇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않은 채 답보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나마 9월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폐막일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북한 고위급 인사의 깜짝 방문으로 남북관계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한때 고조되기도 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대북 전단지 살포 문제로 인해 뜻하지 않게 남북한 교전이 발생했고, 이어 서해 NLL 인근에서는 다시 남북한 함정 간의 교전이 발생했다. 이처럼 불안정한 남북관계의 현실은 국민들의 통일 인식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 통일의식조사는 앞서 거론된 정부의 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과 시도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평가를 측정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정부 주도의 통일 공론화 노력이 국민 통일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가 주목된다.

이 장에서는 2014년 통일의식조사에서 나타난 통일의 필요성과 이유, 통일시기의 기대와 추진속도, 통일사회에 대한 사회적·개인적 이해관계, 통일 이후 주요 사회문제들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 통일과 민주주의의 관계, 통일한국의 희망체제, 그리고 올해 조사에 새롭게 추가된 통일대박론에 대한 공감도에 대해 기초적인 분석을 한다. 그리고 이 장에서는 통일의식조사가 시작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년에 걸친 통일의식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 시계열적으로 어떤 변화와 특징을 나타내는가를 분석하는 데 주목한다.

1. 통일의 필요성과 이유

1) 통일의 필요성

2014년 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는 26.9%, '약간 필요하다'는 28.9%로, 이 둘을 합친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은 55.8%였다. 반면에 '반반 또는 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22.5%, '별로 또는 전혀 필요없다'는 응답은 21.7%였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율은 전년대비 1%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압도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더욱이 연초부터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주창했고, 주요 종합일간지들에서 '통일' 관련 연속 기획보도들을 쏟아내며 사회적으로 통일 분위기를 띄우려고 노력했던 것에 비해 상승폭은 크지 않다.

〈그림 1-1-1〉에서 보이듯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률은 통일의식조사가 처음 실시된 2007년 63.8%에서 2008년 51.6%로 급락한 이후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08년~2014년 5년 동안 한 번도 60% 이상을 넘지 못하였다. 그리고 2009년부터 5년 연속 등락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통일이 필요없다'는 인식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올해 처음 전년대비 2% 감소하였다. 정부나 언론매체들이 통일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이 비록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는 인식을 크게 증가시키지 못했지만 통일에 대한 회의적 인식을 감소시킨 점에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사결과를 하위 집단별로 살펴보면, 우선 성별에 따른 응답률의 차이가 지난해 조사에 비해 줄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통일이 필요하다' 고 응답한 남성은 61.9%, 여성은 49.6%로 성별 격차가 12.3%p였다. 지난해에 성별 격차가 17.3%p였던 데 반해 크게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서 통일에 대한 회의적 인식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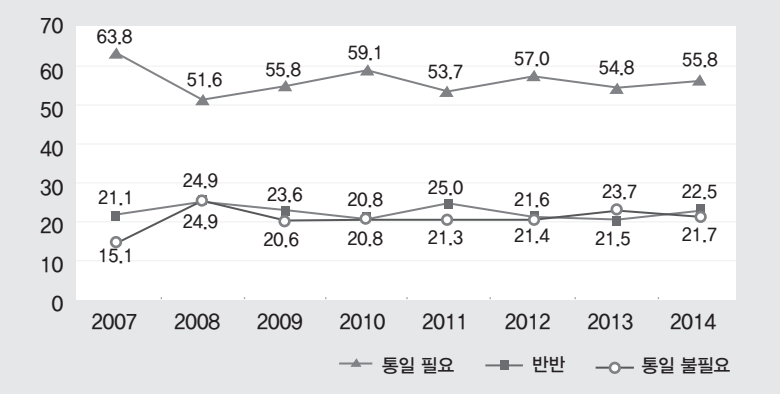
연령별로는 지난 몇 년간 나타난 현상과 마찬가지로 젊은 세대일수록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응답률이 낮은 양상은 유지하고 있으나, 올해 조사에서는 가장 젊은 연령집단인 19~29세 연령에서 전년 대비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소폭 증가하고, 반면에 30대와 40대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감소했다. 19~29세 연령대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지난해 40.4%에서 올해 43.1%로 증가했다. 반면에, 30대에서는 2013년 51.6%에서 2014년 50.3%로, 40대에서는 2013년 60%에서 2014년 56.5%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감소했다. 하지만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2013년 62.7%에서 2014년 67.8%로 상대적으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크게 증가했다. '통일 대박' 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IMF 외환 위기의 직접적인 피해 연령층인 30, 40대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감소했다는 것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흥미로운 것은 '통일이 필요없다' 라는 응답률에서 나타난 전년대비 연령대별 변화이다. 20대와 30대에서는 통일이 필요없다는 응답률이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반면, 40대와 50대 이상에서는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대의 경우 2013년 29.2%→2014년 32.6%, 30대의

경우 2013년 22.2%→2014년 25.3%, 40대의 경우 2013년 24.3%→2014년 18.1%, 50대 이상의 경우 2013년 20.5%→2014년 14.9%로 나타났다.

〈그림 1-1-1〉 통일의 필요성

(단위: %)



지역별 분포를 보면, 영남권(50.1%)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평균 응답률 55.8%보다 높게 나타났다. 올해 조사의 결과에서 특징적인 것은 지난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던 호남권(59.7%)을 제치고 강원도(60.9%)와 충청권(60.6%)의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특히 전년 조사에서는 북한지역과 군사분계선을 맞닿고 있는 강원 지역의 응답자들 사이에서 통일에 대한 회의감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올해 조사에서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률이 크게 증가하여 큰 변동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강원 지역의 경우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2013년 51.4%에서 2014년 60.9%로 나타났다.

직업별 응답분포를 비교해보면, 블루칼라 집단과 화이트칼라 집단

간의 대조적인 응답률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블루칼라의 경우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9.6%인 데 반해, 화이트칼라의 경우는 61%로 두 집단 간 응답률의 격차가 10%p 이상 나타난다. 농수산축산업의 경우 77.3%로 가장 높고, 자영업의 경우 58.7%, 전업주부 56.2%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는 직업별 응답률 중 블루칼라의 응답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통일에 의해서 남북한 노동시장이 통합될 경우 남한지역의 블루칼라가 가장 위기감을 느낄 수 있음을 반영한다.[1)]

2) 통일의 이유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로 '같은 민족이니까' 라는 응답률은 42.4%로 전년대비 2.1% 증가했다. 지난 8년간의 조사 결과 추이를 보면, '같은 민족이니까' 의 응답률은 2007년 50.6% → 2008년 57.9% → 2009년 44.0% → 2010년 43.0% → 2011년 41.6% → 2012년 45.9% → 2013년 40.3% → 2014년 42.4%로 변화했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률 양상과 마찬가지로 통일의 이유 응답률 역시 2007년부터 8년 연속 등락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2009년에 50%대에서 40%대로 급락한 이후 한 번도 50%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두 번째로 응답률이 높은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 라는 응답의 비율은 26.9%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지난 8년간의 변동

1) 다른 설문 문항들 중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 라는 응답과 '통일 이후 실업문제가 개선될 것이다' 라는 응답에서 블루칼라 집단이 공통적으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나타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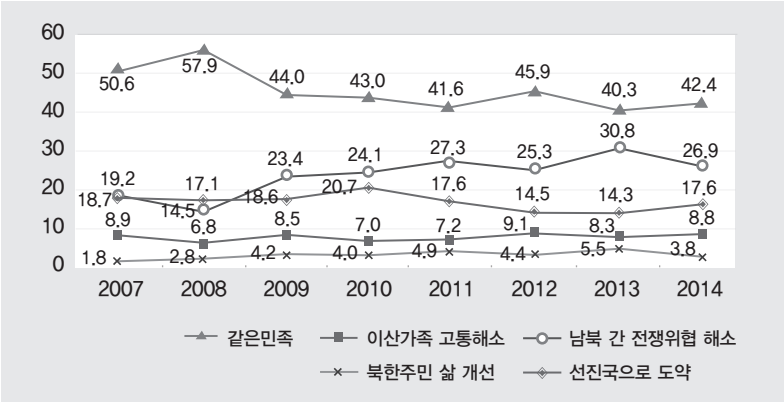
추이를 보면, 2007년 19.2%→2008년 14.5%→2010년 24.1%→2011년 27.3%→2012년 25.3%→2013년 30.8%→2014년 26.9%로 2010년 이후 4년 연속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내다 올해 다시 감소했다.

다른 한편,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의 응답률은 17.6%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했다.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주기 위해' 의 응답률은 8.8%로 전년에 8.3%였던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의 응답률은 3.8%로 전년의 5.5%에서 더 하락했다.

흥미로운 변화는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통일이 되어야한다는 응답률이 2010년을 정점으로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였는데, 올해 다시 증가했다는 점이다. 8년간의 변화 추이를 보면, 2007년 18.7%→2008년 17.1%→2009년 18.6%→2010년 20.7%→2011년 17.6%→2012년 14.5%→2013년 14.3%→2014년 17.6%로 나타났다. 올해의 상승 원인은 연초부터 대통령이 '통일이 대박이다' 라고 주창하고, 일부 주요 언론매체들이 통일로 인해 발생할 편익을 강조하는 기획보도들을 연속해서 발표하면서 '통일 한국' 과 '선진국' 과의 결합성이 공감대를 형성한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후술할 '통일 편익에 대한 기대감' 이나 '사회문제의 개선 기대감' 에서도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정부와 일부 언론매체의 통일 여론 형성의 노력과 시도들이 일정 부분 통일 인식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1-2〉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

(단위: %)



성별 응답분포를 보면, 남성은 '남북한 간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나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와 같은 실용주의적 항목에 대한 응답률이 여성의 응답률에 비해 높다. 반면에, 여성의 경우는 '같은 민족이니까' 나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 , 그리고 '북한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과 같이 민족 동질감이나 인도주의적 항목에 대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연령별 응답분포의 특징을 보면, 19세~29세의 경우는 '남북한 간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 에 민감하고, 30대의 경우는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의 경우는 '같은 민족이니까' 를 중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같은 민족이니까' 응답률 분포는 20대 39.1%, 30대 37.6%, 40대 43.5%, 50대 이상 46.2%로 나타났다. 민족동질성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연령대 간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남북한 간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 응답률은 20대

31.8%, 30대 26.3%, 40대 26.6%, 50대 이상 24.6%로 젊은 층일수록 통일과 안보 문제의 결합성이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응답률은 20대 15.5%, 30대 22%, 40대 17.2%, 50대 이상 16.1%로 30대의 응답률이 도드라진다. 지난해 응답률과 비교했을 때 모든 연령층에서 응답률이 증가했지만, 특히 30대의 증가폭이 가장 크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 조사에서는 지역별 응답분포의 변화가 눈에 띈다. '같은 민족이니까' 의 응답률이 높은 지역은 호남권(50.7%)과 영남권(48.5%) 순서로 나타났고,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주기 위해' 의 응답률은 강원이 20.5%로 다른 지역들의 응답률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남북한 간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 의 응답률은 제주도를 제외하고 강원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영남권과 호남권에서 낮게 나타났다.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의 응답률은 지역 간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정치적 성향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올해에는 지난해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에 '같은 민족이니까' 의 응답률에서 보수 성향의 응답자보다 진보 성향의 응답자가 더 많았지만 올해 다시 역전 현상을 나타났다. 예년과 비슷한 양상대로 보수 성향의 응답률이 49.7%, 진보 성향의 응답률이 36.7%로 두 진영 간의 응답률 격차가 10% 이상 벌어졌다. 대신에 진보 성향의 응답자에서는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서' 의 응답률과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의 응답률이 각각 31.3%와 20.0%로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하였다. 반면에 보수 성향의 응답자에서는 두 응답률 각각 21.5%와 16.5%로 전년대비

모두 감소했다. 중도 성향의 응답자의 경우는 '같은 민족이니까' 41.6%,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16.8%로 전년대비 모두 상승했고,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 응답률이 27.0%로 전년대비 감소했다.

2. 통일의 추진 방식과 가능 시기

1) 통일의 추진 방식

지난 8년간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통일의 과정과 추진 속도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은 비교적 안정적인 양상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 10명 중 6명은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는 견해를 갖고 있다. 이 응답률의 추이는 2007년 70.6%→2008년 64.8%→2009년 68.3%→2010년 67.0%→2011년 66.9%→2012년 65.1%→2013년 61.8%→2014년 61.0%로 나타나며, 2009년 이후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부동의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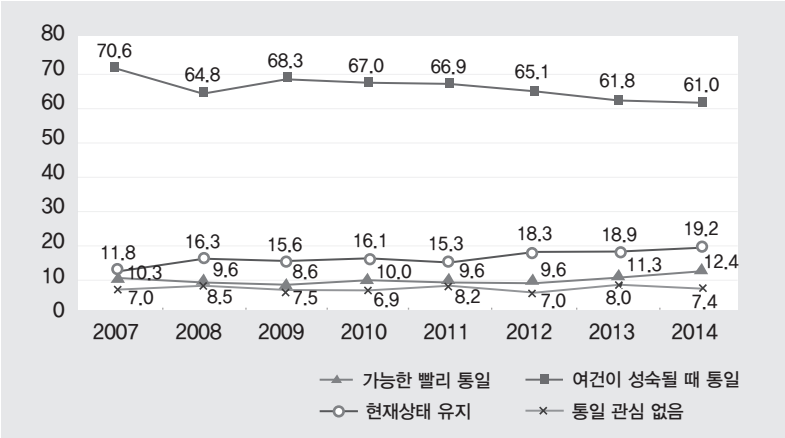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응답은 '현재 상태가 좋다' 로, 응답률 추이는 2007년 11.8%→2008년 16.3%→2009년 15.6%→2010년 16.1%→2011년 15.3%→2012년 18.3%→2013년 18.9%→2014년 19.2%로 나타나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다. 특히, 올해 응답률은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은 응답률로 20%에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 는 통일지상주의 입장 역시 대체로 10% 안팎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응답률의 추이를 보면, 2007년 10.6%→2008년 9.6%→2009년 8.6%→2010년 10.0%→2011년 9.6%→2012년 9.6%→2013년 11.3%→2014년 12.4%로 조사 시작 이래로 올해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다' 는 응답률은 큰 변화 없이 7~8% 수준의 응답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 응답률의 추이는 2007년 7.0%→2008년 8.5%→2009년 7.5%→2010년 6.9%→2011년 8.2%→2012년 7.0%→2013년 8.0%→2014년 7.4%로 나타났다.

〈그림 1-1-3〉 통일의 추진 방식

(단위: %)



이상의 서술에서 나타난 응답 양상의 안정성으로 보아 우리 사회에서는 통일의 추진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대체로 이뤄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다수 국민은 통일을 시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리는 점진적 태도를 선호하고 있으며, 통일 대신에 분단된 상태에서의 '공존' 을 더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분석 결과로서 앞서 살펴본 통일의 필요성에 관한 설문 문항과 통일의 추진 속도에 관한 설문 문항을 교차 분석 해본 결과,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표 1-1-1〉에서 보이듯, '현재 상태가 좋다' 고 응답한 사람들 가운데 '통일이 필요없다' 고 응답한 비율이 56.5%로 나타났으며, '통일에 관심이 없다' 고 응답한 사람들 가운데 '통일이 필요없다' 고 응답한 비율은 61.8%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능한 빨리 통일하는 게 좋다' 고 응답한 사람들의 경우 89.9%가 '통일이 필요하다' 고 응답했으며, '통일을 서두르기보다는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고 응답한 사람들의 경우 67.6%가 '통일이 필요하다' 고 응답했다. 따라서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표 1-1-1〉 통일의 추진 방식과 통일의 필요성 문항 간 교차분석(2014)

(단위: %)

구분	가능한 빨리 통일	여건이 성숙 될 때 통일	현재 상태가 좋다	통일에 관심없다
통일이 필요하다	89.9	67.6	12.1	14.6
반반/그저그렇다	6.0	23.0	31.3	23.6
통일이 필요없다	4.0	9.4	56.5	61.8

성별 응답분포를 보면 예년과 마찬가지로, '가능한 빠른 통일' 에 대한 응답률의 경우 남성은 14.8%, 여성은 9.3%로 성별 응답률의 격차가 여전히 크다. 하지만 작년과 비교했을 때 소폭 격차가 감소했다. 반면에 '현재 상태가 좋다' 는 응답률은 여성 22.4%, 남성 16.9%로 앞의 항목과 대조적인 결과를 보인다. 나머지 항목에서는 성별간 큰 격차가 없이 비슷한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 응답분포를 살펴보면 연령층이 높을수록 가능한 빠른 통일을 바라는 견해가 많고, 연령층이 낮을수록 현재 상태가 좋다는 견해의 비중이 많이 나타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가능한 빠른 통일' 의 경우 20대 7.2%, 30대 8.0%, 40대 10.8%, 50대 이상 19.2%로 나타났으나, 반대로 '현재상태가 좋다' 의 경우는 20대 28.2%, 30대 19.9%, 40대 18.2%, 50대 이상 14.8%로 나타났다. 또한 통일에 관심이 별로 없다는 응답은 30대(10.2%)에서 가장 많았으며, '통일의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는 응답은 40대(67.0%)에서 가장 많았다.

지역별 응답분포는 전년과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보였다. 가능한 빠른 통일을 바라는 응답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호남권이 22.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으나, 올해에는 충청권 응답률이 15.2%로 전년에 9.3%였던 데 비해 크게 증가했다. 그리고 군사분계선이 맞닿아 있고 남북관계 문제에 민감한 강원 지역 역시 가능한 빠른 통일을 원하는 응답률이 10.8%로 전년에 2.9%에서 크게 올랐다.

반면, 현재상태가 좋다는 응답은 영남권이 22.7%로 가장 높았고, 수도권이 21.0%로 뒤를 이었다. 통일의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기다려

야 한다는 응답의 경우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역시 강원지역이 71.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정치적 성향별 분포를 비교해보면, 전년과 매우 대조적인 변화를 보였다. 보수 성향의 응답자 경우 어떤 댓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률이 2013년 7.8%에서 2014년 16.7%로 크게 증가하였다. 현재상태가 좋다는 응답률은 2013년 26.3%에서 2014년 16.3%로 크게 감소했다. 진보 성향의 응답자의 경우는 어떤 댓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률이 2013년 11.8%에서 2014년 14.5%로 증가했고, 또한 현재상태가 좋다는 응답률은 2013년 14.5%에서 2014년 21.2%로 크게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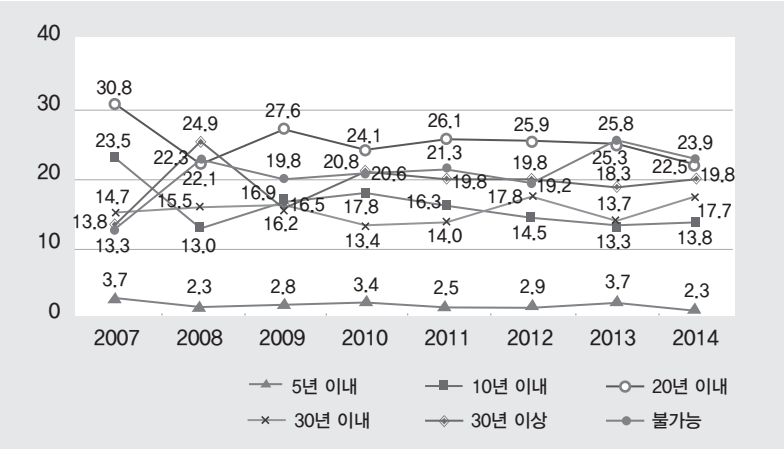
2) 통일의 가능 시기

최근 몇 년 동안 '통일준비론' 또는 '통일대박론' 과 같은 담론이 형성되면서 통일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통일의 예상 시기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북한의 급변사태설이나 통일준비론은 마치 통일이 멀지 않은 장래에 실현될 것 같은 인상을 준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통일이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생각할까. 올해 조사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통일이 불가능하다' 는 응답률이 2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년 연속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 통일에 대한 회의적 분위기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 구조적인 인식으로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을 제외하고 응답률 순서가 지난해와 일치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역시 응답률이 높은 순서가 '20년 이내' (22.5%)> '30년 이상' (19.8%)> '30년 이내' (17.7%)로 우리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통일을 먼 장래에 가능한 일로 생각하였다. 반면에, '5년 이내' 에 가능하다고 보는 응답은 작년보다 줄어 2.3%에 불과하고, '10년 이내' 에 가능하다고 보는 응답 역시 13.8%로 작년 조사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상에서 언급된 결과를 토대로 종합해보면, 우리 국민들은 대체로 통일이 단기간 내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기보다는 먼 훗날의 일이거나 아니면 아예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는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1-1-4〉 통일이 가능한 시기

(단위: %)



그렇다면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응답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좀 더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성별로 보면 지난해에 여성 응

답률 31.8%, 남성 응답률 19.9%로 큰 격차를 보였는데, 올해에는 여성 응답률 25.3%, 남성 응답률 21.7%로 성별 간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다. 1년 사이에 여성이 남성에 비해 통일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컸음을 의미한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많았다. 구체적으로, 19~29세 30.5%, 30대 23.5%, 40대 22.6%, 50대 이상 19.6%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응답률이 가장 높은 20대(28.4%)와 가장 낮은 40대(23.9%) 간의 응답률 격차가 5%p 미만으로 그다지 크지 않았던 데 비해 올해에는 응답률이 가장 높은 20대와 가장 낮은 낮은 50대 이상의 응답률 격차가 10.9%p로 두 배 이상 커졌다. 그만큼 통일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연령대별 또는 세대 간 인식의 격차가 커졌음을 시사한다.

지역별 응답분포를 보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영남권(28.5%)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지난해 8.6%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던 강원지역은 올해에는 25.0%로 크게 증가하였다. 오히려 올해에는 충청권이 16.1%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의 정치 성향별 분포는 지난해와 매우 상반되는 변화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보수적 성향의 응답률이 33.6%였던 데 반해 올해에는 23.5%로 10%p 감소하였다. 반대로 진보 성향의 응답률은 지난해 18.9%에서 올해 20.7%로 증가했다. 중도적 성향의 응답률은 지난해 25.7%에서 올해 24.9%로 소폭 감소했다. 결과적으로, 올해에는 보수 성향의 응답자 가운데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3. 통일 편익에 대한 기대

1) 통일의 이익 기대감: 개인과 공동체

"통일이 남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55.9%가 '이익이 된다' 고 응답해 지난해 응답률 48.6%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 응답률은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이다. 구체적으로 지난 8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 55.8%→2008년 47.5%→2009년 53.2%→2010년 53.5%→2011년 50.7%→2012년 51.6%→2013년 48.6%→2014년 55.9%이다.

또한, "통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27.1%가 '이익이 된다' 고 응답해 지난해 응답률 21.8%보다 높아졌다. 8년간의 응답률 추이는 '개인적 이익 기대감' 은 2007년 30.3%→2008년 27.7%→2009년 23.9%→2010년 24.8%→2011년 27.8%→2012년 26.0%→2013년 21.8%→2014년 27.1%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 통일이 가져다줄 개인적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조사 이래 가장 낮았었는데 1년 만에 예년 수준으로 다시 회복됐다.

〈그림 1-1-5〉 통일 편익에 대한 기대감: 남한사회와 개인('이익이 된다' 응답 추이)

(단위: %)

올해에 통일 편익에 대한 집단적 이익과 개인적 이익 모두에서 기대감이 상승한 데는 연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 라고 언급하고, 이어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통일 대박' 을 지지하는 사업들이 다양하게 진행되면서 형성된 공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표 1-1-2〉에서 보이듯, 통일 편익에 대한 기대감과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에 대한 공감도를 교차분석 해본 결과, 통일대박론에 공감하는 응답자는 통일 편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고, 반대로 통일대박론에 공감하지 않는 응답자는 통일 편익에 대한 기대감이 낮게 나타났다.

〈표 1-1-2〉 통일 편익 기대감과 통일대박론 공감도의 교차분석

(단위: %)

통일대박 공감도 / 통일편익 기대감	매우 공감됨	대체로 공감됨	보통	별로 공감안됨	전혀 공감안됨
남한사회 이익	82.9	67.4	53.0	46.6	39.8
개인 이익	55.4	39.0	24.2	14.4	21.7

다른 한편, 올해에 통일 편익에 대한 집단적 이익과 개인적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모두 상승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으나, 양자 간의 격차가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더 커졌다는 점에서는 우려된다. 구체적으로 지난해에는 남한 전체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 간의 기대감 격차가 26.8%p였던 데 반해, 올해에는 28.7%p로 늘어났다. 따라서 〈그림 1-1-5〉에서 볼 수 있듯이 '남한사회의 이익 기대감' 과 '개인의 이익 기대감' 간 응답률 격차가 가장 컸던 2009년(29.3%p) 이래로 양자 간의 격차는 조금씩 좁혀지는 추세였으나 박근혜 정부 이후에 다시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통일이 남한 사회라는 집합적 차원에서는 이익이 될 수 있겠지만 개인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은 한편으로는 통일에 대한 개인적 유인책이 매우 약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양자의 격차만큼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국가와 사회 간의 인식 차이로 인해 갈등이 수반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공동체의 목적을 위해서 개인적 이익을 무조건 복종시키는 권위주의적 방식이 아니라면 통일이 남한사회 전체의 이익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통일정책의 일환이 될 것이다.

통일편익 기대감에 대한 하위집단별 분포를 살펴보면, 먼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남녀 간 성별 격차가 여전히 크다. 남한사회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 모두에서 남성 응답률은 각각 60.2%와 32.0%로 여성 응답률 50.5%와 21.1%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성별 간 격차가 남한사회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 모두에서 10%p 정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응

답 양상은 2007년 이래 8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지난해와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연령이 낮을수록 통일로 인한 기대감이 높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통일로 인한 기대감이 낮았던 데 반해, 올해에는 연령이 낮을수록 기대감이 낮고, 연령이 높을수록 기대감이 높아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남한사회의 이익이 기대된다는 응답률은 20대 46.6%, 30대 50.8%, 40대 60.0%, 50대 이상 60.9%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인적 이익 기대감' 의 응답률은 약간의 변화가 있다. 개인의 이익이 기대된다는 응답률은 20대 26.2%, 30대 25.8%, 40대 24.4%, 50대 이상 29.4%로 나타나, 지난해에는 40대(24.9%)가 가장 응답률이 높았던 반면에 올해에는 50대 이상의 응답률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변화가 주목된다. 이렇듯 1년 사이에 연령층 간의 큰 변화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추가로 요구된다.

교육수준별 응답분포를 보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통일 편익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통일 편익에 대한 기대감이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수준별 집단 간 격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올해 조사 결과에서 주목되는 변화는 대학교 이상의 응답률은 전년 대비 큰 변화가 없는 반면에, 중졸 이하와 고졸의 응답률은 전년 대비 모두 크게 상승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남한사회의 이익이 기대된다는 응답의 경우 중졸 이하는 49.1%(2013년 36.8%), 고졸 55.5%(2013년 45.6%), 대학교 이상 56.3%(2013년 55.6%)로 나타났다. 개인의 이익이 기대된다는 응답의 경우 역시 중졸 이하는 23.9%(2013년 14.0%), 고졸 23.7%(2013년

19.1%), 대학교 이상 25.5%(2013년 26.5%)로 나타났다. 이처럼 교육수준이 낮은 응답자들이 높은 응답자들에 비해 통일 편익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은 통일이 될 경우 남북한 노동시장이 통합될 경우, 북한주민보다 더 경쟁력 우위에 있기 때문에 취업의 기회가 확대되거나 경제적 지위가 더 향상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대학교 이상의 응답자의 경우는 노동시장의 확대에서 오는 이익보다는 통일로 인해 발생할 분담금의 증가를 더 우선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직업별 응답분포의 결과는 교육수준과는 상이한 응답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화이트칼라 직종에,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블루칼라 직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교육수준에서 나타난 응답패턴과 달리 블루칼라의 직종에 종사하는 응답자의 경우 통일편익에 대한 기대감 수준이 낮고, 반대로 화이트칼라의 직종에 종사하는 응답자의 경우 기대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한사회의 이익이 기대된다는 응답의 경우 블루칼라 응답률은 54.1%, 화이트칼라 응답률은 60.7%로 나타났으며, 개인의 이익이 기대된다는 응답의 경우 역시 블루칼라 응답률은 26.7%, 화이트칼라 응답률은 31.2%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결과 역시 통일로 인해 남북한의 노동시장이 통합될 경우 블루칼라의 직종 경우 저임금의 북한주민이 더 우위에 있는 반면에, 화이트칼라의 직종 경우에는 전문성 측면에서 남한주민이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통일편익에 대한 직종 간 기대수준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남한사회의 이익 기대감에서는 제주 68.5%>호남권 66.7%>강원 66.3%>수도권 54.5%>충청권 54.4%>영남권 51.8%로 나타나 지난해의 결과와 매우 다른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에는 호남권의 응답률(62.3%)이 가장 높고, 강원지역의 응답률(42.9%)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개인적 이익 기대감' 의 응답분포는 제주 43.2%>호남권 35.7%>충청권 30.7%>강원 30.0%>수도권 25.1%>영남권 23.6%로 나타나 '남한사회의 이익 기대감' 과 다른 지역별 응답률 순위가 나타났다. 특히, 영남권의 경우는 두 항목 모두에서 최하위의 응답률을 보여 통일 편익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낮은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지역별 응답분포는 지난해와는 상이하나 예년과 유사한 양상으로 회귀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2) 통일 이후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

통일이 가져다 줄 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측정하는 것은 그 이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없는 추상성이 있다. 따라서 "통일이 되면 주요한 사회문제들이 통일 이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의 질문은 통일의 편익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통일의 편익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크다면 그것은 분명히 통일의 추진동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반대로 통일로 인한 사회문제 발생에 대한 불안이나 불확실성이 크다면 오히려 통일을 부담스러운 일로 인식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그것은 통일을 지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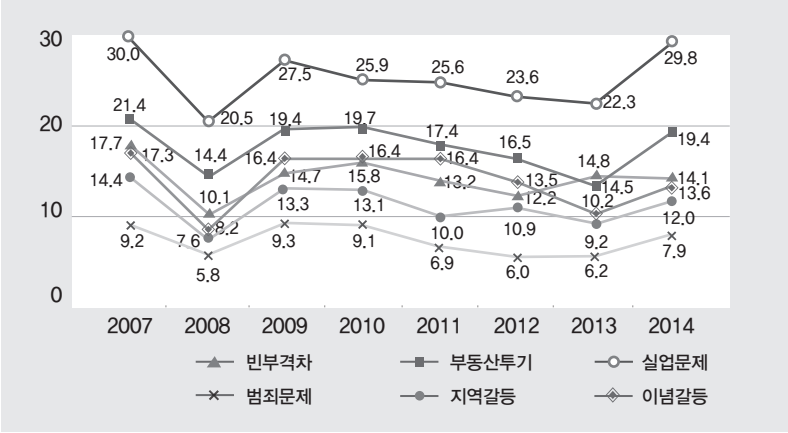
통일 이후 주요 사회문제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의 경우 올해 조사 결과의 특징은 빈부격차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전년 대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했다는 것이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기대수준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거의 모든 항목에서 공통적으로 기대감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은 특정한 요인의 영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한 '통일대박' 의 효과가 통일편익, 특히 경제 영역에서의 통일 편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사회문제별 개선 기대수준에 대한 응답률의 순위로 살펴보면, 〈그림 1-1-6〉에서 보이듯 실업문제 29.8%>부동산투기 19.4%>빈부격차 14.1%>이념갈등 13.6%>지역갈등 12.0%>범죄문제 7.9% 순서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부동산투기 문제와 빈부격차 순서가 바뀐 것을 제외하고 다른 항목들의 순서는 그대로이다. 특히 전년대비 실업문제와 부동산투기 문제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경제 영역의 통일 편익에 대한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실업문제 개선 기대감은 전년대비 7.5%p 상승했고, 부동산투기 개선 기대감은 전년대비 4.6%p 올랐다.

하지만 8년 연속 범죄문제 개선 기대감이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응답률이 단 한 번도 10%를 넘지 못했다는 점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이 통일이 됐을 때 치안 문제에 대해 제일 우려하고 있음을 말해주며, 그만큼 우리 국민의 인식에서 통일=사회적 혼란의 등식이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인식의 구조는 통일에 대한 반감을 키울 수 있다.

〈그림 1-1-6〉 통일 이후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 ('개선될 것이다' 응답 추이)

(단위: %)



실업문제와 부동산투기 문제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의 하위집단별 응답분포를 살펴보면, 지난해와 달리 매우 흥미로운 결과가 발견된다. 예를 들어, 실업문제의 경우 지난해에는 연령이 낮을수록 기대감 수준이 낮았다. 젊은이들의 경우 통일 이후 북한 투자, 개발의 활성화로 인한 일자리 창출의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고령층에 비해 높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올해에는 젊은 연령층보다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의 기대감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업문제 개선 기대감에서 연령별 응답분포는 50대 이상 30.3%>40대 30.0%>30대 28.0%>20대 27.3%로 나타났다. 부동산투기 개선 기대감의 응답분포 역시 50대 이상의 응답률이 22.3%로 가장 높았고, 반면에 20대의 응답률이 17.0%로 가장 낮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상승폭이 가장 큰 실업문제와 부동산투기 문제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예년과 달리 젊은 층보다 고령층에서 상대

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앞서 언급된 '통일대박' 의 효과가 연령층 간에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말해준다. 후술하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에 대한 공감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연령별 응답분포를 보면 가장 높은 공감도를 보였던 연령층은 50대 이상의 연령층이다. 이 연령층의 응답률은 20대의 응답률과 비교했을 때 거의 두 배 가까이 높다. 또한 연령대별 실업문제 개선 기대감 문항과 통일대박 공감도 문항과의 교차분석을 한 결과, 20대의 경우 실업문제 개선에 대해 '매우 기대한다' 응답자 중에서 통일 대박론에 대해 '매우 공감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5.6%에 불과하나, 50대 이상의 경우에는 22.6%로 연령 간 격차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올해 조사에서 나타난 통일편익에 대한 고령층의 기대감 상승은 특정 요인의 영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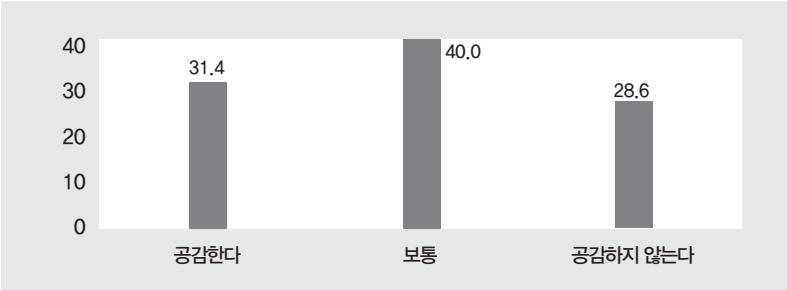
3) 통일 '대박론'에 대한 공감도

올해 1월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통일은 대박이다' 가 불러온 사회적 반향은 매우 컸다. 따라서 올해 수행된 조사의 설문지에 통일대박론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는가에 대한 문항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그 결과 응답률 분포를 보면, '공감된다' 는 응답률은 31.4%로 나타나 통일대박론에 대한 공감수준이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공감이 안 된다' 라는 응답률 역시 28.6%로 매우 큰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응답은 '보통이다'로 40.0%에 이른다. 다시 말해서, 공감되는지 공감이 안 되는지 판

단을 유보한 응답자들이 가장 많은 셈이다. 따라서 향후 통일 대박론이 국민으로부터 더 많은 공감을 받기 위해서는 통일과정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그림 1-1-7〉 통일 대박론에 대한 공감도

(단위: %)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통일대박론에 공감하고 공감하지 않는가를 살펴보자. 우선, 성별 응답분포를 보면, 여성에 비해 남성의 공감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공감한다' 는 남성의 응답률은 32.4%, 여성의 응답률은 29.6%로 두 응답률 격차가 크다고 볼 수는 없다. 연령별로는 젊은 층보다는 고령층의 경우 공감도가 높게 나타났다. '공감한다' 고 응답한 20대는 21.8%, 30대 24.3%, 40대 33.4%, 50대 이상 40.0%로, 20대와 50대 이상의 응답률 격차가 거의 두 배 가까이 나타났다.

교육수준별 응답분포를 보면 '공감한다' 는 응답에 중졸 이하 33.6%, 고졸 36.9%, 대학교 이상 25.4%로 나타나 학력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의 경우 공감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직업별 분포를 보면, '공감한다' 는 응답에 블루칼라 응답률이 35.7%로 가장 높고, 화이트칼라 응

답률이 26.1%로 가장 낮아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공감하는 응답률은 제주 51.3%>강원 43.0%>호남권 35.0% 순서로 높게 나타났고, 충청권이 20.5%로 가장 낮았다. 정치적 성향별로는 공감하는 응답률이 보수 38.1%>진보 34.1%>중도 25.8%로 나타났다. 특히 중도 성향의 응답자는 45.6%가 '보통이다' 라고 응답해 보수와 진보 성향의 응답자들에 비해 판단을 유보하는 경향이 매우 뚜렷했다.

4. 통일과 민주주의

통일을 위한 정치적 조건에 대해서 국민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자. 구체적으로 남북한 사회 각각 통일과 민주주의 상호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남한사회에서 통일과 민주주의 상호관계에 대해서는 2007년 조사에서부터 설문이 포함되었고, 북한사회에 대해서는 2009년 조사에서부터 포함되었다.

우선, 남한사회의 경우 전년과 달리 올해는 '통일이 되어야 남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뤄진다' 고 보는 응답의 비율이 27%로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 고 보는 응답의 비율 23.2%보다 많았다. 그리고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는 응답의 비율은 49.6%로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그림 1-1-8〉에서 보이듯 2010년 이후 50% 수준 이하로 떨어진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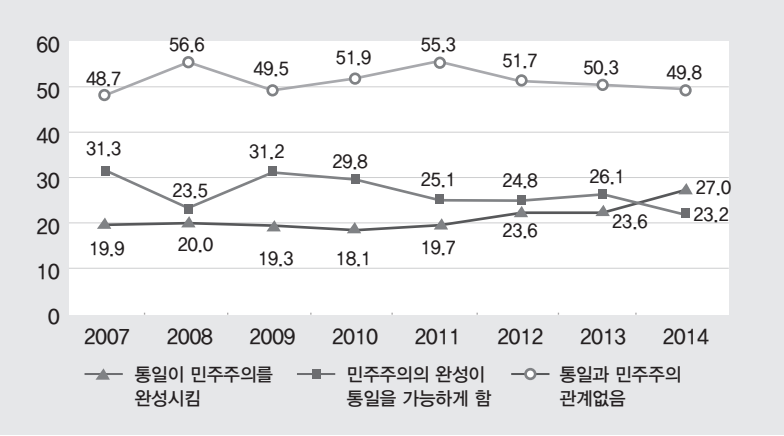
하지만 지난 시기의 응답률 차이를 보면, 2012년부터 통일이 민주주의 완성을 견인하는 것으로 보는 응답과 민주주의 완성을 통일 달성의 전제조건으로 보는 응답이 매년 경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8년 연속 통일과 민주주의가 관계없다는 응답률이 절반 이상 또는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는 것은 과거 통일운동과 민주화 운동을 연계하여 접근하던 인식의 틀에서 탈피하여 통일과 민주주의 문제를 분리하여 독립적인 과제로 접근하는 인식이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위집단별 응답분포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령이 높을수록 민주화에 대한 통일의 견인역할을, 젊은 층일수록 통일의 전제조건으로서 민주화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자의 경우 응답률이 50대이상 33%>40대 27.2%>30대 25.2%>20대 19.3%로 나타났으며, 후자의 경우는 응답률이 20대 26.7%>30대 24.2%>40대 22.6%>50대 이상 20.9%로 나타나 대조적인 응답양상을 보였다.

또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민주화에 대한 통일의 견인역할을, 높을수록 통일의 전제조건으로서 민주화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보수와 중도 성향의 응답자는 민주화에 대한 통일의 견인역할을, 진보 성향의 응답자는 통일의 전제조건으로서 민주화를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8〉 남한의 민주주의와 통일

(단위: %)



남한의 경우와는 반대로 북한의 경우는 '통일이 되어야 북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뤄진다' 는 응답의 비율이 39.9%로 '북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 는 응답의 비율 27.0%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는 응답의 비율은 33.1%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에 세 항목의 응답률이 순서대로 34.7%, 33.0%, 32.3%로 거의 수렴됐던 것과 달리 올해는 각 항목 간 응답률 격차가 뚜렷하게 벌어졌다. 지난해의 조사 결과를 제외하면, 장기적 추세로 김정은 체제 하에서 북한 내부의 자생적 민주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은 줄어들고 대신에 통일과 같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 북한의 민주주의가 실현가능하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위집단별 응답분포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연령별 분포의 경우 북한 민주화에 대한 통일의 견인 역할에 대한 인식은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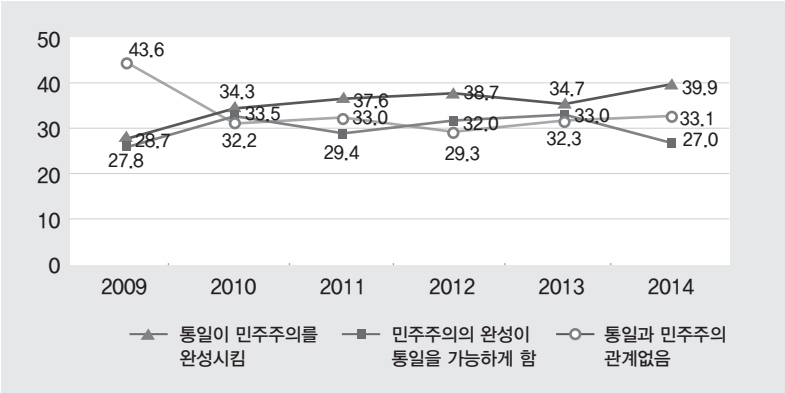
대 이상의 응답률(43.1%)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통일의 전제조건으로서 북한 민주화에 대한 인식은 30대의 응답률(30.5%)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역별 분포를 보면 북한 민주화에 대한 통일의 견인 역할에 대한 인식은 호남권과 강원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통일의 전제조건으로 북한 민주화에 대한 인식은 영남권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조사의 경우 통일 우선이냐 민주화 우선이냐에 대한 논쟁에서, 해당 변수의 경계가 모호할 정도로 정치 성향별 응답분포의 격차가 적었던 것에 반해, 올해 조사에서는 다시 정치 성향 간 응답률 격차가 뚜렷해졌다. '통일이 되어야 북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는 응답에서 진보 40.1%, 중도 35.9%, 보수 45.1%로 중도와 보수 간의 응답률 격차가 10%p 가까이 나타났다.

그런데 '북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는 응답에서는 진보 30.7%, 중도 25.4%, 보수 25.8%로 중도와 보수 간의 응답률 격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 비해 중도와 보수의 성향에서 북한의 민주화 선행론에 대한 인식이 공통적으로 크게 줄었다. 중도 성향의 응답률은 2013년 36.4%에서 2014년 25.4%로 10%p 이상 감소했다. 보수 성향의 응답률은 2013년 30.2%에서 2014년 25.8%로 감소했다. 이것은 최근 보수진영에서 북한의 민주화나 인권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과 사뭇 다른 결과이다.

〈그림 1-1-9〉 통일과 북한 민주주의의 관계

(단위: %)



5. 희망하는 통일한국의 체제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화해협력의 단계와 남북연합 단계를 거쳐 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를 완성하는 3단계의 과정으로 이루어져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통일방안에는 통일국가의 정치사회체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 사회 안에서 통일국가의 체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우리 국민들은 "통일한국이 어떤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남한의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44.9%로 가장 많았다. 이 응답률의 추이는 2009년 43.6%→2010년 44.4%→2011년 48.9%→2012년 44.2%→2013년

43.6%→2014년 44.9%로 6년 동안 크게 증가하지도 않고 반대로 크게 떨어지지도 않은 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남북관계의 변화나 북한의 권력구조 변동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이 응답률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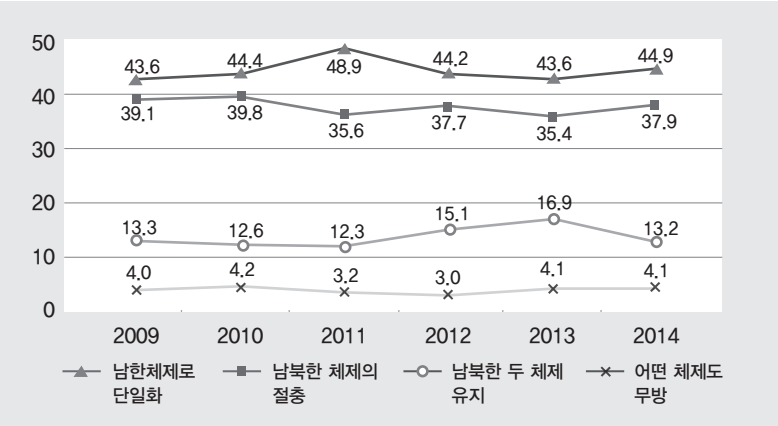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남한과 북한의 체제를 절충한다' 는 응답의 비율 역시 2009년 39.1%→2010년 38.8%→2011년 35.6%→2012년 37.7%→2013년 35.4%→2014년 37.9%로 6년 동안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소폭 올라 2012년의 응답률 수준을 회복했다. 이 응답은 남한의 현 체제나 북한의 현 체제나 모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통일된 국가에서는 남북한 각각 체제에서 좋은 점들을 절충한 체제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내포되어 있다.

흥미로운 것은 앞의 두 항목 즉, '남한체제로의 통일' 과 '남북한 체제의 절충형 통일' 간의 격차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전자의 6년간 평균 응답률은 44.9%이고, 후자의 6년간 평균 응답률은 37.4%로 두 항목간의 응답률 격차가 7.5%p 수준이다. 따라서 소위 '흡수통일' 방식의 통일방식을 국민 대다수가 공감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통일 이후에도 남북한 두 체제를 각기 유지한다' 는 응답의 비율은 2009년 13.3%→2010년 12.6%→2011년 15.1%→2013년 16.9%→2014년 13.2%로 나타났다. 이 응답은 남북한 체제가 갖고 있는 정치·경제·사회적 이질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통일 이후 강제적인 통합보다는 각각의 체제를 유지하는 '연합제' 나 '연방제' 를 채택한다는 뜻이다.

〈그림 1-1-10〉 통일한국의 체제

(단위: %)



하위집단별 응답분포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연령별 분포를 보면, '남한의 현 체제로 단일화' 항목의 경우 30대(49.2%)와 40대(39.3%) 간의 격차가 10.0%p 정도로 크다. 오히려 20대와 50대 이상의 응답률은 각각 44.6%와 45.6%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지난해의 경우 20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두드러지게 응답률이 높았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대신에 올해에는 20대 응답자의 경우 '남북한 체제 절충형' 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한 두 체제의 유지'를 가장 많이 선택한 연령층은 40대로 17.3%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30대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던 것과 차이가 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통일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다' 는 응답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연령층은 50대 이상이다.

소득수준별 응답률 분포를 보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남한체제로 단일화된 통일을 희망하는 응답률이

높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남북한 체제 절충형' 을 희망하는 응답양상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한체제로의 단일화' 응답의 경우 가장 낮은 소득구간인 200만 원 미만의 응답률은 42.8%이고, 가장 높은 소득구간인 400만 원 이상의 응답률은 45.9%로 나타났다. '남북한 체제 절충형' 의 경우에는 200만 원 미만의 응답률은 43.7%, 400만 원 이상의 응답률은 38.7%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남한체제로의 단일화' 를 가장 선호하는 지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역시 영남권으로 응답률이 63.4%였다. 지난해의 응답률이 48.4%였던 데 비해 무려 15%p나 증가했다. 반면에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인 지역은 충청권으로 응답률이 31.3%였다. 지난해에 강원지역이 가장 응답률이 낮았던 것과 차이가 있다. '남북한 체제 절충형' 을 가장 선호하는 지역은 제주로, 응답률은 52.1%이며 지난해에 응답률이 가장 낮았던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올해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인 곳은 영남권으로 나타났다. '남북한 두 체제 유지' 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지역은 충청권으로 응답률이 16.5%이다. 지난해에 가장 높았던 응답률 23.7%(호남권)과 비교해 올해 응답률이 크게 감소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성향에 따른 응답분포를 살펴보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모든 이념 성향에서 '남한의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수 51.3%, 진보 43.4%, 중도 42.1%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보수와 진보의 응답률 변화는 거의 없고, 중도의 응답률이 두드러지게 감소했다. '남북한 체제 절충형' 의 경우에는 보수 33.3%, 진보 42.6%, 중도

37.4%로 지난해와 비교해서 진보의 응답률은 크게 증가했고, 보수와 중도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남북한 두 체제 유지' 의 경우는 보수 12.9%, 진보 11.4%, 중도 15.5%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중도의 응답률이 가장 높다. 하지만 모든 성향의 응답률이 공통적으로 전년대비 올해 감소했다.

6. 소결

올해는 연초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 을 주창하고, 이어 통일준비위원회의 신설과 독일 드레스덴 선언을 통한 대북정책의 3대 원칙을 제안하였다. 또한 민간 영역에서도 주요 종합일간지들에서 '통일' 관련 연속 기획보도를 발표하는 등 모처럼 통일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공론화의 여파로 올해 실시한 통일의식조사에서는 통일 인식 관련 많은 문항들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통일대박론에 대한 공감 수준은 예상과 달리 3분의 1 정도의 국민들만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일편익에 대한 기대감이 전년대비 크게 상승했다는 점에서 '통일대박' 의 효과가 일정하게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효과가 경제 영역의 통일 편익에 대한 기대감에 집중되어 있고, 젊은 층보다는 고령층의 기대감이 높게 나타났다는 한계점을 드러냈다.

올해의 통일 인식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은 전년에 비해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나 회의적 인식, 그리고 부정적인 전망 등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통일이 필요없다' 는 응답률이 지난해 23.7%에서 올해 21.7%로 감소했고, 통일의 추진 방식에 관한 질문에서 '통일에 관심이 없다' 는 응답률이 지난해 8.0%에서 올해 7.4%로 줄어들었다. 또한 통일이 가능한 예상 시기에 관한 문항에서는 '통일이 불가능하다' 는 응답이 지난해 25.8%에서 올해 23.9%로 감소했다.

지난해에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로 '같은 민족이니까' 라는 응답률이 역대 가장 낮은 수치였는데, 올해에는 다시 증가했으며,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의 응답률이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반대로 장기간 남북관계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는 '남북한 간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 의 응답률은 소폭 감소해 전반적으로 지난해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조사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내용 중 하나가 통일의 가능 시기를 묻는 질문에서 '통일이 불가능하다' 는 견해가 2007년 조사 시작 이래 다른 어떤 항목보다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는 점이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올해에도 지속되었다. 비록 지난해에 비해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2순위는 '30년 이내' , 3순위는 '30년 이상' 으로 우리 국민은 전반적으로 통일이 단기간 내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기보다는 먼 훗날의 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올해 조사에서 두드러진 변화를 보인 문항은 통일 편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통일이 가져다줄 남한사회의 이익과 개인 자신의 이익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기대감이 크게 증가했다. 마찬가지로, 통일 이후 주요

사회문제 개선 기대감 문항에서도 빈부격차를 제외한 모든 항목들에서 공통적으로 기대감 수준이 높아졌다. 특히, 실업문제와 부동산투기 문제에 대한 개선 기대감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 두 항목은 다른 항목들(범죄문제, 지역갈등, 이념갈등)과 달리 경제 영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우리 국민들이 통일편익을 경제적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통일편익에 대한 인식이 단순히 경제적 이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분단으로 인해 우리 사회와 개인, 그리고 지역공동체까지를 포함하여 모두에서 나타나는 모순과 갈등을 해결하고 개선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통일정책이 필요하다.

제2장
북한에 대한 인식

지난 1년 동안 국민들의 대북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사건 혹은 정황은 어떤 것일까?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아무래도 북한의 장성택 처형 사건이 가장 크게 다가온다. 2013년 12월 12일에 전격적으로 집행된 장성택 처형은 남한주민들에게 매우 큰 충격과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김정은 정권에서 제2인자로 섭정을 해오던 장성택 부장이 회의장에서 체포되고 목덜미를 잡혀 군사재판장에 끌려 나오는 모습, 판결 즉시 전격 처형된 소식은 너무나 끔찍한 소식이었다. 경제개혁과 개방에 대해 걸었던 김정은 정권에 대한 기대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북한 체제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증폭되었다.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2014년 박근혜 정부는 1월 6일 '통일대박' 슬로건을 앞세우며 남북통일을 위한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북한도 1월 16일 국방위원회 명의로 상대방에 대한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1월 30일부터 전면 중지하자는 '중대제안' 을 발표했다. 남북의 이러한 제안이 이산가족상봉으로 이어져 2월 20~25일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그러나 남북의 협력은 거기까지였다. 북한이 기대했던 금강산관광 재개나 5.24조치 해제와 같은 정책변화는 나오지 않았고, 키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정부의 통일대박 구상은 3월 28일 '드레스덴 선언' 으로 구체화되어 국제사회에서도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정부의 통일준비 논의가 세월호 사건(4.16)으로 다소 침체되었지만 7월 15일 '통일준비위원회' 의 출범으로 다시 분위기를 잡아 나가고 있다. 그러나 남한의 대북정책 변화를 기대했던 북한은 자신들의 중대제안이 무산되자 한미군사훈련에 대응하는 미사일발사 등 무력시위를 지속하는 한편 언론매체를 동원하여 박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전을 전개했다. 5월에는 남한에서 북한으로 삐라를 뿌리듯, 북한에서 뿌린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기' 가 여기저기서 발견되어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을 한층 고조시켰다. 이와 같은 국내 정치적 상황과 남북 간의 대립이 2014년 7월 조사에서 국민들의 대북인식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황들을 고려하면서 2014년 국민들의 대북인식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살펴보고 배경변수별 특성을 분석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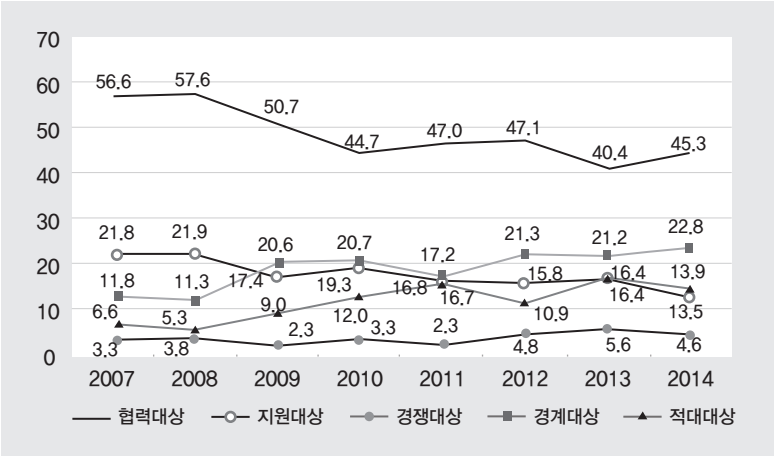
1. 남북한 관계 인식 –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가?"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 (협력대상),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지원대상' (지원대상), '우리와 선의의 경쟁을 하는 대상' (경쟁대상), '우리가 경

계해야 할 대상' (경계대상),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대상' (적대대상)의 5개 범주로 나누어 응답하도록 했다. 그 결과 '협력대상' 이라는 응답이 전체응답자의 45.3%로 가장 많았고, '경계대상' 이라는 응답은 22.8%, '지원대상' 이라는 대답은 13.5%, '적대대상' 이라는 응답도 13.9%, '경쟁대상' 이라는 응답은 4.6% 등이었다. 아래의 〈그림 1-2-1〉에서 볼 수 있듯이 '협력대상' 이라는 의식이 40.4%→45.3%로 4.9%p 상승하였으며, 작년에 10.9%→16.4%로 상승했던 대북 '적대의식'은 올해 16.4%→13.9%로 다소 누그러졌다. 전반적으로 북한과 협력해야 한다는 의식이 높아지고 극단적 적대의식은 다소 완화되었으나, 대북 '경계의식' 은 21.2%→22.8%로 여전히 지속되었다. 작년 상반기에 격렬한 대립을 지속하던 남북관계가 올해 연초부터 이산가족상봉과 통일대박 담론으로 남북협력에 대한 기대가 상승하고 있으나, 대북 경계심도 여전히 높은 상황임을 말해준다.

〈그림 1-2-1〉 남북한 관계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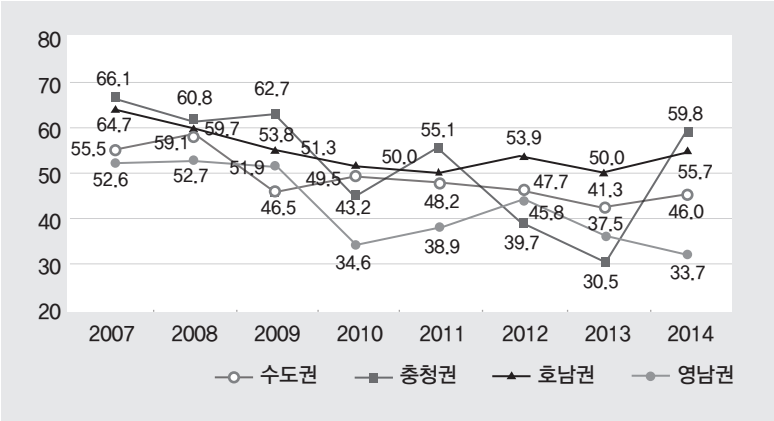
(단위: %)



남북한 관계 인식은 성별, 연령별, 직업별, 계층별, 종교별 변수와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으며, 지역변수만이 유일하게 뚜렷한 상관성(χ^2=67.3, p=0.000)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특이한 현상은 지난 1년 사이에 충청권에서 대북 '협력대상' 인식이 30.5%→59.8%로 29.4%p의 큰 폭으로 상향 이동을 하였다. 〈그림 1-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년에는 충청권〈영남권〈수도권〈호남권의 순으로 충청권이 가장 낮았으나, 올해는 영남권(33.7%)〈수도권(46.0%)〈호남권(55.7%)〈충청권(59.8%)로 충청권이 호남권보다 더 높은 위치로 올라왔다. 북한과 힘을 합쳐야 한다는 대북 협력인식의 과거 추이를 보면 충청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호남권이 가장 높고 수도권과 영남권이 그 뒤를 잇는 순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충청권은 대북 협력대상 인식의 기복이 매우 커서 2007년~2009년 시기에는 호남권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었고 심지어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후인 2011년에도 대북협력의식이 가장 높게 유지되었다. 그러나 2011년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하여 2012년과 2013년에 가장 부정적인 대북인식을 보여주었다가 올해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하여 가장 호의적인 대북인식을 기록했다. 올해 충청권의 대북 협력인식이 급상승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지만, 정부의 통일대박 담론과 통일준비 활동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런 점에서 다른 지역보다 충청권이 국가적, 사회적 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림 1-2-2〉 북한 '협력대상' 인식의 지역별 변화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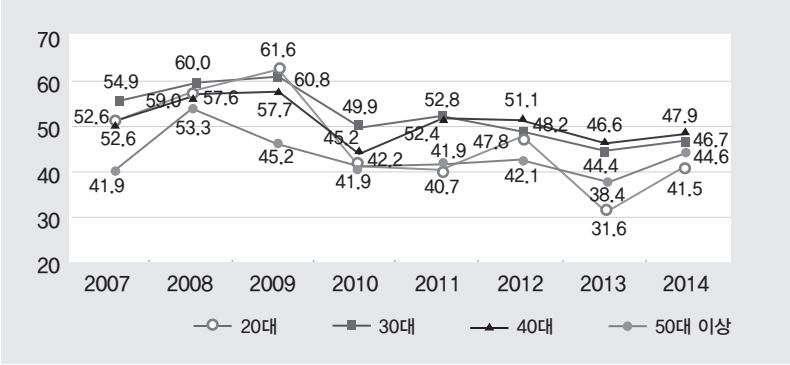


연령별 대북 협력인식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지만 〈그림 1-2-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작년에 비해 올해 각 연령대별 차이가 크게 좁혀지는 세대 간 수렴현상이 강화되었다. 작년에도 연령변수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χ^2=20.2, p=0.063)가 없었지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연령대별로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었다. 그런데 올해에는 연령대별 차이(χ^2=13.0, p=0.368)가 크게 줄었다. 20대 연령층의 변화가 흥미로운데 대북적대의식에서 20대 연령층이 가장 높게 포진되어 있고, 대북협력의식에서도 2010년과 2011년, 그리고 2013년과 2014년에 50대 이상 연령층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2010년은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며, 2013년 상반기에는 남북 간 군사적 대립이 심각하게 고조되었던 시기로, 이는 20대의 젊은 세대가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긴장고조 상황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앞서 설명했듯이 올해에는 각 연령층 간 의식의 차이가 없어졌으며 세대 간 수렴현상이 강화되었다.

〈그림 1-2-3〉 연령대별 북한 '협력대상' 인식

(단위: %)



2. 북한의 변화와 정권안정성에 대한 인식

북한의 변화와 정권의 안정성에 대해 남한주민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ㅇㅇ님은 최근 몇 년간 북한이 얼마나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변화)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반응을 분석하였다. 결과는 '변하지 않고 있다' 는 비판적 응답이 55.7%로 '변하고 있다' (44.3%)는 긍정적 응답보다 많았다. 작년과 비교하면 '북한이 변하고 있다' 는 응답이 35.8%→44.3%로 8.5%p 많아졌다.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의식은 2007년 68.9%→2008년 50.5%→2009년 45.1%→2010년

44.9%→2011년 45.0%→2012년 46.8%→2013년 35.7%→2014년 44.3%로 2007년 이후 줄곧 낮아져 작년에 35.7%로 최저점을 찍은 후 올해 44.3%로 상승한 것이다.

최근 몇 년간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북한변화' 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지역(χ^2=36.6, p=0.001)과 종교(χ^2=25.3, p=0.046) 변수와 상관성이 있었다. "북한이 변하고 있다" 는 긍정적 평가는 호남권이 61.1%로 영남권(40.7%)과 수도권(42.8%), 충청권(45.3%)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호남권은 1년 사이에 북한변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14.6%p나 증가하였다. 최근 3년간 북한변화를 바라보는 시각도 지역별로 변동이 매우 심했는데, 2012~2014년의 경우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은 북한변화에 대한 긍정인식이 2013년에 급락했다가 올해 다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영남권은 상반된 태도를 보여주었다. 즉 수도권은 41.3%→32.4%→42.8%, 충청권은 57.8%→26.3%→45.3%, 호남권은 55.7%→46.5%→61.1%로 작년에 형성되었던 부정적 인식이 올해 긍정적 인식으로 회복된 반면, 영남권은 40.5%→50.6%→40.7%로 북한변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되었다. 한편, 등락의 폭에서 충청권은 매년 20~30%p의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충청권의 대북인식이 이처럼 기복이 심한 이유가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국내의 정권교체와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충청권이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북한변화에 대한 인식은 종교변수와 상관성이 있었는데, 종교별로 최근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는 기독교(49.4%)>무종교(44.4%)>불교(40.2%)>천주교(37.0%) 순으로 나타났다. 즉 기독교(개

신교)가 북한변화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반면, 천주교는 북한의 변화를 가장 부정적으로 보았고, 불교와 무종교는 그 중간을 차지하였다. 연령별 차이는 북한변화 인식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북한이 변하지 않고 있다' 는 부정적 평가가 모든 연령대에서 높아지면서 세대별 차이가 없어지고 의견이 수렴되었다. 재작년에는 연령별 차이가 유의미했으나 작년과 올해에는 세대별 차이가 사라졌다. 지난 5년간 이른바 386세대로 불리던 40대가 북한의 변화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었는데 전반적인 대북 비판의식이 상승하는 추세 속에서 40대나 30대가 별다른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북한 정권은 앞으로 안정될 것인가" (정권안정화)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불안정해질 것으로 예측한 응답이 55.4%로 안정될 것(12.4%)이라는 응답보다 4.5배 이상 많았다. 32.2%는 '그저 그렇다' 라는 중간 정도의 평가를 하였다. 최근 몇 년간 변화를 보면 북한이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50.9%→57.1%→55.4%로 남한주민들은 대체로 북한정권의 미래를 불안정하게 보고 있다. '정권안정화' 는 지역(χ^2=85.6, p=0.000), 지지정당(χ^2=27.1, p=0.041)과만 통계적 상관성이 있었다. 즉 북한정권이 안정될 것으로 보는 견해는 호남권(15.5%)에서 가장 높고 영남권(9.0%)이 가장 낮으며 수도권(14.3%)과 충청권(11.7%)는 그 중간을 차지한다. 그런데 충청권은 북한정권이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도 47.3%로 다른 지역(50%이상)에 비해 가장 낮은 의견을 보였으며 '그저 그렇다' 는 중간적 평가에 많은 의견(41.0%)이 집중되었다.

3.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

1) 대화와 타협의 상대로서 북한정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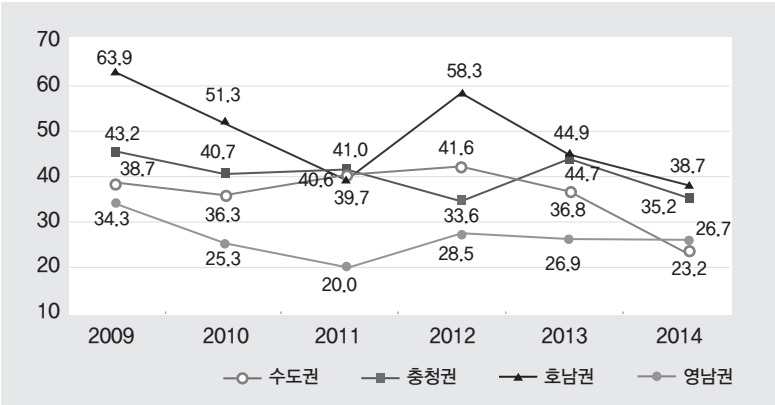
북한이라는 일반적 대상과는 별도로 '정권' 이라는 정치적 실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은 조금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정권에 대한 의견을 물어 보았다. "통일을 함께 논의할 상대로 북한 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라고 생각하는가" (신뢰도) 라는 대북 신뢰도 질문에서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지 않다' 는 응답은 72.5%로 '가능하다' (27.5%)는 응답보다 3배가량 많았다.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도는 2009년 40.9%→2010년 34.9%→2011년 34.3%→2012년 39.3%→2013년 35.8%→2014년 27.5%로 최근 2년 사이에 크게 떨어졌으며, 지난 1년 사이에만 해도 8.2%p가 떨어졌다. 북한정권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이러한 불신이 최근에 이르러 더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는 대북신뢰도는 지역(χ^2=49.2, p=0.000), 정치성향(χ^2=33.2, p=0.004), 지지정당(χ^2=32.7, p=0.001) 변수와 통계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림1-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북신뢰도는 전반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호남권(38.7%)>충청권(35.2%)>영남권(26.7%)>수도권(23.2%)의 순으로 신뢰도를 기록했다. 지난 1년 동안 수도권의 대북불신이 심화되어 영남권보다 낮은 위치로 내려옴으로써 영남권과 수도권이 한 그룹을 이루고 호남권과 충청권이 다른 한 그룹을 이루는 형국이 되었다. 다른 지역에서는 대북신뢰

도가 하락한 반면 영남권에서만은 그대로 유지된 것도 특이한 현상이다. 아마도 현 정부의 지지기반인 영남권이 현 정부의 통일준비 정책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북한정권과의 대화와 협상이 가능하다고 평가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그림 1-2-4〉 지역별 북한정권 신뢰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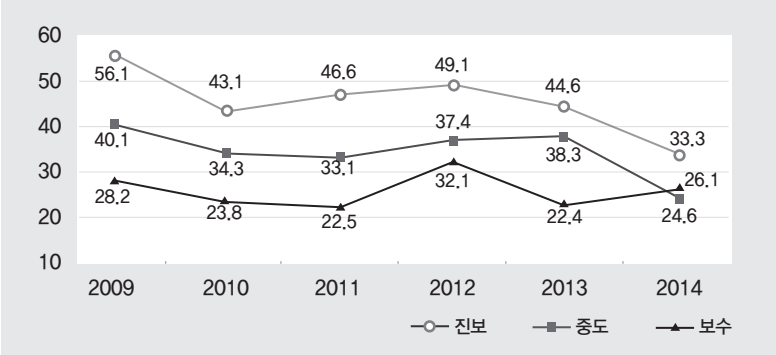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는 정치적 이념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χ^2=33.2, p=0.004)를 갖고 있다. 지난 수년 동안 정치적 이념성향에 따라 진보가 높은 대북신뢰도를 보였고 그 다음이 중도, 그리고 보수는 북한정권에 대한 강한 불신을 보인 것이 일관된 특징이었다. 〈그림 1-2-5〉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정권 신뢰도는 이념성향과 정확히 일치하는 양상을 유지하였다. 즉 지난 5년(2009년~2013년) 동안 진보가 북한정권을 가장 신뢰하고 보수는 불신이 가장 크며 중도는 중간을 차지하는 양상이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으로 진보 이념을 가진 사람일수록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고 생각

하는 반면, 보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은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한국사회에서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단일변수로서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가 유력한 기준이 되었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중도가 중간적 입장을 철회하고 보수 쪽으로 기울어짐으로써 중도의 보수화가 진행되었다.

한편, 작년과 비교할 때 진보와 중도에서는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반면, 보수에서는 오히려 높아졌다. 즉 진보는 44.6%→33.3%로, 중도는 38.3%→24.6%로 대북신뢰도가 낮아진 반면 보수는 22.4%→26.1%로 높아졌다. 보수의 이러한 반응은 위에서 추측하였듯이 현 정부의 통일담론 활성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4년 들어 현 정부가 통일대박과 통일준비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의 이러한 통일정책에 지지를 보낸다는 차원에서 북한정권과의 대화와 타협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시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 정부의 통일관련 정책제안들이 실현되려면 북한정권과의 대화와 타협이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진보와 중도가 모두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아진 상황에서 보수가 유독 '가능할 것' 이라고 평가했다는 것은 북한정권 자체에 신뢰를 보였다기보다는 현 정부의 통일노력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2-5〉 정치성향별 북한정권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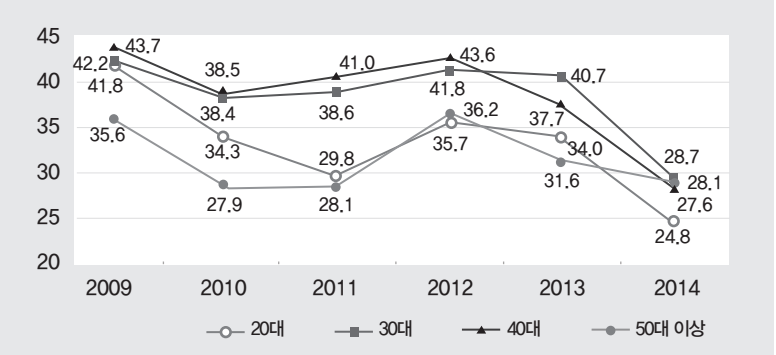
(단위: %)



세대별 인식에서는 모든 연령층에서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수렴현상이 진행되어 연령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림 1-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년에는 각 세대별로 30~40대와 20·50대 두 그룹으로 짝을 이루기도 하고, 작년의 경우처럼 각 연령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에는 모든 연령대에서 대북정권 신뢰도가 하락하여 세대 간 차이가 좁혀지는 수렴현상이 나타났다.

〈그림 1-2-6〉 세대별 북한정권 신뢰도

(단위: %)



2) 북한의 핵무기 포기 여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88.0%로 국민들의 절대다수가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남한주민들은 북한의 비핵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며 현실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은 작년의 84.6%에서 올해 3.4%p가 더 높아졌다.

시계열로 보면 2008년에 71.7%에서 북한이 2차 핵실험을 단행한 2009년에 83.7%로 12%p가 높아졌고 그 후 80%대를 지속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2차 핵실험 이후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71.7%→83.7%로 12%p가 늘어났으나, 3차 핵실험이 감행된 2013년에는 85.9%→84.6%로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는 점이다. 2차 핵실험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강해졌고 2012년 4월 개정헌법에서 '핵보유국' 을 명시한 터라 3차 핵실험은 남한주민들의 북핵의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4. 북한위기의식

1) 북한 핵무기 보유의 위협의식

북한 핵무기 보유에 대한 위협의식은 '매우 위협을 느낀다' 35.5%, '다소 위협을 느낀다' 53.7%로 전체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89.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이 단행되었던 2013년 78.4% 보다 10.9%p나 높은 수치다. 시계열로 보면 2차 핵실험이 있었던 2009년에 61.3%→74.3%로 70%대에 올라선 후, 2010년 73.8%→2011년 80.7%→2012년 80.4%→2013년 78.4%→2014년 89.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3차 핵실험이 감행되었던 2013년에는 그 이전 해에 비해 핵위협의식이 오히려 낮아졌다. 그러다가 올해 89.3%로 역대 최고의 위협수위로 올라갔다. 2014년 들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미사일 발사 실험과 무인기 남파,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비난 등 지속적인 대남군사 위협으로 안보불안을 조성한 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핵무기 위협에도 불구하고 '한국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 는 의견은 작년에 비해 크게 높아지지 않았다. 작년에는 핵무기 보유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람이 53.8%였는데 올해는 55.3%로 큰 변화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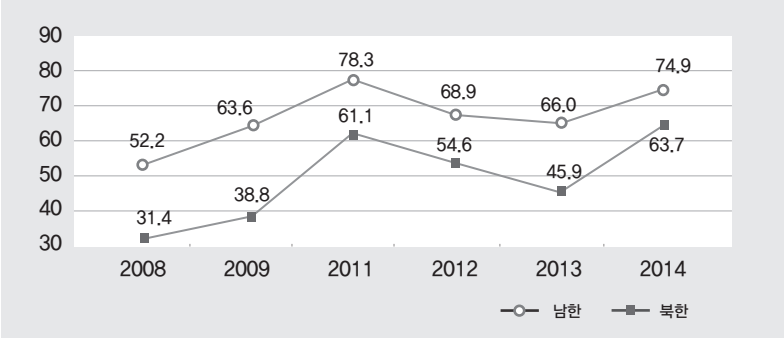
2)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북한으로 인한 불안의식과 위기의식은 북한이 대남 무력도발을 감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위기와 불안감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 무력도발을 일으킬 것이라는 불안감은 대북인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2014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있다' 는 응답이 74.9%로 '없다' (25.1%)는 응답보다 3배나 높게 나타났다. 북한의 무력도발을 가장 우려했던 2011년(78.3%) 이후 10%p 낮아지다가 올해 다시 10%p가 상승하여 2011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남한주민들이 북한발 안보불안을 그만큼 심각하게 느끼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는 2013년 12월 장성택 부장의 전격 처형과 올해 들어 지속된 무력시위 및 김정은의 군부대 현지지도 등 북한의 군사적 활동이 남한주민들의 안보불안을 자극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주민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한 결과 남한이 '무력도발' 을 할 가능성에 대해 '있다' 는 응답이 63.7%로, '없다' 는 응답(36.3%)보다 2배 높게 나타났다. 북한주민들도 남한발 무력위협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남북한을 비교하면 남한주민들의 안보불안이 북한주민들의 안보불안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남북한 주민들의 안보불안의 실제적 현실을 드러내는 것인지, 아니면 남북한 주민들의 상호인식 차이에서 오는 것인지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북한주민들에게는 가장 위협적인 나라가 미국인 반면 남한주민들에게는 북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호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한 의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1-2-7〉 남북한 상호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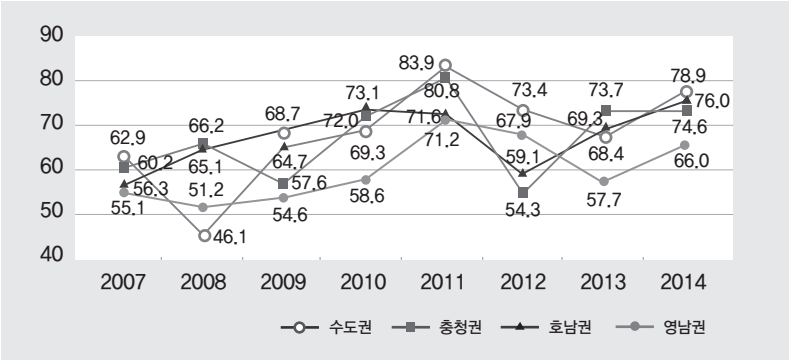
(단위: %)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은 지역(χ^2=33.9, p=0.003), 이념(χ^2=36.3, p=0.002), 교육수준(χ^2=26.3, p=0.002), 종교(χ^2=32.1, p=0.006) 변수와 통계적 상관성이 있었다. 지역별로는 변화의 폭이 매우 컸다. 북한발 무력도발 불안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수도권(78.9%)〉호남권(76.0%)〉충청권(74.6%)〉영남권(66.0%) 순으로 북한발 안보불안이 높았다. 작년에는 충청권이 가장 불안해 한 반면 올해는 수도권이 북한에 의한 안보불안을 가장 크게 느낀 것으로 나왔다. 남북교류가 활발하지 않았던 1990년대에는 휴전선에서 가까운 수도권과 강원지역에서 안보불안을 크게 느낀 반면,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 아래로 내려갈수록 안보불안을 덜 느끼는 양상이 나타났다. 남북간 교류와 접촉이 잦아지면서 권역별로 기복이 심해졌으나, 몇 시기를 제외하고는 수도권은 대체로 높은 불안감을 보이고 있고 영남권은 불안감이 낮은 양상은 과거와 비슷하다. 다만 충청권의 등락 폭이 심하다든가 호남권의 안보불안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과거와 달라진 양상이다.

〈그림 1-2-8〉 지역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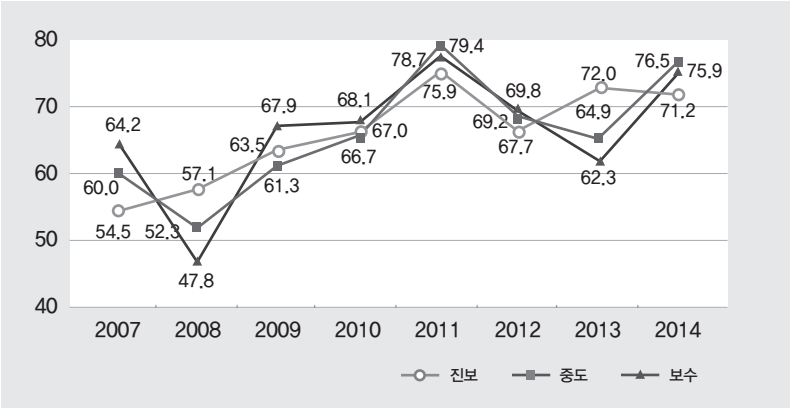


정치적 성향과 북한발 안보불안은 중도(76.5%)>보수(75.9%)>진보(71.2%)로 작년과는 그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다. 작년에는 전형적인 정권교체기의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즉 보수(69.8%)가 진보(67.7%)보다 안보불안을 더 강하게 느끼던 기존의 패턴에서 벗어나 진보(72.0%)>보수(62.3%)로 진보가 안보불안을 훨씬 크게 느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2014년에는 완전히 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즉 진보가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낮게 본 반면 보수는 그 가능성을 높게 예측하였다. 이러한 역전의 역전 현상은 정권교체 효과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 작년에 보수정권이 들어섬에 따라 진보는 자기가 지지하지 않은 보수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이 자칫 북한의 무력도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불안해 한 반면, 보수는 자기들이 지지한 보수정부의 안보정책을 신뢰하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하지 못할 것이라는 정치적 판단에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낮게 본 것이다. 그러나 올해에는 정권교체 효과가 사라지고 보수가 진보보다 북한의 도발을 높게 보는 평년의 양

상으로 복귀했다고 할 수 있다.[2] 정치적 성향에 따라 북한발 안보불안 의식이 정권교체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유감없이 보여주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2-9〉 정치적 성향에 따른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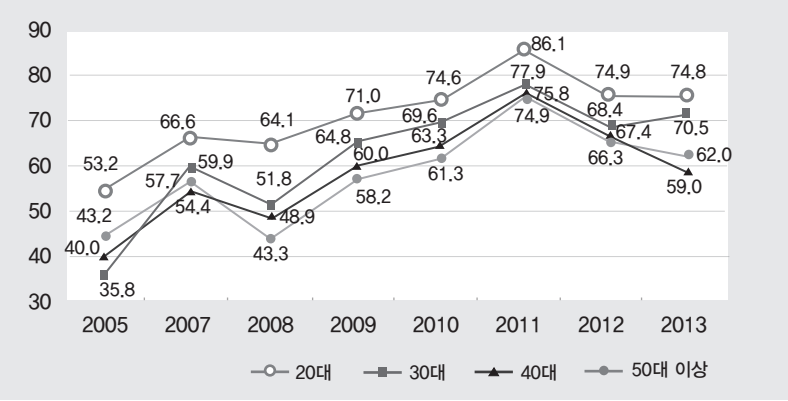
교육수준별로는 중졸이하(64.0%)<고졸(72.8%)<대재이상(78.3%)로 학력이 높을수록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종교별로는 기독교(79.9%)>천주교(75.8%)>무종교(75.5%)>불교(70.0%)로 기독교(개신교)가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았고 천주교와 무종교는 중간, 그리고 불교는 그 가능성을 가장 낮게 예측하였다. 북한의 무력도발이라는 안보불안 측면에서는 기독교가 불안감이 가장 높고 불교가 가장 낮으며 천교와 무종교가 중간 정도로 형성되어 있다.

2) 이러한 정권교체 현상은 2008년에도 유사하게 전개된 적이 있다.

전반적인 안보불안이 상승하면서 연령별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지만 20대의 불안감이 가장 높은 양상은 그대로 유지되었다.[3] 즉 20대(74.8%)>30대(70.5%)>50대이상(62.0%)>40대(59.0%)로 20대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30대의 안보불안이 상승하였다. 올해 변화의 특징은 30대가 북한발 무력도발에 불안감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즉 30대가 기존의 40~50대의 대열에서 이탈하여 20대 쪽으로 이동하는 변화, 즉 30대가 안보불안을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는 현상이 발견되었으나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그림 1-2-10〉 세대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단위: %)



3) 한반도 전쟁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역(0.000), 연령(0.050) 변수가 통계적 상관성이 있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는가"(전쟁가능성)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통계적 유의미성(χ^2=0.050)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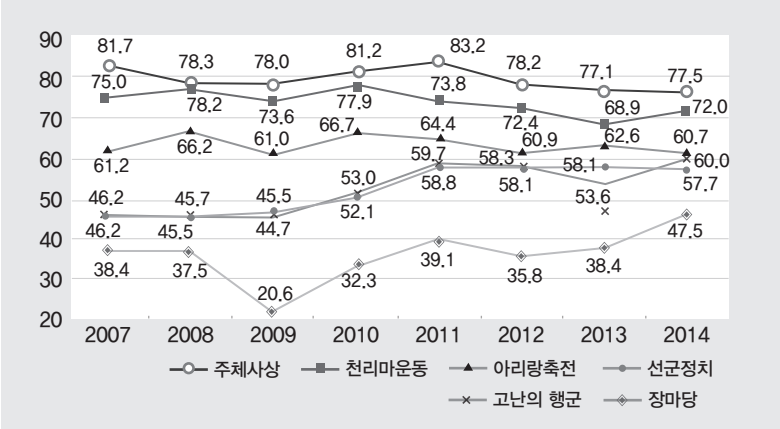
5. 북한사회에 대한 친숙성

1) 북한 사회 인지도

남한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6가지 사건과 개념을 선정하여 질문했다. 2014년에는 작년과 비교할 때 고난의 행군과 장마당 등 북한주민들의 경제생활과 관련한 사건 인지도가 높아졌다. 〈그림 1-2-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과 2011년에는 인지도가 상승하였으나 2012년에 2.6%p 하락한 후 2013년에는 예년의 수준을 유지하였다가 올해 약간 상승하였다. 2014년에 인지도가 상승한 이유는 북한의 경제개발구 신설, 북중 경제협력 관련 소식 등 북한발 경제소식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국내적으로도 통일대박 담론이 경제적 변화를 중심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림 1-2-11〉 북한사회 인지도

(단위: %)



2) 북한관련 경험과 남북한 간 차이

북한관련 경험은 새터민을 만나본 경험을 제외하면 작년과 비교하여 감소하였다. 금강산이나 개성, 평양 등 북한방문 경험자는 2011년 4.3%→2012년 4.1%→2013년 3.4%→2014년 2.8%, 대북지원활동이나 단체참여 경험도 2011년 2.0%→ 2012년 1.4%→2013년 1.3%→2014년 0.9%로 감소하였고, 새터민을 만나본 경험도 2009년 10.9%→2010년 13.8%→2011년 16.2%→2012년 19.0%→2013년 21.8%→2014년 13.9%로 작년보다 7.9%p 감소하였다. 한편, 북한방송이나 영화·소설을 접해본 사람들은 2009년 46.2%→2010년 37.4%→2011년 31.5%→2012년 32.3%→2013년 27.3%→2014년 31.5%로 작년보다 약간 증가하였다. 새터민을 만나본 경험이 줄어든 것은 최근 새터민 입국이 감소한 추세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북한 방송이나 영화·소설을 접해본 경험이 증가한 것은 국내의 통일담론 확산과 정보화의 진전으로 북한관련 소식과 자료들을 접촉할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응답자들은 선거방식(91.0%), 생활수준(93.6%), 역사인식(83.4%), 언어사용(83.6%), 생활풍습(83.3%), 가치관(91.8%) 등 모든 분야에서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남북의 이질성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남한주민들의 남북 이질성 인식 평균은 2011년 91.9%→2012년 90.6%→2013년 88.9%→2014년 87.8%로 계속 낮아지고 있어서 남북 간에 전반적으로 동질감이 조금씩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북한주민들의 이질성 인식과 비교하면 북한주민들이 남북 간 이질성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탈북자들의

경우 남한사회를 삶으로 직접 경험하는 과정에서 남북 간 이질성을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1-2-1〉 남북 간 이질성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남한	북한
선거방식	91.0	97.3
생활수준	93.6	98.7
역사인식	83.4	95.3
언어사용	83.6	97.3
생활풍습	83.3	91.9
가치관	91.8	93.3

6. 소결

2014년 국민들의 대북인식의 특징은 첫째, 북한정권에 대한 불신과 북한발 안보불안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점이다. 북한정권을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 보는 '대북신뢰도' 가 지난 1년 사이에 8.3%p 감소(35.8%→27.5%)하였고 2011년을 정점(78.3%)으로 누그러지던 북한발 '안보불안의식' 이 10%p가 상승(66.0%→74.9%)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작년 2월 3차 핵실험 이후 장성택 처형과 올해 들어 잦아진 북한의 무력시위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핵위협 의식이 89.3%로 나타났는데 이는 작년보다 11% p 상승한 것으로 2007년 조사 이

래 가장 높은 수치로 기록된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88%로 이 수치 역시 2007년 조사 이래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북핵에 대한 불안과 해결가능성에 대한 비관적 의식이 대북불신과 안보불안을 고조시킨 것으로 보인다.

둘째, 대북불신과 안보불안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협력해야 한다는 '협력대상' 의식은 높아졌다. 북한과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한다는 견해는 4.9%p 증가(40.4%→45.3%)한 반면, '적대대상' 이라는 의식은 16.4%→13.9%로 다소 누그러졌다. 전반적으로 2014년 국민들의 대북인식은 대북불신과 안보불안이 최고조로 상승한 가운데 북한과 협력해야 한다는 의식이 형성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대북불신과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북한을 '협력대상' 으로 보는 남한주민들의 여론이 높아진 것은 북한과 협력하여 북한발 안보불안을 해소하고 남북관계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기대와 요구를 표출한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 부정적·비판적 대북인식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세대별 의식의 격차가 좁혀지는 수렴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대북 협력대상 인식과 신뢰도, 안보불안의식 등 대부분의 대북인식에서 연령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북한 '협력대상' 인식이나 북한정권과의 대화와 타협 가능성(신뢰도), 북한발 안보불안의식 등 대부분의 대북인식에서 연령별 차이가 없고 한 곳으로 모이는 세대 간 수렴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넷째, 지역별 차이는 대북인식의 거의 모든 항목에서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충청권의 변화가 매우 독특하게 전개되었다. 대북

'협력대상' 의식이 다른 지역에서는 소폭 하락(영남권)하거나 소폭 증가(수도권, 호남권)한 반면, 충청권에서는 대폭(30.5%→59.8%) 상승하였다. 충청권은 2년 연속 대북 '협력대상' 인식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머물러 있다가 올해에는 가장 높은 위치로 상승하는 특이한 변화를 보였다. 또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가" 라는 북한정권 신뢰도에서도 충청권은 호남권과 한 그룹을 이루고 수도권은 영남권과 한 그룹을 이루는 양상이었다. 충청권의 이러한 극단적 변화의 원인을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국가적, 사회적으로 진행된 정부 통일정책과 활동, 그리고 북한발 사건에 충청권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섯째, 북한인식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확연하게 달라지는 현상은 올해에도 지속되었으나 과거보다 많이 약화되었으며 중도가 보수로 수렴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남북한 관계 인식에서는 정치성향 변수가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북한정권 안정화를 예측하는 항목에서도 정치성향은 유력한 변수가 되지 못했다. 다만,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신뢰도' 항목은 지금까지 보수-중도-진보를 가르는 가장 유력한 기준으로 작용하였고 2014년에도 유의미했으나 처음으로 중도가 보수 쪽으로 기울어지는 이른바 '중도의 보수화' 가 진행되었다. 중도의 보수화는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평가하는 부분에서 이미 작년부터 나타났고 올해에도 지속되었다.

결론적으로 2014년 국민들의 대북인식은 북한정권에 대한 불신과 무력도발에 대한 불안의식이 최고조로 상승한 가운데 그럼에도 북한과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한다는 의식이 공존하고 있다. 대북불신과 불

안감이 극도로 상승하면서 성별, 세대별, 지역별, 이념별 변수의 차이가 없어지거나 좁혀지는 대북인식의 수렴현상이 진행되었다. 특히 30대가 안보불안을 심각하게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 외에는 세대 간 대북인식의 차이가 없어졌다. 이념과 정치적 성향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으나 '중도의 보수화' 가 진행되면서 정치성향별 격차는 더 좁혀지고 있다. 지역변수가 유일하게 강력한 영향을 발휘하고 있으나 충청권의 기복이 심하여 이 변화를 어떻게 보아야 할지는 불확실하다. 세대 간 의식의 수렴, 중도의 보수화, 충청권의 부상 등 2014년 대북인식의 변화가 심각한 안보불안 상황에서 형성된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장기적 추세인지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비판적 대북인식의 강화가 어떠한 정책요구로 나타나는지도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제3장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1. 서론

2014년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차 되는 해이다. 2013년은 박근혜 정부가 갓 출범하면서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했던 사항들을 정책으로 전환하는 과정이었다면 2014년은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보여주어야 하는 해라고 볼 수 있다.[4] 이런 점에서 2014년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본격적으로 검증 받기 시작한 해이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들어서면서 '통일대박론' 을 시작으로 통일준비위원회까지 출범시켜 '통일준비' 를 대북, 통일 정책의 핵심 의제로 내세웠다. 독일의 드레스덴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을 발표하면서[5] 인도지원과 개발협력을 포함한 구체적인

4)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공식적이고 체계화된 설명은 국가안보실, 『희망의 새시대: 국가안보전략』 (서울: 국가안보실, 2014) 참조.

5) 〈http://www1.president.go.kr/president/speech.php?srh%5Byear%5D=&srh%5Bmonth%5D=&srh%5Bsearch_type%5D=1&srh%5Bsearch_value%5D=%B5%E5%B7%B9%BD%BA%B5%A7&srh%5Bview_mode%5D=detail&srh%5Bseq%5D=5327&srh%5Bdetail_no%5D=1〉(검색일: 2014년 9월 5일).

정책의제들을 제시한 것도 이런 정책적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구상들이 여전히 북한과의 소통과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정책적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대두되었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고수하면서 각종 미사일을 비롯한 재래식 전력과 군의 전투력 강화를 모색하는 가운데 '통일대박' 론을 체제통일-흡수통일론으로 규정하면서 대남 비난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의 태도이다. 북한의 경우 2014년에 들어서면서 2013년과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였다. 2013년 2월에 북한은 3차 핵실험을 단행하고[6] 3월과 4월에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하겠다며 핵무기의 전력화를 천명하는[7] 한편 정전협정의 백지화와 관련 기구의 활동중단까지 선언하면서[8]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그러나 2014년에는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과 함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 마련을 강조하면서[9] 비방중상과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을 요구하는[10] 한편 2월에는 남북고위급 접촉에 호응하면서 한미연합훈련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상봉까지

6) "제3차 지하 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 『조선중앙통신』, 2013년 2월 12일.

7)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 하신 보고," 『로동신문』, 2013년 4월 2일;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한 법 채택,"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1일.

8) "최후승리는 자주권수호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5일; "지금 이 시각부터 초래될 모든 파국적 후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과 괴뢰패당이 지게 될 것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성명,"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11일.

9)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신년사," 『조선중앙통신』, 2014년 1월 1일.

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우리 민족끼리의 단합된 힘으로 북남관계 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자: 남조선당국에 보내는 중대제안," 『조선중앙통신』, 2014년 1월 16일.

협력하는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 마련 차원에서 자신이 제기한 비방중상 중단이 남한의 청와대와 북한의 국방위원회 간 고위급접촉의 합의에도[11] 불구하고 자신의 뜻대로 이행되지 않고 한미연합군사훈련 또한 예년과 같거나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되는 가운데 통일준비론이 부상하자 이를 체제통일론이라고 비판하면서 대남비난을 강화하였다. 결과적으로 드레스덴 구상을 비롯해 남북관계의 변화를 위한 박근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북한의 긍정적인 호응을 얻는 데 실패하면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를 배경으로 1) 2014년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만족도)와 2) 대북정책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인식 3) 바람직한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기대와 요구를 살펴본다.

2.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또는 다소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아래 표와 같이 전체 응답자의 53.5%를 차지하였다. 이는 2013년 57.6%보다는 4.1% 하락한 것이다. 2013년 조사에서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 대한 기대치가 크게 반영되었고, 북한의 고강도 도발 등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긍정적으로 인식되면서 조사가 시작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대북정책에 대한

11) "북남고위급접촉이 진행되였다," 『조선중앙통신』, 2014년 2월 14일.

만족도가 50%를 넘어섰으나, 2014년 조사결과는 집권 2년차를 맞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현실적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만족도가 하락했다고 볼 수 있다. 즉 박근혜 정부에 대한 기대가 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2월 고위급 접촉 등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둘러싼 제반 문제가 해결을 향해 진전되기보다는 대치와 정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할 수 있다. 다만 소폭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2013년 조사에 이어 2014년 조사에서도 절반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한 점은 대내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기반이 크게 약화되지는 않았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표 1-3-1〉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단위: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만족	30.2	34.1	31.8	39.5	40.0	34.3	57.6	53.5
불만족	69.8	65.9	68.2	60.5	60.0	65.7	42.4	46.5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 이상의 지지율이 60%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나머지 세대는 50% 전후로 수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50대 이상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양상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지속되고 있다. 한편 50대 이상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12] 이러한 세대별 양상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자체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박

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지지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

〈표 1-3-2〉 연령대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 비율

(단위: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대	31.0	28.4	29.1	36.0	32.9	31.8	52.8	50.0
30대	34.4	31.6	27.2	36.9	36.1	31.2	55.3	49.4
40대	24.9	37.0	33.1	38.7	42.3	33.6	56.1	49.3
50대 이상	30.5	38.6	38.3	47.1	46.7	39.3	63.8	61.8

광역권별로 대북정책 만족도를 살펴보면 영남권이 62.0%로 가장 높고 중부권과 수도권이 각각 54.4%와 52.6%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으며, 강원권과 제주권의 52.3%와 50.0%에 이어 호남권이 37.7%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세대별 응답과 유사하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지지가 대북정책 평가에도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2013년 조사에 비해 영남권과 중부권에서는 만족도가 각각 6.9%와 6.6% 감소하였고 수도권도 3.5% 줄어든 반면 호남권에서는 비록 오차 범위 이내이긴 하지만 2.6% 증가하였다.

12) 이번 조사가 진행된 7월 첫 주에서 셋째 주까지의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50대와 60대 이상의 응답이 7월 첫 주의 경우 48%와 68%(다른 세대는 27~30%), 둘째 주의 경우 53%와 67%(다른 세대는 30~31%), 셋째 주의 경우 56%와 70%(다른 세대는 23~35%)로 각각 나타났다(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121호, 122호, 123호 참조. 〈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asp?pagePos=3&selectyear=&search=&searchKeyword=〉).

〈표 1-3-3〉 광역권별 대북정책 만족 비율

(단위: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수도권	26.8	30.0	31.4	38.6	43.4	32.7	56.1	52.6
중부권	28.8	31.3	22.9	37.3	17.9	36.2	61.0	54.4
호남권	43.7	17.7	19.5	18.5	24.1	20.0	35.1	37.7
영남권	31.3	49.7	41.7	51.9	48.4	43.3	68.9	62.0
강원	41.7	33.3	25.0	22.2	42.9	22.2	37.1	52.3
제주	15.4	14.3	15.4	30.8	15.4	38.5	76.9	50.0

교육수준에 따른 대북정책 만족도에서는 상대적으로 고학력층보다 저학력층의 만족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층에서는 민족도가 51.2%인 반면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층에서는 만족도가 58.2%로,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층보다 7.0% 높았다. 이러한 추세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되고 있는데,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의 경우에는 중졸 이하 학력층보다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층에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1-3-4〉 교육수준별 대북정책 만족 비율 (단위: %)

(단위: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중졸 이하	28.9	34.3	40.2	46.2	45.9	39.6	59.6	58.2
고졸	28.2	37.1	35.6	41.6	44.2	36.3	62.1	55.0
대재 이상	32.5	31.1	26.6	36.9	35.4	31.2	51.8	51.2

"자신이 얼마나 진보적 또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에 대한 응답을 기준으로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2008년 이명박 정

부 출범 이후 보수층과 진보층 간 만족도가 역전된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2007년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진보층의 만족도가 보수층보다 17.1% 높았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보수층의 만족도가 진보층보다 13.5% 높게 나타났고, 이러한 추세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2014년의 경우에도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보수층의 만족도가 진보층보다 17.2% 높게 나타났다. 2014년 조사결과를 2013년과 비교하면 보수층과 중도층에서는 비슷한 수준을 보인 반면 진보층에서는 10%나 감소하여 만족한다는 응답이 절반 이하로 하락하였다.

〈표 1-3-5〉 정치성향별 대북정책 만족 비율

(단위: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진보	40.9	28.0	27.1	35.4	35.9	22.9	52.4	42.4
보수	22.0	41.5	35.3	48.7	47.2	46.6	66.9	65.6
중도	29.2	32.8	32.2	38.1	38.8	34.9	55.4	53.6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해 얼마나 만족 또는 불만족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을 기준으로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경제상황에 만족하는 층의 대북정책 만족도가 경제상황 불만족 층의 대북정책 만족도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이는 성격이 다른 정부의 출범과 무관하게 비교적 일관된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2014년의 경우도 경제상황에 만족하는 층의 대북정책 만족도가 경제상황 불만족 층의 대북정책 만족도보다 18.6%나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

치는 가운데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에도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3-6〉 경제상황에 대한 만족도별 대북정책 만족 비율

(단위: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만족	48.8	50.9	40.1	51.9	54.8	44.0	70.1	66.7
불만족	27.1	31.6	30.2	34.0	34.8	31.3	52.8	48.1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도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일정한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자신이 한국인인 것을 어느 정도 자랑스럽게 혹은 자랑스럽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에 대한 응답을 기준으로 대북정책 만족도를 살펴보면 자랑스럽다는 응답층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자랑스럽지 않다는 응답층의 만족도보다 10~20% 정도 높은 경향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마찬가지로 성격이 다른 정부의 출범과 무관하게 일관된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2014년의 경우를 보면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다는 인식을 가진 층에서는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57.4%로서 자랑스럽지 않다는 인식을 가진 층의 38.3%보다 19.1% 높게 나타났다.

〈표 1-3-7〉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별 대북정책 만족 비율

(단위: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자랑스러움	32.9	37.6	35.2	41.9	42.7	36.5	60.2	57.4
자랑스럽지 않음	21.6	20.3	22.0	27.4	27.3	23.2	45.2	38.3

한편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북한의 책임과 관련된 인식을 기준으로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북한의 책임이 크다고 인식하는 층의 대북정책 만족 비율이 북한의 책임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층의 만족 비율보다 높은 경향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이 문항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2009년 이후 정부의 대북정책이 전반적으로 압박 기조였음을 감안하면,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북한 책임론이 북한의 '변화불가론' 과 '조기 붕괴론' 등에 기초한 대북강경책에 정당성을 부여한 중요한 요소였음을 알 수 있다.

2014년의 경우도 북한의 책임이 크다고 인식하는 층의 대북정책 만족도가 북한의 책임이 크지 않다고 인식하는 층의 만족도보다 24.6% 높게 나타났다. 2014년 조사결과를 2013년과 비교하면 북한의 책임이 크다고 인식하는 층의 대북정책 만족도는 5.4% 감소한 반면 북한의 책임이 크지 않다고 인식하는 층의 대북정책 만족도는 15.8%나 감소하였다.

〈표 1-3-8〉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북한 책임 인식별 대북정책 만족 비율

(단위: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크다	32.7	41.2	40.1	35.1	58.6	53.2
크지 않다	23.8	17.6	11.1	15.4	44.4	28.6
중간	25.4	25.9	41.1	31.7	50.0	59.8

3. 대북 정책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인식

먼저 분야별로 통일에 '매우 또는 다소' 도움이 된다는 인식의 비율을 살펴보면 정기적인 남북회담이 가장 높고 대북인도지원이 가장 낮은 경향이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북사회문화교류와 경제협력은 정기적 회담과 대북인도지원 사이에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4년의 경우를 보면 정기적인 남북회담이 73.6%로 가장 높은 반면 대북인도지원은 47.9%로 2013년에 이어 절반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2013년과 비교하면 모든 분야에서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소폭이나마 증가하였다.

〈표 1-3-9〉 통일에 대한 분야별 기여 인식 비율

(단위: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대북인도지원	57.4	51.8	54.1	52.3	50.7	53.4	46.3	47.9
남북사회문화교류	69.7	60.0	68.2	66.8	64.8	64.3	58.7	63.8
남북경제협력	72.5	57.5	64.3	68.7	61.7	65.3	61.8	62.8
남북정기회담	74.7	64.5	73.4	75.3	71.4	69.8	70.8	73.6

"통일을 이루기 위해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에 대해 '매우 또는 다소' 시급하다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조사 시작 년도에 비해 이산가족과 국군포로문제가 시급하다는 인식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이 시급하다는 인식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군사적 긴장해소는 2008년 금강산관광객 피격사망 사건, 2010년 천안함 사건

과 연평도 포격 사건, 2013년 3차 핵실험과 전쟁위협 등 북한의 대남도발이나 군사적 긴장조성과 연관되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4년의 경우를 보면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이 가장 큰 비율을 보였으며 군사적 긴장해소와 북한의 개혁개방,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문제와 같은 인도적 문제와 남북회담의 정례화가 그 다음을 이었다. 2013년과 비교하면 군사적 긴장해소 대신 북한주민 인권개선이 시급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13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에 따라 5월에 설치된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가 2014년 2월 조사결과를 발표하고,[13]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포함해 북한 주민의 인권 침해에 연루된 모든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처벌을 권고함으로써 북한인권 문제가 주요한 현안으로 부상한 결과이기도 하다.

〈표 1-3-10〉 통일을 위한 분야별 시급성 인식 비율

(단위: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남북회담정례화	66.8	61.7	72.2	69.7	67.7	68.5	67.9	66.4
북한개혁개방	78.3	69.0	80.5	78.2	79.6	79.3	74.6	77.1
군사적 긴장해소	79.9	71.3	83.7	83.7	83.2	77.4	81.5	78.6
미군철수	31.1	30.3	25.0	24.4	24.0	22.5	22.1	22.5
이산가족/국군포로문제	79.9	72.0	73.0	75.7	75.8	74.0	70.8	71.4
북한주민인권개선		76.3	76.3	82.8	80.0	79.8	79.4	82.0

13) "Report of the detailed finding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A/HRC/25/CRP.1" 〈http://www.ohchr.org/EN/HRBodies/HRC/CoIDPRK/Pages/ ReportoftheCommissionofInquiryDPRK.aspx〉

다음으로 "대북지원이 북한주민들의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 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후 '별로 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2014년의 경우도 대북지원이 북한주민들의 생활에 '매우 또는 약간'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48.3%로 절반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다만 2014년 조사결과를 2013년과 비교하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7.9% 증가하였다.

〈표 1-3-11〉 북한주민 생활에 대한 대북지원 효용성

(단위: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도움됨	49.6	44.0	45.6	44.8	43.4	42.3	40.4	48.3
도움 안됨	50.4	56.0	54.4	55.3	56.6	57.7	59.6	51.7

대북지원의 효용성에 대한 광역권별 인식을 살펴보면 조사가 시작된 2007년부터 2013년까지는 호남권의 긍정적 인식 비율이 영남권의 긍정적 인식보다 지속적으로 높은 양상을 보였으며, 수도권과 중부권은 영남권에 근접해서 움직이는 경향을 보여왔다. 그러나 2014년 조사에서는 긍정적 인식 비율이 2013년보다 중부권에서는 21.2%, 수도권에서도 11.3% 증가한 반면 호남권에서는 5.1% 감소하면서 긍정적 인식 비율의 크기가 중부권과 호남〉수도권〉영남권 순으로 새롭게 분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표1-3-12〉 광역권별 대북지원 효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 비율

(단위: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수도권	49.4	44.0	48.4	47.3	45.3	41.6	38.0	49.3
중부권	48.3	44.5	39.0	40.7	45.3	38.8	43.2	64.4
호남권	56.3	56.2	60.5	62.2	49.1	67.5	64.0	58.9
영남권	47.1	38.8	36.4	35.2	41.0	34.0	37.2	37.1
강원	58.3	38.9	50.0	41.7	14.3	58.3	37.1	43.2
제주	46.2	64.3	61.5	53.8	23.1	38.5	7.7	30.0

한편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별로 대북지원의 효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면 현재의 경제상황에 만족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대북지원에 대한 긍정적 인식 비율이 높은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경제상황에 만족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포용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탈북자들에 대한 친근감이나 탈북자 지원 증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보면 경제상황에 만족하는 층이 그렇지 않은 층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는 남한 경제에 위기가 발생하고 국민들이 이를 체감하는 상황이 초래되면 북한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배타성이 커질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표 1-3-13〉 경제상황 만족도별 대북지원의 효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 비율

(단위: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만족	59.0	52.8	54.4	49.7	53.2	48.2	47.9	57.5
불만족	47.8	42.7	44.0	42.5	39.9	40.4	37.5	44.6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매우 또는 약간'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인식이 2014년 조사에서 2013년보다 7.9% 증가하면서 2009년 이후 하락 추세를 보였던 긍정적 인식이 5년 만에 반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이 증가하는 것은 5.24조치를 해제하고 남북경제협력을 재개해야 한다는 인식의 증가를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현상이다.

〈표 1-3-14〉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남북경제협력의 기여 인식

(단위: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도움됨	59.6	66.4	64.6	64.9	63.3	56.9	64.8
도움 안됨	40.4	33.6	35.4	35.1	36.8	43.1	35.2

광역권별로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기여한다는 긍정적 인식의 비율을 살펴보면 호남권의 긍정적 인식 비율이 영남권의 긍정적 인식 비율보다 작게는 9.8%에서 크게는 31.3%까지 높은 양상을 보였다. 2014년의 경우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인식이 2013년보다 중부권에서 21.7%, 수도권에서 7.7%, 영남권에서 4.3% 증가한 반면 호남권에서는 3.3% 하락하면서 중부권과 호남권이 영남권과 대비되는 가운데 수도권이 그 중간에 놓이는 양상을 보인다.

〈표 1-3-15〉 광역권별 남북경제협력의 북한개혁개방 기여에 대한 긍정적 인식 비율

(단위: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수도권	54.8	69.3	65.4	66.6	64.6	57.1	64.8
중부권	60.2	70.3	67.8	64.1	63.8	56.8	78.5
호남권	75.4	84.0	77.3	72.4	75.7	80.7	77.4
영남권	60.0	53.4	58.3	62.6	54.2	49.4	53.7
강원	61.1	58.3	55.6	40.0	75.0	48.6	61.4
제주	92.9	84.6	61.5	53.8	69.2	46.2	63.3

한편 경제상황에 대한 만족도별로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인식의 비율을 살펴보면 경제상황에 만족하는 층의 긍정적 인식 비율이 불만족 층의 긍정적 인식 비율보다 높은 양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4년의 경우 2013년에 비해 경제상황 만족층에서는 긍정적 인식이 7.6%, 불만족층에서는 8.0% 증가하였다.

〈표 1-3-16〉 경제상황 만족도별 남북경제협력의 북한개혁개방 기여에 대한 긍정적 인식 비율

(단위: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만족	68.6	74.3	68.6	73.2	62.0	62.3	69.9
불만족	58.3	64.9	62.8	62.0	62.3	54.8	62.8

대북정책의 주요 현안에 대한 동의나 찬성 비율을 살펴보면, 2013년 조사에 비해 2014년 조사에서 “약간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개성공단은 유지되어야 한다” 나 “금강산관광은 재개되어야 한다” 는 주장에 찬

성하는 비율은 각각 4.7%와 7.5% 감소하여 절반 이하로 떨어진 반면 '남북한 간 체결한 합의 사항은 정부의 교체와 무관하게 계승되어야 한다' 나 '대북 삐라 살포를 정부가 막아야 한다' 는 주장에 동의하는 비율이 각각 5.7%와 4.6% 증가하였고,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대북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 는 주장에 대한 찬성 비율은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제적 관심과 우려 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는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해서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야 한다' 는 주장에 찬성하는 비율이 5.0% 증가하였다.

2014년에 남북관계와 관련된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대북 삐라살포와 관련해서는, 차단에 찬성하는 비율이 49.0%로서 절반을 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살포 차단을 다소 또는 매우 반대한다는 입장은 14.9%에 불과하고 반반 또는 그저 그렇다는 판단 유보층이 36.1%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정부의 대북 삐라살포 차단에 대한 여론은 대체로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표 1-3-17〉 대북정책 주요 현안에 대한 동의나 찬성 비율

(단위: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개성공단 유지		48.6	49.7	46.2	45.8	50.4	45.7
남북합의 계승	50.3	54.1	65.7	66.0	58.7	63.7	69.4
금강산관광 재개			60.2	61.3	62.5	57.4	49.9
북핵 해결 전 지원중단	42.1	47.4	46.4	45.5	41.6	54.4	49.0
정부의 삐라살포 차단		51.5	44.2	43.3	46.5	44.5	49.1
정부의 북한인권문제 제기		61.5	69.5	63.9	64.6	60.8	65.8

개성공단 유지에 대한 찬성 비율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14년의 경우 2013년에 비해 40대에서 11.7%, 20대에서 5.3% 하락하였다. 20대의 찬성 비율이 가장 낮고 30대, 40대와 50대가 수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1-3-18〉 연령대별 개성공단 유지에 대한 찬성 비율

(단위: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대	44.6	38.9	29.8	36.9	41.2	35.9
30대	47.3	50.0	47.4	41.8	48.0	50.6
40대	54.4	53.8	53.4	48.9	56.4	44.7
50대 이상	48.2	56.4	51.0	52.5	53.5	49.3

개성공단 유지에 대한 찬성 비율을 광역권별로 보면 기본적으로 호남권과 영남권의 격차가 작게는 6.6%에서 크게는 27.4%까지 지속되고 있다. 2014년의 경우 2013년에 비해 영남권에서 11.4% 감소하면서 5.2% 감소한 호남권과의 격차가 다시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수도권과 중부권은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수렴되는 양상을 유지하고 있다.

〈표 1-3-19〉 광역권별 개성공단 유지에 대한 찬성 비율

(단위: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수도권	54.6	53.7	46.1	45.1	49.2	47.1
중부권	48.3	37.3	49.6	50.9	49.2	46.3
호남권	55.5	62.2	57.8	65.2	57.9	52.7
영남권	33.6	43.5	41.6	37.8	51.3	39.9
강원	61.1	41.7	40.0	44.4	45.7	38.6
제주	53.8	38.5	46.2	53.8	46.2	56.7

남북합의 계승에 대한 동의 비율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의 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2014년의 경우 2013년에 비해 40대와 50대의 동의 비율이 각각 9.7%와 9.3% 증가하면서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20〉 연령대별 남북합의 계승에 대한 동의 비율

(단위: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대	50.0	52.9	60.1	59.9	52.8	61.5	60.8
30대	49.0	58.6	66.2	64.3	60.6	65.9	67.5
40대	51.6	53.8	67.6	67.7	59.7	63.7	73.4
50대 이상	50.4	50.6	68.8	70.2	60.4	63.4	72.7

남북합의 계승에 대한 동의 비율을 광역권별로 살펴보면, 호남권이 가장 높은 가운데 2014년의 경우 2013년에 비해 수도권과 중부권, 영남권에서 각각 4.9%, 7.5%, 6.1% 증가한 반면 호남권에서는 1.9% 감소하면서 호남권과 중부권, 수도권과 영남권이 수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1-3-21〉 광역권별 남북합의 계승에 대한 동의 비율

(단위: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수도권	44.9	50.4	62.0	67.0	54.6	61.1	66.0
중부권	46.7	62.3	62.8	64.9	53.1	72.2	79.7
호남권	73.7	79.8	71.7	76.7	77.3	80.7	78.8
영남권	51.7	46.0	70.7	60.8	59.5	59.0	65.1
강원	36.1	61.8	71.4	67.7	68.6	65.6	72.5
제주	76.9	75.0	61.5	62.5	66.7	54.5	69.6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찬성 비율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14년의 경우 2013년에 비해 40대에서 10.7% 하락한 가운데 20대에서는 6.0%, 30대에서는 8.0%, 50대 이상에서는 5.7% 하락하였고, 상대적으로 20대에서 가장 낮고 50대 이상에서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1-3-22〉 연령대별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찬성 비율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대	62.7	58.5	66.3	51.6	45.6
30대	55.4	61.9	62.1	57.1	49.1
40대	61.0	63.5	61.9	60.0	49.3
50대 이상	61.8	60.9	60.7	59.5	53.8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광역권별 찬성 비율을 보면, 기본적으로 호남권과 비호남권 간의 격차가 지속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2014년의 경우 2013년에 비해 수도권에서 9.9%, 호남권에서 9.6%, 영남권에서 7.7% 하락한 반면 중부권에서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한편 금강산관광 재개와 직접적이고 밀접한 이해관계를 지닌 강원권에서도 찬성 비율이 7.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23〉 광역권별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찬성 비율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수도권	63.4	60.2	59.4	59.4	49.5
중부권	54.2	61.5	66.4	48.3	47.7
호남권	81.5	81.9	87.8	75.4	65.8
영남권	48.8	55.2	58.7	50.6	42.9
강원	58.3	65.7	55.6	60.0	52.3
제주	61.5	61.5	61.5	46.2	63.3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대북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찬성 비율이 2013년 보다 5.4% 하락하여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가장 크게 11.1% 하락하였고 그 다음으로 40대에서 6.4% 하락하였으며 20대에서도 5.0% 하락한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찬성 비율이 1.0% 하락하는 데 그쳐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절반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표 1-3-24〉 연령대별 북핵 해결 전 대북지원 중단 찬성 비율

(단위: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대	38.7	45.2	42.2	41.9	41.6	54.4	49.4
30대	41.1	44.1	48.1	41.9	33.7	55.6	44.5
40대	44.5	48.9	43.6	47.9	45.9	53.8	47.4
50대 이상	43.5	51.8	52.1	49.0	44.1	54.1	53.1

북핵 문제 해결 전 대북지원 중단에 대한 지역별 찬성 비율을 보면 대체로 수도권과 영남권이 절반 이상으로 높고 중부권과 호남권이 절반 이하를 기록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호남권에서 찬성 비율이 낮은 경향이 2008년 이후 2013년까지 지속되었으나 2014년 들어 중부권에서 찬성 비율이 크게 낮아 지면서 중부권과 호남권이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2013년과 비교하면 2014년에 수도권에서는 4.4% 하락하였고 영남권에서도 5.6% 하락하였으며 특히 중부권에서는 12.5%나 하락하였다. 반면 호남권에서는 4.6% 상승하였다.

〈표 1-3-25〉 광역권별 북핵 해결 전 대북지원 중단 찬성 비율

(단위: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수도권	39.5	49.9	48.5	48.7	39.6	56.3	51.9
중부권	48.4	54.2	45.8	38.5	47.4	50.8	38.3
호남권	29.2	35.3	37.8	25.0	27.0	41.2	45.8
영남권	49.7	45.4	46.0	49.4	48.1	57.4	51.8
강원	44.4	47.2	47.2	42.9	41.7	54.3	34.1
제주	28.6	30.8	46.2	53.8	53.8	46.2	60.0

정부의 대북 삐라살포 차단에 대한 연령대별 찬성 비율을 보면 2010년 이후 전 연령대에서 찬성 비율이 50%를 넘어서지는 않고 있는 가운데 대체적으로 세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14년의 경우 2013년에 비해 3.6~5.8% 상승하면서 40% 중후반대에서 수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30~50대와 20대는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1-3-26〉 연령대별 정부의 대북 삐라 살포 차단에 대한 찬성 비율

(단위: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대	47.0	40.9	41.1	49.0	42.4	46.7
30대	49.2	44.9	41.6	45.0	44.0	49.8
40대	52.0	43.3	43.8	44.1	44.6	49.3
50대 이상	58.5	47.9	45.8	47.8	46.2	49.9

정부의 대북 삐라살포 차단에 대한 지역별 찬성 비율을 보면 대체로 호남권의 찬성 비율이 높다. 2014년의 경우 2013년에 비해 호남권에서 5.5% 하락하고 수도권과 중부권, 영남권에서 각각 5.6%, 1.5%, 10.2% 상승하면서 50%를 전후로 수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1-3-27〉 광역권별 정부의 대북 삐라살포 차단에 대한 찬성 비율

(단위: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수도권	51.2	47.8	39.4	45.2	42.1	47.7
중부권	59.3	47.5	40.2	50.0	50.8	52.3
호남권	59.3	53.8	52.6	57.9	59.6	54.1
영남권	46.6	33.6	51.3	42.6	40.1	50.3
강원	61.1	41.7	22.9	52.8	57.1	29.5
제주	23.1	30.8	30.8	46.2	38.5	46.7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연령대별 찬성 비율을 보면 40대에서상승한 반면 20대와 30대, 50대 이상에서 하락한 2013년을 제외하고 대체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4년의 경우 2013년과 비교하면 20대에서 8.1%, 30대에서 7.8%, 50대 이상에서 6.8% 상승한 반면 40대에서는 2.1% 하락하여 대체로 65% 전후로

수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세대와 무관하게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3-28〉 연령대별 정부의 북한인권 문제 제기에 대한 찬성 비율

(단위: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대	58.9	68.3	61.1	65.9	59.2	67.3
30대	62.6	66.7	62.4	64.8	58.2	66.0
40대	64.3	70.5	66.8	62.5	67.9	65.8
50대 이상	59.9	72.9	64.6	65.4	58.0	64.8

정부의 북한 인권문제 제기에 대한 광역권별 찬성 비율을 보면 2013년의 경우 중부권에서 찬성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수도권과 호남권, 영남권은 대체로 비슷한 수준에서 수렴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2014년에는 영남권에서의 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운데 수도권과 중부권, 호남권이 60% 중후반대에서 수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3년에 비해 2014년에 수도권과 호남권, 영남권에서는 찬성 비율이 각각 6.7%, 5.3%, 1.7% 상승한 반면 중부권에서는 2.2% 하락하였다.

〈표 1-3-29〉 광역권별 정부의 북한인권 문제 제기에 대한 찬성 비율

(단위: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수도권	65.4	74.9	63.8	61.3	61.0	67.7
중부권	78.0	77.1	65.0	71.6	68.6	66.4
호남권	53.8	71.4	69.0	77.2	60.5	65.8
영남권	52.2	55.6	59.7	62.5	59.3	61.0
강원	58.3	66.7	68.6	75.0	42.9	68.2
제주	46.2	92.3	100.0	69.2	69.2	80.0

한편 교육수준에 따른 정부의 북한인권 문제 제기에 대한 찬성 비율을 보면 2010년을 제외하고는 대학재학 이상의 학력 층에서 찬성 비율이 가장 높은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2014년의 경우 찬성 비율이 중졸 이하에서는 2% 감소한 반면 고졸에서는 6.6% 상승하였고 대학재학 이상에서도 3.7% 상승하였다.

〈표 1-3-30〉 교육수준별 정부의 북한인권 문제 제기에 대한 찬성 비율

(단위: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중졸 이하	53.8	73.1	56.8	66.0	59.6	57.6
고졸	60.0	66.0	63.1	59.9	56.1	62.7
대재 이상	64.5	71.5	65.8	69.3	66.1	69.8

"자신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진보적 또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에 대한 응답에 따라 정부의 북한인권 문제 제기에 대한 찬성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면 대체적으로 '매우 또는 약간 진보적' 이라는 응답층의 찬성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2014년의 경우 2013년에 이어 중도층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면서 진보적인 층과 보수적인 층이 수렴되는 양상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2014년의 경우 2013년에 비해 찬성 비율이 진보층에서는 7.5%, 보수층에서는 6.0% 상승하였고 중도층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2.8% 상승하였다.

〈표 1-3-31〉 정치성향별 정부의 북한인권 문제 제기에 대한 찬성 비율

(단위: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진보	69.2	72.4	67.9	71.3	63.9	71.4
보수	61.3	67.4	65.9	66.9	64.8	70.8
중도	57.6	68.4	60.6	59.9	57.2	60.0

마지막으로 "한국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 는 주장에 대한 찬성 비율을 보면 2014년의 경우 2013년에 비해 찬성이 2.1% 상승한 54.4%, 반대가 1.9% 감소한 17.7%를 차지하였으나 실제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향후 추세를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국민의 절반 정도가 핵무기 보유에 찬성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판단을 유보한 반반 응답층을 제외하면 반대 여론도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1-3-32〉 한국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찬성	반대	반반	전체
2013	52.3	19.8	27.8	100.0
2014	54.4	17.7	27.9	100.0

한국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연령대별 찬성 비율을 보면 2014년의 경우 2013년에 비해 20대에서 7.6%로 가장 크게 상승하였다. 30대와 40대, 50대 이상에서는 각각 1.6%와 1.0% 상승하였거나 0.8% 하락하면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30대와 40대, 50대가 대체로 50% 중반대에서 수렴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20대가 가장 낮은 40% 후반을 기록하고 있다.

〈표 1-3-33〉 연령대별 한국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찬성 비율

(단위: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2013	40.0	52.4	57.7	56.2
2014	47.6	54.0	56.9	57.2

지역별로 한국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찬성 비율을 보면 2014년의 경우 수도권이 2013년보다 11.8% 증가한 60.0%로 가장 높고 6.7% 감소한 호남권이 58.2%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으며 영남권과 중부권은 각각 7.6%와 7.4% 감소하여 절반 이하인 48.5%와 44.3%를 나타냈다.

〈표 1-3-34〉 광역권별 한국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찬성 비율

(단위: %)

구분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강원	제주
2013	48.2	51.7	64.9	56.1	54.3	46.2
2014	60.0	44.3	58.2	48.5	59.1	50.0

한국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정치성향별 찬성 비율을 보면 2014년의 경우 2013년에 비해 진보층에서 8.8% 증가한 것이 주목된다. 그 결과 2014년의 경우 진보층이든 보수층이든 대체로 60% 전후에서 수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중도층에서는 찬성 비율이 2013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 가운데 50%를 넘어서지 않고 있다.

〈표 1-3-35〉 정치성향별 한국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찬성 비율

(단위: %)

구분	진보	보수	중도
2013	52.4	58.1	49.3
2014	60.8	57.3	4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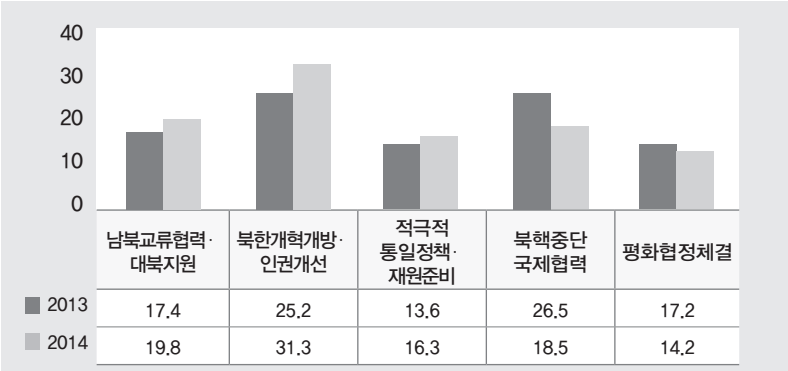
4. 바람직한 최우선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바람직한 대북정책이 어떤 내용을 최우선시 해야 하는지" 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 2년차인 2014년의 경우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던 2013년에 비해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권 개선이 6.1% 상승한 31.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2.4% 상승한 남북교류협력 및 대북지원이 19.8%로 그 다음을 차지한 가운데 적극적인 통일정책과 통일재원 준비가 2.7% 상승하여 16.3%로 나타났다. 반면 북핵 중단을 위한 국제협력은 북한 핵문제가 개선되기보다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8.0% 하락한 18.5%를 차지하였고 평화협정체결은 3.0% 하락한 14.2%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권 개선 등 내부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자발적으로 포기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인식 하에서 우회적이고 대안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그 방향이 북한의 내부변화라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표 1-3-36〉 최우선시 해야 할 바람직한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단위: %)



	남북교류협력·대북지원	북한개혁개방·인권개선	적극적 통일정책·재원준비	북핵중단 국제협력	평화협정체결
2013	17.4	25.2	13.6	26.5	17.2
2014	19.8	31.3	16.3	18.5	14.2

대북정책 만족도별로 최우선시 해야 할 바람직한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만족하는 층에서는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권개선이 35.8%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남북교류협력과 대북지원이나 북핵중단 국제협력이 각각 18.9%와 17.8%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으나 20%를 넘지는 않고 있다.

이에 비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만족하지 않는 층에서는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권개선이 만족하는 층보다 9.7% 낮았다. 반면 남북교류협력과 대북지원 및 북핵 중단을 위한 국제협력은 만족하는 층보다 각각 1.6% 높은 20.5%와 1.7% 높은 19.5%를 차지하였으며 적극적인 통일정책과 통일재원 준비도 만족하는 층보다 6.0% 높은 18.9%로 나타났다.

〈표 1-3-37〉 대북정책 만족도별 최우선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2014)

(단위: %)

구분	남북교류협력·대북지원	북한개혁개방·인권개선	적극적 통일정책·재원준비	북핵중단 국제협력	평화협정 체결	전체
만족	18.9	35.8	13.9	17.8	13.5	100.0
불만족	20.5	26.1	18.9	19.5	15.0	100.0

최우선 대북정책에 대한 지역별 인식을 살펴보면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북한개혁개방과 인권개선을 각각 36.9%와 30.4%로 응답하여, 30% 이상이 이 두 가지를 최우선시 하였다. 중부권과 호남권에서는 남북교류협력과 대북지원이 각각 24.8%와 29.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북핵 중단 국제협력은 영남권에서 22.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적극적 통일정책과 재원준비는 호남권에서 18.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평화협정체결은 중부권에서 29.5%로 가장 높은 반면 영남권에서는 9.8%로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표 1-3-38〉 광역권별 최우선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2014)

(단위: %)

구분	남북교류협력·대북지원	북한개혁개방·인권개선	적극적 통일정책·재원준비	북핵중단 국제협력	평화협정 체결	전체
수도권	14.5	36.9	17.7	19.4	11.5	100.0
중부권	24.8	23.5	12.8	9.4	29.5	100.0
호남권	29.5	19.9	18.5	17.1	15.1	100.0
영남권	21.5	30.4	16.0	22.4	9.8	100.0
강원	22.7	27.3	11.4	20.5	18.2	100.0
제주	13.3	46.7	10.0	10.0	20.0	100.0

최우선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별로 대북지원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2014년의 경우 2013년에 비해 남북교류협력과 대북지원을 선호하는 층에서는 11.6% 증가한 70.5%로 다른 정책 선호층보다 최소 20% 이상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적극적 통일정책과 재원준비를 선호하는 층에서는 48.7%를 보였는데 이는 2013년보다 2.8% 감소한 것이다. 그 다음은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권개선을 선호하는 층으로 2013년보다 2.3% 증가한 44.0%로 나타났고 북핵 중단을 위한 국제협력을 선호하는 층에서는 2013년보다 7.7% 증가하였으나 36.0%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1-3-39〉 최우선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별 대북지원에 대한 긍정적 인식 비율

(단위: %)

구분	남북교류협력·대북지원	북한개혁개방·인권개선	적극적 통일정책·재원준비	북핵중단 국제협력	평화협정 체결
2013	58.9	41.7	51.5	28.3	29.6
2014	70.5	44.0	48.7	36.0	42.4

최우선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별로 정부 교체와 무관하게 남북합의를 계승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비율을 보면 전체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이나 대북지원을 선호하는 층의 동의 비율이 가장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4년의 경우 2013년에 비해 남북교류협력과 대북지원을 선호하는 층에서 6.3% 증가한 83.9%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권개선을 선호하는 층에서 2.6% 증가한 68.3%를 보였으며, 적극적 통일정책과 재원준비를 선호하는 층에서는 6.3% 감소한 67.1%를 기록하였다. 북핵 중단을 위한 국제협력이나 평화협정체

결을 선호하는 층에서는 각각 9.9%와 8.0% 증가하였으나 60% 초반대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1-3-40〉 최우선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별 남북합의계승 동의 비율

(단위: %)

구분	남북교류협력·대북지원	북한개혁개방·인권개선	적극적 통일정책·재원준비	북핵중단 국제협력	평화협정 체결
2013	77.6	65.7	73.4	53.1	53.4
2014	83.9	68.3	67.1	63.0	61.4

최우선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별로 개성공단 유지에 찬성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남북교류협력과 대북지원을 선호하는 층에서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2014년의 경우 2013년에 비해 적극적 통일정책과 재원준비 선호층의 찬성률이 18.7%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고, 북한개혁개방과 인권개선 선호층에서도 12.8%로 큰 폭의 감소를 보인 가운데 남북교류협력과 대북지원 선호층에서는 6.1%, 북핵중단 국제협력과 평화협정체결 선호층에서는 각각 3.4%와 5.1% 감소하였다.

이는 국민들이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권개선을 촉진하거나 통일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개성공단을 인식하기보다 남북교류협력이나 대북지원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1-3-41〉 최우선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별 개성공단 유지 찬성 비율

(단위: %)

구분	남북교류협력·대북지원	북한개혁개방·인권개선	적극적 통일정책·재원준비	북핵중단 국제협력	평화협정 체결
2013	66.0	50.0	61.3	39.9	42.7
2014	59.9	47.2	42.6	36.5	37.6

최우선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별로 금강산관광 재개에 찬성하는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면 2014년의 경우 2013년에 비해 북핵 중단을 위한 국제협력 선호층에서는 15.3% 하락한 37.8%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으며, 남북교류협력 및 대북지원 선호층에서 8.4%, 적극적 통일정책과 재원준비 선호층에서 13.0%,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권개선 선호층에서 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핵 중단을 위한 국제협력을 선호하는 층에서 금강산관광 재개에 찬성하는 비율이 크게 떨어진 것은 금강산관광 대개가 북한의 핵개발에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금강산관광 재개를 북한 핵문제 해결과 연계시키는 인식이 늘어났을 가능성이 주목된다.

〈표 1-3-42〉 최우선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별 금강산관광 재개 찬성 비율

(단위: %)

구분	남북교류협력·대북지원	북한개혁개방·인권개선	적극적 통일정책·재원준비	북핵중단 국제협력	평화협정 체결
2013	67.0	56.0	66.3	53.1	49.5
2014	58.6	51.2	53.3	37.8	47.1

최우선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별로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대북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하는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면 2014년의 경우 2013년에 비해 모든 층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가운데, 북핵 중단을 위한 국제협력이나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권개선, 평화협정체결을 선호하는 층에서는 50% 중반으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남북교류협력과 대북지원이나 적극적 통일정책과 재원준비를 선호하는 층에서는 각각 30%와 40% 중반대의 낮

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1-3-43〉 최우선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별 북핵 해결 전 대북지원 중단 찬성 비율

(단위: %)

구분	남북교류협력·대북지원	북한개혁개방·인권개선	적극적 통일정책·재원준비	북핵중단 국제협력	평화협정 체결
2013	39.2	54.6	50.3	66.0	55.3
2014	33.5	53.9	44.3	57.2	54.1

최우선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별로 정부의 대북 삐라살포 차단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을 보면 남북교류협력과 대북지원을 선호하는 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가운데 2014년의 경우 2013년에 비해 평화협정체결을 선호하는 층에서 12.4% 상승한 57.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남북교류와 대북지원 선호층에서 3.7% 상승한 52.5%로 그 다음을 차지하면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통일정책과 재원준비 선호층에서는 4.0% 상승하였으나 48.2%로 절반을 넘지는 않았으며 북핵 중단 국제협력과 북한의 개혁개방 및 인권개선 선호층에서는 각각 3.7%와 1.7% 상승하였으나 46.6%와 45.1%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1-3-44〉 최우선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별 정부의 대북 삐라살포 차단 찬성 비율

(단위: %)

구분	남북교류협력·대북지원	북한개혁개방·인권개선	적극적 통일정책·재원준비	북핵중단 국제협력	평화협정 체결
2013	48.8	41.4	44.2	44.3	44.7
2014	52.5	45.1	48.2	46.6	57.1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남한의 책임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른 대북정책 인식을 살펴보면 남한의 책임이 아주 또는 조금 크다고 인식하는 '크다' 층에서는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권개선에 대한 선호가 35.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남북교류협력과 대북지원이 20.7%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반면 남한의 책임이 별로 크지 않거나 거의 없다는 '크지 않다' 층에서는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권개선이 28.7%로 가장 크지만 북핵 중단을 위한 국제협력도 북한의 개혁개방 및 인권개선과 비슷한 26.1%를 보이고 있다. 이는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인식에 따라 대북정책 상의 주요 의제에 대한 인식도 서로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1-3-45〉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남한의 책임 인식별 최우선 대북정책 인식(2014)

(단위: %)

구분	남북교류협력·대북지원	북한개혁개방·인권개선	적극적 통일정책·재원준비	북핵중단 국제협력	평화협정 체결
크다	20.7	35.2	16.9	13.4	13.8
크지 않다	16.5	28.7	16.5	26.1	12.2
중간	20.3	27.5	15.3	21.1	15.8

최우선시 해야 할 바람직한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의 바탕에 놓인 북한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북한과도 대화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남북교류협력과 대북지원을 선호하는 층에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적극적 통일정책과 재원준비를 선호하는 층이다. 북핵 중단을 위한 국제협력을 선호하는 층에서는 가장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4년의 경우 2013년과 비교하면 북한과 대화가 가능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남북교류협력과 대북지원 선호층에서는 17.2% 감소하고 적극적 통일정책과 재원준비나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권개선 선호층에서도 각각 17.9%와

12.4%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인식의 차이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으나 남북교류협력 및 대북지원 선호층과 북핵중단 국제협력 선호층 간의 차이는 15.6%로서 기본적으로는 2013년과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1-3-46〉 최우선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별 북한과의 대화 가능 인식 비율

(단위: %)

구분	남북교류협력·대북지원	북한개혁개방·인권개선	적극적 통일정책·재원준비	북핵중단 국제협력	평화협정 체결
2013	53.1	40.1	49.7	17.0	29.6
2014	35.9	27.7	31.8	20.3	27.1

최우선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별로 "북한이 얼마나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에 대해 '많이 또는 약간 변하고 있다' 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는 남북교류협력 및 대북지원을 선호한 층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2014년의 경우 2013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는 인식이 증가한 가운데, 특히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권개선을 선호하는 층에서 2013년보다 17.4% 증가하면서 남북교류협력 및 대북지원 선호층과 비슷한 50%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권개선을 선호하는 층이 단순히 규범적이고 당위적인 차원에서 북한의 변화를 핵심정책 방향으로 제기하기보다 현실적인 변화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1-3-47〉 최우선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별 북한 변화 인식 비율

(단위: %)

구분	남북교류협력·대북지원	북한개혁개방·인권개선	적극적 통일정책·재원준비	북핵중단 국제협력	평화협정 체결
2013	48.3	32.5	42.9	31.1	29.1
2014	50.6	49.9	43.6	39.2	39.4

마지막으로 통일에 대한 인식별로 최우선 대북정책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살펴보면 대체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 는 조기통일 희망 층에서는 남북교류협력과 대북지원을 선호하고,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는 여건 성숙 층에서는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권개선 등 북한의 변화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현재대로가 좋다' 는 현상유지 층에서는 2013년의 경우 북핵 중단을 위한 국제협력을 선호하였으나 2014년에는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권개선을 선호하는 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는 무관심 층에서는 북핵 중단을 위한 국제협력을 선호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 남북교류협력이나 대북지원에 대한 선호도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48〉 통일에 대한 인식별 최우선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남북교류협력·대북지원	북한개혁개방·인권개선	적극적 통일정책·재원준비	북핵중단 국제협력	평화협정 체결
조기통일	2013	31.1	20.0	19.3	14.1	15.6
	2014	30.2	26.2	19.5	10.7	13.4
여건성숙	2013	18.4	28.7	13.3	25.2	14.5
	2014	19.4	33.6	17.8	17.2	12.0
현상유지	2013	7.0	18.9	12.3	37.9	23.8
	2014	14.8	30.9	11.3	24.3	18.7
무관심	2013	15.6	20.8	11.5	28.1	24.0
	2014	18.2	21.6	11.4	27.3	21.6

5. 소결

2014년 조사에서 나타난 주요한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여전히 50%를 넘지만 2013년보다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이 나타난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여전히 50%를 넘고 있는 것은, 대북정책과는 일정 정도 무관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여론에 더해, 국민들이 남북관계 악화 등에 대한 책임을 박근혜 정부에게만 묻기보다 북한 등 다른 변수들도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기반이 크게 약화되지는 않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2014년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차 되는 해로서 대북정책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기 시작한 해였다. 이런 점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2013년보다 떨어졌다는 것은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가 시작되었으며 집권 3년차가 되는 2015년이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해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대북정책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한 여론을 보면 다소 이율배반적인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강경한 대북정책 요구와 전향적인 협력을 향한 변화 요구들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나 금강산관광을 재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2013년보다 감소한 것은 대북협력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반면 북한과의 공존과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북지원이 북한주민들의 생활 개선에 도움이 되며,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이 되고, 정부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남북합의가 계승되어야 하며, 정부가 남북관계 경색을 야기하고 있는 대북 삐라살포를 차단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권력을 승계하고 안정화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에서 보듯, 핵무기 전력화까지 천명한 상황에서 2013년 조사에서 2012년보다 12.8%나 증가하였던 북핵해결 전 대북지원 중단에 대한 찬성 여론이 2014년 조사에서 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다른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협력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대북접근과 협력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인식이 다소 이율배반적인 조사 결과로 나타났을 수 있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이 과거 남북관계의 협력적 발전에 기여하였다 하더라도, 한국사회 일각에서는 그것이 바람직한 경제협력 모델인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핵문제 및 북한 관련 여러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결과적으로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국민들 속에 존재한다고 보면, 개성공단 유지나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여론이 2013년보다 감소한 것은 기존의 협력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대북정책 방향과 남북협력 방식을 요구하는 것일 수 있다.

바람직한 최우선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이 이를 보여준다.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북한의 핵능력 증강 등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한 국제협력에 대한 선호는 2013

년보다 감소하고 대신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권 개선 등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은 증가하였다. 따라서 국민들이 원하는 대북정책 방향은 압박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국민들은 북한이 상당히 변화하고 있으며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들이 실효성도 지닐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람직한 최우선 대북정책 방향으로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권개선을 선호하는 층에서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북한은 많이 또는 약간이나마 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북핵 중단을 위한 국제협력을 선호하는 층에서는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북한의 개혁개방 및 인권개선 선호층보다 10.7%나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2014년 조사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선호하는 대북정책을 정리하면,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구상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 보유와 전력화를 강하게 천명하면서 국제적 고립을 야기하고 있으나,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기보다 외부와의 협력관계 발전 또한 희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민여론을 수용한 대북정책이 추진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북한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이 재구조화되어야 하고, "북한의 국제화" 는 대안[14]적 대북정책 방향일 수 있다.

14) 박명규 외, 『북한국제화 2017』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3).

제4장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한국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 정착은 통일준비과정에서 필수적이며,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정책은 진정 행복한 통일의 초석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을 지원의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그들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이 동시에 강조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들은 더 이상 한국사회의 주변인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발전과 남북한 통일 과정에서 역할과 책임을 나눠 가진 동등한 공동체 구성원이다.

한국사회가 북한이탈주민들을 수용하고 있는 현실은 통일 후 남북한 사회통합의 수준과 양상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통일부에 의하면 2014년 6월 말 26,854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고 있다. 2014년 9월 말 한국의 주민등록인구가 약 5,128만 명인 것과 비교하면 약 0.05%에 불과하지만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

들의 정착과정과 한국사회에서 이들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학술적, 정책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 정도와 그들의 정착 현실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사회가 남북한 통합을 이뤄나가기까지 필요한 포용성과 수용성의 측면에서 사회적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통일의식조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정부와 공공부문의 지원서비스 이외에 사적 부문에서 이들이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가를 조사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태도, 의견 등이 정책결정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자아인식과 사회에 대한 태도 및 행태에 영향을 미치며, 남북한 주민들의 상호작용은 주민들 간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역할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연구가 더욱 중요하다. 남북한 주민들의 사회관계 형성과정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과정이며, 남북한 통합의 양상과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과 지원 정책은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점차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의 합리성, 비용 대비 효율성, 다른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지원 정책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담론들이 쟁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담론들은 사회적 순기능을 지니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특정 정치세력 혹은 이익집단의 의도

대로 의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역기능을 지니기도 한다. 본 통일의식조사는 특정한 가치지향적 담론을 재생산하기보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와 관련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학술적 정책적 기여를 하고자 한다.

이 장은 2014년 통일의식조사 결과에 나타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분석하고, 2007년부터 올해까지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인식과 태도의 추세를 설명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의 정도,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유형별(동네이웃, 직장동료, 사업동업자, 결혼배우자) 태도, 북한이탈주민의 역할 및 지원 정책(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수준, 북한이탈주민과의 사회적 경쟁) 등에 대한 문항별 자료와 기초분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과 포용성의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인식 및 태도에 대한 교차분석도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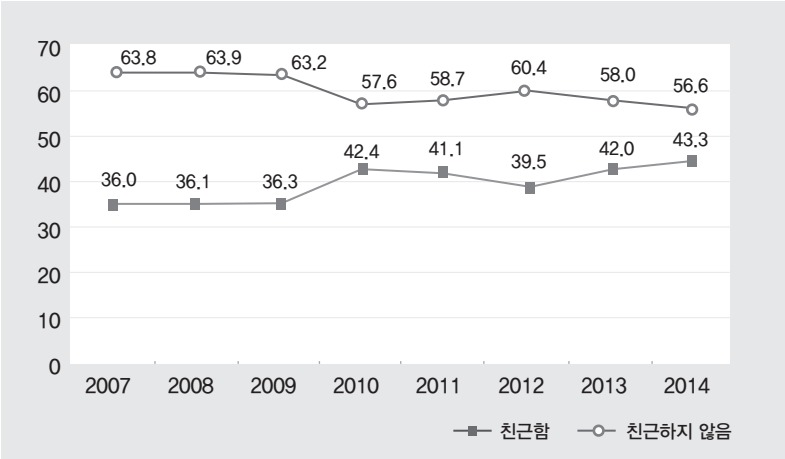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은 일반적이고 종합적인 부문의 인식과 개별적 사회관계 유형에 따른 부문별 인식을 통하여 구별해 측정할 수 있다. 통일의식조사는 종합적 친근감의 정도를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새터민)가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라는 질문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응답자의 43.3%가 ‘(매우 혹은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고

대답하였으며, 56.6%는 '(별로 혹은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15] 종합적인 친근감의 정도는 〈그림 1-4-1〉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2013년에 전년도에 비해 2.5% 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1.3% 증가하였다. 반면 친근하지 않다는 응답은 2013년에 2.4% 감소하였고, 2014년에는 1.8% 감소하였다. 해마다 증가 폭은 크지 않지만 2007년, 2008년의 결과와 비교하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들의 친근감의 정도는 약간이나마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4-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단위: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종합적 친근감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43.4%가 여성은 38.0%가 북한이탈주민이 친근하

15) '모르겠다' 혹은 '무응답'을 포함한 통계이기 때문에 전체의 합이 100%가 아닐 수 있다.

게 느껴진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47.6%로 친근감을 느낀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20대(42.3%), 40대(36.2%), 30대(34.8%)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20대와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친근하게 느낀다는 응답의 비율은 높아졌고, 30대와 40대에서는 감소하였다.

한편 2013년 조사에서는 학력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2014년 조사에서는 학력이 낮을수록 북한이탈주민을 더 친근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의 37.3%, 고졸 학력을 가진 응답자의 45.8%,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의 51.2%가 친근감을 느낀다고 각각 응답하였다. 가구 소득별로는 400만원 이상의 소득 상위 계층에서 가장 낮은 39.5%를 기록하였으며 저소득층은 그보다 약 10%나 높은 49% 가량이 북한이탈주민을 친근하게 느껴진다고 하였다. 정치 성향을 보면, 2013년 조사에서 친근감을 느끼는 진보 성향 응답자 비율이 보수 성향 응답자 비율보다 약 15.6% 높았으나, 올해 조사에서는 보수 성향 응답자 비율이 46.8%로 진보 성향 응답자보다 3.8% 높았다. 2011년 이후 응답자의 정치 성향과 그들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느끼는 친근감의 관계는 상황 변수에 따라 큰 폭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2.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

북한이탈주민들과의 관계맺기 유형에 따라 사람들이 보이는 인식과 태도의 차이는 실질적인 남북한 주민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탈북자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 데 대해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라는 질문에 동네이웃, 직장동료, 사업동반자, 결혼상대자 등 네 가지 관계 유형에 대해 각각 답하게 했다. 이러한 유형 구분은 일반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관계맺기와 개인적 이해관계가 밀접한 경제활동의 관계맺기, 결혼을 통해 가족을 구성하는 일차적 관계맺기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관찰하기 위한 것이다. 어떠한 사회에서도 이 모든 관계맺기 유형에서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차이가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차별과 부정적 인식의 심화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 사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정책적 처방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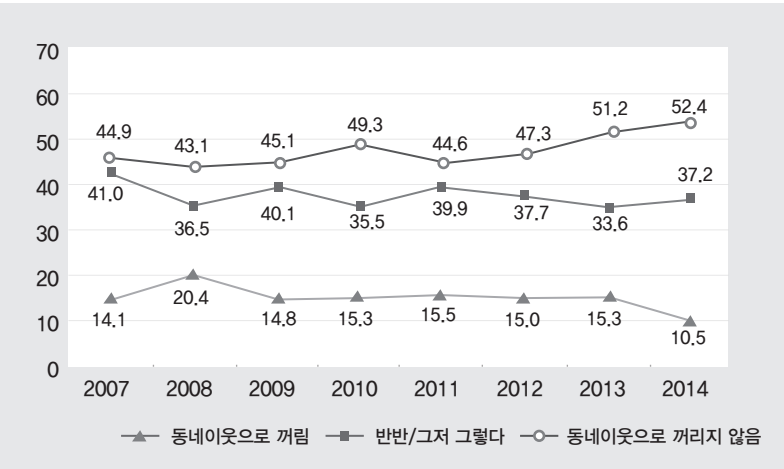
사회적 관계맺기 유형별 태도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네 가지 관계맺기 유형에서 모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북한이탈주민들과 동네이웃 혹은 직장동료로 관계를 맺는 것은 꺼려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사업동반자 혹은 결혼상대자로 관계맺기는 꺼려지지 않는다는 응답이 각각 26.7%와 19.0%에 불과할 정도로 적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종합적 친근감이 조금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개인적 책임이 높아지는 관계맺기는 많은 국민들이 꺼려하고 있다.

1) 동네이웃

남한주민들의 두 명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들과 동네이웃으로 관계를 맺는 것에 긍정적 태도를 보인다. 〈그림 1-4-2〉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들과 동네이웃으로 지내는 것이 '꺼려지지 않는다' 는 응답은 52.4%로 나타났으며, '꺼려진다' 는 응답은 10.5%에 불과했다. 동네이웃 관계가 꺼려진다는 응답은 2009년부터 작년까지 큰 변화 없이 약 15% 정도였으나 올해는 4.8% 감소하였다. 꺼려지지 않는다는 응답률 또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의 긍정적인 응답률은 2007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것이다.

〈그림 1-4-2〉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 동네이웃

(단위: %)



성별에 따른 특징을 보면, 대체로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동네이웃으로 관계맺기에 긍정적이었다. 남성의 54.8%와 여성의 49.8%가 꺼려지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꺼려진다는 응답은 남성의 9.3%와 여성의 11.7%였다. 2013년의 13.9%와 16.7%와 비교하면 2014년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 동네이웃으로 관계맺기에 긍정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대별로는 북한이탈주민과 동네이웃으로 관계 맺는 것을 꺼려하는 태도에 큰 차이가 없는 가운데 30대의 유보적 응답이 가장 높았다. 전년도보다 무려 19.2%가 증가해 42.9%를 기록하였다. 또한 전년도와 비교하여 20대의 긍정적 태도가 12.5%나 증가한 56.1%를 기록한 것이 특징이다.

2012년에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꺼려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2014년에는 2013년과 마찬가지로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정치 성향별 특징을 보면, 보수 성향의 응답자가 진보 성향의 응답자보다 동네이웃으로 관계맺기를 덜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층에서는 57.8%, 진보층에서는 50.4%가 꺼려지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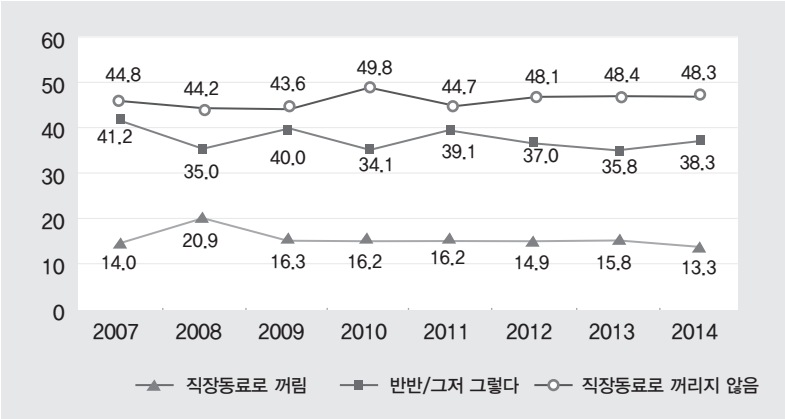
2) 직장동료

2014년 조사 결과 북한이탈주민과 직장동료로서의 관계를 맺는 것이 '꺼려지지 않는다' 는 응답은 48.3%, '꺼려진다' 는 응답은 13.3%, '그저 그렇다' 는 응답은 38.3%였다. 직장생활 속에서 북한이탈주민들과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3년 연속 약 48%로 2013

년과 비교하여 응답자들의 인식과 태도에 큰 변화는 없다. 다만 판단을 유보하는 사람들이 2.5% 증가하였고 부정적인 응답을 하는 사람들은 2.5% 감소하였다.

〈그림 1-4-3〉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 직장동료

(단위: %)



성별 특징을 보면, 북한이탈주민과 직장동료로 관계를 맺는 것이 꺼려지지 않는다고 응답한 남성의 비율(52.3%)이 여성의 비율(44.2%)보다 더 높았다. 세대별로는 50대(51.0%)에서 꺼리지 않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30대(44.1%)에서 가장 낮았다. 동네 이웃 관계와 마찬가지로 꺼려지지 않는다고 응답한 20대의 비율이 2013년보다 크게 증가해, 무려 11.8% 증가한 더 높은 50.0%를 기록한 것이 두드러진다. 교육 수준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아 직장동료로 관계맺기를 꺼리지 않는 응답자의 비율은 중졸 이하 45.8%, 고졸 49.1%, 대학 재학 이상 48.1%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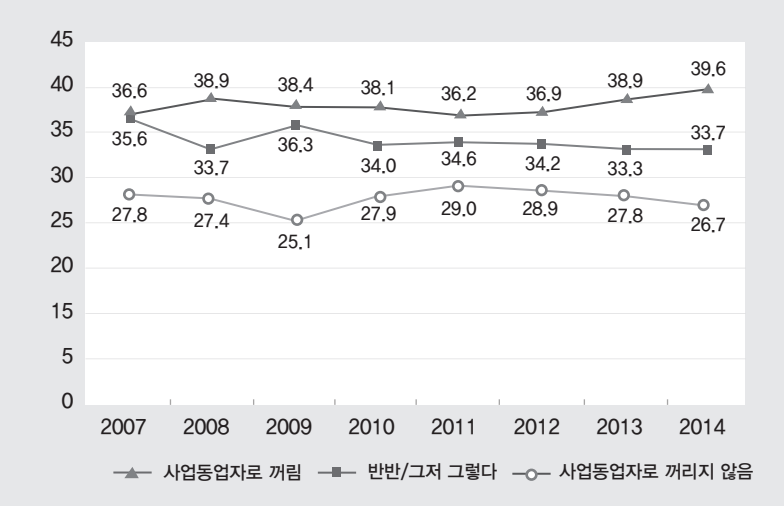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꺼려진다는 응답 비율이 낮아졌다. 특히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집단에서는 응답자의 21.0%가 북한이탈주민과 직장동료로 관계맺기를 꺼리고 있었다. 저소득층의 부정적 태도는 가구소득이 200~299만 원인 응답자의 14.4%, 300~399만 원인 응답자의 11.9%, 400만 원 이상인 응답자의 12.3%와 비교할 때 크게 높았다. 정치 성향은 2013년 조사결과와 반대로 보수적일수록 북한이탈주민들과 직장동료로서 관계맺기를 꺼려하는 비율이 더 낮았다. 보수 성향 응답자의 9.4%, 중도 14.4%, 진보 14.6%가 꺼려진다고 응답한 가운데 꺼려지지 않는다는 응답은 진보(48.2%)와 보수(51.8%)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다.

3) 사업동업자

북한이탈주민과 사업동반자로 관계맺기를 꺼려하는 태도는 2011년 이후 소폭이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응답자들의 약 40%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고, 꺼려지지 않는다는 응답은 26.7%에 불과했다. 동네이웃 혹은 직장동료로 관계를 맺는 경우에는 응답자의 약 절반 정도가 꺼려지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과 대비를 이룬다. 북한이탈주민과 동네이웃이나 직장동료보다 사업동반자 관계를 가장 꺼리는 양상은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의 응답률은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에 해당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북한이탈주민들과 경제적 이해가 직접 얽히는 관계 형성을 꺼려하는 국민들의 태도를 보여 준다.

〈그림 1-4-4〉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 사업동업자

(단위: %)



성별에 따른 태도 차이도 동네이웃 혹은 직장동료 관계보다 사업동반자로 관계를 맺는 데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사업동반자로 북한이탈주민과 관계맺기가 꺼려진다는 여성 응답자는 43.1%, 남성 응답자는 36.1%였다. 꺼려지지 않는다고 응답한 남성은 29.6%, 여성은 23.6%이다. 연령대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40대가 꺼려하는 비율이 42.3%로 전년도 대비 7.2% 증가하였다. 꺼려하지 않는 세대별 비율은 50대 이상 28.4%, 20대 27.0%, 40대 25.8%, 30대 24.9% 순이었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중졸 이하 학력자의 31.1%, 고졸 학력자의 39.5%, 대학 재학 이상 학력자의 41.0%가 꺼려진다고 응답하였다. 2013년 조사에서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에 따라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2014년 조사에서는 대도시 지역의 응답자들 중 37.4%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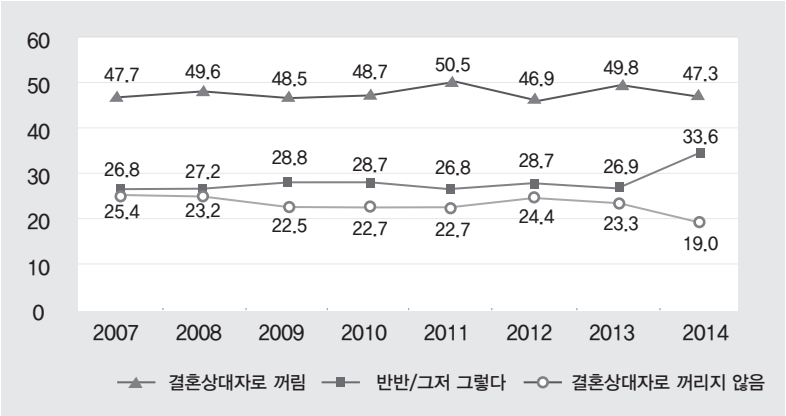
꺼린다고 대답해 중소도시 지역의 27.1%, 읍면 지역의 29.5%보다 약 10%나 더 부정적인 특징을 보였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 성향의 응답자들이 꺼리는 비율(35.1%)이 진보 성향 응답자들(31.9%)보다 높았으나, 꺼려지지 않는다는 응답은 각각 28.4%와 28.9%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보수 성향의 응답자들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전년도 조사 결과에 비해 올해는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4) 결혼상대자

북한이탈주민과 관계맺기를 꺼려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결혼상대자였다. 북한이탈주민과 결혼상대자로서 관계맺기가 '꺼려진다'는 응답이 47.3%, '꺼려지지 않는다' 는 응답이 19.0%,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33.6%였다. 꺼려진다는 응답은 2013년과 비교하여 2.5% 감소하였고, 꺼려지지 않는다는 응답은 4.3% 감소하였다. 다른 관계맺기 유형과 비교하였을 때 꺼려지지 않는다는 응답의 비율도 가장 낮고, 유보적 입장을 표명한 응답자의 비율도 가장 낮다. 국민들이 북한이탈주민과 결혼 등을 통해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관계맺기에 대한 판단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추세는 2008년 이후 일관성 있게 관찰되는 현상이다.

〈그림 1-4-5〉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 결혼상대자

(단위: %)



여성이 남성보다 북한이탈주민과 결혼을 통한 관계맺기에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북한이탈주민과 결혼상대자로 관계를 맺는 것이 꺼려진다는 여성은 50.4%이고 남성은 44.3%이다. 꺼려지지 않는다는 응답은 남성이 23.3%, 여성이 14.6%이다. 세대별로 살펴 보면, 꺼려진다는 응답은 큰 차이가 없으나 꺼려지지 않는다고 응답한 20대(16.4%), 30대(17.5%), 40대(18.0%)의 비율과 50대 이상의 비율(22.7%)에는 차이가 나타난다. 교육수준에 따른 태도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가구소득수준별로 꺼려진다는 응답도 큰 차이가 없었으나 200만 원 미만(48.1%)과 400만 원 이상(49.2%)의 꺼리는 비율이 200~299만 원(42.0%), 300~399만 원(47.7%) 소득계층의 경우보다 높았다. 대도시 거주자의 꺼려진다는 응답은 51.0%로, 이는 중소도시, 읍면 지역 거주자의 응답보다 각기 6.5%, 8.9% 높은 것이다. 정치 성향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지만, 2013년과 달리 결혼에 의한 사회적 관계맺기가 꺼려진다는 보수 성향의 응답자(29.3%)들이 진보 성향의 응답자들보다 적었다. 정치 성향별로 꺼려지지 않는다는 응답은 보수(25.9%), 진보(19.8%), 중도(15.3%)의 순으로 나타났다.

3. 북한이탈주민 수용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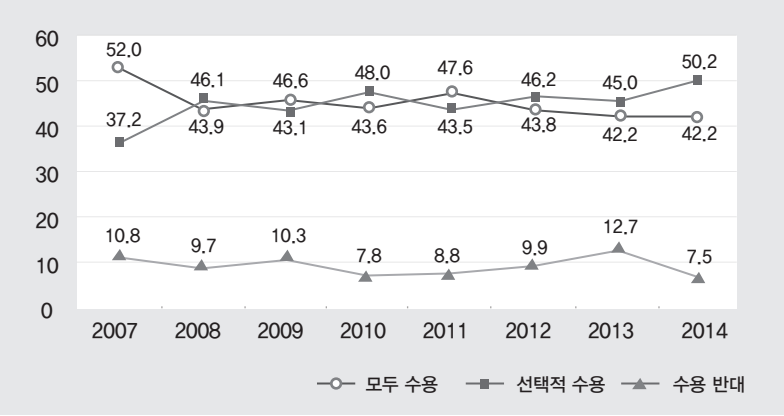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을 비롯한 이주민의 증가는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을 수용하는 것은 같은 민족의 재정착을 지원해야 한다는 당위적 입장과 사회경제적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입장이 경쟁 혹은 갈등하는 사회적 의제이다. 당위적 차원에서는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지만, 좀더 실용적인 입장에서는 '원하는 사람 중에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한국사회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사회경제적 부담을 우려하여 '더 이상 받아 들여서는 안 된다' 는 안보화(securitization) 현상이 심화될 수도 있다.

북한이탈주민 수용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에 들어오기 원하는 탈북자(새터민)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였다. 응답자의 42.2%가 한국으로 입국을 희망

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모두 수용하여야 한다고 응답을 하였다. 2013년과는 차이가 없지만 2011년 이후 소폭 감소한 수준이다. 응답자의 50.2%는 선택적인 북한이탈주민 수용정책을 지지하였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자들은 전년도에 비해 5.2% 감소한 7.5%를 기록하였다. 이는 조사가 시작된 2007년 이래로 가장 낮은 응답률이다. 2014년 조사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지만 북한이탈주민을 수용하는 정책은 민족적 과제와 사회적 과제라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며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4-6〉 북한이탈주민 수용에 대한 견해

(단위: %)



남한으로 입국하기를 원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은 모두 수용해야 한다는 응답자의 비율과 원하는 사람들 중 선택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해마다 크기의 차이를 보였다. 2014년에는 선택적 수

용 응답이 증가하고 수용 전면반대 응답이 감소하였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모두 수용하는 정책보다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정책을 더 선호하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모두 수용하는 정책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정책보다 선호하였다. 40대와 50대 이상의 응답자들 간에는 보편적 수용과 선택적 수용에 대한 정책적 선호도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20대와 30대의 정책적 선호도 차이는 각각 15.3%와 13.1%로 비교적 컸다. 달리 말하면, 경제적 상황의 영향을 더욱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20대와 30대는 보다 더 분명하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선택적 수용 정책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남성들이 여성보다 보편적 수용 정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남성의 44.6%가 보편적 수용정책을 선호했지만 여성은 39.7%가 선호하였다. 반면 남성의 46.9%가 선택적 수용을 선호할 때 여성은 53.7%가 선택적 수용을 지지하였다. 가구소득별로 보면, 가구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응답자들이 보편적 수용정책을 선호하는 비율이 35.9%로 가장 낮았다. 이 계층의 응답자들이 북한이탈주민 수용을 반대하는 비율은 14.0%로 다른 계층의 응답자들보다 6~7% 높았다. 거주지역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다만 읍면 지역 거주자들이 북한이탈주민 수용에 반대하는 비율이 12.3%로 대도시와 중소도시보다 5.3%, 5.6% 높았다. 보편적 수용정책은 진보 성향 응답자들이 보수 성향 응답자들보다 9.9% 더 많이 선호하였고, 선택적 수용정책은 보수 성향 응답자들이 진보 성향 응답자들보다 9.6% 더 많이 선호하였다.

4.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역할 및 정책에 대한 태도

최근 한국사회의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담론들은 그들을 인도적 지원 혹은 시혜의 대상으로만 이해하기보다는 남한사회의 구성원, 다른 이민자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소수자, 혹은 남북한 통일과 통합을 위한 중요한 행위자 등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고 지원을 받는 수동적 객체에 머물지 않고 남북한 사회통합의 주체적 행위자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사회적 기대가 반영된 것이다. 이들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정부가 책임 있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기대감을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를 위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역할,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취업과 조직 내 경쟁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역할 등에 대한 인식으로 각각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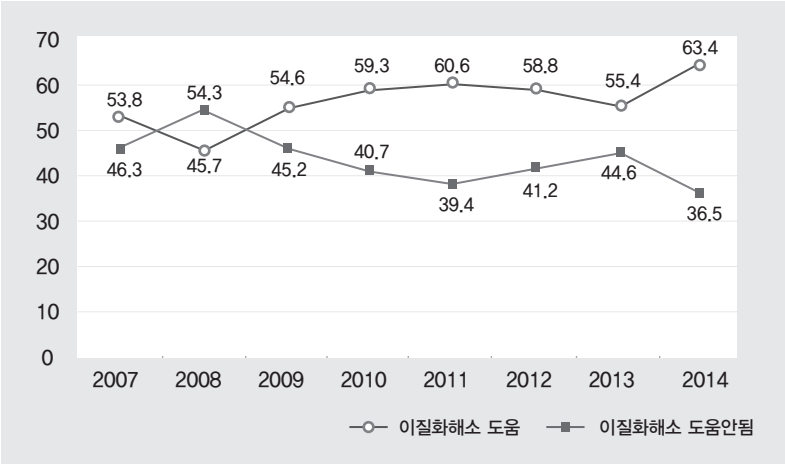
1)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를 위한 역할 기대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기대감을 조사하기 위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새터민)들은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 는 주장에 동의하는가를 질문하였다. 2014년 조사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의 역할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대감이 전년도보다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의 63.4%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36.5%는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사회통합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지난 8년 간의 조사결과 중에서 가장 높았다.

〈그림 1-4-7〉 북한이탈주민의 역할: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

(단위: %)



남성이 여성보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성별에 따른 격차는 지난해보다 줄어들었다. 남성의 59.4%, 여성의 56.4%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세대별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 가운데 40대의 긍정적 평가가 가장 낮은 53.8%를 기록하였으며, 20대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5.2% 높은 58.8%를 기록하였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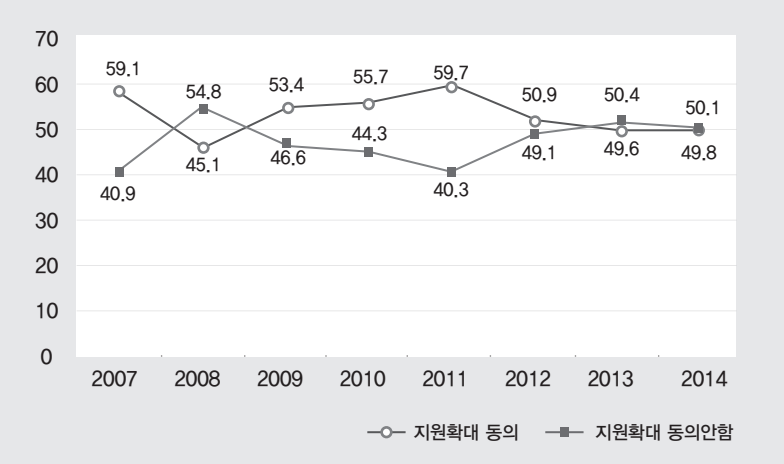
응답률이 높았다. 대학 재학 이상 학력의 응답자들 중 66.1%가 북한이탈주민들의 긍정적인 사회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어 다른 응답자들보다 약 5% 정도 높았다. 진보 성향 응답자들의 69.3%가 긍정적인 응답을 한 반면, 중도와 보수 성향의 응답자들은 60.8%와 62.3%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진보 성향과 보수 성향의 차이가 있지만 동시에 각 계층의 60% 이상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세대와 계층, 정치적 성향을 떠나 국민들의 다수가 북한이탈주민들의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은 정책적 시사점이 크다.

2)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한 태도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부는 탈북자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 는 의견에 동의하는가를 조사하였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동의하는 응답자들은 2013년 49.6%에 이어 2014년에는 50.1%를 기록하였다. 2008년에는 정부의 지원확대에 대한 부정적 응답률이 긍정적 응답률보다 높았었고, 그 후 2011년까지는 지원확대에 동의하는 응답률이 더 높았다. 그런데 2012년부터 지난 3년 동안 한국사회는 이 문제에 관해서 거의 반으로 의견이 나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친근감의 수준이 높고 남북한 통합과정에서 그들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에서도 이들에 대한 지원확대에 대해서 찬반이 반으로 갈리는 것은 이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가 경제적 상황에 대한 만족도 차이에 더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1-4-8〉 북한이탈주민 지원확대에 대한 태도

(단위: %)



남성이 여성보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지원확대를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슷하게 남성의 54.8%, 여성의 45.2%가 북한이탈주민 지원확대 정책을 지지하였다. 세대와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보수 성향 응답자들이 지원확대 정책을 지지하는 비율은 53.1%로 진보 성향 응답자의 지지율(51.3%)보다 높았지만, 그 차이는 불과 1.8%뿐이었다. 반면 중도 성향의 응답자들은 47.8%로 상대적으로 낮은 정책지지도를 보여주었다. 대도시와 읍면지역의 지원확대 정책 지지율은 중소도시보다 약 4~5% 정도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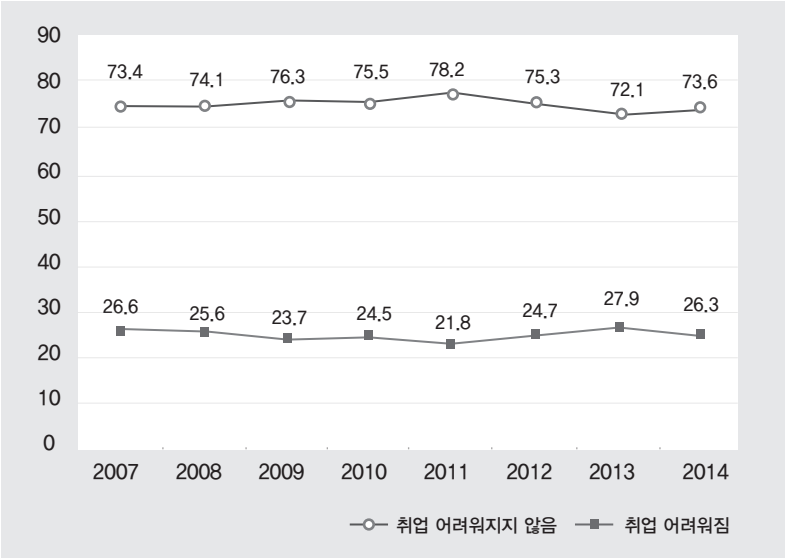
3) 북한이탈주민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견해

공동체 외부에서 새로운 이주민들이 대거 유입되는 것은 기존 주민

들과 자원과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 또는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유입되는 이주민의 수가 크지 않을 때는 사회적 수용이 용이하나 그 수가 증가하여 이주민들이 사회적 부담으로 인식되는 경우 그들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인식과 태도가 부정적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의식조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남한주민들이 "탈북자들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진다" 는 주장에 동의하는지 조사하였다. 2007년 이후 줄곧 열 명 중 일곱 명은 북한이탈주민들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워진다는 주장에 (별로 혹은 전혀) 동의를 하지 않았으며, 열 명 중 세 명은 취업이 어려워진다는 주장에 (매우 혹은 다소) 동의하였다. 취업이 어려워진다는 의견의 증가가 2012년과 2013년에 관찰되었지만, 2014년에는 1.6% 감소한 26.3%를 기록하였다.

〈그림 1-4-9〉 북한이탈주민으로 인한 취업의 어려움

(단위: %)



취업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 변수는 응답자들의 거주지이다.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할 경우 각각 28.1%, 29.4%가 북한이탈주민들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워진다는 의견에 동의를 한 반면,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19.6%만이 동의를 하였다. 실제 북한이탈주민들과 취업경쟁을 하지 않더라도 대도시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이 취업문제에 상대적으로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가구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응답자들의 32.2%가 취업시장의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른 응답자들의 평균 27%보다 약 5%가 높은 것이다. 남성과 여성이 동의하는 비율은 각기 27.5%와 28.4%로 차이가 없었다. 정치성향에 따른 결과도 보수(30.2%)와 진보(25.7%)의 차이가 5% 미만으로 예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 세대별 결과도 50대(30.0%)가 가장 높은 비율로 동의를 하였으나, 최저를 기록한 40대(26.2%)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학력별로 살펴 보면, 중졸 이하 학력의 응답자들 중 34.2%가 동의를 하였으며 다음으로 고졸(28.3%), 대학 재학 이상(25.5%) 순으로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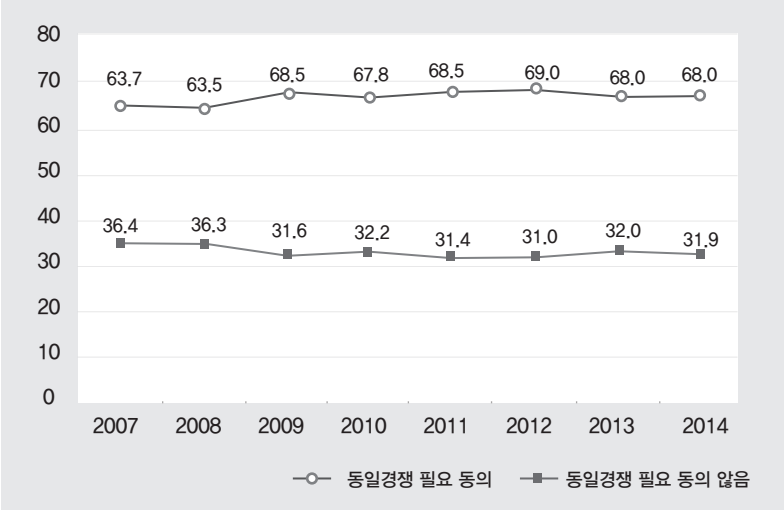
4) 북한이탈주민들과의 조직 내 경쟁에 대한 태도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도 조직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68.0%가 동의를 하였고 32.0%가 동의를 하지 않았다.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약 3분의 2 이상의 응답자들이 북한이탈주민들도 조직 내에서 동등한 경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긍정적인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감과 그들이 자신이 취업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동일한 조직 내에서는 같은 기준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 혹은 기업 등의 지원 때문에 오히려 기존의 남한주민들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의식의 표현일 수도 있다. 이러한 인식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정책과 사회통합정책을 개발할 때에는 공정한 경쟁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는 정책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4-10〉 북한이탈주민의 조직 내 경쟁의 필요성

(단위: %)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결과에서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 것을 보아도, 조직 내 공정한 경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상황의 변화와는 큰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의 인식에는 차이가 있으나 각각 70.9%와 65.1%로 다른 항목과 달리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세대별, 소득수준별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중졸 이하 응답자들이 동의하는 비율은 60.5%로 고졸(68.2%)과 대학 재학 이상(69.5%)보다 낮았다. 중소도시 거주자들이 동의하는 응답률은 72.1%로 대도시 65.0%, 읍면 지역 63.6%보다 높았다. 보수 성향 응답자들이 동의하는 비율이 70.2%, 진보 성향 응답자들이 동의하는 비율이 65.9%로 나타나지만 그 차이는 4.2% 정도로 예상만큼 크지 않다.

5. 다문화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

1) 다문화에 대한 태도

국민들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2012년부터 다문화에 대한 지향성과 수용성의 측면으로 나누어 조사하고 있다. 다문화 지향성은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다" 는 견해에 대한 태도를 통하여 측정하였다. 다문화 지향적 태도는 55.1%가 긍정적이었으며, 8.3%가 부정적이었다. 2013년과 비교하면 다문화적 공존에 찬성하는 응답이 약 9.8%나 낮아졌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2.9%

만 증가하였다. 따라서 〈표 1-4-1〉에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다문화적 공존에 대해 50% 넘는 사람들이 찬성을 하고, 10% 미만의 사람들만 다문화 공존에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표 1-4-1〉 다문화에 대한 태도

(단위: %)

구분	다문화 지향성			다문화 우려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찬성	54.7	65.3	55.1	35.0	38.2	38.4
반반/그저그렇다	35.3	29.3	36.7	45.6	45.4	42.1
반대	10.1	5.4	8.3	19.4	16.4	19.5

다문화가 공존해야 한다는 태도와 다문화 수용 수준에 대한 태도는 차이가 있다. 다문화 수용에 대한 우려는 "여러 민족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면 국가의 결속력을 해치게 된다" 는 견해에 대한 태도를 통하여 측정하였다. 즉 '찬성한다' 는 응답은 다문화 수용에 부정적이고 우려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반대한다' 는 응답은 다문화 수용에 긍정적이며 우려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태도는 지난 3년 동안 큰 차이가 없었다. 약 38%의 응답자들이 다문화 수용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20% 미만의 응답자들이 다문화 수용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한 사회에 다양한 인종, 종교, 민족이 공존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는 다수의 응답자들이 동의를 하면서도, 한국 사회에 여러 민족을 국민으로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 당위성의 문제와 현실적으로 대면하게 되는 문제에 대한 인

식과 태도는 서로 모순적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보편가치와 관련해서는 규범적인 응답을 하는 반면, 실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현실주의적으로 이해관계에 근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표 1-4-2〉 다문화 지향성과 수용성

(단위: %)

구분	다문화 지향: 찬성			다문화 지향: 보통			다문화 지향: 반대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다문화 우려: 찬성	39.2	41.3	33.4	22.0	30.2	42.7	57.9	43.1	52.5
다문화 우려: 보통	34.2	40.1	41.3	70.5	58.1	46.1	20.7	41.5	29.3
다문화 우려: 반대	26.7	18.6	25.3	7.6	11.7	11.1	21.5	15.4	18.2
합계(N)	656	784	661	423	351	440	121	65	99

다문화 지향적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다문화 수용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다문화 지향적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 중 25.3%, 반대하는 사람들 중 18.2%, '그저 그렇다' 고 응답한 사람들 중 11.1%가 다문화 수용에 개방적이었다. 반면, 다문화 수용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다문화 지향적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는 33.4%, 다문화를 지향하지 않는 사람들 중 52.5%, '그저 그렇다' 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는 42.7%였다.

일반적으로 다문화에 대해 지향적이지 않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다문화 수용에도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향성은 다문화 지향성에 따른 그룹 내 다문화 수용에 대한 반대와 찬성의 격차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문화 지향적인 사람들 중 다문화 수용의 찬반 응답률 차이가 7.9%이고, 다문화적 지향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 다문화 수용의 찬반 응답률 차이가 34.3%이다. 그리고 다문화적 지향에 '그저 그렇다' 고 응답한 사람들 중 다문화 수용의 찬반 응답률 차이는 31.6%이다. 따라서 다문화 지향성에 따른 그룹 내 다문화 수용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인식의 격차가 다문화적 지향에 반대하는 그룹에서 더 큼을 확인할 수 있다.

요약하면 다문화 지향에 대한 강한 반대 의견은 10% 미만에 불과하지만 다문화가 국가결속력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의 의견은 52.5%에 이르고 있다. 이는 다문화 자체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지만, 현실적 국가정책이 한국인들의 다문화에 대한 우려를 줄여주지는 못하고 있음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 지향성과 수용성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는 응답자들이 각기 36.7%와 42.1%에 이르는 것도 국민들의 다문화에 대한 태도를 낙관적으로만 해석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이다. 다문화에 대해 태도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한국사회의 다문화적 지향성과 수용성에 대한 지속적 관찰과 분석이 요구된다.

2) 다문화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의 상관성

다문화에 대한 태도와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태도는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이탈주민들을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 동포애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수도 있지만, 이주의 차원에서 접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문화 지향적이고 다문화 수용에 개방적인 사람일수록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서도 포용적이고 수용적인 인식과 태도

를 보여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상관성에 대한 조사연구는 보다 효율적인 정착지원 정책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표 1-4-3〉 다문화 지향성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2014)

(단위: %)

구분		다문화 지향성		
		찬성	보통	반대
북한이탈주민 친근감	친근함	44.8	41.4	32.3
	친근하지 않음	55.1	58.6	67.7
북한이탈주민 수용정책	모두 수용	47.7	37.3	42.4
	선택적 수용	45.1	54.6	48.5
	수용 반대	7.1	8.2	8.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확대	찬성	55.5	45.7	45.5
	반대	44.3	54.3	53.5

일반적으로 한 사회에 다문화가 공존하는 것에 대한 견해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태도는 〈표 1-4-3〉에 나타난 바와 같다. 다문화 지향적인 사람들은 전체 평균보다 높은 44.79%가 북한이탈주민들이 친근하게 느껴진다고 하였다. 반면, 다문화 공존에 반대하는 사람은 평균보다 11%가 낮은 32.3%만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친근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다문화 공존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원하는 북한이탈주민을 한국이 모두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가장 지지하고, 다문화 공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선택적 수용정책을 좀더 지지했다. 그런데 두 집단 간 차이는 크지 않다. 또한 다문화 지향적인 사람일수록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높다.

〈표 1-4-4〉 다문화 우려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2014)

(단위: %)

구분		다문화 우려		
		찬성	보통	반대
북한이탈주민 친근감	친근함	45.8	43.8	39.7
	친근하지 않음	54.2	56.0	60.3
북한이탈주민 수용정책	모두 수용	40.1	44.6	47.4
	선택적 수용	51.2	49.1	43.6
	수용 반대	8.5	6.1	9.0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확대	찬성	49.7	52.9	50.0
	반대	49.9	47.1	50.0

다문화 지향성에 따른 교차분석과는 달리 다문화 우려에 대한 태도에 따른 교차분석의 결과는 그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다문화가 국가적 결속력을 해치게 될 것이라는 응답자의 54.2%가 북한이탈주민이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응답한 반면, 다문화 수용에 개방적인 사람들 중에서 60.3%가 북한이탈주민이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앞서 논의하였듯이 다문화적 현상이 확산되는 것이 우려되지 않는다고 한 사람들의 수가 적고, 판단을 유보하는 응답자가 많으면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문화 현상을 우려하는 사람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선택적 수용을 지지하고, 다문화 현상을 우려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수용하는 것을 조금 더 선호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 확대에 대한 견해에는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다문화에 대한 태도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의 상관관계를 〈표 1-4-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다문화 지향성, 다문화 수용성,

북한이탈주민 친근감, 북한이탈주민 지원확대 등은 변수 값이 클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코딩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수용에 대한 태도는 수용 제한을 1, 선택적 수용을 2, 원하는 사람 모두 수용을 3으로 코딩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수용에 대한 보편적 입장을 긍정적인 태도로 분석되게 하였다.

〈표 1-4-5〉 다문화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의 상관관계(2014)

구분	다문화 지향성	다문화 수용성	북한이탈주민 친근감	북한이탈 주민수용	북한이탈주민 지원확대
다문화 지향성	1.000				
다문화 수용성	0.134*	1.000			
북한이탈주민친근감	0.074*	−0.021	1.000		
북한이탈주민수용	0.087*	0.045	0.258*	1.000	
북한이탈주민지원확대	0.140*	−0.009	0.234*	0.328*	1.000

상관관계표에 의하면 다문화 지향적인 사람들일수록 다문화 수용에 더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문화 지향적인 사람들일수록 북한이탈주민들을 더 친근하게 느끼고, 보편적 수용정책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으며,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다문화 수용에 개방적인 사람일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수용, 지원 확대에 대해서도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 상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상관관계표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 친근감을 더 많이 느끼는 사

람일수록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보편적 수용 정책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에 입국하기를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모두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확대에도 동의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6. 소결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과 태도와 관련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국민들의 약 57%가 북한이탈주민을 친근하게 느끼지 않으며, 북한이탈주민들과 책임 있는 사회적 관계의 형성을 꺼려하고 있다. 즉 사회적 상호작용 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동네이웃이나 직장동료로는 북한이탈주민을 남한주민이 수용할 의지가 높지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히거나 친밀한 사적관계가 요구되는 사업동반자 혹은 결혼상대자로는 북한이탈주민을 남한주민이 수용할 의지가 낮다.

북한이탈주민을 선택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증가하여 모두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보다 8% 높았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역할과 관련해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사회통합 과정에서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증가하여 전체의 63.4%로 높아졌지만,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거의 50%씩으로 나뉘었다. 다문화적 공존에 대

해 찬성하는 사람들일수록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친근감, 수용정책, 지원확대 분야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좀더 개방적이고 수용적이다.

통일의식조사에 나타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2년의 조사결과와는 달리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조금씩 감소하고 긍정적 인식이 조금이나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원수용 정책,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를 위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역할 등의 질문에서 긍정적 응답이 증가하였다. 반면, 사업동료로서 관계맺기를 꺼려하는 응답자가 많아졌으나 결혼상대자로서 북한이탈주민들과 관계맺기를 꺼려한다는 응답은 다소 감소하였다.

둘째, 2013년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당위성에 근거한 응답자의 비율은 그대로 유지되면서도 경제적 문제를 고려한 질문에서는 부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유지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과거와 달리 경제사회적 상황에 근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거의 모든 부분에서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소득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북한이탈주민들을 취업경쟁의 대상으로 이해하거나 북한이탈주민들을 선택적으로만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그들을 수용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이들이 경제상황의 악화에 의해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 정책이 일방적 시혜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장기적 사회통합 차원에서는 긍정적이지 않다. 따라서 북

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은 국내 빈부격차와 빈곤문제, 그리고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인 재분배라는 측면에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는 상황 변수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큰 변화 없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정부가 정책을 수립할 때 항목별로 고착화 되어가는 국민들의 의식을 깊이 이해해야 함을 보여 준다. 동네이웃과 직장동료로서 북한이탈주민을 수용하는 데에는 긍정적이면서도 사업동반자 혹은 결혼상대자로서 북한이탈주민을 수용하는 것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관찰되는 이러한 현상은 국내 다른 소수자 그룹에 대한 인식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추가로 분석해야 한다.

넷째, 다문화 지향적인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보이는 반면, 다문화 수용성에 따른 차이는 분명하지 않다. 다른 종교, 인종, 문화와 공존이 사회적으로 가능하다는 인식을 지닌 사람들이 북한이탈주민들과의 공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정착지원을 확대하는 것에도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문제들을 민족의 문제로 다룰 것인지 혹은 다문화의 문제로 다룰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겠지만, 국민들이 규범적인 차원에서 다문화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북한이탈주민들과의 상호작용에서도 그들의 태도가 유사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제5장
주변국과의 관계 인식

1. 서론

분단 70년을 맞이하는 한반도는 국내외적으로 평화와 통일이라는 의제로 주목을 받고 있다. 2014년 새해를 통일대박론이라는 화두로 문을 연 한국사회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잠시 주춤하였지만 통일을 향한 다양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이와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상호방문을 하면서 한중관계에는 많은 진전이 있었다. 동시에 한국은 미국과의 전통적 우호 관계 증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 특히 양국 정상에게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지지를 다시 확인받기도 하였다. 11월 말에는 나진-하산 철도를 통해 석탄 운송이 시작되는 등 초국경협력을 위한 환경도 조성되고 있다. 다만 2014년 11월 말까지 한일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남북한 민족 간의 의제일 뿐만 아니라 미국

과 중국, 러시아, 일본과 같은 정치적·경제적 세계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동북아시아 혹은 국제적인 의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 증진과 통일 성취는 국제적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단순히 지리적 인접성을 넘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현재에도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당사국으로서 동북아시아의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이루는 데 주요 행위자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이들 주변국가들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통일의식조사는 한국인이 주변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 변화와 지속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주요 항목으로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주변국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2010년 천안함사건 이후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 2009년의 핵실험, 2010년의 천안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 북한의 무력도발로 인하여 안보위협에 대한 한국인의 불안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면서 동시에 남북관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국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한국인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었다. 그런데 2013년 이후에는 일본 내각의 지나친 우경화와 한중 정상의 교류 등으로 인해 중국에 대한 국가이미지는 긍정적으로 개선되는 한편 일본의 국가이미지는 부정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그런데 통일의식조사는 국민들의 주변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항상 일관성을 유지하기보다 동북아 정세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2014년 한반도 정세를 보면, 북한에 대한 경

제제재가 지속되고 유엔 등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인권개선 요구가 거세지면서 북한이 전방위적 외교에 나서기도 하였다. 동시에 북한이 경제특구 개발에 적극적 관심을 보이며 해외자본의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섬에 따라 외교적 활동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아직까지 북한의 김정은이 얼마나 권력기반을 구축하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길이 없지만, 다양한 형태의 인사를 통해서 여전히 자신이 건재함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장은 과연 이와 같은 동북아 정세의 변화 속에서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동북아시아 주변국의 국가이미지와 역할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남북관계는 여전히 경색국면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인의 주변국 관계 인식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 장은 한국인의 주변국 관계 인식에 나타나는 특징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자료들을 설문조사의 문항별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2014년 조사결과를 지난 통일의식조사의 결과들과 비교하면서 주변국 관계 인식의 지속과 변화에 대한 종합적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2. 가장 가까운 주변국, 가장 위협적인 주변국

1) 가장 가깝게 느끼는 국가

한국인들이 가장 가깝게 느끼는 주변국가는 조사 이래로 계속 미국이었다. “귀하는 다음 중 어느 나라를 가장 가깝게 느끼십니까” 라는 질문에 미국을 가장 친밀하게 느낀다는 응답자는 74.1%였다. 중복응답을 허용하지 않는 설문의 구조 때문에 한 나라에 대한 친밀도 상승은 다른 국가의 친밀도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표 1-5-1〉에 나타나듯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미국에 대한 친밀도 상승은 북한과 중국에 대한 친밀도 하락으로, 이후 북한과 중국에 대한 친밀도 상승은 미국에 대한 친밀도 하락으로 이어진다. 2014년 조사에서도 미국에 대한 친밀도는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지만 북한에 대한 친밀도는 하락하고 있다. 조사기간 동안 미국과 북한에 대한 국가이미지는 상호 역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주변국에 대한 친밀도는 최근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친밀도에 따른 주변국 순위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항상 미국,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순이었다. 지속적으로 관찰되는 추세를 보면, 미국에 대한 친밀도는 계속 증가한 반면 북한과 일본에 대한 친밀도는 전반적으로 감소한다. 그런데 2013년에 중국과 일본이 처음으로 3위와 4위 자리를 바꾸었고 2014년에는 중국에 대한 친밀도가 북한에 대한 친밀도보다 높았다. 통계적으로 오차 범위 내의 차이지만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친밀도가 처음으로 중국보다 낮은 3위를 기록하였다. 북

한에 대한 친밀도는 2012년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는데,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불신, 개선되지 않는 남북관계, 북핵문제에 대한 피로감 등도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을 것이다.

〈표 1-5-1〉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국가

(단위: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미국	53.3	60.7	68.3	70.7	68.8	65.9	76.2	74.5
일본	11.6	9.4	8.6	9.5	9.1	6.8	5.1	4.5
북한	24.0	20.4	16.0	14.8	16.0	20.6	11.0	9.6
중국	10.2	7.8	6.1	4.2	5.3	5.8	7.3	10.4
러시아	0.9	1.7	1.0	0.8	0.8	0.9	0.5	1.0
합계(N)	1,188	1,202	1,196	1,196	1,197	1,199	1,200	1,994

N=9,578 (무응답 제외), χ^2=320.46, p 〈0.01.

미국에 대한 친밀도는 2007년 이후 계속 증가하였으며, 다른 국가들에 대한 친밀도와도 상당한 격차가 있다. 2008년의 증가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촛불시위가 전국적으로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기도 하며,[16] 2009년의 증가는 이명박 정부의 계속적인 한미관계 개선의 노력과 남북관계의 악화에 따른 반작용으로 해석되기도 한다.[17]

2013년에 대미친밀도는 2012년과 비교하여 10.3%나 증가하였다가 올해 조사에서는 약간 감소한 74.5%를 기록하였다.

16) 박명규 외, 『2009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2009), p. 124.
17) 박명규 외, 『2011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2011), p. 116.

북한에 대한 친밀도는 미국에 이어 항상 두 번째를 기록하였었는데 2014년에는 중국에 뒤쳐졌다. 흥미롭게도 북한에 대한 친밀감은 남북관계가 악화되었던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도 약 15~16% 정도로 유지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북한의 심각한 군사적 도발이 없었던 2012년에는 다시 20%대로 회복되는 등 북한에 대한 친밀도는 미국에 대한 친밀도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2012년 말부터 계속된 한반도의 위기고조는 북한에 대한 친밀감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북한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친밀감은 서로 역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북한에 대한 친밀도가 최소 77.5%에서 최고 87.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두 나라에 대한 친밀도는 서로의 변화에 민감하게 변화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대미친밀도가 큰 폭으로 상승한 2007년에서 2009년 사이에 대북친밀도는 감소하였으며, 대미친밀도에 큰 변화가 없었던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는 대북친밀도도 큰 변화가 없었다. 그리고 2012년 대미친밀도의 소폭 하락은 대북친밀도의 소폭 상승으로, 2013년 대미친밀도의 상승은 대북친밀도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2014년에는 대미친밀도가 약간 줄어들었으나 북한에 대한 친밀도도 낮아졌다. 반면 대중친밀도가 소폭 증가하였다.

국민들이 중국에 대해 느끼는 친밀감의 정도는 미국과 북한에 느끼는 친밀감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다. 그런데 〈표 1-5-1〉에 제시된 결과에 의하면 지난 8년 동안 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호의적 태도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2007년 10.2%였던 대중친밀도는 2010년 4.2%까지 떨어졌었다. 이러한 대중친밀도의 감소는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되었으며, 한국과 중국의 전문가와 정치가들이 양국관계의 미래를 우려하였다. 당시 부정적 인식의 배경에는 서해어업권을 둘러싼 갈등, 천안함사건의 처리를 둘러싼 중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실망 등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2013년과 2014년에는 중국에 대한 친밀도가 계속 증가하여 북한에 대한 친밀감보다 높아졌다. 연속된 한중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더불어,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려 했던 점, 중국과의 경제교류가 확대되는 것, 미국과 중국이 신형대국관계를 표방하고 있는 것 등이 한국인의 대중국 인식과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친밀도는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지만 2008년 이후 2011년까지 크게 변하지 않았다. 2007년과 2008년 사이 대일친밀도의 감소는 한일관계의 악화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미국에 대한 친밀도가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지만 대일친밀도는 2012년 이후 올해까지 계속 감소하고 있다. 2011년과 비교하면 2014년에는 4.6%가 감소한 4.5%를 기록하였다. 특히 2013년에 이어 대일친밀도는 대중친밀도보다 낮았으며, 이를 단순히 대미친밀도의 증가로만 설명하는 것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 2012년 여름을 거치며 독도문제 등을 둘러싼 한일관계의 악화, 그리고 2013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보수정권에 의한 일본의 우경화 현상 등은 한국인에게 우려할 대상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일본 내 정치지형의 변화와 이에 따른 한일관계의 변화는 한국인들의 대일친밀도에 즉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한일관계의 악화가 심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크다. 역사인식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본과의 경제적, 사회적 협력이 필요하기도 하므로 지혜롭게 한일관계를 재설정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역사적으로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의 한 축을 이루기도 했던 러시아에 대한 한국인들의 친밀감은 아주 미미하다. 지난 8년 동안의 조사에서 평균 1%에 미치지 못한다. 한반도의 역사에 미친 러시아의 영향력이 적다고 볼 수 없음에도 최근 한반도 정세 속에서 한국인은 러시아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나 기대를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나진-하산을 중심으로 하는 초국경 경제협력이 계속 진행된다면 러시아에 대한 한국인의 관심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러시아와의 협력 사업에 대한 구상들이 정치적 구호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화되어야 할 것이다.

2)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한반도 주변정세는 우호적 환경과 위협적 환경이 드라마처럼 교차하기도 한다. 따라서 국민들은 주변국가들에 대해 정서적으로 친근감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실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변국가들에 대한 경계도 늦추지 않을 수 있다. 통일의식조사는 "다음 국가들 중에서 어느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통하여 주변국가에 대한 위협인식을 평가하고 있다. 설문문항 구조상 친밀도에 대한 조사와 마찬가지로 한 국가에 대한 위협도 증가는 다른 국가에 대한 위협도 감소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2014년 조사에서 드러난 주변국의 위협도 변화의 특징은 〈표 1-5-2〉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일본에 대한 위협인식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북한을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인식하고 있지만 동시에 일본에 대한 위협인식은 2010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북한 다음으로 두 번째에 해당한다.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일본에 대한 위협인식이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보다 높았다. 반면 미국에 대한 위협인식은 한미관계에 갈등 요인이 없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과 태도가 정서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인지적인 차원으로까지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1-5-2〉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단위: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미국	21.2	16.0	12.5	8.3	8.6	9.5	4.4	5.5
일본	25.8	34.5	17.7	10.4	11.6	12.3	16.0	25.1
북한	36.1	33.7	52.9	55.6	46.0	47.3	56.9	49.4
중국	15.6	14.6	15.9	24.6	33.6	30.5	21.3	17.7
러시아	1.3	1.2	1.1	1.2	0.3	0.4	1.3	2.3
합계(N)	1,188	1,202	1,196	1,196	1,197	1,199	1,200	1,199

N=9,602 (무응답 제외), χ^2=922.66, p 〈 0.001.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바와 같이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북한이다. 북한이 가장 위협적이라는 응답은 전년도 대비 약 7.5% 감소하였다. 2010년까지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은 55.6%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2011년과 2012년에는 2010년 대비 9.6%와 8.3%가 감소하였다.

2013년에 다시 9.6%가 증가하였다가 2014년에는 다시 감소하였다.

70년에 가까운 남북한의 분단과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 간 경쟁과 갈등의 역사를 고려하면 국민들이 북한을 한반도 평화의 가장 위협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결과이다. 핵실험과 뒤이은 남북관계의 갈등이 심화되었던 2013년에는 북한에 대한 위협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2014년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이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이러한 현상은 반드시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이 감소한 결과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오히려 일본에 대한 위협인식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이 낮게 측정된 것이다.

전년도에 이어 중국과 일본에 대한 위협인식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13년에는 중국이 두 번째로 위협적인 국가로 인식되었지만, 2014년에는 일본이 두 번째로 위협적인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은 2010년과 2011년에 각기 8.7%와 9.0% 증가하였는데, 2012년과 2013년에 2년 연속 감소하여 2014년에는 2011년에 비하여 15.9% 감소한 17.7%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일본에 대한 위협인식은 2010년 최저치인 10.4%를 기록한 후 2014년에는 전년 대비 9.1%가 증가한 25.1%에 이르렀다. 이는 일본에 대한 위협인식이 2007년이나 2008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과 일본에 대한 위협인식은 다른 국가에 대한 위협인식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2009년까지는 일본이 두 번째로 위협적인 국가로 인식되고 있었지만, 2010년 이후는 중국에 대한 위협도가 일본에 대한 위협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대중 위협도의 증가는 대일 위협도와 대미 위협도의 감소가 반영된 것이라

면,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대중 위협도의 증가는 대북 위협도의 감소가 반영된 것이다. 2013년부터 위협도 조사에서는 다시 중국의 위협도가 감소하고 일본의 위협도가 증가하였다.

2008년 독도문제로 일본과 외교적 갈등이 심해졌을 때 북한에 대한 위협도보다 일본에 대한 위협도가 높았었던 점을 고려하면 2012년부터 동북아시아에서 계속되고 있는 일본정치의 우경화 현상이 대일 위협도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인다. 대중 위협인식의 감소에는 한중 정상회담과 같은 단기적 이슈의 영향이 반영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수준으로 낮아진 것은 아니지만 2012년 이후 대중위협인식이 3년 연속으로 감소한 것은 중국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3. 주변국의 국가이미지

국제적 통일환경을 이해하기 위해 국민이 주변국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주변국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정부의 동북아 외교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비판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통일의식조사는 2007년부터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

주변국의 국가이미지 질문은 ‘협력대상’ , ‘경쟁대상’ , ‘경계대상’ , 그

리고 '적대대상' 등 네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구성되었다. 북한에 대한 국가이미지는 여기에 '지원대상' 을 포함하고 있어서 각각의 이미지를 직접 비교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의 깊고 제한적인 비교분석이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이미지와 더불어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였을 때 주변국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국민의 의식도 구조화된 인지적 집합적 사고의 결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이미지 분석에서 다뤄지고 있다.

이 조사에서 국가이미지란 "한 국가에 대한 구조화된(organized, structured)인지의 집합" 으로 정의되며, 인지심리학의 스키마(schema) 개념을 국제정치학에서 응용 및 발전시킨 개념이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국가이미지는 개인들이 타국에 대한 자국의 정책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며, 이를 통하여 개인들이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유지하는 데 이용될 수도 있다.

1) 미국의 국가이미지

미국의 협력대상 이미지는 조사 이후 계속하여 높아지고 있어 2014년에는 80.6%를 기록하였다. 한미관계의 회복과 증진을 강조했던 이명박 정부 이후 국민들이 미국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국민들이 많아졌다. 2008년과 같이 미국의 국가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촛불시위 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협력대상이라는 미국 국가이미지가 계속하여 70%가 넘고 있다. 미국의 경쟁대상 이미지는 계속 감소하여 11.8%를 기록하였다. 반면 경계대상 혹은 적대대상이라는 이미지는 전년도에 이어 10%보다 낮았다.

〈표 1-5-3〉 미국의 국가이미지

(단위: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협력대상	53.2	70.2	73.7	76.4	75.0	77.3	79.9	80.6
경쟁대상	22.0	13.0	13.7	14.6	14.2	11.0	11.8	11.8
경계대상	22.0	14.8	11.7	8.2	9.7	10.9	7.8	7.2
적대대상	2.9	2.0	0.9	0.8	1.1	0.8	0.6	0.5
합계(N)	1,198	1,213	1,203	1,200	1,201	1,200	1,200	1,200

N=9,615 (모름/무응답 제외), χ^2=338.22, $p<0.001$.

〈표 1-5-3〉의 결과에 의하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대미이미지는 매우 긍정적이며 상황적 변수에 의해 쉽게 변화하지 않는 항상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변화 속에서 국민들의 의식에는 협력자 혹은 동맹자로서의 미국의 국가이미지가 정형화되고 있다. 이렇게 정형화된 미국의 이미지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변국의 국가이미지와 관련하여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 시 주변국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도 조사하였다. 이는 주변국에 대한 총체적이고 즉각적인 이미지와 달리 군사안보의 측면에서 주변국들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함이다. 주변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인지 혹은 남한과 북한 어느 한 쪽을 지원할 것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한 태도는 〈표 1-5-4〉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1-5-4〉 한반도 전쟁 시 미국의 태도 예상

(단위: %)

구분	한국을 도울 것이다	북한을 도울 것이다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중립을 지킬 것이다	합계(N)
2007	50.6	1.3	45.5	2.6	1,200
2008	57.4	1.4	37.4	3.8	1,213
2009	65.1	0.7	32.3	2.0	1,203
2010	74.7	0.7	23.0	1.7	1,200
2011	72.4	1.6	24.1	1.9	1,201
2012	72.8	1.8	23.8	1.6	1,200
2013	75.2	1.6	20.9	2.3	1,200
2014	72.7	1.6	24.0	1.8	1,200

N=9,617(모름/무응답 제외), χ^2=357.59, p <0.001.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을 도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자국이익을 따를 것이라는 의견이 24.0%이고, 북한을 돕거나 혹은 중립을 지킬 것이라는 의견은 각기 1.6%와 1.8%였다. 한반도가 지니는 지정학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미국의 이익이 한반도의 유사상황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상정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미국이 한국을 지원하거나 최소한 북한과 다른 주변국의 이익에 의해 한반도 상황이 결정되는 것을 선호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앞서 본 바 미국의 협력대상 이미지가 증가하는 현상과 상관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2) 중국의 국가이미지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국에 대한 국민의 의식 또

한 그동안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국의 국가이미지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정형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중국의 국가이미지는 구조적으로 안정되지 않고 매년 조사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는 중국의 국가이미지가 중국에 대한 인식만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대중 친밀감의 감소, 대중 위협인식의 증가, 남북관계 악화에 관한 중국의 책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증가 등에 나타나듯이 중국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해에는 협력대상 혹은 경쟁대상이라는 중국의 국가이미지보다 경계대상 혹은 적대대상 등의 국가이미지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표 1-5-5〉 중국의 국가이미지

(단위: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협력대상	19.3	23.7	21.1	19.7	20.5	16.9	28.5	34.0
경쟁대상	46.5	38.2	42.0	45.1	40.2	35.3	43.9	34.6
경계대상	31.0	32.9	33.3	31.8	34.9	35.8	24.5	29.1
적대대상	3.3	5.1	3.6	3.4	4.4	5.4	3.1	2.3
합계(N)	1,197	1,209	1,203	1,200	1,201	1,200	1,200	1,200

N=9,610 (모름/무응답 제외), χ^2=363.38, p <0.001.

그런데 〈표 1-5-5〉의 결과는 최근 중국의 국가이미지가 많이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2년까지 중국의 국가이미지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협력대상 이미지도 20% 전후를 기록하였고, 경계대상 이미지도 약 30% 초반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2013년에 협력대상 이미지가 11.6% 증가한 데 이어, 2014년에도 5.5% 증가하였다. 중국의 영향력을 우려하는 경계대상 이미지가 2013년보다 4.6% 증가하였으나, 그래도

이는 2012년까지의 결과보다 낮은 수준이다. 양국 정상의 교류 등이 중국에 대한 국가이미지의 개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1-5-6〉 한반도 전쟁 시 중국의 태도 예상

(단위: %)

구분	한국을 도울 것이다	북한을 도울 것이다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중립을 지킬 것이다	합계(N)
2007	5.3	26.8	56.4	11.4	1,200
2008	4.5	30.4	52.2	13.0	1,212
2009	3.1	38.5	50.8	7.7	1,200
2010	3.3	55.5	37.4	3.8	1,200
2011	2.4	62.8	31.0	3.8	1,201
2012	1.3	58.3	37.5	2.8	1,199
2013	3.3	49.7	41.4	5.6	1,200
2014	5.4	42.0	46.6	6.0	1,200

N=9,612 (모름/무응답 제외), χ^2=1.3e+03, p 〈0.001.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중국의 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응답에서도 작지만 주목할 만한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2014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유사시 중국이 한국을 지원할 것이라는 응답이 2.1% 증가하였고 중국이 북한을 지원할 것이라는 응답이 7.7% 감소하였다. 반면 자국의 이익을 따를 것이라는 응답은 5.2% 증가하였다. 여전히 북한을 돕거나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라는 응답이 88.6%로 미국의 태도 예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 국민의 인식이다. 그렇지만 중국이 한국과 경제를 비롯한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국민들은 북한과 중국 사이의 전통적 혈맹관계가 약화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3) 일본의 국가이미지

일본의 국가이미지는 2013년에 이어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일본과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정치적 관계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 이는 아베 수상을 비롯한 일본 고위 관료들이 동북아시아 국제관계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행위가 한국 국민에게 도발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달리 말하면, 이들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제국주의 시기 일본의 만행에 대한 공공연한 부정, 독도 영토분쟁화 기도,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토분쟁에 대한 강경대응, 적극적 엔저 정책 등이 일본의 협력적 이미지를 훼손하게 된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다.

〈표 1-5-7〉 일본의 국가이미지

(단위: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협력대상	14.6	16.7	19.5	14.3	13.8	22.4	11.8	15.4
경쟁대상	46.6	35.6	49.4	50.9	40.8	36.9	41.4	42.9
경계대상	30.3	31.1	26.2	28.0	34.6	35.3	35.3	31.6
적대대상	8.5	16.7	4.9	6.8	10.7	12.0	11.4	10.2
합계(N)	1,196	1,211	1,203	1,200	1,201	1,200	1,200	1,199

N=9,610 (모름/무응답 제외), χ^2=474.69, p 〈0.001.

협력대상이라는 일본의 국가이미지는 2012년 대비 10.6% 감소했던 2013년과 비슷하게 11.3%로 나왔다. 경쟁대상 이미지는 감소하였고, 경계대상 이미지는 7.9% 증가한 43.2% 적대대상 이미지는 6.6% 증가한 18.0%를 기록하였다. 일본의 적대대상 이미지는 가장 높은 수준이며 경

계대상 이미지도 가장 높았다. 일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확산은 한일 관계만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국제관계의 안정에도 부정적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속적 관찰과 신중한 정책적 고려가 요구된다.

〈표 1-5-8〉 한반도 전쟁 시 일본의 태도 예상

(단위: %)

구분	한국을 도울 것이다	북한을 도울 것이다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중립을 지킬 것이다	합계(N)
2007	16.2	3.3	72.7	7.9	1,200
2008	14.7	4.3	69.5	11.6	1,211
2009	24.6	3.8	66.0	5.7	1,201
2010	17.1	2.3	71.6	9.1	1,200
2011	15.3	3.3	74.3	7.2	1,201
2012	11.6	5.0	75.4	8.0	1,199
2013	11.3	2.9	75.1	10.7	1,200
2014	8.1	7.1	75.4	9.4	1,199

N=9,611 (모름/무응답 제외), χ^2=3.5+e+83, p 〈0.001.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따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010년 이후 계속하여 70%가 넘는 국민들이 이와 같이 응답을 하였다. 반면 한국을 도울 것이라는 응답은 계속 감소하여 2014년에는 처음으로 10% 미만까지 떨어졌다. 이러한 결과들은 일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그리 높지 않으며, 국민들이 한일관계를 협력적으로 인식하기보다 경쟁적 혹은 대립적 관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4) 러시아의 국가이미지

러시아의 국가이미지는 한반도의 정세변화 속에서도 큰 변화 없이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협력대상 이미지는 최소 21.7%, 최대 28.8%, 경쟁대상 이미지는 최소 30.9%, 최대 40.3%, 경계대상 이미지는 최소 29.8%, 최대 42.4%, 적대대상 이미지는 최소 2.3%, 최대 3.9%이다. 다른 주변국가의 이미지와는 달리 러시아의 국가이미지는 변화의 폭이 크지 않다. 이와 같은 결과는 최근 한반도 주변 정세에 미치는 러시아의 영향력이 최근 두드러지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국민의 기대도 크지 않았던 점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향후 북한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초국경 경제협력 사업의 진행 과정과 그 성과에 따라 러시아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는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표 1-5-9〉 러시아의 국가이미지

(단위: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협력대상	22.9	28.8	28.1	21.7	24.7	24.0	22.8	22.8
경쟁대상	40.3	35.2	39.8	40.6	39.3	32.9	38.5	30.9
경계대상	32.1	31.9	29.8	33.5	33.1	38.1	34.8	42.4
적대대상	4.7	4.1	2.3	4.3	2.8	5.0	4.0	3.9
합계(N)	1,195	1,209	1,203	1,200	1,201	1,200	1,200	1,200

N=9,608 (모름/무응답 제외), χ^2=111.71, p 〈0.001.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러시아의 태도를 예상하는 질문에서도 국민들의 인식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한국을 도울 것이라

는 응답과 중립을 지킬 것이라는 응답의 비중은 거의 변화하지 않는다. 러시아가 자국의 이익을 따를 것이라는 응답은 일본 다음으로 높다. 그런데 러시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일본에 대한 인식과 달리 러시아의 역할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려는 국민들의 태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1-5-10〉 한반도 전쟁 시 러시아의 태도 예상

(단위: %)

구분	한국을 도울 것이다	북한을 도울 것이다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중립을 지킬 것이다	합계(N)
2007	3.7	19.0	59.1	18.2	1,199
2008	6.0	20.9	54.7	18.4	1,211
2009	4.3	22.5	57.7	15.5	1,200
2010	5.8	19.2	59.5	15.6	1,200
2011	4.2	15.4	61.7	18.8	1,200
2012	3.7	11.8	68.1	16.4	1,199
2013	3.8	12.4	67.4	16.4	1,200
2014	3.3	14.3	68.8	13.7	1,200

N=9,609 (모름/무응답 제외), χ^2=153.33, p 〈0.001.

4. 통일을 위한 주변국의 역할과 기대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 간의 민족적 사건이기도 하지만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남한과 북한이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국제적 관심사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주변국이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 협력적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 달리 말하면 통일의 과정에서 주변국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의 인식 또한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통일의식조사는 "남북한 통일을 위해 다음 국가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고, 그 결과는 〈표 1-5-11〉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1-5-11〉 통일을 위한 주변국의 협조 필요성

(단위: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미국							
매우 필요하다	42.0	45.2	51.5	48.2	45.5	45.8	47.5
필요한 편이다	48.9	47.7	42.8	43.7	44.8	46.1	45.7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7.1	5.2	4.7	5.8	6.8	6.6	5.4
전혀 필요하지 않다	2.1	1.8	1.0	2.3	3.0	1.5	1.3
일본							
매우 필요하다	18.5	20.4	19.2	19.7	16.8	14.0	14.2
필요한 편이다	52.4	58.9	57.4	52.0	51.2	51.8	51.5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22.9	16.2	19.8	22.8	25.1	27.8	25.9
전혀 필요하지 않다	6.2	4.5	3.7	5.4	6.9	6.4	8.3

중국							
매우 필요하다	25.3	29.7	36.4	43.2	31.4	34.8	36.1
필요한 편이다	55.4	53.6	52.5	41.5	48.7	49.7	53.0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15.2	13.3	9.5	11.4	15.3	13.0	9.4
전혀 필요하지 않다	4.1	3.4	1.6	3.9	4.6	2.6	1.9
러시아							
매우 필요하다	17.2	19.9	18.8	21.3	17.3	15.5	16.2
필요한 편이다	57.9	53.6	55.3	51.1	50.8	51.5	56.0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20.9	22.6	22.8	23.4	25.8	28.5	23.8
전혀 필요하지 않다	4.1	3.9	3.1	4.2	6.1	4.5	4.1
합계(N)	1,213	1,202	1,200	1,201	1,200	1,200	1,200

국민들은 한반도 통일의 과정에서 주변 4개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2008년 이후 줄곧 90% 이상의 응답자들이 미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중국의 경우도 꾸준히 80% 이상의 응답자들이 남북한 통일에 협조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일본의 경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70% 이상의 응답자들이 남북한 통일을 위해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65.8%와 65.7%의 응답자들만이 일본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중국의 부상과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국민들이 중국의 협조를 일본의 협조보다 더 필수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일을 위한 주변국의 역할에 대한 한국인들의 기대를 평가할 때, 주변국에 대한 국가이미지의 안정과 변화 등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앞선 항목들이 개별국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면 남북관계와 한국의 주변국 관계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에 따라 통일의식조사는 남북관계와 한미관계, 남북관계와 북중관계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이해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의식조사는 북미관계에 대한 인식을 간접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설문조사도 수행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이 월드컵에서 경기를 한다면 어느 팀을 응원하시겠습니까" 라는 가상의 질문은 민족 간의 동질의식과 한미동맹의 현실적 필요에 따른 가치판단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10명 중 6명이 북한을 응원하겠다고 하였고 미국을 응원하겠다는 응답은 11.6%였다. 양 팀을 모두 응원하겠다는 응답은 11.7%, 양 팀 모두 응원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15.7%였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미국에 대한 호감도나 신뢰도가 북한보다 높지만, 스포츠 경기에서 북한과 미국이 대결할 때는 북한을 응원하겠다는 국민들이 훨씬 많음을 의미한다.

〈표 1-5-12〉 북한과 미국의 가상월드컵 게임에서 응원할 팀

(단위: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북한	81.0	76.6	68.0	70.4	61.7	66.2	56.7	61.1
미국	4.0	7.0	8.4	8.6	12.9	11.3	13.4	11.6
양 팀 모두 응원하겠다	6.1	6.4	9.9	10.0	10.9	9.8	11.2	11.7
어느 팀도 응원하지 않겠다	8.9	10.0	13.6	11.0	14.3	12.8	18.7	15.7
합계(N)	1,197	1,212	1,197	1,195	1,200	1,199	1,199	1,199

N=9,598 (무응답 제외), χ^2=278.26, p 〈0.001.

가상의 스포츠 경기를 상정한 것이지만 북한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에서 이중적이고 복합적인 측면이 확인된다. 미국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매우 강한 현실을 고려하면 흥미롭다. 민족적인 정서 또한 국민들의 의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천안한 사건이 있었던 2010년에도 10명 중 8명은 어떤 형태로든 북한 팀을 응원하겠다고 하였고, 2013년에 북한의 도발을 경험하면서도 10명 중 약 7명이 어떠한 형태로든 북한을 응원할 것이라 하였다. 2014년에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는 평화적 남북관계에 스포츠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스포츠를 통한 민족적 정서의 친화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탈냉전 후 남북한 관계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1991년 4월 일본 지바에서 열린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는 남북단일팀이 감동을 안겨주었고, 같은 해 5월에는 남북단일 축구 청소년팀이 8강전에 진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남북 간 스포츠교류는 정치적인 이유로 그 후 단절되었지만 남한과 북한은 한국이 7회 연속, 북한이 44년 만에 월드컵 본선무대를 밟았던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다시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았다. 스포츠교류가 남북 간 정치·군사 현안들을 쉽게 해결해주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남북의 통일은 제도적 통일만이 아니라 남북한 주민들 간 마음의 통일을 지향할 필요가 있음을 우리에게 각인시켜준다. 그래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 북한응원단의 참가를 두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전의 스포츠교류와 마찬가지로 남북한 스포츠교류에 대해서는 정치적 해석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표 1-5-13〉 '남북관계 개선' 과 '한미공조' 중 중요한 것

(단위: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남북관계	38.3	29.8	39.1	38.1	39.2	35.9	33.8	31.3
한미공조	17.6	20.2	19.0	19.2	20.8	19.4	20.2	22.6
똑같이 중요하다	44.1	50.0	41.9	42.8	40.0	44.7	46.0	46.1
합계(N)	1,196	1,206	1,200	1,195	1,200	1,200	1,200	1,195

N=9,592 (무응답 제외), χ^2=58.28, p 〈0.001.

한국사회는 그동안 남남갈등이라는 현상에 직면해왔다. 특히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북관계개선' 과 '한미공조' 중 어떤 정책을 더욱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가를 두고 한국사회는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양분되었었다. 그런데 〈표 1-5-13〉에 의하면 이러한 인식이 해마다 급격한 변화를 보이기보다 지속적인 긴장상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남북관계와 한미공조 중 어느 하나의 선택을 강요하기보다는 두 관계 모두가 한국에게 중요하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의견의 차이를 수용할 수 없는 대립적 시각보다 한국의 국가이익에 따라 서로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이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정부부터 계속되고 있는 남북교류의 단절은 북중경협의 강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가 한국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5.24 제재조치 이후 북한이 경제회생을 위한 돌파구로 중국과 경제협력에 더욱 집중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공식적으로는 동참했지만, 무역관계를 전면 단절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민간차원의 무역은 더욱 확대되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우려는 북한의 광물 중심 1차 무역산업이 북한경제를 중국경제로 예속시키는 흐름을 촉진할 것이라는 점에서 제기되고 있다.

〈표 1-5-14〉 북중협력 강화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2011	2012	2013	2014
매우 우려스럽다	29.4	24.6	17.4	16.4
우려스러운 편이다	46.7	47.9	42.8	51.5
별로 상관없다	20.3	23.1	31.0	26.6
바람직한 편이다	3.3	3.8	8.3	5.3
매우 바람직하다	0.3	0.6	0.5	0.2
합계(N)	1,201	1,200	1,200	1,200

N=4,801, χ^2=142.02, p 〈0.001.

남북관계의 단절과 북중경협의 강화에 대해 국민들은 우려를 표현하고 있다. 물론 2011년과 2012년의 응답이 76.1%와 72.5%였던 점과 비교하면 2013년과 2014년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남북관계는 단절된 채 북한과 중국이 긴밀해지는 협력관계에 대하여 상당히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3년과 비교하면 2014년에는 우려스럽다는 의견이 7.7%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남북관계의 개선 없이 남북관계 및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대북한 협상력이 상실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잠재적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5. 소결

북한에 대한 인식,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못지않게 평화적 통일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주변국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기대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고려사항이 된다. 2007년부터 계속되는 조사를 보면 주변국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기대도 지속되는 경향과 상황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경향이 동시에 발견된다. 이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우호적 통일환경을 조성하고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는 것과 더불어, 통일과정에서 지역차원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먼저 지속적으로 주변국 관계에 대한 국민 의식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미 친밀도는 약 80%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미국에 대한 우호적 정서가 국민들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대북 친밀도는 대미 친밀도와 역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즉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이 증가할수록 혹은 북한이 도발적 행보를 할수록 국민들은 미국을 더욱 친하게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대중 친밀도가 증가하고 대중 위협도는 감소하는 반면 일본에 대한 친밀도는 낮아지고 위협인식은 증가하고 있다. 한국 국민은 주변

국에 대해 정형화된 이미지를 지닌 것으로 관찰되지만, 동시에 동북아 안보상황의 변화에 따라 한국 국민의 의식이 반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중국이 G2 국가로 부상하는 것에 대한 우려, 협력 필요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중국과의 교차 정상회담 같은 상황 요소가 중국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일본 정치권의 우경화 현상, 주변국의 역사인식 부정, 영토분쟁화 기도, 아베노믹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 등은 일본에 대한 국가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바꾸고, 일본을 한반도 평화에 두 번째로 위협적인 국가로 인식되게 하는 상황 요소가 되고 있다.

셋째, 국민들은 남북관계, 한중관계, 한미관계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국가이미지가 개선되는 상황에서도 북중간 경협이 심화되는 것을 우려하는 이유는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이다. 또한 여전히 북한의 도발에 대해 피로감을 보이면서도 남북관계와 한미공조 모두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높은 수준의 대미 친밀도에도 불구하고 북한과는 여전히 강한 민족적 유대감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민족적 정서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현실적 이해관계에 대한 엄밀한 진단과 평가에 기초한 정책추진을 기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일의식조사는 국민들의 이해하는 주변국과의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국민들이 북한을 비롯하여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주변국가가 한반도 통일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을 조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국내에서 정당

성을 갖춘 대외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주변국과의 협상과정에서 유용한 협상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런데 외교관계는 반드시 국민들의 의견을 좇아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변국이 남북관계 개선 혹은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도모하는 이익이 무엇이며 그 이익의 실현을 위하여 어떠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 사고가 요구된다. 특히 현재 심각한 갈등 상황에 있는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데에는 정치적 결단이 요구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동북아시아 국제관계의 특성상 국민정서를 배제한 대외정책을 펼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주변국에 대한 국민 의식에 관한 기초 자료들은 국내 여론의 동향을 이해하고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조사 자료들은 주변국 관계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되는 전략적 사고와 어우러질 때 파급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다.

2014 통일의식조사

제2부 심층분석

제6장 사회 계층과 통일·북한 인식

제7장 세대와 민주적 가치

제6장
사회 계층과 통일·북한 인식

1. 서론

최근 들어 한국 사회에서 계층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세계화, 신자유주의 등 시대적 흐름과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된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은 계층과 양극화의 문제는 정치적으로도 표출되기 시작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무상급식과 반값 대학 등록금이 중요한 선거 이슈가 되었다. 이 중 무상급식은 2011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이슈를 걸고 주민투표를 실시함으로써 더욱 정치적으로 부각되었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경제 민주화, 양극화 해소, 복지 확대 등이 많은 유권자의 관심을 끌었고, 이 이슈를 선점한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처럼 계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치적, 사회적 현안에 대한 계층별 상이한 태도와 가치에 대한 연구도 많

아졌다.[18] 그러나 이에 비해서 상이한 계층이 통일이나 북한에 대한 태도, 대북정책에 대한 선호 등에 대해서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많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게 된 한 가지 원인은 그동안 이와 같은 통일, 북한 관련 이슈가 이념적으로나 정파적으로 매우 커다란 대립과 갈등을 불러왔기 때문일 것이다. 계층 변수가 주목을 받지 못한 또 다른 원인은 그동안 선거에서의 투표 행태나 정파적 지지를 두고 볼 때, 하위 계층이 대체로 보수적인 성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이른바 '계급배반 투표' 등이 이러한 특성을 잘 묘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19] 따라서 하위 계층은 곧 보수적이며, 따라서 통일,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당연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전쟁의 경험이나 적대적 관계의 지속, 반공 이데올로기로 인한 북한에 대한 증오, 미움, 불신 등의 '감정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생각해 본다면, 자신의 계층적 지위에 따라서 통일이나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예컨대 통일을 두고 볼 때, '가진 자' 의 입장에서는 통일이 기회보다 더 큰 부담이나 비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가진 것이 적은 자' 의 시각에서는 그러한 부담이나 비용은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통일, 북한, 대북 관계라는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각 계층이

18) 이갑윤 · 이지호 · 김세걸, "재산이 계급의식과 투표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치연구』, 제22집 2호(2013), pp. 1~23; 강원택, "한국 선거에서의 '계급 배반 투표' 와 사회계층," 『한국정당학회보』, 제12권 3호(2013), pp. 5~28; 이용마,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계층 균열구조의 등장," 『한국정치학회보』, 제48집 4호(2014), pp.249~270; 강원택, "사회계층과 정치적 갈등: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 강원택 외,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서울: 21세기북스, 2014).

19) 강원택, "한국 선거에서의 '계급 배반 투표' 와 사회계층."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런데 이처럼 계층을 분석 단위로 할 때 종종 접하게 되는 어려움은 계층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홍두승(2008: 91~133)은 중산층의 객관적 기준으로 가구주의 계급적(직업적) 지위, 가구소득, 주택소유 여부, 그리고 본인의 교육 정도 등 네 가지 기준을 사용했다.[20] 한편, 이갑윤·이지호·김세걸(2013)은 가구 소득이 아니라 재산의 정도에 따라 계층을 구분하여 분석했다.[21] 강원택(2014)은 홍두승 2008)의 분석을 발전시켜 객관적 계층 분류뿐만 아니라 주관적 계층 소속감까지 아울러 경제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을 대표하는 네 가지 기준을 각각 포함하여 분석했다.[22] 그러나 이 글의 관심은 주로 경제적 조건의 차이에 따라서 통일, 북한, 대북 정책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예시한 연구와는 달리 가구 소득만을 기준으로 계층을 분류했다.

2014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에서 응답자의 가구 소득 중에서 중위수는 350~399만 원 소득층, 평균은 300~349만 원과 350~399만 원 사이, 최빈값은 300~349만 원 층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포를 감안하여 300~399만 원 소득층을 중간층으로 보고, 그보다 소득이 적은 계층, 즉 299만 원 이하를 하위층으로, 400만 원 이상을 상위층으로 간주하여 분석할 것이다. 각 집단의 비율은 하위층 28.3%, 중간층 33.1%, 상위층 38.7%이다.

20) 홍두승, 『한국의 중산층』(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pp.91~133.
21) 이갑윤·이지호·김세걸, 앞의 논문.
22) 강원택, "사회계층과 정치적 갈등."

2. 통일에 대한 인식

통일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표 2-6-1〉에서 볼 수 있는 대로, 전체적으로 계층과 무관하게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통일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아주 뚜렷한 것은 아니더라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계층별 차이, 특히 하위층의 강한 선호를 확인할 수 있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하위층에서 유독 높게 나타났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하위층에서 61.4%인데 비해, 중간층에서 53.9%, 상위층에서는 53.4%로 나타났다. 통일이 필요 없다는 응답도 하위층에서 18.3%인 데 비해 중간층에서는 23.2%, 상위층에서는 22.8%로 비교적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다른 두 계층과 비교할 때 하위 계층의 통일에 대한 강한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6-1〉 통일의 필요성

(단위: %)

구분	필요하다	그저 그렇다	필요 없다	전체
하위층	61.4	20.4	18.3	100.0(339)
중간층	53.9	22.9	23.2	100.0(397)
상위층	53.4	23.7	22.8	100.0(464)
chi square=6.1 p=0.19				

〈표 2-6-2〉 통일에 대한 태도

(단위: %)

구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빨리	여건 성숙 기다려야	현재대로 좋다	관심 없다	전체
하위층	18.3	61.7	15.3	4.7	100.0(339)
중간층	12.3	59.7	19.9	8.1	100.0(397)
상위층	8.2	61.6	21.3	8.8	100.0(464)
chi square=24.9 p〈0.00					

이런 점을 보다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통일과 관련된 다른 유사한 질문의 응답 양상을 살펴보았다. 〈표 2-6-2〉에는 통일에 대한 계층별 태도가 더욱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빨리 통일이 되는 것이 좋다' 는 통일지상주의적 응답은 하위층에서 18.3%로 가장 높았고 계층이 올라갈수록 그 비율이 뚜렷이 낮아졌다. 중간층에서 그 응답의 비율은 12.3%였으며 상위층에서는 8.2%로 낮아졌다. 하위층과 상위층 차이는 10%에 달했다. 한편, '현재대로가 좋다' 는 현상유지적 태도는 계층이 올라갈수록 높아져서 통일지상주의적 응답의 양상과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현상유지적 태도의 비율은 하위층에서 15.3%, 중간층에서 19.9%, 그리고 상위층에서는 21.3%로 높아졌다. 〈표 2-6-1〉과 〈표 2-6-2〉의 결과는 상위층이 하위층보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약하며 현상유지적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2-6-3〉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

(단위: %)

구분	같은 민족이니까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남북 간 전쟁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	북한주민도 잘 살기 위해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	기타	전체
하위층	47.5	8.3	22.7	4.4	16.5	0.6	100.0(339)
중간층	44.6	10.3	24.4	4.0	16.4	0.3	100.0(397)
상위층	36.9	8.0	32.1	3.2	19.4	0.4	100.0(464)
chi square=17.9 p〈0.1							

이번에는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 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응답에서도 계층별로 비교적 뚜렷한 시각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같은 민족이니까' 라는 민족주의적 정서를 이유로 꼽은 비율은 하위층의 경우 거의 절반에 가까운 47.5%였지만, 중간층으로 가면 44.6%로 낮아지고 상위층의 비율은 36.9%로 낮아졌다. 이에 비해서 '남북 간 전쟁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 라는 응답에서는 반대로 상위층의 경우 32.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중간층에서는 24.4%, 하위층에서는 22.7%로 낮아졌다. 이는 통일의 이유를 정서적이기보다 '도구적(instrumental)' 으로 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상위층에서 특히 이런 관점이 높게 발견되었다. 한편,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라는 응답 역시 도구적 성격을 지닌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상위층은 중간층이나 하위층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상위계층의 경우에는 중간층이나 하위층과 비교하여 민족주의나 동포애 등의 정서적 요인보다 도구적 요인을 중시하는 태도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표 2-6-4〉 통일이 남한에 이익?

(단위: %)

구분	이익이다	이익이 되지 않는다	전체
하위층	59.6	40.4	100.0(339)
중간층	55.4	44.6	100.0(397)
상위층	53.7	46.3	100.0(464)
chi square=2.8 p=0.24			

통일이 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기대감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고 통계적으로도 차이가 확인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하층으로 갈수록 다소 긍정적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지적할 만하다. 그런데 통일이 개인에게 이익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계층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남한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비해 개인적 이익으로 보는 비율은 낮았다. 그러나 하위층의 경우에 32.7%가 개인에게도 이익이 될 것으로 본 것에 비해 중간층은 23.9%, 상위층은 25.9%로 차이를 보였다.

〈표 2-6-5〉 통일이 개인에 이익?

(단위: %)

구분	이익이다	이익이 되지 않는다	전체
하위층	32.7	67.3	100.0(339)
중간층	23.9	76.1	100.0(397)
상위층	25.9	74.1	100.0(464)
chi square=7.8 p〈0.05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이른바 '통일 대박론' 에 대해서는 계층별로 어떻게 응답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흥미롭게도 계층별 시각의 차이가 뚜렷이 나타났다. 우선 전반적으로 통일 대박론에 대한 공감대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 평균 31.4%만이 공감한다고 응답했고, 28.6%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40.0%는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그렇지만 응답 양상은 계층별로 달랐는데, 하위층에서 통일 대박론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36%인 것에 비해, 중간층은 32.3%, 그리고 상위층에서 그 비율은 27.3%에 그쳤다. 이에 비해 공감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상위층의 경우 34.2%로 가장 높았는데, 이 비율은 하위층의 응답률 21.5%보다 12% 이상 높은 수치였다.

〈표 2-6-6〉 '통일 대박론' 에 대한 공감 여부

(단위: %)

구분	공감한다	보통이다	공감하지 않는다	전체
하위층	36.0	42.5	21.5	100.0(339)
중간층	32.3	39.6	28.0	100.0(396)
상위층	27.3	38.5	34.2	100.0(462)
chi square=16.7 p〈0.00				

〈표 2-6-7〉 통일과 남한 민주주의

(단위: %)

구분	통일이 되어야 남한에 완전한 민주주의 실현	남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뤄져야 통일 가능	통일과 남한 민주주의는 무관	전체
하위층	31.0	24.5	44.5	100.0(339)
중간층	31.0	23.2	45.8	100.0(397)
상위층	20.7	22.2	57.1	100.0(464)
chi square=19.7 p〈0.00				

그렇다면 이번에는 통일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서는 계층별로 어떤 생각을 갖는지 살펴보았다. 남한 민주주의와 통일에 대해서는 하위층과 중간층의 응답 양상이 거의 동일했다. 통일이 되어야 남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응답이 31%로 나타났으며, 통일과 민주주의가 무관하다는 응답은 45% 내외였다. 그러나 상위층의 경우에는 통일이 되어야 남한 민주주의가 실현된다는 응답의 비율은 20.7%로 다른 계층과 10% 정도의 차이를 보였으며, 대신 통일과 남한 민주주의는 무관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 역시 앞에서 본 것과 유사하게 상위층에서 통일에 대해 소극적이고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태도와 맥을 같이하는 응답으로 보인다. 한편, 통일과 북한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통일이 되어야 북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실현된다' 는 응답이 앞의 〈표 2-6-7〉에 비해 높게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계층별 차이가 그다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표 2-6-8〉 통일과 북한 민주주의

(단위: %)

구분	통일이 되어야 남한에 완전한 민주주의 실현	남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뤄져야 통일 가능	통일과 남한 민주주의는 무관	전체
하위층	42.5	24.5	33.0	100.0(339)
중간층	35.8	29.5	34.8	100.0(397)
상위층	41.6	26.7	31.7	100.0(464)
chi square=4.9 p=0.30				

이상에서 본 대로, 통일의 이유나 통일로 인한 잠재적 이익에 대한 평가에서 계층별 입장의 차이가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위 계

층의 경우 통일 문제에 대한 '전통적이고 규범적인 입장'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를 발견할 수 있다. 통일은 필요하고, 그 근거는 민족주의·동포애에 바탕을 두며, 통일로 인한 사회적, 개인적 이익이나 남한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해서도 비교적 희망적인 기대를 품은 이들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상위층의 경우에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소극적이고 현상유지적인 속성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통일의 이유 역시 그 자체가 목적이기보다 다른 목적을 위한 도구적 요인을 중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통일로 인한 잠재적 이익에 대해서도 그다지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북한에 대한 태도

앞 절에서 통일에 대한 계층 별 상이한 태도를 확인했다. 그렇다면 북한을 바라보는 인식에서는 계층별로 차이가 있을까? 우선 북한은 우리에게 어떠한 대상인지 그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표 2-6-9〉에서 보듯이, 계층별 시각의 차이에 대해 나름대로 일정한 양상이 확인된다. 주어진 다섯 가지 선택 항목 중에서 경계대상과 적대대상이 북한을 바라보는 가장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경계대상의 경우, 하위층에서 그 응답의 비율이 17.4%인 데 비해 중간층에서는 21.9%, 그리고 상위층에서는 25.4%로 높아져 감을 알 수 있다. 적대대상이라는 응답은 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

았다. 한편, 협력대상이라는 응답은 하위층에서 49.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상위층, 중간층의 순이었다.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하위층과 상위층 간의 차이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지원대상과 협력대상이라는 긍정적 인식의 경우 하위층에서 그 합이 61.4%임에 비해 상위층에서는 57.5%였다. 이에 비해 부정적 인식으로 볼 수 있는 경계대상과 적대대상의 경우에는 하위층에서 그 합이 32.4%임에 비해 상위층의 경우에는 그 합이 39.4%에 달했다. 상위층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인식이 더욱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6-9〉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

(단위: %)

구분	지원대상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전체
하위층	12.1	49.3	6.2	17.4	15.0	100.0(339)
중간층	17.9	42.8	4.5	21.9	12.8	100.0(397)
상위층	11.6	45.9	3.0	25.4	14.0	100.0(464)
chi square=19.6 p〈0.05						

이번에는 북한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인식하는지를 알아보았다. 〈표 2-6-10〉에서 보는 것처럼, 계층별로 매우 분명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북한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라는 응답은 하위층에서 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중간층에서 그 비율은 27.7%로 낮아지며, 상위층의 응답 비율은 23.9%로 나타났다. 상위층과 하위층 간의 응답률 차이는 12% 정도였다. 여기서도 다시 북한에 대한 상위층의 부정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6-10〉 북한과 대화 타협 가능 여부

(단위: %)

구분	대화 타협 가능	대화 타협 불가능	전체
하위층	36.0	64.0	100.0(339)
중간층	27.7	72.3	100.0(397)
상위층	23.9	76.1	100.0(464)
chi square=14.2 p〈0.01			

이번에는 북한 정권이 통일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여부를 알아보았다. 이 역시 북한을 진정성이 있는 상대방으로 바라보는지 확인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6-11〉에서 보듯이, 전체적으로 북한 정권이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는 응답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그러나 하위층과 나머지 계층 간의 시각의 차이는 비교적 분명하게 나타났다. 하위층 중에서 북한 정권이 통일을 원한다는 응답은 22.7%였음에 비해, 중간층과 상위층에서 그 응답의 비율은 15.9%에 그쳤다. 하위층에서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비교적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6-11〉 북한 정권 통일 원할까

(단위: %)

구분	통일 원한다	통일 원하지 않는다	전체
하위층	22.7	77.3	100.0(339)
중간층	15.9	84.1	100.0(397)
상위층	15.9	84.1	100.0(464)
chi square=7.7 p〈0.05			

그렇다면 이것이 북한의 무력도발이나 위협에 대한 계층별 태도 차이를 반영하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다시 말해서 앞에서 살펴 본 대로, 북한을 바라보는 인식이나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 여부가 북한의 위협에 대한 상이한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알아보고자 했다. 〈표 2-6-12〉 〈표 2-6-13〉은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북한의 핵 보유에 위협을 느끼는지의 여부에 대한 계층별 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표 2-6-12〉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단위: %)

구분	가능성 있다	가능성 없다	전체
하위층	72.0	28.0	100.0(339)
중간층	75.1	24.9	100.0(397)
상위층	76.1	23.9	100.0(464)
chi square=1.8 p=0.41			

〈표 2-6-13〉 북한 핵무기 보유로부터 위협

(단위: %)

구분	위협 느낀다	위협 안 느낀다	전체
하위층	87.3	12.7	100.0(339)
중간층	87.7	12.3	100.0(397)
상위층	90.5	9.5	100.0(464)
chi square=2.6 p=0.27			

전체적으로 볼 때 북한에 대한 무력 위협을 느끼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계층별 응답 비율도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통계학적으로는 계층별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롭게도 하위층에서 상위층으로 올라갈수록 위협을 느끼는 정도가 미세하게라도 높아지고 있는 양상은 두 표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본 것도 상위층이고 북한 핵무기 보유 때문에 위협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층도 상위층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북한을 바라보는 태도 역시 계층별로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상위층은 북한을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비율이 높았으며, 북한 정권에 대해서도 대화, 타협이 어렵고 통일에 대한 진정성도 없다고 바라보는 경향이 강했다. 즉 하위층에 비해서 상위층은 북한에 대해 보다 강한 불신과 적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계층별 시각의 차이가 북한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지적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북한에 대한 위협은 계층과 무관하게 대다수가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북의 무력 도발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계층별 시각의 차이를 고려하면, 결국 남한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도 계층 간 상이한 태도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제 대북정책에 대한 계층별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4. 대북 정책

대북 정책에 대한 계층별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바람직한 대북 정책에 대한 계층별 응답을 살펴보았다. 〈표 2-6-14〉에서 보듯이 매우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타났다.

〈표 2-6-14〉 바람직한 대북정책

(단위: %)

구분	남북교류협력·대북지원	북한개혁개방·인권개선	적극적 통일정책·재원준비	북핵중단 국제협력	평화협정 체결	전체
하위층	20.4	34.8	17.1	15.6	12.1	100.0(339)
중간층	21.7	31.1	17.4	17.9	11.9	100.0(396)
상위층	17.7	28.9	14.7	21.1	17.7	100.0(464)
chi square=15.1 p〈0.1						

우선 '남북한 교류 협력과 대북 지원' 에 대해서 상위층에서 더욱 낮은 응답이 나타났으며, 북한의 개방, 개혁, 인권 신장에 대해서도 하위층보다 낮은 응답을 보였다. 상위층에서 특히 높은 응답이 나온 항목은 평화협정 체결인데, 17.7%로 다른 계층에 비해 5~6% 높은 응답을 보였다.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하려면 현실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논란의 여지도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평화 협정 체결이라는 항목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제대로 의중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유독 상위층에서 이 항목에 대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것은, 앞 절에서 발견한 바와 관련해서 본다

면, 통일이나 북한에 대한 지원이나 협력보다는 북한의 위협이나 부담에서 제도적으로 보장된 형태로 벗어나겠다는 정도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북한 핵 중단을 위한 국제협력' 의 항목에서도 상위층이 다른 계층보다 높은 응답을 보인 것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표 2-6-15〉 이전 정부의 남북한 합의 사항 계승해야 한다

(단위: %)

구분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전체
하위층	73.6	26.4	100.0(303)
중간층	68.4	31.6	100.0(358)
상위층	67.2	32.8	100.0(405)
chi square=3.6 p=0.16			

이번에는 이전 정부에서 남북한 간에 합의한 사항을 후임 정부가 계승해야 하는지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았다. 이 질문은 현실 정치에서는 상당히 예민한 질문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전 정부 시기는 현재와 정파적으로 다른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임 이명박 정부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그 때는 남북한 간 정부 차원의 접촉이 사실상 전무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남북한 간에 체결된 합의 사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이전 정부에서의 합의 사항은 현재와 정파적으로 상이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2/3 이상은 모두 이전 정부의 합의 사항이 계승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계층별로도 비교적 차이가 분명하게 나

타났는데 하위층에서 합의 사항 계승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73.6%인 데 비해서 중간층과 상위층에서 그렇게 응답한 비율은 68% 전후였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하위층이 더욱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표 2-6-16〉 구체적 대북 정책에 대한 태도

(단위: %)

정책	구분	상위층	중간층	하위층	카이제곱검정
개성공단은 유지되어야	찬성	47.2	43.3	46.3	χ^2=4.5 p=0.34
	그저 그렇다	33.6	32.2	34.5	
	반대	19.2	24.4	19.2	
금강산관광은 재개해야	찬성	47.6	47.1	56.3	χ^2=11.6 p〈0.05
	그저 그렇다	38.4	34.8	28.9	
	반대	14.0	18.1	14.7	
북핵해결 이전 지원 반대	찬성	49.8	49.1	47.8	χ^2=1.9 p=0.76
	그저 그렇다	33.2	31.1	34.8	
	반대	17.0	19.,7	17.4	
대북삐라 살포 반대	찬성	52.2	48.9	45.1	χ^2=4.3 p=0.37
	그저 그렇다	33.1	36.8	39.2	
	반대	14.7	14.4	15.6	
북한 인권 문제 제기해야	찬성	69.6	65.0	61.7	χ^2=6.9 p=0.14
	그저 그렇다	25.2	28.0	32.4	
	반대	5.2	7.1	5.9	
한국도 핵무장해야	찬성	56.9	56.2	49.0	χ^2=9.7 p〈0.05
	그저 그렇다	24.1	29.0	31.9	
	반대	19.0	14.9	19.2	

이번에는 구체적인 대북 정책의 내용에 대해서 계층별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교차분석에서 차이가 확인된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관광 재개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절반에 달하지만 계층별로 시각의 차이가 확인된다. 상위층이나 중간층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찬성 응답은 47%대인데 비해서 하위층에서 이에 대한 응답은 56.3%로 큰 차이를 보였다.

흥미로운 점은 적대적인 대북 정책을 찬성하면서도 동시에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위층에서 더욱 조심스러워하는 태도가 보인다는 점이다. 대북삐라 살포를 자제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52.2%가 찬성하여 상위층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그러나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하위층에서 찬성이 61.7%인 데 비해, 상위층의 찬성 비율은 69.6%로 차이를 보였다. 한국 역시 핵 무장을 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상위층에서 56.9%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중간층에서는 56.2%, 그리고 하위층에서는 49%로 그 비율이 낮아졌다. 상위층에서 핵 무장에 대한 높은 응답이 나온 것은 앞의 〈표 2-6-14〉에서의 평화협정 체결이나 북한 핵 중단을 위한 국제협력에 대한 응답과 유사한 맥락으로 보인다. 즉 북한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안전보장에 대한 관심이 상위층에서 더욱 크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결과는 상위층이 전반적으로 대북관계 개선에 소극적이고 북한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인 태도를 갖는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

이번에는 최근 남북 관계가 악화된 것에 대해 북한의 책임 정도와 남한의 책임 정도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표 2-6-17〉에서

보듯이 남한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그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분명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남북한 간의 관계 악화에 대한 북한의 책임이 크다는 데 대한 상위층의 응답 비율은 무려 92.5%였으며 중간층 역시 91.9%의 응답을 보였다. 이에 비해 하위층에서는 그 비율이 87.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북한 측의 책임이 작다는 응답도 큰 차이는 아니지만 하위층에서 2.7%로 가장 높았다. 여기서도 상위층에서 북한에 대해 더욱 적대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표 2-6-17〉 최근 남북한 관계 악화의 책임 소재 (단위: %)

악화 책임	구분	상위층	중간층	하위층	카이제곱검정
북한	크다	92.5	91.9	87.0	χ^2=12.8 p〈0.05
	중간	6.9	7.6	10.3	
	작다	0.6	0.5	2.7	
남한	크다	47.4	45.3	44.8	χ^2=3.5 p=0.47
	중간	31.9	35.8	37.8	
	작다	20.7	18.9	17.4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대북 정책에서도 계층별로 시각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계층별 시각의 차이가 앞에서 본 통일이나 북한에 대한 태도만큼 뚜렷하고 큰 것은 아니었지만, 상위층에서는 대북 교류, 협력과 같은 유화적인 정책에 대한 반대가 높고 북한에 대한 적대감이나 비판적 시각이 강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라는 '부담' 에서 벗어나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는 형태의 대북 정책, 예컨대, 평화협정이나 국제 협력, 한국의 핵 무장 등에 대한 선호도 상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렇다면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는 어떠할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나 드레스덴 선언과 같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제안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은 이전 이명박 정부 시기의 소극적이고 적대적이기까지 한 정책과 비교하여 현상적으로 큰 변화가 없어 보인다. 앞에서 본 결과로 추론한다면 대북 협력에 보다 긍정적이고 통일이나 북한에 대해 보다 우호적 태도를 보인 하위층에서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현상유지나 대북 정책에서 보수적 태도를 보인 상위층에서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표 2-6-18〉의 결과는 이러한 예상에서 벗어났다. 우선 계층별로 만족, 불만족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오히려 미세한 차이라고 해도 하위층에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중간층이나 상위층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2-6-18〉 현 정부 대북 정책 만족도

(단위: %)

구분	만족	불만족	전체
하위층	56.5	43.5	100.0(338)
중간층	52.4	47.6	100.0(395)
상위층	52.2	47.8	100.0(462)
chi square= 1.8 p=0.42			

이러한 결과는 매우 흥미롭다. 이러한 결과는 통일, 북한이나 대북 정책에 대한 태도가 국내 정치 문제로는 크게 연결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까?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각 계층별 정파적, 이념적 성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다음 절에서 계층별 정치 성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로 한다.

5. 계층별 정치 성향 분석

한국 정치에서 대북 정책이나 북한 문제는 그동안 이념적으로 매우 중요한 갈등의 원천이 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이념적으로 보수적인 이들은 대북 화해, 협력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이며 반대로 진보적인 성향을 갖는 이들은 이에 대해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런데 기존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하위 계층은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하며 상위 계층이 오히려 진보 성향이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23] 지금까지 논의한 연구 결과가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기존의 인식과는 달리, 통일, 북한, 대북정책에서는 상위 계층에서 보다 보수적인 성향이 확인되었고 하위 계층에서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발견은 선거에서의 투표 행태나 정당 일체감 등에 기반하여 계층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 결과와 어긋난다. 그렇다면 정치적 결정에 대한 태도와 대북, 통일에 대한 태도에서 계층별 차이가 생겨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우선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원인은 데이터 자체의 문제 혹은 계층 분류의 문제이다. 이런 의문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층별로 정파적 지지, 이념성향,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았다.

23) 강원택, 『한국의 선거정치: 이념, 지역, 세대와 미디어』 (서울 푸른길, 2003).

〈표 2-6-19〉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 는 질문에 대한 계층별 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교차분석 결과 통계학적 유의미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새누리당 지지와 지지 정당 없음에 대해서는 분명한 차이가 나타난다. 하위층에서 새누리당 지지는 31.6%인 데 비해 중간층과 상위층에서 그 비율은 25.2%로 6%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전체 응답자의 거의 절반이 지지 정당이 없다고 응답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6% 이상의 차이는 결코 적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즉, 하위층에서 보수적인 새누리당을 더욱 강하게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표 2-6-19〉 계층별 지지 정당의 비율

(단위: %)

구분	새누리당	새정치 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	지지 정당 없음	전체
하위층	31.6	20.4	2.1	0.9	45.1	100.0(339)
중간층	25.2	19.1	2.5	0.8	52.4	100.0(397)
상위층	25.2	20.9	2.4	0.6	50.9	100.0(464)
chi square=6.4 p=0.60						

이와 같은 하위 계층의 정치적 보수성은 이념 성향에 대한 분석에서도 다시 확인된다. 〈표 2-6-20〉에서 볼 수 있는 바처럼, 하위층에서 진보적 성향에 대한 비율은 22.2%, 중간층에서 그 비율은 27.4%, 그리고 상위층에서는 31.3%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보수적이라는 응답은 하위층에서 31.2%, 중간층에서는 21.2%, 그리고 상위층에서는 20.7%로 나타났다. 여기서도 하위층이 이념적으로 보다 보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상위층이 보다 진보적 성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역시 기존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표 2-6-20〉 계층별 이념 성향

(단위: %)

구분	매우 진보적	약간 진보적	중도	약간 보수적	매우 보수적	전체
하위층	2.4	19.8	46.6	27.7	3.5	100.0(339)
중간층	1.0	26.4	51.4	18.4	2.8	100.0(397)
상위층	3.0	28.3	46.0	19.7	3.0	100.0(464)
chi square=20.5. p〈0.01						

이런 특성을 다시 확인해 보기 위해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계층별로 살펴보았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정파적 지지나 이념 성향 역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표 2-6-21〉에서 볼 수 있듯이, 하위층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보다 긍정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잘한다' 고 평가한 이들의 비율은 하위층에서 56.8%, 중간층에서 52.8%, 그리고 상위층에서 47.9%로 나타났다. 박 대통령 평가에서 하위층과 상위층 간에는 거의 10% 정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 비율은 앞의 〈표 2-6-20〉에서 본 이념적 입장의 차이와도 비슷한 수준이다.

〈표 2-6-21〉 박근혜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

(단위: %)

구분	매우 잘한다	대체로 잘한다	대체로 잘못한다	매우 잘못한다	전체
하위층	13.9	42.9	33.1	10.1	100.0(339)
중간층	5.4	47.4	34.7	12.5	100.0(397)
상위층	6.3	41.6	42.6	9.5	100.0(464)
chi square=29.0 p〈0.00					

〈표 2-6-19〉, 〈표 2-6-20〉, 〈표 2-6-21〉의 결과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위 계층은 상위 계층보다 이념적으로 더욱 보수적이며, 정파적으로 새누리당을 더욱 많이 지지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더욱 우호적으로 평가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념적으로나 정파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갖는다면 화해, 협력 중심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보다 비판적이고 북한에 대해서도 보다 적대적인 태도를 취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 절에서 살펴본 세 가지 표의 결과는 하위 계층이 이념적으로나 정파적으로 더욱 보수적인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대북 정책이나 북한, 통일에 대한 태도에서도 보다 적대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해야 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하위 계층은 통일 문제에 보다 전향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비해 상위 계층에서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소극적으로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태도를 보였다. 북한에 대해서도 상위층은 하위층에 비해 북한을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며 북한 정권에 대한 불신도 컸다.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하위층에서 오히려 적극적이고 화해 협력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괴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앞에서 분석한 결과를 본다면, 우리 사회에서 계층 간 격차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게 되면서 이제 계층별로는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뚜렷한 시각차가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소득이 높은 계층에서는 오히려 현상유지를 선호하며 통일의 필요성이나 이에 대한 기대감이 그다지 높지 않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북한이라는 위험부담을 줄이고 싶지만 통일이나 적극적인 교류, 협력을 선호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통일이나 북한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감과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상대적으로 가진 것이 적은 하위층이었다. 이런 차이는 결국 통일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대한 변화' 에 대한 상이한 수용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다 일반적인 형태로 표현한다면, 불확실성이 수반되는 통일 때문에 생겨날 변화에 대한 기득권층의 우려와 부담감이 통일이나 북한, 대북정책에서의 소극적이고 현상유지적인 태도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만큼 계층적 구분은 이제 통일과 대북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향적인 대북 정책에 대해서 하위 계층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이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취하는 모습이 현실정치에서 보다 강하게 드러나는 것은 계층적 이해관계와 무관한 정치적 요인의 영향 때문으로 생각된다. 즉 계층적 이해관계에 따른 통일, 북한에 대한 시각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까닭은 세대적 요인과 반공 이데올로기에 대한 수용성 등의 요인이 상호 결합된 결과이다. 그리고 그러한 특성을 각 정당이 정치적으로 지지를 동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때문이다. 즉 통일이나 북한과 관련된 이슈가 정파적 대립의 중심에 놓이게 되면 계층적 이해관계를 고려하기 전에 이미 정치적으로 어느 한 편으로 입장을 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겉으로 드러난 통일, 북한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대립이나 갈등의 수면 아래에서는 계층에 따른 보다 실질적인 이해관계와 태도의 변화가 이미 발생했다는 점이 더욱 중요해 보인다. 한국에서의 이념 갈등이나 정파적 지지가 세대의 문제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향후 일정한 시간이 흐른다면 사회적으로 부상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6. 소결

지금까지 가계 소득에 따른 사회 계층별로 통일, 북한, 대북 정책에 대한 시각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러 표를 통해 드러난 대로, 통일, 북한, 대북 정책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계층별로 비교적 일관되고 분명한 태도가 발견되었다.

하위 계층은 통일, 북한, 대북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며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위층은 통일 문제에 대해 '전통적이고 규범적인 입장' 을 지니고 있으며, 민족주의와 동포애에 기반을 두고 통일을 바라보는 경향이 강했다. 통일로 인한 잠재적 이익에 대한 기대감도 높았고 북한 정권에 대해서도, 위협을 느끼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불신이나 비판의 정도는 낮았다. 또한 유화적인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하위층의 지지가 높았다.

이에 비해 상위층에서는 보수적이고 현상유지적인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통일에 대해 소극적이고 큰 기대감을 보이지 않았으며, 북한에 대해서는 보다 강한 불신과 적대감을 표시했다. 대북 교류, 협력과 같은 유화적인 정책에 대한 반대도 상위층에서 높았다. 주목할 점은 북한이라는 '위협' 이나 '부담' 을 줄일 수 있으면서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는 형태의 대북 정책, 예컨대, 평화협정이나 국제 협력, 한국의 핵 무장 등에 대한 선호가 상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상위층의 이런 태도는 기존 질서를 유지하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보수적이고 현상유지적 성향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연구에서 발견한 바가 지니는 의미는 그동안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사회 계층이라는 변수가 통일, 북한, 대북 정책에 대한 태도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밝힌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처럼 상위층의 보수적 태도와 하위층의 전향적 태도는 사실 그들의 사회경제적 상황이나 지위를 생각한다면 '합리적(rational)' 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가진 자' 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통일이 민족적으로 아무리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전환 과정에서는 비용이 들어갈 것이며,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도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비용과 불확실성은 현재의 기득권층 입장에서 본다면 현상유지보다 못한 선택이 될 수도 있는 일이다.

이처럼 이제 통일, 북한 관련 이슈는 단순히 이념이나 정파적인 고려를 넘어서 국민 개개인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태도를 반영하게 된 것이다. 투표 선택이나 정파적 지지와 같은 현실정치에서는 여전히 하위층의 보수성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것은 세대적 요인이나 정당 일체감과 같은 요인에 의해 왜곡된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통일, 북한을 바라보는 사회 계층에 따른 상이한 태도가 형성된 만큼 머지않은 장래에 그러한 시각의 차이가 보다 큰 정치적, 사회적 중요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

제7장
세대와 민주적 가치

1. 서론

2014년 1월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 라고 말해 크게 화제가 되었다. 대박이라는 단어의 적절성이 논란되기도 하였지만, '통일대박론' 은 통일이 가져다줄 긍정적인 효과를 압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시켰다.

그리고 박대통령은 '통일대박론' 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3월 28일 독일 드레스덴에서 통일기반을 위한 대북제안을 제시하고, 선언을 구체화할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7월 15일 발족하였으며, 8월 7일에는 1차 회의를 청와대에서 개최하였다.

그러나 2014년 9월말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통일논의는 연초의 '대박론' 발표 때 이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가 한국사회 전반에 미친 충격 때문이다. 사건 발생 이후 대부분의 국정논의가 우선순위에서 세월호 대책에 밀려났고, 통일논의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하지만 통일과 같은 전 국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인 국가과업이 한 때 유행처럼 즉흥적으로 논의되거나 아니면 일부 전문가 집단에 한정되어 다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통일논의는 건강이나 행복, 아니면 교육이나 취업처럼 국민들의 일상적인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통일논의를 상시적인 국민적 관심사로 제고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통일을 실현할까? 개인별로 특정 문제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다르고 관심 초점이 다르듯이, 통일에 대한 관심의 정도나 관심의 초점 또한 다를 것이다. 예컨대, 취업을 위해서는 개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정책이 필요하듯이, 통일논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도 개인별 특성이 맞는 통일논의 그리고 통일실천이 필요한 것 아닐까 한다. 이에 이 글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통일의식조사에서 국민 하위집단별 통일의식의 편차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하위집단에 적합한 통일논의와 실천방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여러 가지 기준을 갖고 하위집단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서는 하위집단을 '세대' 와 '민주적 가치' 에 따라 구분하고 이들의 통일관련 의식 및 정책에 대한 의견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세대' 에 관심을 갖는 것은, 세대별로 통일관이 다르다는 기존논의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이다. 세대별로 통일관련 의식에 차이가 있다는 논의는 이제 상식이지만, 통일의식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통일에 대해 관심이 낮다고 알려져 있는 청년세대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이 통일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한편, '민주적 가치' 에 관심을 갖는 것은 한국의 민주화가 민주적 가치를 지닌 사람들이 주도해서 이루어졌다는 역사적 경험이 '통일' 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탐색해보기 위해서이다.[24] 더구나 최근에는 통일 자체보다 '어떤 통일이냐' 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민주적 가치' 로 구분된 하위집단들이 어떤 통일을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관련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세대와 통일의식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낮아지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많은 조사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집단은 줄어들고, 통일을 원하지 않거나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집단이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그 논의의 초점에 '세대' , 특히 젊은 층이 있다.

젊은 층은 통일에 대한 관심이 낮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젊은 층은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고' , '이산가족에 대한 기억이 없으며' , '경제난

24) 민주주의와 통일을 연계시켜보자는 문제의식은 통일평화연구원이 통일의식조사를 시도한 2007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2007년, 2008년, 2009년 해당년도 통일의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바 있다. 김병조, "한국사회의식과 대북정책 평가의 관계분석: 통일과정에서 남남갈등 극복과 민주화 선호 집단의 기여 가능성 모색," 『한국 민주주의와 남북관계』 ,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심포지움(2007년), pp.25~52; 박명규 · 김병로 · 김병조 · 박영호 · 박정란 · 정은미, 『2008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2008); 박명규 · 김병로 · 김병조 · 박정란 · 정은미 · 이상신, 『2009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2009); 김병조, "민주화 선호 경향과 통일의식 간의 관계 분석: 통일정책에 대한 한 제언," 『통일과 평화』 , 제1집 2호 (2009), pp. 63~102. 이번 연구는 이를 5년 만에 다시 분석한 것인데, 변수명을 '민주화 선호경향' 에서 '민주적 가치' 로 바꾸었으나, 변수 조작화 방식은 과거와 동일하다.

을 겪는 북한과 통일하면 겪게 될 풍요의 상실을 두려워하는' , 한마디로 통일에 소극적인 집단으로 평가한다. 어떤 면에서 젊은 층은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통일에 대한 관심저하 현상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상의 논의는 청년세대 책임론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과연 그런가? 세대별 통일의식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어쩌면 장년, 노년층이 통일논의가 활성화되지 못한 책임을 청년층에 전가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설령 청년층이 통일에 소극적이라고 분석된다 할지라도 그 책임을 청년층에 전가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다. 청년층이 통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통일과 관련된 새로운 전망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 비전이 바로 통일대박론의 내용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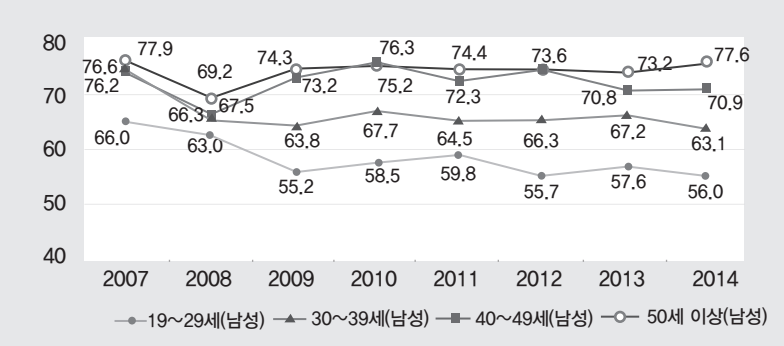
세대란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문화권에서 태어나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며, 그에 따라 유사한 의식과 행위양식을 지니는 동시기 출생 집단(birth cohort)을 의미한다. 또한 세대는 같은 생애주기(life cycle)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집단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세대를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으로 구분하되, 성별로 생애주기에 따라 생활양식에 차이가 난다는 점을 감안하여, 성별로 구분하여 세대별 통일의식의 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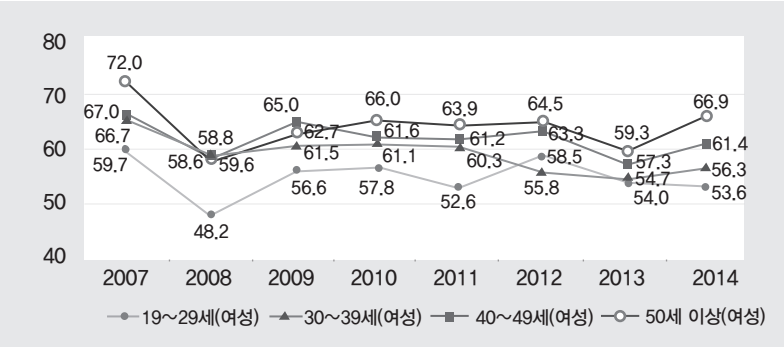
1)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대박론

〈그림 2-7-1〉은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을 점수화하여 세대별, 성별로 제시한 것이다. 남녀 모두 나이가 많아질수록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진다는 것이 전반적인 경향이다. 이는 젊은 세대가 통일에 대한 열의가 낮다는 기존 논의를 뒷받침한다.

〈그림 2-7-1〉 세대별 통일의 필요성(2007~2014)





비고: 응답별로 '매우 필요하다=100, 약간 필요하다=75, 반반/그저 그렇다=50, 별로 필요하지 않다=25, 전혀 필요하지 않다=0' 과 같이 점수를 부여하고 평균값을 구한 것임.

그러나 남성과 여성 간에 세대별 통일 필요성 인식에 대한 변화 양상이 다르다. 남성은 '20대<30대<40대≒50대' 라는 경향성을 보이며, 20대는 50점대, 30대는 60점 중반, 40대와 50대 이상은 70점대 점수를 나타내고 있어 세대별로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차이가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나이가 많아질수록 통일에 필요성

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기는 하지만 세대별 차이가 명확하지 않다. 20대와 30대는 50점대, 40대와 50대 이상은 60점대 점수를 보인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을 비교하면 20대는 비슷하지만, 30대 이상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

청년층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도가 낮다는 기존 논의는 틀리지 않았다. 그런데, 세대별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 증가 정도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차이가 남을 주목해야 한다. 남성은 세대가 높아지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한 단계 정도 많아지고 있지만, 여성은 세대가 높아진다고 해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크게 높아지지 않는다. 그 결과 20대의 경우는 남녀 간에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유사하지만, 30대 이상이 되면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의견에서 남성과 여성 간에 차이가 나타난다. 30대 이상에서는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낮게 나온다. 더구나 〈그림 2-7-1〉에서 최근 추세를 보면 여성 30대의 경우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져 20대와 유사해지고 있다. 따라서 통일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려면, 젊은 층이 통일 필요성을 인식해야 하겠지만, 여성의 경우 세대에 관계없이 통일 필요성을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통일 필요성에 대한 추세를 볼 때, 금년도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은 남성의 경우 50대 이상, 여성의 경우 30대 이상이 통일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데 조금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역으로 40대 이하의 남성과 20대 이하 젊은 여성들에게는 그다지 매력적인 제안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표 2-7-1〉은 통일대박론에 대한 성별 세대별 공감정도를 제시한

것이다. 남성과 여성 모두 세대가 높아질수록 공감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20대, 30대의 경우 공감한다는 의견보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다. 통일대박론이 젊은 세대에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못했다는 점이다.

〈표 2-7-1〉 통일대박론에 대한 성별 세대별 공감정도(2014)

(단위: %)

구분	남성			여성		
	공감한다	보통이다	공감하지 않는다	공감한다	보통이다	공감하지 않는다
19~29세	21.7	51.2	27.1	22.3	43.6	34.2
30~39세	25.9	41.5	32.6	22.3	41.5	34.1
40~49세	34.0	37.3	28.7	33.1	35.1	31.8
50세 이상	45.1	34.0	21.0	36.7	40.3	23.0
	chi square=25.8, p〈0.001			chi square=15.1, p〈0.05		

비고: '공감한다=매우 공감한다+약간 공감한다', '공감하지 않는다=별로 공감하지 않는다+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를 합하여 계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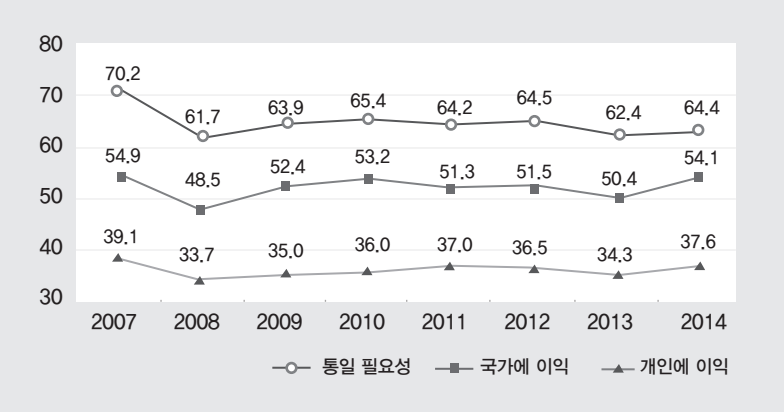
50대 이상 남성의 경우 통일대박론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들 집단이 평소 통일 필요성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세대이다. 따라서 통일대박론이 통일을 위한 새로운 공감대 형성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의지를 천명한 통일대박론이 한국사회 저변에 통일논의를 획기적으로 확산시키지는 못했다는 것이 현 단계 평가이다.

앞에서 국민 전체적으로, 그리고 세대별로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을 살펴보았다. 이는 통일이 국가, 개인에 어느 정도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하는 통일이익에 대한 인식변화가 크게

변화하지 않은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그림 2-7-2〉 참조)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60점대 초반이라면, 통일이 국가(남한)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평균 50점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으며, 통일이 개인(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30점대 중반 점수가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통일 필요성, 통일의 국가이익, 통일의 개인이익에 대한 평가는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13년에 비하면 2014년 통일이 국가이익이나 개인이익이 된다는 의견이 다소 많아졌다. 통일대박론의 실제 효과가 일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7-2〉 통일 필요성과 통일이익(2007~2014)



비고: 통일이익은 응답별로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100,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66.6,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33.3,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0' 과 같이 점수를 부여하고 평균값을 구한 것임.

〈표 2-7-2〉는 2013년, 2014년, 통일이 국가 및 개인에 어느 정도 이익이 되느냐하는 것을 점수화한 것이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통일과

국가이익 간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에서 남성의 경우 큰 차이는 아니지만, 20대와 50대 이상이 유사하고, 30대와 40대가 유사하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는 20대, 30대, 40대는 유사한데, 50대 이상이 통일이 국가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약간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각 세대별로 남성이 여성보다 통일이 국가이익에 된다는 면에 약간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그리고 이는 2013년, 2014년이 같은 유형이다. 통일과 국가이익과의 관련성에 대한 평가는 세대별로 일정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표 2-7-2〉 성별·세대별 통일이익의 변화(2013, 2014)

구분	국가이익				개인이익			
	남성 (2013)	남성 (2014)	여성 (2013)	여성 (2014)	남성 (2013)	남성 (2014)	여성 (2013)	여성 (2014)
19~29세	52.6	53.5	47.9	49.5	38.9	36.9	32.7	34.4
30~39세	57.4	57.6	47.2	49.1	36.6	40.5	32.1	33.3
40~49세	55.4	58.4	47.5	49.3	37.8	39.0	35.1	34.4
50세 이상	52.2	53.4	43.9	45.7	34.0	43.4	28.4	36.6

비고: 통일이익은 응답별로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100,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66.6, 별로 이익이되지 않을 것이다=33.3,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0' 과 같이 점수를 부여하고 평균값을 구한 것임.

그런데 개인 이익 면에서는 양상이 다소 다르다. 남성의 경우 2013년도에는 50세 이상이 통일과 개인이익 간의 관계를 낮게 인식하였으나, 2014년 역으로 50대 이상이 통일과 개인이익 간의 관계를 높게 평가하고, 20대가 가장 낮게 평가한다. 통일대박론에 남성 20대 층에서 낮은 공감을 나타낸 것과 같은 양상이다. 여성의 경우는 2013년도에는

50대 이상이 통일과 개인이익 간의 관계를 낮게 평가 했으나, 2014년도에 50대 이상이 통일과 개인이익 간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변했다. 남성과 여성 모두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통일이 개인이익이 된다는 의견이 2013년도에 비해 2014년 많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박' 이라는 이해관계와 관련된 일상용어를 사용함으로서 50대 이상에게는 통일을 개인의 이익 관점에서 살펴보는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전체 세대에 걸쳐서 나타나기보다는 50세 이상 연령층에 국한되어 나타났다. 젊은 층에게는 통일대박론이 개인이익을 증진시키는 담론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통일에 대한 견해, 통일 이유 및 통일 이후 사회문제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통일대박론을 구체화하여야 하나? 〈표 2-7-3〉에서 보듯이 국민들 중에 '통일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다' 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은 20대에서 가장 높다. 젊은 세대 통일무관심론의 근거가 된다. 그러나 20대의 경우도 통일에 관심이 없다는 응답은 20대 남성이 9.5%, 20대 여성이 11.5%로 아직까지는 소수이다. 그리고 통일에 대해 무관심을 표명하는 20대 남성의 비율은 여성 30대 이상에서 통일무관심을 표명하는 비율과 거의 유사하다. 통일에 대한 관심도는 세대차이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도 성별 차이가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통일대박론을 실현하려면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는 층이 통일에 관

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통일무관심층은 소수이고 젊은 세대도 통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나치게 통일무관심층에 정책역점을 두면 통일에 관심이 있는 다수의 존재를 망각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표 2-7-3〉 성별·세대별 통일에 대한 견해(2007~2014)

(단위: %)

구분	국가이익				개인이익			
	가능한 빨리통일	여건 성숙	현재 만족	통일 관심무	가능한 빨리통일	여건 성숙	현재 만족	통일 관심무
19~29세	9.4	61.2	19.8	9.5	4.8	62.0	21.6	11.5
30~39세	10.1	68.0	14.6	7.3	5.2	67.4	18.6	8.8
40~49세	13.3	71.3	10.9	4.5	7.3	66.1	19.0	7.5
50세 이상	18.2	66.1	11.3	4.4	11.7	62.9	17.5	8.0
	chi square=134.1, p〈0.001				chi square=69.5, p〈0.001			

한편, 통일무관심층과 반대의 경우, 즉 통일을 무조건 지지하는 집단('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의 비중도 그리 많지 않다. 세부적으로는 남성 50대 이상에서 가능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가장 많지만, 20%에 못 미친다. 이들에게는 현재도 통일이 대박이다. 통일지지자로서 통일정책을 추진하는데 이들이 후원자인 것은 맞지만, 통일을 무조건 지지한다는 점에서 향후 통일대박론의 포섭대상은 아니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에 적극 나서도록 하기 위한 통일대박론의 정책 개발 주요 대상은 각 세대별로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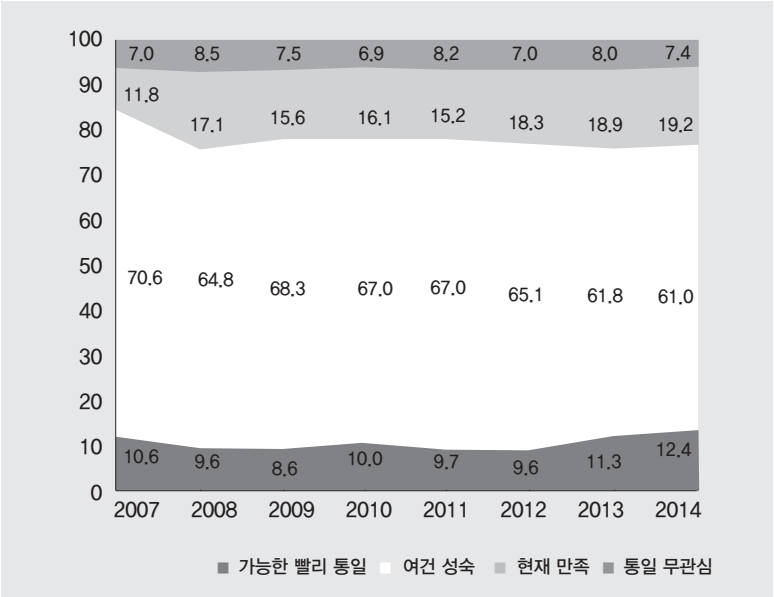
려야한다' 는 집단과 '현재대로가 좋다' 는 두 집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성이나 세대와 관계없이 '여건 성숙' 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60~70% 수준이다. 각 세대에서 다수를 이룬다. 이들이 요구하는 '여건' 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여건을 충족시켜 나갈 때, 통일대박론에 공감하는 층이 확대될 것이다.

또한, '현재대로가 좋다' 는 집단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들은 통일이 현재의 상황을 크게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면, 통일무관심층으로 변하거나 심하면 '반통일' 을 주장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세대별로는 나이가 젊은 층일수록 현재에 만족한다는 비율이 높아지고,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 현재에 만족한다는 비율이 높다. 젊은 세대에서 현재에 만족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젊은 세대가 북한과의 통일을 싫어하거나 두려워한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비율로 볼 때, 남성과 여성의 차이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해야 한다.

한편, 추세 면에서 〈그림 2-7-3〉에서 나타나듯 현재에 만족하는 집단이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다. 반면 '여건 성숙' 을 언급하는 비율은 줄어들고 있다. 가능한 빨리 통일을 원하는 집단이나 통일에 관심이 없다는 집단의 규모가 크게 변하지 않는데 반하여 통일조건으로 '여건 성숙' 을 언급하는 사람의 비중은 줄어들고, '현재에 만족' 하는 사람의 비중이 늘고 있다. 이는 통일대박론이 통일이 가져다줄 이득을 확대하고, 반대로 통일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문제 악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2-7-3〉 통일에 대한 견해(2007~2014)

(단위: %)



먼저 통일이 가져다줄 이익 측면에 대해 살펴보자. 〈표 2-7-4〉는 통일되어야 할 가장 큰 이유에 대한 의견을 성별 세대별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세대별로 가장 중요한 통일 이유로 선택한 내용에 차이가 있다.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통일해야 할 가장 큰 이유로 '같은 민족이니까' 를 선택한 비율이 높다. 남녀 공히 50대 이상에서 통일해야할 가장 큰 이유로 같은 민족을 선택한 비율이 50%를 넘는다. 그러나 그 비율은 세대가 낮아질수록 줄어서 20대의 경우는 40% 미만으로 줄어든다. '남북 간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서' 라는 이유와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라는 의견은 젊은 세대일수

록 높아진다. 통일 이유로 '전쟁위협소멸' 을 선택한 비율은 남녀별로 비슷하다. '전쟁' 이란 현재의 분단 상태, 남북대립이 갖는 가장 큰 부정적 효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대립이 사라지면, 전쟁위협소멸이라는 부정적 효과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통일대박론을 확대시키려면 부정적 효과의 소실이 아니라 긍정적 효과의 발견이 필요하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통일이 되어야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된다' 라는 주장이다.

통일이 되면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될 것이라는 주장은 남성 2~30대에 강한 인상을 주고 있다. 또한 남성과 여성 간에 의견차이가 존재하는 데, 여성의 경우 통일 이유로 이산가족 고통을 해결해주기 위해서라는 '인도적 이익' 을 선택한 비율이 높고, 남성의 경우 '선진국이 되려고' 라는 '경제적 이익' 을 선택한 경우가 많다. 이점을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면 '이산가족 문제 해결' 과 '선진국이 되는 것' 을 통일을 과거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관점과 통일을 현재 및 미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관점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통일대박론' 이란 기본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의미하고 미래지향적인 용어이다. 그런 점에서 향후 통일로 인한 이익이 구체화되면 통일대박론이 2~30대 남성층에 매력적인 통일 비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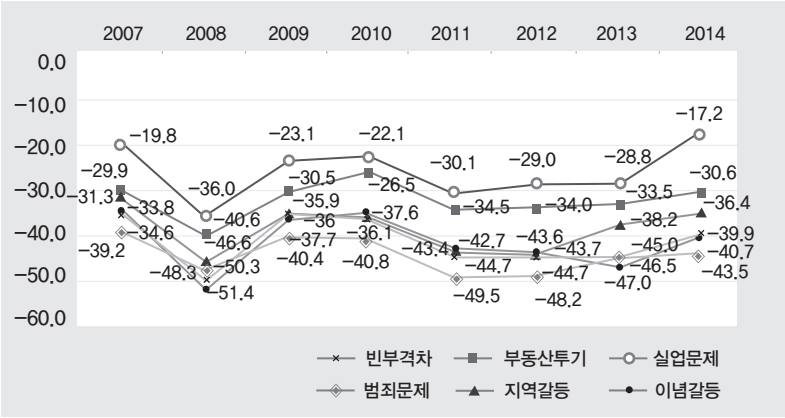
〈표 2-7-4〉 성별·세대별 통일이유에 대한 견해(2014)

(단위: %)

구분	남성						여성					
	같은 민족	이산가족 고통 해결	전쟁 위협 소멸	북한 주민 잘살게	선진국 되려고	기타	같은 민족	이산가족 고통 해결	전쟁 위협 소멸	북한 주민 잘살게	선진국 되려고	기타
19~29세	35.3	7.6	28.8	3.1	24.3	0.8	39.2	10.9	28.0	3.1	18.6	0.9
30~39세	43.9	5.8	23.5	2.7	23.3	0.8	44.1	10.0	24.0	3.5	16.6	0.7
40~49세	46.7	6.5	23.1	4.6	18.6	0.5	46.3	8.8	23.3	4.7	16.3	0.5
50세 이상	55.2	5.5	20.8	4.7	12.9	0.8	54.1	9.8	21.1	4.3	10.4	0.3
	chi square=19.9 p=n.s.						chi square=6.6, p=n.s.					

이어서 통일이 가져다줄 불이익에 대해 살펴보자. 통일에 신중하거나 현재에 만족하는 경우 통일 후 사회문제를 두려워한다. 〈그림 2-7-4〉는 여러 사회문제가 통일이 되면 통일 전과 비교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조사연도별로 제시한 것이다. 점수가 모두 '–' 이다. 이는 통일 후 사회문제가 개선되기보다 악화된다고 예상하고 있음을 말한다. 연도별 등락이 있지만, 사회문제별로 악화될 것으로 보는 순위는 매년 거의 유사하다. 빈부격차, 부동산투기, 실업문제, 범죄문제, 지역갈등, 이념갈등 중에서 '범죄문제, 이념갈등, 빈부격차, 지역갈등' 은 유사한 정도로 심하게 악화된다고 전망한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전망하면서도 부동산투기와 실업문제는 여타 사회문제보다 덜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상과 같은 사회문제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현재에 만족하거나 통일을 주저하게 하는 한 요인이 됨에 틀림없다.

〈그림 2-7-4〉 통일 후 사회문제에 대한 전망(2007~2014)



비고: 응답별로 '크게 개선=100, 약간 필요하다=50, 차이 없음=0, 약간 악화=-50, 크게 악화=-100'과 같이 점수를 부여하고 평균값을 구한 것임.

그렇다면 이들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대비책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 글의 범위를 넘어선다. 그러나 각 사회문제에 대한 전망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은 이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하다는 국민들의 인식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2014년도의 경우 제시된 여러 사회문제에 대한 전망에서 2013년에 비해 악화정도에 대한 우려가 다소 줄어들었다는 특징이 보인다. 통일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통일대박론의 간접적 효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진정 통일을 대박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각 사회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실질적으로 감소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2014년도 조사에서 사회문제에 대한 전망을 성별 세대별로 구분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예외가 존재하지만, 대체

로 성별 차이는 크지 않고 모든 사회문제에 대해 나이 많은 세대보다 젊은 세대가 악화를 더욱 우려하는 특징이 나타난다. 그리고 사회문제 중에서는 세대에 관계없이 범죄문제가 가장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또한 모든 세대에서 실업문제와 부동산 투기 악화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가 사회문제 악화를 기성세대보다 우려한다는 점을 주목했으면 한다. 통일대박론은 제반 사회문제가 악화되리라는 젊은 세대의 우려를 불식하는 측면에서 논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사회문제 악화를 외면하면, 통일대박론은 통일의 긍정적인 측면만 강조한 비현실적인 논의라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 이익추구보다 손실회피를 추구하는 성향에 비추어 젊은 세대는 통일대박론에 대비되는 통일쪽박론에 쉽게 기울 수가 있다. 통일대박론은 통일 이후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사회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보완해야 제대로 된 통일론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표 2-7-5〉 성별·세대별 통일이후 사회문제에 대한 견해(2014)

구분	남성						여성					
	빈부 격차	부동산 투기	실업 문제	범죄 문제	지역 갈등	이념 갈등	빈부 격차	부동산 투기	실업 문제	범죄 문제	지역 갈등	이념 갈등
19~29세	-43.1	-37.7	-15.8	-48.1	-44.2	-44.2	-41.5	-33.9	-26.7	-51.7	-43.6	-47.9
30~39세	-30.0	-25.6	-10.7	-40.7	-40.0	-42.2	-41.5	-39.2	-25.0	-44.6	-50.4	-51.2
40~49세	-36.9	-33.9	-15.4	-43.5	-37.9	-37.6	-32.1	-29.5	-14.9	-39.7	-37.1	-39.1
50세 이상	-33.2	-24.6	-15.2	-44.2	-33.2	-32.5	-35.9	-25.5	-16.9	-38.8	-38.0	-3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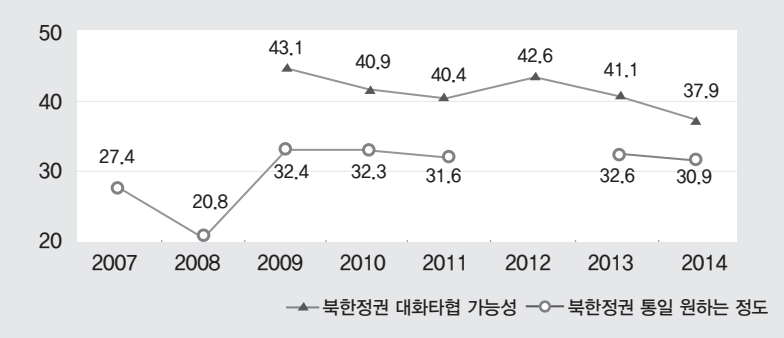
비고: 응답별로 '크게 개선=100, 약간 필요하다=50, 차이 없음=0, 약간 악화=-50, 크게 악화=-100'과 같이 점수를 부여하고 평균값을 구한 것임.

3) 북한정권에 대한 인식, 대북정책 효과 그리고 대북정책 만족도

북한정권 및 북한주민은 한국정부 통일정책의 또 다른 주요 대상자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북한정권에 대한 인식 및 대북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가 정부의 통일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국민들은 통일 논의 상대자로서 북한정권을 어떻게 평가하고, 대북정책의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리고 국민들은 정부대북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가? 이상의 쟁점과 관련해서 전체 및 세대별 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2-7-5〉는 북한정권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2문항('통일을 함께 논의할 상대로 북한정권이 어느 정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태라고 생각하는지' , '북한정권이 얼마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0~100점 사이로 평가한 점수를 조사년도 별로 제시한 것이다.

〈그림 2-7-5〉 북한정권에 대한 평가(2007~2014)



비고: 응답별로 '매우 가능하다, 매우 원한다=100, 어느 정도 가능하다, 다소 원한다=66.6, 별로 가능하지 않다, 별로 원하지 않는다=33.3, 전혀 가능하지 않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0' 과 같이 점수를 부여하고 평균값을 구한 것임.

그림을 통해 국민들은 북한정권이 통일을 원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30점 정도로, 대화타협이 가능한 상대인지에 대해서는 40점 정도로 평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북한정권에 대한 평가가 크게 변하지는 않지만 최근 들어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확인된다. 국민들이 북한정권이 통일을 별로 원하지 않는 정권이며, 그 보다는 다소 높은 평가이나 대화 타협도 쉽지 않은 상대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성별, 세대별로 구분해도 북한정권에 대한 평가는 다르지 않다(〈표 2-7-6〉). 성이나 세대에 관계없이 국민들은 한국정부가 북한정권을 상대하여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일정 부분 이해하고 있다.

〈표 2-7-6〉 성별·세대별 북한정권에 대한 평가(2014)

구분	북한정권 통일 원하는 정도		북한정권 대화타협 가능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19~29세	31.0	31.3	38.9	34.7
30~39세	29.6	29.7	38.7	37.4
40~49세	30.9	29.6	39.6	37.7
50세 이상	32.4	31.9	37.8	3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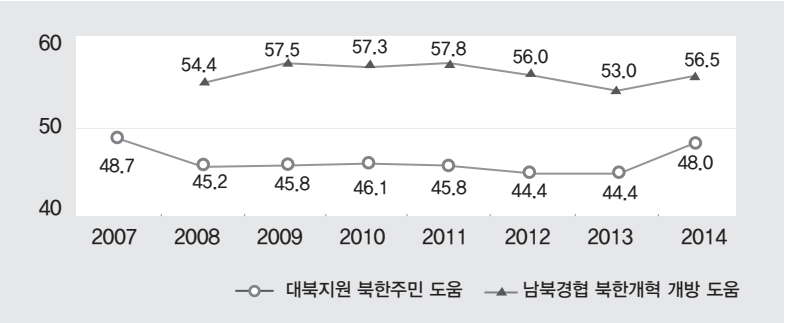
비고: 응답별로 '매우 가능하다, 매우 원한다=100, 어느 정도 가능하다, 다소 원한다=66.6, 별로 가능하지 않다, 별로 원하지 않는다=33.3, 전혀 가능하지 않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0' 과 같이 점수를 부여하고 평균값을 구한 것임.

그렇다면 대북정책의 효과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대북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도 2문항('대북지원이 북한 주민의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 개방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0~100점 사이로 평가한 점수를 조사년도 별로 제시하였다(〈그림 2-7-6〉). 대북지원이 북한주민 생활에 도

움을 주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40점 중반 점수로 평가하고, 남북경협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50점대 중반점수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에는 대북지원이 북한주민 생활에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평가나 남북경협이 북한개혁개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3년에는 해당 평가가 잠시 낮아졌다가, 2014년 조사에서는 '남북경협이 북한개혁개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53.0→56.5)'와 '대북지원이 북한주민에 도움을 준다는 평가(44.4→48.0)' 모두 조금 높아졌다. 지난 1년 동안 대북지원이나 남북경협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약간의 상승이 이루어진 것을 통일대박론의 효과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변화를 통일대박론의 효과로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2012년 이전 과거 조사에서도 2014년 정도의 평가가 있었다는 점에서 2014년 조사에서 대북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가 개선된 것은 2013년 남북관계가 거의 없었던 것에 대한 반작용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림 2-7-6〉 대북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



비고: 응답별로 '매우 도움이 된다=100, 약간 도움이 된다=66.6,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33.3,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0'과 같이 점수를 부여하고 평균값을 구한 것임.

최근의 변화를 보다 상세히 살펴보자. 2013년, 2014년 2개년에 대해 대북정책의 효과에 대한 조사결과를 성별 세대별로 제시한 것이 〈표 2-7-7〉이다. 예외적으로 남성 40대의 경우 대북지원이 북한주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50.9→47.9' 로 다소 줄었고, 여성 20대의 경우 남북경협이 북한개혁개방에 도움을 준다는 의견이 '55.7→53.1' 로 다소 줄었지만, 대체로 세대나 성에 관계없이 지난 1년 사이에 대북지원 및 남북경협 효과에 대한 평가가 조금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것이 확인된다.

〈표 2-7-7〉 성별·세대별 대북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2013, 2014)

구분	대북 지원 북한주민 도움				남북경협 북한개혁개방 도움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3	2014	2013	2014	2013	2014	2013	2014
19~29세	40.4	45.9	42.8	47.7	52.6	54.8	55.7	53.1
30~39세	43.9	48.4	48.0	48.4	55.5	56.3	53.4	56.1
40~49세	50.9	47.9	41.7	47.4	51.6	58.8	52.0	57.1
50세 이상	45.9	50.6	40.9	47.4	49.9	59.8	54.4	54.8

비고: 응답별로 '매우 도움이 된다=100, 약간 도움이 된다=66.6,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33.3,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0' 과 같이 점수를 부여하고 평균값을 구한 것임.

하지만 대북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에서 보다 중요한 변화는 세대별 차이가 없는 방향으로 변했다는 점이다. 북한정권에 대한 평가나 대북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세대별 차이가 거의 없다. 청년세대, 장년세대, 노년세대가 북한정권에 대해 유사한 평가를 하고 있으므로, 대북정책 추진에 대해서 세대별 갈등은 크지 않으리라 추측된다.

그렇다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하며, 대통령 직무

만족도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림 2-7-7〉은 대북정책 및 대통령 직무에 대한 만족도를 100점 만점으로 계산하여 제시한 것이다. 국민들의 대북정책 만족도는 2007~2012년까지 40점대 초반에 머물다가 박근혜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 50점대로 높아졌다. 이명박 대통령 시기와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 대북정책이나 남북관계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정권교체 효과 내지 박근혜 대통령 효과로 보인다. 대통령 직무에 대한 만족도 역시 2013년 급속히 높아졌다는 점이 이 논의를 방증한다. 하지만 2014년에는 2013년에 비해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지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무만족도도 떨어졌다. 대북정책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충족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대북정책 만족도가 향후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남북관계 및 통일과 관련되어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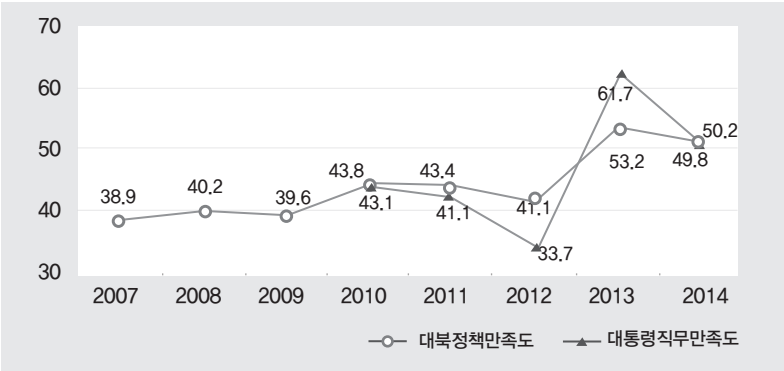
성별 세대별로 구분하여 지난 3년간 대북정책 및 대통령 직무수행 만족도 변화를 제시한 것이 〈표 2-7-8〉이다. 2012년과 2013년을 비교하면 성별 또는 세대에 관계없이 대북정책 만족도에 정권교체 효과가 상당히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각 세대에서 대북정책 만족도가 높아졌다. 그리고 2014년 2013년에 비해 대북정책 만족도가 하락했는데, 이 역시 모든 세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세부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50대 이상을 제외하면, 20대, 30대, 40대의 대북정책 만족도가 매우 유사하다.

대통령 직무만족도에도 유사한 형태의 변화가 나타난다. 차이는 변화폭에서만 나타난다. 모든 세대에서 대북정책 만족도의 변화폭보다

대통령 직무만족도의 변화폭이 크다. 대통령 직무만족도의 평가범위가 대북정책 만족도보다 넓기는 하지만 대북정책 만족도 하락이 대통령 직무만족도 하락의 부분적인 원인임은 틀림이 없다. 그리고 전 세대에서 대북정책만족도가 하락했다.

대북정책 만족도 측면에서 세대별 차이보다 세대별 유사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려면 특정 세대에 초점을 맞춘 대북정책보다 전체 국민의 공동 관심 영역에서 대북정책 성과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2-7-7〉 대북정책 및 대통령직무 만족도



비고: 응답별로 '매우 만족, 매우 잘하고 있다=100, 다소 만족, 대체로 잘하고 있다=66.6, 다소 불만족,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33.3, 매우 불만족, 매우 잘못하고 있다=0' 과 같이 점수를 부여하고 평균값을 구한 것임.

〈표 2-7-8〉 성별·세대별 대북정책 및 대통령직무 만족도(2012~2014)

구분	대북정책 만족도						대통령 직무만족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2012	2013	2014
19~29세	40.9	49.8	48.5	36.8	50.4	47.5	30.0	57.5	43.4	30.9	57.7	44.4
30~39세	41.2	50.5	46.6	40.3	50.7	49.7	29.4	56.5	42.0	32.8	58.2	47.1
40~49세	39.2	53.1	48.1	40.8	52.8	47.6	30.0	62.3	45.1	35.7	64.6	51.4
50세 이상	45.2	58.7	53.5	42.6	56.4	56.3	37.4	67.3	56.0	40.0	65.4	61.0

비고: 응답별로 '매우 만족, 매우 잘하고 있다=100, 다소 만족, 대체로 잘하고 있다=66.6, 다소 불만족,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33.3, 매우 불만족, 매우 잘못하고 있다=0' 과 같이 점수를 부여하고 평균값을 구한 것임.

3. 민주적 가치와 통일의식

통일을 이루려면 통일을 추진하는 주도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통일대박론이 큰 동력을 갖지 못하는 것은 한국의 시민사회에 통일주도세력이 형성되지 못한 때문이 아닐까? 그렇다면 어디에서 통일주도세력을 찾을 것인가? 이 글은 민주적 가치를 내면화한 집단이 통일을 주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토하고자 한다.[25] 왜 그럼 민주적 가치인가? 두 가지 이유를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 현대사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국민

25) 통일과 민주주의를 연계한 기존 논의 정리는 박명규 외, 『2009 통일의식조사』 및 김병조, "민주화 선호 경향과 통일의식 간의 관계 분석" 을 참조할 수 있다.

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통일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반 한국 정부는 7.7선언(1988),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1989), 민족공동체 통일방안(1994) 등 통일과 관련된 적극적인 선언과 방안을 마련했는데, 이를 뒷받침한 것이 민주화를 이룬 시민사회세력이다. 즉, 당시 통일논의가 활성화된 것은 냉전체제 해체와 독일통일이라는 외적 요인의 영향도 컸지만, 내적으로도 민주화를 이룬 시민사회가 다음 목표로 민족통일을 설정했기 때이기도 하다. 둘째, 이제는 통일 자체보다 '어떠한 통일이냐' 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민족' 통일만으로도 통일에 가치를 부여했다면, 지금은 민주주의가 결여된 통일은 논의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1) 민주적 가치 내면화 집단의 추출과 기본특성

민주적 가치를 내면화한 집단을 추출하기 위해, 한국 현대사에 있었던 주요 사건이 한국의 사회발전에 어느 정도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를 활용하였다. 〈표 2-7-9〉는 조사연도별로 각 사건에 대한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제시한 것이다. 2012년 내지 2013년 사이에 각 사건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변했다는 특징이 있다.[26)]

26) 2009년 분석에서는 한국 현대사 주요사건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평가가 크게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김병조, "민주화 선호 경향과 통일의식 간의 관계 분석," p.72). 그런데, 2012년 조사부터 현대사 주요 사건에 대한 평가가 낮은 방향으로 변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표 2-7-9〉 한국 현대사 주요 사건에 대한 평가

(평균, (표준편차))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4.19	.31 (.50)	32 (.51)	.32 (.52)	.37 (.51)	.28 (.54)	.31 (.54)	.18 (.57)	.18 (.58)
5.16	.07 (.55)	.15 (.57)	.08 (.58)	.10 (.58)	.11 (.57)	.00 (.59)	−.06 (.62)	−.08 (.61)
10월 유신	−.09 (.56)	−.00 (.58)	−.06 (.56)	−.09 (.58)	−.06 (.57)	−.20 (.58)	−.20 (.59)	−.21 (.59)
광주민주화운동	.28 (.59)	.25 (.60)	.28 (.60)	.31 (.60)	.24 (.61)	.24 (.62)	.13 (.63)	.11 (.65)
6월 항쟁	.28 (.53)	.22 (.52)	.25 (.53)	.29 (.53)	.23 (.53)	.24 (.54)	.13 (.58)	.09 (.58)

비고: 응답별로 '매우 긍정적=1.0, 대체로 긍정적=0.5, 대체로 부정적=−0.5, 매우 부정적=−1.0, 잘 모름=0' 과 같이 점수를 부여하고 계산한 것임.

이는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한국 현대사 주요 사건에 대한 논란, 특히 박정희 전대통령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울러 고등학교 '현대사' 교과서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통상 '민주화' 운동이라고 평가되었던, 4.19, 광주민주화 운동, 6월 항쟁이나 반대로 비민주적 사건으로 평가되었던 5.16, 10월 유신 모두 부정적인 평가가 많아졌다.

모든 사건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많아진 이유는 질문이 각 사건이 민주화에 기여했느냐와 같은 명확한 평가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 이라는 매우 포괄적인 평가를 요구하는 질문이었다는 점이다. 만일 응답자가 각 사건을 단순하게 '민주-반민주' 잣대로 평가했다면, 민주화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평가가 낮아졌다하더라도, 민주화

와 관련이 적은 사건의 경우에는 평가 점수가 변동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 대한 평가가 낮아진 것은 각 사건을 평가할 때, 민주화와 구분되는 다른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사연도별로 각 사건을 평가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요인분석을 해본 결과 모든 년도에서 한 개가 아닌 2개의 요인(Eigen Value 1이상)이 추출되었다.

이에 8년(2007년~2014년) 동안의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요인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를 〈표 2-7-10〉 및 〈그림 2-7-8〉로 제시하였다. 성분 1은 6월 항쟁, 광주민주화운동, 4.19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성분 2는 5.16과 10월 유신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성분 1이 '민주적 가치' 와 관계가 깊다. 이에 응답자별로 성분 1 값을 '민주적 가치' 라는 변수의 변수값으로 상정하였다.[27)]

〈표 2-7-10〉 2007~2014년 성분행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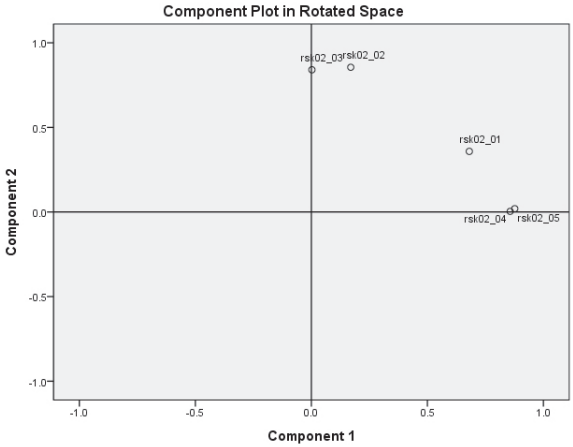
구분	성분행렬a		회전된 성분행렬b	
	성분		성분	
	1	2	1	2
4.19	.768	-.047	.681	.358
5.16	.589	.643	.170	.855
10월 유신	.438	.717	.002	.840
광주민주화운동	.734	-.442	.856	.003
6월 항쟁	.759	-.438	.877	.020

a 추출된 2성분

b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회전, 3반복계산에서 요인회전 수렴

27) 이전에는 성분 1에 대해 '민주화 선호경향' 이라고 명명했는데, 이 글에서는 '민주적 가치' 로 명명하였다.

〈그림 2-7-8〉 2007~2014 성분도표(베리멕스 회전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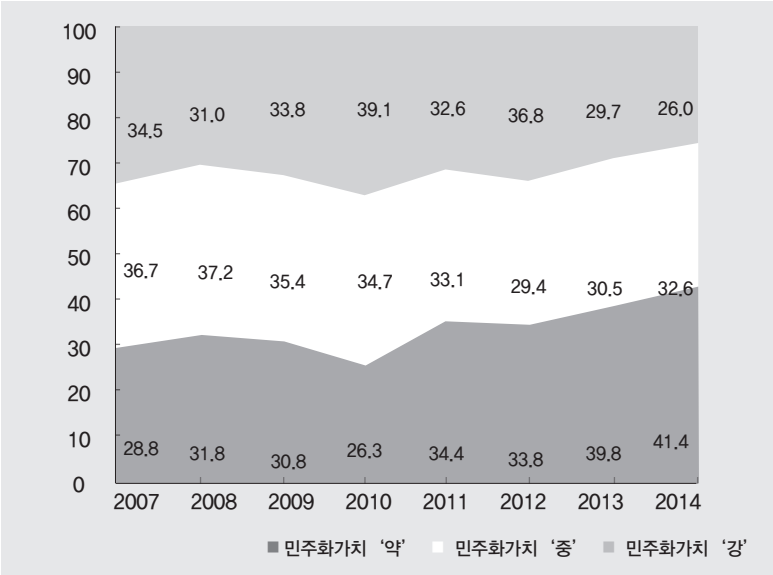
응답자별로 '민주적 가치(평균=0, 표준편차=1)' 는 차이가 나는데, 최소값이 −2.77이고, 최대값이 1.87이었다. 응답자를 민주적 가치별로 구분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상대점수를 기준으로 상위점수 몇%를 민주적 가치를 강하게 내면화한 집단으로 규정할 수도 있고, 절대점수를 기준으로 민주적 가치를 강하게 내면화한 구분해 낼 수도 있다. 여기서는 절대점수를 기준으로 구분하기로 하였다. 민주주의 가치 자체가 현시대에서는 보편가치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몇 점을 기준으로 구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예컨대, 1.5점 이상, 1점 이상, 0.5점 이상, 0점 이상 등 여러 기준이 가능하다. 민주적 가치를 강하게 내면화한 사람의 비율이 점수 1.5이상으로 하면 5.5%, 1.0이상으로 하면 15.3%, 0.5이상으로 하면 32.9%, 0이상으로 하면 54.8%가 된다. 조사대상자가 일반국민이고, 한국인의 상당정도가 민주적 가치를 내면화하고 있었기에 민주화가 가능했다고 생각해서, 0.5이상 값을 가진 응답자를 민주적 가치를 강하게 내

면화한 사람(민주적 가치 '강')으로 구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응답자 중 −0.5~0.5사이 응답자를 '민주적 가치 '중' , −0.5 이하 응답자를 '민주적 가치 약' 으로 구분하였다. 그렇게 해보니 2007~2014년간 전체 응답자가 민주적 가치 면에서 '약' (33.4%), '중' (33.7%), '강' (32.9%)으로 구분되었다.

〈그림 2-7-9〉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년도별 민주적 가치에 따른 구성비를 제시한 것이다. 2010년도에는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이 39.1%로 가장 많았으나, 2014년은 26.0%으로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반대로 민주적 가치가 약한 집단은 2010년 26.3%에서 2014년 41.4%로 증가하였다. 최근 들어 민주적 가치를 강하게 내면화한 집단 비중이 줄어들었음이 나타난다.

〈그림 2-7-9〉 민주적 가치 '약' , '중' , '강' 분포의 변화(2007~2014)

(단위: %)



그렇다면 이상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된 민주적 가치 정도별로 구분되는 세 집단은 각각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민주적 가치의 강도에 따라 구분된 집단의 내부구성을 2007년~2014년 전체 및 2014년 조사로 구분해서 제시한 것이 〈표 2-7-11〉이다.

전체를 보면 성별로는 여성보다 남성 중에 민주적 가치가 강한 사람의 비중이 많다. 세대별로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40대에서 민주화 가치가 강한 사람이 많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 민주화 가치가 강한 사람이 많다. 그리고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높은 집단에 민주적 가치가 강한 사람이 많고, 정치이념 별로는 보수와 중도를 자처하는 사람보다 진보라는 사람 중에 민주화 가치가 강한 사람이 많다. 2014년도의 경우도 이상과 같은 경향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적 가치를 강하게 내면화한 집단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세대별 차이는 크게 줄어들었다는 특징을 보인다.

각 하위집단별로 민주적 가치를 내면화한 집단 비율이 다르지만, 그보다는 민주적 가치를 내면화한 집단이 특정 하위집단에 몰려있지 않다는 점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민주적 가치가 약해진 2014년의 경우에도 각 하위집단에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이 최소 20%이상 존재한다. 각 하위집단마다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이 일정 수준 이상 존재한다는 것은 민주적 가치가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만일 특정 집단이 민주주의라는 보편가치를 독점한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열망이 한국사회를 통합하기보다 분열시키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하위집단에 일정 수준 이상 민주적 가치를 강하게 갖고 있는 집단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민주적

가치가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보편가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다.

〈표 2-7-11〉 민주적 가치 내면화 수준별 특성

(단위: %)

구분	민주적 가치(2007~2014)			민주적 가치(2014)		
	강	중	약	강	중	약
전체	32.9	33.7	33.4	26.0	32.6	41.4
남성	38.6	32.3	29.2	29.1	31.5	39.4
여성	27.2	35.2	37.7	22.8	33.7	43.5
20대	32.5	34.2	33.3	25.8	34.7	39.5
30대	32.8	34.6	32.7	26.8	31.3	41.9
40대	35.7	33.7	30.6	27.0	31.9	41.1
50세 이상	30.7	32.5	36.8	24.8	32.6	42.6
중졸 이하	23.3	33.4	43.2	16.3	25.0	58.7
고졸	27.8	34.7	37.5	22.6	34.0	43.3
대학이상	39.8	32.8	27.4	30.4	32.6	37.0
200만 원 미만	30.8	32.4	36.8	24.5	30.2	45.3
200-299만 원	31.0	35.1	34.0	25.8	31.3	42.9
300-399만 원	31.5	34.4	34.1	22.2	34.5	43.3
400만 원 이상	37.5	32.2	30.3	29.7	32.1	38.1
진보	44.3	30.0	25.8	33.5	31.0	35.0
중도	28.9	35.5	35.6	24.0	33.2	43.3
보수	28.5	34.3	37.1	22.0	33.2	44.7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정치성향별 민주화 가치 분포이다. 진보는 자신을 민주주의 가치를 내면화한 집단이라고 규정하고 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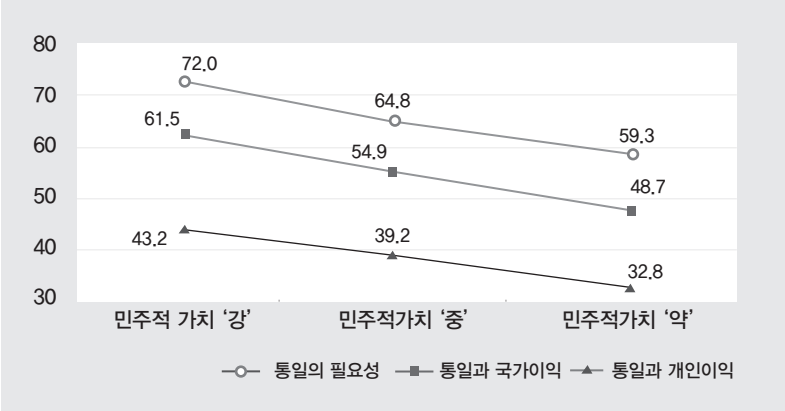
는 그렇지 못하다고 비판한다. 그렇지만, 표에 나타나듯이 진보라는 정체성을 가진 집단 내부에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은 50%가 되지 않는다. 2014년의 경우는 겨우 1/3을 넘었을 뿐이다. 또한 역으로 보수라는 정체성을 갖는 경우에도 30%정도는 민주화 가치를 강하게 내면화하고 있고, 2014년 그 비중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20%가 넘는다.

2) 민주적 가치와 통일의식 그리고 민주주의

통일이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과제라는 점에서, 2014년 조사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민주적 가치와 통일 관련 의식 간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 결과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이 통일주도세력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림 2-7-10〉은 민주적 가치별로 통일의 필요성, 통일과 국가이익, 통일과 개인이익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0~100점 사이로 점수화하여 제시한 것이다.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이 통일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통일과 국가 및 개인이익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여타 집단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이 통일주도세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림 2-7-10〉 민주적 가치와 통일의식(2014)



비고: 응답별로 '매우 필요하다=100, 약간 필요하다=75, 반반/그저그렇다=50, 별로 필요하지 않다=25, 전혀 필요하지 않다=0, ' 와 같이 점수를 부여하고 평균값을 구한 것임.

실제로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이 통일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다(〈표 2-7-12〉).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은 타 집단에 비해 통일에 관심이 없다고 표명한 비율이 매우 낮다. 또한 현재에 만족한다는 비율도 낮다. 그렇다고 통일지상주의가 특별히 많은 것도 아니다. 타 집단에 비해 통일여건이 성숙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사람이 많다. 통일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정하고 통일의 이익도 강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통일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여타 집단과 유사한 정도로 통일 후 사회문제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시기가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표 2-7-12〉 민주적 가치와 통일에 대한 견해(2014)

(단위: %)

구분	강	중	약
가능한 빨리 통일	14.1	15.1	9.3
여건 성숙	69.2	58.3	57.9
현재 만족	13.5	17.9	23.7
통일관심 무	3.2	8.7	9.1
계	100.0	100.0	100.0
	chi square=32.8, p〈0.001		

또한 〈표 2-7-13〉을 통해 민주적 가치별로 통일이유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자.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p<0.05$). 이는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이 타 집단에 비해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라는 이유를 든 비율이 조금 높고, 이산가족 고통해결을 이유로 든 비율이 낮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들 집단은 타 집단보다 미래지향적 특성이 조금 강하다. 통일이 미래 과업이라는 점에서 이 부분 역시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이 통일에 적극적일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 조사 결과이다. 그러나 민주적 가치에 관계없이 통일 이유로 '같은 민족' 을 지적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이 다른 집단과 비교해서 크게 구별되는 특별한 통일이유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 통일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과 타 집단 간에 큰 갈등은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2-7-13〉 민주적 가치와 통일 이유(2014)

(단위: %)

구분	강	중	약
같은 민족	46.2	47.7	44.0
이산가족 고통 해결	5.5	8.6	10.1
남북 간 전쟁위협 소멸	24.1	23.4	24.5
북한주민 잘 살 수 있도록	3.8	3.4	4.7
한국이 보다 선진국 되기 위해	19.8	16.4	16.1
기타	0.7	0.6	0.7
계	100.0	100.0	100.0
	chi square=18.6, p〈0.05		

그렇다면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은 통일과 민주주의 간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통일한국은 어떤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표 2-7-14〉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통일과 한국의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서, 민주적 가치별로 의견이 다르지 않다. 통일과 한국의 민주주의는 관계가 없다는 의견이 민주적 가치와 관계없이 가장 많다. 민주화 가치의 강도에 관계없이 한국의 민주주의는 남북한 관계보다 국내 상황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다수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통일과 연계시키는 경우에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완벽해야 통일이 되기보다는 통일이 한국 민주주의를 강화한다는 쪽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표 2-7-14〉 민주적 가치별 통일과 남북한 민주주의(2014)

(단위: %)

구분	강	중	약	구분	강	중	약
통일이 되어야 남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26.9	29.4	25.2	통일이 되어야 북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42.2	36.0	29.1
남한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	21.5	22.0	25.2	북한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	27.1	30.1	34.0
통일과 민주주의 관계가 없다	51.6	48.6	49.7	통일과 민주주의 관계가 없다	30.7	34.0	36.9
계	100.0	100.0	100.0	계	100.0	100.0	100.0
	chi square=3.3, p=ns				chi square=28.4, p〈0.001		

그러나 통일과 북한 민주주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민주적 가치별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 민주적 가치의 강도에 관계없이 통일과 북한 민주주의 간에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40% 미만으로 줄어든다.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에서는 통일과 북한 민주주의 간에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욱 높다.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은 통일이 되어야 북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고 응답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이는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에는 가까운 시일에 북한 내부역량으로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힘들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인 듯하다. 그리고 민주적 가치가 강한 사람이 북한 내부 민주화 가능성보다 통일에 의한 북한민주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은, 이들이 통일에 적극적일 수 있다는 앞선 논의를 보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7-15〉는 민주적 가치별로 선호하는 통일한국의 정치체제를 제시한 것이다. 통계적으로는 민주적 가치 강도에 따라 선호하는 응답이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민주적 가치가 강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남한과 북한의 체제를 절충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고, 민주적 가치가 중간정도인 경우는 남한의 현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그리고 민주적 가치가 약한 집단에서는 다른 집단에 비해 통일 이후도 남북한이 각기 다른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통일 한국이 서로 다른 체제를 각기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비율이 낮다. 이는 대부분의 국민이 현 북한 체제가 통일한국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상의 결과에서 통일 한국의 정치체제에 대해 합의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에 초점을 맞추면, 남한의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견이 다수이지만, 과반수가 되지는 못하고 있다. 민주적 가치와 관계없이 남한과 북한 체제를 절충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많다. 하지만 남북한 체제를 절충하는 데 찬성하는 사람도 내용 면에서 현재의 국민주권주의, 사유재산, 시장경제체제 중심의 현 남한 체제를 크게 벗어난 체제를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즉, 현 남한 체제가 최적은 아니고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통일 한국의 정치체제에 대해서는 민주적 가치와 큰 관계가 없고, 따라서 정치체제 선택과 관련해서는 의견차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통일한국은 남북한이 서로 다른 두 체제를 유지하기보다 한 체제로 통합하되 현 남한의 정치체제를 근간으로 해서 통일 상황에 적합하게끔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집약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7-15〉 민주적 가치와 통일한국의 정치체제(2014)

(단위: %)

구분	강	중	약
남한의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	47.1	50.3	39.2
남한과 북한의 체제를 절충	40.1	35.6	38.2
통일 이후도 남북한 두 체제 각기 유지	10.3	11.3	16.5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다	2.6	2.8	6.0
계	100.0	100.0	100.0
	chi square=22.5, p〈0.001		

3) 민주적 가치와 대북인식 및 대북정책

이어서 민주적 가치별로 북한과 관련된 인식에서 대북인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표 2-7-16〉은 민주적 가치별로 북한관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는 표이다. 민주적 가치가 강한 사람들은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타 집단에서 보다 많다. 대신 북한을 위협대상으로 보는 경우는 타 집단에 비해 적다. 북한을 북한정권과 북한주민으로 구분하지 않은 질문이어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응답하였는지 명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북한을 위협대상으로 간주하기보다 협력대상으로 보는 것이 남북한이 합의 협력해서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바람직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7-16〉 민주적 가치와 대북인식(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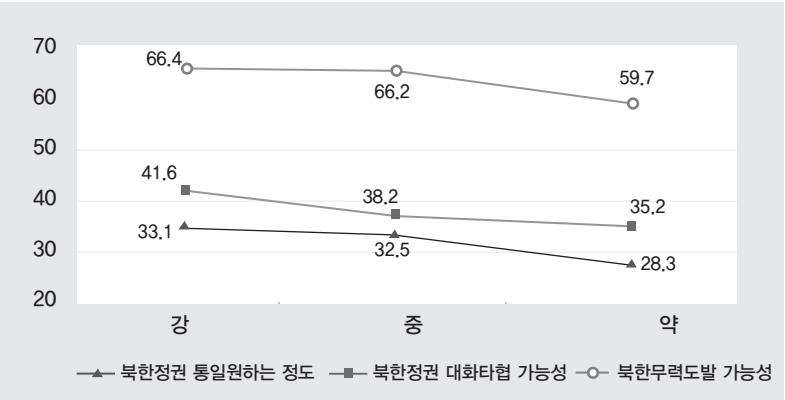
(단위:%)

북한에 대한 인식	강	중	약
지원대상	13.5	14.1	13.9
협력대상	55.4	47.3	38.6
경쟁대상	2.6	3.1	6.6
경계대상	20.2	19.7	24.9
위협대상	8.3	15.9	15.9
계	100.0	100.0	100.0
	chi square=34.6, p〈0.001		

보다 구체적으로 북한정권에 국한해서 민주적 가치별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 수 있는 조사결과를 〈그림 2-7-11〉로 정리하였다.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은 타 집단에 비해 큰 차이는 아니지만, 북한정권이 통일을 원하고 있고, 통일을 위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이 북한정권을 유화적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그렇다면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은 통일정책의 상대방으로서 북한정권의 실체를 인정하는 경향이 강한 특성이 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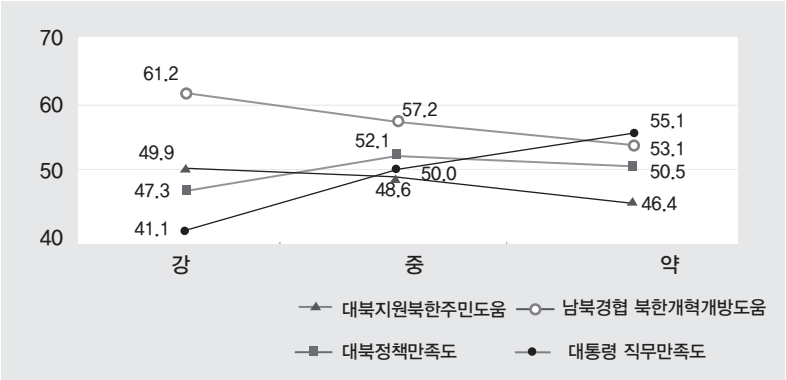
〈그림 2-7-11〉 민주적 가치와 북한정권에 대한 인식(2014)



비고: 응답별로 '매우 원한다, 매우 가능하다=100, 다소 원한다, 어느 정도 가능하다=66.6, 별로 원하지 않는다, 별로 가능하지 않다=33.3, 전혀 원하지 않는다, 전혀 가능하지 않다=0' 과 같이 점수를 부여하고 평균값을 구한 것임.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다(〈그림 2-7-12〉).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은 타 집단에 비해 대북지원이 북한주민에 도움을 준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남북경협은 북한의 개혁 개방에 도움을 준다고 본다. 결국 민주적 가치 강한 집단은 인도적 및 경제적 남북교류 활성화에 크게 찬성하는 집단이라는 것이다.

〈그림 2-7-12〉 민주적 가치와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2014)



비고: 응답별로 '매우 도움이 된다, 매우 만족=100, 약간 도움이 된다, 다소 만족=66.6,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소 불만족=33.3,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매우 불만족=0' 과 같이 점수를 부여하고 평균값을 구한 것임.

반면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민족도가 타 집단에 비해 낮은 편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타 집단에 비해 크게 낮다는 특징이 있다.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만족도가 낮은 것은, 이들이 남북한 간의 교류활성화를 지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현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민주적 가치에 맞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측면도 있는 듯하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은 통일을 지향하는 집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대박론에 대해 공감할 수있다. 한편,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이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형태에 대해 만족도가 낮다는 점에서 통일대박론에 대해서도 공감하지 않을 수 있다. 과연 어떠한가? 〈표 2-7-17〉을 보면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이 통일대박론에 대해 양면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은 타집단에 비해 통일대박론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비율이 높은 반면, 반대로 타 집단에 비해 통일대박론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가장 높다. 현재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이 통일대박론을 바라보는 시각은 양면적이다.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은 통일대박론의 기본 전제에 공감하되, 현재의 대북정책이 통일대박론을 구현하는 데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통일대박론이 구체화되면서 남북한 교류가 활성화 된다면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은 타 집단보다 통일대박론에 공감을 가장 많이 하는 집단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이 통일대박론을 구현할 수 있는 중심 세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2-7-17〉 민주적 가치와 통일대박론(2014)

(단위 : %)

구분	강	중	약
공감한다	34.0	32.1	29.3
보통이다	34.9	40.3	43.0
공감하지 않는다	31.1	27.7	27.7
계	100.0	100.0	100.0
	chi square=5.5, p=n.s.		

비고: '공감한다=매우 공감한다+약간 공감한다', '공감하지 않는다=별로 공감하지 않는다+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를 합하여 계산하였다

4. 소결

통일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날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이루어진 통일논의는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되기보다 매우 추상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이 잠시 통일에 대해 국민들의 주의를 환기시켰으나 통일논의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지는 못했다. 이 글은 통일논의를 활성화하고 통일실천을 위해서는 개인별 특성에 맞는 통일논의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세대' 및 '민주적 가치' 에 따라 통일의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으며, 특히 '젊은 세대' 그리고 '민주적 가치를 강하게 내면화한 사람' 의 통일의식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세대별 통일의식 분석에서 나타난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 모두 20대 이하의 젊은 세대가 통일 필요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남성과 달리 여성의 경우는 30대 이상이 되더라도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지지 않는다.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려면 젊은 층의 통일 필요성 제고가 필요하지만, 여성의 경우 세대에 관계없이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은 남성의 경우 50대 이상, 여성의 경우 30대 이상이 통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데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젊은 세대에게서는 큰 공감을 얻지 못하였다. 젊은 세대에게는 통일대박론이 개인이익을 증진시키는 담론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젊은 세대에서 통일에 대한 무관심층이 상대적으로 많지만, 아직까지는 소수이다. 젊은 세대에서도 타 세대와 마찬가지로 통일에 대해서 여건 성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통일대박론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통일무관심층이 통일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건 성숙을 통일조건으로 내세우는 다수에 초점을 맞춘 정책개발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모든 세대에서 민족통일을 통일 이유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젊은 세대의 경우 전쟁위험 소멸과 통일이 되면 한국이 선진국이 될 것이라는 통일 이유에 주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통일이 가져다주는 장래 이익이 보다 구체화되면 통일대박론이 2~30대에 매력적인 통일비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넷째, 통일 이후 사회문제가 악화될 것이라는 인식이 모든 세대에서 보편적이다. 이점이 통일보다 현재에 만족한다는 층이 늘어나는 주요 이유이다. 그리고 젊은 세대가 사회문제 악화를 기성세대보다 우려하고 있다. 통일대박론이 통일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지만, 사회문제 악화에 대처하는 논의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젊은 세대는 통일대박론에 대비되는 통일쪽박론에 기울 우려가 있다.

다섯째, 북한정권에 대한 인식, 대북정책의 효과 평가 등에 있어서는 세대별 차이가 크지 않고, 더구나 세대별 차이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대북정책 추진 면에서 세대 갈등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한편, 2013년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교체되면서 대북정책에 대한 민족도가 상승하였지만, 2014년도는 2013년도에 비해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졌다. 이 점도 세대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나

타난 현상이다.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려면 특정 세대에 초점을 맞춘 대북정책보다 전체 국민의 공동 관심 영역에서 성과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민주적 가치별 통일의식 분석에서 나타난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4.19, 5.16, 10월 유신,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이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 평가를 요인분석을 통해,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 중간적인 집단, 약한 집단으로 3분하였다. 민주적 가치별 집단은 전체적으로 1/3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한편, 각 하위집단별로 민주적 가치를 내면화한 집단 비율이 다르지만, 민주적 가치를 내면화한 집단이 특정 하위집단에 몰려있지 않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주적 가치가 약해진 2014년의 경우에도 각 하위집단에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이 최소 20% 이상 존재한다. 모든 하위집단에 일정 수준이상 민주적 가치를 강하게 갖고 있는 집단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민주적 가치가 국민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보편가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다.

둘째,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은 통일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통일과 국가 및 개인 이익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타 집단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다. 또한 통일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견해를 표방한다.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이 통일 주도세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통일과 민주주의와의 관계에 있어서, 통일과 남한 민주주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통일과 북한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민주적 가치를 강하게 내면화한 사람 중에 통일이 되어야 북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사람의 비율이 높다. 북한 내부 민주화 가능성보다 통일에 의한 북한민주화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는 점 역시 민주화 가치가 강한 집단이 통일에 적극적일 수 있음을 말해준다. 통일한국의 정치체제에 대해서는 남북한이 서도 다른 체제를 유지하기보다, 한 체제로 통합하되 현 남한체제를 근간으로 통일 상황에 맞게 적합하게 보완되어야 한다는 정도로 의견을 집약할 수 있다.

넷째,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은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강하고, 북한 정권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는 비율이 타 집단보다 높다. 또한 타 집단보다 북한무력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은 통일정책의 상대방으로 북한정권을 인정하는 실용적인 입장이 강한 특성을 갖는다.

다섯째,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은 타 집단에 비해 대북 인도적 지원이나 남북한 교류협력의 효과가 크다고 평가한다. 그 결과 현재와 같이 남북한 교류가 단절된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다. 한편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은 통일대박론에 대해양면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통일을 지향하는 집단으로서 통일대박론의 기본전제에 공감하면서도, 현재의 대북정책이 통일대박론을 구현하는 데는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통일대박론이 구체화되고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 민주적 가치가 강한 집단은 통일대박론에 가장 많이 공감하는 집단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통일을 이루려면 통일방안 마련도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통

일을 주도하는 세력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 통일을 주도하는 집단이 보이지 않는다.

청년 세대는 어떠한가? 청년층은 통일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고, 무관심하거나 현재에 만족한다는 비율이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다. 통일이 가져다주는 이득을 잘 알려주고, 또한 통일 이후 염려되는 사회문제 악화를 대비하는 방안을 제대로 준비한다면 젊은 세대가 통일에 대해 보다 높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할 참여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한편, 민주화 가치를 강하게 내면화한 집단은 어떤가? 통일의식 면에서는 이들이 통일주도세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여러 면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가시화되지는 않고 있다. 이들이 통일주도세력으로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남북한 교류협력이 본격화되고, 민주주의 가치를 기초로 한 대북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014 통일의식조사

결 장

결 장

우리 국민들이 보여주는 통일의식은 매우 복합적이고 다층적이다. 역동적으로 변하는 국내외 상황에 대응하여 매년 변화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외부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크게 변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어떤 측면에서는 강력한 대북한 비판의식이 나타나면서도, 어떤 측면에서는 동포애에 기반한 포용의지가 뚜렷하다. 당위적으로 생각하는 가치지향과 자신의 실제행동과 편익계산과의 사이에도 꽤 큰 차이가 나타난다. 젊은 세대와 노년세대 사이에, 상층계층과 하층계층 간에, 진보와 보수 사이에, 그리고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 통일에 관한 입장에는 무시할 수 없는 차이가 존재한다. 국민들의 통일의식은 특정한 사안 중심으로 단순화해서 이해해서는 곤란하며, 종합적이고 균형있는 이해와 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주제라 하겠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통일의식조사는 통일의식의 다면성, 복합성, 전체성을 확인하고자 노력해왔다. 이번 2014년 조사에서도 통일의식이 가진 양면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간의 조사보고서를 살피면, 매년의 국내외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측면이 있지만 통일에 관해 한국 국민들의 의식 기저에는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실용적이라는 입장이 놓여 있었다. 예를 들어 국민들은 매

년 안보불안의 요인에 따라 통일을 대한 태도에 차이를 보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동북아질서의 불안을 야기하지 않으며 균형 있는 관계형성의 필요성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현재 한국에서는 세대 간에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고, 지역 및 계층 간에도 큰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응답패턴에는 공통된 점이 뚜렷하다. 각 그룹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매우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4년은 한국사회에서 통일과 관련한 정책논의와 사회적 담론형성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했다. 국민들은 통일에 대해서 당위이자 정책목표로서 그 중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다. 동시에 그것이 보다 구체화된 정책과 추진 가능한 실천 사항으로 연결되기를 바라며 무엇보다도 남북관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 국민들은 통일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하면서도 그 정책화의 가능성, 정책추진의 진정성, 북한을 견인할 역량 등에 대해서는 냉정한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 또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안보태세 강화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함께 강조하고 있다. 2014년 통일담론이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고 경제적 통일편익을 강조함으로써 통일에 대해 긍정적 인식의 확산을 가져오기는 하였지만, 종합적으로 국민적 공감을 확보할 만큼 그 정책내용과 비전이 충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통일주도세력으로서의 젊은 세대와 민주적 가치를 지향하는 국민의 의식과 요구에 좀 더 세밀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중장기적으로 통일준비를 해 나야할 것이다.

통일의식: 통일대박론의 공감과 거리감

그동안 국민들이 보여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수준은 대체로 60% 전후로 조금씩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2014년에는 상승하는 변화를 보여주었다. 그 증가폭이 크지는 않았지만, 통일대박론이 다양한 영역에서 통일효과를 환기함으로써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높였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전년에 비해 통일이 필요 없다거나 관심이 없다거나 혹은 통일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은 감소한 반면, 통일이 가져올 개인적 사회적 변화에 관한 기대감도 전년도 대비 상당히 증가하였다. 그중 통일이 사회문제 개선에 기여하리라는 기대감은 크게 증가하였는데 흥미롭게도 지역갈등이나 이념갈등보다 실업문제나 부동산투기문제 등의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국민들이 통일을 이해할 때, 이념과 정치의 차원에서 벗어나 미래 한국인의 삶 전반과 연관하여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경제적인 편익여부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그런데 통일대박론이 국민적 기대감을 크게 높인 것에 비해 그 정책화 가능성이나 효과성에 대해서는 지지 정도가 그리 높지 않았다. 통일대박론 자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국민, 소극적인 지지층, 별로 공감하지 않는 층이 비슷하게 나타난다. 또 통일대박론에 공감한다는 응답자들도 대부분이 젊은 층보다는 고령층이었다는 점은 이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젊은 세대를 포함하여 전 국민에게 새로운 전망과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수준에까지 이르지 못했음을 시사한

다. 이것은 남북관계의 경색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서 통일담론이 정책효과로 구체적인 가시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통일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한국의 사회발전에 중요한 과제임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젊은 세대가 통일의 비전을 자신의 미래구상과 연결하여 구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통일논의를 정교화, 세련화, 다각화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정부의 통일논의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결국 남북관계의 가시적 변화가 동반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노력에도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번 조사는 우리 사회에서 통일을 가장 강력하게 바라고 또 지지하는 층이 민주주의적 가치와는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이것은 한국의 통일논의가 민족주의의 정서에 기초한 대신, 민주주의의 보편원리와 거리가 있다는 일각의 의구심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하지만 조사결과 우리 사회에서 민주적 가치를 강하게 내면화한 국민일수록 통일지향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한국의 통일 미래와 관련하여 무척 긍정적이다. 즉 통일을 추진하는 흐름이 결코 비민주적인 방향으로 연결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만들기 때문이다. 동시에 통일논의가 약화되거나 통일에의 관심이 줄어드는 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한다. 한국의 민주주의 지향세력은 현상황과 같이 남북한 대립상태가 장시간 지속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이다. 이들은 통일대박론의 기본전제에는 공감하지만, 통일대박론을 구현하는 데에는 현재의 대북

정책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통일이 한반도에 평화와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볼 때, 통일대박론이 담론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공유하고 있다. 남북교류가 활발해지고 통일담론이 보다 구체화적으로 논의되고 정책으로 가시화되어야, 민주적 가치를 강하게 지향하는 국민들로부터 더 넓은 공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인식: 안보불안의 증가와 중도의 보수화

2014년에도 국민들은 여전히 북한정권에 대한 불신감을 보이고 있으며, 작년에 이어 북한을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국민들이 2013년 말에 충격적으로 전해진 장성택의 처형이 북한체제가 가진 비민주적이고 예측불가능한 면모를 체감하게 하였고, 올 들어 무력시위가 잦아지면서 북한정권과의 대화가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종합편성채널을 비롯한 우리 언론의 대북비판 메시지가 일반국민들의 대북한 인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을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 보는 응답이 전년도보다 8.3%p 감소한 27.5%를 기록하였는데 이것은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심리적 신뢰도가 그만큼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북한으로 인해 안보불안의식을 느낀다는 응답은 10%p 증가한 74.9%를 기록하였다. 북한발 안보위기의식은 절대치나 증가폭이 모두 매우 높은 수준인 바, 그만큼 북한을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김정은 체제 하의 북한이 예측하기 어려운 불

확실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다가, 북한의 핵개발이 장기화하면서 이것이 실질적인 위협변수가 될 수 있으리라는 불안의식도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전의 의식조사에서도 확인한 바이지만,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증가가 반드시 대북 강경노선에의 지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북한 발 안보불안이 높아도 국민들은 여전히 대결과 긴장고조가 아닌 협력적인 남북관계를 통해 대응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대북불신과 불안감이 전례 없이 높은 상황에서, 북한을 '협력대상' 으로 이해하는 응답비율이 높아진 것은 남북관계의 안정에 대한 기대를 보여준다. 또한 압박과 단절이라는 강경책이 안보불안을 해결하는 충분한 정책일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한 긴장완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뜻한다. 국민들이 가진 양면적 태도는 대북정책에서 강경노선과 온건노선 모두에게 활용 가능한 조건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한반도의 불안, 북한의 위협은 군사적 안보와 강력한 대북 억지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 안정적 남북관계를 유지하고 궁극적으로는 민족의 화해와 평화가 정착되는 새로운 질서 창출이 가능할 때 비로소 충족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재확인하게 한다. 안보는 튼튼히 하면서도, 대화를 모색하는 전략적 지혜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대북인식과 관련한 남남갈등 현상도 여전히 확인된다. 하지만 정치이념별, 세대별, 지역별 차이가 이전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정치적 성향에 따른 의견차도 과거보다 많이 약화되었다. 이념 차원에서 보면 중도의 보수화 현상이 확인되었다. 즉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

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지금까지 보수–중도–진보를 가르는 가장 유력한 기준으로 기능을 하였는데 2014년에 처음으로 중도집단의 반응이 보수집단의 반응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 보수와 중도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이른바 '중도의 보수화' 가 나타났다.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평가하는 부분에서도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정치성향별 대북인식의 격차 감소, 비판적 대북인식의 강화 등의 추세가 장기적으로 이어질지, 혹은 특정한 정책적 요구로 이어질지 앞으로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 긴장완화를 위한 실질적 대북정책 요구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래 줄곧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높은 지지를 얻었다. 여기에는 북한의 도발적인 언행으로 얻은 반사효과도 있지만 비교적 일관된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일정하게 반영된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대북정책의 지지도가 전년도보다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은, 이제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에게 대북정책의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집권 3년차가 되는 2015년은 대북정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국민적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정부의 대북정책이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이상으로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효과를 가져올 것을 기대한다. 즉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긴장을 완화하면서 교류협력이 진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날 것을 바라고 있다. 물론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적 인식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청이 단순히 일방적 포용이나 대북유화노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북지원과 남북교류 일변도의 일방적 대북정책으로의 전환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긴장을 심화하는 압박과 공세 중심의 정책유지를 지지하는 것도 아니다. 대북지원이 북한주민들의 생활 개선에 도움이 되며,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이 되는 정교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바라고 있다. 또 정부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남북합의는 계승되어야 하며, 남북관계의 경색을 야기하지 않도록 정부가 우선순위나 정책조율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 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이 과거 협력적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를 하였던 점은 인정하면서, 그것이 현재에 수행하는 기능과 영향에 대해서는 이전에 비해 더 냉정하게 판단하게 된 점도 확인된다. 먼저 개성공단은 남북한 경제협력의 유일한 현장으로 그 의미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전에 비해 긍정적지지 여론이 감소한 것은 개성공단의 운영과 관련된 불투명성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해 국민들의 지지여론이 생각처럼 높지 않은 것도, 현재 상황에서 남북경협이 남북관계의 질적 전환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시각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와 관련하여,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권개선 등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한다는 인식이 증가하는 현상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은 북한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면서 주민들의 삶과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대북정책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국민들은 북한이 외교적으로 고립되기 보다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변화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의식을 반영하면서 북한을 국제적으로 정상적인 국가로 만들기 위한 국제화 노력을 구상하는 것도 신중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주변국 인식: 높은 미국신뢰, 증대하는 일본불신, 변화중인 중국의식

지난 몇 년간 국민들이 주변 국가를 이해하는 인식과 태도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미국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가 매우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반면 일본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 중국에 대해서는 경제적 교류가 확대되는 현실과 연관하여 조금씩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서적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북한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이 커지고 있다. 2014년 조사결과도 이런 변화의 추세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데 특히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증대와 중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증대가 눈에 띈다. 이제는 한반도에 잠재적 위협이라고 할 때 중국보다 일본을 먼저 떠올리기에 이른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들은 일본을 북한 다음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아베 정권 이후 일본이 보이고 있는 우경화 현상, 독도나 군위안부 문제로 상징되는 한일관계의 퇴행, 한일경제관계의 상대적 비중하락 등이 함께 반영된 것이다. 동시에 몇 차례 지속된 한중정상회담의 경과와 시진핑 중국주석이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한 점 등이 국민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여전히 한중관계,

남북관계, 한미관계가 균형적으로 유지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에 대해 중국이 지나치게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경계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반면, 중국과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라는 인식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반복되는 북한의 무력도발이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지만, 여전히 남북관계와 한미공조가 모두 중요하다는 응답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즉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이 높고 미국에 대한 친밀감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한다면, 국민들이 북한과 같은 민족으로서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정치의 현실적 접근과 더불어 통일 과정에서 민족적 정서의 유대감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정책의 개발이 중요해지고 있다.

미래와 통일: 젊은 세대와 민주 세력의 공감 가능성

젊은 세대가 통일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젊은 세대가 통일에 대한 관심이 약하거나 부정적일 것이라고 예단해서는 것은 곤란하다. 젊은 세대에서 통일에 대한 무관심층이 상대적으로 많게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절대적 수치에서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비율이 상당하다. 젊은 세대는 통일을 당위적이거나 최우선적 과제로 보기보다는, 여건 성숙의 필요성을 인지하거나 통일을 다른 가치들과 연관하여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따라서 젊은 세대의 소극적 태도를 통일반대론이나 통일회의론으로 성급하게 해석하기 보다는, 어떤 통일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관한 보다

정교하고 구체적인 정책구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통일대박론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관련해서 말한다면, 무관심층을 설득하여 통일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여건 조성과 실천항목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숙고하고 이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이런 맥락과 관련하여, 통일이 될 경우 전쟁위험이 소멸하고 한국이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비율이 젊은 세대에서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통일을 만병통치약처럼 내세우기보다 통일과 인간안보, 통일과 경제성장, 통일과 민주주의, 통일과 취업기회, 통일과 동북아 지역협력, 통일과 국민심성, 통일과 민족문화, 통일과 다문화적 통합, 통일과 저출산, 통일과 인구이동 등 수많은 쟁점들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 비전을 검토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노력이 수반된다면, 젊은 세대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통일에 적극적 관심을 보일 것이다.

민주적 가치를 지향하는 정도가 강한 국민들이 통일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강하고 북한정권을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비율도 타 집단보다 높다. 특히 이들은 북한정권을 통일정책의 상대편으로 인정하면서도, 북한 스스로 북한사회의 민주화를 이뤄낼 것이라 기대하기보다는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통일한국의 정치체제 역시 현 남한체제를 근간으로 하되, 통일 상황에 맞추어 적합하게 보완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의 민주화, 인권신장과 통일의 상관관계에 대한 복

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민들은 보통 북한민주주의와 통일의 상관성을 높이 평가하지는 않지만, 민주적 가치를 강하게 내재화한 집단은 이 양자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적 가치와 세대변수를 함께 연결해 보면 앞으로 한국사회를 이끌어갈 미래 주역세대를 어떻게 배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얻게 된다. 즉 젊은 세대가 민주적 가치와 통일 지향성을 함께 추구하는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 하겠다. 젊은 세대들은 장기적인 이익보다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과 그것의 실현 가능성을 더 중시한다. 나아가 통일 이후에 예상되는 사회문제 개선의 효과 등을 잘 반영하는 정책이라면 젊은 세대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젊은 세대와 민주적 가치를 지향하는 국민들은 분명 잠재적 통일의 주도 세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대북정책의 개발과 추진이 필요하다.

계층과 통일의식: 사회통합과 통일준비가 병행해야

이번 2014년 조사에서 나타난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는 국민들의 통일의식에서 계층에 따른 분화가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전까지 한국사회에서는 계층변수보다 학력변수나 지역변수, 이념변수가 남북관계를 설명하는데 더 중요했다. 그동안은 경제적 차원에서 중상층에 속한 계층이 북한에 대해 포용적인 견해를 보이고 경제적 여유가 없는 하층일수록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이런 태도는 학력변수에서도 비슷하여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 집단

에서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마디로 중상층, 대졸자 집단이 북한에 대한 포용적인 정책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았고 이는 '386' 세대론에서 종종 언급된 한국사회 중산층의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사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층일수록 북한의 위협을 크게 느끼면서 불안심리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상대적으로 하위 계층은 통일, 북한, 대북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통일문제에 대한 '전통적이고 규범적인 태도' 라 할 수 있는 민족주의와 동포애 같은 정서적 교감도 오히려 하층에서 뚜렷하게 보인다. 이에 비해 중상층에서는 보수적이고 현상유지적인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여서, 이들은 통일에 대해 소극적이었고 기대감이 크지 않았으며 북한에 대해서 보다 강한 불신과 적대감을 표시하였다. 대북 교류, 협력과 같은 유화적인 정책에 대한 반대도 상위층이 더 높았다. 상위층의 이런 태도는 기존 질서를 유지하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보수적이고 현상유지적인 성향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분단된 현 남북관계가 현재의 계층구조와 일정하게 조응함으로써, 상층이 분단상태의 근본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가능성은 약화되고 있다.

상위층의 보수적 태도와 하위층의 전향적 태도는 그들의 사회경제적 상황이나 지위를 고려할 때 '합리적(rational)' 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재 상황에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많은 비용이 요구되고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통일에 대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더 높다. 통일

과 연관된 고비용과 불확실성, 북한체제에 대한 거부감 등은 현재상태에 불만이 적은 집단이 현상유지적 태도를 갖도록 하는 원인이 된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미래를 전망할 때 사회경제적 자원을 많이 보유한 지배 계층이 통일에 소극적인 태도를 가진다는 점은 큰 문제이다. 통일대박론을 비롯하여 통일이 한국경제가 크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리라는 논리에 대해, 경제주도층이 공감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도가 의외로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사회의 기득권층이나 분단현실을 유지하는 것과 자신의 이해관계를 동일시하는 세력이 가진 거부감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들의 자원과 능력, 식견을 통일의 과정으로 건설적으로 이끌어 낼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리라는 점을 말해준다. 더구나 한국사회 내부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심화되고 계층의 양극화가 심화된다면, 북한문제와 통일문제가 본격적인 계층문제, 계급문제와 연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사회 계층에 따른 통일에 대한 기대와 인식의 차이가 심화하여 통일정책에 대한 입장 대립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전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014 통일의식조사

부 록

1. 조사의 기본 설계

1) 표본 설계 (Sample Design)

구 분	내 용
1) 모집단	전국 16개시도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 남녀
2) 표본 크기	1,200명 (유효표본)
3) 표본추출방법	다단계 층화 계통 추출법 (Multi-Stage Stratified Systematic Sampling)
4) 표본 오차㈜	± 2.8% (95% 신뢰수준)

〈주〉 【별첨. 표본오차에 관한 보충자료】 참조

〈표본 할당〉

지역	성별	연령별					소계
		19-29세	30대	40대	50대	60~65세	
서울특별시	남자	22	24	24	21	9	100
	여자	22	24	24	23	9	102
부산광역시	남자	9	9	9	10	4	41
	여자	8	8	10	11	4	41
대구광역시	남자	7	7	8	7	3	32
	여자	6	7	8	7	3	31
인천광역시	남자	8	8	9	8	3	36
	여자	7	8	9	8	3	35
광주광역시	남자	5	5	6	5	2	23
	여자	5	5	6	5	2	23
대전광역시	남자	5	5	6	5	3	24
	여자	5	5	6	5	2	23
울산광역시	남자	5	4	5	5	2	21
	여자	4	4	5	5	2	20
경기도	남자	25	28	31	26	8	118
	여자	23	27	31	25	8	114
강원도	남자	5	4	6	6	2	23
	여자	4	4	5	6	2	21
충청북도	남자	5	5	6	6	2	24
	여자	4	5	6	5	2	22
충청남도	남자	6	7	7	6	3	29
	여자	5	6	7	6	3	27
전라북도	남자	5	5	7	6	2	25
	여자	5	5	6	6	3	25
전라남도	남자	5	5	7	6	3	26
	여자	4	5	6	6	3	24
경상북도	남자	7	7	8	8	3	33
	여자	6	6	8	8	3	31
경상남도	남자	8	9	10	9	3	39
	여자	7	8	10	9	3	37
제주도	남자	3	3	4	3	2	15
	여자	3	3	4	3	2	15
합계		248	265	304	275	108	1,200

〈주1〉 층화변수는 시/도별(16개 수준, 세종시는 충남지역에 포함), 성별(2개 수준), 연령별(5개 수준)로 선정
〈주2〉 표본할당은 시/도별 응답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20개 표본 우선 할당 후 비례배분법 적용

2) 실사 설계 (Fieldwork Design)

절 차	실사 설계
실사 지도원 교육	조사 전에 면접원 교육을 실시하며, 면접원 교육에 앞서 실사 지도원(Supervisor)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면접원 선정	한국갤럽 소속 전문 면접원 중 적격자를 선발하였다.
면접원 교육	조사방법과 조사내용에 대하여 2시간의 오리엔테이션과 2부의 연습면접을 실시하여 조사방법과 질문지 내용에 익숙하게 하고 문제점을 미리 발견, 지적함으로써 비표본오차(Non-sampling Error)를 최소화하여 실사과정이 표준화(Standardization) 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면접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우발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포괄적으로 교육한다.
면접원 통제	담당연구원 및 실사책임자(Supervisor)가 매일 회수된 질문지에 대해서 면접원 앞에서 검토하여 그 즉시 면접원 교육을 행하는 통제시스템(Quality Control System)으로 실사를 통제, 관리함으로써 면접원에 의한 오차를 줄이도록 한다.
검증조사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완성된 질문지중 30% 이상을 무작위 추출, 본 연구소 검증원이 전화 검증하여 응답의 허위기재, 조작이 발견될 경우 해당 면접원이 조사한 질문지 전부를 무효로 하고 재조사를 실시한다.

3) 조사방법 및 기간

구 분	내 용
1) 조사 방법	전문 면접원에 의한 1:1 개별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
2) 자료수집도구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3) 조 사 기 간	2014년 7월 1일 ~ 7월 22일 (21일간)

2. 자료 처리

1) 자료 처리 (Data Processing)

수집된 자료(Raw Data)는 Editing, Coding, Punching 과정을 거쳐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프로그램으로 전산처리를 하였다.

Editing		Coding/Punching		Data Cleaning		Data Processing
기록상의 오류 및 누락 검증	➡	설문 내용의 부호화 및 자료 입력	➡	입력 자료의 오류 검색	➡	SPSS PC+

2) 가중치 (Weight)

조사결과는 시/도별(16개 수준), 성별(2개 수준), 연령별(5개 수준)로 모집단(2014년 6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 행정안전부) 분포를 반영하여 모집단과 표본의 특성이 일치하도록 보정하는 가중치 작업 후 처리하였다.

〈가중치 산출식〉

◎ i : 시/도를 나타내는 첨자 (i = 1(서울), 2(부산), …, 16(제주))
◎ j : 성별을 나타내는 첨자 (j = 1(남), 2(여))
◎ k : 연령 그룹을 나타내는 첨자 (k = 1(19~29세), 2(30대), …, 5(60~65세))
◎ Nijk : i 시/도, j 성별, k 연령 그룹 내의 모집단 인구 수
◎ nijk : i 시/도, j 성별, k 연령 그룹 내의 조사된 응답자 수
◎ n : 조사된 전체 응답자 수
◎ N : 모집단 전체 인구 수
◎ Wijk : i 시/도, j 성별, k 연령 그룹 내의 가중치
◎ 층별 최종 가중치 Wijk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산출함

$$W_{ijk} = \frac{N_{ijk}}{n_{ijk}} \times \frac{n}{N}$$

3. 응답자 특성

지역	성별	조사 표본		가중 표본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1,200)	100.0	(1,200)	100.0
성 별	남자	(609)	50.8	(612)	51.0
	여자	(591)	49.3	(588)	49.0
연령별	19~ 29세	(248)	20.7	(248)	20.7
	30대	(265)	22.1	(269)	22.4
	40대	(304)	25.3	(304)	25.4
	50대 이상	(383)	31.9	(378)	31.5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92)	7.7	(89)	7.4
	고 졸	(517)	43.1	(518)	43.2
	대재 이상	(589)	49.1	(591)	49.3
	모름/무응답	(2)	0.2	(2)	0.2
직업별	농/수/축산업	(16)	1.3	(15)	1.2
	자영업	(214)	17.8	(203)	17.0
	블루 칼라	(307)	25.6	(307)	25.6
	화이트칼라	(307)	25.6	(314)	26.2
	전업 주부	(224)	18.7	(230)	19.1
	무직/기타	(131)	10.9	(130)	10.8
	모름/무응답	(1)	0.1	(1)	0.1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106)	8.8	(99)	8.2
	200~299만원	(233)	19.4	(227)	18.9
	300~399만원	(397)	33.1	(393)	32.8
	400만원 이상	(464)	38.7	(481)	40.1
지역별	수도권	(505)	42.1	(608)	50.6
	충청권	(149)	12.4	(120)	10.0
	호남권	(146)	12.2	(115)	9.6
	영남권	(326)	27.2	(309)	25.7
	강원	(44)	3.7	(35)	2.9
	제주	(30)	2.5	(13)	1.1
지역 크기	대도 시	(552)	46.0	(560)	46.7
	중·소도시	(500)	41.7	(507)	42.2
	읍 /면	(148)	12.3	(134)	11.1
정치적 성향	진보적	(329)	27.4	(333)	27.7
	중도	(575)	47.9	(580)	48.3
	보수적	(295)	24.6	(286)	23.8
	모름/무응답	(1)	0.1	(1)	0.1
종교별	불교	(266)	22.2	(257)	21.4
	기독교	(235)	19.6	(243)	20.3
	천주교	(72)	6.0	(73)	6.1
	기 타	(4)	0.3	(3)	0.2
	종교 없음	(601)	50.1	(603)	50.3
	모름/무응답	(22)	1.8	(21)	1.7

조사 결과 집계표

표 1.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문) ○○님은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필요 하다	② 약간 필요 하다	①+②	③ 반반 /그저 그렇다	④ 별로 필요 하지 않다	⑤ 전혀 필요 하지 않다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26.6	29.3	55.9	22.5	18.3	3.4	21.6	100.0
성별	남자	(612)	31.9	29.8	61.7	19.9	14.9	3.5	18.4	100.0
	여자	(588)	21.1	28.8	49.8	25.2	21.8	3.3	25.0	100.0
연령별	19~29세	(248)	15.8	27.2	43.1	24.8	26.7	5.4	32.1	100.0
	30대	(269)	19.8	30.6	50.3	24.4	21.1	4.1	25.2	100.0
	40대	(304)	29.1	27.4	56.5	25.8	15.5	2.2	17.8	100.0
	50대 이상	(378)	36.5	31.3	67.8	16.9	12.9	2.4	15.3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22.9	34.1	57.0	25.9	12.8	4.3	17.1	100.0
	고졸	(518)	26.3	30.8	57.0	21.2	18.8	3.0	21.7	100.0
	대재 이상	(591)	27.3	27.4	54.7	23.1	18.6	3.6	22.1	100.0
	모름/무응답	(2)	60.1	0.0	60.1	0.0	39.9	0.0	39.9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51.6	25.7	77.3	15.2	7.4	0.0	7.4	100.0
	자영업	(203)	33.1	25.5	58.7	18.2	19.3	3.8	23.1	100.0
	블루 칼라	(307)	18.9	30.7	49.6	24.4	20.9	5.1	26.0	100.0
	화이트칼라	(314)	32.2	28.8	61.0	22.5	14.3	2.3	16.6	100.0
	전업 주부	(230)	24.6	31.6	56.2	26.2	16.0	1.6	17.6	100.0
	무직/기타	(130)	22.0	28.9	50.9	19.0	25.5	4.6	30.1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31.1	29.7	60.8	20.2	15.0	4.0	19.0	100.0
	200~299만원	(227)	27.7	32.1	59.8	20.2	16.1	4.0	20.0	100.0
	300~399만원	(393)	24.7	29.4	54.1	23.0	20.2	2.7	22.9	100.0
	400만원 이상	(481)	26.7	27.8	54.5	23.6	18.4	3.5	21.9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27.2	29.7	56.9	21.6	18.0	3.5	21.5	100.0
	충청권	(120)	29.6	30.9	60.6	23.3	12.0	4.1	16.1	100.0
	호남권	(115)	36.1	23.5	59.7	18.0	18.5	3.9	22.4	100.0
	영남권	(309)	18.3	31.8	50.1	25.1	22.7	2.1	24.8	100.0
	강원	(35)	42.5	18.4	60.9	27.8	9.0	2.4	11.3	100.0
	제주	(13)	39.3	17.2	56.5	21.9	3.5	18.1	21.5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26.1	28.9	55.0	22.3	19.2	3.5	22.7	100.0
	중 · 소도시	(507)	26.0	31.5	57.6	22.7	17.9	1.8	19.7	100.0
	읍/면	(134)	30.7	22.4	53.1	22.4	16.0	8.5	24.4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28.8	27.8	56.6	25.6	15.8	2.1	17.9	100.0
	중도	(580)	21.8	32.8	54.6	22.8	19.2	3.3	22.6	100.0
	보수적	(286)	33.5	24.1	57.6	18.2	19.3	4.9	24.2	100.0
	모름/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24.3	29.1	53.4	26.4	16.4	3.8	20.2	100.0
	기독교	(243)	28.9	35.0	63.9	19.3	15.0	1.9	16.8	100.0
	천주교	(73)	34.7	31.1	65.7	15.9	16.0	2.4	18.4	100.0
	기타	(3)	63.3	36.7	100.0	0.0	0.0	0.0	0.0	100.0
	종교없음	(603)	26.0	26.8	52.9	22.8	20.7	3.6	24.3	100.0
	모름/무응답	(21)	11.9	28.7	40.6	28.0	18.7	12.6	31.4	100.0

표 2.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문) 남북한 통일에 대한 ○○님의 생각은 다음 중 어느 것에 가장 가깝습니까?

		사례수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	통일을 서두르기 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현재 대로가 좋다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계
			%	%	%	%	%
전 체		(1,200)	12.1	61.3	19.6	7.0	100.0
성별	남자	(612)	14.8	61.8	16.9	6.5	100.0
	여자	(588)	9.3	60.8	22.4	7.6	100.0
연령별	19~29세	(248)	7.2	54.7	28.2	9.9	100.0
	30대	(269)	8.0	61.8	19.9	10.2	100.0
	40대	(304)	10.8	67.0	18.2	4.0	100.0
	50대 이상	(378)	19.2	60.7	14.8	5.3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14.9	64.4	17.4	3.3	100.0
	고졸	(518)	12.6	61.0	19.6	6.8	100.0
	대재 이상	(591)	11.0	61.3	19.9	7.8	100.0
	모름/무응답	(2)	60.1	0.0	39.9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34.8	36.8	28.4	0.0	100.0
	자영업	(203)	16.4	60.0	13.8	9.8	100.0
	블루 칼라	(307)	9.6	58.6	22.2	9.6	100.0
	화이트칼라	(314)	12.2	65.5	17.6	4.7	100.0
	전업 주부	(230)	10.8	64.2	20.6	4.3	100.0
	무직/기타	(130)	10.6	57.2	24.6	7.7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18.1	59.7	18.4	3.8	100.0
	200~299만원	(227)	17.8	61.2	15.2	5.7	100.0
	300~399만원	(393)	12.4	60.2	19.9	7.5	100.0
	400만원 이상	(481)	7.9	62.6	21.6	7.9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10.8	63.8	21.0	4.4	100.0
	충청권	(120)	15.2	63.1	13.1	8.5	100.0
	호남권	(115)	22.6	53.5	14.5	9.4	100.0
	영남권	(309)	9.5	57.3	22.7	10.5	100.0
	강원	(35)	10.8	71.0	9.1	9.1	100.0
	제주	(13)	14.5	64.4	14.1	7.1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9.8	59.0	23.8	7.4	100.0
	중 · 소도시	(507)	13.9	64.3	14.5	7.3	100.0
	읍/면	(134)	14.9	59.5	21.1	4.5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14.5	60.9	21.2	3.5	100.0
	중도	(580)	8.5	63.6	20.2	7.8	100.0
	보수적	(286)	16.7	57.4	16.3	9.7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10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12.6	59.6	20.7	7.1	100.0
	기독교	(243)	14.0	66.8	16.4	2.9	100.0
	천주교	(73)	9.0	73.7	14.7	2.6	100.0
	기타	(3)	63.3	18.5	18.2	0.0	100.0
	종교없음	(603)	11.4	59.1	20.6	8.9	100.0
	모름/무응답	(21)	8.3	43.4	31.1	17.3	100.0

표 3. 남북한 통일 가능 시기

문) ○○님은 남북한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5년이내	10년이내	20년이내	30년이내	30년이상	불가능하다	계
			%	%	%	%	%	%	%
전 체		(1,200)	2.1	13.7	22.8	18.2	19.7	23.5	100.0
성별	남자	(612)	2.0	15.5	23.1	18.8	18.8	21.7	100.0
	여자	(588)	2.3	11.7	22.5	17.5	20.6	25.3	100.0
연령별	19~29세	(248)	0.5	9.5	16.5	17.9	25.1	30.5	100.0
	30대	(269)	1.1	8.8	17.9	23.9	24.7	23.5	100.0
	40대	(304)	2.5	11.4	29.6	15.5	18.4	22.6	100.0
	50대 이상	(378)	3.7	21.7	25.0	16.4	13.6	19.6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5.3	17.1	18.5	17.0	13.0	29.2	100.0
	고졸	(518)	2.4	16.1	22.8	17.3	19.2	22.3	100.0
	대재 이상	(591)	1.5	11.0	23.4	19.2	21.2	23.6	100.0
	모름/무응답	(2)	0.0	0.0	60.1	0.0	0.0	39.9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12.6	29.6	24.1	5.1	12.5	15.9	100.0
	자영업	(203)	2.0	15.2	23.9	17.1	16.5	25.2	100.0
	블루 칼라	(307)	1.1	13.3	22.4	15.9	21.0	26.3	100.0
	화이트칼라	(314)	2.3	11.8	23.5	19.7	23.3	19.3	100.0
	전업 주부	(230)	3.5	14.8	24.1	21.6	16.5	19.5	100.0
	무직/기타	(130)	1.0	12.8	17.9	16.5	19.6	32.2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10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3.8	18.7	19.0	17.8	21.1	19.6	100.0
	200~299만원	(227)	2.3	15.0	20.9	16.0	20.4	25.5	100.0
	300~399만원	(393)	2.8	14.1	24.1	19.1	18.2	21.6	100.0
	400만원 이상	(481)	1.2	11.7	23.4	18.6	20.3	24.9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1.2	13.6	25.6	19.9	17.7	22.1	100.0
	충청권	(120)	4.0	22.2	22.2	16.3	18.9	16.4	100.0
	호남권	(115)	5.2	15.3	19.0	12.5	22.5	25.4	100.0
	영남권	(309)	2.2	10.3	18.7	16.9	23.8	28.1	100.0
	강원	(35)	2.1	9.1	26.9	27.8	9.1	25.0	100.0
	제주	(13)	3.7	16.5	16.6	14.0	25.6	23.6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1.4	11.2	23.0	20.0	20.6	23.8	100.0
	중 · 소도시	(507)	3.1	16.2	23.8	16.2	17.5	23.2	100.0
	읍/면	(134)	1.7	14.2	18.1	18.3	24.4	23.3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1.5	13.3	24.1	22.5	17.8	20.7	100.0
	중도	(580)	2.0	12.4	23.0	17.0	20.7	24.9	100.0
	보수적	(286)	3.2	16.7	21.0	15.7	19.9	23.5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0.0	0.0	100.0	100.0
종교별	불교	(257)	2.7	14.1	19.2	17.9	21.3	24.8	100.0
	기독교	(243)	1.8	14.8	32.0	17.2	14.6	19.6	100.0
	천주교	(73)	5.7	22.1	18.0	18.6	19.4	16.3	100.0
	기타	(3)	0.0	34.6	0.0	18.2	47.1	0.0	100.0
	종교없음	(603)	1.7	12.0	21.9	18.6	20.6	25.2	100.0
	모름/무응답	(21)	0.0	10.8	5.8	19.3	32.5	31.5	100.0

표 4-1. 대북 정책별 통일 도움 정도 – ㉮ 쌀/비료/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

문) ○○님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다소 도움이 된다	①+②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7.9	39.1	47.0	42.0	11.0	53.0	100.0
성별	남자	(612)	8.2	39.1	47.2	41.1	11.7	52.8	100.0
	여자	(588)	7.6	39.0	46.7	43.0	10.4	53.3	100.0
연령별	19~29세	(248)	5.8	37.2	43.0	43.5	13.5	57.0	100.0
	30대	(269)	6.3	33.8	40.0	49.3	10.6	60.0	100.0
	40대	(304)	9.7	38.5	48.3	42.6	9.1	51.7	100.0
	50대 이상	(378)	8.9	44.5	53.4	35.3	11.2	46.6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5.3	39.5	44.8	36.1	19.1	55.2	100.0
	고졸	(518)	8.2	39.3	47.6	42.5	9.9	52.4	100.0
	대재 이상	(591)	8.0	38.6	46.6	42.6	10.9	53.4	100.0
	모름/무응답	(2)	0.0	100.0	10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34.3	37.4	71.7	28.3	0.0	28.3	100.0
	자영업	(203)	9.6	44.6	54.2	34.8	11.0	45.8	100.0
	블루 칼라	(307)	6.9	35.9	42.8	44.8	12.4	57.2	100.0
	화이트칼라	(314)	9.4	38.6	48.0	40.2	11.8	52.0	100.0
	전업 주부	(230)	4.8	40.0	44.8	46.6	8.6	55.2	100.0
	무직/기타	(130)	6.3	37.7	44.0	44.1	11.9	56.0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8.5	44.1	52.6	31.2	16.2	47.4	100.0
	200~299만원	(227)	11.2	39.6	50.9	38.5	10.7	49.1	100.0
	300~399만원	(393)	5.8	38.4	44.3	46.0	9.7	55.7	100.0
	400만원 이상	(481)	7.9	38.3	46.1	42.6	11.2	53.9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4.9	38.9	43.8	45.8	10.5	56.2	100.0
	충청권	(120)	15.1	49.6	64.7	31.4	4.0	35.3	100.0
	호남권	(115)	18.2	42.0	60.1	32.2	7.6	39.9	100.0
	영남권	(309)	6.1	35.9	42.0	43.3	14.7	58.0	100.0
	강원	(35)	17.7	25.8	43.5	36.1	20.5	56.5	100.0
	제주	(13)	7.2	34.5	41.7	36.5	21.8	58.3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5.1	40.1	45.2	45.5	9.3	54.8	100.0
	중 · 소도시	(507)	10.8	38.3	49.2	39.1	11.7	50.8	100.0
	읍/면	(134)	8.5	37.4	45.9	38.5	15.5	54.1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7.0	36.6	43.6	43.9	12.5	56.4	100.0
	중도	(580)	7.2	41.2	48.4	41.4	10.2	51.6	100.0
	보수적	(286)	10.4	37.4	47.8	41.2	11.0	52.2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11.9	37.7	49.5	37.8	12.6	50.5	100.0
	기독교	(243)	6.1	38.5	44.6	46.3	9.0	55.4	100.0
	천주교	(73)	11.7	46.6	58.3	34.9	6.8	41.7	100.0
	기타	(3)	34.6	18.5	53.1	46.9	0.0	46.9	100.0
	종교없음	(603)	6.6	39.6	46.2	42.5	11.3	53.8	100.0
	모름/무응답	(21)	0.0	23.9	23.9	52.9	23.2	76.1	100.0

표 4-2. 대북 정책별 통일 도움 정도
– ㉯ 학술인/예술인/체육인/종교인 교류 등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

문) ○○님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다소 도움이 된다	①+②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15.4	47.9	63.3	28.8	8.0	36.7	100.0
성별	남자	(612)	17.3	47.6	64.9	26.8	8.3	35.1	100.0
	여자	(588)	13.4	48.2	61.6	30.8	7.6	38.4	100.0
연령별	19~29세	(248)	10.1	49.2	59.3	31.2	9.5	40.7	100.0
	30대	(269)	14.6	45.1	59.7	33.1	7.2	40.3	100.0
	40대	(304)	18.2	45.4	63.6	28.1	8.3	36.4	100.0
	50대 이상	(378)	17.1	51.0	68.2	24.6	7.3	31.8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11.3	44.8	56.0	32.1	11.9	44.0	100.0
	고졸	(518)	16.0	47.0	63.0	29.7	7.3	37.0	100.0
	대재 이상	(591)	15.5	49.0	64.5	27.5	8.0	35.5	100.0
	모름/무응답	(2)	0.0	100.0	10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40.4	29.7	70.0	30.0	0.0	30.0	100.0
	자영업	(203)	18.6	50.7	69.3	21.5	9.1	30.7	100.0
	블루 칼라	(307)	11.5	42.5	54.0	35.7	10.3	46.0	100.0
	화이트칼라	(314)	17.1	51.3	68.4	24.4	7.3	31.6	100.0
	전업 주부	(230)	14.2	49.5	63.6	31.9	4.5	36.4	100.0
	무직/기타	(130)	14.6	47.0	61.7	29.1	9.2	38.3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8.6	51.0	59.7	34.5	5.9	40.3	100.0
	200~299만원	(227)	17.0	41.2	58.2	33.6	8.2	41.8	100.0
	300~399만원	(393)	14.0	47.2	61.2	29.4	9.4	38.8	100.0
	400만원 이상	(481)	17.2	51.0	68.1	24.8	7.1	31.9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18.2	46.4	64.5	28.0	7.5	35.5	100.0
	충청권	(120)	19.1	50.3	69.5	27.1	3.4	30.5	100.0
	호남권	(115)	16.8	62.4	79.3	15.3	5.4	20.7	100.0
	영남권	(309)	8.0	43.8	51.8	36.6	11.6	48.2	100.0
	강원	(35)	13.4	50.3	63.7	29.4	6.9	36.3	100.0
	제주	(13)	18.5	58.2	76.7	12.4	10.9	23.3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13.4	51.3	64.7	27.9	7.4	35.3	100.0
	중 · 소도시	(507)	18.5	43.9	62.4	28.5	9.1	37.6	100.0
	읍/면	(134)	11.8	48.9	60.6	33.1	6.2	39.4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18.0	46.8	64.8	25.7	9.4	35.2	100.0
	중도	(580)	14.9	48.6	63.4	30.1	6.4	36.6	100.0
	보수적	(286)	13.4	48.0	61.4	29.2	9.4	38.6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100.0
종교별	불교	(257)	16.6	41.0	57.6	33.0	9.4	42.4	100.0
	기독교	(243)	17.9	53.8	71.7	22.1	6.2	28.3	100.0
	천주교	(73)	19.5	44.8	64.2	30.6	5.2	35.8	100.0
	기타	(3)	34.6	47.1	81.8	18.2	0.0	18.2	100.0
	종교없음	(603)	13.6	48.7	62.3	29.4	8.2	37.7	100.0
	모름/무응답	(21)	4.8	51.2	56.0	29.1	14.9	44.0	100.0

표 4-3. 대북 정책별 통일 도움 정도 – ㉰ 금강산관광/개성 공단사업 등 남북한 경제협력

문) ○○님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다소 도움이 된다	①+②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③+④	계
			%	%	%	%	%	%	%
전체		(1,200)	12.6	49.6	62.2	30.8	7.0	37.8	100.0
성별	남자	(612)	13.2	49.4	62.6	28.9	8.5	37.4	100.0
	여자	(588)	11.9	49.9	61.8	32.9	5.3	38.2	100.0
연령별	19~29세	(248)	9.0	50.0	58.9	30.6	10.5	41.1	100.0
	30대	(269)	11.5	48.2	59.7	33.7	6.6	40.3	100.0
	40대	(304)	14.6	50.7	65.3	29.9	4.8	34.7	100.0
	50대 이상	(378)	14.1	49.5	63.6	29.8	6.6	36.4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6.4	48.5	54.9	38.0	7.1	45.1	100.0
	고졸	(518)	13.8	50.2	64.0	31.1	4.9	36.0	100.0
	대재 이상	(591)	12.3	49.4	61.7	29.5	8.8	38.3	100.0
	모름/무응답	(2)	60.1	0.0	60.1	39.9	0.0	39.9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34.4	44.1	78.5	6.4	15.1	21.5	100.0
	자영업	(203)	16.6	49.4	66.0	27.7	6.3	34.0	100.0
	블루 칼라	(307)	9.2	47.5	56.7	34.1	9.2	43.3	100.0
	화이트칼라	(314)	12.4	51.0	63.5	29.7	6.8	36.5	100.0
	전업 주부	(230)	12.2	51.1	63.3	33.9	2.8	36.7	100.0
	무직/기타	(130)	13.1	49.7	62.7	27.9	9.4	37.3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13.5	52.5	66.0	28.4	5.6	34.0	100.0
	200~299만원	(227)	14.6	47.4	62.0	29.9	8.2	38.0	100.0
	300~399만원	(393)	10.0	53.5	63.5	30.9	5.6	36.5	100.0
	400만원 이상	(481)	13.6	46.9	60.5	31.7	7.8	39.5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11.6	50.2	61.8	31.9	6.3	38.2	100.0
	충청권	(120)	17.8	51.1	68.9	27.7	3.3	31.1	100.0
	호남권	(115)	20.2	57.3	77.5	19.1	3.4	22.5	100.0
	영남권	(309)	9.1	45.1	54.2	34.9	10.9	45.8	100.0
	강원	(35)	13.5	50.3	63.9	31.7	4.4	36.1	100.0
	제주	(13)	20.4	47.8	68.2	17.3	14.5	31.8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12.4	51.5	63.9	31.5	4.6	36.1	100.0
	중 · 소도시	(507)	13.0	47.6	60.7	30.2	9.2	39.3	100.0
	읍/면	(134)	11.6	49.1	60.8	31.0	8.3	39.2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14.0	49.1	63.1	27.3	9.6	36.9	100.0
	중도	(580)	10.3	51.0	61.2	32.7	6.0	38.8	100.0
	보수적	(286)	15.7	47.2	63.0	31.2	5.8	37.0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15.0	46.1	61.1	29.8	9.1	38.9	100.0
	기독교	(243)	14.2	51.1	65.4	33.0	1.6	34.6	100.0
	천주교	(73)	11.7	53.2	64.9	26.5	8.6	35.1	100.0
	기타	(3)	34.6	18.5	53.1	46.9	0.0	46.9	100.0
	종교없음	(603)	11.2	50.0	61.3	31.0	7.8	38.7	100.0
	모름/무응답	(21)	3.5	53.7	57.2	28.0	14.9	42.8	100.0

표 4-4. 대북 정책별 통일 도움 정도 – ㉱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

문) ○○님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다소 도움이 된다	①+②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③+④	계
			%	%	%	%	%	%	%
전체		(1,200)	21.7	51.7	73.4	21.2	5.4	26.6	100.0
성별	남자	(612)	25.0	49.7	74.7	20.0	5.3	25.3	100.0
	여자	(588)	18.2	53.9	72.1	22.4	5.5	27.9	100.0
연령별	19~29세	(248)	17.7	49.0	66.7	25.3	8.0	33.3	100.0
	30대	(269)	22.9	49.2	72.1	23.5	4.4	27.9	100.0
	40대	(304)	22.4	51.1	73.4	20.8	5.8	26.6	100.0
	50대 이상	(378)	22.8	55.9	78.7	17.2	4.1	21.3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12.3	56.5	68.8	22.3	8.9	31.2	100.0
	고졸	(518)	20.0	56.3	76.3	20.1	3.6	23.7	100.0
	대재 이상	(591)	24.6	47.0	71.6	21.9	6.5	28.4	100.0
	모름/무응답	(2)	0.0	60.1	60.1	39.9	0.0	39.9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35.2	37.1	72.3	27.7	0.0	27.7	100.0
	자영업	(203)	26.9	49.7	76.6	18.0	5.4	23.4	100.0
	블루 칼라	(307)	17.0	53.9	71.0	22.7	6.3	29.0	100.0
	화이트칼라	(314)	23.1	53.1	76.2	18.2	5.6	23.8	100.0
	전업 주부	(230)	20.3	51.1	71.3	25.5	3.2	28.7	100.0
	무직/기타	(130)	22.0	49.0	71.0	21.8	7.2	29.0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19.6	58.1	77.7	21.1	1.2	22.3	100.0
	200~299만원	(227)	18.3	48.4	66.7	26.6	6.6	33.3	100.0
	300~399만원	(393)	19.3	55.6	74.9	19.7	5.4	25.1	100.0
	400만원 이상	(481)	25.7	48.8	74.5	19.9	5.6	25.5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24.7	51.9	76.6	19.5	3.9	23.4	100.0
	충청권	(120)	21.2	61.2	82.5	16.2	1.3	17.5	100.0
	호남권	(115)	30.1	51.9	82.0	13.9	4.1	18.0	100.0
	영남권	(309)	12.5	47.8	60.3	29.2	10.5	39.7	100.0
	강원	(35)	20.4	50.1	70.5	27.3	2.2	29.5	100.0
	제주	(13)	28.7	53.8	82.5	6.8	10.8	17.5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22.4	51.2	73.6	22.8	3.6	26.4	100.0
	중 · 소도시	(507)	21.1	53.1	74.2	18.1	7.7	25.8	100.0
	읍/면	(134)	20.7	49.1	69.8	26.1	4.1	30.2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23.9	47.5	71.4	21.1	7.5	28.6	100.0
	중도	(580)	19.2	56.4	75.6	20.4	4.0	24.4	100.0
	보수적	(286)	24.2	46.9	71.1	23.1	5.8	28.9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20.7	51.3	71.9	21.0	7.1	28.1	100.0
	기독교	(243)	27.4	50.1	77.5	20.2	2.3	22.5	100.0
	천주교	(73)	18.4	55.2	73.6	23.0	3.5	26.4	100.0
	기타	(3)	34.6	36.7	71.3	28.7	0.0	28.7	100.0
	종교없음	(603)	20.4	52.5	72.9	21.3	5.8	27.1	100.0
	모름/무응답	(21)	14.4	43.7	58.1	27.0	14.9	41.9	100.0

표 5-1. 대북 사안별 시급성 – ㉮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문)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시급하다	② 다소 시급하다	①+②	③ 별로 시급하지 않다	④ 전혀 시급하지 않다	③+④	모름/무응답	계
			%	%	%	%	%	%	%	%
전 체		(1,200)	13.4	52.6	66.0	30.3	3.6	33.9	0.1	100.0
성별	남자	(612)	16.0	51.7	67.7	27.9	4.1	32.0	0.3	100.0
	여자	(588)	10.8	53.5	64.2	32.8	2.9	35.8	0.0	100.0
연령별	19~29세	(248)	10.3	51.8	62.1	32.3	5.2	37.5	0.4	100.0
	30대	(269)	13.1	53.7	66.8	31.1	2.2	33.2	0.0	100.0
	40대	(304)	14.0	52.4	66.4	30.2	3.1	33.4	0.3	100.0
	50대 이상	(378)	15.3	52.5	67.7	28.4	3.8	32.3	0.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9.3	49.7	59.0	35.6	5.5	41.0	0.0	100.0
	고졸	(518)	10.5	54.5	65.1	32.3	2.6	34.9	0.0	100.0
	대재 이상	(591)	16.6	51.2	67.8	27.8	4.1	31.9	0.3	100.0
	모름/무응답	(2)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34.4	39.0	73.3	26.7	0.0	26.7	0.0	100.0
	자영업	(203)	14.3	53.4	67.7	26.8	5.5	32.3	0.0	100.0
	블루 칼라	(307)	8.4	51.5	59.9	33.9	6.2	40.1	0.0	100.0
	화이트칼라	(314)	19.4	50.9	70.3	27.3	2.2	29.4	0.2	100.0
	전업 주부	(230)	10.8	53.0	63.8	35.4	0.8	36.2	0.0	100.0
	무직/기타	(130)	11.9	58.2	70.1	26.1	3.1	29.2	0.7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14.4	53.0	67.3	30.1	2.6	32.7	0.0	100.0
	200~299만원	(227)	16.9	48.7	65.7	30.5	3.9	34.3	0.0	100.0
	300~399만원	(393)	9.7	52.7	62.4	33.6	3.8	37.4	0.2	100.0
	400만원 이상	(481)	14.6	54.2	68.8	27.6	3.4	31.0	0.2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13.2	52.9	66.1	30.6	3.1	33.7	0.2	100.0
	충청권	(120)	17.3	58.7	76.0	23.4	0.7	24.0	0.0	100.0
	호남권	(115)	16.4	55.6	72.0	24.6	2.7	27.3	0.7	100.0
	영남권	(309)	10.4	49.8	60.2	34.3	5.5	39.8	0.0	100.0
	강원	(35)	19.9	41.1	61.0	36.6	2.5	39.0	0.0	100.0
	제주	(13)	14.7	52.5	67.1	18.2	14.7	32.9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12.9	56.3	69.2	28.6	2.0	30.6	0.2	100.0
	중 · 소도시	(507)	13.9	52.1	66.0	29.6	4.2	33.8	0.2	100.0
	읍/면	(134)	13.5	38.9	52.4	40.1	7.5	47.6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15.5	57.6	73.1	23.0	3.6	26.6	0.2	100.0
	중도	(580)	10.6	52.2	62.9	33.5	3.4	37.0	0.2	100.0
	보수적	(286)	16.7	47.3	63.9	32.3	3.8	36.1	0.0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14.0	52.3	66.3	29.2	4.5	33.7	0.0	100.0
	기독교	(243)	18.9	50.9	69.8	28.1	2.0	30.2	0.0	100.0
	천주교	(73)	10.8	58.9	69.8	29.6	0.7	30.2	0.0	100.0
	기타	(3)	34.6	0.0	34.6	65.4	0.0	65.4	0.0	100.0
	종교없음	(603)	11.4	53.2	64.6	31.2	3.9	35.1	0.3	100.0
	모름/무응답	(21)	7.2	41.4	48.6	41.4	10.0	51.4	0.0	100.0

표 5-2. 대북 사안별 시급성 – ㉯ 북한의 개방과 개혁

문)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시급하다	② 다소 시급하다	①+②	③ 별로 시급하지 않다	④ 전혀 시급하지 않다	③+④	모름/무응답	계
			%	%	%	%	%	%	%	%
전 체		(1,200)	28.3	48.3	76.6	19.1	4.1	23.2	0.2	100.0
성별	남자	(612)	31.0	47.4	78.4	16.6	4.9	21.5	0.1	100.0
	여자	(588)	25.4	49.3	74.7	21.8	3.2	25.1	0.2	100.0
연령별	19~29세	(248)	25.0	49.8	74.7	19.4	5.3	24.7	0.5	100.0
	30대	(269)	26.0	48.5	74.5	22.1	3.4	25.5	0.0	100.0
	40대	(304)	29.8	49.0	78.7	16.8	4.3	21.0	0.3	100.0
	50대 이상	(378)	30.9	46.7	77.6	18.8	3.6	22.4	0.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24.0	37.2	61.2	29.1	9.7	38.8	0.0	100.0
	고졸	(518)	26.2	50.0	76.2	20.2	3.7	23.8	0.0	100.0
	대재 이상	(591)	30.9	48.6	79.4	16.6	3.6	20.2	0.3	100.0
	모름/무응답	(2)	0.0	39.9	39.9	60.1	0.0	60.1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19.9	80.1	100.0	0.0	0.0	0.0	0.0	100.0
	자영업	(203)	27.5	51.0	78.5	18.8	2.7	21.5	0.0	100.0
	블루 칼라	(307)	23.8	47.6	71.4	21.4	7.2	28.6	0.0	100.0
	화이트칼라	(314)	34.2	48.2	82.4	15.8	1.6	17.4	0.2	100.0
	전업 주부	(230)	27.1	49.4	76.5	19.8	3.7	23.5	0.0	100.0
	무직/기타	(130)	28.8	40.9	69.7	23.3	6.1	29.3	1.0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22.8	45.4	68.2	26.2	5.6	31.8	0.0	100.0
	200~299만원	(227)	31.5	39.4	70.9	24.5	4.6	29.1	0.0	100.0
	300~399만원	(393)	24.3	49.9	74.2	20.0	5.3	25.3	0.5	100.0
	400만원 이상	(481)	31.2	51.8	83.0	14.5	2.5	17.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30.8	45.4	76.1	18.0	5.7	23.7	0.2	100.0
	충청권	(120)	14.5	65.7	80.2	19.8	0.0	19.8	0.0	100.0
	호남권	(115)	35.2	51.4	86.5	12.1	0.7	12.8	0.7	100.0
	영남권	(309)	26.9	46.3	73.2	23.2	3.6	26.8	0.0	100.0
	강원	(35)	20.0	48.3	68.2	27.4	4.4	31.8	0.0	100.0
	제주	(13)	34.5	47.3	81.8	11.1	7.0	18.2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32.3	51.8	84.1	14.3	1.6	15.9	0.0	100.0
	중 · 소도시	(507)	26.5	43.7	70.2	22.7	6.7	29.4	0.4	100.0
	읍/면	(134)	17.9	51.3	69.2	26.1	4.7	30.8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34.5	48.6	83.1	14.8	1.5	16.3	0.6	100.0
	중도	(580)	23.4	49.9	73.3	21.1	5.5	26.7	0.0	100.0
	보수적	(286)	31.0	45.0	76.0	19.8	4.1	24.0	0.0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29.2	44.8	74.1	19.3	6.7	25.9	0.0	100.0
	기독교	(243)	28.7	51.1	79.7	16.9	3.4	20.3	0.0	100.0
	천주교	(73)	35.1	45.5	80.6	19.4	0.0	19.4	0.0	100.0
	기타	(3)	34.6	65.4	100.0	0.0	0.0	0.0	0.0	100.0
	종교없음	(603)	27.3	49.2	76.5	19.4	3.7	23.2	0.3	100.0
	모름/무응답	(21)	15.6	41.3	56.9	37.1	6.0	43.1	0.0	100.0

표 5-3. 대북 사안별 시급성 – ㉰ 군사적 긴장 해소

문)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시급하다	② 다소 시급하다	①+②	③ 별로 시급하지 않다	④ 전혀 시급하지 않다	③+④	모름/무응답	계
			%	%	%	%	%	%	%	%
전 체		(1,200)	41.1	37.3	78.4	16.8	4.7	21.6	0.1	100.0
성별	남자	(612)	42.0	36.2	78.2	16.4	5.3	21.7	0.1	100.0
	여자	(588)	40.2	38.4	78.6	17.3	4.1	21.4	0.0	100.0
연령별	19~29세	(248)	43.3	32.2	75.5	18.1	6.4	24.5	0.0	100.0
	30대	(269)	44.7	36.9	81.6	14.5	3.9	18.4	0.0	100.0
	40대	(304)	38.6	38.7	77.3	17.6	4.9	22.5	0.3	100.0
	50대 이상	(378)	39.1	39.7	78.9	17.1	4.1	21.1	0.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28.0	45.2	73.2	22.3	4.5	26.8	0.0	100.0
	고졸	(518)	39.1	38.4	77.5	18.4	4.0	22.5	0.0	100.0
	대재 이상	(591)	45.0	34.9	79.8	14.7	5.4	20.1	0.1	100.0
	모름/무응답	(2)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46.3	40.8	87.1	12.9	0.0	12.9	0.0	100.0
	자영업	(203)	41.6	38.4	80.0	15.3	4.7	20.0	0.0	100.0
	블루 칼라	(307)	37.0	37.9	74.9	18.2	6.9	25.1	0.0	100.0
	화이트칼라	(314)	47.7	34.5	82.2	15.0	2.5	17.5	0.2	100.0
	전업 주부	(230)	37.6	39.4	76.9	19.5	3.5	23.1	0.0	100.0
	무직/기타	(130)	39.9	36.2	76.1	16.1	7.7	23.9	0.0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29.0	45.4	74.4	20.7	4.9	25.6	0.0	100.0
	200~299만원	(227)	39.0	36.7	75.7	17.6	6.7	24.3	0.0	100.0
	300~399만원	(393)	39.7	38.8	78.5	17.3	4.1	21.3	0.2	100.0
	400만원 이상	(481)	45.7	34.7	80.4	15.3	4.3	19.6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45.9	30.3	76.1	18.5	5.4	23.9	0.0	100.0
	충청권	(120)	27.4	43.4	70.8	22.7	6.5	29.2	0.0	100.0
	호남권	(115)	45.6	43.9	89.5	8.3	1.4	9.8	0.7	100.0
	영남권	(309)	36.6	46.1	82.7	13.7	3.6	17.3	0.0	100.0
	강원	(35)	34.2	36.3	70.5	25.1	4.4	29.5	0.0	100.0
	제주	(13)	30.8	42.1	73.0	13.0	14.0	27.0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49.3	35.1	84.4	12.9	2.7	15.6	0.0	100.0
	중 · 소도시	(507)	35.8	37.7	73.5	20.0	6.3	26.3	0.2	100.0
	읍/면	(134)	26.9	44.5	71.4	21.4	7.2	28.6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50.0	31.9	81.9	14.4	3.4	17.9	0.2	100.0
	중도	(580)	34.9	40.5	75.4	19.0	5.6	24.6	0.0	100.0
	보수적	(286)	43.5	36.6	80.1	15.4	4.5	19.9	0.0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38.3	39.0	77.3	16.7	6.1	22.7	0.0	100.0
	기독교	(243)	44.1	34.5	78.6	18.0	3.4	21.4	0.0	100.0
	천주교	(73)	41.1	41.6	82.7	16.1	1.2	17.3	0.0	100.0
	기타	(3)	34.6	65.4	100.0	0.0	0.0	0.0	0.0	100.0
	종교없음	(603)	41.7	36.7	78.4	16.5	4.9	21.5	0.1	100.0
	모름/무응답	(21)	25.2	45.3	70.5	19.8	9.7	29.5	0.0	100.0

표 5-4 대북 사안별 시급성 – ㉱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

문)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시급하다	② 다소 시급하다	①+②	③ 별로 시급하지 않다	④ 전혀 시급하지 않다	③+④	모름/무응답	계
			%	%	%	%	%	%	%	%
전 체		(1,200)	3.5	18.0	21.5	48.6	29.8	78.3	0.2	100.0
성별	남자	(612)	3.7	16.5	20.2	48.3	31.2	79.4	0.3	100.0
	여자	(588)	3.4	19.5	22.9	48.9	28.3	77.1	0.0	100.0
연령별	19~29세	(248)	2.2	18.3	20.6	48.4	30.6	79.0	0.5	100.0
	30대	(269)	3.3	15.3	18.5	54.5	27.0	81.5	0.0	100.0
	40대	(304)	5.0	21.3	26.3	43.7	29.8	73.4	0.3	100.0
	50대 이상	(378)	3.3	17.1	20.4	48.4	31.1	79.6	0.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4.8	24.0	28.7	36.1	35.2	71.3	0.0	100.0
	고졸	(518)	3.7	17.5	21.2	47.3	31.5	78.8	0.0	100.0
	대재 이상	(591)	3.2	17.4	20.6	51.7	27.4	79.1	0.3	100.0
	모름/무응답	(2)	0.0	60.1	60.1	0.0	39.9	39.9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21.1	33.3	54.4	24.0	21.7	45.6	0.0	100.0
	자영업	(203)	3.3	16.9	20.3	48.0	31.8	79.7	0.0	100.0
	블루 칼라	(307)	3.4	16.4	19.8	46.9	33.3	80.2	0.0	100.0
	화이트칼라	(314)	4.6	17.8	22.4	50.9	26.5	77.4	0.2	100.0
	전업 주부	(230)	1.9	19.5	21.5	46.6	32.0	78.5	0.0	100.0
	무직/기타	(130)	2.3	19.6	21.9	53.9	23.3	77.1	1.0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4.7	24.3	29.0	42.8	28.2	71.0	0.0	100.0
	200~299만원	(227)	7.8	18.7	26.5	46.7	26.8	73.5	0.0	100.0
	300~399만원	(393)	2.9	18.9	21.8	50.6	27.3	78.0	0.2	100.0
	400만원 이상	(481)	1.8	15.6	17.4	48.9	33.4	82.4	0.3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3.5	15.7	19.1	50.3	30.4	80.7	0.2	100.0
	충청권	(120)	4.3	27.5	31.8	45.0	23.2	68.2	0.0	100.0
	호남권	(115)	6.7	25.7	32.4	47.1	19.9	66.9	0.7	100.0
	영남권	(309)	2.3	15.6	17.9	48.4	33.7	82.1	0.0	100.0
	강원	(35)	2.1	20.4	22.6	43.3	34.1	77.4	0.0	100.0
	제주	(13)	3.3	21.2	24.5	32.0	43.5	75.5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2.7	19.9	22.6	46.4	30.7	77.2	0.2	100.0
	중 · 소도시	(507)	4.6	15.5	20.1	49.9	29.8	79.8	0.2	100.0
	읍/면	(134)	2.8	19.6	22.4	52.3	25.3	77.6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4.3	18.6	23.0	49.3	27.6	76.8	0.2	100.0
	중도	(580)	3.1	18.9	22.0	50.3	27.7	78.0	0.0	100.0
	보수적	(286)	3.5	15.4	19.0	44.5	36.5	81.0	0.0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0.0	0.0	0.0	100.0	100.0
종교별	불교	(257)	5.1	18.4	23.5	49.1	27.5	76.5	0.0	100.0
	기독교	(243)	3.1	21.6	24.7	45.6	29.7	75.3	0.0	100.0
	천주교	(73)	2.7	13.2	16.0	48.4	35.7	84.0	0.0	100.0
	기타	(3)	0.0	0.0	0.0	18.5	81.5	100.0	0.0	100.0
	종교없음	(603)	3.3	16.6	19.9	49.1	30.6	79.8	0.3	100.0
	모름/무응답	(21)	0.0	29.0	29.0	65.0	6.0	71.0	0.0	100.0

표 5-5. 대북 사안별 시급성 – ㉲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문)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시급하다	② 다소 시급하다	①+②	③ 별로 시급하지 않다	④ 전혀 시급하지 않다	③+④	모름/무응답	계
			%	%	%	%	%	%	%	%
전 체		(1,200)	19.6	50.6	70.3	26.2	3.4	29.5	0.2	100.0
성별	남자	(612)	21.9	48.4	70.3	25.9	3.5	29.4	0.3	100.0
	여자	(588)	17.3	53.0	70.3	26.5	3.2	29.7	0.0	100.0
연령별	19~29세	(248)	16.1	52.0	68.2	27.6	3.7	31.3	0.5	100.0
	30대	(269)	22.7	45.8	68.5	29.7	1.8	31.5	0.0	100.0
	40대	(304)	18.0	54.1	72.0	23.3	4.4	27.7	0.3	100.0
	50대 이상	(378)	21.1	50.4	71.5	25.1	3.3	28.5	0.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11.6	56.2	67.8	26.6	5.6	32.2	0.0	100.0
	고졸	(518)	18.7	51.4	70.0	26.3	3.6	30.0	0.0	100.0
	대재 이상	(591)	21.6	49.4	71.0	25.9	2.8	28.7	0.3	100.0
	모름/무응답	(2)	39.9	0.0	39.9	60.1	0.0	60.1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30.0	58.4	88.4	11.6	0.0	11.6	0.0	100.0
	자영업	(203)	21.1	52.4	73.5	24.6	1.8	26.5	0.0	100.0
	블루 칼라	(307)	16.0	52.3	68.3	27.3	4.4	31.7	0.0	100.0
	화이트칼라	(314)	21.4	51.4	72.8	24.1	2.8	26.9	0.2	100.0
	전업 주부	(230)	16.3	48.6	65.0	31.3	3.8	35.0	0.0	100.0
	무직/기타	(130)	25.6	45.2	70.8	23.9	4.3	28.2	1.0	100.0
	모름/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19.8	60.0	79.9	15.3	4.8	20.1	0.0	100.0
	200~299만원	(227)	23.4	46.2	69.6	27.7	2.8	30.4	0.0	100.0
	300~399만원	(393)	15.7	53.2	69.0	27.3	3.6	30.8	0.2	100.0
	400만원 이상	(481)	21.0	48.7	69.7	26.9	3.2	30.0	0.3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18.9	50.2	69.1	27.2	3.4	30.7	0.2	100.0
	충청권	(120)	30.7	42.9	73.6	26.4	0.0	26.4	0.0	100.0
	호남권	(115)	29.0	61.6	90.6	6.7	2.0	8.8	0.7	100.0
	영남권	(309)	13.4	50.1	63.5	32.2	4.3	36.5	0.0	100.0
	강원	(35)	15.8	54.2	70.0	20.7	9.3	30.0	0.0	100.0
	제주	(13)	26.7	47.7	74.4	22.1	3.5	25.6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17.4	50.9	68.3	29.0	2.5	31.5	0.2	100.0
	중 · 소도시	(507)	23.0	50.4	73.4	22.8	3.7	26.5	0.2	100.0
	읍/면	(134)	16.6	50.4	67.0	27.5	5.5	33.0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25.0	46.4	71.4	25.1	3.3	28.3	0.2	100.0
	중도	(580)	17.2	51.5	68.7	28.1	3.2	31.3	0.0	100.0
	보수적	(286)	18.3	54.2	72.5	23.7	3.8	27.5	0.0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0.0	0.0	0.0	100.0	100.0
종교별	불교	(257)	16.0	54.0	70.0	26.7	3.3	30.0	0.0	100.0
	기독교	(243)	29.1	46.9	76.0	21.2	2.8	24.0	0.0	100.0
	천주교	(73)	20.3	51.2	71.5	28.5	0.0	28.5	0.0	100.0
	기타	(3)	34.6	18.2	52.9	18.5	28.7	47.1	0.0	100.0
	종교없음	(603)	17.4	51.1	68.5	27.4	3.8	31.2	0.3	100.0
	모름/무응답	(21)	15.7	40.8	56.5	37.5	6.0	43.5	0.0	100.0

표 5-6. 대북 사안별 시급성 – ㉯ 북한의 인권 개선

문)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시급하다	② 다소 시급하다	①+②	③ 별로 시급하지 않다	④ 전혀 시급하지 않다	③+④	모름/무응답	계
			%	%	%	%	%	%	%	%
전 체		(1,200)	33.2	48.5	81.6	16.2	2.1	18.3	0.1	100.0
성별	남자	(612)	35.0	44.3	79.4	17.9	2.6	20.5	0.1	100.0
	여자	(588)	31.2	52.8	84.0	14.4	1.6	16.0	0.0	100.0
연령별	19~29세	(248)	35.8	46.2	82.0	16.3	1.7	18.0	0.0	100.0
	30대	(269)	33.0	48.3	81.3	16.1	2.6	18.7	0.0	100.0
	40대	(304)	29.6	51.1	80.8	16.2	2.7	19.0	0.3	100.0
	50대 이상	(378)	34.4	47.9	82.2	16.2	1.6	17.8	0.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25.8	48.8	74.6	22.2	3.2	25.4	0.0	100.0
	고졸	(518)	30.3	51.9	82.2	16.2	1.6	17.8	0.0	100.0
	대재 이상	(591)	36.8	45.3	82.1	15.3	2.5	17.8	0.1	100.0
	모름/무응답	(2)	39.9	60.1	100.0	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24.3	49.4	73.7	26.3	0.0	26.3	0.0	100.0
	자영업	(203)	31.9	53.6	85.5	13.5	1.0	14.5	0.0	100.0
	블루 칼라	(307)	31.5	47.6	79.0	18.7	2.3	21.0	0.0	100.0
	화이트칼라	(314)	36.4	44.9	81.3	16.0	2.4	18.4	0.2	100.0
	전업 주부	(230)	28.9	54.3	83.2	14.7	2.1	16.8	0.0	100.0
	무직/기타	(130)	39.2	41.1	80.3	16.6	3.1	19.7	0.0	100.0
	모름/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24.3	55.2	79.5	16.5	4.0	20.5	0.0	100.0
	200~299만원	(227)	37.6	45.1	82.7	15.5	1.8	17.3	0.0	100.0
	300~399만원	(393)	31.6	50.0	81.6	16.8	1.4	18.2	0.2	100.0
	400만원 이상	(481)	34.1	47.4	81.5	16.0	2.4	18.5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34.2	49.0	83.2	14.4	2.4	16.8	0.0	100.0
	충청권	(120)	35.3	49.1	84.5	14.9	0.7	15.5	0.0	100.0
	호남권	(115)	43.6	47.5	91.1	7.6	0.7	8.2	0.7	100.0
	영남권	(309)	26.3	47.9	74.3	24.2	1.5	25.7	0.0	100.0
	강원	(35)	28.8	48.3	77.1	11.1	11.8	22.9	0.0	100.0
	제주	(13)	43.2	39.2	82.4	14.1	3.5	17.6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33.2	52.7	85.9	13.2	0.9	14.1	0.0	100.0
	중 · 소도시	(507)	35.8	44.9	80.6	16.4	2.8	19.2	0.2	100.0
	읍/면	(134)	23.1	44.2	67.3	28.1	4.6	32.7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37.3	45.9	83.2	15.2	1.4	16.6	0.2	100.0
	중도	(580)	29.0	51.6	80.5	17.1	2.4	19.5	0.0	100.0
	보수적	(286)	37.0	44.9	81.9	15.7	2.4	18.1	0.0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27.7	53.0	80.8	16.2	3.0	19.2	0.0	100.0
	기독교	(243)	42.0	42.9	84.9	14.2	0.9	15.1	0.0	100.0
	천주교	(73)	35.2	54.2	89.4	9.5	1.2	10.6	0.0	100.0
	기타	(3)	63.3	18.2	81.5	18.5	0.0	18.5	0.0	100.0
	종교없음	(603)	31.9	48.1	80.1	17.5	2.2	19.8	0.1	100.0
	모름/무응답	(21)	21.6	49.0	70.5	23.5	6.0	29.5	0.0	100.0

표 6.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문) ○○님은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같은 민족이니까	이산 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위해	남북간에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	북한 주민도 잘 살수 있도록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기타	계
			%	%	%	%	%	%	%
전 체		(1,200)	42.1	9.1	27.0	3.9	17.6	0.4	100.0
성별	남자	(612)	41.5	7.6	25.9	3.7	20.6	0.7	100.0
	여자	(588)	42.8	10.6	28.1	4.1	14.4	0.0	100.0
연령별	19~29세	(248)	39.1	9.0	31.8	3.6	15.5	0.9	100.0
	30대	(269)	37.6	10.2	26.3	3.8	22.0	0.2	100.0
	40대	(304)	43.5	9.0	26.6	3.5	17.2	0.3	100.0
	50대 이상	(378)	46.2	8.4	24.6	4.6	16.1	0.2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42.7	7.3	24.0	5.9	19.3	0.8	100.0
	고졸	(518)	46.2	9.8	26.6	3.3	14.1	0.0	100.0
	대재 이상	(591)	38.6	8.7	27.5	4.2	20.4	0.6	100.0
	모름/무응답	(2)	0.0	0.0	10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25.2	8.5	26.4	5.6	34.4	0.0	100.0
	자영업	(203)	43.6	7.1	26.7	4.0	18.6	0.0	100.0
	블루 칼라	(307)	40.4	11.5	25.7	3.5	18.5	0.4	100.0
	화이트칼라	(314)	39.3	7.9	28.0	5.0	19.6	0.2	100.0
	전업 주부	(230)	47.7	11.5	22.4	4.0	14.4	0.0	100.0
	무직/기타	(130)	43.2	5.1	35.6	1.7	12.8	1.7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10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51.3	9.9	16.8	1.9	19.4	0.7	100.0
	200~299만원	(227)	47.1	8.1	23.5	5.7	15.0	0.5	100.0
	300~399만원	(393)	43.9	11.0	24.3	4.1	16.4	0.2	100.0
	400만원 이상	(481)	36.4	7.8	32.9	3.3	19.4	0.3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38.4	9.4	29.0	4.3	18.6	0.4	100.0
	충청권	(120)	42.6	8.0	28.4	2.0	19.0	0.0	100.0
	호남권	(115)	50.4	4.4	24.8	6.0	13.1	1.3	100.0
	영남권	(309)	48.6	9.7	22.5	2.9	16.3	0.0	100.0
	강원	(35)	24.8	20.2	29.0	4.9	21.1	0.0	100.0
	제주	(13)	30.2	3.5	39.0	3.5	20.1	3.7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42.9	7.2	28.3	4.3	17.2	0.2	100.0
	중 · 소도시	(507)	39.8	12.7	25.5	4.0	17.6	0.4	100.0
	읍/면	(134)	47.9	3.2	26.8	1.9	19.2	0.9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36.7	7.6	31.3	4.1	20.0	0.2	100.0
	중도	(580)	41.6	10.2	27.0	3.8	16.8	0.6	100.0
	보수적	(286)	49.7	8.5	21.5	3.8	16.5	0.0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100.0	0.0	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40.6	10.8	29.6	3.2	15.1	0.7	100.0
	기독교	(243)	38.7	8.6	28.5	6.3	17.9	0.0	100.0
	천주교	(73)	35.5	15.4	17.6	7.5	24.1	0.0	100.0
	기타	(3)	100.0	0.0	0.0	0.0	0.0	0.0	100.0
	종교없음	(603)	44.6	8.0	26.5	2.4	18.2	0.4	100.0
	모름/무응답	(21)	45.7	3.6	27.7	17.0	6.0	0.0	100.0

표 7.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되는 정도

문) ○○님은 통일이 남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②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①+②	③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④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12.5	43.0	55.4	38.1	6.4	44.6	100.0
성별	남자	(612)	16.2	44.0	60.2	32.9	6.9	39.8	100.0
	여자	(588)	8.6	41.9	50.5	43.5	6.0	49.5	100.0
연령별	19~29세	(248)	10.6	36.0	46.6	44.7	8.8	53.4	100.0
	30대	(269)	14.2	36.5	50.7	41.5	7.8	49.3	100.0
	40대	(304)	10.4	49.7	60.0	33.0	7.0	40.0	100.0
	50대 이상	(378)	14.3	46.7	60.9	35.5	3.6	39.1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7.0	42.1	49.1	47.1	3.8	50.9	100.0
	고졸	(518)	11.1	44.4	55.5	38.8	5.6	44.5	100.0
	대재 이상	(591)	14.6	41.8	56.3	36.1	7.6	43.7	100.0
	모름/무응답	(2)	0.0	60.1	60.1	39.9	0.0	39.9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44.0	10.4	54.4	45.6	0.0	45.6	100.0
	자영업	(203)	10.4	42.7	53.1	39.7	7.2	46.9	100.0
	블루 칼라	(307)	10.5	43.6	54.1	37.6	8.2	45.9	100.0
	화이트칼라	(314)	18.1	42.7	60.7	33.6	5.7	39.3	100.0
	전업 주부	(230)	8.3	46.5	54.8	41.2	4.0	45.2	100.0
	무직/기타	(130)	10.7	39.6	50.3	41.6	8.1	49.7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13.7	40.6	54.3	43.0	2.7	45.7	100.0
	200~299만원	(227)	15.8	42.8	58.6	33.5	7.9	41.4	100.0
	300~399만원	(393)	11.5	43.6	55.1	37.5	7.5	44.9	100.0
	400만원 이상	(481)	11.5	43.0	54.5	39.8	5.7	45.5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10.2	44.3	54.5	40.9	4.6	45.5	100.0
	충청권	(120)	17.9	36.4	54.4	37.7	7.9	45.6	100.0
	호남권	(115)	18.8	47.9	66.7	30.6	2.7	33.3	100.0
	영남권	(309)	10.8	41.0	51.8	37.6	10.5	48.2	100.0
	강원	(35)	23.0	43.3	66.3	27.1	6.6	33.7	100.0
	제주	(13)	25.0	43.5	68.5	17.3	14.3	31.5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8.0	46.0	54.1	40.0	6.0	45.9	100.0
	중 · 소도시	(507)	17.0	39.9	56.9	36.4	6.6	43.1	100.0
	읍/면	(134)	14.1	41.6	55.7	36.7	7.6	44.3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15.4	42.6	58.0	34.5	7.5	42.0	100.0
	중도	(580)	9.7	43.9	53.6	39.9	6.4	46.4	100.0
	보수적	(286)	14.8	41.1	55.9	38.8	5.3	44.1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12.9	40.2	53.0	40.8	6.2	47.0	100.0
	기독교	(243)	11.8	48.7	60.4	33.8	5.8	39.6	100.0
	천주교	(73)	14.6	35.2	49.8	42.3	7.8	50.2	100.0
	기타	(3)	34.6	28.7	63.3	36.7	0.0	36.7	100.0
	종교없음	(603)	12.2	43.2	55.5	38.0	6.5	44.5	100.0
	모름/무응답	(21)	13.1	31.4	44.5	43.8	11.7	55.5	100.0

표 8.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문) ○○님은 통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②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①+②	③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④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3.4	23.3	26.7	56.4	16.9	73.3	100.0
성별	남자	(612)	5.1	26.9	32.0	51.4	16.6	68.0	100.0
	여자	(588)	1.6	19.5	21.1	61.6	17.3	78.9	100.0
연령별	19~29세	(248)	1.5	24.7	26.2	53.8	20.0	73.8	100.0
	30대	(269)	3.6	22.2	25.8	55.5	18.7	74.2	100.0
	40대	(304)	2.8	21.6	24.4	58.9	16.7	75.6	100.0
	50대 이상	(378)	5.0	24.4	29.4	56.7	13.9	70.6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5.0	18.9	23.9	58.3	17.8	76.1	100.0
	고졸	(518)	2.5	21.3	23.7	59.5	16.8	76.3	100.0
	대재 이상	(591)	4.0	25.5	29.6	53.6	16.9	70.4	100.0
	모름/무응답	(2)	0.0	60.1	60.1	0.0	39.9	39.9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12.6	30.6	43.3	49.1	7.6	56.7	100.0
	자영업	(203)	3.8	24.1	28.0	52.2	19.8	72.0	100.0
	블루 칼라	(307)	3.8	22.9	26.7	56.2	17.1	73.3	100.0
	화이트칼라	(314)	5.4	25.7	31.2	51.0	17.8	68.8	100.0
	전업 주부	(230)	0.5	18.0	18.5	69.3	12.2	81.5	100.0
	무직/기타	(130)	0.9	24.8	25.7	55.0	19.4	74.3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6.1	30.5	36.5	51.0	12.4	63.5	100.0
	200~299만원	(227)	5.5	24.8	30.3	50.9	18.8	69.7	100.0
	300~399만원	(393)	1.5	21.6	23.1	61.9	15.0	76.9	100.0
	400만원 이상	(481)	3.4	22.4	25.8	55.6	18.6	74.2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4.0	21.1	25.1	61.8	13.1	74.9	100.0
	충청권	(120)	4.6	26.1	30.7	53.7	15.6	69.3	100.0
	호남권	(115)	4.1	31.6	35.7	44.7	19.6	64.3	100.0
	영남권	(309)	1.6	22.0	23.6	52.4	23.9	76.4	100.0
	강원	(35)	0.0	30.0	30.0	56.6	13.3	70.0	100.0
	제주	(13)	7.6	35.6	43.2	28.4	28.3	56.8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1.5	21.6	23.1	59.6	17.2	76.9	100.0
	중 · 소도시	(507)	5.4	25.0	30.4	53.8	15.8	69.6	100.0
	읍/면	(134)	3.8	23.5	27.3	52.5	20.2	72.7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4.8	26.3	31.2	49.7	19.1	68.8	100.0
	중도	(580)	2.8	21.2	24.0	59.6	16.4	76.0	100.0
	보수적	(286)	3.1	23.9	27.0	57.5	15.5	73.0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100.0
종교별	불교	(257)	3.8	24.5	28.3	50.8	20.9	71.7	100.0
	기독교	(243)	4.7	24.6	29.3	58.3	12.4	70.7	100.0
	천주교	(73)	0.0	28.1	28.1	59.3	12.6	71.9	100.0
	기타	(3)	34.6	18.5	53.1	28.7	18.2	46.9	100.0
	종교없음	(603)	3.1	21.8	24.9	57.5	17.6	75.1	100.0
	모름/무응답	(21)	0.0	18.0	18.0	64.3	17.7	82.0	100.0

표 9-1.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 빈부격차

문)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크게 개선	② 약간 개선	①+②	③ 차이 없음	④ 약간 악화	⑤ 크게 악화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2.1	11.5	13.6	21.7	40.4	24.3	64.7	100.0
성별	남자	(612)	2.3	11.8	14.1	21.7	40.3	23.9	64.2	100.0
	여자	(588)	1.8	11.2	13.0	21.7	40.6	24.7	65.3	100.0
연령별	19~29세	(248)	2.4	8.8	11.2	20.6	37.4	30.7	68.1	100.0
	30대	(269)	1.9	11.2	13.1	23.9	38.5	24.5	63.0	100.0
	40대	(304)	1.0	12.5	13.6	24.9	40.1	21.5	61.6	100.0
	50대 이상	(378)	2.8	12.6	15.4	18.3	44.1	22.2	66.3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3.5	8.6	12.0	24.4	39.0	24.5	63.6	100.0
	고졸	(518)	1.8	11.8	13.6	19.6	44.0	22.8	66.8	100.0
	대재 이상	(591)	2.0	11.6	13.6	23.0	37.7	25.6	63.4	100.0
	모름/무응답	(2)	0.0	60.1	60.1	39.9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0.0	19.8	19.8	18.6	24.9	36.7	61.6	100.0
	자영업	(203)	2.7	10.2	12.9	21.5	39.5	26.2	65.7	100.0
	블루 칼라	(307)	2.0	13.0	15.1	21.7	35.9	27.3	63.2	100.0
	화이트칼라	(314)	1.6	14.7	16.3	21.8	39.6	22.3	61.8	100.0
	전업 주부	(230)	2.2	7.9	10.1	21.4	48.8	19.7	68.5	100.0
	무직/기타	(130)	2.2	7.7	9.9	22.2	42.0	25.9	68.0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10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3.0	13.3	16.3	20.9	42.7	20.1	62.8	100.0
	200~299만원	(227)	2.3	13.1	15.4	23.8	39.2	21.6	60.8	100.0
	300~399만원	(393)	1.8	10.9	12.6	22.4	40.4	24.6	65.0	100.0
	400만원 이상	(481)	2.0	10.9	12.9	20.3	40.6	26.2	66.8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1.0	11.2	12.2	23.7	43.0	21.1	64.1	100.0
	충청권	(120)	2.7	15.3	17.9	21.1	38.6	22.4	61.0	100.0
	호남권	(115)	6.1	16.2	22.3	16.5	39.2	22.1	61.3	100.0
	영남권	(309)	2.5	8.5	11.0	20.0	37.1	31.8	68.9	100.0
	강원	(35)	0.0	13.5	13.5	23.6	35.8	27.1	62.9	100.0
	제주	(13)	7.0	13.4	20.4	14.3	40.7	24.6	65.3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2.5	10.5	13.1	20.8	40.7	25.4	66.2	100.0
	중 · 소도시	(507)	1.6	12.9	14.4	22.9	41.7	20.9	62.7	100.0
	읍/면	(134)	2.0	10.4	12.4	21.1	34.4	32.1	66.5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1.6	12.4	14.0	22.8	41.3	21.9	63.2	100.0
	중도	(580)	1.7	10.6	12.2	23.9	38.0	26.0	63.9	100.0
	보수적	(286)	3.4	12.0	15.4	16.1	44.7	23.7	68.4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2.8	15.1	17.9	20.3	38.8	22.9	61.7	100.0
	기독교	(243)	2.2	14.4	16.6	23.6	39.3	20.5	59.8	100.0
	천주교	(73)	0.0	14.1	14.1	22.2	51.7	12.1	63.8	100.0
	기타	(3)	34.6	0.0	34.6	18.2	28.7	18.5	47.1	100.0
	종교없음	(603)	1.9	8.6	10.4	21.2	40.4	27.9	68.4	100.0
	모름/무응답	(21)	0.0	11.0	11.0	29.3	36.5	23.1	59.7	100.0

표 9-2.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 부동산투기

문)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크게 개선	② 약간 개선	①+②	③ 차이 없음	④ 약간 악화	⑤ 크게 악화	④+⑤	모름/무응답	계
			%	%	%	%	%	%	%	%	%
전 체		(1,200)	3.3	15.9	19.2	22.3	34.4	24.0	58.5	0.1	100.0
성별	남자	(612)	3.5	16.7	20.2	21.7	33.6	24.3	58.0	0.2	100.0
	여자	(588)	3.0	15.1	18.1	22.9	35.3	23.7	59.0	0.0	100.0
연령별	19~29세	(248)	2.4	14.6	17.0	22.5	31.2	29.3	60.5	0.0	100.0
	30대	(269)	4.0	14.3	18.3	21.6	33.9	26.2	60.1	0.0	100.0
	40대	(304)	2.4	15.4	17.8	21.4	39.1	21.3	60.4	0.3	100.0
	50대 이상	(378)	4.0	18.3	22.3	23.3	33.2	21.2	54.4	0.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3.8	10.4	14.2	31.6	39.5	14.8	54.2	0.0	100.0
	고졸	(518)	2.8	17.7	20.5	21.0	36.1	22.2	58.3	0.2	100.0
	대재 이상	(591)	3.6	15.0	18.6	22.1	32.2	27.1	59.3	0.0	100.0
	모름/무응답	(2)	0.0	60.1	60.1	0.0	39.9	0.0	39.9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0.0	14.9	14.9	19.3	30.1	29.5	59.7	6.2	100.0
	자영업	(203)	2.2	17.7	19.9	18.6	40.7	20.8	61.5	0.0	100.0
	블루 칼라	(307)	3.7	16.6	20.3	28.1	31.1	20.5	51.6	0.0	100.0
	화이트칼라	(314)	4.7	15.0	19.7	22.7	30.1	27.5	57.5	0.0	100.0
	전업 주부	(230)	2.5	14.6	17.1	18.2	40.8	23.9	64.7	0.0	100.0
	무직/기타	(130)	2.3	16.0	18.2	20.9	32.5	28.3	60.8	0.0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0.0	0.0	100.0	10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2.1	14.4	16.5	24.8	35.9	22.8	58.7	0.0	100.0
	200~299만원	(227)	4.3	18.2	22.5	23.0	34.5	20.0	54.4	0.0	100.0
	300~399만원	(393)	2.5	17.2	19.7	20.8	33.8	25.5	59.3	0.2	100.0
	400만원 이상	(481)	3.7	14.1	17.7	22.6	34.6	25.0	59.6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2.7	16.5	19.2	26.1	33.8	20.9	54.8	0.0	100.0
	충청권	(120)	2.0	11.6	13.6	24.8	37.7	23.2	60.8	0.8	100.0
	호남권	(115)	8.1	12.4	20.6	11.2	35.2	33.0	68.2	0.0	100.0
	영남권	(309)	3.1	17.6	20.8	19.0	32.9	27.4	60.3	0.0	100.0
	강원	(35)	4.7	17.9	22.6	18.2	38.9	20.3	59.2	0.0	100.0
	제주	(13)	0.0	12.7	12.7	9.3	49.6	28.4	77.9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3.5	18.5	22.0	17.2	36.5	24.3	60.8	0.0	100.0
	중 · 소도시	(507)	3.1	14.0	17.1	27.7	33.2	21.8	55.0	0.2	100.0
	읍/면	(134)	2.9	12.1	15.1	23.1	30.5	31.3	61.8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4.2	17.0	21.3	19.7	35.8	23.3	59.1	0.0	100.0
	중도	(580)	2.4	15.3	17.6	24.6	32.6	25.2	57.7	0.0	100.0
	보수적	(286)	4.0	16.0	19.9	20.2	36.8	22.7	59.5	0.3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2.6	18.2	20.8	25.9	33.3	20.1	53.3	0.0	100.0
	기독교	(243)	3.5	16.5	20.0	23.2	35.2	21.6	56.9	0.0	100.0
	천주교	(73)	4.4	17.3	21.7	24.2	33.4	20.7	54.1	0.0	100.0
	기타	(3)	0.0	0.0	0.0	81.5	18.5	0.0	18.5	0.0	100.0
	종교없음	(603)	3.5	14.6	18.1	20.2	34.7	26.8	61.5	0.2	100.0
	모름/무응답	(21)	0.0	14.6	14.6	13.5	36.7	35.2	71.9	0.0	100.0

표 9-3.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 실업문제

문)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크게 개선	② 약간 개선	①+②	③ 차이 없음	④ 약간 악화	⑤ 크게 악화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6.1	23.0	29.1	19.0	33.2	18.7	51.9	100.0
성별	남자	(612)	7.1	23.8	30.9	19.2	31.1	18.7	49.9	100.0
	여자	(588)	5.0	22.2	27.2	18.8	35.3	18.7	54.0	100.0
연령별	19~29세	(248)	6.5	20.8	27.3	18.5	31.7	22.5	54.2	100.0
	30대	(269)	5.1	22.9	28.0	20.4	33.5	18.1	51.6	100.0
	40대	(304)	5.8	24.2	30.0	21.4	30.9	17.7	48.6	100.0
	50대 이상	(378)	6.7	23.6	30.3	16.4	35.7	17.5	53.3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8.6	26.8	35.4	16.9	27.4	20.4	47.8	100.0
	고졸	(518)	5.1	20.9	26.0	18.0	36.9	19.1	56.0	100.0
	대재 이상	(591)	6.5	24.2	30.7	20.3	30.9	18.1	48.9	100.0
	모름/무응답	(2)	0.0	60.1	60.1	0.0	0.0	39.9	39.9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12.6	29.3	42.0	14.0	38.4	5.6	44.0	100.0
	자영업	(203)	4.5	24.0	28.5	19.0	36.9	15.6	52.5	100.0
	블루 칼라	(307)	5.7	18.4	24.1	19.7	33.3	22.9	56.2	100.0
	화이트칼라	(314)	7.4	27.6	35.0	17.2	30.4	17.4	47.8	100.0
	전업 주부	(230)	4.2	21.5	25.7	21.0	36.7	16.6	53.3	100.0
	무직/기타	(130)	8.9	23.5	32.3	19.1	27.0	21.6	48.6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0.0	0.0	100.0	10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11.6	25.1	36.7	9.5	34.0	19.8	53.8	100.0
	200~299만원	(227)	8.3	24.5	32.8	17.5	29.8	19.9	49.8	100.0
	300~399만원	(393)	6.1	22.7	28.8	18.9	31.6	20.7	52.3	100.0
	400만원 이상	(481)	3.8	22.2	26.0	21.8	35.8	16.4	52.2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3.6	25.1	28.7	20.4	35.4	15.6	51.0	100.0
	충청권	(120)	9.1	27.5	36.7	18.0	28.6	16.7	45.3	100.0
	호남권	(115)	13.8	20.5	34.3	21.2	27.3	17.2	44.5	100.0
	영남권	(309)	7.0	18.1	25.1	17.4	33.1	24.4	57.5	100.0
	강원	(35)	4.4	20.5	24.9	13.9	31.8	29.4	61.2	100.0
	제주	(13)	7.6	30.8	38.4	0.0	26.9	34.8	61.6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6.4	24.3	30.7	19.9	35.7	13.7	49.4	100.0
	중 · 소도시	(507)	6.0	22.2	28.2	18.1	31.0	22.7	53.7	100.0
	읍/면	(134)	4.8	20.8	25.6	18.9	30.7	24.8	55.5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6.1	25.2	31.3	16.3	37.4	15.0	52.4	100.0
	중도	(580)	5.5	22.7	28.1	20.3	32.8	18.8	51.6	100.0
	보수적	(286)	7.3	20.9	28.2	19.7	29.1	23.1	52.2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5.2	20.6	25.8	23.8	30.9	19.6	50.5	100.0
	기독교	(243)	6.9	27.0	34.0	16.7	34.3	15.0	49.3	100.0
	천주교	(73)	5.0	30.4	35.4	14.8	37.1	12.7	49.8	100.0
	기타	(3)	34.6	28.7	63.3	0.0	18.2	18.5	36.7	100.0
	종교없음	(603)	6.0	21.3	27.2	18.3	33.9	20.6	54.5	100.0
	모름/무응답	(21)	9.7	30.8	40.6	26.7	15.8	16.9	32.7	100.0

표 9-4.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 범죄문제

문)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크게 개선	② 약간 개선	①+②	③ 차이 없음	④ 약간 악화	⑤ 크게 악화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1.4	6.3	7.7	22.3	43.4	26.7	70.0	100.0
성별	남자	(612)	1.0	5.8	6.8	23.9	42.4	26.9	69.3	100.0
	여자	(588)	1.9	6.7	8.6	20.5	44.4	26.5	70.8	100.0
연령별	19~29세	(248)	0.8	4.4	5.2	17.9	46.2	30.7	77.0	100.0
	30대	(269)	1.2	6.0	7.2	25.0	41.3	26.5	67.8	100.0
	40대	(304)	1.6	6.1	7.7	23.9	43.9	24.4	68.3	100.0
	50대 이상	(378)	1.9	7.8	9.7	21.8	42.5	26.0	68.5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3.6	14.7	18.2	18.6	39.2	24.0	63.1	100.0
	고졸	(518)	1.3	5.1	6.4	22.3	43.0	28.2	71.3	100.0
	대재 이상	(591)	1.3	5.8	7.1	22.8	44.4	25.7	70.1	100.0
	모름/무응답	(2)	0.0	60.1	60.1	0.0	0.0	39.9	39.9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0.0	6.4	6.4	31.3	37.9	24.4	62.3	100.0
	자영업	(203)	1.5	6.6	8.2	21.2	43.2	27.4	70.6	100.0
	블루 칼라	(307)	2.0	7.2	9.1	23.8	41.5	25.6	67.1	100.0
	화이트칼라	(314)	0.6	6.5	7.1	24.8	42.2	25.9	68.1	100.0
	전업 주부	(230)	1.9	5.4	7.3	20.2	47.6	24.9	72.5	100.0
	무직/기타	(130)	1.5	4.4	5.8	16.9	44.1	33.2	77.3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0.0	0.0	100.0	10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2.1	12.5	14.5	19.9	37.0	28.5	65.6	100.0
	200~299만원	(227)	2.7	7.7	10.4	21.8	42.9	24.9	67.8	100.0
	300~399만원	(393)	1.1	6.4	7.5	21.5	41.4	29.7	71.0	100.0
	400만원 이상	(481)	1.0	4.2	5.1	23.6	46.5	24.7	71.2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0.8	5.7	6.5	21.5	48.4	23.5	72.0	100.0
	충청권	(120)	0.7	10.2	10.9	27.0	30.6	31.5	62.1	100.0
	호남권	(115)	3.4	6.3	9.7	29.1	41.7	19.5	61.2	100.0
	영남권	(309)	2.1	6.2	8.3	19.0	38.5	34.2	72.7	100.0
	강원	(35)	2.4	4.6	6.9	27.7	40.7	24.6	65.3	100.0
	제주	(13)	3.5	0.0	3.5	14.1	61.2	21.3	82.5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1.8	5.4	7.2	24.6	45.6	22.6	68.2	100.0
	중 · 소도시	(507)	1.0	7.3	8.3	19.3	42.8	29.6	72.4	100.0
	읍/면	(134)	1.5	5.9	7.5	23.4	36.1	33.0	69.1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0.8	8.0	8.9	24.6	44.7	21.8	66.5	100.0
	중도	(580)	1.3	5.0	6.3	21.9	44.3	27.5	71.8	100.0
	보수적	(286)	2.4	6.7	9.2	19.9	40.1	30.8	70.9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100.0	0.0	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1.9	9.4	11.3	23.7	42.0	23.0	65.0	100.0
	기독교	(243)	2.4	5.9	8.3	22.1	46.8	22.8	69.6	100.0
	천주교	(73)	0.0	4.5	4.5	24.9	47.6	23.0	70.6	100.0
	기타	(3)	0.0	34.6	34.6	28.7	18.2	18.5	36.7	100.0
	종교없음	(603)	1.1	5.2	6.2	20.9	42.3	30.6	72.9	100.0
	모름/무응답	(21)	0.0	6.0	6.0	37.0	38.7	18.3	57.0	100.0

표 9-5.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 지역갈등

문)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크게 개선	② 약간 개선	①+②	③ 차이 없음	④ 약간 악화	⑤ 크게 악화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2.7	9.2	11.9	20.7	40.8	26.6	67.4	100.0
성별	남자	(612)	2.8	9.4	12.2	22.5	39.1	26.2	65.3	100.0
	여자	(588)	2.5	9.0	11.5	18.9	42.6	27.0	69.6	100.0
연령별	19~29세	(248)	3.5	6.3	9.8	19.9	39.8	30.5	70.3	100.0
	30대	(269)	1.2	8.1	9.3	18.3	43.1	29.3	72.4	100.0
	40대	(304)	3.0	9.5	12.4	21.6	44.0	22.0	66.0	100.0
	50대 이상	(378)	3.0	11.6	14.6	22.3	37.3	25.8	63.1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7.0	11.7	18.6	24.8	31.7	24.8	56.5	100.0
	고졸	(518)	1.9	8.6	10.5	19.6	42.8	27.2	70.0	100.0
	대재 이상	(591)	2.8	9.4	12.1	21.0	40.4	26.5	66.8	100.0
	모름/무응답	(2)	0.0	0.0	0.0	39.9	60.1	0.0	60.1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6.2	0.0	6.2	49.5	24.8	19.5	44.3	100.0
	자영업	(203)	2.0	8.0	10.0	21.4	47.1	21.5	68.6	100.0
	블루 칼라	(307)	2.6	10.7	13.3	19.9	36.6	30.2	66.8	100.0
	화이트칼라	(314)	3.2	9.7	12.9	23.9	36.2	27.0	63.2	100.0
	전업 주부	(230)	1.9	7.4	9.3	16.7	47.3	26.7	73.9	100.0
	무직/기타	(130)	3.9	10.2	14.2	17.0	42.7	26.1	68.8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10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5.5	15.1	20.5	17.8	32.8	28.9	61.7	100.0
	200~299만원	(227)	2.6	11.7	14.3	18.8	42.6	24.4	66.9	100.0
	300~399만원	(393)	3.0	7.2	10.3	19.6	40.8	29.3	70.2	100.0
	400만원 이상	(481)	1.9	8.4	10.3	23.1	41.6	25.0	66.6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2.4	9.0	11.4	20.6	43.2	24.8	68.0	100.0
	충청권	(120)	2.1	14.0	16.2	25.1	37.2	21.5	58.7	100.0
	호남권	(115)	4.0	11.7	15.7	24.7	30.1	29.4	59.5	100.0
	영남권	(309)	3.0	6.9	9.8	18.7	42.0	29.5	71.5	100.0
	강원	(35)	2.4	9.4	11.7	16.1	36.1	36.0	72.2	100.0
	제주	(13)	3.5	3.9	7.4	10.6	40.4	41.7	82.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2.6	7.5	10.1	22.5	46.5	21.0	67.4	100.0
	중 · 소도시	(507)	2.8	10.6	13.4	18.9	35.3	32.3	67.7	100.0
	읍/면	(134)	2.5	11.0	13.5	20.0	37.8	28.6	66.5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1.8	13.1	15.0	21.6	41.3	22.2	63.4	100.0
	중도	(580)	2.0	7.0	8.9	22.9	39.9	28.3	68.2	100.0
	보수적	(286)	5.2	9.2	14.3	15.4	41.8	28.5	70.3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0.0	100.0	0.0	100.0	100.0
종교별	불교	(257)	3.8	12.0	15.8	19.6	39.6	25.0	64.6	100.0
	기독교	(243)	3.5	9.9	13.4	18.9	45.2	22.5	67.7	100.0
	천주교	(73)	1.7	10.5	12.2	20.1	44.6	23.1	67.7	100.0
	기타	(3)	0.0	63.3	63.3	0.0	18.2	18.5	36.7	100.0
	종교없음	(603)	1.9	6.9	8.9	22.0	39.8	29.3	69.1	100.0
	모름/무응답	(21)	4.9	20.6	25.5	22.3	22.7	29.4	52.1	100.0

표 9-6.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 이념갈등

문)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크게 개선	② 약간 개선	①+②	③ 차이 없음	④ 약간 악화	⑤ 크게 악화	④+⑤	모름/무응답	계
			%	%	%	%	%	%	%	%	%
전 체		(1,200)	3.7	9.6	13.3	16.4	42.4	27.9	70.2	0.1	100.0
성별	남자	(612)	4.3	10.5	14.8	16.5	41.2	27.3	68.5	0.2	100.0
	여자	(588)	3.2	8.6	11.8	16.3	43.5	28.4	71.9	0.0	100.0
연령별	19~29세	(248)	3.9	7.7	11.6	13.3	42.5	32.1	74.6	0.5	100.0
	30대	(269)	2.4	7.6	9.9	16.1	41.3	32.6	74.0	0.0	100.0
	40대	(304)	3.4	10.9	14.3	18.2	42.4	25.2	67.5	0.0	100.0
	50대 이상	(378)	4.9	11.2	16.1	17.1	43.0	23.8	66.8	0.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6.2	12.8	19.0	16.7	40.3	24.0	64.3	0.0	100.0
	고졸	(518)	2.5	8.9	11.4	16.7	44.0	27.8	71.9	0.0	100.0
	대재 이상	(591)	4.5	9.7	14.2	15.9	41.3	28.4	69.7	0.2	100.0
	모름/무응답	(2)	0.0	0.0	0.0	60.1	0.0	39.9	39.9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6.2	6.5	12.6	25.0	42.9	19.5	62.3	0.0	100.0
	자영업	(203)	3.1	11.5	14.6	16.4	41.8	27.1	69.0	0.0	100.0
	블루 칼라	(307)	3.5	9.5	13.0	14.2	41.6	31.1	72.7	0.0	100.0
	화이트칼라	(314)	4.6	10.2	14.8	17.8	39.2	28.2	67.4	0.0	100.0
	전업 주부	(230)	2.4	8.2	10.6	17.0	48.2	24.2	72.4	0.0	100.0
	무직/기타	(130)	5.4	7.9	13.3	15.5	42.3	27.9	70.3	1.0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5.7	12.9	18.6	13.7	38.6	29.1	67.8	0.0	100.0
	200~299만원	(227)	4.5	12.3	16.8	16.0	45.3	21.8	67.2	0.0	100.0
	300~399만원	(393)	3.3	8.3	11.6	16.8	41.6	30.1	71.6	0.0	100.0
	400만원 이상	(481)	3.4	8.6	12.0	16.8	42.4	28.6	71.0	0.3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3.6	8.8	12.3	16.7	44.0	26.7	70.7	0.2	100.0
	충청권	(120)	4.2	14.7	19.0	19.1	35.4	26.5	61.9	0.0	100.0
	호남권	(115)	4.9	9.2	14.1	15.1	35.4	35.4	70.8	0.0	100.0
	영남권	(309)	3.4	8.7	12.0	15.5	45.2	27.2	72.5	0.0	100.0
	강원	(35)	4.7	13.8	18.5	16.0	36.3	29.2	65.5	0.0	100.0
	제주	(13)	3.5	12.9	16.4	6.9	38.4	38.4	76.7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2.7	8.7	11.4	19.0	45.4	24.0	69.4	0.2	100.0
	중 · 소도시	(507)	4.9	10.5	15.4	12.7	39.1	32.7	71.8	0.0	100.0
	읍/면	(134)	3.8	9.6	13.4	19.1	41.7	25.8	67.5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4.8	11.9	16.6	18.1	38.9	26.4	65.2	0.0	100.0
	중도	(580)	3.3	7.7	11.0	14.9	45.3	28.8	74.1	0.0	100.0
	보수적	(286)	3.5	10.8	14.3	17.4	40.5	27.8	68.3	0.0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종교별	불교	(257)	4.6	9.5	14.1	21.3	42.0	22.6	64.6	0.0	100.0
	기독교	(243)	3.8	10.8	14.6	14.6	42.4	28.5	70.8	0.0	100.0
	천주교	(73)	6.3	5.5	11.7	14.0	50.5	23.8	74.3	0.0	100.0
	기타	(3)	34.6	28.7	63.3	0.0	18.2	18.5	36.7	0.0	100.0
	종교없음	(603)	2.7	9.1	11.9	15.2	42.3	30.5	72.8	0.2	100.0
	모름/무응답	(21)	9.7	20.6	30.4	22.3	22.7	24.6	47.3	0.0	100.0

표 10. 통일과 남한 민주주의의 관계

문) ○○님은 통일이 남한의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통일이 되어야 남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남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계
			%	%	%	%
전 체		(1,200)	27.0	23.3	49.7	100.0
성별	남자	(612)	25.5	25.4	49.1	100.0
	여자	(588)	28.6	21.1	50.3	100.0
연령별	19~29세	(248)	19.3	26.7	53.9	100.0
	30대	(269)	25.2	24.2	50.6	100.0
	40대	(304)	27.2	22.6	50.3	100.0
	50대 이상	(378)	33.3	20.9	45.8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38.0	21.3	40.7	100.0
	고졸	(518)	29.9	22.3	47.8	100.0
	대재 이상	(591)	22.9	24.3	52.7	100.0
	모름/무응답	(2)	0.0	60.1	39.9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45.0	12.3	42.6	100.0
	자영업	(203)	28.7	23.8	47.5	100.0
	블루 칼라	(307)	29.4	24.2	46.3	100.0
	화이트칼라	(314)	20.9	25.1	53.9	100.0
	전업 주부	(230)	30.8	19.8	49.4	100.0
	무직/기타	(130)	25.1	23.2	51.7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10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29.6	25.3	45.1	100.0
	200~299만원	(227)	32.6	24.6	42.8	100.0
	300~399만원	(393)	31.2	23.7	45.1	100.0
	400만원 이상	(481)	20.5	21.8	57.7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26.6	23.9	49.5	100.0
	충청권	(120)	27.4	19.2	53.5	100.0
	호남권	(115)	27.5	22.1	50.3	100.0
	영남권	(309)	27.7	24.1	48.1	100.0
	강원	(35)	27.6	22.4	49.9	100.0
	제주	(13)	20.8	22.7	56.5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21.1	23.9	54.9	100.0
	중 · 소도시	(507)	31.3	22.1	46.6	100.0
	읍/면	(134)	35.5	24.8	39.6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23.3	29.0	47.8	100.0
	중도	(580)	28.4	20.2	51.3	100.0
	보수적	(286)	28.7	22.5	48.8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27.0	26.3	46.7	100.0
	기독교	(243)	23.6	26.9	49.5	100.0
	천주교	(73)	26.7	19.9	53.3	100.0
	기타	(3)	63.3	0.0	36.7	100.0
	종교없음	(603)	28.5	21.2	50.3	100.0
	모름/무응답	(21)	19.8	19.2	61.0	100.0

표 11. 통일과 북한 민주주의의 관계

문) ○○님은 통일이 북한의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통일이 되어야 북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북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계
			%	%	%	%
전 체		(1,200)	39.2	27.4	33.4	100.0
성별	남자	(612)	41.8	23.6	34.6	100.0
	여자	(588)	36.5	31.4	32.1	100.0
연령별	19~29세	(248)	37.9	28.7	33.4	100.0
	30대	(269)	36.3	30.5	33.2	100.0
	40대	(304)	37.8	24.5	37.6	100.0
	50대 이상	(378)	43.1	26.7	30.1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40.3	24.3	35.5	100.0
	고졸	(518)	37.0	29.5	33.5	100.0
	대재 이상	(591)	40.8	26.1	33.0	100.0
	모름/무응답	(2)	60.1	0.0	39.9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43.1	7.4	49.4	100.0
	자영업	(203)	37.5	26.8	35.7	100.0
	블루 칼라	(307)	35.9	29.0	35.0	100.0
	화이트칼라	(314)	44.6	25.8	29.6	100.0
	전업 주부	(230)	35.3	33.0	31.7	100.0
	무직/기타	(130)	42.9	21.1	36.0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10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36.8	28.5	34.7	100.0
	200~299만원	(227)	42.5	24.5	33.0	100.0
	300~399만원	(393)	34.9	29.2	35.9	100.0
	400만원 이상	(481)	41.6	27.1	31.4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33.6	28.5	37.9	100.0
	충청권	(120)	43.0	12.4	44.6	100.0
	호남권	(115)	52.1	23.6	24.3	100.0
	영남권	(309)	42.9	32.5	24.6	100.0
	강원	(35)	52.2	27.5	20.4	100.0
	제주	(13)	29.8	26.5	43.7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36.6	31.1	32.3	100.0
	중 · 소도시	(507)	41.2	21.9	36.9	100.0
	읍/면	(134)	42.3	33.0	24.7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40.1	30.8	29.1	100.0
	중도	(580)	35.9	26.1	38.0	100.0
	보수적	(286)	45.1	25.8	29.1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44.5	26.0	29.5	100.0
	기독교	(243)	38.3	29.3	32.4	100.0
	천주교	(73)	37.5	27.3	35.2	100.0
	기타	(3)	81.5	18.5	0.0	100.0
	종교없음	(603)	37.5	27.5	35.0	100.0
	모름/무응답	(21)	33.1	22.8	44.1	100.0

표 12.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체제

문) ○○님은 통일 한국이 어떤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남한의 현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남한과 북한의 체제를 절충한다	통일 이후에도 남북한 두 체제를 각기 유지한다	통일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다	모름/무응답	계
			%	%	%	%	%	%
전 체		(1,200)	44.6	37.9	13.8	3.6	0.1	100.0
성별	남자	(612)	43.9	38.6	13.1	4.4	0.0	100.0
	여자	(588)	45.3	37.2	14.5	2.8	0.2	100.0
연령별	19~29세	(248)	44.6	39.9	12.5	3.0	0.0	100.0
	30대	(269)	49.2	35.0	12.5	3.3	0.0	100.0
	40대	(304)	39.3	39.2	17.3	3.7	0.4	100.0
	50대 이상	(378)	45.6	37.6	12.6	4.1	0.0	100.0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89)	49.1	39.8	6.9	4.3	0.0	100.0
	고졸	(518)	39.5	37.6	18.1	4.6	0.2	100.0
	대재 이상	(591)	48.6	37.9	10.9	2.6	0.0	100.0
	모름/무응답	(2)	0.0	60.1	39.9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38.2	32.3	18.2	11.3	0.0	100.0
	자영업	(203)	43.5	35.0	16.1	5.4	0.0	100.0
	블루 칼라	(307)	42.7	39.0	14.4	3.8	0.0	100.0
	화이트칼라	(314)	48.5	37.6	10.8	3.1	0.0	100.0
	전업 주부	(230)	44.2	39.3	14.5	1.5	0.5	100.0
	무직/기타	(130)	43.3	38.5	14.0	4.3	0.0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0.0	0.0	0.0	100.0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99)	42.8	43.7	9.4	4.1	0.0	100.0
	200~299만원	(227)	46.6	33.5	14.3	5.5	0.0	100.0
	300~399만원	(393)	42.3	38.1	16.0	3.3	0.3	100.0
	400만원 이상	(481)	45.9	38.7	12.5	2.9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39.0	42.8	15.9	2.1	0.2	100.0
	충청권	(120)	31.3	38.0	16.5	14.1	0.0	100.0
	호남권	(115)	38.4	44.2	13.1	4.3	0.0	100.0
	영남권	(309)	63.4	26.2	9.2	1.2	0.0	100.0
	강원	(35)	45.4	29.6	11.3	13.7	0.0	100.0
	제주	(13)	38.6	52.1	7.2	2.1	0.0	100.0
지역크기	대도시	(560)	44.0	42.2	11.2	2.4	0.2	100.0
	중 · 소도시	(507)	46.2	33.8	16.5	3.5	0.0	100.0
	읍/면	(134)	41.3	35.4	14.2	9.1	0.0	100.0
정치적성향	진보적	(333)	43.4	42.6	11.4	2.6	0.0	100.0
	중도	(580)	42.1	37.4	15.5	5.0	0.0	100.0
	보수적	(286)	51.3	33.3	12.9	2.1	0.4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0.0	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50.2	32.9	13.2	3.7	0.0	100.0
	기독교	(243)	41.4	41.8	13.5	2.8	0.5	100.0
	천주교	(73)	50.6	31.3	18.2	0.0	0.0	100.0
	기타	(3)	100.0	0.0	0.0	0.0	0.0	100.0
	종교없음	(603)	42.3	39.7	13.9	4.1	0.0	100.0
	모름/무응답	(21)	52.1	33.3	6.0	8.6	0.0	100.0

표 13. 현 정부의 통일대박론에 대한 공감 정도

문) ○○님은 현 정부의 통일대박론에 대하여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공감한다	② 약간 공감한다	①+②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⑤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④+⑤	모름/무응답	계
			%	%	%	%	%	%	%	%	%
전 체		(1,200)	3.6	27.4	31.0	40.7	21.9	6.2	28.0	0.3	100.0
성별	남자	(612)	4.9	27.5	32.4	41.1	20.0	6.2	26.3	0.2	100.0
	여자	(588)	2.3	27.3	29.6	40.2	23.8	6.1	29.9	0.3	100.0
연령별	19~29세	(248)	3.0	18.8	21.8	47.4	23.0	6.7	29.8	1.0	100.0
	30대	(269)	2.6	21.7	24.3	42.0	25.8	7.9	33.7	0.0	100.0
	40대	(304)	4.1	29.3	33.4	37.3	23.7	5.7	29.4	0.0	100.0
	50대 이상	(378)	4.4	35.6	40.0	38.0	16.8	5.0	21.8	0.2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4.0	29.5	33.6	40.9	19.9	5.6	25.6	0.0	100.0
	고졸	(518)	3.8	33.1	36.9	40.3	17.2	5.4	22.6	0.2	100.0
	대재 이상	(591)	3.4	22.0	25.4	41.1	26.2	7.0	33.1	0.4	100.0
	모름/무응답	(2)	0.0	60.1	60.1	0.0	39.9	0.0	39.9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12.6	13.7	26.3	11.7	26.8	35.3	62.0	0.0	100.0
	자영업	(203)	5.0	30.4	35.4	37.4	20.6	6.6	27.3	0.0	100.0
	블루 칼라	(307)	5.4	30.3	35.7	40.4	18.6	5.3	23.9	0.0	100.0
	화이트칼라	(314)	2.6	23.5	26.1	43.3	25.0	5.2	30.2	0.4	100.0
	전업 주부	(230)	2.5	30.6	33.1	37.1	24.2	5.2	29.4	0.3	100.0
	무직/기타	(130)	0.6	20.8	21.4	49.9	19.4	8.4	27.7	1.0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3.7	30.0	33.7	49.5	10.1	6.7	16.8	0.0	100.0
	200~299만원	(227)	5.5	29.8	35.3	41.9	17.1	5.7	22.8	0.0	100.0
	300~399만원	(393)	2.7	30.1	32.8	40.2	21.0	5.7	26.7	0.3	100.0
	400만원 이상	(481)	3.5	23.5	27.0	38.7	27.2	6.7	33.9	0.4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3.3	26.8	30.1	43.2	21.7	4.6	26.3	0.4	100.0
	충청권	(120)	2.1	18.4	20.5	51.7	19.2	8.0	27.1	0.7	100.0
	호남권	(115)	4.8	30.1	35.0	30.6	20.9	13.6	34.5	0.0	100.0
	영남권	(309)	2.9	30.3	33.3	36.5	24.4	5.8	30.3	0.0	100.0
	강원	(35)	11.7	31.3	43.0	32.3	20.4	4.3	24.7	0.0	100.0
	제주	(13)	16.2	35.1	51.3	30.8	7.0	10.9	17.9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2.8	28.0	30.8	37.0	25.3	6.4	31.6	0.6	100.0
	중 · 소도시	(507)	4.5	28.7	33.2	43.2	18.8	4.8	23.6	0.0	100.0
	읍/면	(134)	3.8	19.9	23.7	46.5	19.3	10.5	29.8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2.9	31.2	34.1	35.4	22.5	7.7	30.2	0.4	100.0
	중도	(580)	2.0	23.8	25.8	45.6	22.6	5.9	28.6	0.0	100.0
	보수적	(286)	7.7	30.4	38.1	36.9	19.8	4.9	24.7	0.3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종교별	불교	(257)	2.5	31.1	33.6	40.4	17.9	8.0	25.9	0.0	100.0
	기독교	(243)	3.1	26.8	29.9	39.8	24.8	4.7	29.5	0.8	100.0
	천주교	(73)	4.2	36.0	40.3	32.2	21.1	6.5	27.5	0.0	100.0
	기타	(3)	34.6	28.7	63.3	36.7	0.0	0.0	0.0	0.0	100.0
	종교없음	(603)	4.1	25.5	29.6	42.0	22.6	5.6	28.2	0.2	100.0
	모름/무응답	(21)	2.3	14.5	16.8	45.1	21.0	17.1	38.1	0.0	100.0

표 14. 남북한 관계에 대한 인식

문) ○○님은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지원 대상	협력 대상	경쟁 대상	경계 대상	적대 대상	계
			%	%	%	%	%	%
전 체		(1,200)	13.5	45.3	4.6	22.8	13.9	100.0
성별	남자	(612)	13.0	47.9	4.3	21.5	13.3	100.0
	여자	(588)	14.2	42.5	4.8	24.1	14.5	100.0
연령별	19~29세	(248)	11.1	41.5	6.3	25.8	15.3	100.0
	30대	(269)	12.6	46.7	5.4	20.9	14.4	100.0
	40대	(304)	15.5	47.9	3.6	23.2	9.9	100.0
	50대 이상	(378)	14.3	44.6	3.6	21.8	15.8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13.1	46.9	3.7	18.2	18.2	100.0
	고졸	(518)	14.1	46.3	4.4	23.3	11.9	100.0
	대재 이상	(591)	13.0	44.1	4.8	23.1	15.0	100.0
	모름/무응답	(2)	60.1	39.9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13.6	53.5	0.0	20.3	12.5	100.0
	자영업	(203)	15.8	38.8	5.1	22.4	18.0	100.0
	블루 칼라	(307)	15.7	47.4	3.9	19.4	13.5	100.0
	화이트칼라	(314)	11.5	47.1	3.7	25.7	12.1	100.0
	전업 주부	(230)	12.7	43.8	6.2	25.2	12.2	100.0
	무직/기타	(130)	11.5	47.9	5.0	19.6	15.9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14.2	50.7	7.6	18.9	8.6	100.0
	200~299만원	(227)	10.7	48.3	6.0	17.4	17.7	100.0
	300~399만원	(393)	17.5	42.5	4.6	23.1	12.2	100.0
	400만원 이상	(481)	11.5	44.9	3.2	25.8	14.5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12.7	46.0	5.2	24.4	11.6	100.0
	충청권	(120)	9.0	59.8	4.7	18.3	8.1	100.0
	호남권	(115)	20.2	55.7	2.1	11.7	10.3	100.0
	영남권	(309)	14.7	33.7	4.4	26.1	21.1	100.0
	강원	(35)	8.7	45.9	2.2	22.6	20.6	100.0
	제주	(13)	21.4	54.2	3.6	6.4	14.5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13.5	40.5	5.8	27.7	12.5	100.0
	중 · 소도시	(507)	15.4	52.6	3.6	15.4	13.0	100.0
	읍/면	(134)	6.7	37.3	3.1	30.1	22.8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10.6	46.0	4.0	29.1	10.3	100.0
	중도	(580)	14.1	47.9	4.8	19.1	14.1	100.0
	보수적	(286)	16.0	38.7	4.8	22.9	17.6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0.0	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13.1	42.0	6.1	22.3	16.4	100.0
	기독교	(243)	15.9	47.6	3.0	22.5	11.1	100.0
	천주교	(73)	14.1	60.1	0.0	18.3	7.5	100.0
	기타	(3)	0.0	81.5	18.5	0.0	0.0	100.0
	종교없음	(603)	12.8	43.8	5.2	23.6	14.6	100.0
	모름/무응답	(21)	13.4	41.9	0.0	26.5	18.3	100.0

표 15. 북한 정권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생각하는 정도

문) ○○님 통일을 함께 논의할 상대로 북한 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가능하다	② 어느 정도 가능하다	①+②	③ 별로 가능하지 않다	④ 전혀 가능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1.6	25.9	27.5	55.7	16.8	72.5	100.0
성별	남자	(612)	1.4	28.2	29.6	53.7	16.7	70.4	100.0
	여자	(588)	1.8	23.5	25.3	57.7	17.0	74.7	100.0
연령별	19~29세	(248)	1.5	23.3	24.8	58.2	17.0	75.2	100.0
	30대	(269)	0.6	27.4	28.1	55.7	16.2	71.9	100.0
	40대	(304)	2.5	25.1	27.6	57.1	15.4	72.4	100.0
	50대 이상	(378)	1.6	27.1	28.7	52.9	18.4	71.3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2.2	26.6	28.9	48.4	22.7	71.1	100.0
	고졸	(518)	1.3	23.5	24.7	58.4	16.8	75.3	100.0
	대재 이상	(591)	1.8	27.8	29.6	54.4	16.0	70.4	100.0
	모름/무응답	(2)	0.0	60.1	60.1	39.9	0.0	39.9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5.2	48.7	53.9	26.5	19.6	46.1	100.0
	자영업	(203)	1.4	26.5	27.9	52.0	20.0	72.1	100.0
	블루 칼라	(307)	1.3	23.3	24.6	55.4	20.0	75.4	100.0
	화이트칼라	(314)	2.5	28.7	31.1	56.5	12.3	68.9	100.0
	전업 주부	(230)	0.9	25.4	26.3	57.2	16.6	73.7	100.0
	무직/기타	(130)	1.2	22.8	23.9	60.6	15.4	76.1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3.2	29.2	32.5	52.7	14.8	67.5	100.0
	200~299만원	(227)	2.9	33.4	36.3	49.4	14.3	63.7	100.0
	300~399만원	(393)	0.6	26.1	26.7	55.0	18.3	73.3	100.0
	400만원 이상	(481)	1.4	21.5	22.9	59.8	17.3	77.1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1.6	21.6	23.2	59.4	17.4	76.8	100.0
	충청권	(120)	0.6	34.6	35.2	50.0	14.7	64.8	100.0
	호남권	(115)	2.7	35.9	38.7	46.4	15.0	61.3	100.0
	영남권	(309)	0.6	26.1	26.7	55.0	18.3	73.3	100.0
	강원	(35)	6.5	39.2	45.7	49.9	4.4	54.3	100.0
	제주	(13)	10.4	18.3	28.7	47.9	23.4	71.3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0.9	23.7	24.6	58.9	16.5	75.4	100.0
	중 · 소도시	(507)	1.8	29.1	30.9	51.7	17.4	69.1	100.0
	읍/면	(134)	3.8	22.8	26.6	57.3	16.1	73.4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2.3	31.1	33.3	46.5	20.2	66.7	100.0
	중도	(580)	0.9	23.7	24.6	60.8	14.5	75.4	100.0
	보수적	(286)	2.1	24.0	26.1	56.2	17.7	73.9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1.6	27.2	28.8	54.7	16.5	71.2	100.0
	기독교	(243)	1.0	27.2	28.3	56.3	15.5	71.7	100.0
	천주교	(73)	0.0	33.7	33.7	53.3	13.1	66.3	100.0
	기타	(3)	34.6	28.7	63.3	36.7	0.0	36.7	100.0
	종교없음	(603)	1.8	23.7	25.5	56.4	18.2	74.5	100.0
	모름/무응답	(21)	3.7	31.2	34.8	52.8	12.4	65.2	100.0

표 16. 북한 정권의 통일 희망 정도에 대한 인식

문) ○○님은 북한 정권이 얼마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원한다	② 다소 원한다	①+②	③ 별로 원하지 않는다	④ 전혀 원하지 않는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2.0	15.3	17.2	55.7	27.1	82.8	100.0
성별	남자	(612)	2.3	14.5	16.7	57.2	26.1	83.3	100.0
	여자	(588)	1.7	16.1	17.8	54.1	28.2	82.2	100.0
연령별	19~29세	(248)	1.6	14.9	16.5	58.8	24.7	83.5	100.0
	30대	(269)	2.0	12.7	14.7	56.5	28.8	85.3	100.0
	40대	(304)	1.4	15.3	16.6	55.2	28.2	83.4	100.0
	50대 이상	(378)	2.7	17.4	20.1	53.3	26.6	79.9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0.0	16.1	16.1	57.9	26.0	83.9	100.0
	고졸	(518)	1.9	16.2	18.1	57.6	24.3	81.9	100.0
	대재 이상	(591)	2.4	14.1	16.5	53.8	29.7	83.5	100.0
	모름/무응답	(2)	0.0	60.1	60.1	0.0	39.9	39.9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0.0	36.2	36.2	44.2	19.6	63.8	100.0
	자영업	(203)	2.0	15.4	17.4	49.4	33.2	82.6	100.0
	블루 칼라	(307)	1.6	15.2	16.7	62.2	21.1	83.3	100.0
	화이트칼라	(314)	2.5	12.2	14.7	55.9	29.4	85.3	100.0
	전업 주부	(230)	1.9	18.7	20.6	52.1	27.3	79.4	100.0
	무직/기타	(130)	2.2	14.2	16.4	57.6	26.0	83.6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0.0	100.0	10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3.1	18.2	21.3	60.2	18.5	78.7	100.0
	200~299만원	(227)	2.0	20.1	22.2	55.8	22.0	77.8	100.0
	300~399만원	(393)	1.7	13.6	15.3	58.4	26.3	84.7	100.0
	400만원 이상	(481)	2.0	13.7	15.7	52.4	31.9	84.3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2.0	14.3	16.3	56.5	27.2	83.7	100.0
	충청권	(120)	1.3	12.7	14.1	59.0	27.0	85.9	100.0
	호남권	(115)	4.6	26.3	30.9	46.4	22.6	69.1	100.0
	영남권	(309)	0.9	13.6	14.5	57.0	28.6	85.5	100.0
	강원	(35)	2.4	17.8	20.2	55.0	24.8	79.8	100.0
	제주	(13)	6.9	18.9	25.8	37.7	36.6	74.2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1.4	12.7	14.2	57.6	28.3	85.8	100.0
	중 · 소도시	(507)	2.5	18.0	20.5	53.4	26.1	79.5	100.0
	읍/면	(134)	2.3	15.6	17.9	56.3	25.8	82.1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2.2	15.7	18.0	51.0	31.1	82.0	100.0
	중도	(580)	1.4	15.4	16.7	59.2	24.1	83.3	100.0
	보수적	(286)	2.9	14.2	17.1	54.2	28.7	82.9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3.6	18.0	21.6	47.6	30.8	78.4	100.0
	기독교	(243)	2.4	18.4	20.8	53.3	25.9	79.2	100.0
	천주교	(73)	1.1	17.8	18.9	56.0	25.1	81.1	100.0
	기타	(3)	34.6	0.0	34.6	65.4	0.0	65.4	100.0
	종교없음	(603)	1.0	12.7	13.7	59.7	26.6	86.3	100.0
	모름/무응답	(21)	4.8	11.0	15.9	64.4	19.7	84.1	100.0

표 17. 북한 정권의 안정화에 대한 견해

문) ○○님은 '현재의 북한 정권은 앞으로 안정될 것이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사례수	① 매우 동의한다	② 대체로 동의한다	①+②	③ 그저 그렇다	④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0.4	12.0	12.4	32.2	40.7	14.7	55.4	100.0
성별	남자	(612)	0.5	11.1	11.6	31.7	42.4	14.2	56.7	100.0
	여자	(588)	0.4	12.9	13.3	32.6	38.9	15.2	54.1	100.0
연령별	19~29세	(248)	0.9	12.3	13.1	27.2	44.1	15.5	59.6	100.0
	30대	(269)	0.3	12.2	12.5	33.2	38.9	15.4	54.3	100.0
	40대	(304)	0.4	12.3	12.7	30.0	42.6	14.8	57.4	100.0
	50대 이상	(378)	0.3	11.4	11.7	36.5	38.2	13.6	51.8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0.0	12.8	12.8	35.6	38.7	12.9	51.6	100.0
	고졸	(518)	0.6	13.5	14.0	35.5	35.1	15.4	50.5	100.0
	대재 이상	(591)	0.4	10.4	10.8	28.9	46.0	14.3	60.3	100.0
	모름/무응답	(2)	0.0	60.1	60.1	0.0	0.0	39.9	39.9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0.0	13.7	13.7	42.7	23.7	19.9	43.6	100.0
	자영업	(203)	1.1	14.6	15.7	31.4	39.2	13.7	53.0	100.0
	블루 칼라	(307)	0.6	12.4	13.1	34.4	38.6	13.9	52.5	100.0
	화이트칼라	(314)	0.1	11.0	11.2	29.0	46.4	13.4	59.8	100.0
	전업 주부	(230)	0.3	12.5	12.8	34.0	36.9	16.2	53.2	100.0
	무직/기타	(130)	0.0	8.0	8.0	31.0	43.0	18.0	61.0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10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0.0	11.6	11.6	46.5	30.3	11.6	41.9	100.0
	200~299만원	(227)	0.4	17.6	18.0	32.3	36.5	13.3	49.8	100.0
	300~399만원	(393)	0.7	10.4	11.1	31.9	41.2	15.9	57.1	100.0
	400만원 이상	(481)	0.4	10.7	11.1	29.4	44.5	15.0	59.5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0.4	13.9	14.3	28.0	42.1	15.6	57.7	100.0
	충청권	(120)	0.0	11.7	11.7	41.0	32.9	14.4	47.3	100.0
	호남권	(115)	1.3	14.2	15.5	33.9	42.3	8.3	50.6	100.0
	영남권	(309)	0.0	9.0	9.0	36.5	40.6	13.9	54.5	100.0
	강원	(35)	0.0	2.1	2.1	34.6	40.7	22.5	63.2	100.0
	제주	(13)	10.2	3.7	13.9	20.9	35.9	29.4	65.3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0.3	15.1	15.4	31.0	40.6	13.0	53.6	100.0
	중 · 소도시	(507)	0.2	9.2	9.4	31.2	43.1	16.3	59.4	100.0
	읍/면	(134)	1.9	9.6	11.6	40.5	32.1	15.8	47.9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0.0	13.5	13.5	24.9	46.9	14.6	61.6	100.0
	중도	(580)	0.6	11.8	12.4	36.9	36.6	14.1	50.7	100.0
	보수적	(286)	0.7	10.1	10.8	31.2	41.9	16.1	58.0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0.7	7.9	8.6	39.9	41.1	10.4	51.5	100.0
	기독교	(243)	0.0	13.3	13.3	28.7	39.5	18.4	58.0	100.0
	천주교	(73)	0.0	11.4	11.4	29.7	45.9	12.9	58.8	100.0
	기타	(3)	0.0	34.6	34.6	18.5	46.9	0.0	46.9	100.0
	종교없음	(603)	0.6	13.5	14.1	30.6	40.3	15.0	55.3	100.0
	모름/무응답	(21)	0.0	0.0	0.0	33.4	41.9	24.7	66.6	100.0

표 18. 최근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인식

문) ○○님은 최근 몇 년간 북한이 얼마나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많이 변하고 있다	② 약간 변하고 있다	①+②	③ 별로 변하지 않고 있다	④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8.3	36.1	44.3	42.3	13.4	55.7	100.0
성별	남자	(612)	7.7	36.4	44.1	41.6	14.3	55.9	100.0
	여자	(588)	8.9	35.8	44.6	43.0	12.4	55.4	100.0
연령별	19~29세	(248)	7.3	36.2	43.6	42.3	14.2	56.4	100.0
	30대	(269)	7.7	37.2	44.9	41.0	14.1	55.1	100.0
	40대	(304)	8.7	36.8	45.6	40.2	14.3	54.4	100.0
	50대 이상	(378)	8.9	34.6	43.5	44.9	11.6	56.5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11.8	28.6	40.4	49.0	10.6	59.6	100.0
	고졸	(518)	8.3	38.0	46.3	42.3	11.4	53.7	100.0
	대재 이상	(591)	7.7	35.4	43.1	41.3	15.5	56.9	100.0
	모름/무응답	(2)	0.0	60.1	60.1	0.0	39.9	39.9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8.5	54.4	62.8	32.0	5.1	37.2	100.0
	자영업	(203)	9.1	40.1	49.3	37.3	13.4	50.7	100.0
	블루 칼라	(307)	7.1	35.5	42.6	43.1	14.3	57.4	100.0
	화이트칼라	(314)	9.5	34.8	44.2	43.0	12.8	55.8	100.0
	전업 주부	(230)	7.8	32.5	40.3	47.9	11.8	59.7	100.0
	무직/기타	(130)	7.6	37.8	45.5	37.9	16.6	54.5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6.7	30.3	37.0	50.1	12.9	63.0	100.0
	200~299만원	(227)	7.6	38.9	46.5	42.9	10.6	53.5	100.0
	300~399만원	(393)	8.6	35.3	43.9	43.1	12.9	56.1	100.0
	400만원 이상	(481)	8.6	36.5	45.1	39.7	15.2	54.9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10.0	32.8	42.8	43.2	14.0	57.2	100.0
	충청권	(120)	3.1	42.2	45.3	39.8	14.9	54.7	100.0
	호남권	(115)	12.8	48.2	61.1	28.3	10.6	38.9	100.0
	영남권	(309)	6.2	34.5	40.7	47.3	12.1	59.3	100.0
	강원	(35)	2.1	43.6	45.8	36.2	18.0	54.2	100.0
	제주	(13)	3.1	39.2	42.4	43.2	14.4	57.6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7.6	39.3	46.9	39.1	14.0	53.1	100.0
	중 · 소도시	(507)	9.3	33.5	42.8	45.4	11.8	57.2	100.0
	읍/면	(134)	7.3	32.2	39.5	43.5	16.9	60.5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7.7	38.4	46.1	41.5	12.4	53.9	100.0
	중도	(580)	8.0	35.5	43.5	42.0	14.5	56.5	100.0
	보수적	(286)	9.6	34.2	43.8	43.8	12.4	56.2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7.1	33.1	40.2	47.3	12.4	59.8	100.0
	기독교	(243)	10.4	39.0	49.4	37.2	13.4	50.6	100.0
	천주교	(73)	13.6	23.4	37.0	58.9	4.0	63.0	100.0
	기타	(3)	34.6	0.0	34.6	36.7	28.7	65.4	100.0
	종교없음	(603)	7.2	37.2	44.4	40.8	14.9	55.6	100.0
	모름/무응답	(21)	7.3	54.6	61.9	24.4	13.8	38.1	100.0

표 19. 향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예측

문) ○○님은 앞으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많이 있다	② 약간 있다	①+②	③ 별로 없다	④ 전혀 없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18.8	56.1	74.9	22.7	2.4	25.1	100.0
성별	남자	(612)	19.1	54.0	73.1	23.7	3.2	26.9	100.0
	여자	(588)	18.4	58.3	76.8	21.6	1.6	23.2	100.0
연령별	19~29세	(248)	25.0	55.8	80.8	16.6	2.6	19.2	100.0
	30대	(269)	19.2	56.7	75.9	22.7	1.4	24.1	100.0
	40대	(304)	15.3	57.3	72.7	23.4	3.9	27.3	100.0
	50대 이상	(378)	17.1	54.9	72.0	26.1	1.8	28.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8.7	55.3	64.0	30.3	5.7	36.0	100.0
	고졸	(518)	15.2	57.6	72.8	25.6	1.6	27.2	100.0
	대재 이상	(591)	23.4	54.9	78.3	19.1	2.6	21.7	100.0
	모름/무응답	(2)	39.9	60.1	10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13.9	45.8	59.7	34.1	6.2	40.3	100.0
	자영업	(203)	12.7	57.5	70.2	26.1	3.7	29.8	100.0
	블루 칼라	(307)	18.7	56.0	74.8	22.8	2.4	25.2	100.0
	화이트칼라	(314)	21.4	55.6	76.9	20.6	2.4	23.1	100.0
	전업 주부	(230)	15.2	60.1	75.3	23.9	0.8	24.7	100.0
	무직/기타	(130)	29.2	49.1	78.4	18.8	2.9	21.6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15.9	55.7	71.6	23.7	4.7	28.4	100.0
	200~299만원	(227)	16.8	55.0	71.8	26.1	2.1	28.2	100.0
	300~399만원	(393)	16.4	58.9	75.3	22.7	2.0	24.7	100.0
	400만원 이상	(481)	22.3	54.5	76.8	20.8	2.4	23.2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21.2	57.8	78.9	19.6	1.5	21.1	100.0
	충청권	(120)	16.5	58.1	74.6	21.8	3.6	25.4	100.0
	호남권	(115)	21.9	54.0	76.0	20.0	4.1	24.0	100.0
	영남권	(309)	13.7	52.7	66.4	30.4	3.1	33.6	100.0
	강원	(35)	16.0	63.7	79.6	20.4	0.0	20.4	100.0
	제주	(13)	28.5	40.2	68.7	21.3	10.0	31.3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22.0	53.1	75.1	23.3	1.7	24.9	100.0
	중 · 소도시	(507)	14.2	61.6	75.8	21.6	2.6	24.2	100.0
	읍/면	(134)	22.8	48.1	70.9	24.3	4.8	29.1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18.1	53.1	71.2	25.6	3.2	28.8	100.0
	중도	(580)	18.4	58.1	76.5	21.8	1.7	23.5	100.0
	보수적	(286)	20.4	55.5	75.9	21.2	2.9	24.1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18.4	51.6	70.0	29.3	0.7	30.0	100.0
	기독교	(243)	21.2	58.7	79.9	17.8	2.3	20.1	100.0
	천주교	(73)	23.3	52.5	75.8	24.2	0.0	24.2	100.0
	기타	(3)	0.0	53.1	53.1	46.9	0.0	46.9	100.0
	종교없음	(603)	17.1	58.5	75.5	20.9	3.6	24.5	100.0
	모름/무응답	(21)	31.9	25.5	57.4	42.6	0.0	42.6	100.0

표 20-1. 북한 사회 인지도 – ㉮ 선군정치

문)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사례수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 있다	전혀 모른다	계
			%	%	%	%	%
전 체		(1,200)	3.6	16.4	37.6	42.3	100.0
성별	남자	(612)	6.1	21.0	42.0	31.0	100.0
	여자	(588)	1.1	11.7	33.1	54.1	100.0
연령별	19~29세	(248)	5.1	13.1	26.3	55.4	100.0
	30대	(269)	2.5	17.2	39.2	41.1	100.0
	40대	(304)	3.0	13.5	43.7	39.7	100.0
	50대 이상	(378)	4.0	20.5	39.0	36.6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1.8	15.3	36.4	46.5	100.0
	고졸	(518)	1.8	12.2	41.0	45.0	100.0
	대재 이상	(591)	5.6	20.4	34.9	39.1	100.0
	모름/무응답	(2)	0.0	0.0	0.0	10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18.6	14.9	29.9	36.6	100.0
	자영업	(203)	5.0	18.4	37.8	38.9	100.0
	블루 칼라	(307)	2.5	15.3	40.2	42.0	100.0
	화이트칼라	(314)	3.9	20.9	40.8	34.5	100.0
	전업 주부	(230)	0.9	7.8	37.3	54.1	100.0
	무직/기타	(130)	6.8	21.0	25.3	46.9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10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4.0	14.4	40.4	41.2	100.0
	200~299만원	(227)	3.8	16.9	35.5	43.8	100.0
	300~399만원	(393)	2.8	13.7	36.6	46.8	100.0
	400만원 이상	(481)	4.2	18.8	38.8	38.2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3.0	17.6	42.1	37.3	100.0
	충청권	(120)	6.2	14.8	21.9	57.1	100.0
	호남권	(115)	6.6	13.4	40.2	39.9	100.0
	영남권	(309)	2.2	15.0	34.0	48.9	100.0
	강원	(35)	11.1	20.9	42.6	25.3	100.0
	제주	(13)	0.0	26.2	25.2	48.5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1.4	14.2	42.4	41.9	100.0
	중 · 소도시	(507)	4.7	19.0	32.5	43.8	100.0
	읍/면	(134)	8.9	16.1	36.8	38.2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3.3	21.9	32.8	42.0	100.0
	중도	(580)	3.0	13.5	40.0	43.5	100.0
	보수적	(286)	5.4	16.1	38.6	39.9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100.0	100.0
종교별	불교	(257)	2.2	21.4	35.6	40.8	100.0
	기독교	(243)	3.0	15.7	39.5	41.7	100.0
	천주교	(73)	6.9	21.8	35.2	36.2	100.0
	기타	(3)	34.6	18.5	46.9	0.0	100.0
	종교없음	(603)	3.9	14.2	37.8	44.1	100.0
	모름/무응답	(21)	6.0	9.8	41.2	43.0	100.0

표 20-2. 북한 사회 인지도 – ㉯ 주체사상

문)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사례수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 있다	전혀 모른다	계
			%	%	%	%	%
전 체		(1,200)	6.9	24.0	46.6	22.5	100.0
성별	남자	(612)	10.0	27.9	46.1	16.1	100.0
	여자	(588)	3.8	19.9	47.1	29.3	100.0
연령별	19~29세	(248)	7.4	17.1	40.1	35.4	100.0
	30대	(269)	5.0	23.3	47.3	24.5	100.0
	40대	(304)	6.6	26.6	48.7	18.2	100.0
	50대 이상	(378)	8.3	27.0	48.6	16.2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4.2	14.2	48.7	32.9	100.0
	고졸	(518)	4.7	22.8	51.6	20.9	100.0
	대재 이상	(591)	9.3	26.5	41.6	22.5	100.0
	모름/무응답	(2)	0.0	0.0	10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18.6	19.1	57.1	5.2	100.0
	자영업	(203)	8.1	24.1	51.7	16.0	100.0
	블루 칼라	(307)	3.5	22.6	52.6	21.3	100.0
	화이트칼라	(314)	12.4	28.6	39.6	19.5	100.0
	전업 주부	(230)	1.9	20.8	48.7	28.6	100.0
	무직/기타	(130)	7.4	22.4	36.3	33.9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10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7.4	21.4	45.4	25.8	100.0
	200~299만원	(227)	6.6	25.9	41.7	25.8	100.0
	300~399만원	(393)	5.2	22.2	48.7	24.0	100.0
	400만원 이상	(481)	8.3	25.1	47.4	19.2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7.7	23.6	49.2	19.5	100.0
	충청권	(120)	6.8	22.7	37.2	33.3	100.0
	호남권	(115)	7.6	23.2	49.4	19.8	100.0
	영남권	(309)	4.2	23.7	45.4	26.7	100.0
	강원	(35)	13.3	34.8	42.7	9.2	100.0
	제주	(13)	10.9	40.3	21.9	26.8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5.1	22.7	49.1	23.1	100.0
	중 · 소도시	(507)	8.5	24.1	46.0	21.5	100.0
	읍/면	(134)	8.6	29.1	38.1	24.2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8.4	28.3	43.1	20.2	100.0
	중도	(580)	5.7	21.8	48.1	24.3	100.0
	보수적	(286)	7.6	23.5	47.6	21.3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100.0	100.0
종교별	불교	(257)	5.5	27.8	42.1	24.6	100.0
	기독교	(243)	9.5	23.6	46.0	20.9	100.0
	천주교	(73)	11.2	29.5	50.9	8.3	100.0
	기타	(3)	34.6	36.7	0.0	28.7	100.0
	종교없음	(603)	5.9	22.3	48.7	23.1	100.0
	모름/무응답	(21)	6.0	8.3	36.7	49.0	100.0

표 20-3. 북한 사회 인지도 – ㉰ 천리마운동

문)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사례수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 있다	전혀 모른다	계
			%	%	%	%	%
전 체		(1,200)	5.6	22.5	43.8	28.0	100.0
성별	남자	(612)	7.4	27.3	42.8	22.5	100.0
	여자	(588)	3.8	17.5	44.9	33.9	100.0
연령별	19~29세	(248)	4.8	16.6	33.0	45.6	100.0
	30대	(269)	1.6	19.2	48.3	30.9	100.0
	40대	(304)	6.4	26.5	42.8	24.3	100.0
	50대 이상	(378)	8.5	25.6	48.5	17.4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4.0	15.1	51.1	29.8	100.0
	고졸	(518)	4.6	22.8	46.6	26.1	100.0
	대재 이상	(591)	6.8	23.5	40.1	29.6	100.0
	모름/무응답	(2)	0.0	0.0	10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12.2	33.0	42.0	12.9	100.0
	자영업	(203)	8.6	27.3	43.3	20.8	100.0
	블루 칼라	(307)	4.1	20.3	47.4	28.2	100.0
	화이트칼라	(314)	8.1	25.2	42.3	24.3	100.0
	전업 주부	(230)	1.4	17.9	48.0	32.6	100.0
	무직/기타	(130)	5.4	20.6	32.7	41.2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10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7.1	21.3	42.6	29.0	100.0
	200~299만원	(227)	5.1	24.4	38.7	31.8	100.0
	300~399만원	(393)	4.0	20.9	46.5	28.6	100.0
	400만원 이상	(481)	6.9	23.2	44.3	25.6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6.6	22.2	45.2	25.9	100.0
	충청권	(120)	6.1	19.2	39.7	34.9	100.0
	호남권	(115)	4.8	19.5	42.9	32.9	100.0
	영남권	(309)	3.3	24.9	43.2	28.6	100.0
	강원	(35)	9.3	22.5	47.4	20.7	100.0
	제주	(13)	6.8	35.7	31.0	26.5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2.9	22.3	45.3	29.6	100.0
	중 · 소도시	(507)	8.2	21.5	43.1	27.1	100.0
	읍/면	(134)	7.3	27.2	40.4	25.1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6.7	25.0	40.3	27.9	100.0
	중도	(580)	4.7	20.6	44.9	29.9	100.0
	보수적	(286)	6.3	23.6	45.9	24.1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100.0	100.0
종교별	불교	(257)	5.4	30.5	40.1	24.0	100.0
	기독교	(243)	7.7	22.0	43.3	26.9	100.0
	천주교	(73)	11.5	21.4	46.5	20.6	100.0
	기타	(3)	34.6	18.5	46.9	0.0	100.0
	종교없음	(603)	4.2	19.6	45.8	30.4	100.0
	모름/무응답	(21)	0.0	18.0	29.1	52.9	100.0

표 20-4. 북한 사회 인지도 – ㉱ 고난의 행군

문)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사례수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 있다	전혀 모른다	모름/무응답	계
			%	%	%	%	%	%
전 체		(1,200)	4.9	17.1	38.0	39.9	0.1	100.0
성별	남자	(612)	6.6	22.0	36.0	35.2	0.2	100.0
	여자	(588)	3.1	12.1	40.0	44.8	0.0	100.0
연령별	19~29세	(248)	3.7	13.3	26.2	56.3	0.5	100.0
	30대	(269)	2.3	15.3	40.4	42.0	0.0	100.0
	40대	(304)	5.8	18.0	41.2	35.1	0.0	100.0
	50대 이상	(378)	6.8	20.3	41.4	31.5	0.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7.2	15.2	30.2	47.4	0.0	100.0
	고졸	(518)	4.3	16.9	41.2	37.7	0.0	100.0
	대재 이상	(591)	5.1	17.7	36.3	40.6	0.2	100.0
	모름/무응답	(2)	0.0	0.0	39.9	60.1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27.1	12.9	43.0	17.0	0.0	100.0
	자영업	(203)	6.6	19.4	42.1	31.8	0.0	100.0
	블루 칼라	(307)	4.9	19.0	37.9	38.2	0.0	100.0
	화이트칼라	(314)	4.7	19.3	37.4	38.3	0.4	100.0
	전업 주부	(230)	1.3	12.1	42.2	44.4	0.0	100.0
	무직/기타	(130)	6.8	13.4	24.5	55.3	0.0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10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11.0	10.4	33.9	44.7	0.0	100.0
	200~299만원	(227)	5.7	20.3	32.0	42.1	0.0	100.0
	300~399만원	(393)	3.6	16.2	38.5	41.6	0.0	100.0
	400만원 이상	(481)	4.3	17.8	41.2	36.5	0.3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4.8	15.7	40.9	38.5	0.2	100.0
	충청권	(120)	5.6	20.8	34.2	39.4	0.0	100.0
	호남권	(115)	5.9	14.8	33.1	46.1	0.0	100.0
	영남권	(309)	2.9	18.2	37.2	41.7	0.0	100.0
	강원	(35)	16.0	22.6	29.7	31.7	0.0	100.0
	제주	(13)	10.4	32.2	20.0	37.4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3.4	14.6	40.5	41.5	0.0	100.0
	중 · 소도시	(507)	6.3	18.6	36.0	38.9	0.2	100.0
	읍/면	(134)	6.1	22.1	34.7	37.2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5.7	20.4	37.7	36.3	0.0	100.0
	중도	(580)	3.2	15.1	38.9	42.7	0.2	100.0
	보수적	(286)	7.5	17.7	36.5	38.3	0.0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5.9	21.7	36.7	35.2	0.5	100.0
	기독교	(243)	5.7	14.8	39.0	40.4	0.0	100.0
	천주교	(73)	6.7	20.6	39.9	32.8	0.0	100.0
	기타	(3)	34.6	18.5	18.2	28.7	0.0	100.0
	종교없음	(603)	3.9	15.7	38.5	42.0	0.0	100.0
	모름/무응답	(21)	3.7	18.3	20.4	57.7	0.0	100.0

표 20-5. 북한 사회 인지도 – ㉲ 장마당

문)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사례수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 있다	전혀 모른다	계
			%	%	%	%	%
전 체		(1,200)	2.8	13.6	31.1	52.5	100.0
성별	남자	(612)	3.7	15.8	33.3	47.2	100.0
	여자	(588)	1.8	11.3	28.9	58.0	100.0
연령별	19~29세	(248)	3.5	10.4	21.0	65.0	100.0
	30대	(269)	1.9	12.1	32.5	53.5	100.0
	40대	(304)	2.1	12.6	36.2	49.0	100.0
	50대 이상	(378)	3.5	17.5	32.7	46.4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2.6	17.0	24.7	55.6	100.0
	고졸	(518)	1.9	14.6	31.4	52.2	100.0
	대재 이상	(591)	3.5	12.3	32.0	52.2	100.0
	모름/무응답	(2)	0.0	0.0	0.0	10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4.9	8.5	44.0	42.7	100.0
	자영업	(203)	3.9	14.5	36.3	45.2	100.0
	블루 칼라	(307)	1.5	18.7	25.8	54.0	100.0
	화이트칼라	(314)	3.7	10.5	35.2	50.5	100.0
	전업 주부	(230)	0.9	10.2	32.9	56.0	100.0
	무직/기타	(130)	4.7	14.1	20.7	60.5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10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4.7	12.5	22.3	60.5	100.0
	200~299만원	(227)	3.0	15.8	24.3	56.9	100.0
	300~399만원	(393)	2.4	13.8	31.8	52.1	100.0
	400만원 이상	(481)	2.6	12.6	35.6	49.1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2.6	9.8	33.6	53.9	100.0
	충청권	(120)	3.4	17.3	23.8	55.5	100.0
	호남권	(115)	4.9	9.3	20.5	65.3	100.0
	영남권	(309)	1.9	20.1	32.2	45.7	100.0
	강원	(35)	0.0	23.1	40.3	36.6	100.0
	제주	(13)	11.0	15.0	26.5	47.4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1.2	11.4	35.4	52.0	100.0
	중 · 소도시	(507)	3.8	16.3	27.1	52.8	100.0
	읍/면	(134)	5.8	12.2	28.7	53.3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4.2	14.6	33.2	48.0	100.0
	중도	(580)	1.6	11.7	30.4	56.3	100.0
	보수적	(286)	3.5	16.2	30.4	49.9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100.0	100.0
종교별	불교	(257)	3.4	18.2	29.4	49.0	100.0
	기독교	(243)	3.5	9.3	31.5	55.7	100.0
	천주교	(73)	2.8	15.5	30.5	51.3	100.0
	기타	(3)	34.6	18.5	46.9	0.0	100.0
	종교없음	(603)	2.2	13.4	32.1	52.4	100.0
	모름/무응답	(21)	0.0	6.0	21.8	72.2	100.0

표 20-6. 북한 사회 인지도 – ㉥ 아리랑 축전

문)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사례수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 있다	전혀 모른다	계
			%	%	%	%	%
전 체		(1,200)	4.1	16.7	39.8	39.3	100.0
성별	남자	(612)	5.1	20.4	39.9	34.7	100.0
	여자	(588)	3.0	13.0	39.8	44.2	100.0
연령별	19~29세	(248)	3.3	10.2	33.4	53.2	100.0
	30대	(269)	2.8	14.7	43.2	39.3	100.0
	40대	(304)	4.1	18.1	44.6	33.2	100.0
	50대 이상	(378)	5.5	21.5	37.8	35.2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3.2	18.5	34.8	43.6	100.0
	고졸	(518)	3.9	16.4	40.5	39.2	100.0
	대재 이상	(591)	4.4	16.8	40.0	38.8	100.0
	모름/무응답	(2)	0.0	0.0	39.9	60.1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12.2	21.4	40.0	26.5	100.0
	자영업	(203)	6.9	22.6	38.0	32.5	100.0
	블루 칼라	(307)	2.0	19.5	36.2	42.2	100.0
	화이트칼라	(314)	4.8	18.5	42.8	33.9	100.0
	전업 주부	(230)	1.6	8.9	47.1	42.4	100.0
	무직/기타	(130)	6.3	10.3	31.3	52.1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10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6.9	19.0	35.6	38.6	100.0
	200~299만원	(227)	3.9	16.9	37.7	41.5	100.0
	300~399만원	(393)	3.8	16.2	39.7	40.4	100.0
	400만원 이상	(481)	3.9	16.7	41.8	37.6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3.7	13.4	43.4	39.6	100.0
	충청권	(120)	7.9	25.5	34.5	32.1	100.0
	호남권	(115)	6.9	18.2	29.5	45.4	100.0
	영남권	(309)	2.2	19.0	37.7	41.1	100.0
	강원	(35)	4.6	22.8	47.4	25.3	100.0
	제주	(13)	7.3	11.5	44.3	37.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2.7	13.7	46.6	37.0	100.0
	중 · 소도시	(507)	4.5	21.1	33.5	40.9	100.0
	읍/면	(134)	8.1	13.0	35.5	43.4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4.5	20.9	37.9	36.7	100.0
	중도	(580)	2.8	14.9	40.2	42.2	100.0
	보수적	(286)	6.3	15.8	41.5	36.3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100.0	100.0
종교별	불교	(257)	4.2	19.4	38.5	37.9	100.0
	기독교	(243)	5.1	14.2	43.9	36.8	100.0
	천주교	(73)	2.2	27.1	42.1	28.6	100.0
	기타	(3)	34.6	18.5	18.2	28.7	100.0
	종교없음	(603)	3.9	15.6	39.0	41.5	100.0
	모름/무응답	(21)	0.0	10.0	26.5	63.5	100.0

표 21-1. 북한 관련 경험 유무 – ㉮ 북한이나 금강산, 개성공단 등을 방문

문) ○○님은 북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사례수	있다	없다	계
			%	%	%
전 체		(1,200)	2.8	97.2	100.0
성별	남자	(612)	3.5	96.5	100.0
	여자	(588)	2.0	98.0	100.0
연령별	19~29세	(248)	1.4	98.6	100.0
	30대	(269)	2.5	97.5	100.0
	40대	(304)	2.6	97.4	100.0
	50대 이상	(378)	4.0	96.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4.4	95.6	100.0
	고졸	(518)	1.6	98.4	100.0
	대재 이상	(591)	3.5	96.5	100.0
	모름/무응답	(2)	39.9	60.1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11.7	88.3	100.0
	자영업	(203)	2.5	97.5	100.0
	블루 칼라	(307)	1.1	98.9	100.0
	화이트칼라	(314)	4.6	95.4	100.0
	전업 주부	(230)	1.9	98.1	100.0
	무직/기타	(130)	3.4	96.6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1.3	98.7	100.0
	200~299만원	(227)	3.1	96.9	100.0
	300~399만원	(393)	1.5	98.5	100.0
	400만원 이상	(481)	4.0	96.0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1.6	98.4	100.0
	충청권	(120)	2.8	97.2	100.0
	호남권	(115)	7.0	93.0	100.0
	영남권	(309)	3.2	96.8	100.0
	강원	(35)	6.9	93.1	100.0
	제주	(13)	2.1	97.9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1.0	99.0	100.0
	중 · 소도시	(507)	4.8	95.2	100.0
	읍/면	(134)	2.6	97.4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3.0	97.0	100.0
	중도	(580)	2.1	97.9	100.0
	보수적	(286)	3.9	96.1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종교별	불교	(257)	3.5	96.5	100.0
	기독교	(243)	4.0	96.0	100.0
	천주교	(73)	7.9	92.1	100.0
	기타	(3)	0.0	100.0	100.0
	종교없음	(603)	1.3	98.7	100.0
	모름/무응답	(21)	4.9	95.1	100.0

표 21-2. 북한 관련 경험 유무 – ㉯ 탈북자(새터민)과 만나 본 적

문) ○○님은 북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사례수	있다	없다	계
			%	%	%
전 체		(1,200)	13.9	86.1	100.0
성별	남자	(612)	15.7	84.3	100.0
	여자	(588)	12.0	88.0	100.0
연령별	19~29세	(248)	14.9	85.1	100.0
	30대	(269)	13.5	86.5	100.0
	40대	(304)	14.0	86.0	100.0
	50대 이상	(378)	13.4	86.6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10.8	89.2	100.0
	고졸	(518)	13.3	86.7	100.0
	대재 이상	(591)	15.0	85.0	100.0
	모름/무응답	(2)	0.0	10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5.2	94.8	100.0
	자영업	(203)	18.9	81.1	100.0
	블루 칼라	(307)	13.7	86.3	100.0
	화이트칼라	(314)	13.3	86.7	100.0
	전업 주부	(230)	8.2	91.8	100.0
	무직/기타	(130)	19.1	80.9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16.6	83.4	100.0
	200~299만원	(227)	14.9	85.1	100.0
	300~399만원	(393)	12.5	87.5	100.0
	400만원 이상	(481)	14.0	86.0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10.4	89.6	100.0
	충청권	(120)	20.3	79.7	100.0
	호남권	(115)	17.2	82.8	100.0
	영남권	(309)	16.1	83.9	100.0
	강원	(35)	22.7	77.3	100.0
	제주	(13)	16.3	83.7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11.4	88.6	100.0
	중 · 소도시	(507)	15.6	84.4	100.0
	읍/면	(134)	17.8	82.2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13.0	87.0	100.0
	중도	(580)	12.7	87.3	100.0
	보수적	(286)	17.4	82.6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종교별	불교	(257)	14.6	85.4	100.0
	기독교	(243)	11.6	88.4	100.0
	천주교	(73)	18.7	81.3	100.0
	기타	(3)	34.6	65.4	100.0
	종교없음	(603)	13.4	86.6	100.0
	모름/무응답	(21)	29.0	71.0	100.0

표 21-3. 북한 관련 경험 유무 – ㉰ 북한 방송이나 영화, 소설 등을 접해 본 적

문) ○○님은 북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사례수	있다	없다	계
			%	%	%
전 체		(1,200)	31.5	68.5	100.0
성별	남자	(612)	32.7	67.3	100.0
	여자	(588)	30.1	69.9	100.0
연령별	19~29세	(248)	33.5	66.5	100.0
	30대	(269)	25.4	74.6	100.0
	40대	(304)	33.9	66.1	100.0
	50대 이상	(378)	32.5	67.5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24.5	75.5	100.0
	고졸	(518)	33.0	67.0	100.0
	대재 이상	(591)	30.9	69.1	100.0
	모름/무응답	(2)	10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24.9	75.1	100.0
	자영업	(203)	31.8	68.2	100.0
	블루 칼라	(307)	30.4	69.6	100.0
	화이트칼라	(314)	33.0	67.0	100.0
	전업 주부	(230)	27.1	72.9	100.0
	무직/기타	(130)	38.3	61.7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25.4	74.6	100.0
	200~299만원	(227)	28.0	72.0	100.0
	300~399만원	(393)	31.1	68.9	100.0
	400만원 이상	(481)	34.7	65.3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31.4	68.6	100.0
	충청권	(120)	36.2	63.8	100.0
	호남권	(115)	29.6	70.4	100.0
	영남권	(309)	30.7	69.3	100.0
	강원	(35)	24.8	75.2	100.0
	제주	(13)	41.7	58.3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30.4	69.6	100.0
	중 · 소도시	(507)	34.1	65.9	100.0
	읍/면	(134)	26.1	73.9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36.5	63.5	100.0
	중도	(580)	29.1	70.9	100.0
	보수적	(286)	30.6	69.4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종교별	불교	(257)	29.5	70.5	100.0
	기독교	(243)	35.4	64.6	100.0
	천주교	(73)	32.6	67.4	100.0
	기타	(3)	34.6	65.4	100.0
	종교없음	(603)	31.0	69.0	100.0
	모름/무응답	(21)	19.8	80.2	100.0

표 21-4. 북한 관련 경험 유무 – ㉱ 대북지원 활동이나 단체에 참여해 본 적

문) ○○님은 북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사례수	있다	없다	계
			%	%	%
전 체		(1,200)	0.9	99.1	100.0
성별	남자	(612)	1.0	99.0	100.0
	여자	(588)	0.7	99.3	100.0
연령별	19~29세	(248)	0.3	99.7	100.0
	30대	(269)	0.2	99.8	100.0
	40대	(304)	1.1	98.9	100.0
	50대 이상	(378)	1.4	98.6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3.9	96.1	100.0
	고졸	(518)	0.5	99.5	100.0
	대재 이상	(591)	0.8	99.2	100.0
	모름/무응답	(2)	0.0	10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5.2	94.8	100.0
	자영업	(203)	1.6	98.4	100.0
	블루 칼라	(307)	0.8	99.2	100.0
	화이트칼라	(314)	1.0	99.0	100.0
	전업 주부	(230)	0.3	99.7	100.0
	무직/기타	(130)	0.0	100.0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1.7	98.3	100.0
	200~299만원	(227)	0.8	99.2	100.0
	300~399만원	(393)	0.6	99.4	100.0
	400만원 이상	(481)	1.0	99.0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0.4	99.6	100.0
	충청권	(120)	2.2	97.8	100.0
	호남권	(115)	0.7	99.3	100.0
	영남권	(309)	0.9	99.1	100.0
	강원	(35)	2.1	97.9	100.0
	제주	(13)	7.0	93.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0.4	99.6	100.0
	중 · 소도시	(507)	1.1	98.9	100.0
	읍/면	(134)	1.9	98.1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1.2	98.8	100.0
	중도	(580)	0.6	99.4	100.0
	보수적	(286)	1.0	99.0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종교별	불교	(257)	1.4	98.6	100.0
	기독교	(243)	0.8	99.2	100.0
	천주교	(73)	0.0	100.0	100.0
	기타	(3)	0.0	100.0	100.0
	종교없음	(603)	0.8	99.2	100.0
	모름/무응답	(21)	0.0	100.0	100.0

표 22-1.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 선거방식

문)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많이 있다	② 다소 있다	①+②	③ 별로 없다	④ 전혀 없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60.3	30.7	91.0	7.8	1.2	9.0	100.0
성별	남자	(612)	62.6	28.1	90.8	8.0	1.2	9.2	100.0
	여자	(588)	57.9	33.3	91.2	7.6	1.1	8.8	100.0
연령별	19~29세	(248)	57.2	32.3	89.4	9.1	1.5	10.6	100.0
	30대	(269)	60.4	30.1	90.5	8.7	0.8	9.5	100.0
	40대	(304)	59.3	30.4	89.7	9.2	1.1	10.3	100.0
	50대 이상	(378)	63.2	30.2	93.4	5.2	1.3	6.6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53.2	33.1	86.3	10.5	3.2	13.7	100.0
	고졸	(518)	57.4	31.6	89.0	9.8	1.2	11.0	100.0
	대재 이상	(591)	63.8	29.6	93.4	5.7	0.9	6.6	100.0
	모름/무응답	(2)	100.0	0.0	10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73.4	26.6	100.0	0.0	0.0	0.0	100.0
	자영업	(203)	69.0	25.1	94.1	5.2	0.7	5.9	100.0
	블루 칼라	(307)	53.5	34.3	87.8	11.2	1.0	12.2	100.0
	화이트칼라	(314)	66.5	26.9	93.4	5.4	1.2	6.6	100.0
	전업 주부	(230)	53.2	35.5	88.7	9.8	1.5	11.3	100.0
	무직/기타	(130)	58.6	32.3	90.9	7.3	1.8	9.1	100.0
	모름/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55.5	35.7	91.2	4.8	4.0	8.8	100.0
	200~299만원	(227)	56.9	30.1	86.9	11.5	1.6	13.1	100.0
	300~399만원	(393)	56.4	34.2	90.6	9.1	0.3	9.4	100.0
	400만원 이상	(481)	66.2	27.0	93.2	5.7	1.2	6.8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58.9	31.0	90.0	8.5	1.5	10.0	100.0
	충청권	(120)	49.9	43.9	93.8	4.9	1.3	6.2	100.0
	호남권	(115)	70.7	21.8	92.5	6.8	0.7	7.5	100.0
	영남권	(309)	61.9	30.7	92.6	7.4	0.0	7.4	100.0
	강원	(35)	67.9	11.5	79.4	16.0	4.6	20.6	100.0
	제주	(13)	73.9	19.1	93.0	0.0	7.0	7.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60.3	33.7	94.0	5.0	0.9	6.0	100.0
	중 · 소도시	(507)	57.5	29.5	87.0	11.5	1.5	13.0	100.0
	읍/면	(134)	71.0	22.5	93.5	5.3	1.3	6.5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64.8	28.5	93.2	5.6	1.2	6.8	100.0
	중도	(580)	57.5	33.3	90.8	7.8	1.3	9.2	100.0
	보수적	(286)	61.2	27.5	88.7	10.4	0.9	11.3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56.2	34.9	91.1	8.4	0.6	8.9	100.0
	기독교	(243)	65.6	26.3	91.8	6.1	2.0	8.2	100.0
	천주교	(73)	63.5	27.1	90.6	9.4	0.0	9.4	100.0
	기타	(3)	81.5	0.0	81.5	0.0	18.5	18.5	100.0
	종교없음	(603)	60.0	31.4	91.4	7.7	0.9	8.6	100.0
	모름/무응답	(21)	47.3	23.6	71.0	19.4	9.6	29.0	100.0

표 22-2.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 생활수준

문)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많이 있다	② 다소 있다	①+②	③ 별로 없다	④ 전혀 없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70.8	22.8	93.6	5.1	1.2	6.4	100.0
성별	남자	(612)	70.1	23.8	93.9	4.7	1.3	6.1	100.0
	여자	(588)	71.6	21.7	93.3	5.6	1.1	6.7	100.0
연령별	19~29세	(248)	71.0	22.2	93.2	4.8	2.0	6.8	100.0
	30대	(269)	74.8	20.7	95.4	3.4	1.2	4.6	100.0
	40대	(304)	66.3	26.2	92.5	6.0	1.5	7.5	100.0
	50대 이상	(378)	71.6	22.0	93.6	5.9	0.5	6.4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61.0	21.2	82.2	16.1	1.8	17.8	100.0
	고졸	(518)	68.3	26.1	94.4	4.5	1.2	5.6	100.0
	대재 이상	(591)	74.4	20.2	94.7	4.1	1.2	5.3	100.0
	모름/무응답	(2)	100.0	0.0	10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78.8	21.2	100.0	0.0	0.0	0.0	100.0
	자영업	(203)	69.4	25.0	94.4	5.1	0.5	5.6	100.0
	블루 칼라	(307)	69.6	23.9	93.5	5.3	1.2	6.5	100.0
	화이트칼라	(314)	79.7	14.9	94.6	4.3	1.1	5.4	100.0
	전업 주부	(230)	63.1	29.2	92.3	6.4	1.3	7.7	100.0
	무직/기타	(130)	67.1	25.0	92.1	5.0	2.9	7.9	100.0
	모름/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60.9	24.0	84.9	13.5	1.6	15.1	100.0
	200~299만원	(227)	67.5	24.0	91.6	7.5	1.0	8.4	100.0
	300~399만원	(393)	68.4	25.3	93.7	4.8	1.6	6.3	100.0
	400만원 이상	(481)	76.5	19.9	96.4	2.6	1.0	3.6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69.1	22.7	91.8	6.4	1.8	8.2	100.0
	충청권	(120)	60.1	34.4	94.5	5.5	0.0	5.5	100.0
	호남권	(115)	73.3	21.7	95.0	4.3	0.7	5.0	100.0
	영남권	(309)	77.3	19.9	97.3	2.4	0.3	2.7	100.0
	강원	(35)	68.1	15.9	84.0	11.5	4.6	16.0	100.0
	제주	(13)	80.3	16.1	96.4	0.0	3.6	3.6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71.1	25.2	96.4	3.3	0.3	3.6	100.0
	중 · 소도시	(507)	69.3	21.5	90.8	6.9	2.3	9.2	100.0
	읍/면	(134)	75.3	17.5	92.8	6.2	0.9	7.2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73.4	22.6	96.0	3.4	0.5	4.0	100.0
	중도	(580)	68.9	23.5	92.4	6.2	1.4	7.6	100.0
	보수적	(286)	72.1	21.2	93.3	5.1	1.6	6.7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70.0	23.1	93.1	5.6	1.3	6.9	100.0
	기독교	(243)	74.7	21.4	96.1	3.2	0.7	3.9	100.0
	천주교	(73)	73.1	16.6	89.7	8.7	1.7	10.3	100.0
	기타	(3)	81.5	0.0	81.5	0.0	18.5	18.5	100.0
	종교없음	(603)	69.5	24.5	94.0	4.9	1.1	6.0	100.0
	모름/무응답	(21)	66.7	9.0	75.7	18.3	6.0	24.3	100.0

표 22-3.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 역사인식

문)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많이 있다	② 다소 있다	①+②	③ 별로 없다	④ 전혀 없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43.8	39.6	83.4	14.7	1.9	16.6	100.0
성별	남자	(612)	41.8	41.5	83.3	14.3	2.5	16.7	100.0
	여자	(588)	45.9	37.5	83.5	15.2	1.3	16.5	100.0
연령별	19~29세	(248)	44.5	38.9	83.3	14.5	2.1	16.7	100.0
	30대	(269)	39.7	43.1	82.8	15.4	1.8	17.2	100.0
	40대	(304)	46.6	35.9	82.4	15.9	1.7	17.6	100.0
	50대 이상	(378)	44.1	40.5	84.5	13.4	2.1	15.5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40.7	43.1	83.8	11.3	5.0	16.2	100.0
	고졸	(518)	41.7	39.3	81.0	17.5	1.5	19.0	100.0
	대재 이상	(591)	46.1	39.2	85.3	12.9	1.8	14.7	100.0
	모름/무응답	(2)	39.9	60.1	10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52.1	30.7	82.7	17.3	0.0	17.3	100.0
	자영업	(203)	48.3	36.6	84.9	13.4	1.7	15.1	100.0
	블루 칼라	(307)	41.4	42.1	83.5	14.6	1.9	16.5	100.0
	화이트칼라	(314)	49.2	36.2	85.4	11.9	2.6	14.6	100.0
	전업 주부	(230)	34.0	43.3	77.3	21.7	1.1	22.7	100.0
	무직/기타	(130)	46.0	40.4	86.3	11.5	2.1	13.7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45.8	38.5	84.3	11.3	4.4	15.7	100.0
	200~299만원	(227)	45.7	41.5	87.2	11.7	1.1	12.8	100.0
	300~399만원	(393)	39.7	40.9	80.6	18.4	1.0	19.4	100.0
	400만원 이상	(481)	45.9	37.8	83.6	13.9	2.5	16.4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42.3	40.4	82.7	15.9	1.4	17.3	100.0
	충청권	(120)	44.0	38.4	82.4	17.6	0.0	17.6	100.0
	호남권	(115)	41.7	44.2	85.9	12.0	2.1	14.1	100.0
	영남권	(309)	44.9	39.7	84.7	13.3	2.0	15.3	100.0
	강원	(35)	63.3	13.9	77.2	8.9	13.9	22.8	100.0
	제주	(13)	54.2	32.6	86.8	5.7	7.5	13.2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37.1	47.7	84.9	13.8	1.3	15.1	100.0
	중 · 소도시	(507)	47.8	33.0	80.8	16.6	2.6	19.2	100.0
	읍/면	(134)	56.7	30.3	87.0	11.4	1.6	13.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42.6	39.4	82.0	15.9	2.1	18.0	100.0
	중도	(580)	42.4	41.3	83.7	14.7	1.6	16.3	100.0
	보수적	(286)	47.8	36.4	84.2	13.5	2.3	15.8	100.0
	모름/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43.1	35.8	78.9	18.5	2.6	21.1	100.0
	기독교	(243)	45.2	42.3	87.5	10.8	1.7	12.5	100.0
	천주교	(73)	48.7	31.7	80.4	17.9	1.7	19.6	100.0
	기타	(3)	52.9	28.7	81.5	0.0	18.5	18.5	100.0
	종교없음	(603)	42.8	41.5	84.3	14.1	1.6	15.7	100.0
	모름/무응답	(21)	46.1	26.1	72.2	24.2	3.7	27.8	100.0

표 22-4.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 언어사용

문)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많이 있다	② 다소 있다	①+②	③ 별로 없다	④ 전혀 없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36.7	46.9	83.6	14.8	1.6	16.4	100.0
성별	남자	(612)	33.7	48.3	82.0	16.1	1.9	18.0	100.0
	여자	(588)	39.9	45.4	85.3	13.5	1.2	14.7	100.0
연령별	19~29세	(248)	34.5	43.8	78.3	18.3	3.4	21.7	100.0
	30대	(269)	35.1	49.3	84.4	14.4	1.2	15.6	100.0
	40대	(304)	40.0	45.5	85.5	13.2	1.3	14.5	100.0
	50대 이상	(378)	36.7	48.3	85.0	14.1	0.8	15.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37.1	45.1	82.2	14.5	3.3	17.8	100.0
	고졸	(518)	37.7	45.2	82.9	15.9	1.2	17.1	100.0
	대재 이상	(591)	35.6	48.8	84.4	14.0	1.6	15.6	100.0
	모름/무응답	(2)	100.0	0.0	10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40.4	35.8	76.3	17.3	6.5	23.7	100.0
	자영업	(203)	41.2	41.6	82.8	16.7	0.5	17.2	100.0
	블루 칼라	(307)	38.1	45.1	83.2	15.1	1.7	16.8	100.0
	화이트칼라	(314)	36.3	50.5	86.8	11.8	1.5	13.2	100.0
	전업 주부	(230)	32.3	49.8	82.1	17.0	0.9	17.9	100.0
	무직/기타	(130)	35.2	46.5	81.7	14.5	3.7	18.3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37.8	44.0	81.9	14.0	4.1	18.1	100.0
	200~299만원	(227)	36.9	49.3	86.2	11.9	1.9	13.8	100.0
	300~399만원	(393)	35.7	46.1	81.8	17.6	0.6	18.2	100.0
	400만원 이상	(481)	37.2	47.0	84.2	14.1	1.7	15.8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36.0	43.7	79.8	17.8	2.4	20.2	100.0
	충청권	(120)	21.7	56.9	78.5	21.5	0.0	21.5	100.0
	호남권	(115)	41.0	54.6	95.6	4.4	0.0	4.4	100.0
	영남권	(309)	41.3	48.5	89.8	9.5	0.6	10.2	100.0
	강원	(35)	38.6	34.4	73.0	22.4	4.7	27.0	100.0
	제주	(13)	56.0	29.1	85.1	11.3	3.6	14.9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33.0	50.1	83.2	15.8	1.0	16.8	100.0
	중 · 소도시	(507)	39.7	44.1	83.8	14.4	1.8	16.2	100.0
	읍/면	(134)	41.2	43.7	84.9	12.3	2.8	15.1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33.9	52.2	86.1	12.1	1.9	13.9	100.0
	중도	(580)	36.9	44.9	81.9	16.3	1.8	18.1	100.0
	보수적	(286)	39.8	44.4	84.3	15.0	0.7	15.7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37.0	50.4	87.4	11.9	0.8	12.6	100.0
	기독교	(243)	41.4	46.3	87.8	10.3	1.9	12.2	100.0
	천주교	(73)	33.1	54.8	87.8	12.2	0.0	12.2	100.0
	기타	(3)	52.9	28.7	81.5	0.0	18.5	18.5	100.0
	종교없음	(603)	34.9	45.4	80.4	17.9	1.7	19.6	100.0
	모름/무응답	(21)	41.5	27.0	68.6	25.4	6.0	31.4	100.0

표 22-5.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 생활풍습(관혼상제 등)

문)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많이 있다	② 다소 있다	①+②	③ 별로 없다	④ 전혀 없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38.2	45.1	83.3	15.5	1.2	16.7	100.0
성별	남자	(612)	37.6	46.8	84.4	14.3	1.4	15.6	100.0
	여자	(588)	38.8	43.5	82.2	16.8	1.0	17.8	100.0
연령별	19~29세	(248)	35.4	43.5	78.9	19.3	1.8	21.1	100.0
	30대	(269)	36.5	48.4	84.9	13.9	1.2	15.1	100.0
	40대	(304)	40.3	43.0	83.3	15.7	1.0	16.7	100.0
	50대 이상	(378)	39.4	45.7	85.1	13.8	1.0	14.9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41.4	41.7	83.0	13.8	3.2	17.0	100.0
	고졸	(518)	38.8	44.9	83.7	15.4	0.9	16.3	100.0
	대재 이상	(591)	37.1	45.9	83.0	15.8	1.2	17.0	100.0
	모름/무응답	(2)	39.9	60.1	10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46.9	35.9	82.7	17.3	0.0	17.3	100.0
	자영업	(203)	37.7	48.0	85.7	13.8	0.5	14.3	100.0
	블루 칼라	(307)	39.4	46.3	85.7	13.3	1.0	14.3	100.0
	화이트칼라	(314)	42.3	40.2	82.5	15.7	1.7	17.5	100.0
	전업 주부	(230)	31.1	48.9	80.0	18.8	1.2	20.0	100.0
	무직/기타	(130)	37.7	44.0	81.7	16.5	1.8	18.3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40.1	43.4	83.5	12.5	4.0	16.5	100.0
	200~299만원	(227)	39.2	46.0	85.1	14.7	0.2	14.9	100.0
	300~399만원	(393)	34.1	48.8	82.8	16.5	0.6	17.2	100.0
	400만원 이상	(481)	40.6	42.2	82.8	15.6	1.6	17.2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38.4	44.2	82.7	15.5	1.8	17.3	100.0
	충청권	(120)	31.9	43.8	75.7	24.3	0.0	24.3	100.0
	호남권	(115)	34.8	52.6	87.3	12.7	0.0	12.7	100.0
	영남권	(309)	40.4	45.2	85.5	14.5	0.0	14.5	100.0
	강원	(35)	43.1	43.1	86.1	4.5	9.3	13.9	100.0
	제주	(13)	48.0	39.6	87.6	8.9	3.6	12.4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30.9	51.0	81.9	17.5	0.6	18.1	100.0
	중 · 소도시	(507)	44.1	40.4	84.5	13.6	2.0	15.5	100.0
	읍/면	(134)	46.2	38.6	84.8	14.3	0.9	15.2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36.1	44.3	80.4	18.2	1.4	19.6	100.0
	중도	(580)	38.6	44.8	83.4	15.2	1.4	16.6	100.0
	보수적	(286)	39.7	46.6	86.3	13.0	0.7	13.7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38.7	43.6	82.3	16.9	0.8	17.7	100.0
	기독교	(243)	40.9	45.9	86.8	11.8	1.4	13.2	100.0
	천주교	(73)	43.0	44.3	87.3	12.7	0.0	12.7	100.0
	기타	(3)	52.9	28.7	81.5	0.0	18.5	18.5	100.0
	종교없음	(603)	36.6	45.5	82.1	16.6	1.2	17.9	100.0
	모름/무응답	(21)	24.3	50.1	74.5	19.5	6.0	25.5	100.0

표 22-6.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 가치관

문)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많이 있다	② 다소 있다	①+②	③ 별로 없다	④ 전혀 없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61.4	30.4	91.8	6.5	1.7	8.2	100.0
성별	남자	(612)	60.3	30.7	90.9	7.1	1.9	9.1	100.0
	여자	(588)	62.6	30.0	92.6	5.9	1.5	7.4	100.0
연령별	19~29세	(248)	60.5	29.6	90.1	7.8	2.1	9.9	100.0
	30대	(269)	64.5	28.8	93.3	4.4	2.3	6.7	100.0
	40대	(304)	59.2	32.1	91.3	7.0	1.7	8.7	100.0
	50대 이상	(378)	61.6	30.5	92.1	6.8	1.0	7.9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55.3	29.8	85.1	9.9	5.0	14.9	100.0
	고졸	(518)	61.6	30.4	92.0	6.6	1.5	8.0	100.0
	대재 이상	(591)	62.2	30.3	92.6	6.0	1.5	7.4	100.0
	모름/무응답	(2)	39.9	60.1	10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52.1	30.7	82.7	17.3	0.0	17.3	100.0
	자영업	(203)	64.2	27.4	91.6	7.5	0.9	8.4	100.0
	블루 칼라	(307)	64.5	29.8	94.3	4.2	1.5	5.7	100.0
	화이트칼라	(314)	62.2	30.2	92.4	5.4	2.2	7.6	100.0
	전업 주부	(230)	56.6	34.4	90.9	7.5	1.6	9.1	100.0
	무직/기타	(130)	57.2	29.9	87.1	10.1	2.8	12.9	100.0
	모름/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59.0	29.4	88.4	6.0	5.6	11.6	100.0
	200~299만원	(227)	57.1	35.6	92.7	6.5	0.8	7.3	100.0
	300~399만원	(393)	59.2	33.3	92.6	5.7	1.7	7.4	100.0
	400만원 이상	(481)	65.7	25.7	91.4	7.2	1.4	8.6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64.4	29.0	93.3	4.7	2.0	6.7	100.0
	충청권	(120)	53.8	31.6	85.4	13.9	0.7	14.6	100.0
	호남권	(115)	64.8	26.1	90.9	7.1	2.0	9.1	100.0
	영남권	(309)	55.9	36.0	92.0	8.0	0.0	8.0	100.0
	강원	(35)	63.6	22.6	86.1	0.0	13.9	13.9	100.0
	제주	(13)	87.7	8.7	96.4	0.0	3.6	3.6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58.3	33.3	91.5	7.6	0.9	8.5	100.0
	중 · 소도시	(507)	64.8	27.7	92.5	4.7	2.9	7.5	100.0
	읍/면	(134)	61.9	28.3	90.2	8.8	0.9	9.8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60.1	34.2	94.3	3.7	2.0	5.7	100.0
	중도	(580)	62.6	28.1	90.7	8.0	1.3	9.3	100.0
	보수적	(286)	60.4	30.6	91.0	6.8	2.2	9.0	100.0
	모름/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56.5	34.7	91.2	8.4	0.3	8.8	100.0
	기독교	(243)	67.6	25.1	92.7	5.3	2.0	7.3	100.0
	천주교	(73)	66.9	26.5	93.5	6.5	0.0	6.5	100.0
	기타	(3)	52.9	28.7	81.5	0.0	18.5	18.5	100.0
	종교없음	(603)	60.9	31.0	92.0	5.7	2.4	8.0	100.0
	모름/무응답	(21)	46.2	32.0	78.2	21.8	0.0	21.8	100.0

표 23.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위협을 느끼는 정도

문)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얼마나 위협을 느끼십니까? 혹은 느끼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위협을 느낀다	② 다소 위협을 느낀다	①+②	③ 별로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④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35.5	53.7	89.3	9.0	1.7	10.7	100.0
성별	남자	(612)	35.6	51.3	86.9	10.7	2.4	13.1	100.0
	여자	(588)	35.5	56.3	91.8	7.2	1.0	8.2	100.0
연령별	19~29세	(248)	34.1	54.3	88.4	10.4	1.2	11.6	100.0
	30대	(269)	35.3	54.0	89.4	7.8	2.9	10.6	100.0
	40대	(304)	31.3	56.5	87.8	9.1	3.1	12.2	100.0
	50대 이상	(378)	40.1	50.9	91.0	8.9	0.1	9.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26.9	59.6	86.5	12.1	1.4	13.5	100.0
	고졸	(518)	35.4	54.2	89.6	8.8	1.6	10.4	100.0
	대재 이상	(591)	36.7	52.7	89.4	8.8	1.9	10.6	100.0
	모름/무응답	(2)	100.0	0.0	10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26.5	32.1	58.7	35.2	6.2	41.3	100.0
	자영업	(203)	38.3	46.6	84.9	12.3	2.8	15.1	100.0
	블루 칼라	(307)	33.3	56.8	90.1	8.4	1.6	9.9	100.0
	화이트칼라	(314)	35.1	55.3	90.3	7.6	2.1	9.7	100.0
	전업 주부	(230)	37.4	55.6	93.0	6.5	0.5	7.0	100.0
	무직/기타	(130)	35.1	53.6	88.8	10.3	1.0	11.2	100.0
	모름/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33.8	51.2	85.0	11.7	3.4	15.0	100.0
	200~299만원	(227)	32.3	56.7	89.1	10.0	0.9	10.9	100.0
	300~399만원	(393)	35.5	52.8	88.3	9.3	2.4	11.7	100.0
	400만원 이상	(481)	37.5	53.6	91.1	7.8	1.2	8.9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34.1	58.1	92.2	6.4	1.4	7.8	100.0
	충청권	(120)	32.2	46.6	78.9	18.0	3.2	21.1	100.0
	호남권	(115)	41.8	45.5	87.3	10.8	2.0	12.7	100.0
	영남권	(309)	34.6	54.6	89.2	9.5	1.3	10.8	100.0
	강원	(35)	52.7	35.8	88.5	9.0	2.5	11.5	100.0
	제주	(13)	55.6	17.7	73.4	19.4	7.2	26.6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38.0	53.9	91.9	7.3	0.8	8.1	100.0
	중 · 소도시	(507)	32.7	56.4	89.1	9.1	1.7	10.9	100.0
	읍/면	(134)	35.9	43.0	78.9	15.6	5.5	21.1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35.9	54.9	90.8	7.3	1.9	9.2	100.0
	중도	(580)	32.7	55.0	87.7	10.5	1.8	12.3	100.0
	보수적	(286)	40.7	50.1	90.8	7.9	1.3	9.2	100.0
	모름/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34.6	57.8	92.4	7.4	0.2	7.6	100.0
	기독교	(243)	32.2	59.1	91.2	7.5	1.3	8.8	100.0
	천주교	(73)	46.8	46.5	93.2	6.8	0.0	6.8	100.0
	기타	(3)	81.8	18.2	100.0	0.0	0.0	0.0	100.0
	종교없음	(603)	35.7	51.8	87.5	9.9	2.6	12.5	100.0
	모름/무응답	(21)	38.0	27.8	65.8	28.2	6.0	34.2	100.0

표 24. 북한 핵무기 포기 여부에 대한 견해

문) ○○님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사례수	① 매우 동의한다	② 다소 동의한다	①+②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③+④	잘 모름	계
			%	%	%	%	%	%	%	%
전 체		(1,200)	56.0	32.1	88.0	6.5	2.4	9.0	3.0	100.0
성별	남자	(612)	58.7	28.8	87.6	7.6	1.8	9.4	3.0	100.0
	여자	(588)	53.0	35.4	88.5	5.5	3.1	8.6	3.0	100.0
연령별	19~29세	(248)	52.0	33.6	85.6	6.6	3.3	9.9	4.6	100.0
	30대	(269)	54.3	34.2	88.5	6.9	1.1	8.0	3.5	100.0
	40대	(304)	54.5	33.8	88.3	5.1	3.9	9.0	2.7	100.0
	50대 이상	(378)	60.9	28.2	89.0	7.4	1.7	9.1	1.9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49.6	36.0	85.6	6.1	4.2	10.3	4.1	100.0
	고졸	(518)	56.3	32.4	88.7	7.1	1.9	9.0	2.3	100.0
	대재 이상	(591)	56.5	31.2	87.7	6.2	2.7	8.8	3.5	100.0
	모름/무응답	(2)	100.0	0.0	100.0	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49.0	36.3	85.3	14.7	0.0	14.7	0.0	100.0
	자영업	(203)	62.6	24.6	87.2	5.2	2.9	8.0	4.8	100.0
	블루 칼라	(307)	52.4	36.3	88.8	7.1	1.2	8.2	3.0	100.0
	화이트칼라	(314)	58.5	30.5	89.0	6.5	2.7	9.3	1.8	100.0
	전업 주부	(230)	56.5	33.7	90.1	5.9	2.9	8.8	1.1	100.0
	무직/기타	(130)	47.4	34.4	81.8	7.7	3.6	11.3	7.0	100.0
	모름/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50.0	34.5	84.5	7.8	4.2	12.0	3.5	100.0
	200~299만원	(227)	49.8	36.3	86.1	7.1	3.5	10.6	3.4	100.0
	300~399만원	(393)	53.4	34.7	88.1	6.5	2.4	9.0	2.9	100.0
	400만원 이상	(481)	62.2	27.4	89.6	6.1	1.6	7.7	2.8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54.6	32.5	87.1	6.3	2.1	8.4	4.4	100.0
	충청권	(120)	60.7	35.3	96.0	2.6	0.7	3.3	0.7	100.0
	호남권	(115)	58.1	28.4	86.4	10.8	2.1	12.9	0.7	100.0
	영남권	(309)	54.5	32.8	87.3	7.1	3.3	10.3	2.4	100.0
	강원	(35)	65.7	20.2	85.9	6.9	7.2	14.1	0.0	100.0
	제주	(13)	64.7	28.3	93.0	3.6	3.5	7.0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62.9	26.1	89.0	7.4	1.7	9.1	2.0	100.0
	중 · 소도시	(507)	49.4	38.2	87.6	6.2	3.1	9.3	3.1	100.0
	읍/면	(134)	51.8	33.8	85.6	4.7	2.8	7.5	6.9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61.1	27.1	88.2	6.3	3.3	9.5	2.2	100.0
	중도	(580)	48.9	39.0	87.9	6.2	2.1	8.3	3.8	100.0
	보수적	(286)	64.0	23.9	88.0	7.5	2.2	9.7	2.3	100.0
	모름/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56.3	33.4	89.7	6.7	1.8	8.5	1.8	100.0
	기독교	(243)	60.5	27.5	88.0	6.2	1.6	7.8	4.3	100.0
	천주교	(73)	63.6	23.9	87.4	6.0	4.8	10.8	1.8	100.0
	기타	(3)	34.6	46.9	81.5	18.5	0.0	18.5	0.0	100.0
	종교없음	(603)	54.0	34.1	88.1	6.7	2.9	9.6	2.3	100.0
	모름/무응답	(21)	31.7	36.6	68.3	3.7	0.0	3.7	28.0	100.0

표 25. 최우선시 해야 할 바람직한 대북 정책

문) ○○님은 바람직한 대북정책이 다음 중 어떤 내용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남북한 교류협력과 대북지원	북한의 개방개혁 및 인권 신장	적극적인 통일정책과 통일재원 준비	북한 핵중단을 위한 국제협력	평화협정 체결	모름/무응답	계
			%	%	%	%	%	%	%
전 체		(1,200)	19.2	32.0	16.7	18.4	13.6	0.1	100.0
성별	남자	(612)	20.3	31.2	17.3	17.6	13.5	0.2	100.0
	여자	(588)	18.2	32.8	16.1	19.2	13.7	0.0	100.0
연령별	19~29세	(248)	15.9	34.0	15.6	18.3	16.2	0.0	100.0
	30대	(269)	21.5	33.5	17.2	15.9	11.5	0.5	100.0
	40대	(304)	18.5	32.4	16.9	20.4	11.9	0.0	100.0
	50대 이상	(378)	20.5	29.2	17.0	18.6	14.7	0.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23.1	32.3	17.6	14.1	12.9	0.0	100.0
	고졸	(518)	18.3	31.6	17.1	20.3	12.6	0.0	100.0
	대재 이상	(591)	19.5	32.1	16.3	17.5	14.4	0.2	100.0
	모름/무응답	(2)	0.0	60.1	0.0	0.0	39.9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49.2	26.1	12.0	0.0	12.7	0.0	100.0
	자영업	(203)	19.9	29.5	17.2	16.1	17.3	0.0	100.0
	블루 칼라	(307)	16.3	34.4	17.3	21.9	9.6	0.4	100.0
	화이트칼라	(314)	21.8	32.0	16.3	16.6	13.3	0.0	100.0
	전업 주부	(230)	20.9	30.1	16.0	18.8	14.3	0.0	100.0
	무직/기타	(130)	12.5	34.2	17.6	19.1	16.5	0.0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10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22.2	30.5	17.2	15.6	14.5	0.0	100.0
	200~299만원	(227)	19.0	37.3	18.0	15.3	10.4	0.0	100.0
	300~399만원	(393)	21.5	31.4	18.2	17.6	11.0	0.3	100.0
	400만원 이상	(481)	16.9	30.2	14.8	21.1	17.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14.5	36.5	17.9	19.3	11.6	0.2	100.0
	충청권	(120)	24.9	23.9	12.9	8.9	29.4	0.0	100.0
	호남권	(115)	29.6	20.0	18.4	17.4	14.6	0.0	100.0
	영남권	(309)	22.2	30.6	16.2	20.8	10.1	0.0	100.0
	강원	(35)	22.9	27.6	11.4	20.3	17.8	0.0	100.0
	제주	(13)	14.3	43.2	10.2	10.4	21.9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16.0	34.9	14.1	21.3	13.5	0.2	100.0
	중 · 소도시	(507)	22.3	29.0	20.1	15.2	13.4	0.0	100.0
	읍/면	(134)	21.1	30.8	15.1	18.4	14.5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20.1	31.3	19.1	16.8	12.3	0.4	100.0
	중도	(580)	18.1	32.1	15.6	19.6	14.6	0.0	100.0
	보수적	(286)	20.7	32.6	15.8	18.0	12.9	0.0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100.0	0.0	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19.2	28.6	18.0	22.1	12.1	0.0	100.0
	기독교	(243)	16.3	34.5	16.0	16.3	16.8	0.0	100.0
	천주교	(73)	23.5	42.9	17.1	8.0	8.4	0.0	100.0
	기타	(3)	34.6	65.4	0.0	0.0	0.0	0.0	100.0
	종교없음	(603)	20.0	31.3	16.4	19.2	12.9	0.2	100.0
	모름/무응답	(21)	15.7	21.0	20.9	10.6	31.8	0.0	100.0

표 26. 대북지원이 북한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

문) ○○님은 대북 지원이 북한 주민의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약간 도움이 된다	①+②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6.4	41.9	48.3	41.2	10.5	51.7	100.0
성별	남자	(612)	7.1	42.1	49.2	39.7	11.1	50.8	100.0
	여자	(588)	5.7	41.7	47.4	42.8	9.8	52.6	100.0
연령별	19~29세	(248)	4.0	45.6	49.5	37.8	12.7	50.5	100.0
	30대	(269)	6.2	42.2	48.4	41.4	10.2	51.6	100.0
	40대	(304)	7.0	39.1	46.1	44.4	9.5	53.9	100.0
	50대 이상	(378)	7.8	41.5	49.2	40.8	9.9	50.8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2.2	43.4	45.5	38.6	15.9	54.5	100.0
	고졸	(518)	7.3	42.9	50.2	40.6	9.2	49.8	100.0
	대재 이상	(591)	6.3	40.7	47.0	42.2	10.8	53.0	100.0
	모름/무응답	(2)	0.0	60.1	60.1	39.9	0.0	39.9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18.3	42.6	60.9	39.1	0.0	39.1	100.0
	자영업	(203)	7.3	45.7	52.9	33.6	13.5	47.1	100.0
	블루 칼라	(307)	6.6	41.9	48.6	41.3	10.1	51.4	100.0
	화이트칼라	(314)	6.7	38.9	45.7	42.5	11.9	54.3	100.0
	전업 주부	(230)	4.3	40.4	44.7	47.2	8.1	55.3	100.0
	무직/기타	(130)	6.3	45.2	51.5	39.8	8.7	48.5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2.4	49.7	52.1	36.1	11.8	47.9	100.0
	200~299만원	(227)	8.5	40.2	48.8	39.3	12.0	51.2	100.0
	300~399만원	(393)	6.6	42.5	49.1	39.9	11.0	50.9	100.0
	400만원 이상	(481)	6.1	40.6	46.7	44.3	9.0	53.3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7.2	42.4	49.6	41.0	9.3	50.4	100.0
	충청권	(120)	6.9	57.1	64.0	31.6	4.3	36.0	100.0
	호남권	(115)	11.8	46.7	58.5	33.6	7.9	41.5	100.0
	영남권	(309)	3.0	34.1	37.1	47.1	15.8	62.9	100.0
	강원	(35)	2.2	41.4	43.6	52.0	4.4	56.4	100.0
	제주	(13)	9.5	20.7	30.2	37.7	32.1	69.8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4.6	40.2	44.8	44.9	10.2	55.2	100.0
	중 · 소도시	(507)	8.3	43.0	51.3	37.8	10.9	48.7	100.0
	읍/면	(134)	6.8	44.8	51.7	38.5	9.8	48.3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7.9	41.0	48.9	37.8	13.3	51.1	100.0
	중도	(580)	4.7	44.6	49.3	40.9	9.8	50.7	100.0
	보수적	(286)	8.3	37.2	45.5	45.9	8.6	54.5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5.5	35.8	41.3	52.1	6.6	58.7	100.0
	기독교	(243)	7.6	45.0	52.6	37.2	10.2	47.4	100.0
	천주교	(73)	7.2	53.0	60.2	31.9	7.8	39.8	100.0
	기타	(3)	34.6	47.1	81.8	18.2	0.0	18.2	100.0
	종교없음	(603)	6.2	42.1	48.3	39.5	12.2	51.7	100.0
	모름/무응답	(21)	4.9	35.7	40.6	37.7	21.7	59.4	100.0

표 27.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이 되는 정도

문) ○○님은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약간 도움이 된다	①+②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8.9	55.5	64.5	31.3	4.2	35.5	100.0
성별	남자	(612)	11.0	55.7	66.7	29.0	4.3	33.3	100.0
	여자	(588)	6.8	55.4	62.2	33.7	4.1	37.8	100.0
연령별	19~29세	(248)	5.8	56.6	62.4	31.9	5.6	37.6	100.0
	30대	(269)	9.9	52.6	62.4	32.7	4.8	37.6	100.0
	40대	(304)	9.6	57.5	67.1	29.3	3.6	32.9	100.0
	50대 이상	(378)	9.8	55.4	65.1	31.6	3.3	34.9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7.7	51.3	59.0	34.3	6.6	41.0	100.0
	고졸	(518)	7.1	55.8	62.9	34.6	2.5	37.1	100.0
	대재 이상	(591)	10.8	55.8	66.6	28.1	5.3	33.4	100.0
	모름/무응답	(2)	0.0	100.0	10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42.8	37.6	80.4	19.6	0.0	19.6	100.0
	자영업	(203)	6.6	60.0	66.6	29.2	4.2	33.4	100.0
	블루 칼라	(307)	7.4	54.4	61.8	33.2	5.0	38.2	100.0
	화이트칼라	(314)	13.7	53.1	66.8	29.4	3.8	33.2	100.0
	전업 주부	(230)	5.4	55.8	61.2	35.4	3.3	38.8	100.0
	무직/기타	(130)	7.1	58.3	65.4	29.2	5.4	34.6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5.8	60.3	66.0	28.0	6.0	34.0	100.0
	200~299만원	(227)	9.5	55.8	65.3	30.3	4.3	34.7	100.0
	300~399만원	(393)	6.1	56.5	62.6	34.1	3.3	37.4	100.0
	400만원 이상	(481)	11.7	53.6	65.3	30.2	4.5	34.7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8.6	56.4	65.0	31.8	3.2	35.0	100.0
	충청권	(120)	12.7	66.1	78.8	15.6	5.6	21.2	100.0
	호남권	(115)	9.0	68.1	77.1	21.5	1.4	22.9	100.0
	영남권	(309)	6.8	46.8	53.5	40.5	6.0	46.5	100.0
	강원	(35)	18.7	43.3	62.0	31.3	6.7	38.0	100.0
	제주	(13)	15.7	47.1	62.8	22.7	14.5	37.2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5.5	57.3	62.8	33.6	3.7	37.2	100.0
	중 · 소도시	(507)	12.3	54.4	66.7	28.9	4.4	33.3	100.0
	읍/면	(134)	10.9	52.2	63.1	31.2	5.7	36.9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13.0	55.6	68.7	26.0	5.3	31.3	100.0
	중도	(580)	6.0	56.4	62.4	33.3	4.3	37.6	100.0
	보수적	(286)	10.2	53.4	63.6	33.8	2.7	36.4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11.5	50.5	62.0	35.5	2.5	38.0	100.0
	기독교	(243)	9.4	58.5	67.9	29.6	2.5	32.1	100.0
	천주교	(73)	14.6	51.2	65.8	31.0	3.2	34.2	100.0
	기타	(3)	34.6	18.5	53.1	46.9	0.0	46.9	100.0
	종교없음	(603)	7.2	57.5	64.7	29.5	5.7	35.3	100.0
	모름/무응답	(21)	0.0	44.5	44.5	51.9	3.6	55.5	100.0

표 28.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문) ○○님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혹은 불만족 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만족	② 다소 만족	①+②	③ 다소 불만족	④ 매우 불만족	③+④	모름/무응답	계
			%	%	%	%	%	%	%	%
전 체		(1,200)	3.5	50.0	53.4	40.2	5.9	46.1	0.5	100.0
성별	남자	(612)	3.5	48.7	52.1	40.8	6.9	47.7	0.2	100.0
	여자	(588)	3.4	51.3	54.7	39.5	4.9	44.5	0.8	100.0
연령별	19~29세	(248)	1.3	48.3	49.7	42.0	7.4	49.4	0.9	100.0
	30대	(269)	1.1	48.6	49.8	44.2	5.1	49.3	0.9	100.0
	40대	(304)	2.5	46.4	48.9	43.3	7.8	51.1	0.0	100.0
	50대 이상	(378)	7.3	54.8	62.1	33.6	3.9	37.6	0.3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6.7	51.7	58.3	30.3	9.9	40.3	1.4	100.0
	고졸	(518)	3.0	51.6	54.6	41.2	3.9	45.1	0.2	100.0
	대재 이상	(591)	3.4	48.1	51.5	40.9	7.1	47.9	0.6	100.0
	모름/무응답	(2)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0.0	33.3	33.3	42.1	24.6	66.7	0.0	100.0
	자영업	(203)	4.6	50.4	55.0	38.7	6.3	45.0	0.0	100.0
	블루 칼라	(307)	3.0	50.2	53.2	42.8	3.6	46.4	0.4	100.0
	화이트칼라	(314)	3.6	48.8	52.4	40.3	7.3	47.6	0.0	100.0
	전업 주부	(230)	4.5	52.3	56.8	38.4	3.7	42.1	1.1	100.0
	무직/기타	(130)	1.1	48.8	49.9	39.0	9.4	48.4	1.7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7.4	50.4	57.8	33.0	9.2	42.2	0.0	100.0
	200~299만원	(227)	2.8	53.4	56.2	36.7	6.6	43.3	0.5	100.0
	300~399만원	(393)	2.7	49.8	52.5	42.2	4.7	46.9	0.6	100.0
	400만원 이상	(481)	3.6	48.4	52.0	41.6	5.9	47.5	0.5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2.7	49.5	52.2	42.7	4.1	46.9	1.0	100.0
	충청권	(120)	0.4	53.9	54.3	36.7	9.0	45.7	0.0	100.0
	호남권	(115)	2.0	35.9	37.9	50.3	11.8	62.1	0.0	100.0
	영남권	(309)	6.4	55.2	61.6	33.3	5.1	38.4	0.0	100.0
	강원	(35)	2.1	50.1	52.2	36.6	11.1	47.8	0.0	100.0
	제주	(13)	12.8	36.3	49.1	36.5	14.4	50.9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3.3	47.8	51.1	43.5	4.6	48.1	0.8	100.0
	중 · 소도시	(507)	3.7	53.1	56.9	36.3	6.6	42.9	0.2	100.0
	읍/면	(134)	3.0	47.2	50.2	41.2	8.6	49.8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2.1	40.7	42.8	46.6	10.2	56.8	0.4	100.0
	중도	(580)	3.3	50.5	53.8	41.3	4.5	45.8	0.4	100.0
	보수적	(286)	5.3	60.0	65.2	30.6	3.8	34.3	0.4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0.0	0.0	0.0	100.0	100.0
종교별	불교	(257)	6.0	50.3	56.3	38.1	5.1	43.2	0.5	100.0
	기독교	(243)	2.2	49.2	51.5	41.8	6.2	48.0	0.5	100.0
	천주교	(73)	1.2	63.9	65.1	30.4	4.5	34.9	0.0	100.0
	기타	(3)	0.0	81.8	81.8	18.2	0.0	18.2	0.0	100.0
	종교없음	(603)	3.3	49.2	52.5	41.3	5.8	47.1	0.4	100.0
	모름/무응답	(21)	0.0	23.6	23.6	50.8	20.7	71.5	4.9	100.0

표 29. 남북한 간 합의 사항 계승에 대한 견해

문) ○○님은 "남북한 간 합의 사항은 정부의 교체와 무관하게 계승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사례수	① 매우 동의한다	② 다소 동의한다	①+②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③+④	잘 모름	계
			%	%	%	%	%	%	%	%
전 체		(1,200)	12.3	48.6	60.9	23.0	4.7	27.7	11.5	100.0
성별	남자	(612)	14.7	47.5	62.2	22.5	3.9	26.4	11.4	100.0
	여자	(588)	9.9	49.6	59.5	23.5	5.5	29.0	11.5	100.0
연령별	19~29세	(248)	6.9	44.2	51.1	27.7	6.3	34.1	14.8	100.0
	30대	(269)	10.5	46.7	57.2	25.2	3.8	28.9	13.9	100.0
	40대	(304)	15.9	51.6	67.5	22.3	2.9	25.3	7.3	100.0
	50대 이상	(378)	14.3	50.3	64.6	18.8	5.6	24.4	10.9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14.2	36.6	50.7	25.6	3.8	29.4	19.9	100.0
	고졸	(518)	9.6	54.6	64.1	22.5	4.5	26.9	8.9	100.0
	대재 이상	(591)	14.5	44.9	59.4	23.1	5.0	28.1	12.5	100.0
	모름/무응답	(2)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40.8	25.3	66.1	27.1	0.0	27.1	6.8	100.0
	자영업	(203)	14.0	52.6	66.6	18.6	5.3	24.0	9.5	100.0
	블루 칼라	(307)	9.2	48.5	57.6	22.9	3.4	26.3	16.0	100.0
	화이트칼라	(314)	17.3	44.7	62.1	22.3	6.4	28.7	9.2	100.0
	전업 주부	(230)	9.0	55.2	64.2	24.1	4.7	28.8	7.0	100.0
	무직/기타	(130)	7.7	42.4	50.1	29.3	2.9	32.2	17.7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13.1	47.1	60.1	20.8	4.9	25.7	14.2	100.0
	200~299만원	(227)	13.9	53.8	67.8	20.1	2.6	22.7	9.5	100.0
	300~399만원	(393)	10.0	51.2	61.2	24.4	4.5	28.9	10.0	100.0
	400만원 이상	(481)	13.3	44.2	57.6	23.7	5.8	29.4	13.0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10.9	46.0	56.8	25.5	3.7	29.2	14.0	100.0
	충청권	(120)	12.0	61.6	73.6	14.7	3.8	18.5	7.9	100.0
	호남권	(115)	22.7	48.7	71.4	13.3	5.6	18.9	9.7	100.0
	영남권	(309)	9.8	49.9	59.7	25.1	6.8	31.9	8.4	100.0
	강원	(35)	22.6	42.9	65.5	22.9	2.1	25.1	9.4	100.0
	제주	(13)	23.8	30.7	54.6	18.6	3.7	22.3	23.1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9.6	49.6	59.1	26.1	3.9	30.0	10.9	100.0
	중 · 소도시	(507)	14.3	49.5	63.8	18.6	5.2	23.8	12.4	100.0
	읍/면	(134)	16.4	40.8	57.2	26.3	5.9	32.2	10.5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16.0	43.4	59.4	25.0	6.1	31.1	9.5	100.0
	중도	(580)	9.2	51.5	60.7	22.1	3.8	25.9	13.4	100.0
	보수적	(286)	14.4	48.9	63.3	22.5	4.8	27.3	9.3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0.0	0.0	0.0	100.0	100.0
종교별	불교	(257)	11.7	50.7	62.4	23.3	4.1	27.4	10.2	100.0
	기독교	(243)	11.9	45.7	57.6	26.5	4.9	31.4	11.0	100.0
	천주교	(73)	16.0	44.7	60.7	23.8	7.8	31.6	7.7	100.0
	기타	(3)	34.6	47.1	81.8	0.0	0.0	0.0	18.2	100.0
	종교없음	(603)	12.2	50.1	62.3	21.3	4.3	25.7	12.0	100.0
	모름/무응답	(21)	13.2	24.4	37.6	25.6	8.5	34.1	28.3	100.0

표 30-1.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
- ㉮ 약간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개성공단은 유지되어야 한다

문)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찬성	② 다소 찬성	①+②	③ 반반/ 그저 그렇다	④ 다소 반대	⑤ 매우 반대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8.4	37.3	45.7	34.0	17.4	2.9	20.3	100.0
성별	남자	(612)	10.3	38.1	48.4	32.0	16.4	3.2	19.6	100.0
	여자	(588)	6.4	36.6	42.9	36.0	18.5	2.5	21.0	100.0
연령별	19~29세	(248)	3.8	33.9	37.7	36.9	20.5	4.9	25.4	100.0
	30대	(269)	7.8	43.7	51.5	32.2	14.6	1.8	16.3	100.0
	40대	(304)	10.7	32.2	42.9	38.1	16.7	2.2	19.0	100.0
	50대 이상	(378)	9.9	39.2	49.1	30.0	18.0	2.9	20.9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7.6	30.8	38.5	42.8	15.0	3.8	18.8	100.0
	고졸	(518)	8.1	38.4	46.5	33.2	18.3	1.9	20.2	100.0
	대재 이상	(591)	8.8	37.1	45.9	33.4	17.1	3.6	20.7	100.0
	모름/무응답	(2)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34.4	33.2	67.5	27.3	5.1	0.0	5.1	100.0
	자영업	(203)	12.0	39.7	51.7	27.6	17.8	3.0	20.7	100.0
	블루 칼라	(307)	5.8	37.3	43.1	38.3	15.2	3.5	18.6	100.0
	화이트칼라	(314)	10.7	38.1	48.8	30.8	17.8	2.6	20.4	100.0
	전업 주부	(230)	6.0	38.0	43.9	34.4	19.4	2.3	21.7	100.0
	무직/기타	(130)	4.6	31.3	35.9	41.9	18.8	3.5	22.2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0.0	100.0	0.0	10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9.0	38.4	47.5	37.3	9.4	5.8	15.2	100.0
	200~299만원	(227)	7.4	37.5	44.9	34.9	18.2	2.0	20.2	100.0
	300~399만원	(393)	5.9	37.8	43.7	32.7	20.8	2.8	23.6	100.0
	400만원 이상	(481)	10.7	36.6	47.4	33.9	15.9	2.8	18.7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7.9	38.9	46.8	36.9	14.3	2.0	16.3	100.0
	충청권	(120)	16.6	29.8	46.4	38.6	11.9	3.2	15.1	100.0
	호남권	(115)	13.4	40.1	53.4	30.7	15.2	0.7	15.8	100.0
	영남권	(309)	3.8	37.1	40.9	28.0	26.0	5.0	31.1	100.0
	강원	(35)	11.4	26.5	37.9	30.3	26.9	4.9	31.8	100.0
	제주	(13)	13.8	44.1	57.9	32.0	6.6	3.5	10.1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6.9	44.2	51.1	29.9	16.5	2.6	19.0	100.0
	중 · 소도시	(507)	9.5	31.7	41.2	36.8	19.0	3.0	22.0	100.0
	읍/면	(134)	10.1	30.1	40.2	40.3	15.5	4.0	19.4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11.3	40.3	51.6	29.9	15.4	3.2	18.6	100.0
	중도	(580)	6.8	35.7	42.5	37.7	17.0	2.8	19.8	100.0
	보수적	(286)	8.1	36.9	45.1	31.3	20.8	2.7	23.6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6.6	39.9	46.5	33.7	16.7	3.1	19.8	100.0
	기독교	(243)	9.3	42.6	51.9	32.3	14.4	1.4	15.8	100.0
	천주교	(73)	8.4	35.3	43.7	32.3	21.0	3.0	24.0	100.0
	기타	(3)	34.6	47.1	81.8	18.2	0.0	0.0	0.0	100.0
	종교없음	(603)	8.9	34.5	43.5	34.5	19.0	3.0	22.0	100.0
	모름/무응답	(21)	0.0	31.3	31.3	49.3	6.0	13.4	19.4	100.0

표 30-2.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 – ㉯ 금강산 관광은 재개되어야 한다

문)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찬성	② 다소 찬성	①+②	③ 반반/ 그저 그렇다	④ 다소 반대	⑤ 매우 반대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13.3	36.3	49.7	34.8	13.1	2.4	15.5	100.0
성별	남자	(612)	16.3	33.1	49.5	33.7	13.9	2.9	16.8	100.0
	여자	(588)	10.2	39.7	49.9	36.0	12.2	1.9	14.1	100.0
연령별	19~29세	(248)	11.1	34.8	46.0	36.6	15.8	1.6	17.4	100.0
	30대	(269)	10.7	38.5	49.3	34.5	14.4	1.9	16.3	100.0
	40대	(304)	16.8	32.6	49.4	34.7	13.7	2.2	15.9	100.0
	50대 이상	(378)	13.8	38.7	52.6	34.1	9.9	3.5	13.4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6.6	39.0	45.6	35.6	14.3	4.5	18.8	100.0
	고졸	(518)	13.0	37.6	50.6	34.8	13.3	1.3	14.6	100.0
	대재 이상	(591)	14.7	34.7	49.4	34.7	12.7	3.1	15.8	100.0
	모름/무응답	(2)	0.0	60.1	60.1	39.9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28.8	16.4	45.2	48.4	0.0	6.5	6.5	100.0
	자영업	(203)	18.0	35.1	53.1	30.2	12.3	4.3	16.7	100.0
	블루 칼라	(307)	10.9	36.0	46.9	35.4	15.4	2.3	17.7	100.0
	화이트칼라	(314)	15.7	32.7	48.4	39.2	10.1	2.3	12.4	100.0
	전업 주부	(230)	7.4	44.3	51.7	34.2	12.5	1.6	14.1	100.0
	무직/기타	(130)	14.8	36.1	50.9	29.4	18.7	1.0	19.7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10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14.5	38.1	52.6	32.0	10.9	4.4	15.4	100.0
	200~299만원	(227)	11.7	44.6	56.3	27.4	14.5	1.8	16.2	100.0
	300~399만원	(393)	13.0	35.1	48.1	34.1	16.2	1.6	17.8	100.0
	400만원 이상	(481)	14.1	33.0	47.2	39.5	10.4	3.0	13.3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12.8	36.5	49.3	36.7	12.4	1.5	13.9	100.0
	충청권	(120)	18.7	29.6	48.3	38.9	8.4	4.3	12.8	100.0
	호남권	(115)	22.3	44.0	66.3	27.0	6.0	0.7	6.7	100.0
	영남권	(309)	7.9	35.9	43.8	33.6	18.7	3.8	22.5	100.0
	강원	(35)	22.5	29.4	51.9	25.4	20.3	2.5	22.7	100.0
	제주	(13)	13.9	47.9	61.8	30.8	0.0	7.4	7.4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10.3	36.5	46.7	41.4	10.6	1.3	11.9	100.0
	중 · 소도시	(507)	16.9	37.6	54.4	26.5	15.4	3.7	19.1	100.0
	읍/면	(134)	12.8	31.1	43.9	39.1	14.6	2.4	17.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16.6	39.3	55.9	32.4	10.9	0.8	11.7	100.0
	중도	(580)	11.5	35.0	46.5	37.4	13.4	2.6	16.1	100.0
	보수적	(286)	13.3	35.7	49.0	32.1	15.0	3.9	18.9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100.0	0.0	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12.5	40.3	52.7	31.9	13.1	2.3	15.4	100.0
	기독교	(243)	18.4	37.4	55.8	32.6	10.4	1.3	11.6	100.0
	천주교	(73)	10.7	36.9	47.6	34.9	13.7	3.7	17.4	100.0
	기타	(3)	34.6	18.5	53.1	46.9	0.0	0.0	0.0	100.0
	종교없음	(603)	12.1	34.1	46.2	36.7	14.2	2.9	17.1	100.0
	모름/무응답	(21)	8.5	39.8	48.3	40.8	10.8	0.0	10.8	100.0

표 30-1.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
- ㉰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대북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

문)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찬성	② 다소 찬성	①+②	③ 반반/ 그저 그렇다	④ 다소 반대	⑤ 매우 반대	④+⑤	모름/ 무응답	계
			%	%	%	%	%	%	%	%	%
전 체		(1,200)	17.0	32.3	49.3	33.2	15.0	2.3	17.3	0.1	100.0
성별	남자	(612)	17.7	28.8	46.5	36.8	13.8	2.7	16.5	0.1	100.0
	여자	(588)	16.4	35.9	52.3	29.4	16.2	2.0	18.1	0.1	100.0
연령별	19~29세	(248)	18.2	31.3	49.5	34.9	14.1	1.1	15.3	0.3	100.0
	30대	(269)	13.1	31.8	45.0	36.9	15.6	2.5	18.1	0.0	100.0
	40대	(304)	16.3	31.2	47.5	33.2	16.8	2.5	19.3	0.0	100.0
	50대 이상	(378)	19.6	34.2	53.8	29.5	13.6	2.8	16.5	0.2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17.0	38.6	55.6	29.3	13.3	0.9	14.2	0.9	100.0
	고졸	(518)	17.7	31.9	49.6	33.9	14.3	2.2	16.5	0.0	100.0
	대재 이상	(591)	16.4	31.8	48.2	33.3	15.6	2.7	18.4	0.1	100.0
	모름/무응답	(2)	39.9	0.0	39.9	0.0	60.1	0.0	60.1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8.5	32.7	41.1	18.9	23.4	16.6	39.9	0.0	100.0
	자영업	(203)	18.4	32.6	51.0	30.8	16.3	1.6	17.9	0.4	100.0
	블루 칼라	(307)	16.7	33.1	49.8	35.1	14.3	0.8	15.1	0.0	100.0
	화이트칼라	(314)	17.1	29.4	46.4	35.1	14.1	4.1	18.2	0.3	100.0
	전업 주부	(230)	17.2	39.1	56.3	27.3	15.3	1.2	16.4	0.0	100.0
	무직/기타	(130)	16.5	24.6	41.0	40.3	15.4	3.3	18.7	0.0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17.8	27.8	45.6	39.3	11.7	3.4	15.1	0.0	100.0
	200~299만원	(227)	19.5	29.2	48.6	33.3	14.7	3.4	18.1	0.0	100.0
	300~399만원	(393)	14.7	34.4	49.1	31.5	17.5	1.4	19.0	0.4	100.0
	400만원 이상	(481)	17.6	33.0	50.6	33.3	13.7	2.4	16.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18.1	33.4	51.4	32.3	14.8	1.4	16.2	0.0	100.0
	충청권	(120)	13.3	25.4	38.7	40.1	15.9	5.3	21.2	0.0	100.0
	호남권	(115)	15.9	28.9	44.8	27.0	22.6	4.1	26.7	1.4	100.0
	영남권	(309)	17.6	34.7	52.3	34.8	11.3	1.6	13.0	0.0	100.0
	강원	(35)	8.8	25.5	34.3	39.0	18.1	8.7	26.8	0.0	100.0
	제주	(13)	20.4	38.8	59.2	13.7	23.4	3.7	27.1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16.3	36.9	53.2	31.7	13.8	1.2	15.1	0.0	100.0
	중 · 소도시	(507)	17.3	29.4	46.6	34.9	15.7	2.6	18.3	0.2	100.0
	읍/면	(134)	19.2	24.1	43.3	33.2	17.0	5.9	22.9	0.6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20.2	31.0	51.2	30.3	15.2	3.3	18.5	0.0	100.0
	중도	(580)	13.7	33.8	47.5	35.7	15.2	1.3	16.5	0.3	100.0
	보수적	(286)	20.2	30.5	50.7	31.7	14.3	3.3	17.6	0.0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16.5	33.9	50.4	37.9	9.9	1.7	11.6	0.0	100.0
	기독교	(243)	20.2	32.5	52.7	27.6	17.2	2.5	19.7	0.0	100.0
	천주교	(73)	15.3	29.5	44.8	28.7	25.5	1.0	26.5	0.0	100.0
	기타	(3)	0.0	18.5	18.5	46.9	0.0	34.6	34.6	0.0	100.0
	종교없음	(603)	16.3	32.3	48.6	33.4	15.1	2.6	17.7	0.3	100.0
	모름/무응답	(21)	13.4	23.9	37.3	48.2	14.5	0.0	14.5	0.0	100.0

표 30-4.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 – ㉱ 대북삐라 살포는 하지 말아야 한다

문)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찬성	② 다소 찬성	①+②	③ 반반/ 그저 그렇다	④ 다소 반대	⑤ 매우 반대	④+⑤	모름/ 무응답	계
			%	%	%	%	%	%	%	%	%
전 체		(1,200)	16.1	32.6	48.7	36.3	12.3	2.5	14.8	0.2	100.0
성별	남자	(612)	16.0	33.5	49.5	33.1	14.1	3.1	17.2	0.2	100.0
	여자	(588)	16.2	31.7	47.9	39.6	10.5	1.9	12.3	0.2	100.0
연령별	19~29세	(248)	13.9	32.4	46.3	39.5	11.0	2.4	13.4	0.8	100.0
	30대	(269)	14.2	35.0	49.1	36.9	11.7	2.3	14.0	0.0	100.0
	40대	(304)	16.0	33.4	49.3	35.9	13.1	1.6	14.7	0.0	100.0
	50대 이상	(378)	19.1	30.5	49.6	34.0	13.0	3.5	16.4	0.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16.5	31.1	47.6	38.7	12.0	1.7	13.7	0.0	100.0
	고졸	(518)	15.8	34.4	50.1	36.4	11.2	2.3	13.4	0.0	100.0
	대재 이상	(591)	16.3	31.2	47.5	35.9	13.4	2.8	16.2	0.3	100.0
	모름/무응답	(2)	39.9	60.1	100.0	0.0	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10.1	29.6	39.8	34.9	25.3	0.0	25.3	0.0	100.0
	자영업	(203)	19.0	27.1	46.1	33.9	15.6	4.3	20.0	0.0	100.0
	블루 칼라	(307)	10.9	37.6	48.5	39.4	10.2	1.9	12.1	0.0	100.0
	화이트칼라	(314)	20.9	28.7	49.6	35.3	11.5	3.5	15.1	0.0	100.0
	전업 주부	(230)	15.7	36.1	51.8	34.7	13.1	0.4	13.5	0.0	100.0
	무직/기타	(130)	13.8	32.8	46.5	38.1	11.3	2.5	13.8	1.5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11.6	28.1	39.7	38.8	17.3	4.2	21.5	0.0	100.0
	200~299만원	(227)	15.6	33.6	49.2	38.8	10.4	1.7	12.0	0.0	100.0
	300~399만원	(393)	11.2	36.9	48.1	37.3	12.1	2.6	14.6	0.0	100.0
	400만원 이상	(481)	21.3	29.6	50.9	33.7	12.4	2.5	14.9	0.4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16.6	30.6	47.2	37.3	12.9	2.2	15.1	0.3	100.0
	충청권	(120)	20.3	32.3	52.6	39.0	7.2	1.3	8.4	0.0	100.0
	호남권	(115)	14.5	38.5	53.0	33.4	10.1	3.6	13.6	0.0	100.0
	영남권	(309)	15.3	35.4	50.7	34.6	12.4	2.2	14.7	0.0	100.0
	강원	(35)	6.7	23.0	29.7	36.3	22.9	11.2	34.0	0.0	100.0
	제주	(13)	14.5	35.7	50.2	26.2	21.5	2.1	23.6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15.7	36.2	52.0	35.2	11.7	0.7	12.5	0.4	100.0
	중 · 소도시	(507)	17.7	29.7	47.4	37.5	11.6	3.5	15.1	0.0	100.0
	읍/면	(134)	11.8	28.7	40.4	35.8	17.5	6.3	23.8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16.4	37.3	53.7	35.5	10.3	0.5	10.8	0.0	100.0
	중도	(580)	15.5	30.6	46.1	40.2	10.5	2.8	13.3	0.3	100.0
	보수적	(286)	17.2	31.0	48.2	29.3	18.3	4.3	22.6	0.0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15.6	34.6	50.2	36.6	10.4	2.7	13.1	0.0	100.0
	기독교	(243)	20.7	30.7	51.4	34.0	12.6	1.9	14.5	0.0	100.0
	천주교	(73)	15.2	36.7	51.9	33.1	11.9	3.0	15.0	0.0	100.0
	기타	(3)	34.6	18.5	53.1	18.2	28.7	0.0	28.7	0.0	100.0
	종교없음	(603)	14.6	32.2	46.9	37.7	12.9	2.4	15.3	0.2	100.0
	모름/무응답	(21)	12.3	29.2	41.5	30.6	16.8	6.2	23.0	4.9	100.0

표 30-5.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
- ㉲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야 한다

문)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찬성	② 다소 찬성	①+②	③ 반반/ 그저 그렇다	④ 다소 반대	⑤ 매우 반대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22.8	43.1	65.9	28.2	5.2	0.8	5.9	100.0
성별	남자	(612)	22.4	43.7	66.1	27.4	5.6	0.9	6.5	100.0
	여자	(588)	23.2	42.5	65.7	29.0	4.7	0.6	5.3	100.0
연령별	19~29세	(248)	23.7	44.5	68.2	23.7	7.0	1.2	8.2	100.0
	30대	(269)	26.1	40.0	66.1	29.5	4.0	0.4	4.4	100.0
	40대	(304)	21.7	43.0	64.8	30.0	4.1	1.2	5.3	100.0
	50대 이상	(378)	20.8	44.4	65.2	28.7	5.6	0.4	6.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21.2	39.2	60.4	35.2	2.0	2.4	4.4	100.0
	고졸	(518)	18.0	44.7	62.8	31.6	5.3	0.4	5.7	100.0
	대재 이상	(591)	27.2	42.2	69.4	24.2	5.5	0.9	6.4	100.0
	모름/무응답	(2)	39.9	60.1	100.0	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20.9	54.8	75.7	24.3	0.0	0.0	0.0	100.0
	자영업	(203)	22.5	46.4	68.9	25.2	4.7	1.1	5.9	100.0
	블루 칼라	(307)	20.9	43.7	64.6	31.4	3.4	0.6	4.0	100.0
	화이트칼라	(314)	27.4	40.0	67.3	26.4	4.9	1.4	6.3	100.0
	전업 주부	(230)	17.9	44.3	62.1	31.6	5.9	0.4	6.2	100.0
	무직/기타	(130)	25.4	40.6	66.0	24.0	10.0	0.0	10.0	100.0
	모름/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21.4	36.9	58.3	34.1	4.8	2.9	7.7	100.0
	200~299만원	(227)	23.1	39.8	62.9	31.7	4.8	0.7	5.5	100.0
	300~399만원	(393)	18.7	46.4	65.1	28.0	6.7	0.3	6.9	100.0
	400만원 이상	(481)	26.4	43.2	69.6	25.4	4.2	0.8	5.0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22.0	45.5	67.5	27.5	4.4	0.6	5.0	100.0
	충청권	(120)	29.7	36.8	66.5	30.8	2.1	0.6	2.7	100.0
	호남권	(115)	26.5	38.8	65.2	27.0	6.4	1.4	7.8	100.0
	영남권	(309)	19.2	42.7	61.9	31.0	6.8	0.3	7.1	100.0
	강원	(35)	24.8	43.2	68.0	15.7	9.2	7.0	16.3	100.0
	제주	(13)	48.3	33.8	82.1	11.1	6.8	0.0	6.8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21.1	46.4	67.5	27.8	4.3	0.4	4.7	100.0
	중 · 소도시	(507)	25.3	40.9	66.2	27.1	6.1	0.6	6.7	100.0
	읍/면	(134)	20.8	37.2	58.0	33.7	5.2	3.1	8.3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26.5	45.1	71.5	23.0	5.3	0.2	5.5	100.0
	중도	(580)	20.2	39.7	59.9	33.9	5.5	0.8	6.2	100.0
	보수적	(286)	24.0	47.3	71.3	22.8	4.4	1.5	5.8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18.0	41.6	59.5	34.3	4.8	1.3	6.1	100.0
	기독교	(243)	26.3	48.9	75.2	21.0	3.4	0.4	3.8	100.0
	천주교	(73)	22.6	45.9	68.5	24.1	7.4	0.0	7.4	100.0
	기타	(3)	0.0	81.8	81.8	18.2	0.0	0.0	0.0	100.0
	종교없음	(603)	23.2	41.7	64.9	28.7	5.6	0.8	6.4	100.0
	모름/무응답	(21)	34.0	20.4	54.4	36.0	9.7	0.0	9.7	100.0

표 30-6.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 – ㉯ 한국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

문)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찬성	② 다소 찬성	①+②	③ 반반/ 그저 그렇다	④ 다소 반대	⑤ 매우 반대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20.9	34.3	55.3	27.2	12.4	5.2	17.5	100.0
성별	남자	(612)	23.6	32.4	56.0	26.9	12.6	4.5	17.1	100.0
	여자	(588)	18.2	36.3	54.5	27.5	12.1	5.9	18.0	100.0
연령별	19~29세	(248)	16.6	32.4	49.0	28.3	15.2	7.5	22.8	100.0
	30대	(269)	21.1	34.3	55.4	28.7	10.6	5.3	15.9	100.0
	40대	(304)	22.8	34.4	57.2	25.7	12.2	4.9	17.1	100.0
	50대 이상	(378)	22.2	35.6	57.8	26.6	11.8	3.8	15.7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22.4	32.8	55.1	34.2	6.3	4.4	10.7	100.0
	고졸	(518)	21.0	35.9	56.8	26.6	12.4	4.2	16.6	100.0
	대재 이상	(591)	20.6	33.4	53.9	26.8	13.1	6.2	19.3	100.0
	모름/무응답	(2)	39.9	0.0	39.9	0.0	60.1	0.0	60.1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40.4	21.5	61.9	25.9	4.9	7.3	12.2	100.0
	자영업	(203)	23.7	38.9	62.6	21.4	13.3	2.7	16.0	100.0
	블루 칼라	(307)	20.5	34.9	55.4	31.3	9.4	4.0	13.4	100.0
	화이트칼라	(314)	21.3	28.7	50.0	28.6	14.6	6.7	21.3	100.0
	전업 주부	(230)	22.9	40.4	63.3	22.5	10.1	4.1	14.2	100.0
	무직/기타	(130)	11.1	30.6	41.7	31.0	17.3	10.0	27.3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10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21.0	28.9	49.9	32.4	9.3	8.4	17.7	100.0
	200~299만원	(227)	17.2	32.0	49.1	32.2	12.3	6.3	18.6	100.0
	300~399만원	(393)	20.7	36.7	57.4	27.9	11.2	3.5	14.7	100.0
	400만원 이상	(481)	22.9	34.7	57.5	23.2	13.9	5.4	19.3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19.5	40.7	60.2	21.8	12.1	5.8	17.9	100.0
	충청권	(120)	15.6	28.4	44.0	46.3	6.1	3.6	9.7	100.0
	호남권	(115)	30.6	26.5	57.1	24.9	13.7	4.3	18.0	100.0
	영남권	(309)	19.8	29.2	49.0	32.7	14.6	3.7	18.3	100.0
	강원	(35)	34.0	24.6	58.7	16.2	11.4	13.7	25.2	100.0
	제주	(13)	41.4	9.3	50.6	20.3	18.0	11.1	29.1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19.1	40.1	59.2	23.5	13.2	4.1	17.3	100.0
	중 · 소도시	(507)	21.4	30.6	51.9	30.5	11.9	5.7	17.6	100.0
	읍/면	(134)	27.0	24.3	51.3	30.2	10.9	7.6	18.6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23.5	38.5	62.0	22.4	10.7	4.9	15.6	100.0
	중도	(580)	16.2	34.2	50.5	32.1	12.9	4.5	17.4	100.0
	보수적	(286)	27.1	29.9	57.0	22.9	13.2	6.9	20.1	100.0
	모름/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17.7	33.0	50.7	31.5	13.6	4.2	17.8	100.0
	기독교	(243)	27.0	32.3	59.3	25.3	10.7	4.7	15.4	100.0
	천주교	(73)	24.3	36.6	60.9	20.4	10.9	7.8	18.7	100.0
	기타	(3)	18.5	28.7	47.1	52.9	0.0	0.0	0.0	100.0
	종교없음	(603)	19.7	35.6	55.3	26.9	12.6	5.2	17.8	100.0
	모름/무응답	(21)	13.2	31.6	44.7	25.1	16.8	13.4	30.2	100.0

표 31-1. 각국별 최근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 정도 – ㉮ 북한의 책임

문) ○○님은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각국의 책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아주 크다	② 조금 크다	①+②	③ 중간이다	④ 별로 크지 않다	⑤ 거의 없다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64.6	26.3	90.9	7.8	0.9	0.4	1.2	100.0
성별	남자	(612)	64.9	25.9	90.9	7.8	1.1	0.2	1.3	100.0
	여자	(588)	64.3	26.7	91.0	7.8	0.6	0.5	1.1	100.0
연령별	19~29세	(248)	62.1	28.5	90.6	8.2	0.3	0.9	1.2	100.0
	30대	(269)	63.1	27.3	90.4	9.1	0.5	0.0	0.5	100.0
	40대	(304)	59.9	31.4	91.4	6.7	1.5	0.4	1.9	100.0
	50대 이상	(378)	71.2	20.0	91.2	7.5	1.0	0.2	1.2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64.9	24.0	88.9	7.8	0.8	2.4	3.2	100.0
	고졸	(518)	64.9	25.2	90.1	8.6	1.3	0.0	1.3	100.0
	대재 이상	(591)	64.2	27.8	92.0	7.2	0.5	0.4	0.8	100.0
	모름/무응답	(2)	100.0	0.0	100.0	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73.7	15.9	89.6	10.4	0.0	0.0	0.0	100.0
	자영업	(203)	69.0	20.8	89.7	8.5	1.1	0.6	1.8	100.0
	블루 칼라	(307)	62.4	28.6	90.9	7.9	1.1	0.0	1.1	100.0
	화이트칼라	(314)	64.8	26.1	90.9	7.5	0.9	0.7	1.6	100.0
	전업 주부	(230)	63.0	28.2	91.2	7.6	0.8	0.4	1.1	100.0
	무직/기타	(130)	64.4	28.2	92.6	7.4	0.0	0.0	0.0	100.0
	모름/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55.2	29.1	84.3	11.9	0.8	3.1	3.8	100.0
	200~299만원	(227)	61.7	26.7	88.3	9.3	2.4	0.0	2.4	100.0
	300~399만원	(393)	65.1	27.2	92.3	7.1	0.6	0.0	0.6	100.0
	400만원 이상	(481)	67.6	24.8	92.4	6.9	0.4	0.3	0.7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66.6	27.0	93.5	5.2	0.8	0.4	1.2	100.0
	충청권	(120)	68.2	26.4	94.6	5.4	0.0	0.0	0.0	100.0
	호남권	(115)	62.7	23.3	86.0	12.6	0.7	0.8	1.4	100.0
	영남권	(309)	61.5	26.0	87.5	11.5	1.0	0.0	1.0	100.0
	강원	(35)	54.7	24.7	79.4	13.8	4.3	2.5	6.8	100.0
	제주	(13)	59.9	33.4	93.3	6.7	0.0	0.0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70.4	22.9	93.4	6.1	0.6	0.0	0.6	100.0
	중 · 소도시	(507)	60.3	29.2	89.5	9.4	0.9	0.2	1.1	100.0
	읍/면	(134)	56.6	29.8	86.3	9.2	1.9	2.6	4.5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64.2	28.4	92.6	6.3	0.8	0.3	1.1	100.0
	중도	(580)	61.6	28.1	89.7	9.1	0.8	0.4	1.2	100.0
	보수적	(286)	71.2	20.3	91.5	7.2	1.1	0.3	1.4	100.0
	모름/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61.4	27.8	89.2	9.7	0.8	0.3	1.1	100.0
	기독교	(243)	68.7	22.4	91.1	8.5	0.0	0.4	0.4	100.0
	천주교	(73)	62.5	33.0	95.6	4.4	0.0	0.0	0.0	100.0
	기타	(3)	81.5	18.5	100.0	0.0	0.0	0.0	0.0	100.0
	종교없음	(603)	64.8	26.4	91.2	7.2	1.2	0.4	1.6	100.0
	모름/무응답	(21)	56.5	29.9	86.4	7.4	6.2	0.0	6.2	100.0

표 31-2. 각국별 최근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 정도 – ㉯ 한국의 책임

문) ○○님은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각국의 책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아주 크다	② 조금 크다	①+②	③ 중간이다	④ 별로 크지 않다	⑤ 거의 없다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9.6	36.2	45.7	35.1	16.3	2.8	19.2	100.0
성별	남자	(612)	9.6	36.2	45.8	36.2	14.6	3.3	18.0	100.0
	여자	(588)	9.5	36.1	45.7	34.0	18.0	2.3	20.4	100.0
연령별	19~29세	(248)	10.7	30.2	40.8	39.6	17.0	2.6	19.6	100.0
	30대	(269)	8.4	39.9	48.3	33.6	17.0	1.1	18.1	100.0
	40대	(304)	9.5	37.6	47.1	34.2	15.7	3.0	18.7	100.0
	50대 이상	(378)	9.7	36.4	46.1	34.0	15.9	4.1	20.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7.6	28.2	35.8	40.8	17.0	6.4	23.4	100.0
	고졸	(518)	8.5	36.2	44.8	33.5	19.1	2.6	21.7	100.0
	대재 이상	(591)	10.6	37.3	47.9	35.8	13.8	2.5	16.3	100.0
	모름/무응답	(2)	60.1	39.9	100.0	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32.4	17.3	49.7	39.9	10.4	0.0	10.4	100.0
	자영업	(203)	13.4	36.8	50.2	31.8	14.7	3.3	18.0	100.0
	블루 칼라	(307)	7.2	31.5	38.7	37.5	20.1	3.7	23.8	100.0
	화이트칼라	(314)	11.0	42.4	53.4	30.9	13.9	1.8	15.7	100.0
	전업 주부	(230)	7.0	36.3	43.3	35.2	18.5	3.0	21.5	100.0
	무직/기타	(130)	7.4	33.0	40.3	44.3	12.6	2.8	15.4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7.6	32.5	40.0	43.6	13.0	3.4	16.3	100.0
	200~299만원	(227)	10.1	36.3	46.4	37.0	13.5	3.2	16.7	100.0
	300~399만원	(393)	10.5	34.1	44.5	36.4	17.2	1.9	19.1	100.0
	400만원 이상	(481)	8.9	38.7	47.6	31.4	17.6	3.3	21.0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7.6	40.8	48.4	33.6	14.8	3.2	18.0	100.0
	충청권	(120)	21.8	42.0	63.9	26.3	7.8	2.0	9.8	100.0
	호남권	(115)	17.3	42.5	59.8	32.7	6.1	1.4	7.4	100.0
	영남권	(309)	5.3	24.0	29.4	41.7	26.4	2.6	29.0	100.0
	강원	(35)	9.0	23.1	32.1	45.1	15.7	7.1	22.8	100.0
	제주	(13)	18.4	36.7	55.1	24.5	16.5	3.9	20.4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8.4	39.2	47.6	31.8	17.2	3.3	20.6	100.0
	중 · 소도시	(507)	10.4	33.3	43.7	37.6	16.4	2.3	18.7	100.0
	읍/면	(134)	10.9	34.7	45.6	39.3	12.0	3.0	15.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11.9	39.9	51.9	30.8	15.7	1.6	17.4	100.0
	중도	(580)	9.1	34.6	43.7	37.5	16.1	2.7	18.9	100.0
	보수적	(286)	7.8	34.8	42.6	35.5	17.4	4.5	21.9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7.3	31.3	38.6	36.8	22.7	1.8	24.5	100.0
	기독교	(243)	11.0	42.0	52.9	33.8	9.8	3.4	13.2	100.0
	천주교	(73)	14.0	42.8	56.8	28.1	11.3	3.9	15.1	100.0
	기타	(3)	34.6	36.7	71.3	28.7	0.0	0.0	0.0	100.0
	종교없음	(603)	9.5	35.1	44.5	35.6	17.2	2.6	19.8	100.0
	모름/무응답	(21)	3.6	38.6	42.2	38.0	8.9	10.8	19.8	100.0

표 31-3. 각국별 최근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 정도 – ㉰ 미국의 책임

문) ○○님은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각국의 책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아주 크다	② 조금 크다	①+②	③ 중간이다	④ 별로 크지 않다	⑤ 거의 없다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12.1	36.5	48.6	35.8	13.2	2.4	15.6	100.0
성별	남자	(612)	12.6	35.7	48.3	38.3	10.9	2.5	13.5	100.0
	여자	(588)	11.5	37.4	48.9	33.3	15.6	2.3	17.9	100.0
연령별	19~29세	(248)	6.6	34.0	40.7	42.3	12.6	4.5	17.0	100.0
	30대	(269)	11.4	43.5	54.9	32.3	12.4	0.3	12.7	100.0
	40대	(304)	17.6	31.1	48.7	37.4	11.5	2.4	13.9	100.0
	50대 이상	(378)	11.6	37.5	49.1	32.7	15.6	2.6	18.2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17.3	23.9	41.2	37.5	18.3	3.0	21.4	100.0
	고졸	(518)	10.2	37.0	47.2	35.6	15.3	2.0	17.2	100.0
	대재 이상	(591)	12.8	38.1	50.9	35.7	10.7	2.7	13.4	100.0
	모름/무응답	(2)	39.9	0.0	39.9	60.1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26.3	38.1	64.4	23.6	11.9	0.0	11.9	100.0
	자영업	(203)	16.7	37.7	54.4	28.8	14.8	2.0	16.8	100.0
	블루 칼라	(307)	11.7	34.8	46.6	40.2	10.9	2.4	13.2	100.0
	화이트칼라	(314)	12.9	37.0	49.9	35.6	12.0	2.5	14.5	100.0
	전업 주부	(230)	10.2	35.0	45.2	33.5	18.9	2.4	21.4	100.0
	무직/기타	(130)	5.3	39.3	44.6	42.7	9.4	3.2	12.6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18.1	28.9	47.1	35.8	16.3	0.9	17.1	100.0
	200~299만원	(227)	10.5	38.6	49.1	35.7	12.4	2.8	15.2	100.0
	300~399만원	(393)	13.2	34.7	47.8	35.9	14.7	1.5	16.3	100.0
	400만원 이상	(481)	10.6	38.6	49.2	35.8	11.7	3.3	15.0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8.7	34.9	43.6	39.4	14.3	2.7	17.0	100.0
	충청권	(120)	28.8	40.4	69.1	26.2	4.0	0.7	4.6	100.0
	호남권	(115)	21.8	36.7	58.5	34.5	5.6	1.4	7.0	100.0
	영남권	(309)	7.7	38.8	46.5	32.2	18.8	2.5	21.3	100.0
	강원	(35)	15.8	24.7	40.5	48.0	6.8	4.7	11.5	100.0
	제주	(13)	23.8	49.5	73.3	23.0	0.0	3.7	3.7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8.0	34.9	42.8	37.4	17.1	2.7	19.8	100.0
	중 · 소도시	(507)	17.2	38.4	55.5	33.6	8.8	2.0	10.9	100.0
	읍/면	(134)	9.8	36.3	46.1	37.8	13.4	2.6	16.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15.5	33.9	49.4	34.6	14.2	1.8	16.0	100.0
	중도	(580)	10.3	38.2	48.5	36.9	12.3	2.3	14.6	100.0
	보수적	(286)	11.6	36.2	47.8	34.8	14.0	3.4	17.4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100.0	0.0	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9.6	40.3	49.9	32.6	15.1	2.3	17.5	100.0
	기독교	(243)	13.1	38.3	51.4	35.6	11.7	1.4	13.0	100.0
	천주교	(73)	15.2	35.7	50.8	34.5	11.8	2.8	14.7	100.0
	기타	(3)	34.6	36.7	71.3	28.7	0.0	0.0	0.0	100.0
	종교없음	(603)	12.2	34.7	46.9	37.2	13.2	2.7	15.9	100.0
	모름/무응답	(21)	11.0	25.2	36.2	42.9	14.9	6.0	20.9	100.0

표 31-4. 각국별 최근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 정도 – ㉱ 중국의 책임

문) ○○님은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각국의 책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아주 크다	② 조금 크다	①+②	③ 중간이다	④ 별로 크지 않다	⑤ 거의 없다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15.3	43.0	58.3	32.7	7.8	1.2	9.0	100.0
성별	남자	(612)	16.0	41.1	57.0	33.9	7.7	1.3	9.1	100.0
	여자	(588)	14.6	45.1	59.7	31.4	7.9	1.1	8.9	100.0
연령별	19~29세	(248)	15.2	40.4	55.7	34.6	8.6	1.2	9.8	100.0
	30대	(269)	12.8	44.7	57.5	33.1	8.3	1.0	9.4	100.0
	40대	(304)	19.4	38.6	57.9	33.7	7.0	1.4	8.4	100.0
	50대 이상	(378)	13.8	47.1	61.0	30.3	7.6	1.2	8.8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17.3	51.6	68.8	24.5	4.6	2.1	6.7	100.0
	고졸	(518)	13.6	41.0	54.6	34.2	9.9	1.4	11.2	100.0
	대재 이상	(591)	16.4	43.4	59.9	32.7	6.5	1.0	7.5	100.0
	모름/무응답	(2)	39.9	60.1	100.0	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27.6	24.2	51.7	37.9	10.4	0.0	10.4	100.0
	자영업	(203)	19.9	45.3	65.2	23.8	8.6	2.4	11.0	100.0
	블루 칼라	(307)	15.9	41.2	57.0	33.0	8.4	1.6	10.0	100.0
	화이트칼라	(314)	13.7	46.4	60.1	34.1	5.2	0.6	5.9	100.0
	전업 주부	(230)	12.5	43.3	55.7	33.5	9.9	0.8	10.7	100.0
	무직/기타	(130)	13.7	37.7	51.4	40.6	7.3	0.7	8.0	100.0
	모름/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12.9	49.3	62.2	27.5	9.4	0.9	10.2	100.0
	200~299만원	(227)	14.6	41.2	55.8	33.1	9.2	2.0	11.1	100.0
	300~399만원	(393)	16.1	41.9	58.1	33.2	8.0	0.7	8.7	100.0
	400만원 이상	(481)	15.4	43.5	58.9	33.1	6.7	1.3	8.0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12.6	41.7	54.3	34.6	9.5	1.6	11.1	100.0
	충청권	(120)	22.7	42.7	65.4	29.9	4.7	0.0	4.7	100.0
	호남권	(115)	20.3	41.5	61.8	32.9	4.5	0.8	5.3	100.0
	영남권	(309)	15.0	47.7	62.7	29.2	7.5	0.6	8.1	100.0
	강원	(35)	18.0	31.4	49.4	41.3	4.7	4.7	9.3	100.0
	제주	(13)	29.1	42.6	71.7	24.5	0.0	3.7	3.7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13.0	42.4	55.4	34.9	8.2	1.4	9.7	100.0
	중 · 소도시	(507)	18.2	44.8	63.0	28.7	7.8	0.5	8.3	100.0
	읍/면	(134)	13.9	39.0	53.0	38.0	6.1	2.9	9.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16.4	38.7	55.1	35.3	7.9	1.8	9.6	100.0
	중도	(580)	13.9	43.8	57.7	33.5	8.1	0.7	8.8	100.0
	보수적	(286)	17.0	46.6	63.6	27.6	7.2	1.5	8.8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100.0	0.0	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11.5	46.6	58.1	34.5	6.4	0.9	7.3	100.0
	기독교	(243)	16.3	45.7	62.0	31.6	6.0	0.4	6.4	100.0
	천주교	(73)	18.2	42.1	60.2	34.2	5.6	0.0	5.6	100.0
	기타	(3)	34.6	36.7	71.3	28.7	0.0	0.0	0.0	100.0
	종교없음	(603)	16.4	41.0	57.4	31.8	9.2	1.6	10.8	100.0
	모름/무응답	(21)	7.2	30.0	37.2	43.1	13.5	6.2	19.7	100.0

표 31-5. 각국별 최근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 정도 – ㉤ 일본의 책임

문) ○○님은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각국의 책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아주 크다	② 조금 크다	①+②	③ 중간이다	④ 별로 크지 않다	⑤ 거의 없다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11.8	31.4	43.2	41.5	11.6	3.7	15.3	100.0
성별	남자	(612)	11.7	30.2	42.0	42.6	11.7	3.8	15.5	100.0
	여자	(588)	11.9	32.6	44.5	40.3	11.5	3.7	15.2	100.0
연령별	19~29세	(248)	11.1	28.3	39.3	44.7	10.9	5.0	15.9	100.0
	30대	(269)	9.8	30.6	40.4	44.6	11.3	3.7	14.9	100.0
	40대	(304)	13.4	34.6	48.0	36.9	13.0	2.1	15.1	100.0
	50대 이상	(378)	12.5	31.4	43.9	40.7	11.1	4.2	15.3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14.2	38.0	52.1	37.2	7.4	3.2	10.6	100.0
	고졸	(518)	11.5	30.0	41.5	41.5	13.3	3.7	17.0	100.0
	대재 이상	(591)	11.7	31.8	43.4	42.0	10.8	3.8	14.6	100.0
	모름/무응답	(2)	39.9	0.0	39.9	60.1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17.9	26.2	44.1	50.8	5.1	0.0	5.1	100.0
	자영업	(203)	13.2	37.6	50.7	32.5	13.7	3.1	16.7	100.0
	블루 칼라	(307)	12.7	30.4	43.1	44.4	9.7	2.8	12.5	100.0
	화이트칼라	(314)	12.1	31.5	43.6	39.9	11.4	5.1	16.5	100.0
	전업 주부	(230)	10.9	27.8	38.7	43.6	13.3	4.3	17.6	100.0
	무직/기타	(130)	8.0	30.8	38.8	47.6	10.7	2.9	13.6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0.0	100.0	0.0	10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13.0	36.5	49.5	38.6	9.3	2.5	11.8	100.0
	200~299만원	(227)	11.9	31.2	43.2	41.9	13.1	1.8	14.9	100.0
	300~399만원	(393)	13.2	31.0	44.2	43.6	9.2	3.0	12.2	100.0
	400만원 이상	(481)	10.4	30.7	41.1	40.1	13.4	5.4	18.8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9.8	24.7	34.5	45.6	15.9	4.0	19.9	100.0
	충청권	(120)	15.5	41.4	56.9	37.7	5.4	0.0	5.4	100.0
	호남권	(115)	18.6	39.5	58.1	33.7	5.4	2.8	8.2	100.0
	영남권	(309)	10.9	37.3	48.2	39.1	8.3	4.3	12.7	100.0
	강원	(35)	20.6	26.7	47.3	34.8	10.9	7.0	17.9	100.0
	제주	(13)	9.1	53.0	62.1	27.2	3.3	7.4	10.7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7.8	30.6	38.5	42.0	13.7	5.8	19.6	100.0
	중 · 소도시	(507)	15.8	32.8	48.6	40.9	8.9	1.6	10.5	100.0
	읍/면	(134)	13.4	29.3	42.7	41.4	13.0	2.9	15.9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12.7	27.2	39.9	43.5	11.6	5.0	16.6	100.0
	중도	(580)	11.3	31.9	43.2	41.2	12.2	3.4	15.5	100.0
	보수적	(286)	12.0	35.3	47.3	39.7	10.1	3.0	13.0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0.0	100.0	0.0	100.0	100.0
종교별	불교	(257)	8.5	36.7	45.2	41.6	10.1	3.1	13.1	100.0
	기독교	(243)	15.3	33.4	48.7	38.6	9.5	3.2	12.7	100.0
	천주교	(73)	12.5	26.2	38.8	45.8	13.0	2.4	15.5	100.0
	기타	(3)	34.6	36.7	71.3	28.7	0.0	0.0	0.0	100.0
	종교없음	(603)	11.7	29.1	40.8	41.9	12.8	4.5	17.3	100.0
	모름/무응답	(21)	10.7	26.7	37.3	46.5	16.2	0.0	16.2	100.0

표 32.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친근감

문)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새터민)가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혹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②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①+②	③ 별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④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③+④	모름/무응답	계
			%	%	%	%	%	%	%	%
전 체		(1,200)	2.5	40.7	43.3	50.7	5.9	56.6	0.1	100.0
성별	남자	(612)	3.0	43.4	46.4	47.8	5.8	53.6	0.0	100.0
	여자	(588)	2.1	38.0	40.1	53.6	6.1	59.7	0.2	100.0
연령별	19~29세	(248)	1.2	42.3	43.5	49.5	7.0	56.5	0.0	100.0
	30대	(269)	1.5	34.8	36.3	56.9	6.3	63.2	0.5	100.0
	40대	(304)	2.7	36.2	38.9	54.2	6.9	61.1	0.0	100.0
	50대 이상	(378)	4.0	47.6	51.7	44.2	4.2	48.3	0.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4.9	46.4	51.2	41.5	7.3	48.8	0.0	100.0
	고졸	(518)	2.1	43.7	45.8	48.0	6.2	54.2	0.0	100.0
	대재 이상	(591)	2.5	37.3	39.8	54.5	5.5	60.0	0.2	100.0
	모름/무응답	(2)	0.0	60.1	60.1	39.9	0.0	39.9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14.0	29.5	43.5	43.2	13.3	56.5	0.0	100.0
	자영업	(203)	1.4	44.9	46.2	47.9	5.9	53.8	0.0	100.0
	블루 칼라	(307)	2.9	43.0	45.9	47.1	7.0	54.1	0.0	100.0
	화이트칼라	(314)	3.6	37.5	41.1	53.3	5.7	58.9	0.0	100.0
	전업 주부	(230)	2.0	37.3	39.2	55.6	4.6	60.2	0.5	100.0
	무직/기타	(130)	0.8	44.0	44.8	49.6	5.6	55.2	0.0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5.0	44.0	49.0	42.0	9.1	51.0	0.0	100.0
	200~299만원	(227)	2.4	47.0	49.5	42.8	7.8	50.5	0.0	100.0
	300~399만원	(393)	2.5	40.5	43.0	52.3	4.8	57.0	0.0	100.0
	400만원 이상	(481)	2.1	37.3	39.5	54.9	5.4	60.3	0.3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2.0	39.3	41.3	54.0	4.5	58.5	0.2	100.0
	충청권	(120)	5.2	43.9	49.1	46.2	4.6	50.9	0.0	100.0
	호남권	(115)	4.4	33.0	37.5	50.2	12.4	62.5	0.0	100.0
	영남권	(309)	1.9	43.1	45.0	48.4	6.5	55.0	0.0	100.0
	강원	(35)	0.0	50.7	50.7	40.2	9.1	49.3	0.0	100.0
	제주	(13)	9.5	63.1	72.6	23.7	3.7	27.4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2.5	34.4	36.9	56.8	6.3	63.1	0.0	100.0
	중 · 소도시	(507)	2.6	48.1	50.7	44.7	4.3	49.0	0.2	100.0
	읍/면	(134)	2.5	39.2	41.7	47.6	10.7	58.3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3.5	39.5	43.0	51.9	4.7	56.6	0.4	100.0
	중도	(580)	1.5	40.3	41.8	52.1	6.1	58.2	0.0	100.0
	보수적	(286)	3.5	43.3	46.8	46.2	7.1	53.2	0.0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1.9	46.2	48.1	46.5	5.4	51.9	0.0	100.0
	기독교	(243)	2.0	44.4	46.4	45.5	8.0	53.6	0.0	100.0
	천주교	(73)	4.4	33.5	37.9	58.1	4.0	62.1	0.0	100.0
	기타	(3)	53.1	46.9	100.0	0.0	0.0	0.0	0.0	100.0
	종교없음	(603)	2.5	38.0	40.5	53.8	5.5	59.3	0.2	100.0
	모름/무응답	(21)	4.8	34.4	39.2	53.6	7.2	60.8	0.0	100.0

표 33-1. 탈북자(새터민)와의 관계 유형별 태도 – ㉮ 동네 이웃

문) ○○님은 탈북자(새터민)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꺼림	② 다소 꺼림	①+②	③ 반반/ 그저 그렇다	④ 별로 꺼리지 않음	⑤ 전혀 꺼리지 않음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0.8	9.7	10.5	37.2	39.6	12.8	52.4	100
성별	남자	(612)	0.8	8.5	9.3	35.9	40	14.7	54.8	100
	여자	(588)	0.8	10.9	11.7	38.5	39.1	10.7	49.8	100
연령별	19~29세	(248)	0.6	9.9	10.4	33.4	42.3	13.8	56.1	100
	30대	(269)	0.9	9.9	10.8	42.9	33.3	13.1	46.4	100
	40대	(304)	1.6	10.9	12.5	36.6	39.2	11.8	51	100
	50대 이상	(378)	0.3	8.4	8.8	36	42.6	12.6	55.2	1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0.0	12.8	12.8	32.4	42.4	12.4	54.8	100
	고졸	(518)	0.6	10	10.6	36.8	39.9	12.7	52.7	100
	대재 이상	(591)	1.1	9	10.1	38	39	12.9	51.9	100
	모름/무응답	(2)	0.0	0.0	0.0	100	0.0	0.0	0.0	1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0.0	14.9	14.9	43.5	28.6	13	41.6	100
	자영업	(203)	0.5	7.5	8	34.4	43.8	13.8	57.6	100
	블루 칼라	(307)	1.1	11.7	12.8	34.6	37.9	14.6	52.5	100
	화이트칼라	(314)	1.5	9.7	11.2	41.4	35.5	12	47.5	100
	전업 주부	(230)	0.4	6.9	7.2	40.6	42.5	9.7	52.2	100
	무직/기타	(130)	0.0	12.7	12.7	30.5	42.9	13.9	56.8	1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0.0	100	0.0	100	1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0.8	16.6	17.4	39.1	32.6	10.9	43.5	100
	200~299만원	(227)	0.9	11.9	12.8	31.8	43.4	11.9	55.3	100
	300~399만원	(393)	1.1	9.4	10.4	35.9	40.9	12.8	53.6	100
	400만원 이상	(481)	0.6	7.5	8	40.3	38.2	13.5	51.7	100
지역별	수도권	(608)	0.8	9.1	9.9	38.4	39	12.7	51.6	100
	충청권	(120)	1.3	6.3	7.6	43.2	32.6	16.6	49.2	100
	호남권	(115)	1.3	12.5	13.8	32.1	39.6	14.5	54.1	100
	영남권	(309)	0.3	11.6	11.9	35	42.2	10.9	53.1	100
	강원	(35)	2.4	4.4	6.8	34	45	14.2	59.3	100
	제주	(13)	0.0	10.7	10.7	26.1	55.7	7.5	63.2	1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0.4	5.9	6.3	41.1	38.6	14	52.5	100
	중 · 소도시	(507)	1.2	13.7	14.9	31	42.3	11.8	54.1	100
	읍/면	(134)	1.2	10.2	11.4	43.9	33.6	11.1	44.7	1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1.2	11.5	12.8	36.8	35.4	15	50.4	100
	중도	(580)	0.6	11	11.6	37.5	40.9	10	50.9	100
	보수적	(286)	0.9	4.8	5.6	36.5	42	15.8	57.8	1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100	0.0	0.0	0.0	100
종교별	불교	(257)	0.3	13.2	13.5	35.2	40.8	10.5	51.4	100
	기독교	(243)	1.6	6.7	8.2	37.5	38.1	16.1	54.3	100
	천주교	(73)	1.7	10.9	12.6	33.5	45	8.8	53.9	100
	기타	(3)	0.0	18.5	18.5	18.2	28.7	34.6	63.3	100
	종교없음	(603)	0.5	9	9.5	38.7	39.2	12.5	51.7	100
	모름/무응답	(21)	3.6	15.8	19.4	26.4	36.2	18.1	54.3	100

표 33-2. 탈북자(새터민)와의 관계 유형별 태도 – ㉯ 직장 동료

문) ○○님은 탈북자(새터민)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꺼림	② 다소 꺼림	①+②	③ 반반/ 그저 그렇다	④ 별로 꺼리지 않음	⑤ 전혀 꺼리지 않음	④+⑤	모름/ 무응답	계
			%	%	%	%	%	%	%	%	%
전 체		(1,200)	1.2	12.1	13.3	38.3	36.8	11.5	48.3	0.1	100.0
성별	남자	(612)	0.8	11.4	12.2	35.5	38.5	13.8	52.3	0.0	100.0
	여자	(588)	1.5	12.9	14.4	41.3	35.1	9.1	44.2	0.1	100.0
연령별	19~29세	(248)	0.6	13.6	14.2	35.8	36.1	13.9	50.0	0.0	100.0
	30대	(269)	1.9	11.8	13.6	41.9	32.1	12.0	44.1	0.3	100.0
	40대	(304)	1.2	14.3	15.5	37.2	36.8	10.5	47.3	0.0	100.0
	50대 이상	(378)	1.0	9.7	10.7	38.3	40.7	10.3	51.0	0.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0.8	12.9	13.7	40.5	38.8	7.0	45.8	0.0	100.0
	고졸	(518)	1.0	13.1	14.2	36.6	37.5	11.6	49.1	0.1	100.0
	대재 이상	(591)	1.4	11.2	12.5	39.4	36.0	12.1	48.1	0.0	100.0
	모름/무응답	(2)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0.0	14.9	14.9	43.5	36.1	5.6	41.6	0.0	100.0
	자영업	(203)	1.1	11.9	13.0	33.5	43.0	10.2	53.1	0.4	100.0
	블루 칼라	(307)	2.5	11.2	13.7	37.0	35.1	14.2	49.3	0.0	100.0
	화이트칼라	(314)	0.8	14.2	15.0	39.6	33.5	11.9	45.4	0.0	100.0
	전업 주부	(230)	0.7	8.4	9.1	46.3	35.6	9.0	44.6	0.0	100.0
	무직/기타	(130)	0.0	15.9	15.9	31.5	41.2	11.4	52.6	0.0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0.0	100.0	0.0	10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0.8	20.3	21.0	35.0	37.5	6.5	44.0	0.0	100.0
	200~299만원	(227)	2.6	11.8	14.4	33.5	41.2	10.9	52.1	0.0	100.0
	300~399만원	(393)	0.9	11.0	11.9	38.7	36.6	12.8	49.3	0.0	100.0
	400만원 이상	(481)	0.8	11.5	12.3	41.0	34.9	11.7	46.6	0.2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1.2	12.6	13.8	38.2	35.7	12.3	47.9	0.0	100.0
	충청권	(120)	0.6	6.5	7.1	41.2	36.4	15.2	51.6	0.0	100.0
	호남권	(115)	1.3	14.3	15.7	36.5	36.7	10.5	47.2	0.6	100.0
	영남권	(309)	0.6	13.8	14.5	39.8	37.3	8.4	45.7	0.0	100.0
	강원	(35)	6.9	2.2	9.1	28.8	48.0	14.0	62.0	0.0	100.0
	제주	(13)	0.0	7.0	7.0	23.9	54.3	14.7	69.0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0.4	11.2	11.6	42.8	33.9	11.8	45.6	0.0	100.0
	중 · 소도시	(507)	1.5	13.1	14.6	33.6	39.8	11.9	51.7	0.1	100.0
	읍/면	(134)	3.1	12.4	15.5	37.7	38.0	8.7	46.8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0.6	14.1	14.6	37.0	34.0	14.2	48.2	0.2	100.0
	중도	(580)	1.1	13.3	14.4	38.8	37.8	9.0	46.8	0.0	100.0
	보수적	(286)	1.9	7.5	9.4	38.8	38.4	13.4	51.8	0.0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1.6	15.6	17.2	38.3	37.1	7.4	44.5	0.0	100.0
	기독교	(243)	0.8	9.3	10.2	37.4	37.4	15.0	52.4	0.0	100.0
	천주교	(73)	1.7	12.2	13.9	29.2	45.2	11.7	56.9	0.0	100.0
	기타	(3)	0.0	18.5	18.5	18.2	28.7	34.6	63.3	0.0	100.0
	종교없음	(603)	1.0	11.6	12.5	40.5	35.5	11.4	47.0	0.0	100.0
	모름/무응답	(21)	3.6	17.0	20.6	21.4	36.3	18.1	54.4	3.6	100.0

표 33-3. 탈북자(새터민)와의 관계 유형별 태도 – ㉰ 사업 동업자

문) ○○님은 탈북자(새터민)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꺼림	② 다소 꺼림	①+②	③ 반반/ 그저 그렇다	④ 별로 꺼리지 않음	⑤ 전혀 꺼리지 않음	④+⑤	모름/ 무응답	계
			%	%	%	%	%	%	%	%	%
전 체		(1,200)	7.4	32.2	39.6	33.7	18.6	8.0	26.7	0.1	100.0
성별	남자	(612)	6.7	29.4	36.1	34.2	20.4	9.2	29.6	0.0	100.0
	여자	(588)	8.1	35.1	43.1	33.2	16.8	6.8	23.6	0.1	100.0
연령별	19~29세	(248)	7.0	32.0	39.0	34.0	17.4	9.5	27.0	0.0	100.0
	30대	(269)	7.9	29.2	37.1	37.8	17.3	7.6	24.9	0.3	100.0
	40대	(304)	10.1	32.2	42.3	31.9	17.8	8.0	25.8	0.0	100.0
	50대 이상	(378)	5.0	34.5	39.5	32.1	21.1	7.4	28.4	0.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4.1	27.0	31.1	34.6	27.5	6.8	34.3	0.0	100.0
	고졸	(518)	6.0	33.4	39.5	34.4	17.6	8.4	25.9	0.1	100.0
	대재 이상	(591)	9.1	32.0	41.0	32.9	18.1	8.0	26.0	0.0	100.0
	모름/무응답	(2)	0.0	0.0	0.0	39.9	60.1	0.0	60.1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6.5	25.8	32.2	39.7	22.5	5.6	28.1	0.0	100.0
	자영업	(203)	6.4	33.5	39.9	31.3	19.8	8.7	28.4	0.4	100.0
	블루 칼라	(307)	10.6	27.2	37.8	33.9	19.8	8.5	28.3	0.0	100.0
	화이트칼라	(314)	6.7	32.3	39.0	36.9	17.1	6.9	24.0	0.0	100.0
	전업 주부	(230)	5.0	38.8	43.9	34.1	15.4	6.7	22.1	0.0	100.0
	무직/기타	(130)	7.2	30.1	37.3	28.3	23.1	11.3	34.4	0.0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3.4	33.2	36.7	40.2	18.2	4.9	23.1	0.0	100.0
	200~299만원	(227)	7.3	27.5	34.7	28.3	26.5	10.5	37.0	0.0	100.0
	300~399만원	(393)	7.1	29.8	36.9	38.1	18.4	6.5	25.0	0.0	100.0
	400만원 이상	(481)	8.4	36.2	44.6	31.4	15.2	8.7	23.9	0.2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6.7	35.0	41.7	34.8	14.5	8.9	23.4	0.0	100.0
	충청권	(120)	3.9	24.0	27.9	42.6	21.8	7.7	29.5	0.0	100.0
	호남권	(115)	16.3	23.3	39.6	30.5	22.1	7.2	29.3	0.6	100.0
	영남권	(309)	6.2	36.1	42.3	29.4	22.7	5.6	28.3	0.0	100.0
	강원	(35)	13.7	13.5	27.2	26.5	29.7	16.5	46.2	0.0	100.0
	제주	(13)	3.7	10.3	14.0	50.0	24.8	11.1	35.9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9.0	37.4	46.4	32.4	13.2	7.9	21.2	0.0	100.0
	중 · 소도시	(507)	6.0	27.1	33.1	35.0	23.2	8.5	31.8	0.1	100.0
	읍/면	(134)	5.7	29.5	35.2	34.5	23.7	6.6	30.3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6.9	31.9	38.8	32.6	18.1	10.3	28.4	0.2	100.0
	중도	(580)	7.9	31.0	38.9	36.5	18.6	6.0	24.6	0.0	100.0
	보수적	(286)	6.9	35.1	42.0	29.1	19.4	9.5	28.9	0.0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6.8	35.8	42.6	30.0	23.1	4.3	27.4	0.0	100.0
	기독교	(243)	6.8	28.4	35.3	37.2	15.7	11.8	27.5	0.0	100.0
	천주교	(73)	7.8	25.9	33.6	34.7	22.7	9.0	31.7	0.0	100.0
	기타	(3)	0.0	18.5	18.5	18.2	28.7	34.6	63.3	0.0	100.0
	종교없음	(603)	8.0	33.4	41.4	33.7	16.8	8.1	25.0	0.0	100.0
	모름/무응답	(21)	3.6	20.6	24.2	38.0	34.2	0.0	34.2	3.6	100.0

표 33-4. 탈북자(새터민)와의 관계 유형별 태도 – ㉱ 결혼상대자

문) ○○님은 탈북자(새터민)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꺼림	② 다소 꺼림	①+②	③ 반반/ 그저 그렇다	④ 별로 꺼리지 않음	⑤ 전혀 꺼리지 않음	④+⑤	모름/ 무응답	계
			%	%	%	%	%	%	%	%	%
전 체		(1,200)	16.3	30.9	47.3	33.6	13.1	5.9	19.0	0.1	100.0
성별	남자	(612)	14.0	30.3	44.3	32.4	16.1	7.3	23.3	0.0	100.0
	여자	(588)	18.8	31.6	50.4	34.9	10.1	4.5	14.6	0.1	100.0
연령별	19~29세	(248)	17.7	30.5	48.2	35.4	9.5	6.9	16.4	0.0	100.0
	30대	(269)	21.0	25.5	46.5	35.7	11.5	6.1	17.5	0.3	100.0
	40대	(304)	18.1	31.2	49.3	32.7	13.8	4.2	18.0	0.0	100.0
	50대 이상	(378)	10.7	34.9	45.5	31.8	16.2	6.5	22.7	0.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11.5	29.4	40.9	37.6	15.1	6.4	21.5	0.0	100.0
	고졸	(518)	14.6	31.4	46.1	34.7	13.0	6.1	19.1	0.1	100.0
	대재 이상	(591)	18.6	30.8	49.4	32.0	12.9	5.7	18.5	0.0	100.0
	모름/무응답	(2)	0.0	0.0	0.0	60.1	39.9	0.0	39.9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13.3	40.4	53.7	22.8	23.5	0.0	23.5	0.0	100.0
	자영업	(203)	12.6	31.1	43.7	31.8	17.3	6.8	24.1	0.4	100.0
	블루 칼라	(307)	16.7	31.6	48.3	31.3	12.2	8.2	20.4	0.0	100.0
	화이트칼라	(314)	17.8	29.8	47.6	35.6	12.7	4.1	16.8	0.0	100.0
	전업 주부	(230)	16.6	28.4	45.0	40.4	10.3	4.3	14.7	0.0	100.0
	무직/기타	(130)	17.5	34.9	52.5	26.8	13.7	7.1	20.8	0.0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14.8	33.3	48.1	30.6	12.8	8.6	21.4	0.0	100.0
	200~299만원	(227)	12.1	29.8	42.0	33.5	16.0	8.5	24.5	0.0	100.0
	300~399만원	(393)	15.5	32.2	47.7	35.4	11.9	5.1	16.9	0.0	100.0
	400만원 이상	(481)	19.3	30.0	49.2	32.9	12.9	4.8	17.7	0.2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17.7	28.5	46.1	36.8	11.7	5.3	17.0	0.0	100.0
	충청권	(120)	5.3	31.3	36.6	38.5	18.4	6.5	24.9	0.0	100.0
	호남권	(115)	21.5	28.8	50.2	29.6	12.3	7.2	19.5	0.6	100.0
	영남권	(309)	16.7	39.0	55.7	28.7	11.3	4.3	15.6	0.0	100.0
	강원	(35)	15.9	13.4	29.3	20.1	34.5	16.2	50.7	0.0	100.0
	제주	(13)	3.7	17.2	20.9	27.5	24.1	27.5	51.6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20.2	30.8	51.0	34.6	8.6	5.8	14.5	0.0	100.0
	중 · 소도시	(507)	14.1	30.4	44.5	32.4	16.7	6.2	22.9	0.1	100.0
	읍/면	(134)	8.5	33.6	42.1	34.3	18.5	5.0	23.6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14.2	31.3	45.5	34.5	15.0	4.8	19.8	0.2	100.0
	중도	(580)	16.6	31.4	48.0	36.7	9.5	5.8	15.3	0.0	100.0
	보수적	(286)	17.9	29.6	47.6	26.5	18.5	7.5	25.9	0.0	100.0
	모름/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17.8	34.8	52.6	29.1	15.3	3.1	18.3	0.0	100.0
	기독교	(243)	15.5	24.0	39.4	40.2	10.7	9.6	20.3	0.0	100.0
	천주교	(73)	13.7	27.7	41.4	27.3	25.0	6.2	31.3	0.0	100.0
	기타	(3)	0.0	36.7	36.7	0.0	28.7	34.6	63.3	0.0	100.0
	종교없음	(603)	16.7	32.2	48.8	33.9	11.6	5.6	17.2	0.0	100.0
	모름/무응답	(21)	9.6	39.5	49.1	30.5	16.8	0.0	16.8	3.6	100.0

표 34. 탈북자(새터민) 수용에 관한 견해

문) ○○님은 한국에 들어오기 원하는 탈북자(새터민)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원하는 사람 중에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모름/무응답	계
			%	%	%	%	%
전 체		(1,200)	42.2	50.2	7.5	0.2	100.0
성별	남자	(612)	44.6	46.9	8.2	0.3	100.0
	여자	(588)	39.7	53.7	6.7	0.0	100.0
연령별	19~29세	(248)	37.4	52.7	9.1	0.8	100.0
	30대	(269)	41.0	54.1	4.9	0.0	100.0
	40대	(304)	43.8	47.5	8.6	0.0	100.0
	50대 이상	(378)	44.8	48.0	7.2	0.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44.5	42.1	13.4	0.0	100.0
	고졸	(518)	40.1	52.9	7.0	0.0	100.0
	대재 이상	(591)	43.6	49.3	6.8	0.3	100.0
	모름/무응답	(2)	60.1	0.0	39.9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43.7	43.9	12.4	0.0	100.0
	자영업	(203)	45.7	47.8	6.5	0.0	100.0
	블루 칼라	(307)	37.7	52.4	9.2	0.7	100.0
	화이트칼라	(314)	47.3	46.7	6.0	0.0	100.0
	전업 주부	(230)	38.6	55.5	5.9	0.0	100.0
	무직/기타	(130)	41.1	48.3	10.6	0.0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35.9	50.2	14.0	0.0	100.0
	200~299만원	(227)	44.4	49.0	6.6	0.0	100.0
	300~399만원	(393)	40.4	52.4	7.2	0.0	100.0
	400만원 이상	(481)	43.8	49.0	6.8	0.4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38.3	55.3	6.2	0.2	100.0
	충청권	(120)	43.1	48.3	7.9	0.7	100.0
	호남권	(115)	49.3	41.0	9.6	0.0	100.0
	영남권	(309)	44.7	46.7	8.6	0.0	100.0
	강원	(35)	46.2	40.1	13.8	0.0	100.0
	제주	(13)	79.9	20.1	0.0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42.1	50.7	7.0	0.2	100.0
	중 · 소도시	(507)	42.8	50.4	6.7	0.2	100.0
	읍/면	(134)	40.0	47.7	12.3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48.6	44.9	6.6	0.0	100.0
	중도	(580)	40.3	51.0	8.3	0.3	100.0
	보수적	(286)	38.7	54.5	6.8	0.0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41.4	47.5	11.1	0.0	100.0
	기독교	(243)	43.0	51.6	5.4	0.0	100.0
	천주교	(73)	53.8	40.0	5.1	1.1	100.0
	기타	(3)	71.3	28.7	0.0	0.0	100.0
	종교없음	(603)	41.7	51.9	6.2	0.2	100.0
	모름/무응답	(21)	12.1	55.3	32.6	0.0	100.0

표 35-1. 한국 거주 탈북자(새터민) 관련 인식
– ㉮ 탈북자(새터민)들은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

문)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동의함	② 다소 동의함	①+②	③ 별로 동의하지 않음	④ 전혀 동의하지 않음	③+④	모름/무응답	계
			%	%	%	%	%	%	%	%
전 체		(1,200)	5.5	57.9	63.4	32.8	3.7	36.5	0.1	100.0
성별	남자	(612)	6.3	59.4	65.7	30.2	4.1	34.3	0.0	100.0
	여자	(588)	4.7	56.4	61.1	35.5	3.3	38.8	0.1	100.0
연령별	19~29세	(248)	4.8	58.8	63.6	33.1	3.3	36.4	0.0	100.0
	30대	(269)	4.9	58.3	63.2	33.5	3.2	36.8	0.0	100.0
	40대	(304)	4.9	53.8	58.7	36.4	4.7	41.1	0.2	100.0
	50대 이상	(378)	7.0	60.3	67.3	29.3	3.5	32.7	0.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9.4	52.0	61.4	36.8	1.8	38.6	0.0	100.0
	고졸	(518)	2.9	57.9	60.8	36.1	3.1	39.2	0.0	100.0
	대재 이상	(591)	7.2	58.8	66.1	29.5	4.4	33.8	0.1	100.0
	모름/무응답	(2)	0.0	60.1	60.1	0.0	39.9	39.9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26.5	40.3	66.8	33.2	0.0	33.2	0.0	100.0
	자영업	(203)	5.7	54.5	60.1	34.3	5.2	39.5	0.4	100.0
	블루 칼라	(307)	3.4	54.9	58.3	38.1	3.6	41.7	0.0	100.0
	화이트칼라	(314)	8.2	61.9	70.1	26.2	3.7	29.9	0.0	100.0
	전업 주부	(230)	3.7	61.0	64.7	32.9	2.4	35.3	0.0	100.0
	무직/기타	(130)	4.8	57.6	62.5	34.0	3.5	37.5	0.0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0.0	100.0	10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7.8	60.3	68.1	31.9	0.0	31.9	0.0	100.0
	200~299만원	(227)	8.5	56.4	64.9	31.6	3.5	35.1	0.0	100.0
	300~399만원	(393)	4.4	56.1	60.5	35.6	3.9	39.5	0.0	100.0
	400만원 이상	(481)	4.6	59.6	64.2	31.3	4.3	35.7	0.2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4.5	61.4	65.9	31.8	2.4	34.1	0.0	100.0
	충청권	(120)	8.6	57.9	66.6	27.8	5.1	32.8	0.6	100.0
	호남권	(115)	5.8	50.4	56.1	40.6	3.3	43.9	0.0	100.0
	영남권	(309)	5.3	55.6	60.8	33.1	6.1	39.2	0.0	100.0
	강원	(35)	6.9	45.5	52.4	45.3	2.4	47.6	0.0	100.0
	제주	(13)	24.0	51.8	75.8	20.5	3.7	24.2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4.2	62.7	66.9	30.4	2.7	33.1	0.0	100.0
	중 · 소도시	(507)	6.7	51.8	58.5	36.5	4.8	41.4	0.1	100.0
	읍/면	(134)	6.8	60.8	67.7	28.7	3.7	32.3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6.2	63.2	69.3	26.7	3.9	30.7	0.0	100.0
	중도	(580)	4.4	56.3	60.8	35.7	3.5	39.2	0.0	100.0
	보수적	(286)	7.0	55.2	62.3	33.7	3.8	37.5	0.3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5.3	55.3	60.6	36.1	3.2	39.4	0.0	100.0
	기독교	(243)	9.3	58.0	67.3	31.9	0.8	32.7	0.0	100.0
	천주교	(73)	9.8	53.1	63.0	27.0	10.1	37.0	0.0	100.0
	기타	(3)	52.9	47.1	100.0	0.0	0.0	0.0	0.0	100.0
	종교없음	(603)	3.3	60.4	63.8	31.8	4.3	36.1	0.1	100.0
	모름/무응답	(21)	7.2	33.5	40.6	55.7	3.6	59.4	0.0	100.0

표 35-2. 한국 거주 탈북자(새터민) 관련 인식
- ㉯ 정부는 탈북자(새터민)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

문)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동의함	② 다소 동의함	①+②	③ 별로 동의하지 않음	④ 전혀 동의하지 않음	③+④	모름/무응답	계
			%	%	%	%	%	%	%	%
전 체		(1,200)	8.3	41.8	50.1	41.8	8.0	49.8	0.1	100.0
성별	남자	(612)	7.8	47.0	54.8	37.5	7.6	45.2	0.0	100.0
	여자	(588)	8.7	36.5	45.2	46.2	8.4	54.6	0.2	100.0
연령별	19~29세	(248)	8.1	39.4	47.5	41.7	10.7	52.5	0.0	100.0
	30대	(269)	7.8	42.2	50.0	41.3	8.4	49.7	0.3	100.0
	40대	(304)	6.4	43.2	49.7	42.4	7.7	50.1	0.2	100.0
	50대 이상	(378)	10.2	42.0	52.2	41.7	6.1	47.8	0.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15.5	35.7	51.3	41.1	7.7	48.7	0.0	100.0
	고졸	(518)	6.6	40.1	46.7	46.3	7.0	53.3	0.0	100.0
	대재 이상	(591)	8.7	44.2	52.9	37.9	8.9	46.8	0.2	100.0
	모름/무응답	(2)	0.0	39.9	39.9	60.1	0.0	60.1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12.5	54.0	66.5	25.9	7.6	33.5	0.0	100.0
	자영업	(203)	7.9	39.6	47.5	44.1	8.0	52.1	0.4	100.0
	블루 칼라	(307)	7.2	41.0	48.2	44.1	7.8	51.8	0.0	100.0
	화이트칼라	(314)	10.1	44.8	54.9	36.7	8.4	45.1	0.0	100.0
	전업 주부	(230)	6.9	38.7	45.6	47.5	6.6	54.1	0.3	100.0
	무직/기타	(130)	9.0	44.4	53.4	36.6	10.0	46.6	0.0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12.1	42.9	55.0	37.9	7.1	45.0	0.0	100.0
	200~299만원	(227)	10.7	42.4	53.1	37.8	9.1	46.9	0.0	100.0
	300~399만원	(393)	7.6	37.9	45.4	44.8	9.6	54.4	0.2	100.0
	400만원 이상	(481)	6.9	44.6	51.5	42.0	6.3	48.4	0.2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9.4	41.3	50.7	41.8	7.5	49.3	0.0	100.0
	충청권	(120)	6.2	47.5	53.7	37.1	8.0	45.1	1.2	100.0
	호남권	(115)	7.9	53.8	61.7	33.6	4.7	38.3	0.0	100.0
	영남권	(309)	6.4	35.6	42.1	47.8	10.2	57.9	0.0	100.0
	강원	(35)	11.5	41.0	52.5	36.1	11.5	47.5	0.0	100.0
	제주	(13)	15.1	54.5	69.6	30.4	0.0	30.4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7.9	44.5	52.4	41.7	5.9	47.6	0.0	100.0
	중 · 소도시	(507)	8.9	38.3	47.2	42.3	10.2	52.5	0.3	100.0
	읍/면	(134)	7.6	43.9	51.5	40.3	8.3	48.5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11.0	40.3	51.3	40.2	8.5	48.7	0.0	100.0
	중도	(580)	5.8	42.0	47.8	44.8	7.4	52.2	0.0	100.0
	보수적	(286)	10.1	43.0	53.1	37.8	8.6	46.4	0.5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6.3	39.9	46.2	45.6	8.2	53.8	0.0	100.0
	기독교	(243)	12.0	42.9	54.9	36.4	8.3	44.8	0.3	100.0
	천주교	(73)	14.6	44.7	59.4	33.8	6.8	40.6	0.0	100.0
	기타	(3)	34.6	65.4	100.0	0.0	0.0	0.0	0.0	100.0
	종교없음	(603)	6.6	41.2	47.8	44.0	8.1	52.1	0.1	100.0
	모름/무응답	(21)	9.7	59.4	69.1	27.3	3.6	30.9	0.0	100.0

표 35-3. 한국 거주 탈북자(새터민) 관련 인식 – ㉰ 탈북자(새터민)들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 진다

문)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동의함	② 다소 동의함	①+②	③ 별로 동의하지 않음	④ 전혀 동의하지 않음	③+④	모름/무응답	계
			%	%	%	%	%	%	%	%
전 체		(1,200)	3.0	23.3	26.3	58.8	14.8	73.6	0.1	100.0
성별	남자	(612)	3.0	21.8	24.8	59.7	15.4	75.2	0.0	100.0
	여자	(588)	3.0	24.7	27.7	57.8	14.2	72.0	0.2	100.0
연령별	19~29세	(248)	3.4	17.9	21.3	61.2	17.5	78.7	0.0	100.0
	30대	(269)	1.5	22.8	24.3	59.0	16.7	75.7	0.0	100.0
	40대	(304)	2.8	25.2	28.0	55.8	15.8	71.6	0.5	100.0
	50대 이상	(378)	3.9	25.6	29.6	59.5	10.9	70.4	0.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5.2	37.6	42.8	49.9	7.4	57.2	0.0	100.0
	고졸	(518)	2.9	24.8	27.7	58.1	14.3	72.3	0.0	100.0
	대재 이상	(591)	2.8	19.9	22.6	60.8	16.4	77.1	0.2	100.0
	모름/무응답	(2)	0.0	0.0	0.0	60.1	39.9	10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0.0	38.6	38.6	47.5	13.9	61.4	0.0	100.0
	자영업	(203)	4.4	24.2	28.7	55.1	15.9	71.0	0.4	100.0
	블루 칼라	(307)	3.0	23.4	26.4	59.3	14.2	73.6	0.0	100.0
	화이트칼라	(314)	2.4	19.8	22.2	61.3	16.5	77.8	0.0	100.0
	전업 주부	(230)	2.9	28.4	31.3	58.2	10.2	68.4	0.3	100.0
	무직/기타	(130)	2.5	18.4	20.9	59.9	19.1	79.1	0.0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7.7	30.7	38.4	51.6	10.0	61.6	0.0	100.0
	200~299만원	(227)	4.5	24.7	29.2	58.0	12.8	70.8	0.0	100.0
	300~399만원	(393)	2.4	26.1	28.4	56.9	14.7	71.6	0.0	100.0
	400만원 이상	(481)	1.8	18.8	20.6	62.2	16.9	79.1	0.3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3.3	19.7	23.0	64.6	12.3	77.0	0.0	100.0
	충청권	(120)	1.2	32.2	33.5	56.4	9.0	65.3	1.2	100.0
	호남권	(115)	1.4	18.9	20.2	60.3	19.5	79.8	0.0	100.0
	영남권	(309)	3.4	29.5	32.9	48.4	18.6	67.1	0.0	100.0
	강원	(35)	2.2	17.9	20.1	57.2	22.7	79.9	0.0	100.0
	제주	(13)	7.5	13.5	20.9	46.2	32.8	79.1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2.5	23.7	26.2	58.4	15.5	73.8	0.0	100.0
	중 · 소도시	(507)	4.0	22.1	26.0	58.7	14.9	73.7	0.3	100.0
	읍/면	(134)	1.3	26.0	27.3	60.9	11.8	72.7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2.1	18.9	21.1	61.4	17.5	78.9	0.0	100.0
	중도	(580)	3.1	24.8	28.0	60.2	11.9	72.0	0.0	100.0
	보수적	(286)	3.7	25.3	28.9	52.8	17.7	70.6	0.5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5.0	29.8	34.8	48.9	16.3	65.2	0.0	100.0
	기독교	(243)	1.5	18.7	20.2	67.0	12.8	79.8	0.0	100.0
	천주교	(73)	1.8	19.3	21.0	62.1	15.9	78.0	1.0	100.0
	기타	(3)	0.0	18.5	18.5	28.7	52.9	81.5	0.0	100.0
	종교없음	(603)	3.0	22.7	25.7	60.0	14.2	74.2	0.1	100.0
	모름/무응답	(21)	0.0	27.4	27.4	43.1	29.4	72.6	0.0	100.0

표 35-4. 한국 거주 탈북자(새터민) 관련 인식
- ㉱ 탈북자(새터민)들도 조직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

문)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동의함	② 다소 동의함	①+②	③ 별로 동의하지 않음	④ 전혀 동의하지 않음	③+④	모름/무응답	계
			%	%	%	%	%	%	%	%
전 체		(1,200)	13.3	54.7	68.0	29.4	2.5	31.9	0.1	100.0
성별	남자	(612)	14.5	54.8	69.2	28.6	2.1	30.8	0.0	100.0
	여자	(588)	12.1	54.5	66.6	30.2	2.9	33.1	0.2	100.0
연령별	19~29세	(248)	14.2	49.7	63.9	30.3	5.8	36.1	0.0	100.0
	30대	(269)	14.2	52.9	67.1	30.4	2.5	32.9	0.0	100.0
	40대	(304)	12.0	54.4	66.4	31.0	2.1	33.1	0.5	100.0
	50대 이상	(378)	13.1	59.4	72.4	26.8	0.7	27.6	0.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15.2	48.1	63.3	35.9	0.8	36.7	0.0	100.0
	고졸	(518)	10.3	57.4	67.7	30.6	1.8	32.3	0.0	100.0
	대재 이상	(591)	15.7	53.1	68.8	27.6	3.4	31.0	0.2	100.0
	모름/무응답	(2)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25.5	60.6	86.1	13.9	0.0	13.9	0.0	100.0
	자영업	(203)	12.6	58.6	71.2	28.0	0.5	28.5	0.4	100.0
	블루 칼라	(307)	11.8	48.9	60.7	36.9	2.4	39.3	0.0	100.0
	화이트칼라	(314)	14.8	53.5	68.3	26.9	4.8	31.7	0.0	100.0
	전업 주부	(230)	11.4	61.3	72.7	24.7	2.3	27.0	0.3	100.0
	무직/기타	(130)	15.8	52.9	68.7	30.4	1.0	31.3	0.0	100.0
	모름/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14.1	58.6	72.7	24.5	2.8	27.3	0.0	100.0
	200~299만원	(227)	9.8	51.7	61.5	35.3	3.2	38.5	0.0	100.0
	300~399만원	(393)	14.8	54.1	68.9	29.6	1.5	31.1	0.0	100.0
	400만원 이상	(481)	13.5	55.7	69.2	27.5	3.0	30.5	0.3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14.2	54.0	68.2	28.8	3.0	31.8	0.0	100.0
	충청권	(120)	15.1	58.2	73.3	23.5	2.0	25.5	1.2	100.0
	호남권	(115)	10.1	57.2	67.3	31.4	1.4	32.7	0.0	100.0
	영남권	(309)	12.2	54.4	66.6	32.2	1.3	33.4	0.0	100.0
	강원	(35)	4.4	49.5	53.9	35.0	11.1	46.1	0.0	100.0
	제주	(13)	32.6	50.5	83.0	17.0	0.0	17.0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13.4	59.3	72.6	25.7	1.7	27.4	0.0	100.0
	중 · 소도시	(507)	13.1	51.6	64.8	32.2	2.8	35.0	0.3	100.0
	읍/면	(134)	13.6	46.9	60.4	34.8	4.8	39.6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16.4	54.7	71.0	26.3	2.6	29.0	0.0	100.0
	중도	(580)	11.1	55.6	66.7	30.5	2.8	33.3	0.0	100.0
	보수적	(286)	14.3	52.9	67.1	30.5	1.8	32.4	0.5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10.9	57.5	68.4	29.6	2.0	31.6	0.0	100.0
	기독교	(243)	16.9	55.9	72.8	24.5	2.7	27.2	0.0	100.0
	천주교	(73)	9.8	59.5	69.3	28.7	1.0	29.7	1.0	100.0
	기타	(3)	34.6	36.7	71.3	28.7	0.0	28.7	0.0	100.0
	종교없음	(603)	13.2	52.3	65.5	31.5	2.8	34.3	0.1	100.0
	모름/무응답	(21)	12.0	58.7	70.6	25.8	3.6	29.4	0.0	100.0

표 36. 주변국 중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국가

문) ○○님은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를 가장 가깝게 느끼십니까?

		사례수	미국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모름/무응답	계
			%	%	%	%	%	%	%
전 체		(1,200)	74.9	4.3	8.9	10.3	1.0	0.6	100.0
성별	남자	(612)	75.7	3.0	8.1	11.2	1.2	0.8	100.0
	여자	(588)	74.2	5.7	9.8	9.3	0.7	0.3	100.0
연령별	19~29세	(248)	76.9	6.2	8.0	8.0	0.9	0.0	100.0
	30대	(269)	72.7	6.5	8.4	10.9	1.0	0.5	100.0
	40대	(304)	73.9	3.5	11.1	8.4	1.3	1.8	100.0
	50대 이상	(378)	76.1	2.2	8.2	12.8	0.7	0.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74.2	5.1	7.2	10.2	3.3	0.0	100.0
	고졸	(518)	73.9	3.3	9.1	12.0	0.8	0.9	100.0
	대재 이상	(591)	76.1	5.1	9.1	8.6	0.8	0.3	100.0
	모름/무응답	(2)	39.9	0.0	0.0	60.1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76.0	0.0	12.9	4.9	0.0	6.2	100.0
	자영업	(203)	72.4	2.6	9.8	13.6	1.0	0.6	100.0
	블루 칼라	(307)	71.7	5.5	7.9	11.7	2.0	1.2	100.0
	화이트칼라	(314)	77.7	4.4	8.2	9.0	0.4	0.2	100.0
	전업 주부	(230)	76.6	4.7	9.0	8.8	0.9	0.0	100.0
	무직/기타	(130)	76.7	3.6	11.5	8.2	0.0	0.0	100.0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75.9	2.8	10.1	9.0	2.2	0.0	100.0
	200~299만원	(227)	66.7	4.7	12.2	15.5	0.3	0.5	100.0
	300~399만원	(393)	74.5	5.4	7.6	9.8	1.5	1.2	100.0
	400만원 이상	(481)	79.0	3.6	8.2	8.5	0.6	0.2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79.0	3.2	6.2	9.9	0.8	0.8	100.0
	충청권	(120)	79.3	2.6	7.1	8.9	0.6	1.4	100.0
	호남권	(115)	66.3	5.4	17.2	9.8	1.3	0.0	100.0
	영남권	(309)	68.9	6.3	11.3	12.3	1.2	0.0	100.0
	강원	(35)	79.5	4.7	11.1	4.7	0.0	0.0	100.0
	제주	(13)	53.3	13.4	16.8	12.8	3.7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77.4	3.1	8.8	8.8	1.0	0.8	100.0
	중 · 소도시	(507)	72.5	5.8	9.2	11.3	0.7	0.4	100.0
	읍/면	(134)	74.1	3.5	8.3	12.4	1.6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70.6	3.5	11.6	12.9	0.8	0.6	100.0
	중도	(580)	77.6	5.2	7.7	7.8	1.3	0.4	100.0
	보수적	(286)	74.5	3.4	8.5	12.3	0.4	0.8	100.0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76.9	4.5	7.5	9.3	1.7	0.0	100.0
	기독교	(243)	73.4	3.2	12.4	10.5	0.0	0.5	100.0
	천주교	(73)	78.6	5.1	3.8	7.0	2.8	2.8	100.0
	기타	(3)	65.4	0.0	34.6	0.0	0.0	0.0	100.0
	종교없음	(603)	74.2	4.6	8.4	11.4	0.9	0.6	100.0
	모름/무응답	(21)	79.5	6.0	14.5	0.0	0.0	0.0	100.0

표 37. 주변국 중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문) 다음 국가들 중에서 어느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미국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모름/무응답	계
			%	%	%	%	%	%	%
전 체		(1,200)	5.4	24.6	49.7	17.6	2.6	0.1	100.0
성별	남자	(612)	4.7	24.2	48.9	19.2	3.0	0.0	100.0
	여자	(588)	6.2	25.0	50.6	15.8	2.2	0.1	100.0
연령별	19~29세	(248)	3.6	21.0	54.3	18.1	3.0	0.0	100.0
	30대	(269)	6.3	21.1	48.2	20.9	3.5	0.0	100.0
	40대	(304)	7.5	28.9	43.4	18.5	1.5	0.2	100.0
	50대 이상	(378)	4.2	26.0	53.0	14.2	2.6	0.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8.1	20.9	50.3	15.8	4.9	0.0	100.0
	고졸	(518)	5.2	28.8	46.8	16.5	2.7	0.0	100.0
	대재 이상	(591)	5.2	21.4	52.2	18.8	2.2	0.1	100.0
	모름/무응답	(2)	0.0	60.1	39.9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14.6	27.6	51.3	6.5	0.0	0.0	100.0
	자영업	(203)	9.0	26.4	46.7	14.1	3.4	0.4	100.0
	블루 칼라	(307)	6.0	26.9	45.0	19.5	2.6	0.0	100.0
	화이트칼라	(314)	4.7	23.3	48.8	21.5	1.8	0.0	100.0
	전업 주부	(230)	2.8	25.2	54.2	14.7	3.0	0.0	100.0
	무직/기타	(130)	3.6	18.4	60.1	14.8	3.0	0.0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10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11.5	25.4	49.7	10.2	3.1	0.0	100.0
	200~299만원	(227)	8.2	27.5	50.2	14.0	0.0	0.0	100.0
	300~399만원	(393)	5.5	21.5	47.6	21.9	3.5	0.0	100.0
	400만원 이상	(481)	2.8	25.6	51.2	17.2	3.0	0.2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6.1	24.6	48.6	17.4	3.3	0.0	100.0
	충청권	(120)	7.5	23.9	45.7	21.0	1.4	0.6	100.0
	호남권	(115)	12.1	31.7	38.2	18.0	0.0	0.0	100.0
	영남권	(309)	1.3	19.2	58.2	18.1	3.2	0.0	100.0
	강원	(35)	0.0	47.7	47.9	4.4	0.0	0.0	100.0
	제주	(13)	7.3	34.8	44.3	13.6	0.0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3.2	22.1	49.7	21.4	3.7	0.0	100.0
	중 · 소도시	(507)	6.8	26.7	50.5	14.6	1.2	0.1	100.0
	읍/면	(134)	9.4	27.2	46.9	12.7	3.7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6.9	25.7	46.8	18.9	1.7	0.0	100.0
	중도	(580)	5.1	22.5	50.7	18.4	3.3	0.0	100.0
	보수적	(286)	4.4	27.8	51.3	14.4	1.8	0.3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0.0	10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2.9	24.9	57.7	13.3	1.2	0.0	100.0
	기독교	(243)	6.9	27.6	43.9	18.0	3.6	0.0	100.0
	천주교	(73)	9.5	25.5	48.3	16.6	0.0	0.0	100.0
	기타	(3)	0.0	36.7	28.7	34.6	0.0	0.0	100.0
	종교없음	(603)	5.1	23.4	48.7	19.7	3.0	0.1	100.0
	모름/무응답	(21)	14.6	15.9	57.4	6.0	6.0	0.0	100.0

표 38. 북·미 월드컵 경기 시 응원하고 싶은 팀

문) ○○님은 만약 월드컵에서 북한 팀과 미국 팀이 대결한다면 어느 편을 응원하시겠습니까?

		사례수	북한팀	미국팀	양팀 모두 응원하겠다	어느 팀도 응원하지 않겠다	모름/무응답	계
			%	%	%	%	%	%
전 체		(1,200)	60.3	11.5	11.7	16.4	0.1	100.0
성별	남자	(612)	63.8	10.8	11.7	13.7	0.0	100.0
	여자	(588)	56.7	12.2	11.6	19.2	0.2	100.0
연령별	19~29세	(248)	44.6	16.6	12.3	26.0	0.5	100.0
	30대	(269)	63.8	9.3	11.0	15.9	0.0	100.0
	40대	(304)	66.1	9.1	11.1	13.7	0.0	100.0
	50대 이상	(378)	63.6	11.6	12.2	12.6	0.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55.4	17.6	10.8	16.3	0.0	100.0
	고졸	(518)	66.0	9.2	10.3	14.5	0.0	100.0
	대재 이상	(591)	56.0	12.6	13.1	18.1	0.2	100.0
	모름/무응답	(2)	100.0	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72.6	19.8	7.6	0.0	0.0	100.0
	자영업	(203)	68.3	11.4	8.7	11.6	0.0	100.0
	블루 칼라	(307)	59.8	12.0	10.7	17.5	0.0	100.0
	화이트칼라	(314)	61.5	8.6	13.3	16.3	0.4	100.0
	전업 주부	(230)	61.2	8.2	14.1	16.5	0.0	100.0
	무직/기타	(130)	43.3	22.3	11.1	23.3	0.0	100.0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59.3	19.8	11.5	9.4	0.0	100.0
	200~299만원	(227)	58.1	11.5	13.8	16.7	0.0	100.0
	300~399만원	(393)	63.2	8.6	10.8	17.4	0.0	100.0
	400만원 이상	(481)	59.3	12.1	11.5	16.8	0.3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59.6	10.8	10.5	18.8	0.2	100.0
	충청권	(120)	67.1	9.1	12.8	11.0	0.0	100.0
	호남권	(115)	66.3	12.1	8.4	13.2	0.0	100.0
	영남권	(309)	56.2	13.7	13.7	16.4	0.0	100.0
	강원	(35)	59.0	11.3	24.9	4.7	0.0	100.0
	제주	(13)	80.1	7.2	2.0	10.7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59.4	8.3	12.2	19.9	0.2	100.0
	중 · 소도시	(507)	60.2	15.4	12.1	12.3	0.0	100.0
	읍/면	(134)	64.7	10.0	7.9	17.4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60.9	10.4	9.6	19.1	0.0	100.0
	중도	(580)	62.3	10.2	9.7	17.6	0.2	100.0
	보수적	(286)	55.5	15.4	18.1	11.0	0.0	100.0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57.6	14.7	12.6	15.2	0.0	100.0
	기독교	(243)	62.4	11.8	9.7	15.5	0.5	100.0
	천주교	(73)	61.2	12.5	14.3	12.0	0.0	100.0
	기타	(3)	65.4	0.0	34.6	0.0	0.0	100.0
	종교없음	(603)	61.0	9.8	11.6	17.6	0.0	100.0
	모름/무응답	(21)	45.4	17.0	13.4	24.2	0.0	100.0

표 39-1. 한국과 주요 주변국의 관계 인식 – ㉮ 미국

문) ○○님은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협력 대상	경쟁 대상	경계 대상	적대 대상	계
			%	%	%	%	%
전 체		(1,200)	81.0	11.7	6.8	0.5	100.0
성별	남자	(612)	79.9	11.4	7.9	0.8	100.0
	여자	(588)	82.1	12.0	5.7	0.1	100.0
연령별	19~29세	(248)	80.6	10.7	8.4	0.3	100.0
	30대	(269)	79.4	13.4	7.0	0.3	100.0
	40대	(304)	79.8	12.4	7.6	0.3	100.0
	50대 이상	(378)	83.5	10.6	5.1	0.8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84.5	12.2	3.3	0.0	100.0
	고졸	(518)	80.4	11.5	7.4	0.7	100.0
	대재 이상	(591)	81.0	11.8	6.9	0.3	100.0
	모름/무응답	(2)	10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73.7	14.9	11.4	0.0	100.0
	자영업	(203)	76.9	15.9	6.7	0.5	100.0
	블루 칼라	(307)	79.8	12.9	6.7	0.7	100.0
	화이트칼라	(314)	80.4	10.8	8.5	0.3	100.0
	전업 주부	(230)	88.2	8.1	3.3	0.4	100.0
	무직/기타	(130)	80.8	9.6	9.0	0.6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82.0	13.2	4.8	0.0	100.0
	200~299만원	(227)	79.1	14.9	4.8	1.2	100.0
	300~399만원	(393)	79.5	11.4	8.6	0.5	100.0
	400만원 이상	(481)	82.9	10.1	6.8	0.2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82.9	10.7	6.2	0.2	100.0
	충청권	(120)	68.6	21.8	8.9	0.7	100.0
	호남권	(115)	74.0	9.7	14.9	1.4	100.0
	영남권	(309)	85.3	10.1	4.0	0.6	100.0
	강원	(35)	76.9	16.2	6.9	0.0	100.0
	제주	(13)	79.9	6.8	13.2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86.5	9.6	3.8	0.1	100.0
	중 · 소도시	(507)	78.6	11.1	9.8	0.5	100.0
	읍/면	(134)	67.2	22.9	8.4	1.5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79.4	11.3	8.6	0.6	100.0
	중도	(580)	79.5	12.8	7.4	0.3	100.0
	보수적	(286)	85.8	10.0	3.6	0.6	100.0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81.3	12.1	5.7	0.9	100.0
	기독교	(243)	79.8	10.7	9.2	0.3	100.0
	천주교	(73)	80.8	12.8	6.4	0.0	100.0
	기타	(3)	100.0	0.0	0.0	0.0	100.0
	종교없음	(603)	81.6	11.7	6.3	0.4	100.0
	모름/무응답	(21)	74.1	16.3	9.6	0.0	100.0

표 39-2. 한국과 주요 주변국의 관계 인식 – ㉯ 중국

문) ○○님은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협력 대상	경쟁 대상	경계 대상	적대 대상	계
			%	%	%	%	%
전 체		(1,200)	34.0	34.2	29.5	2.2	100.0
성별	남자	(612)	35.1	33.9	28.5	2.5	100.0
	여자	(588)	32.9	34.6	30.6	1.9	100.0
연령별	19~29세	(248)	30.8	35.2	30.3	3.7	100.0
	30대	(269)	33.0	34.6	31.2	1.2	100.0
	40대	(304)	34.2	34.7	28.6	2.5	100.0
	50대 이상	(378)	36.7	33.0	28.7	1.6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32.6	40.2	24.6	2.7	100.0
	고졸	(518)	28.8	37.6	31.2	2.4	100.0
	대재 이상	(591)	38.8	30.4	29.0	1.9	100.0
	모름/무응답	(2)	39.9	60.1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44.3	24.4	31.2	0.0	100.0
	자영업	(203)	36.7	34.1	25.9	3.3	100.0
	블루 칼라	(307)	30.5	36.6	30.2	2.7	100.0
	화이트칼라	(314)	41.3	30.1	27.4	1.2	100.0
	전업 주부	(230)	27.3	37.3	35.0	0.4	100.0
	무직/기타	(130)	31.6	34.9	28.6	4.9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10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38.0	35.6	23.5	3.0	100.0
	200~299만원	(227)	31.3	44.2	23.3	1.2	100.0
	300~399만원	(393)	28.7	38.9	30.1	2.3	100.0
	400만원 이상	(481)	38.9	25.5	33.3	2.4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35.9	28.4	33.8	1.8	100.0
	충청권	(120)	30.4	34.6	32.1	3.0	100.0
	호남권	(115)	31.6	32.4	29.5	6.5	100.0
	영남권	(309)	31.9	47.4	19.5	1.1	100.0
	강원	(35)	40.7	28.0	29.1	2.2	100.0
	제주	(13)	31.3	23.8	44.9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35.1	33.0	29.9	2.1	100.0
	중 · 소도시	(507)	33.1	35.3	29.2	2.5	100.0
	읍/면	(134)	33.3	35.8	29.3	1.6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36.1	33.4	27.6	2.9	100.0
	중도	(580)	31.8	37.0	29.6	1.6	100.0
	보수적	(286)	36.4	29.4	31.8	2.5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29.7	42.9	25.6	1.8	100.0
	기독교	(243)	35.3	28.9	34.1	1.7	100.0
	천주교	(73)	45.1	24.8	30.2	0.0	100.0
	기타	(3)	81.5	0.0	18.5	0.0	100.0
	종교없음	(603)	33.9	33.8	29.6	2.7	100.0
	모름/무응답	(21)	32.9	40.7	21.5	4.9	100.0

표 39-3. 한국과 주요 주변국의 관계 인식 – ㉰ 일본

문) ○○님은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협력 대상	경쟁 대상	경계 대상	적대 대상	모름/무응답	계
			%	%	%	%	%	%
전 체		(1,200)	11.4	27.0	44.0	17.5	0.1	100.0
성별	남자	(612)	11.0	27.9	44.7	16.3	0.0	100.0
	여자	(588)	11.8	26.1	43.2	18.7	0.2	100.0
연령별	19~29세	(248)	11.0	29.7	38.9	19.9	0.5	100.0
	30대	(269)	15.1	26.4	42.7	15.8	0.0	100.0
	40대	(304)	11.8	25.8	48.1	14.3	0.0	100.0
	50대 이상	(378)	8.7	26.7	44.9	19.7	0.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11.5	28.5	43.6	16.5	0.0	100.0
	고졸	(518)	7.2	27.1	45.3	20.5	0.0	100.0
	대재 이상	(591)	15.0	26.6	43.0	15.1	0.2	100.0
	모름/무응답	(2)	39.9	60.1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15.7	18.8	59.0	6.5	0.0	100.0
	자영업	(203)	9.4	27.1	45.9	17.6	0.0	100.0
	블루 칼라	(307)	8.7	28.2	45.2	17.9	0.0	100.0
	화이트칼라	(314)	17.9	24.2	41.5	16.0	0.4	100.0
	전업 주부	(230)	8.2	30.3	43.8	17.7	0.0	100.0
	무직/기타	(130)	10.6	26.2	42.2	21.0	0.0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10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12.3	35.8	31.5	20.4	0.0	100.0
	200~299만원	(227)	11.7	31.1	43.4	13.9	0.0	100.0
	300~399만원	(393)	10.0	28.1	42.6	19.3	0.0	100.0
	400만원 이상	(481)	12.3	22.4	47.9	17.1	0.3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13.0	21.4	49.9	15.5	0.2	100.0
	충청권	(120)	13.1	38.9	40.5	7.5	0.0	100.0
	호남권	(115)	8.8	21.2	43.1	27.0	0.0	100.0
	영남권	(309)	9.6	35.3	34.1	20.9	0.0	100.0
	강원	(35)	4.6	30.4	45.0	20.1	0.0	100.0
	제주	(13)	7.3	25.1	37.7	29.9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10.5	24.7	44.7	20.1	0.0	100.0
	중 · 소도시	(507)	12.6	27.9	43.5	15.7	0.2	100.0
	읍/면	(134)	10.4	33.5	42.6	13.5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14.1	24.0	42.1	19.8	0.0	100.0
	중도	(580)	11.9	29.0	44.0	15.1	0.0	100.0
	보수적	(286)	7.3	26.6	45.9	19.7	0.4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100.0	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7.2	31.9	38.8	22.1	0.0	100.0
	기독교	(243)	11.1	24.0	47.6	16.8	0.5	100.0
	천주교	(73)	15.2	14.8	52.9	17.1	0.0	100.0
	기타	(3)	34.6	0.0	47.1	18.2	0.0	100.0
	종교없음	(603)	12.5	27.9	44.0	15.6	0.0	100.0
	모름/무응답	(21)	20.6	23.1	32.2	24.1	0.0	100.0

표 39-4. 한국과 주요 주변국의 관계 인식 – ㉣ 러시아

문) ○○님은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협력 대상	경쟁 대상	경계 대상	적대 대상	계
			%	%	%	%	%
전 체		(1,200)	22.6	30.2	43.2	4.0	100.0
성별	남자	(612)	23.8	29.5	43.0	3.7	100.0
	여자	(588)	21.4	30.8	43.5	4.3	100.0
연령별	19~29세	(248)	21.4	34.2	40.0	4.4	100.0
	30대	(269)	25.9	29.6	40.4	4.1	100.0
	40대	(304)	22.6	29.7	44.5	3.3	100.0
	50대 이상	(378)	21.1	28.3	46.3	4.3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23.4	30.8	37.8	7.9	100.0
	고졸	(518)	14.6	33.2	47.2	5.0	100.0
	대재 이상	(591)	29.4	27.5	40.5	2.5	100.0
	모름/무응답	(2)	39.9	0.0	60.1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33.0	31.0	36.0	0.0	100.0
	자영업	(203)	23.3	26.9	45.4	4.4	100.0
	블루 칼라	(307)	17.5	33.0	42.3	7.3	100.0
	화이트칼라	(314)	32.1	25.7	40.2	2.0	100.0
	전업 주부	(230)	15.9	32.2	49.3	2.6	100.0
	무직/기타	(130)	21.6	36.0	39.2	3.1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10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23.5	35.3	33.8	7.4	100.0
	200~299만원	(227)	20.5	34.4	40.9	4.2	100.0
	300~399만원	(393)	19.0	33.3	43.2	4.5	100.0
	400만원 이상	(481)	26.4	24.6	46.3	2.8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23.4	23.5	48.6	4.5	100.0
	충청권	(120)	27.6	28.3	41.3	2.8	100.0
	호남권	(115)	18.4	31.9	48.3	1.4	100.0
	영남권	(309)	20.8	43.0	32.5	3.8	100.0
	강원	(35)	22.7	32.9	35.5	9.0	100.0
	제주	(13)	18.3	33.1	42.2	6.4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21.5	28.6	47.2	2.7	100.0
	중 · 소도시	(507)	24.9	30.9	39.0	5.2	100.0
	읍/면	(134)	18.6	33.9	42.5	5.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25.2	27.7	44.2	3.0	100.0
	중도	(580)	21.9	34.1	39.9	4.2	100.0
	보수적	(286)	21.3	25.3	48.7	4.7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10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19.0	32.1	43.3	5.6	100.0
	기독교	(243)	23.3	27.7	43.7	5.4	100.0
	천주교	(73)	30.7	26.6	42.7	0.0	100.0
	기타	(3)	81.8	0.0	18.2	0.0	100.0
	종교없음	(603)	22.7	31.1	43.3	2.9	100.0
	모름/무응답	(21)	20.6	25.0	41.3	13.1	100.0

표 40-1. 한반도 전쟁 시 주변4국의 태도 – ㉮ 미국

문)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4국은 어떻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한국을 도울 것이다	북한을 도울 것이다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중립을 지킬 것이다	계
			%	%	%	%	%
전 체		(1,200)	74.0	1.9	22.6	1.6	100.0
성별	남자	(612)	76.7	1.5	20.5	1.3	100.0
	여자	(588)	71.2	2.2	24.8	1.8	100.0
연령별	19~29세	(248)	68.8	1.7	26.5	3.0	100.0
	30대	(269)	73.4	1.3	24.3	1.1	100.0
	40대	(304)	74.1	0.8	23.4	1.6	100.0
	50대 이상	(378)	77.8	3.2	18.1	0.9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77.7	5.4	14.9	2.0	100.0
	고졸	(518)	76.1	1.4	21.4	1.2	100.0
	대재 이상	(591)	71.7	1.8	24.7	1.8	100.0
	모름/무응답	(2)	60.1	0.0	39.9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43.8	15.9	34.7	5.6	100.0
	자영업	(203)	70.8	3.1	25.0	1.2	100.0
	블루 칼라	(307)	77.5	1.8	19.7	1.0	100.0
	화이트칼라	(314)	69.5	1.5	27.3	1.7	100.0
	전업 주부	(230)	79.3	0.4	18.7	1.6	100.0
	무직/기타	(130)	76.4	1.7	19.2	2.7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10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69.8	7.4	18.5	4.3	100.0
	200~299만원	(227)	71.3	3.1	23.7	1.9	100.0
	300~399만원	(393)	73.0	1.4	24.6	1.0	100.0
	400만원 이상	(481)	77.0	0.5	21.3	1.3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80.7	2.8	15.7	0.8	100.0
	충청권	(120)	51.8	0.0	46.1	2.0	100.0
	호남권	(115)	68.7	0.0	30.0	1.3	100.0
	영남권	(309)	73.7	1.6	21.8	2.8	100.0
	강원	(35)	58.8	0.0	41.2	0.0	100.0
	제주	(13)	64.1	0.0	26.0	9.9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78.2	0.9	19.3	1.6	100.0
	중 · 소도시	(507)	72.8	2.4	24.1	0.7	100.0
	읍/면	(134)	61.0	3.6	30.6	4.8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74.5	1.9	23.1	0.5	100.0
	중도	(580)	72.2	2.0	24.0	1.8	100.0
	보수적	(286)	76.9	1.6	19.2	2.4	100.0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75.2	3.1	19.6	2.0	100.0
	기독교	(243)	75.8	1.0	21.2	1.9	100.0
	천주교	(73)	70.4	5.2	24.4	0.0	100.0
	기타	(3)	100.0	0.0	0.0	0.0	100.0
	종교없음	(603)	73.5	1.3	23.7	1.5	100.0
	모름/무응답	(21)	60.8	0.0	39.2	0.0	100.0

표 40-2. 한반도 전쟁 시 주변4국의 태도 – ㉯ 중국

문)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4국은 어떻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한국을 도울 것이다	북한을 도울 것이다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중립을 지킬 것이다	계
			%	%	%	%	%
전 체		(1,200)	5.3	42.9	46.0	5.9	100.0
성별	남자	(612)	3.9	42.3	47.3	6.5	100.0
	여자	(588)	6.7	43.5	44.6	5.3	100.0
연령별	19~29세	(248)	5.0	39.4	48.9	6.7	100.0
	30대	(269)	5.8	42.0	47.1	5.1	100.0
	40대	(304)	4.8	43.1	46.5	5.6	100.0
	50대 이상	(378)	5.4	45.6	42.8	6.1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8.8	47.5	33.5	10.2	100.0
	고졸	(518)	4.4	44.4	44.6	6.6	100.0
	대재 이상	(591)	5.5	41.0	48.8	4.7	100.0
	모름/무응답	(2)	0.0	0.0	10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5.2	21.3	62.3	11.2	100.0
	자영업	(203)	6.1	45.3	42.3	6.3	100.0
	블루 칼라	(307)	5.5	42.1	47.0	5.4	100.0
	화이트칼라	(314)	4.2	43.7	47.1	5.0	100.0
	전업 주부	(230)	6.1	43.3	44.0	6.6	100.0
	무직/기타	(130)	4.3	41.0	47.7	6.9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10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8.5	37.6	41.3	12.6	100.0
	200~299만원	(227)	8.2	37.9	47.4	6.5	100.0
	300~399만원	(393)	3.1	44.2	46.8	5.8	100.0
	400만원 이상	(481)	5.0	45.2	45.5	4.3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5.7	44.7	44.5	5.2	100.0
	충청권	(120)	5.4	34.0	56.1	4.5	100.0
	호남권	(115)	5.0	48.4	42.0	4.7	100.0
	영남권	(309)	4.6	44.3	43.4	7.7	100.0
	강원	(35)	2.5	17.5	70.7	9.4	100.0
	제주	(13)	11.2	26.5	51.4	10.9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4.9	47.8	41.0	6.4	100.0
	중 · 소도시	(507)	5.5	38.2	51.7	4.6	100.0
	읍/면	(134)	6.0	40.0	45.1	8.9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6.7	40.9	45.9	6.5	100.0
	중도	(580)	4.1	44.7	46.5	4.7	100.0
	보수적	(286)	5.9	41.2	45.1	7.7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6.0	42.8	43.7	7.5	100.0
	기독교	(243)	3.9	43.5	46.5	6.1	100.0
	천주교	(73)	5.9	33.9	58.0	2.1	100.0
	기타	(3)	0.0	81.8	18.2	0.0	100.0
	종교없음	(603)	5.3	43.9	45.5	5.3	100.0
	모름/무응답	(21)	8.3	33.4	41.5	16.8	100.0

표 40-3. 한반도 전쟁 시 주변4국의 태도 – ㉰ 일본

문)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4국은 어떻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한국을 도울 것이다	북한을 도울 것이다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중립을 지킬 것이다	모름/무응답	계
			%	%	%	%	%	%
전 체		(1,200)	7.8	7.5	74.8	9.8	0.1	100.0
성별	남자	(612)	8.3	7.8	73.1	10.8	0.0	100.0
	여자	(588)	7.2	7.1	76.6	8.8	0.2	100.0
연령별	19~29세	(248)	7.7	8.0	73.6	10.7	0.0	100.0
	30대	(269)	9.4	9.3	72.3	9.0	0.0	100.0
	40대	(304)	7.8	6.4	75.7	9.7	0.4	100.0
	50대 이상	(378)	6.6	6.7	76.7	10.0	0.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10.9	9.0	63.4	16.7	0.0	100.0
	고졸	(518)	5.6	7.5	76.2	10.4	0.2	100.0
	대재 이상	(591)	9.2	7.2	75.3	8.3	0.0	100.0
	모름/무응답	(2)	0.0	0.0	10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20.9	7.4	66.1	5.6	0.0	100.0
	자영업	(203)	8.4	7.8	77.7	6.1	0.0	100.0
	블루 칼라	(307)	6.9	10.0	68.7	14.4	0.0	100.0
	화이트칼라	(314)	8.5	4.0	79.4	8.1	0.0	100.0
	전업 주부	(230)	5.0	8.3	76.2	9.8	0.5	100.0
	무직/기타	(130)	10.2	7.9	72.2	9.7	0.0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10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12.8	6.9	63.4	16.8	0.0	100.0
	200~299만원	(227)	9.3	6.5	72.9	11.3	0.0	100.0
	300~399만원	(393)	5.2	10.4	75.8	8.2	0.3	100.0
	400만원 이상	(481)	8.0	5.7	77.3	9.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6.7	9.2	71.9	12.0	0.2	100.0
	충청권	(120)	4.0	1.4	85.6	8.9	0.0	100.0
	호남권	(115)	16.2	10.3	68.8	4.6	0.0	100.0
	영남권	(309)	7.9	5.8	78.4	7.9	0.0	100.0
	강원	(35)	6.6	6.6	77.2	9.6	0.0	100.0
	제주	(13)	14.1	0.0	75.0	10.9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6.1	8.9	74.5	10.2	0.2	100.0
	중 · 소도시	(507)	8.1	6.6	76.1	9.2	0.0	100.0
	읍/면	(134)	13.1	4.9	71.3	10.7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9.2	8.4	74.8	7.6	0.0	100.0
	중도	(580)	7.8	7.6	74.0	10.4	0.2	100.0
	보수적	(286)	5.9	6.2	76.5	11.3	0.0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100.0	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9.4	5.4	76.8	8.3	0.0	100.0
	기독교	(243)	4.5	10.0	76.3	8.6	0.5	100.0
	천주교	(73)	13.4	11.8	60.8	14.0	0.0	100.0
	기타	(3)	53.1	0.0	46.9	0.0	0.0	100.0
	종교없음	(603)	7.3	6.4	75.8	10.5	0.0	100.0
	모름/무응답	(21)	13.3	19.5	57.6	9.6	0.0	100.0

표 40-4. 한반도 전쟁 시 주변4국의 태도 – ㉣ 러시아

문)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4국은 어떻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한국을 도울 것이다	북한을 도울 것이다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중립을 지킬 것이다	계
			%	%	%	%	%
전 체		(1,200)	3.3	14.5	68.6	13.6	100.0
성별	남자	(612)	3.3	15.4	68.0	13.3	100.0
	여자	(588)	3.4	13.5	69.1	14.0	100.0
연령별	19~29세	(248)	3.1	13.8	71.7	11.4	100.0
	30대	(269)	4.1	11.8	70.5	13.6	100.0
	40대	(304)	3.5	14.4	66.5	15.7	100.0
	50대 이상	(378)	2.8	16.9	66.8	13.5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3.9	23.3	57.3	15.5	100.0
	고졸	(518)	1.2	13.1	70.8	14.9	100.0
	대재 이상	(591)	5.1	14.2	68.4	12.3	100.0
	모름/무응답	(2)	0.0	60.1	39.9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8.5	11.6	63.5	16.4	100.0
	자영업	(203)	3.6	15.3	71.5	9.6	100.0
	블루 칼라	(307)	2.5	14.0	68.1	15.4	100.0
	화이트칼라	(314)	5.1	12.1	69.5	13.3	100.0
	전업 주부	(230)	1.3	16.4	66.0	16.3	100.0
	무직/기타	(130)	3.5	16.4	68.3	11.8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5.2	16.4	60.4	18.0	100.0
	200~299만원	(227)	4.1	13.9	63.8	18.2	100.0
	300~399만원	(393)	2.0	15.5	68.6	13.8	100.0
	400만원 이상	(481)	3.6	13.4	72.5	10.5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4.0	13.1	68.7	14.2	100.0
	충청권	(120)	3.3	14.2	67.0	15.4	100.0
	호남권	(115)	3.6	16.8	66.7	12.9	100.0
	영남권	(309)	2.1	16.4	69.2	12.2	100.0
	강원	(35)	0.0	17.6	73.4	9.0	100.0
	제주	(13)	7.1	3.5	66.5	22.9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1.8	15.4	70.9	11.9	100.0
	중 · 소도시	(507)	4.9	13.8	66.3	15.0	100.0
	읍/면	(134)	3.7	13.4	67.1	15.9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5.3	13.7	68.5	12.4	100.0
	중도	(580)	2.3	15.2	70.0	12.5	100.0
	보수적	(286)	3.1	13.9	65.5	17.5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10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4.2	16.8	64.9	14.1	100.0
	기독교	(243)	4.3	12.3	68.3	15.1	100.0
	천주교	(73)	3.9	23.4	61.1	11.5	100.0
	기타	(3)	53.1	0.0	28.7	18.2	100.0
	종교없음	(603)	2.1	13.4	71.2	13.3	100.0
	모름/무응답	(21)	9.7	11.4	69.3	9.6	100.0

표 41-1. 주변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 – ㉮ 미국

문) ○○님은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원한다	② 원하는 편이다	①+②	③ 원하지 않는 편이다	④ 전혀 원하지 않는다	③+④	모름/무응답	계
			%	%	%	%	%	%	%	%
전 체		(1,200)	6.2	34.8	41.0	46.1	12.6	58.7	0.3	100.0
성별	남자	(612)	6.4	33.5	39.9	47.0	13.1	60.1	0.0	100.0
	여자	(588)	5.9	36.1	42.0	45.1	12.1	57.3	0.7	100.0
연령별	19~29세	(248)	4.7	36.5	41.2	44.1	14.3	58.4	0.4	100.0
	30대	(269)	9.6	35.8	45.4	42.7	11.9	54.6	0.0	100.0
	40대	(304)	4.5	35.2	39.7	45.2	14.2	59.3	1.0	100.0
	50대 이상	(378)	6.1	32.5	38.7	50.6	10.8	61.3	0.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6.8	38.6	45.3	45.4	9.2	54.7	0.0	100.0
	고졸	(518)	6.3	34.2	40.4	48.3	10.8	59.2	0.4	100.0
	대재 이상	(591)	6.1	34.6	40.7	44.4	14.6	59.0	0.3	100.0
	모름/무응답	(2)	0.0	60.1	60.1	0.0	39.9	39.9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7.3	28.1	35.4	35.9	28.7	64.6	0.0	100.0
	자영업	(203)	5.8	34.5	40.3	44.7	15.0	59.7	0.0	100.0
	블루 칼라	(307)	7.8	36.0	43.7	47.1	8.9	55.9	0.3	100.0
	화이트칼라	(314)	3.7	32.8	36.5	47.2	16.3	63.5	0.0	100.0
	전업 주부	(230)	8.1	37.2	45.3	44.3	9.5	53.8	0.9	100.0
	무직/기타	(130)	5.6	33.7	39.3	47.2	12.7	59.9	0.8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4.6	31.0	35.5	48.2	15.4	63.6	0.8	100.0
	200~299만원	(227)	8.1	30.3	38.3	52.8	8.9	61.7	0.0	100.0
	300~399만원	(393)	7.7	36.2	43.8	45.2	10.4	55.6	0.6	100.0
	400만원 이상	(481)	4.4	36.5	40.9	43.2	15.6	58.9	0.2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7.5	40.6	48.0	42.8	8.6	51.4	0.5	100.0
	충청권	(120)	2.5	14.1	16.6	54.9	27.9	82.8	0.7	100.0
	호남권	(115)	2.8	35.8	38.6	44.4	16.9	61.4	0.0	100.0
	영남권	(309)	6.1	31.3	37.4	50.1	12.5	62.6	0.0	100.0
	강원	(35)	9.1	38.6	47.7	40.8	11.5	52.3	0.0	100.0
	제주	(13)	5.6	16.2	21.9	53.0	25.2	78.1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5.7	43.0	48.8	38.5	12.1	50.7	0.6	100.0
	중 · 소도시	(507)	7.6	28.0	35.5	51.2	13.2	64.3	0.2	100.0
	읍/면	(134)	3.0	25.8	28.8	58.6	12.6	71.2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6.3	31.4	37.7	49.1	12.7	61.8	0.5	100.0
	중도	(580)	6.6	34.1	40.6	46.4	12.6	59.0	0.4	100.0
	보수적	(286)	5.4	39.8	45.2	42.2	12.6	54.8	0.0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4.3	35.3	39.6	47.4	13.0	60.4	0.0	100.0
	기독교	(243)	7.8	35.1	42.9	43.3	13.0	56.3	0.8	100.0
	천주교	(73)	5.1	34.9	40.0	51.3	8.7	60.0	0.0	100.0
	기타	(3)	53.1	28.7	81.8	18.2	0.0	18.2	0.0	100.0
	종교없음	(603)	6.2	35.1	41.3	45.7	12.9	58.6	0.2	100.0
	모름/무응답	(21)	9.8	14.6	24.4	58.5	12.2	70.7	4.9	100.0

표 41-2. 주변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 – ㉯ 중국

문) ○○님은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원한다	② 원하는 편이다	①+②	③ 원하지 않는 편이다	④ 전혀 원하지 않는다	③+④	모름/무응답	계
			%	%	%	%	%	%	%	%
전 체		(1,200)	1.8	17.5	19.3	59.5	21.1	80.6	0.1	100.0
성별	남자	(612)	2.1	16.4	18.4	59.9	21.7	81.6	0.0	100.0
	여자	(588)	1.6	18.6	20.2	59.1	20.4	79.5	0.3	100.0
연령별	19~29세	(248)	1.2	12.8	13.9	66.4	19.7	86.1	0.0	100.0
	30대	(269)	1.8	21.8	23.6	56.0	20.4	76.4	0.0	100.0
	40대	(304)	1.3	15.3	16.5	59.2	23.7	82.9	0.6	100.0
	50대 이상	(378)	2.8	19.2	21.9	57.7	20.3	78.1	0.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4.8	18.9	23.7	60.3	16.1	76.3	0.0	100.0
	고졸	(518)	1.5	18.2	19.7	60.4	19.7	80.1	0.2	100.0
	대재 이상	(591)	1.7	16.6	18.3	58.6	23.0	81.6	0.1	100.0
	모름/무응답	(2)	0.0	0.0	0.0	60.1	39.9	10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7.3	8.5	15.7	48.8	35.5	84.3	0.0	100.0
	자영업	(203)	1.7	17.9	19.6	56.7	23.7	80.4	0.0	100.0
	블루 칼라	(307)	2.4	17.2	19.6	59.5	20.6	80.1	0.3	100.0
	화이트칼라	(314)	0.8	16.8	17.6	60.2	22.3	82.4	0.0	100.0
	전업 주부	(230)	2.1	22.2	24.2	57.7	17.7	75.4	0.4	100.0
	무직/기타	(130)	2.2	11.8	14.0	66.1	19.8	86.0	0.0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2.3	21.7	23.9	58.7	16.5	75.2	0.8	100.0
	200~299만원	(227)	2.2	17.9	20.1	62.1	17.8	79.9	0.0	100.0
	300~399만원	(393)	1.8	18.9	20.7	58.4	20.6	79.0	0.2	100.0
	400만원 이상	(481)	1.6	15.2	16.7	59.3	23.9	83.3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2.1	19.5	21.5	61.4	16.9	78.3	0.2	100.0
	충청권	(120)	0.7	8.6	9.3	54.7	35.3	90.0	0.7	100.0
	호남권	(115)	0.7	18.9	19.6	62.5	17.9	80.4	0.0	100.0
	영남권	(309)	2.4	16.4	18.8	55.5	25.7	81.2	0.0	100.0
	강원	(35)	0.0	20.6	20.6	68.3	11.1	79.4	0.0	100.0
	제주	(13)	3.6	9.2	12.8	60.0	27.2	87.2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1.8	19.7	21.4	56.7	21.7	78.4	0.2	100.0
	중 · 소도시	(507)	1.9	15.0	16.9	61.3	21.7	83.0	0.2	100.0
	읍/면	(134)	1.9	17.5	19.4	64.6	16.0	80.6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2.7	15.8	18.5	58.0	23.0	80.9	0.5	100.0
	중도	(580)	1.9	16.8	18.6	61.9	19.4	81.4	0.0	100.0
	보수적	(286)	0.7	20.8	21.6	56.1	22.3	78.4	0.0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1.7	20.5	22.2	52.0	25.9	77.8	0.0	100.0
	기독교	(243)	2.2	20.1	22.2	58.7	18.7	77.4	0.3	100.0
	천주교	(73)	1.1	10.7	11.9	70.7	17.5	88.1	0.0	100.0
	기타	(3)	18.5	0.0	18.5	46.9	34.6	81.5	0.0	100.0
	종교없음	(603)	1.8	16.4	18.2	61.3	20.4	81.7	0.2	100.0
	모름/무응답	(21)	0.0	7.4	7.4	71.9	20.7	92.6	0.0	100.0

표 41-3. 주변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 – ㉰ 일본

문) ○○님은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원한다	② 원하는 편이다	①+②	③ 원하지 않는 편이다	④ 전혀 원하지 않는다	③+④	모름/무응답	계
			%	%	%	%	%	%	%	%
전 체		(1,200)	1.0	11.5	12.5	57.2	29.9	87.1	0.3	100.0
성별	남자	(612)	0.6	11.3	11.9	59.2	28.7	87.9	0.2	100.0
	여자	(588)	1.4	11.8	13.2	55.1	31.2	86.3	0.5	100.0
연령별	19~29세	(248)	0.0	11.2	11.2	60.7	28.0	88.8	0.0	100.0
	30대	(269)	0.5	14.7	15.2	57.1	27.7	84.8	0.0	100.0
	40대	(304)	1.4	9.0	10.4	60.6	27.8	88.4	1.2	100.0
	50대 이상	(378)	1.7	11.6	13.3	52.3	34.4	86.7	0.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2.5	14.5	17.0	50.7	32.3	83.0	0.0	100.0
	고졸	(518)	1.0	11.1	12.1	58.4	28.8	87.3	0.6	100.0
	대재 이상	(591)	0.8	11.5	12.3	57.1	30.5	87.6	0.1	100.0
	모름/무응답	(2)	0.0	0.0	0.0	60.1	39.9	10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0.0	7.4	7.4	42.2	50.3	92.6	0.0	100.0
	자영업	(203)	1.2	12.4	13.6	53.6	32.7	86.4	0.0	100.0
	블루 칼라	(307)	1.0	10.9	11.9	58.3	29.2	87.5	0.6	100.0
	화이트칼라	(314)	1.5	10.7	12.2	57.5	30.3	87.8	0.0	100.0
	전업 주부	(230)	0.9	12.0	12.8	57.4	29.5	86.8	0.4	100.0
	무직/기타	(130)	0.0	13.6	13.6	61.5	24.2	85.7	0.8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0.0	100.0	10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3.7	14.9	18.6	54.8	24.8	79.6	1.8	100.0
	200~299만원	(227)	1.7	13.1	14.8	57.1	27.7	84.8	0.4	100.0
	300~399만원	(393)	0.3	11.8	12.1	58.2	29.5	87.7	0.2	100.0
	400만원 이상	(481)	0.7	9.9	10.6	56.9	32.4	89.4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1.8	12.9	14.7	58.7	26.2	84.8	0.5	100.0
	충청권	(120)	0.0	8.7	8.7	54.7	35.9	90.6	0.7	100.0
	호남권	(115)	0.8	15.5	16.3	61.6	22.1	83.7	0.0	100.0
	영남권	(309)	0.0	7.1	7.1	54.8	38.1	92.9	0.0	100.0
	강원	(35)	0.0	25.0	25.0	50.0	25.0	75.0	0.0	100.0
	제주	(13)	3.6	7.2	10.8	51.7	37.5	89.2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0.6	13.0	13.5	56.0	29.9	85.9	0.5	100.0
	중 · 소도시	(507)	1.3	9.8	11.2	57.6	31.0	88.7	0.2	100.0
	읍/면	(134)	1.6	12.0	13.6	60.8	25.5	86.4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1.8	10.4	12.2	58.3	28.6	86.9	0.8	100.0
	중도	(580)	0.7	11.3	12.0	59.1	28.9	88.0	0.0	100.0
	보수적	(286)	0.7	12.9	13.6	52.5	33.5	86.0	0.3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1.4	9.3	10.7	55.2	34.1	89.3	0.0	100.0
	기독교	(243)	1.9	14.7	16.6	56.8	25.8	82.7	0.7	100.0
	천주교	(73)	1.8	12.7	14.5	49.3	36.3	85.5	0.0	100.0
	기타	(3)	53.1	0.0	53.1	18.2	28.7	46.9	0.0	100.0
	종교없음	(603)	0.2	11.3	11.4	59.4	28.9	88.3	0.3	100.0
	모름/무응답	(21)	0.0	8.6	8.6	57.6	33.8	91.4	0.0	100.0

표 41-4. 주변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 – ㉣ 러시아

문) ○○님은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원한다	② 원하는 편이다	①+②	③ 원하지 않는 편이다	④ 전혀 원하지 않는다	③+④	모름/무응답	계
			%	%	%	%	%	%	%	%
전 체		(1,200)	1.4	15.0	16.4	63.9	19.3	83.2	0.4	100.0
성별	남자	(612)	0.8	13.5	14.4	66.0	19.4	85.5	0.2	100.0
	여자	(588)	2.1	16.4	18.5	61.7	19.1	80.8	0.7	100.0
연령별	19~29세	(248)	0.3	15.4	15.7	67.1	17.2	84.3	0.0	100.0
	30대	(269)	0.5	18.4	18.9	62.2	18.9	81.1	0.0	100.0
	40대	(304)	1.4	11.5	12.9	63.9	21.6	85.5	1.6	100.0
	50대 이상	(378)	2.9	15.0	17.9	63.0	19.1	82.1	0.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3.6	16.4	20.0	62.6	17.3	80.0	0.0	100.0
	고졸	(518)	1.4	15.1	16.5	63.7	19.0	82.7	0.8	100.0
	대재 이상	(591)	1.1	14.7	15.8	64.3	19.8	84.0	0.1	100.0
	모름/무응답	(2)	0.0	0.0	0.0	60.1	39.9	10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0.0	7.3	7.3	63.7	29.0	92.7	0.0	100.0
	자영업	(203)	1.2	15.7	16.9	60.3	22.8	83.1	0.0	100.0
	블루 칼라	(307)	1.4	15.4	16.8	64.7	17.9	82.6	0.6	100.0
	화이트칼라	(314)	1.7	13.6	15.3	63.0	21.7	84.7	0.0	100.0
	전업 주부	(230)	2.2	17.9	20.2	62.4	16.5	78.9	0.9	100.0
	무직/기타	(130)	0.0	11.8	11.8	72.8	14.6	87.5	0.8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0.0	100.0	10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4.5	11.7	16.2	69.2	12.9	82.0	1.8	100.0
	200~299만원	(227)	2.7	17.5	20.2	63.3	16.1	79.4	0.4	100.0
	300~399만원	(393)	0.8	17.9	18.7	62.5	18.2	80.7	0.6	100.0
	400만원 이상	(481)	0.7	12.1	12.8	64.3	23.0	87.2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2.5	15.1	17.5	65.2	16.6	81.8	0.7	100.0
	충청권	(120)	0.0	8.7	8.7	57.5	33.2	90.7	0.7	100.0
	호남권	(115)	0.8	17.0	17.8	70.3	11.9	82.2	0.0	100.0
	영남권	(309)	0.0	16.1	16.1	61.5	22.3	83.9	0.0	100.0
	강원	(35)	2.2	20.3	22.5	61.8	15.8	77.5	0.0	100.0
	제주	(13)	3.6	9.2	12.8	68.8	18.4	87.2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0.9	17.3	18.2	61.8	19.3	81.1	0.7	100.0
	중 · 소도시	(507)	2.0	13.2	15.1	64.2	20.5	84.7	0.2	100.0
	읍/면	(134)	1.6	12.2	13.8	71.5	14.7	86.2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3.2	13.4	16.6	64.1	18.5	82.6	0.8	100.0
	중도	(580)	0.8	14.7	15.5	65.8	18.8	84.5	0.0	100.0
	보수적	(286)	0.7	17.4	18.2	59.8	21.3	81.1	0.8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1.8	14.0	15.8	62.0	22.2	84.2	0.0	100.0
	기독교	(243)	1.4	17.0	18.4	61.6	18.7	80.3	1.2	100.0
	천주교	(73)	2.8	18.1	20.9	61.7	17.4	79.1	0.0	100.0
	기타	(3)	53.1	0.0	53.1	46.9	0.0	46.9	0.0	100.0
	종교없음	(603)	0.9	14.3	15.2	65.8	18.7	84.5	0.3	100.0
	모름/무응답	(21)	0.0	14.7	14.7	69.5	15.8	85.3	0.0	100.0

표 42-1. 국가별 남북한 통일 협조 필요 정도 – ㉮ 미국

문)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다음 국가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한 편이다	①+②	③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47.5	45.7	93.2	5.5	1.3	6.8	100.0
성별	남자	(612)	49.5	44.2	93.6	4.8	1.6	6.4	100.0
	여자	(588)	45.4	47.3	92.7	6.2	1.1	7.3	100.0
연령별	19~29세	(248)	45.1	46.6	91.7	5.6	2.7	8.3	100.0
	30대	(269)	49.5	44.2	93.7	5.9	0.4	6.3	100.0
	40대	(304)	46.3	46.6	92.9	6.0	1.1	7.1	100.0
	50대 이상	(378)	48.5	45.5	94.0	4.6	1.3	6.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47.1	41.6	88.7	11.3	0.0	11.3	100.0
	고졸	(518)	46.4	48.0	94.4	4.4	1.2	5.6	100.0
	대재 이상	(591)	48.5	44.3	92.8	5.5	1.7	7.2	100.0
	모름/무응답	(2)	39.9	60.1	10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32.7	61.7	94.4	5.6	0.0	5.6	100.0
	자영업	(203)	47.1	47.6	94.7	4.3	1.0	5.3	100.0
	블루 칼라	(307)	49.7	44.8	94.4	4.8	0.8	5.6	100.0
	화이트칼라	(314)	45.6	47.6	93.2	5.9	0.9	6.8	100.0
	전업 주부	(230)	48.8	43.3	92.0	6.8	1.2	8.0	100.0
	무직/기타	(130)	46.4	43.2	89.7	5.7	4.6	10.3	100.0
	모름/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32.2	58.2	90.4	9.6	0.0	9.6	100.0
	200~299만원	(227)	47.0	45.8	92.8	6.4	0.8	7.2	100.0
	300~399만원	(393)	48.0	46.8	94.9	3.1	2.0	5.1	100.0
	400만원 이상	(481)	50.4	42.2	92.6	6.1	1.3	7.4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49.0	44.2	93.2	5.5	1.4	6.8	100.0
	충청권	(120)	38.1	55.3	93.4	5.9	0.7	6.6	100.0
	호남권	(115)	48.0	45.5	93.5	2.7	3.7	6.5	100.0
	영남권	(309)	50.0	43.7	93.8	5.6	0.6	6.2	100.0
	강원	(35)	29.9	56.6	86.4	11.4	2.2	13.6	100.0
	제주	(13)	47.3	46.1	93.4	6.6	0.0	6.6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51.0	44.5	95.6	3.7	0.7	4.4	100.0
	중 · 소도시	(507)	45.3	46.6	91.9	6.3	1.8	8.1	100.0
	읍/면	(134)	40.9	47.1	88.0	9.8	2.2	12.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47.1	45.7	92.8	5.8	1.4	7.2	100.0
	중도	(580)	45.3	47.9	93.2	5.2	1.6	6.8	100.0
	보수적	(286)	52.5	41.1	93.6	5.7	0.7	6.4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44.4	50.5	94.9	4.6	0.5	5.1	100.0
	기독교	(243)	48.0	43.3	91.2	5.8	2.9	8.8	100.0
	천주교	(73)	53.1	39.5	92.6	6.4	1.0	7.4	100.0
	기타	(3)	81.5	18.5	100.0	0.0	0.0	0.0	100.0
	종교없음	(603)	47.8	46.0	93.8	5.2	0.9	6.2	100.0
	모름/무응답	(21)	46.9	30.9	77.8	16.2	6.0	22.2	100.0

표 42-2. 국가별 남북한 통일 협조 필요 정도 – ㉯ 중국

문)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다음 국가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한 편이다	①+②	③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③+④	모름/무응답	계
			%	%	%	%	%	%	%	%
전 체		(1,200)	35.5	53.0	88.5	9.6	1.9	11.5	0.1	100.0
성별	남자	(612)	38.4	50.0	88.4	9.5	2.1	11.6	0.0	100.0
	여자	(588)	32.5	56.0	88.5	9.6	1.7	11.4	0.2	100.0
연령별	19~29세	(248)	36.0	48.7	84.7	11.1	4.2	15.3	0.0	100.0
	30대	(269)	36.0	52.7	88.8	10.2	1.1	11.2	0.0	100.0
	40대	(304)	33.7	54.9	88.6	9.6	1.5	11.1	0.3	100.0
	50대 이상	(378)	36.2	54.4	90.6	8.1	1.3	9.4	0.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30.3	60.2	90.5	8.6	0.8	9.5	0.0	100.0
	고졸	(518)	30.9	57.6	88.5	10.0	1.3	11.3	0.2	100.0
	대재 이상	(591)	40.2	48.0	88.2	9.2	2.6	11.8	0.0	100.0
	모름/무응답	(2)	39.9	0.0	39.9	60.1	0.0	60.1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32.7	45.8	78.5	21.5	0.0	21.5	0.0	100.0
	자영업	(203)	35.5	54.6	90.2	8.8	1.0	9.8	0.0	100.0
	블루 칼라	(307)	34.6	55.4	90.1	8.4	1.5	9.9	0.0	100.0
	화이트칼라	(314)	39.7	50.0	89.7	8.8	1.4	10.3	0.0	100.0
	전업 주부	(230)	31.6	55.8	87.4	11.0	1.6	12.6	0.0	100.0
	무직/기타	(130)	34.0	47.8	81.8	11.3	6.2	17.4	0.8	100.0
	모름/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17.5	66.1	83.6	12.9	2.5	15.5	1.0	100.0
	200~299만원	(227)	33.9	52.2	86.0	13.2	0.8	14.0	0.0	100.0
	300~399만원	(393)	32.0	57.3	89.3	7.9	2.8	10.7	0.0	100.0
	400만원 이상	(481)	42.8	47.1	89.9	8.5	1.6	10.1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37.3	51.6	88.9	9.3	1.7	11.0	0.2	100.0
	충청권	(120)	29.1	63.6	92.7	5.9	1.4	7.3	0.0	100.0
	호남권	(115)	36.3	51.8	88.1	8.9	3.0	11.9	0.0	100.0
	영남권	(309)	35.1	52.7	87.7	10.7	1.6	12.3	0.0	100.0
	강원	(35)	22.7	49.8	72.5	21.0	6.5	27.5	0.0	100.0
	제주	(13)	47.2	45.9	93.0	7.0	0.0	7.0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39.1	51.5	90.5	7.9	1.4	9.3	0.2	100.0
	중 · 소도시	(507)	31.7	54.8	86.5	11.2	2.3	13.5	0.0	100.0
	읍/면	(134)	34.8	52.4	87.2	10.6	2.2	12.8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38.3	52.2	90.5	7.2	2.1	9.2	0.3	100.0
	중도	(580)	31.6	56.2	87.8	9.8	2.4	12.2	0.0	100.0
	보수적	(286)	40.3	47.1	87.4	11.9	0.7	12.6	0.0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35.0	55.8	90.8	8.7	0.5	9.2	0.0	100.0
	기독교	(243)	32.5	54.1	86.6	10.4	3.0	13.4	0.0	100.0
	천주교	(73)	51.9	34.3	86.1	11.8	2.1	13.9	0.0	100.0
	기타	(3)	81.5	18.5	100.0	0.0	0.0	0.0	0.0	100.0
	종교없음	(603)	35.0	54.2	89.3	9.0	1.6	10.6	0.2	100.0
	모름/무응답	(21)	26.4	38.0	64.4	19.9	15.8	35.6	0.0	100.0

표 42-3. 국가별 남북한 통일 협조 필요 정도 – ㉰ 일본

문)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다음 국가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한 편이다	①+②	③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③+④	모름/무응답	계
			%	%	%	%	%	%	%	%
전 체		(1,200)	13.6	51.7	65.3	26.6	8.0	34.6	0.1	100.0
성별	남자	(612)	13.9	52.6	66.5	25.3	8.2	33.5	0.0	100.0
	여자	(588)	13.4	50.7	64.0	28.1	7.7	35.8	0.2	100.0
연령별	19~29세	(248)	12.7	51.0	63.7	25.5	10.8	36.3	0.0	100.0
	30대	(269)	14.0	51.2	65.2	29.2	5.6	34.8	0.0	100.0
	40대	(304)	14.3	50.5	64.8	27.8	7.0	34.9	0.3	100.0
	50대 이상	(378)	13.6	53.4	66.9	24.6	8.5	33.1	0.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16.0	53.4	69.4	21.1	9.6	30.6	0.0	100.0
	고졸	(518)	12.2	51.7	63.9	30.0	5.9	35.9	0.2	100.0
	대재 이상	(591)	14.4	51.4	65.8	24.6	9.6	34.2	0.0	100.0
	모름/무응답	(2)	39.9	60.1	100.0	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27.5	53.5	81.1	18.9	0.0	18.9	0.0	100.0
	자영업	(203)	16.6	50.6	67.2	24.8	8.0	32.8	0.0	100.0
	블루 칼라	(307)	13.4	53.5	66.8	27.8	5.4	33.2	0.0	100.0
	화이트칼라	(314)	15.5	50.7	66.2	23.0	10.8	33.8	0.0	100.0
	전업 주부	(230)	8.5	54.0	62.5	31.6	5.8	37.5	0.0	100.0
	무직/기타	(130)	12.8	46.8	59.6	27.8	11.9	39.6	0.8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11.0	48.2	59.2	29.9	9.9	39.8	1.0	100.0
	200~299만원	(227)	16.1	53.8	69.9	25.7	4.4	30.1	0.0	100.0
	300~399만원	(393)	12.6	54.7	67.4	24.6	8.0	32.6	0.0	100.0
	400만원 이상	(481)	13.9	48.9	62.7	28.1	9.2	37.3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10.1	50.0	60.0	32.6	7.2	39.8	0.2	100.0
	충청권	(120)	13.8	70.1	83.9	14.8	1.4	16.1	0.0	100.0
	호남권	(115)	12.5	35.4	48.0	33.6	18.4	52.0	0.0	100.0
	영남권	(309)	21.3	54.2	75.5	17.8	6.7	24.5	0.0	100.0
	강원	(35)	11.4	49.5	60.9	19.2	19.9	39.1	0.0	100.0
	제주	(13)	14.6	50.1	64.8	24.5	10.7	35.2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11.5	51.2	62.7	30.0	7.2	37.1	0.2	100.0
	중 · 소도시	(507)	16.6	53.3	69.9	22.5	7.6	30.1	0.0	100.0
	읍/면	(134)	11.4	47.2	58.6	28.5	12.9	41.4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14.9	47.3	62.2	28.4	9.1	37.5	0.3	100.0
	중도	(580)	13.0	54.2	67.1	25.8	7.0	32.9	0.0	100.0
	보수적	(286)	13.6	51.8	65.5	25.9	8.6	34.5	0.0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12.8	53.6	66.4	25.2	8.4	33.6	0.0	100.0
	기독교	(243)	12.9	43.1	56.0	32.3	11.7	44.0	0.0	100.0
	천주교	(73)	18.2	55.0	73.1	19.3	7.6	26.9	0.0	100.0
	기타	(3)	52.9	18.5	71.3	0.0	28.7	28.7	0.0	100.0
	종교없음	(603)	13.9	54.4	68.3	25.9	5.7	31.5	0.2	100.0
	모름/무응답	(21)	4.8	40.0	44.8	29.8	25.4	55.2	0.0	100.0

표 42-4. 국가별 남북한 통일 협조 필요 정도 – ㉣ 러시아

문)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다음 국가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한 편이다	①+②	③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③+④	모름/무응답	계
			%	%	%	%	%	%	%	%
전 체		(1,200)	15.3	56.6	71.9	23.8	4.2	28.1	0.1	100.0
성별	남자	(612)	15.6	57.4	73.0	23.3	3.6	27.0	0.0	100.0
	여자	(588)	14.9	55.7	70.6	24.3	4.9	29.2	0.2	100.0
연령별	19~29세	(248)	15.1	55.0	70.2	23.1	6.7	29.8	0.0	100.0
	30대	(269)	14.3	59.5	73.8	23.4	2.8	26.2	0.0	100.0
	40대	(304)	14.1	54.4	68.5	26.9	4.2	31.1	0.3	100.0
	50대 이상	(378)	17.0	57.3	74.3	22.0	3.6	25.7	0.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17.1	54.4	71.5	22.4	6.1	28.5	0.0	100.0
	고졸	(518)	11.2	59.2	70.4	27.0	2.4	29.4	0.2	100.0
	대재 이상	(591)	18.4	54.9	73.3	21.1	5.6	26.7	0.0	100.0
	모름/무응답	(2)	39.9	0.0	39.9	60.1	0.0	60.1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32.7	40.9	73.6	26.4	0.0	26.4	0.0	100.0
	자영업	(203)	17.0	55.9	72.9	24.4	2.6	27.1	0.0	100.0
	블루 칼라	(307)	12.9	62.3	75.2	22.3	2.6	24.8	0.0	100.0
	화이트칼라	(314)	18.0	53.8	71.8	22.0	6.2	28.2	0.0	100.0
	전업 주부	(230)	10.2	57.2	67.3	28.6	4.1	32.7	0.0	100.0
	무직/기타	(130)	18.6	51.6	70.2	22.1	6.9	29.0	0.8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12.5	47.9	60.5	34.3	4.3	38.5	1.0	100.0
	200~299만원	(227)	14.4	57.5	71.9	25.8	2.2	28.1	0.0	100.0
	300~399만원	(393)	12.4	58.6	71.0	24.2	4.7	29.0	0.0	100.0
	400만원 이상	(481)	18.5	56.3	74.9	20.4	4.8	25.1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11.5	58.1	69.6	25.1	5.2	30.3	0.2	100.0
	충청권	(120)	18.9	67.7	86.6	12.0	1.4	13.4	0.0	100.0
	호남권	(115)	19.3	42.6	61.9	34.3	3.8	38.1	0.0	100.0
	영남권	(309)	19.0	56.0	75.1	22.1	2.8	24.9	0.0	100.0
	강원	(35)	20.2	49.9	70.1	18.7	11.2	29.9	0.0	100.0
	제주	(13)	17.9	41.7	59.6	33.2	7.3	40.4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13.9	58.9	72.8	23.9	3.2	27.0	0.2	100.0
	중 · 소도시	(507)	16.3	56.2	72.5	22.0	5.5	27.5	0.0	100.0
	읍/면	(134)	17.0	48.7	65.6	30.3	4.0	34.4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15.6	55.3	70.9	23.2	5.6	28.8	0.3	100.0
	중도	(580)	13.1	58.4	71.5	24.5	4.0	28.5	0.0	100.0
	보수적	(286)	19.3	54.2	73.5	23.3	3.2	26.5	0.0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14.2	55.4	69.6	26.5	3.9	30.4	0.0	100.0
	기독교	(243)	15.5	54.3	69.8	25.0	5.2	30.2	0.0	100.0
	천주교	(73)	24.1	51.4	75.4	21.9	2.7	24.6	0.0	100.0
	기타	(3)	81.5	18.5	100.0	0.0	0.0	0.0	0.0	100.0
	종교없음	(603)	14.3	59.6	73.9	22.1	3.8	25.9	0.2	100.0
	모름/무응답	(21)	14.7	34.0	48.7	36.8	14.6	51.3	0.0	100.0

표 43.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공조' 중 중요한 것

문) ○○님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공조'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남북관계 개선	한미공조	똑같이 중요하다	모름/무응답	계
			%	%	%	%	%
전 체		(1,200)	30.8	23.8	44.9	0.5	100.0
성별	남자	(612)	30.5	23.8	45.7	0.0	100.0
	여자	(588)	31.1	23.8	44.1	1.0	100.0
연령별	19~29세	(248)	26.5	22.0	51.1	0.5	100.0
	30대	(269)	32.6	24.1	42.8	0.5	100.0
	40대	(304)	35.0	24.1	40.5	0.4	100.0
	50대 이상	(378)	28.9	24.5	45.9	0.6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23.9	27.1	47.6	1.4	100.0
	고졸	(518)	32.8	24.2	42.6	0.5	100.0
	대재 이상	(591)	30.2	23.0	46.6	0.2	100.0
	모름/무응답	(2)	0.0	0.0	39.9	60.1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50.8	19.2	30.0	0.0	100.0
	자영업	(203)	30.8	19.2	50.0	0.0	100.0
	블루 칼라	(307)	27.7	28.8	43.1	0.4	100.0
	화이트칼라	(314)	33.8	20.2	45.6	0.4	100.0
	전업 주부	(230)	32.4	28.7	37.3	1.6	100.0
	무직/기타	(130)	26.0	19.0	55.1	0.0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34.3	25.8	39.9	0.0	100.0
	200~299만원	(227)	32.6	24.9	41.9	0.5	100.0
	300~399만원	(393)	30.5	22.9	45.4	1.2	100.0
	400만원 이상	(481)	29.5	23.5	47.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29.7	30.0	39.3	1.0	100.0
	충청권	(120)	37.4	16.3	46.3	0.0	100.0
	호남권	(115)	43.0	4.9	52.1	0.0	100.0
	영남권	(309)	23.7	23.1	53.1	0.0	100.0
	강원	(35)	45.5	8.9	45.6	0.0	100.0
	제주	(13)	41.7	23.1	35.2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30.6	22.5	45.8	1.1	100.0
	중 · 소도시	(507)	31.8	24.9	43.3	0.0	100.0
	읍/면	(134)	27.7	24.8	47.5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42.4	20.5	36.8	0.4	100.0
	중도	(580)	27.4	23.4	49.0	0.2	100.0
	보수적	(286)	24.4	28.5	45.8	1.3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10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32.1	25.8	42.2	0.0	100.0
	기독교	(243)	32.5	20.0	45.5	2.0	100.0
	천주교	(73)	32.1	22.2	45.7	0.0	100.0
	기타	(3)	53.1	0.0	46.9	0.0	100.0
	종교없음	(603)	29.8	25.1	44.9	0.2	100.0
	모름/무응답	(21)	16.0	14.6	69.4	0.0	100.0

표 44. 중국과 북한의 협력 강화에 대한 의견

문) 최근 중국과 북한 사이에 다방면으로 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우려스럽다	② 우려스러운 편이다	①+②	③ 별로 상관없다	④ 바람직한 편이다	⑤ 매우 바람직하다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16.4	51.4	67.8	26.6	5.4	0.2	5.6	100.0
성별	남자	(612)	14.6	52.3	66.9	27.0	6.1	0.0	6.1	100.0
	여자	(588)	18.3	50.5	68.8	26.2	4.6	0.3	5.0	100.0
연령별	19~29세	(248)	17.8	49.0	66.9	27.2	5.4	0.5	5.9	100.0
	30대	(269)	16.5	51.3	67.8	27.8	4.3	0.0	4.3	100.0
	40대	(304)	16.2	51.7	67.9	28.4	3.6	0.0	3.6	100.0
	50대 이상	(378)	15.6	52.7	68.3	23.9	7.5	0.2	7.7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17.8	57.1	74.9	22.8	2.3	0.0	2.3	100.0
	고졸	(518)	15.4	50.6	66.0	28.1	6.0	0.0	6.0	100.0
	대재 이상	(591)	17.2	51.4	68.6	25.8	5.2	0.3	5.6	100.0
	모름/무응답	(2)	0.0	0.0	0.0	60.1	39.9	0.0	39.9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37.7	37.5	75.2	24.8	0.0	0.0	0.0	100.0
	자영업	(203)	12.1	55.5	67.7	27.1	5.2	0.0	5.2	100.0
	블루 칼라	(307)	14.7	49.8	64.5	28.0	7.5	0.0	7.5	100.0
	화이트칼라	(314)	17.5	54.6	72.1	22.1	5.1	0.6	5.7	100.0
	전업 주부	(230)	19.6	46.1	65.7	29.4	4.9	0.0	4.9	100.0
	무직/기타	(130)	16.4	51.8	68.2	29.0	2.9	0.0	2.9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21.5	45.6	67.0	29.8	3.2	0.0	3.2	100.0
	200~299만원	(227)	18.4	49.7	68.1	26.1	5.8	0.0	5.8	100.0
	300~399만원	(393)	13.6	50.6	64.2	30.2	5.6	0.0	5.6	100.0
	400만원 이상	(481)	16.7	54.1	70.8	23.3	5.5	0.4	5.9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17.5	52.1	69.6	25.6	4.5	0.2	4.8	100.0
	충청권	(120)	9.7	58.6	68.3	29.6	2.1	0.0	2.1	100.0
	호남권	(115)	20.5	50.9	71.5	23.0	5.6	0.0	5.6	100.0
	영남권	(309)	14.0	48.2	62.2	29.2	8.6	0.0	8.6	100.0
	강원	(35)	22.5	49.7	72.2	21.2	4.5	2.1	6.7	100.0
	제주	(13)	31.3	36.5	67.8	32.2	0.0	0.0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18.7	51.6	70.3	24.3	5.4	0.0	5.4	100.0
	중 · 소도시	(507)	14.4	53.2	67.7	28.1	4.1	0.1	4.2	100.0
	읍/면	(134)	14.5	43.6	58.1	30.8	10.2	0.9	11.1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17.7	49.2	66.9	28.4	4.6	0.2	4.8	100.0
	중도	(580)	14.8	52.3	67.1	27.3	5.3	0.2	5.6	100.0
	보수적	(286)	18.3	52.3	70.6	22.9	6.5	0.0	6.5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100.0	0.0	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16.7	54.2	70.9	24.2	4.8	0.0	4.8	100.0
	기독교	(243)	18.4	54.7	73.1	21.0	5.9	0.0	5.9	100.0
	천주교	(73)	20.7	44.9	65.6	26.3	7.2	1.0	8.2	100.0
	기타	(3)	18.5	28.7	47.1	18.2	34.6	0.0	34.6	100.0
	종교없음	(603)	14.9	50.5	65.4	29.6	4.8	0.2	5.0	100.0
	모름/무응답	(21)	18.2	29.2	47.4	37.9	14.7	0.0	14.7	100.0

표 45-1. 주요 사건의 사회적 영향 평가 – ㉮ 4.19

문) ○○님은 다음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긍정적이라고 혹은 부정적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긍정적	② 대체로 긍정적	①+②	③ 대체로 부정적	④ 매우 부정적	③+④	잘 모름	계
			%	%	%	%	%	%	%	%
전 체		(1,200)	11.5	48.2	59.6	16.4	9.1	25.6	14.8	100.0
성별	남자	(612)	14.9	49.6	64.5	14.9	8.3	23.2	12.3	100.0
	여자	(588)	7.9	46.6	54.5	18.0	10.1	28.0	17.4	100.0
연령별	19~29세	(248)	13.0	40.4	53.4	15.8	8.3	24.1	22.5	100.0
	30대	(269)	11.8	40.9	52.7	19.4	10.9	30.3	17.0	100.0
	40대	(304)	10.6	53.2	63.8	16.0	9.0	25.0	11.2	100.0
	50대 이상	(378)	10.9	54.4	65.3	15.0	8.6	23.6	11.1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8.4	40.4	48.8	23.4	8.9	32.4	18.8	100.0
	고졸	(518)	8.5	52.7	61.3	15.8	11.6	27.4	11.4	100.0
	대재 이상	(591)	14.4	45.5	59.9	16.0	7.1	23.0	17.1	100.0
	모름/무응답	(2)	39.9	0.0	39.9	0.0	0.0	0.0	60.1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24.8	26.0	50.8	24.4	0.0	24.4	24.8	100.0
	자영업	(203)	12.0	56.9	68.9	13.3	6.5	19.9	11.2	100.0
	블루 칼라	(307)	10.0	42.3	52.2	20.0	10.5	30.5	17.2	100.0
	화이트칼라	(314)	14.6	49.8	64.4	12.1	9.8	21.9	13.7	100.0
	전업 주부	(230)	6.7	51.4	58.0	19.4	11.8	31.3	10.7	100.0
	무직/기타	(130)	13.4	41.1	54.6	17.1	4.7	21.9	23.5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9.0	42.3	51.3	17.5	10.3	27.8	20.9	100.0
	200~299만원	(227)	13.4	49.2	62.5	15.4	11.3	26.7	10.8	100.0
	300~399만원	(393)	9.5	48.6	58.1	17.9	9.9	27.8	14.1	100.0
	400만원 이상	(481)	12.7	48.6	61.3	15.5	7.2	22.7	16.0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11.3	50.9	62.2	14.4	9.6	24.0	13.8	100.0
	충청권	(120)	14.6	34.5	49.0	11.1	10.9	22.0	28.9	100.0
	호남권	(115)	13.6	53.2	66.8	12.3	4.2	16.5	16.7	100.0
	영남권	(309)	8.0	46.9	54.9	23.9	10.0	33.8	11.2	100.0
	강원	(35)	22.5	48.1	70.6	18.4	4.4	22.8	6.6	100.0
	제주	(13)	24.1	33.3	57.4	14.8	7.1	21.9	20.7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9.6	50.2	59.8	12.6	10.1	22.7	17.4	100.0
	중 · 소도시	(507)	13.2	49.3	62.5	18.4	7.4	25.9	11.6	100.0
	읍/면	(134)	12.5	35.4	47.9	24.8	11.5	36.2	15.9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17.6	44.5	62.1	13.5	11.6	25.1	12.8	100.0
	중도	(580)	8.9	45.5	54.4	18.1	10.2	28.3	17.3	100.0
	보수적	(286)	9.7	58.0	67.7	16.5	4.1	20.6	11.7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0.0	0.0	0.0	100.0	100.0
종교별	불교	(257)	8.3	52.8	61.1	20.1	8.5	28.6	10.3	100.0
	기독교	(243)	10.9	45.8	56.7	15.6	11.3	26.9	16.4	100.0
	천주교	(73)	11.0	58.3	69.3	15.1	5.1	20.2	10.5	100.0
	기타	(3)	0.0	34.6	34.6	28.7	0.0	28.7	36.7	100.0
	종교없음	(603)	13.1	46.5	59.6	15.2	9.2	24.3	16.1	100.0
	모름/무응답	(21)	12.2	34.0	46.2	19.9	6.0	25.9	27.9	100.0

표 45-2. 주요 사건의 사회적 영향 평가 – ㉯ 5.16

문) ○○님은 다음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긍정적이라고 혹은 부정적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긍정적	② 대체로 긍정적	①+②	③ 대체로 부정적	④ 매우 부정적	③+④	잘 모름	계
			%	%	%	%	%	%	%	%
전 체		(1,200)	5.2	34.5	39.8	28.5	17.2	45.7	14.5	100.0
성별	남자	(612)	6.1	35.2	41.3	28.0	18.9	46.9	11.8	100.0
	여자	(588)	4.4	33.8	38.2	29.1	15.5	44.6	17.3	100.0
연령별	19~29세	(248)	4.1	26.8	30.9	28.7	16.4	45.1	24.0	100.0
	30대	(269)	3.7	33.0	36.7	27.4	19.2	46.6	16.6	100.0
	40대	(304)	5.4	34.6	40.0	29.1	19.6	48.7	11.3	100.0
	50대 이상	(378)	7.0	40.6	47.6	28.7	14.4	43.1	9.3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12.3	32.9	45.3	31.7	10.2	41.9	12.9	100.0
	고졸	(518)	2.8	41.3	44.2	28.8	15.5	44.3	11.6	100.0
	대재 이상	(591)	6.2	28.9	35.1	27.9	19.8	47.8	17.2	100.0
	모름/무응답	(2)	39.9	0.0	39.9	0.0	0.0	0.0	60.1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7.3	22.6	29.8	34.5	30.6	65.0	5.1	100.0
	자영업	(203)	7.2	43.2	50.4	27.2	14.0	41.2	8.4	100.0
	블루 칼라	(307)	4.4	31.9	36.3	32.5	14.7	47.2	16.5	100.0
	화이트칼라	(314)	7.2	29.1	36.3	26.2	21.8	48.0	15.8	100.0
	전업 주부	(230)	3.2	42.4	45.6	27.3	15.5	42.8	11.6	100.0
	무직/기타	(130)	2.9	27.4	30.3	28.4	18.8	47.3	22.4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7.4	32.5	39.9	23.9	18.3	42.2	17.9	100.0
	200~299만원	(227)	4.0	34.6	38.6	30.8	18.0	48.8	12.6	100.0
	300~399만원	(393)	4.2	35.3	39.4	31.7	14.3	46.0	14.6	100.0
	400만원 이상	(481)	6.2	34.3	40.5	25.8	19.0	44.8	14.7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3.7	34.3	38.1	29.9	18.3	48.3	13.7	100.0
	충청권	(120)	7.1	31.6	38.7	23.6	13.6	37.2	24.0	100.0
	호남권	(115)	2.9	33.9	36.8	22.4	16.9	39.4	23.8	100.0
	영남권	(309)	8.1	35.6	43.7	30.6	16.0	46.7	9.6	100.0
	강원	(35)	8.9	39.0	47.9	27.7	20.0	47.7	4.4	100.0
	제주	(13)	0.0	39.1	39.1	13.6	22.8	36.5	24.4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4.2	32.8	37.0	29.4	17.1	46.5	16.5	100.0
	중 · 소도시	(507)	6.9	37.0	44.0	27.0	17.2	44.2	11.9	100.0
	읍/면	(134)	3.0	32.3	35.2	30.7	17.8	48.5	16.3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6.4	28.6	35.0	26.6	25.2	51.8	13.2	100.0
	중도	(580)	3.8	33.9	37.7	29.6	15.2	44.8	17.4	100.0
	보수적	(286)	6.8	42.7	49.5	28.6	12.2	40.8	9.7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0.0	0.0	0.0	100.0	100.0
종교별	불교	(257)	5.3	39.0	44.3	30.1	16.7	46.8	8.9	100.0
	기독교	(243)	4.8	26.9	31.7	32.0	21.8	53.8	14.5	100.0
	천주교	(73)	3.4	42.9	46.3	27.1	15.0	42.1	11.6	100.0
	기타	(3)	0.0	34.6	34.6	28.7	0.0	28.7	36.7	100.0
	종교없음	(603)	5.8	34.8	40.6	27.1	16.2	43.2	16.2	100.0
	모름/무응답	(21)	0.0	32.4	32.4	15.8	9.7	25.4	42.2	100.0

표 45-3. 주요 사건의 사회적 영향 평가 – ㉰ 10월 유신

문) ○○님은 다음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긍정적이라고 혹은 부정적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긍정적	② 대체로 긍정적	①+②	③ 대체로 부정적	④ 매우 부정적	③+④	잘 모름	계
			%	%	%	%	%	%	%	%
전 체		(1,200)	3.2	24.3	27.5	32.0	21.7	53.6	18.9	100.0
성별	남자	(612)	3.5	24.8	28.3	33.1	23.0	56.0	15.6	100.0
	여자	(588)	2.9	23.8	26.7	30.8	20.3	51.1	22.2	100.0
연령별	19~29세	(248)	2.0	19.5	21.5	27.1	22.4	49.5	29.0	100.0
	30대	(269)	2.9	23.3	26.2	29.0	24.9	53.9	19.9	100.0
	40대	(304)	4.6	25.7	30.3	32.3	21.6	54.0	15.7	100.0
	50대 이상	(378)	3.1	27.1	30.2	37.0	18.9	55.9	14.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4.4	25.3	29.7	40.1	11.4	51.5	18.8	100.0
	고졸	(518)	2.6	26.3	28.9	36.0	17.7	53.7	17.5	100.0
	대재 이상	(591)	3.5	22.3	25.8	27.3	26.7	54.1	20.1	100.0
	모름/무응답	(2)	39.9	60.1	100.0	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0.0	33.4	33.4	10.5	37.8	48.3	18.4	100.0
	자영업	(203)	5.1	28.5	33.7	33.8	19.7	53.5	12.8	100.0
	블루 칼라	(307)	3.7	21.7	25.4	34.1	18.5	52.6	22.0	100.0
	화이트칼라	(314)	3.6	25.0	28.6	26.0	25.8	51.9	19.5	100.0
	전업 주부	(230)	1.8	25.8	27.6	37.7	20.2	57.9	14.5	100.0
	무직/기타	(130)	1.0	18.8	19.7	30.9	22.4	53.2	27.1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0.0	100.0	10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2.1	26.0	28.1	35.0	15.3	50.4	21.5	100.0
	200~299만원	(227)	4.1	24.5	28.6	38.1	14.7	52.9	18.6	100.0
	300~399만원	(393)	3.9	28.9	32.8	29.4	19.8	49.2	17.9	100.0
	400만원 이상	(481)	2.4	20.2	22.6	30.5	27.8	58.2	19.2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2.1	21.5	23.6	33.7	25.2	58.9	17.6	100.0
	충청권	(120)	2.3	25.0	27.3	24.5	21.1	45.6	27.0	100.0
	호남권	(115)	3.5	22.1	25.5	26.6	15.9	42.5	32.0	100.0
	영남권	(309)	5.7	29.5	35.2	34.3	17.2	51.5	13.3	100.0
	강원	(35)	4.3	34.5	38.8	29.7	18.3	48.1	13.1	100.0
	제주	(13)	0.0	19.6	19.6	18.7	28.4	47.1	33.3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1.9	23.1	25.0	28.4	25.5	53.9	21.1	100.0
	중 · 소도시	(507)	4.8	26.5	31.2	34.2	17.7	52.0	16.8	100.0
	읍/면	(134)	2.7	21.2	23.9	38.3	20.7	58.9	17.1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4.4	21.4	25.8	29.5	29.8	59.2	14.9	100.0
	중도	(580)	2.1	23.2	25.3	31.1	21.3	52.4	22.2	100.0
	보수적	(286)	4.0	30.0	34.1	36.6	13.1	49.7	16.2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0.0	0.0	0.0	100.0	100.0
종교별	불교	(257)	4.1	29.7	33.8	36.0	16.0	52.1	14.1	100.0
	기독교	(243)	3.7	21.2	24.9	34.2	21.6	55.9	19.2	100.0
	천주교	(73)	2.0	24.6	26.7	22.4	31.5	53.9	19.4	100.0
	기타	(3)	0.0	34.6	34.6	28.7	0.0	28.7	36.7	100.0
	종교없음	(603)	2.9	23.7	26.6	31.0	23.1	54.1	19.3	100.0
	모름/무응답	(21)	0.0	9.0	9.0	16.8	18.1	34.9	56.0	100.0

표 45-4. 주요 사건의 사회적 영향 평가 – ㉱ 광주민주화운동

문) ○○님은 다음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긍정적이라고 혹은 부정적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긍정적	② 대체로 긍정적	①+②	③ 대체로 부정적	④ 매우 부정적	③+④	잘 모름	계
			%	%	%	%	%	%	%	%
전 체		(1,200)	14.4	40.2	54.6	23.5	12.3	35.7	9.7	100.0
성별	남자	(612)	16.1	39.3	55.4	24.6	12.0	36.6	8.0	100.0
	여자	(588)	12.5	41.2	53.7	22.3	12.6	34.9	11.4	100.0
연령별	19~29세	(248)	15.8	41.0	56.7	17.9	12.3	30.2	13.1	100.0
	30대	(269)	17.7	41.0	58.6	23.5	10.3	33.8	7.6	100.0
	40대	(304)	15.0	39.3	54.3	23.6	11.1	34.7	11.0	100.0
	50대 이상	(378)	10.5	39.9	50.4	27.1	14.6	41.6	7.9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8.8	32.2	41.0	30.4	17.0	47.4	11.6	100.0
	고졸	(518)	9.4	40.8	50.1	26.6	14.4	41.0	8.9	100.0
	대재 이상	(591)	19.4	40.8	60.3	19.8	9.7	29.5	10.2	100.0
	모름/무응답	(2)	39.9	60.1	100.0	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26.7	39.0	65.7	12.7	8.5	21.1	13.2	100.0
	자영업	(203)	11.9	41.3	53.2	28.3	11.3	39.6	7.2	100.0
	블루 칼라	(307)	10.3	41.0	51.3	22.4	15.9	38.3	10.4	100.0
	화이트칼라	(314)	21.4	38.4	59.8	20.4	10.5	30.9	9.3	100.0
	전업 주부	(230)	8.5	41.5	49.9	27.4	13.8	41.3	8.8	100.0
	무직/기타	(130)	19.8	38.4	58.2	20.5	7.2	27.6	14.2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14.0	32.9	46.9	21.6	14.3	35.9	17.1	100.0
	200~299만원	(227)	15.0	34.7	49.8	29.2	11.1	40.3	10.0	100.0
	300~399만원	(393)	12.1	42.5	54.6	25.0	14.2	39.2	6.2	100.0
	400만원 이상	(481)	15.9	42.4	58.3	19.9	10.9	30.8	10.9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13.9	42.1	56.0	22.7	10.0	32.7	11.3	100.0
	충청권	(120)	10.7	47.8	58.5	17.4	9.7	27.1	14.4	100.0
	호남권	(115)	28.8	43.8	72.6	17.4	6.6	24.0	3.4	100.0
	영남권	(309)	9.7	33.1	42.8	30.0	20.5	50.5	6.7	100.0
	강원	(35)	22.9	34.7	57.6	26.8	6.9	33.7	8.7	100.0
	제주	(13)	31.8	31.2	63.0	7.0	9.4	16.4	20.7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11.3	41.0	52.3	24.2	14.1	38.3	9.4	100.0
	중 · 소도시	(507)	17.6	42.5	60.1	22.3	9.0	31.3	8.7	100.0
	읍/면	(134)	15.0	28.2	43.1	24.7	17.3	42.0	14.8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23.3	39.7	63.0	17.7	13.1	30.8	6.2	100.0
	중도	(580)	11.3	41.2	52.5	24.1	11.4	35.5	12.0	100.0
	보수적	(286)	10.3	38.8	49.1	29.0	13.1	42.1	8.8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0.0	0.0	0.0	100.0	100.0
종교별	불교	(257)	9.3	37.3	46.6	27.3	16.4	43.7	9.7	100.0
	기독교	(243)	14.8	39.3	54.1	26.0	11.4	37.4	8.4	100.0
	천주교	(73)	22.8	36.2	59.0	22.9	4.7	27.6	13.4	100.0
	기타	(3)	0.0	63.3	63.3	0.0	0.0	0.0	36.7	100.0
	종교없음	(603)	15.3	43.0	58.3	21.0	11.7	32.6	9.1	100.0
	모름/무응답	(21)	15.8	17.2	33.0	23.4	17.0	40.4	26.6	100.0

표 45-5. 주요 사건의 사회적 영향 평가 – ㉲ 6월 항쟁(1987년)

문) ○○님은 다음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긍정적이라고 혹은 부정적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긍정적	② 대체로 긍정적	①+②	③ 대체로 부정적	④ 매우 부정적	③+④	잘 모름	계
			%	%	%	%	%	%	%	%
전 체		(1,200)	10.1	37.6	47.7	22.9	9.1	31.9	20.3	100.0
성별	남자	(612)	12.3	36.2	48.5	24.4	8.6	33.0	18.5	100.0
	여자	(588)	7.9	39.0	46.9	21.3	9.6	30.8	22.2	100.0
연령별	19~29세	(248)	10.2	36.3	46.5	14.7	9.5	24.2	29.3	100.0
	30대	(269)	9.8	35.9	45.7	23.0	7.8	30.8	23.6	100.0
	40대	(304)	12.9	37.4	50.2	25.3	10.3	35.6	14.2	100.0
	50대 이상	(378)	8.2	39.8	48.0	26.2	8.7	34.9	17.1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7.8	24.3	32.1	36.4	6.0	42.4	25.5	100.0
	고졸	(518)	4.9	43.2	48.1	24.6	11.7	36.3	15.7	100.0
	대재 이상	(591)	15.0	34.8	49.8	19.2	7.3	26.5	23.7	100.0
	모름/무응답	(2)	39.9	0.0	39.9	60.1	0.0	60.1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25.7	22.1	47.9	18.8	13.6	32.5	19.7	100.0
	자영업	(203)	10.2	42.1	52.3	23.8	7.7	31.6	16.1	100.0
	블루 칼라	(307)	5.4	39.0	44.4	25.3	9.7	34.9	20.7	100.0
	화이트칼라	(314)	16.6	31.0	47.6	20.6	8.2	28.9	23.5	100.0
	전업 주부	(230)	5.4	41.6	47.0	28.3	11.5	39.8	13.2	100.0
	무직/기타	(130)	12.3	37.4	49.7	12.1	7.0	19.1	31.2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11.2	32.2	43.4	20.4	7.2	27.6	29.0	100.0
	200~299만원	(227)	10.3	34.8	45.1	27.5	7.3	34.9	20.1	100.0
	300~399만원	(393)	6.9	37.9	44.8	25.3	12.8	38.1	17.1	100.0
	400만원 이상	(481)	12.5	39.8	52.3	19.2	7.2	26.4	21.3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9.3	39.9	49.3	20.6	9.2	29.8	21.0	100.0
	충청권	(120)	7.7	42.9	50.6	20.5	6.8	27.3	22.1	100.0
	호남권	(115)	15.0	38.7	53.6	13.2	4.7	17.9	28.5	100.0
	영남권	(309)	7.9	31.5	39.4	33.4	12.1	45.5	15.2	100.0
	강원	(35)	29.6	32.5	62.1	16.1	4.4	20.5	17.4	100.0
	제주	(13)	28.5	27.6	56.2	7.0	3.6	10.5	33.3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8.2	39.5	47.7	20.0	9.8	29.8	22.5	100.0
	중 · 소도시	(507)	10.8	38.1	48.9	26.2	7.4	33.6	17.5	100.0
	읍/면	(134)	15.8	27.6	43.4	22.1	12.1	34.3	22.3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17.5	39.1	56.6	16.9	9.9	26.7	16.7	100.0
	중도	(580)	6.7	38.5	45.2	22.3	9.2	31.5	23.3	100.0
	보수적	(286)	8.6	34.2	42.8	31.1	7.9	39.0	18.2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0.0	0.0	0.0	100.0	100.0
종교별	불교	(257)	8.0	37.4	45.4	28.9	9.0	37.9	16.7	100.0
	기독교	(243)	10.1	34.6	44.7	25.2	8.4	33.6	21.7	100.0
	천주교	(73)	22.8	41.4	64.2	12.5	6.8	19.3	16.5	100.0
	기타	(3)	0.0	34.6	34.6	28.7	0.0	28.7	36.7	100.0
	종교없음	(603)	9.9	38.6	48.5	21.1	9.5	30.5	21.0	100.0
	모름/무응답	(21)	2.3	30.8	33.1	8.6	15.8	24.4	42.5	100.0

표 45-6. 주요 사건의 사회적 영향 평가 – ㉥ 남북 정상회담

문) ○○님은 다음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긍정적이라고 혹은 부정적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긍정적	② 대체로 긍정적	①+②	③ 대체로 부정적	④ 매우 부정적	③+④	잘 모름	계
			%	%	%	%	%	%	%	%
전 체		(1,200)	14.6	61.2	75.8	13.6	3.8	17.4	6.8	100.0
성별	남자	(612)	17.4	59.1	76.5	13.4	3.7	17.1	6.4	100.0
	여자	(588)	11.7	63.3	75.0	13.7	4.0	17.7	7.3	100.0
연령별	19~29세	(248)	13.8	58.2	72.0	13.6	2.1	15.6	12.3	100.0
	30대	(269)	13.9	60.3	74.2	17.4	2.5	19.9	5.8	100.0
	40대	(304)	13.6	61.6	75.1	13.0	6.3	19.3	5.6	100.0
	50대 이상	(378)	16.3	63.5	79.8	11.3	4.0	15.2	4.9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10.0	51.2	61.1	19.3	7.9	27.2	11.7	100.0
	고졸	(518)	11.6	65.4	77.0	13.5	4.5	18.0	5.0	100.0
	대재 이상	(591)	17.8	59.0	76.8	12.8	2.6	15.5	7.7	100.0
	모름/무응답	(2)	39.9	60.1	100.0	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23.8	43.1	66.9	13.7	6.2	19.9	13.2	100.0
	자영업	(203)	16.4	61.6	78.0	10.9	6.7	17.6	4.4	100.0
	블루 칼라	(307)	10.9	57.2	68.2	20.5	4.8	25.2	6.6	100.0
	화이트칼라	(314)	18.8	62.5	81.3	9.7	1.5	11.2	7.6	100.0
	전업 주부	(230)	11.7	66.3	78.1	14.4	4.7	19.1	2.8	100.0
	무직/기타	(130)	14.0	59.6	73.6	9.7	1.0	10.7	15.7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11.7	51.6	63.3	15.7	5.5	21.2	15.6	100.0
	200~299만원	(227)	14.0	56.7	70.7	17.2	3.9	21.1	8.2	100.0
	300~399만원	(393)	12.4	63.8	76.2	14.8	4.8	19.6	4.2	100.0
	400만원 이상	(481)	17.2	63.1	80.4	10.4	2.6	13.0	6.6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14.0	60.2	74.2	13.5	3.7	17.2	8.6	100.0
	충청권	(120)	16.2	57.6	73.7	14.2	4.0	18.2	8.0	100.0
	호남권	(115)	23.3	64.3	87.6	6.2	1.3	7.6	4.9	100.0
	영남권	(309)	10.4	65.7	76.0	16.6	4.3	20.9	3.0	100.0
	강원	(35)	22.0	50.7	72.7	11.8	8.9	20.7	6.6	100.0
	제주	(13)	28.7	36.3	65.1	10.5	3.6	14.0	20.9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14.8	64.4	79.2	12.5	3.8	16.2	4.5	100.0
	중 · 소도시	(507)	13.1	60.7	73.8	15.1	3.3	18.4	7.8	100.0
	읍/면	(134)	19.4	49.5	68.8	12.3	6.3	18.6	12.6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19.7	62.9	82.6	10.1	2.7	12.8	4.6	100.0
	중도	(580)	11.8	60.8	72.5	15.1	4.0	19.1	8.4	100.0
	보수적	(286)	14.3	60.4	74.6	14.5	4.9	19.4	6.0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0.0	0.0	0.0	100.0	100.0
종교별	불교	(257)	11.6	67.2	78.9	10.8	3.8	14.5	6.6	100.0
	기독교	(243)	16.0	57.9	73.9	16.4	4.4	20.8	5.3	100.0
	천주교	(73)	20.7	53.6	74.2	17.5	1.7	19.2	6.5	100.0
	기타	(3)	34.6	28.7	63.3	0.0	0.0	0.0	36.7	100.0
	종교없음	(603)	14.7	62.2	76.9	12.9	3.8	16.7	6.4	100.0
	모름/무응답	(21)	6.0	26.9	33.0	23.3	6.0	29.3	37.7	100.0

표 46-1.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 – ㉮ 환경파괴

문)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심각하다	② 약간 심각하다	①+②	③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④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43.7	46.8	90.5	8.7	0.8	9.5	100.0
성별	남자	(612)	44.3	45.2	89.5	9.9	0.6	10.5	100.0
	여자	(588)	43.0	48.5	91.5	7.4	1.1	8.5	100.0
연령별	19~29세	(248)	41.6	49.9	91.5	7.9	0.7	8.5	100.0
	30대	(269)	42.5	45.5	88.0	10.6	1.4	12.0	100.0
	40대	(304)	47.7	43.7	91.4	7.4	1.2	8.6	100.0
	50대 이상	(378)	42.6	48.3	90.9	8.8	0.3	9.1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48.2	39.2	87.4	12.6	0.0	12.6	100.0
	고졸	(518)	41.1	48.9	90.0	8.9	1.1	10.0	100.0
	대재 이상	(591)	45.2	46.2	91.4	7.9	0.7	8.6	100.0
	모름/무응답	(2)	39.9	60.1	10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66.7	33.3	100.0	0.0	0.0	0.0	100.0
	자영업	(203)	50.0	44.3	94.3	5.2	0.5	5.7	100.0
	블루 칼라	(307)	38.9	49.4	88.3	11.7	0.0	11.7	100.0
	화이트칼라	(314)	46.4	44.1	90.5	9.1	0.4	9.5	100.0
	전업 주부	(230)	38.0	51.0	88.9	8.9	2.2	11.1	100.0
	무직/기타	(130)	46.2	45.1	91.3	6.6	2.2	8.7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47.8	41.5	89.3	8.3	2.4	10.7	100.0
	200~299만원	(227)	42.3	46.6	88.9	10.6	0.5	11.1	100.0
	300~399만원	(393)	43.7	46.0	89.7	9.7	0.6	10.3	100.0
	400만원 이상	(481)	43.4	48.7	92.2	7.0	0.8	7.8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35.7	52.0	87.7	11.1	1.2	12.3	100.0
	충청권	(120)	32.6	56.6	89.2	9.4	1.4	10.8	100.0
	호남권	(115)	63.7	34.1	97.9	2.1	0.0	2.1	100.0
	영남권	(309)	52.8	40.6	93.4	6.2	0.4	6.6	100.0
	강원	(35)	63.0	27.6	90.7	9.3	0.0	9.3	100.0
	제주	(13)	70.1	26.4	96.5	3.5	0.0	3.5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39.3	53.2	92.5	6.8	0.7	7.5	100.0
	중 · 소도시	(507)	48.1	39.5	87.6	11.4	1.0	12.4	100.0
	읍/면	(134)	45.3	47.8	93.1	6.0	0.9	6.9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45.1	43.0	88.1	11.9	0.0	11.9	100.0
	중도	(580)	41.8	48.7	90.4	8.0	1.5	9.6	100.0
	보수적	(286)	45.6	47.7	93.3	6.3	0.4	6.7	100.0
	모름/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46.6	44.2	90.8	8.7	0.5	9.2	100.0
	기독교	(243)	47.5	41.9	89.5	9.5	1.0	10.5	100.0
	천주교	(73)	50.4	41.8	92.2	6.7	1.1	7.8	100.0
	기타	(3)	52.9	47.1	100.0	0.0	0.0	0.0	100.0
	종교없음	(603)	40.1	50.5	90.6	8.7	0.7	9.4	100.0
	모름/무응답	(21)	40.4	48.9	89.3	4.6	6.0	10.7	100.0

표 46-2.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 – ㉯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

문)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심각하다	② 약간 심각하다	①+②	③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④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③+④	모름/무응답	계
			%	%	%	%	%	%	%	%
전 체		(1,200)	16.5	41.2	57.7	36.3	5.9	42.2	0.1	100.0
성별	남자	(612)	18.5	43.6	62.2	32.6	5.1	37.7	0.1	100.0
	여자	(588)	14.4	38.6	53.0	40.2	6.7	46.8	0.2	100.0
연령별	19~29세	(248)	14.9	41.7	56.7	37.7	5.3	43.0	0.4	100.0
	30대	(269)	17.1	41.8	58.9	36.9	4.2	41.1	0.0	100.0
	40대	(304)	20.4	40.6	60.9	31.8	7.3	39.1	0.0	100.0
	50대 이상	(378)	14.0	40.8	54.8	38.6	6.4	45.0	0.2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15.6	40.6	56.2	35.2	8.6	43.8	0.0	100.0
	고졸	(518)	13.4	42.1	55.5	38.5	5.9	44.4	0.1	100.0
	대재 이상	(591)	19.2	40.5	59.7	34.7	5.5	40.1	0.2	100.0
	모름/무응답	(2)	60.1	39.9	100.0	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44.3	34.1	78.3	21.7	0.0	21.7	0.0	100.0
	자영업	(203)	16.1	42.7	58.8	37.1	3.7	40.8	0.4	100.0
	블루 칼라	(307)	14.1	43.8	57.9	33.8	8.3	42.1	0.0	100.0
	화이트칼라	(314)	23.7	38.2	61.9	33.4	4.8	38.1	0.0	100.0
	전업 주부	(230)	10.5	38.6	49.1	44.4	6.5	50.9	0.0	100.0
	무직/기타	(130)	12.9	44.8	57.7	35.7	5.9	41.6	0.7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15.7	49.5	65.2	27.8	7.0	34.8	0.0	100.0
	200~299만원	(227)	14.2	46.1	60.3	33.4	6.3	39.7	0.0	100.0
	300~399만원	(393)	15.6	38.5	54.1	40.7	5.0	45.7	0.2	100.0
	400만원 이상	(481)	18.5	39.3	57.8	35.9	6.1	42.0	0.2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16.8	40.9	57.6	38.8	3.5	42.4	0.0	100.0
	충청권	(120)	13.0	58.6	71.7	25.3	1.7	27.0	1.4	100.0
	호남권	(115)	14.2	39.8	54.1	32.1	13.8	45.9	0.0	100.0
	영남권	(309)	18.5	35.3	53.8	37.2	9.0	46.2	0.0	100.0
	강원	(35)	18.1	45.7	63.8	31.6	4.7	36.2	0.0	100.0
	제주	(13)	6.6	31.9	38.5	50.5	11.0	61.5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18.0	38.5	56.4	38.0	5.6	43.6	0.0	100.0
	중 · 소도시	(507)	15.8	43.7	59.5	34.4	5.8	40.2	0.3	100.0
	읍/면	(134)	13.0	42.8	55.8	36.6	7.6	44.2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18.1	44.1	62.3	33.4	4.3	37.7	0.0	100.0
	중도	(580)	15.4	43.0	58.4	35.6	5.8	41.3	0.3	100.0
	보수적	(286)	17.0	33.8	50.8	41.3	8.0	49.2	0.0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18.4	41.3	59.7	34.6	5.8	40.3	0.0	100.0
	기독교	(243)	18.8	37.9	56.6	37.5	5.5	43.0	0.4	100.0
	천주교	(73)	14.0	37.9	51.9	39.0	9.1	48.1	0.0	100.0
	기타	(3)	0.0	53.1	53.1	18.2	28.7	46.9	0.0	100.0
	종교없음	(603)	15.4	43.1	58.6	35.9	5.4	41.3	0.1	100.0
	모름/무응답	(21)	9.6	30.8	40.4	48.6	11.0	59.6	0.0	100.0

표 46-3.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 – ㉰ 빈부격차

문)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심각하다	② 약간 심각하다	①+②	③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④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44.5	47.2	91.7	7.8	0.6	8.3	100.0
성별	남자	(612)	46.6	45.5	92.0	7.5	0.4	8.0	100.0
	여자	(588)	42.3	49.0	91.3	8.0	0.7	8.7	100.0
연령별	19~29세	(248)	39.0	51.0	90.1	8.9	1.0	9.9	100.0
	30대	(269)	45.7	46.0	91.7	7.9	0.5	8.3	100.0
	40대	(304)	46.8	43.5	90.3	9.0	0.7	9.7	100.0
	50대 이상	(378)	45.4	48.4	93.9	5.9	0.2	6.1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48.2	40.8	89.1	10.9	0.0	10.9	100.0
	고졸	(518)	43.8	46.7	90.5	8.8	0.7	9.5	100.0
	대재 이상	(591)	44.4	48.7	93.1	6.4	0.6	6.9	100.0
	모름/무응답	(2)	100.0	0.0	10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36.8	41.9	78.7	21.3	0.0	21.3	100.0
	자영업	(203)	47.3	45.7	93.1	6.3	0.6	6.9	100.0
	블루 칼라	(307)	46.3	43.4	89.7	10.3	0.0	10.3	100.0
	화이트칼라	(314)	46.1	46.4	92.5	6.4	1.0	7.5	100.0
	전업 주부	(230)	42.8	50.8	93.5	6.1	0.4	6.5	100.0
	무직/기타	(130)	36.2	54.2	90.4	8.7	1.0	9.6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46.2	42.4	88.6	11.4	0.0	11.4	100.0
	200~299만원	(227)	47.5	40.9	88.4	10.6	1.0	11.6	100.0
	300~399만원	(393)	43.9	47.9	91.8	7.9	0.3	8.2	100.0
	400만원 이상	(481)	43.2	50.5	93.7	5.6	0.7	6.3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43.1	47.8	90.9	8.3	0.8	9.1	100.0
	충청권	(120)	28.8	59.3	88.2	11.2	0.6	11.8	100.0
	호남권	(115)	49.0	46.2	95.1	4.9	0.0	4.9	100.0
	영남권	(309)	53.0	40.7	93.7	6.0	0.3	6.3	100.0
	강원	(35)	34.5	58.3	92.8	7.2	0.0	7.2	100.0
	제주	(13)	41.4	41.6	83.1	16.9	0.0	16.9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47.9	46.7	94.6	5.3	0.1	5.4	100.0
	중 · 소도시	(507)	42.4	47.2	89.5	10.0	0.4	10.5	100.0
	읍/면	(134)	38.6	49.1	87.7	9.5	2.8	12.3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49.3	44.5	93.8	6.0	0.2	6.2	100.0
	중도	(580)	38.9	49.6	88.5	10.9	0.7	11.5	100.0
	보수적	(286)	50.4	45.2	95.7	3.6	0.8	4.3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47.0	43.5	90.5	9.5	0.0	9.5	100.0
	기독교	(243)	42.2	51.4	93.6	6.0	0.4	6.4	100.0
	천주교	(73)	42.4	51.4	93.8	5.1	1.1	6.2	100.0
	기타	(3)	34.6	65.4	100.0	0.0	0.0	0.0	100.0
	종교없음	(603)	45.4	46.3	91.7	7.9	0.4	8.3	100.0
	모름/무응답	(21)	22.8	51.7	74.5	13.3	12.2	25.5	100.0

표 46-4.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 – ㉣ 실업문제

문)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심각하다	② 약간 심각하다	①+②	③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④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50.3	44.2	94.5	5.0	0.5	5.5	100.0
성별	남자	(612)	51.9	43.0	94.9	5.0	0.1	5.1	100.0
	여자	(588)	48.7	45.5	94.2	5.0	0.9	5.8	100.0
연령별	19~29세	(248)	46.0	47.7	93.7	5.5	0.8	6.3	100.0
	30대	(269)	53.7	40.9	94.6	4.9	0.5	5.4	100.0
	40대	(304)	52.0	42.2	94.2	5.5	0.3	5.8	100.0
	50대 이상	(378)	49.4	45.8	95.2	4.3	0.5	4.8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54.5	39.8	94.3	4.8	1.0	5.7	100.0
	고졸	(518)	48.3	45.8	94.0	5.5	0.4	6.0	100.0
	대재 이상	(591)	51.5	43.4	95.0	4.5	0.5	5.0	100.0
	모름/무응답	(2)	39.9	60.1	10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58.6	41.4	100.0	0.0	0.0	0.0	100.0
	자영업	(203)	52.5	45.6	98.1	1.9	0.0	1.9	100.0
	블루 칼라	(307)	46.0	47.8	93.9	6.1	0.0	6.1	100.0
	화이트칼라	(314)	54.7	38.9	93.6	5.3	1.0	6.4	100.0
	전업 주부	(230)	49.1	45.8	94.9	4.4	0.8	5.1	100.0
	무직/기타	(130)	47.4	44.1	91.5	7.9	0.6	8.5	100.0
	모름/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49.9	44.3	94.2	4.9	0.9	5.8	100.0
	200~299만원	(227)	53.1	39.7	92.8	6.8	0.4	7.2	100.0
	300~399만원	(393)	51.9	41.6	93.5	6.2	0.3	6.5	100.0
	400만원 이상	(481)	47.8	48.5	96.3	3.1	0.6	3.7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46.2	47.6	93.9	5.7	0.4	6.1	100.0
	충청권	(120)	41.4	47.6	89.0	9.6	1.3	11.0	100.0
	호남권	(115)	47.0	49.4	96.4	3.6	0.0	3.6	100.0
	영남권	(309)	63.7	34.0	97.7	2.0	0.3	2.3	100.0
	강원	(35)	47.6	45.4	93.0	4.5	2.5	7.0	100.0
	제주	(13)	43.3	45.6	88.8	11.2	0.0	11.2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49.0	47.1	96.2	3.6	0.3	3.8	100.0
	중 · 소도시	(507)	52.5	40.6	93.1	6.6	0.4	6.9	100.0
	읍/면	(134)	47.7	45.6	93.3	4.8	1.9	6.7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50.4	44.0	94.4	5.4	0.2	5.6	100.0
	중도	(580)	46.6	47.1	93.7	5.7	0.6	6.3	100.0
	보수적	(286)	57.7	38.7	96.4	3.0	0.6	3.6	100.0
	모름/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52.8	41.6	94.4	5.3	0.3	5.6	100.0
	기독교	(243)	47.8	47.5	95.3	4.3	0.4	4.7	100.0
	천주교	(73)	51.8	42.4	94.2	4.7	1.1	5.8	100.0
	기타	(3)	34.6	65.4	100.0	0.0	0.0	0.0	100.0
	종교없음	(603)	50.9	43.8	94.7	5.0	0.3	5.3	100.0
	모름/무응답	(21)	29.9	53.2	83.1	10.8	6.0	16.9	100.0

표 46-5.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 – ㉲ 지역 간 불균형

문)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심각하다	② 약간 심각하다	①+②	③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④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③+④	모름/무응답	계
			%	%	%	%	%	%	%	%
전 체		(1,200)	25.9	48.6	74.5	23.6	1.9	25.4	0.1	100.0
성별	남자	(612)	27.0	49.8	76.8	21.1	2.0	23.1	0.1	100.0
	여자	(588)	24.8	47.3	72.1	26.2	1.7	27.9	0.0	100.0
연령별	19~29세	(248)	25.2	49.3	74.4	23.5	2.0	25.6	0.0	100.0
	30대	(269)	29.3	42.9	72.2	26.2	1.7	27.8	0.0	100.0
	40대	(304)	25.7	49.0	74.7	23.4	1.9	25.3	0.0	100.0
	50대 이상	(378)	24.3	51.9	76.1	21.8	1.9	23.7	0.2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28.3	47.6	75.9	20.2	3.0	23.3	0.8	100.0
	고졸	(518)	22.0	47.9	69.8	28.1	2.1	30.2	0.0	100.0
	대재 이상	(591)	29.2	49.1	78.3	20.2	1.5	21.7	0.0	100.0
	모름/무응답	(2)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41.9	50.6	92.6	7.4	0.0	7.4	0.0	100.0
	자영업	(203)	27.5	52.4	79.8	19.8	0.0	19.8	0.4	100.0
	블루 칼라	(307)	23.1	50.2	73.2	24.2	2.6	26.8	0.0	100.0
	화이트칼라	(314)	29.4	46.3	75.7	21.8	2.5	24.3	0.0	100.0
	전업 주부	(230)	20.4	45.4	65.9	32.4	1.7	34.1	0.0	100.0
	무직/기타	(130)	30.1	49.9	80.0	18.0	2.0	20.0	0.0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28.9	49.9	78.8	19.6	1.6	21.2	0.0	100.0
	200~299만원	(227)	30.5	50.1	80.6	17.6	1.8	19.4	0.0	100.0
	300~399만원	(393)	23.5	45.3	68.8	28.8	2.2	31.0	0.2	100.0
	400만원 이상	(481)	25.2	50.2	75.4	22.9	1.7	24.6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23.0	47.9	70.8	27.4	1.8	29.2	0.0	100.0
	충청권	(120)	17.7	60.9	78.5	19.5	1.4	20.9	0.6	100.0
	호남권	(115)	38.7	41.8	80.5	18.2	1.2	19.5	0.0	100.0
	영남권	(309)	27.7	49.1	76.8	21.3	1.9	23.2	0.0	100.0
	강원	(35)	38.2	43.4	81.6	11.5	6.9	18.4	0.0	100.0
	제주	(13)	53.5	29.5	83.1	16.9	0.0	16.9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23.0	46.5	69.4	28.8	1.8	30.6	0.0	100.0
	중 · 소도시	(507)	27.9	51.0	79.0	19.0	1.9	20.9	0.1	100.0
	읍/면	(134)	30.8	48.1	78.9	19.3	1.9	21.1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26.2	43.4	69.6	28.7	1.5	30.2	0.2	100.0
	중도	(580)	24.5	51.2	75.7	22.3	2.0	24.3	0.0	100.0
	보수적	(286)	28.6	49.1	77.7	20.2	2.1	22.3	0.0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29.3	43.9	73.2	25.6	1.1	26.8	0.0	100.0
	기독교	(243)	26.0	51.2	77.2	20.1	2.7	22.8	0.0	100.0
	천주교	(73)	27.3	47.4	74.7	19.9	4.3	24.3	1.0	100.0
	기타	(3)	34.6	65.4	100.0	0.0	0.0	0.0	0.0	100.0
	종교없음	(603)	24.7	49.3	74.0	24.6	1.4	26.0	0.0	100.0
	모름/무응답	(21)	14.4	55.1	69.6	24.4	6.0	30.4	0.0	100.0

표 46-6.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 – ㉥ 종교갈등

문)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심각하다	② 약간 심각하다	①+②	③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④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13.2	33.5	46.7	47.5	5.9	53.3	100.0
성별	남자	(612)	13.7	34.5	48.2	46.9	4.9	51.8	100.0
	여자	(588)	12.7	32.4	45.1	48.1	6.8	54.9	100.0
연령별	19~29세	(248)	14.2	29.9	44.1	48.5	7.4	55.9	100.0
	30대	(269)	12.8	38.0	50.8	43.9	5.3	49.2	100.0
	40대	(304)	15.2	32.2	47.4	47.6	5.0	52.6	100.0
	50대 이상	(378)	11.2	33.6	44.9	49.2	5.9	55.1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13.2	44.5	57.7	37.3	5.0	42.3	100.0
	고졸	(518)	10.8	32.6	43.3	49.7	6.9	56.7	100.0
	대재 이상	(591)	15.3	32.4	47.8	47.2	5.1	52.2	100.0
	모름/무응답	(2)	0.0	100.0	10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30.0	42.9	72.9	27.1	0.0	27.1	100.0
	자영업	(203)	15.0	36.1	51.0	46.3	2.7	49.0	100.0
	블루 칼라	(307)	12.0	36.1	48.2	44.7	7.1	51.8	100.0
	화이트칼라	(314)	15.1	33.8	48.9	45.3	5.8	51.1	100.0
	전업 주부	(230)	9.7	28.3	38.0	55.6	6.4	62.0	100.0
	무직/기타	(130)	12.7	30.9	43.5	48.8	7.7	56.5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11.2	45.4	56.6	38.2	5.2	43.4	100.0
	200~299만원	(227)	13.3	36.2	49.5	44.5	6.0	50.5	100.0
	300~399만원	(393)	12.1	29.3	41.4	52.7	5.9	58.6	100.0
	400만원 이상	(481)	14.4	33.2	47.6	46.5	5.9	52.4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14.9	30.9	45.7	48.9	5.3	54.3	100.0
	충청권	(120)	5.6	38.6	44.2	51.6	4.2	55.8	100.0
	호남권	(115)	16.8	35.9	52.7	43.2	4.1	47.3	100.0
	영남권	(309)	11.4	33.5	44.9	47.0	8.1	55.1	100.0
	강원	(35)	13.8	52.1	65.9	27.1	7.0	34.1	100.0
	제주	(13)	14.1	37.4	51.5	44.8	3.7	48.5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15.4	30.2	45.7	48.2	6.2	54.3	100.0
	중 · 소도시	(507)	10.0	35.4	45.4	49.6	5.0	54.6	100.0
	읍/면	(134)	15.8	40.0	55.8	36.3	7.8	44.2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12.9	28.8	41.7	52.7	5.6	58.3	100.0
	중도	(580)	12.7	37.6	50.3	44.8	5.0	49.7	100.0
	보수적	(286)	14.2	30.7	44.9	47.1	8.0	55.1	100.0
	모름/무응답	(1)	100.0	0.0	100.0	0.0	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15.3	33.6	49.0	44.7	6.3	51.0	100.0
	기독교	(243)	14.8	34.1	49.0	46.0	5.0	51.0	100.0
	천주교	(73)	9.9	24.1	33.9	59.9	6.1	66.1	100.0
	기타	(3)	34.6	65.4	100.0	0.0	0.0	0.0	100.0
	종교없음	(603)	12.1	34.0	46.1	48.0	5.8	53.9	100.0
	모름/무응답	(21)	6.2	39.4	45.6	44.7	9.6	54.4	100.0

표 46-7.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 – ㉦ 이념갈등

문)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심각하다	② 약간 심각하다	①+②	③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④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20.4	45.1	65.5	32.0	2.4	34.5	100.0
성별	남자	(612)	22.2	46.1	68.4	29.2	2.5	31.6	100.0
	여자	(588)	18.6	44.0	62.6	35.0	2.4	37.4	100.0
연령별	19~29세	(248)	20.8	42.3	63.1	32.1	4.8	36.9	100.0
	30대	(269)	20.0	45.8	65.9	32.9	1.2	34.1	100.0
	40대	(304)	21.2	47.0	68.2	29.5	2.3	31.8	100.0
	50대 이상	(378)	19.9	44.9	64.8	33.3	1.9	35.2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18.7	50.6	69.2	28.3	2.5	30.8	100.0
	고졸	(518)	19.6	46.2	65.8	32.0	2.3	34.2	100.0
	대재 이상	(591)	21.3	43.4	64.7	32.7	2.6	35.3	100.0
	모름/무응답	(2)	60.1	39.9	10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33.2	37.7	70.9	29.1	0.0	29.1	100.0
	자영업	(203)	20.1	49.1	69.2	29.1	1.7	30.8	100.0
	블루 칼라	(307)	20.5	43.9	64.4	33.3	2.4	35.6	100.0
	화이트칼라	(314)	22.0	44.5	66.6	30.5	2.9	33.4	100.0
	전업 주부	(230)	19.5	42.9	62.4	36.7	0.9	37.6	100.0
	무직/기타	(130)	17.5	48.0	65.5	28.7	5.8	34.5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19.9	44.3	64.2	32.9	2.8	35.8	100.0
	200~299만원	(227)	20.7	52.5	73.3	25.4	1.3	26.7	100.0
	300~399만원	(393)	21.7	43.4	65.2	32.3	2.5	34.8	100.0
	400만원 이상	(481)	19.3	43.1	62.5	34.7	2.9	37.5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25.1	41.9	67.1	31.8	1.2	32.9	100.0
	충청권	(120)	13.5	47.5	61.0	36.4	2.7	39.0	100.0
	호남권	(115)	15.8	43.1	58.9	36.6	4.5	41.1	100.0
	영남권	(309)	15.1	50.5	65.5	30.2	4.3	34.5	100.0
	강원	(35)	20.5	54.5	75.0	25.0	0.0	25.0	100.0
	제주	(13)	33.8	37.5	71.3	25.0	3.7	28.7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18.9	43.7	62.7	35.4	2.0	37.3	100.0
	중 · 소도시	(507)	22.8	45.1	67.9	29.5	2.6	32.1	100.0
	읍/면	(134)	18.0	50.8	68.9	27.4	3.8	31.1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21.0	41.1	62.1	35.2	2.6	37.9	100.0
	중도	(580)	20.7	44.1	64.8	32.7	2.5	35.2	100.0
	보수적	(286)	19.3	51.6	70.9	27.0	2.2	29.1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16.2	50.0	66.2	30.9	2.9	33.8	100.0
	기독교	(243)	25.2	42.5	67.7	30.5	1.7	32.3	100.0
	천주교	(73)	21.2	41.3	62.5	36.6	0.9	37.5	100.0
	기타	(3)	34.6	65.4	100.0	0.0	0.0	0.0	100.0
	종교없음	(603)	20.7	45.0	65.7	32.0	2.3	34.3	100.0
	모름/무응답	(21)	4.9	29.0	33.9	51.6	14.5	66.1	100.0

표 46-8.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 – ㉮ 부정부패

문)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심각하다	② 약간 심각하다	①+②	③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④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③+④	모름/무응답	계
			%	%	%	%	%	%	%	%
전 체		(1,200)	48.7	41.4	90.2	8.8	0.9	9.7	0.1	100.0
성별	남자	(612)	47.9	42.3	90.2	8.6	1.0	9.6	0.2	100.0
	여자	(588)	49.6	40.5	90.1	9.1	0.9	9.9	0.0	100.0
연령별	19~29세	(248)	42.8	49.1	91.9	6.3	1.3	7.6	0.5	100.0
	30대	(269)	49.5	41.8	91.4	7.7	0.9	8.6	0.0	100.0
	40대	(304)	51.5	39.1	90.6	8.7	0.8	9.4	0.0	100.0
	50대 이상	(378)	49.9	37.9	87.8	11.4	0.8	12.2	0.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54.2	34.3	88.4	11.6	0.0	11.6	0.0	100.0
	고졸	(518)	49.5	39.7	89.2	8.9	1.6	10.5	0.2	100.0
	대재 이상	(591)	47.2	43.9	91.2	8.4	0.4	8.8	0.0	100.0
	모름/무응답	(2)	39.9	60.1	100.0	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39.7	46.6	86.3	13.7	0.0	13.7	0.0	100.0
	자영업	(203)	54.2	39.7	93.9	5.5	0.6	6.1	0.0	100.0
	블루 칼라	(307)	49.0	40.6	89.6	8.6	1.4	10.0	0.4	100.0
	화이트칼라	(314)	46.5	43.5	90.0	9.2	0.8	10.0	0.0	100.0
	전업 주부	(230)	48.3	39.2	87.5	11.8	0.8	12.5	0.0	100.0
	무직/기타	(130)	47.1	44.8	91.8	7.3	0.9	8.2	0.0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50.0	37.9	87.9	10.9	1.1	12.1	0.0	100.0
	200~299만원	(227)	51.4	36.5	87.9	10.2	1.9	12.1	0.0	100.0
	300~399만원	(393)	50.0	42.3	92.4	7.1	0.6	7.6	0.0	100.0
	400만원 이상	(481)	46.1	43.8	89.9	9.2	0.7	9.9	0.3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49.3	41.5	90.8	7.8	1.2	9.0	0.2	100.0
	충청권	(120)	36.2	51.1	87.3	12.1	0.6	12.7	0.0	100.0
	호남권	(115)	59.2	35.9	95.2	4.8	0.0	4.8	0.0	100.0
	영남권	(309)	46.7	40.9	87.6	11.8	0.6	12.4	0.0	100.0
	강원	(35)	56.6	36.3	92.9	4.6	2.5	7.1	0.0	100.0
	제주	(13)	72.1	23.9	96.1	3.9	0.0	3.9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49.5	42.7	92.2	7.5	0.3	7.8	0.0	100.0
	중 · 소도시	(507)	48.8	39.6	88.4	10.3	1.0	11.4	0.2	100.0
	읍/면	(134)	45.0	43.1	88.2	9.0	2.8	11.8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51.2	38.9	90.1	9.9	0.0	9.9	0.0	100.0
	중도	(580)	48.2	41.3	89.5	8.9	1.4	10.3	0.2	100.0
	보수적	(286)	47.1	44.4	91.5	7.4	1.1	8.5	0.0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44.9	42.0	86.9	12.7	0.4	13.1	0.0	100.0
	기독교	(243)	54.8	36.5	91.3	7.9	0.8	8.7	0.0	100.0
	천주교	(73)	52.4	40.6	93.0	5.8	1.2	7.0	0.0	100.0
	기타	(3)	34.6	65.4	100.0	0.0	0.0	0.0	0.0	100.0
	종교없음	(603)	47.9	43.7	91.6	7.6	0.6	8.2	0.2	100.0
	모름/무응답	(21)	38.7	26.1	64.7	19.4	15.8	35.3	0.0	100.0

표 47. 한국의 경제 상황 만족도

문) ○○님은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혹은 불만족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만족	② 다소 만족	①+②	③ 다소 불만족	④ 매우 불만족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0.8	28.4	29.1	56.5	14.4	70.9	100.0
성별	남자	(612)	0.8	28.0	28.9	56.1	15.0	71.1	100.0
	여자	(588)	0.7	28.7	29.4	56.8	13.8	70.6	100.0
연령별	19~29세	(248)	1.7	24.7	26.4	60.0	13.6	73.6	100.0
	30대	(269)	0.8	27.7	28.5	59.2	12.2	71.5	100.0
	40대	(304)	0.7	30.4	31.0	51.9	17.1	69.0	100.0
	50대 이상	(378)	0.2	29.7	29.9	55.8	14.3	70.1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0.0	28.6	28.6	51.4	20.0	71.4	100.0
	고졸	(518)	0.4	27.2	27.6	58.3	14.1	72.4	100.0
	대재 이상	(591)	1.1	29.4	30.5	55.6	13.9	69.5	100.0
	모름/무응답	(2)	39.9	0.0	39.9	60.1	0.0	60.1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0.0	33.0	33.0	43.7	23.3	67.0	100.0
	자영업	(203)	1.0	26.9	28.0	52.0	20.0	72.0	100.0
	블루 칼라	(307)	0.0	28.2	28.2	57.2	14.6	71.8	100.0
	화이트칼라	(314)	0.7	28.9	29.6	55.9	14.5	70.4	100.0
	전업 주부	(230)	0.3	28.9	29.2	59.8	11.0	70.8	100.0
	무직/기타	(130)	3.3	28.7	32.0	58.3	9.7	68.0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1.0	32.3	33.3	49.0	17.7	66.7	100.0
	200~299만원	(227)	1.1	29.6	30.7	55.5	13.8	69.3	100.0
	300~399만원	(393)	0.2	22.3	22.5	59.8	17.7	77.5	100.0
	400만원 이상	(481)	1.0	32.0	33.0	55.7	11.3	67.0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0.8	27.9	28.7	58.6	12.7	71.3	100.0
	충청권	(120)	2.0	42.9	44.9	40.6	14.5	55.1	100.0
	호남권	(115)	0.0	17.3	17.3	58.2	24.5	82.7	100.0
	영남권	(309)	0.3	26.5	26.9	59.3	13.9	73.1	100.0
	강원	(35)	2.2	40.8	43.0	43.5	13.5	57.0	100.0
	제주	(13)	0.0	26.9	26.9	53.8	19.3	73.1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0.5	23.2	23.8	62.9	13.3	76.2	100.0
	중 · 소도시	(507)	0.6	35.1	35.6	48.4	16.0	64.4	100.0
	읍/면	(134)	2.5	24.6	27.1	60.2	12.8	72.9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1.0	21.1	22.1	60.6	17.3	77.9	100.0
	중도	(580)	0.5	31.8	32.3	55.8	11.9	67.7	100.0
	보수적	(286)	1.0	30.0	31.0	52.8	16.1	69.0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100.0
종교별	불교	(257)	0.3	30.5	30.8	54.1	15.0	69.2	100.0
	기독교	(243)	1.7	26.5	28.2	59.5	12.3	71.8	100.0
	천주교	(73)	0.0	26.3	26.3	57.4	16.3	73.7	100.0
	기타	(3)	0.0	34.6	34.6	65.4	0.0	65.4	100.0
	종교없음	(603)	0.4	29.1	29.5	55.7	14.8	70.5	100.0
	모름/무응답	(21)	8.5	10.0	18.5	67.2	14.4	81.5	100.0

표 48.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정도

문) ○○님은 자신이 한국인인 것을 어느 정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혹은 자랑스럽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자랑스럽다	② 다소 자랑스럽다	①+②	③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	④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18.9	60.5	79.3	19.0	1.6	20.7	100.0
성별	남자	(612)	19.7	61.1	80.8	17.4	1.8	19.2	100.0
	여자	(588)	18.0	59.8	77.8	20.7	1.5	22.2	100.0
연령별	19~29세	(248)	12.5	60.8	73.2	25.1	1.7	26.8	100.0
	30대	(269)	17.6	62.1	79.7	18.7	1.5	20.3	100.0
	40대	(304)	16.0	58.4	74.5	23.0	2.5	25.5	100.0
	50대 이상	(378)	26.2	60.7	87.0	12.1	0.9	13.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29.0	55.4	84.4	14.2	1.4	15.6	100.0
	고졸	(518)	19.0	61.9	80.9	17.8	1.3	19.1	100.0
	대재 이상	(591)	17.1	60.0	77.2	20.9	2.0	22.8	100.0
	모름/무응답	(2)	39.9	60.1	10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25.8	62.8	88.6	11.4	0.0	11.4	100.0
	자영업	(203)	22.5	58.7	81.3	16.7	2.1	18.7	100.0
	블루 칼라	(307)	15.0	67.1	82.1	15.9	2.0	17.9	100.0
	화이트칼라	(314)	18.7	56.4	75.1	23.0	1.9	24.9	100.0
	전업 주부	(230)	19.9	61.4	81.3	17.7	1.0	18.7	100.0
	무직/기타	(130)	20.0	55.3	75.4	24.0	0.6	24.6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27.2	58.1	85.3	12.6	2.1	14.7	100.0
	200~299만원	(227)	23.0	61.5	84.5	14.7	0.8	15.5	100.0
	300~399만원	(393)	16.0	61.1	77.1	21.2	1.7	22.9	100.0
	400만원 이상	(481)	17.5	60.0	77.5	20.7	1.8	22.5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16.3	61.7	78.0	20.5	1.4	22.0	100.0
	충청권	(120)	19.2	64.5	83.7	15.6	0.7	16.3	100.0
	호남권	(115)	24.5	49.3	73.8	22.9	3.2	26.2	100.0
	영남권	(309)	19.7	64.3	84.1	14.7	1.3	15.9	100.0
	강원	(35)	26.8	40.7	67.5	32.5	0.0	32.5	100.0
	제주	(13)	40.1	27.9	68.0	14.3	17.7	32.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15.5	61.1	76.6	21.8	1.6	23.4	100.0
	중 · 소도시	(507)	19.2	63.5	82.8	15.9	1.3	17.2	100.0
	읍/면	(134)	31.3	46.4	77.7	19.4	2.9	22.3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18.2	55.8	74.0	24.4	1.6	26.0	100.0
	중도	(580)	14.3	65.6	79.9	18.3	1.8	20.1	100.0
	보수적	(286)	28.9	55.8	84.7	13.9	1.3	15.3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100.0
종교별	불교	(257)	19.5	59.6	79.0	18.7	2.3	21.0	100.0
	기독교	(243)	20.0	57.7	77.7	19.7	2.5	22.3	100.0
	천주교	(73)	20.6	58.2	78.9	19.4	1.7	21.1	100.0
	기타	(3)	63.3	18.2	81.5	18.5	0.0	18.5	100.0
	종교없음	(603)	17.5	62.8	80.3	18.7	1.1	19.7	100.0
	모름/무응답	(21)	25.5	50.5	76.0	24.0	0.0	24.0	100.0

표 49. 남한 사회의 민주성에 대한 인식

문) 그럼, 현재 남한이 어느 정도 민주적인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1	2	3	4	5	6	7	8	9	10	모름	계	평균
			%	%	%	%	%	%	%	%	%	%	%	%	%
전체		(1,200)	0.9	0.8	2.6	4.6	10.8	22.4	28.7	21.7	5.8	1.6	0.1	100.0	6.61
성별	남자	(612)	1.1	1.2	2.0	4.7	10.6	23.1	27.2	22.1	5.8	2.0	0.1	100.0	6.60
	여자	(588)	0.6	0.3	3.2	4.5	11.1	21.7	30.2	21.4	5.9	1.1	0.0	100.0	6.61
연령별	19~29세	(248)	0.7	1.1	3.9	5.7	10.5	22.6	30.1	19.6	4.7	1.2	0.0	100.0	6.47
	30대	(269)	0.4	0.0	2.2	5.4	8.2	23.0	29.7	25.8	3.9	1.1	0.3	100.0	6.70
	40대	(304)	1.8	1.3	3.3	3.7	14.5	22.3	25.5	20.2	5.6	1.9	0.0	100.0	6.45
	50대 이상	(378)	0.7	0.8	1.4	4.1	10.0	21.9	29.6	21.5	8.2	1.9	0.0	100.0	6.76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0.0	0.0	1.4	3.9	10.8	25.3	28.3	24.7	4.4	1.1	0.0	100.0	6.73
	고졸	(518)	0.9	0.7	1.9	4.5	13.6	21.5	28.2	20.7	6.1	1.9	0.0	100.0	6.60
	대재 이상	(591)	1.0	1.0	3.3	4.9	8.5	22.4	29.2	22.3	5.9	1.4	0.1	100.0	6.60
	모름/무응답	(2)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100.0	6.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6.5	0.0	13.4	6.8	0.0	18.8	23.4	19.4	5.2	6.5	0.0	100.0	6.18
	자영업	(203)	0.6	0.7	1.3	2.6	15.4	26.4	24.5	21.8	4.1	2.5	0.0	100.0	6.60
	블루 칼라	(307)	1.1	0.8	1.9	5.0	11.3	24.1	26.3	21.8	5.7	2.0	0.0	100.0	6.59
	화이트칼라	(314)	1.6	1.1	3.1	5.7	7.1	22.5	29.5	22.3	5.1	1.8	0.3	100.0	6.56
	전업 주부	(230)	0.0	0.4	2.0	3.7	12.4	17.4	32.8	22.4	8.4	0.5	0.0	100.0	6.77
	무직/기타	(130)	0.0	0.7	4.3	5.8	10.2	21.2	32.4	18.9	6.3	0.0	0.0	100.0	6.52
	모름/무응답	(1)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100.0	8.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0.0	0.8	1.0	3.5	13.9	27.6	19.5	20.0	10.8	2.8	0.0	100.0	6.76
	200~299만원	(227)	1.0	1.2	3.5	6.2	12.3	21.7	26.8	21.4	5.5	0.0	0.4	100.0	6.41
	300~399만원	(393)	0.3	0.2	2.6	4.1	10.4	21.2	30.4	24.1	5.1	1.6	0.0	100.0	6.72
	400만원 이상	(481)	1.5	1.0	2.4	4.5	9.9	22.7	30.0	20.3	5.6	2.0	0.0	100.0	6.58
지역별	수도권	(608)	1.0	0.9	2.7	5.1	12.6	24.8	29.8	19.0	3.2	0.8	0.0	100.0	6.41
	충청권	(120)	0.0	0.8	0.8	3.2	10.4	24.1	35.4	19.5	5.1	0.7	0.0	100.0	6.70
	호남권	(115)	0.7	1.5	4.2	7.0	9.7	19.3	20.2	20.2	15.9	1.3	0.0	100.0	6.67
	영남권	(309)	0.6	0.0	2.1	2.3	5.6	18.2	28.7	30.6	8.4	3.5	0.0	100.0	7.10
	강원	(35)	2.2	2.2	4.5	11.8	25.1	25.0	22.2	4.5	0.0	0.0	2.5	100.0	5.48
	제주	(13)	6.8	3.5	6.6	10.7	28.0	12.8	5.9	18.0	0.0	7.6	0.0	100.0	5.55
지역 크기	대도시	(560)	0.7	0.5	1.7	3.3	8.6	19.1	30.7	28.0	5.6	1.8	0.0	100.0	6.85
	중 · 소도시	(507)	0.9	0.7	3.5	5.5	13.6	26.8	26.6	15.1	5.7	1.7	0.0	100.0	6.38
	읍/면	(134)	1.6	2.0	2.8	6.8	9.8	19.7	27.8	21.0	7.4	0.4	0.7	100.0	6.46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0.5	0.9	4.6	6.3	12.9	23.0	28.6	19.2	3.2	0.5	0.3	100.0	6.33
	중도	(580)	1.3	0.8	1.9	3.3	10.7	25.0	28.5	21.1	5.8	1.5	0.0	100.0	6.62
	보수적	(286)	0.5	0.7	1.6	5.3	8.8	16.4	28.6	26.2	8.9	3.0	0.0	100.0	6.90
	모름/무응답	(1)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7.00
종교별	불교	(257)	1.0	0.6	1.6	3.2	10.3	20.0	30.5	23.4	7.0	2.4	0.0	100.0	6.79
	기독교	(243)	1.0	0.3	3.3	7.0	9.4	25.0	30.5	18.2	4.8	0.4	0.0	100.0	6.43
	천주교	(73)	0.0	1.3	6.1	6.6	12.3	25.3	24.6	15.8	5.8	2.0	0.0	100.0	6.32
	기타	(3)	0.0	34.6	0.0	0.0	36.7	0.0	0.0	0.0	28.7	0.0	0.0	100.0	5.11
	종교없음	(603)	0.9	0.9	2.4	4.0	10.9	22.2	28.0	23.2	5.6	1.7	0.1	100.0	6.64
	모름/무응답	(21)	0.0	0.0	0.0	3.6	23.1	18.5	21.1	25.1	8.6	0.0	0.0	100.0	6.67

표 50. 한반도 전쟁 가능성

문) ○○님은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많이 있다	② 약간 있다	①+②	③ 별로 없다	④ 전혀 없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6.0	51.6	57.6	37.1	5.3	42.4	100.0
성별	남자	(612)	6.9	49.2	56.1	38.1	5.8	43.9	100.0
	여자	(588)	5.1	54.2	59.3	35.9	4.8	40.7	100.0
연령별	19~29세	(248)	5.0	61.7	66.8	29.6	3.7	33.2	100.0
	30대	(269)	7.5	48.8	56.3	38.6	5.0	43.7	100.0
	40대	(304)	6.0	51.4	57.4	37.6	5.0	42.6	100.0
	50대 이상	(378)	5.6	47.2	52.8	40.5	6.7	47.2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12.0	39.9	51.9	40.4	7.7	48.1	100.0
	고졸	(518)	4.5	50.4	55.0	38.8	6.2	45.0	100.0
	대재 이상	(591)	6.5	54.4	60.8	35.2	4.0	39.2	100.0
	모름/무응답	(2)	0.0	60.1	60.1	0.0	39.9	39.9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17.3	14.9	32.2	61.6	6.2	67.8	100.0
	자영업	(203)	5.4	42.9	48.3	45.0	6.7	51.7	100.0
	블루 칼라	(307)	7.6	50.5	58.1	36.6	5.3	41.9	100.0
	화이트칼라	(314)	6.3	55.4	61.7	33.3	5.0	38.3	100.0
	전업 주부	(230)	4.5	51.6	56.2	39.3	4.5	43.8	100.0
	무직/기타	(130)	4.0	63.4	67.4	27.6	5.0	32.6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10.1	52.2	62.3	31.0	6.6	37.7	100.0
	200~299만원	(227)	8.8	47.5	56.3	37.7	6.0	43.7	100.0
	300~399만원	(393)	5.5	51.7	57.2	36.8	6.1	42.8	100.0
	400만원 이상	(481)	4.3	53.4	57.7	38.2	4.0	42.3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5.3	56.1	61.4	34.8	3.8	38.6	100.0
	충청권	(120)	8.9	50.4	59.2	33.7	7.0	40.8	100.0
	호남권	(115)	11.9	48.7	60.6	31.1	8.4	39.4	100.0
	영남권	(309)	2.7	45.4	48.2	45.5	6.3	51.8	100.0
	강원	(35)	13.7	50.0	63.7	34.1	2.2	36.3	100.0
	제주	(13)	18.2	32.0	50.2	36.2	13.6	49.8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5.8	49.5	55.3	41.0	3.7	44.7	100.0
	중 · 소도시	(507)	5.6	53.8	59.4	35.2	5.4	40.6	100.0
	읍/면	(134)	8.6	52.2	60.8	27.5	11.7	39.2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5.7	51.1	56.8	38.3	4.9	43.2	100.0
	중도	(580)	5.2	51.9	57.1	38.0	4.9	42.9	100.0
	보수적	(286)	8.0	51.5	59.5	33.9	6.6	40.5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4.5	51.0	55.5	37.7	6.7	44.5	100.0
	기독교	(243)	6.8	59.2	65.9	29.0	5.1	34.1	100.0
	천주교	(73)	7.2	51.8	59.0	38.4	2.7	41.0	100.0
	기타	(3)	18.5	28.7	47.1	34.6	18.2	52.9	100.0
	종교없음	(603)	6.4	48.9	55.3	39.8	4.9	44.7	100.0
	모름/무응답	(21)	0.0	52.4	52.4	40.2	7.4	47.6	100.0

표 51. 정치에 대한 관심 정도

문) ○○님은 개인적으로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혹은 없으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관심이 있다	② 다소 관심이 있다	①+②	③ 별로 관심이 없다	④ 전혀 관심이 없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4.9	35.4	40.3	49.6	10.1	59.7	100.0
성별	남자	(612)	6.8	39.1	45.9	45.3	8.7	54.1	100.0
	여자	(588)	2.9	31.5	34.4	54.1	11.5	65.6	100.0
연령별	19~29세	(248)	2.8	34.4	37.2	45.6	17.1	62.8	100.0
	30대	(269)	3.4	33.6	37.0	54.0	9.0	63.0	100.0
	40대	(304)	5.9	34.2	40.2	50.4	9.4	59.8	100.0
	50대 이상	(378)	6.5	38.3	44.7	48.5	6.7	55.3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7.7	34.1	41.8	49.8	8.4	58.2	100.0
	고졸	(518)	3.8	34.2	38.0	51.8	10.2	62.0	100.0
	대재 이상	(591)	5.5	36.4	41.9	47.9	10.3	58.1	100.0
	모름/무응답	(2)	0.0	100.0	10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20.1	38.7	58.9	36.2	4.9	41.1	100.0
	자영업	(203)	7.8	30.8	38.6	52.3	9.2	61.4	100.0
	블루 칼라	(307)	3.8	38.2	42.0	44.5	13.5	58.0	100.0
	화이트칼라	(314)	6.1	36.6	42.7	48.1	9.2	57.3	100.0
	전업 주부	(230)	1.2	32.2	33.5	59.4	7.1	66.5	100.0
	무직/기타	(130)	4.9	37.6	42.5	45.7	11.8	57.5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8.0	39.4	47.4	44.1	8.6	52.6	100.0
	200~299만원	(227)	4.3	37.7	42.0	51.0	7.1	58.0	100.0
	300~399만원	(393)	4.5	33.9	38.4	49.8	11.8	61.6	100.0
	400만원 이상	(481)	4.9	34.7	39.6	50.0	10.4	60.4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4.7	37.9	42.7	48.9	8.4	57.3	100.0
	충청권	(120)	6.2	40.1	46.3	41.2	12.6	53.7	100.0
	호남권	(115)	4.7	37.6	42.3	45.6	12.1	57.7	100.0
	영남권	(309)	3.5	28.0	31.5	56.8	11.7	68.5	100.0
	강원	(35)	9.1	36.7	45.7	45.3	9.0	54.3	100.0
	제주	(13)	23.5	25.4	49.0	36.8	14.2	51.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3.0	30.1	33.1	54.6	12.3	66.9	100.0
	중 · 소도시	(507)	5.6	40.8	46.4	45.6	8.0	53.6	100.0
	읍/면	(134)	10.1	36.9	47.0	44.3	8.7	53.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7.2	40.7	47.9	42.3	9.9	52.1	100.0
	중도	(580)	3.7	33.4	37.1	52.4	10.5	62.9	100.0
	보수적	(286)	4.6	33.4	38.1	52.3	9.6	61.9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100.0
종교별	불교	(257)	6.1	33.2	39.3	54.6	6.2	60.7	100.0
	기독교	(243)	5.5	36.4	42.0	49.7	8.4	58.0	100.0
	천주교	(73)	6.1	50.5	56.5	34.2	9.3	43.5	100.0
	기타	(3)	0.0	81.8	81.8	0.0	18.2	18.2	100.0
	종교없음	(603)	4.2	34.2	38.4	49.1	12.5	61.6	100.0
	모름/무응답	(21)	0.0	24.5	24.5	63.4	12.0	75.5	100.0

표 52. 정치적 성향

문) ○○님은 자신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진보적	② 약간 진보적	①+②	③ 중도	④ 약간 보수적	⑤ 매우 보수적	④+⑤	모름/무응답	계
			%	%	%	%	%	%	%	%	%
전 체		(1,200)	2.2	25.5	27.7	48.3	21.0	2.8	23.8	0.1	100.0
성별	남자	(612)	3.2	26.1	29.3	45.8	21.7	3.0	24.7	0.2	100.0
	여자	(588)	1.2	24.9	26.1	51.0	20.3	2.6	22.9	0.0	100.0
연령별	19~29세	(248)	2.9	30.7	33.6	55.8	9.2	1.0	10.2	0.5	100.0
	30대	(269)	2.6	29.3	31.9	54.6	13.2	0.3	13.5	0.0	100.0
	40대	(304)	2.8	27.9	30.7	45.2	21.5	2.7	24.2	0.0	100.0
	50대 이상	(378)	1.0	17.6	18.6	41.5	34.0	5.9	39.9	0.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3.3	8.2	11.6	46.3	35.2	6.9	42.1	0.0	100.0
	고졸	(518)	0.7	20.8	21.5	49.0	25.9	3.6	29.5	0.0	100.0
	대재 이상	(591)	3.3	32.2	35.5	48.2	14.7	1.3	16.0	0.2	100.0
	모름/무응답	(2)	0.0	39.9	39.9	0.0	0.0	60.1	60.1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7.3	16.5	23.8	50.7	19.3	6.2	25.5	0.0	100.0
	자영업	(203)	1.4	18.9	20.3	47.8	27.6	4.2	31.9	0.0	100.0
	블루 칼라	(307)	1.0	22.3	23.3	55.0	20.2	1.5	21.7	0.0	100.0
	화이트칼라	(314)	3.8	35.0	38.9	42.7	16.3	2.2	18.4	0.0	100.0
	전업 주부	(230)	0.9	21.8	22.7	46.4	26.9	4.0	30.9	0.0	100.0
	무직/기타	(130)	4.2	27.5	31.8	50.5	14.1	2.7	16.8	1.0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3.8	10.5	14.3	54.4	27.0	4.3	31.3	0.0	100.0
	200~299만원	(227)	1.7	24.4	26.1	43.4	27.7	2.9	30.5	0.0	100.0
	300~399만원	(393)	1.2	26.4	27.6	52.4	17.5	2.5	20.0	0.0	100.0
	400만원 이상	(481)	3.0	28.4	31.4	46.1	19.5	2.8	22.3	0.3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2.7	28.1	30.8	48.2	17.9	2.9	20.9	0.2	100.0
	충청권	(120)	2.8	20.9	23.8	58.0	14.4	3.8	18.2	0.0	100.0
	호남권	(115)	1.4	26.8	28.1	48.2	21.0	2.7	23.6	0.0	100.0
	영남권	(309)	1.3	21.7	23.0	47.3	27.3	2.4	29.7	0.0	100.0
	강원	(35)	2.2	24.9	27.1	31.9	41.0	0.0	41.0	0.0	100.0
	제주	(13)	3.7	28.5	32.2	37.2	24.9	5.7	30.6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2.5	26.2	28.7	46.7	21.9	2.6	24.4	0.2	100.0
	중 · 소도시	(507)	1.9	26.2	28.1	48.9	20.3	2.8	23.0	0.0	100.0
	읍/면	(134)	2.1	20.4	22.5	53.2	20.3	4.0	24.3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7.9	92.1	100.0	0.0	0.0	0.0	0.0	0.0	100.0
	중도	(580)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보수적	(286)	0.0	0.0	0.0	0.0	88.2	11.8	100.0	0.0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종교별	불교	(257)	1.4	22.1	23.6	40.9	31.0	4.6	35.5	0.0	100.0
	기독교	(243)	1.3	27.3	28.5	48.3	20.2	3.0	23.1	0.0	100.0
	천주교	(73)	1.1	31.6	32.6	40.6	26.1	0.7	26.7	0.0	100.0
	기타	(3)	0.0	36.7	36.7	0.0	63.3	0.0	63.3	0.0	100.0
	종교없음	(603)	3.1	26.1	29.2	51.8	16.4	2.4	18.8	0.2	100.0
	모름/무응답	(21)	0.0	8.2	8.2	73.7	18.1	0.0	18.1	0.0	100.0

표 53. 지지정당

문) ○○님은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사례수	새누리당	새정치 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	지지정당 없음	계
			%	%	%	%	%	%
전 체		(1,200)	26.5	20.1	2.2	0.7	50.4	100.0
성별	남자	(612)	25.7	22.2	1.6	0.6	49.8	100.0
	여자	(588)	27.3	18.0	2.9	0.7	51.1	100.0
연령별	19~29세	(248)	10.2	22.9	2.3	0.0	64.5	100.0
	30대	(269)	14.3	21.2	3.1	1.8	59.6	100.0
	40대	(304)	26.5	22.4	2.5	0.7	48.0	100.0
	50대 이상	(378)	46.0	15.8	1.4	0.2	36.6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46.5	12.0	0.8	1.0	39.7	100.0
	고졸	(518)	31.0	18.3	2.3	0.7	47.8	100.0
	대재 이상	(591)	19.5	23.1	2.3	0.6	54.6	100.0
	모름/무응답	(2)	60.1	0.0	39.9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24.9	12.8	0.0	0.0	62.3	100.0
	자영업	(203)	37.8	17.4	1.7	0.7	42.3	100.0
	블루 칼라	(307)	23.6	17.5	3.5	0.5	55.0	100.0
	화이트칼라	(314)	21.3	27.4	1.8	1.3	48.2	100.0
	전업 주부	(230)	35.4	12.8	1.8	0.4	49.6	100.0
	무직/기타	(130)	13.0	26.6	2.1	0.0	58.3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33.8	19.9	1.7	1.7	42.9	100.0
	200~299만원	(227)	29.3	19.8	2.0	0.6	48.4	100.0
	300~399만원	(393)	25.1	18.9	2.4	0.5	53.1	100.0
	400만원 이상	(481)	24.9	21.4	2.3	0.6	50.8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22.4	21.7	2.1	0.4	53.4	100.0
	충청권	(120)	22.1	18.0	0.7	1.9	57.4	100.0
	호남권	(115)	4.8	37.0	6.2	0.0	51.9	100.0
	영남권	(309)	42.8	10.9	1.9	0.6	43.7	100.0
	강원	(35)	36.2	29.2	0.0	2.5	32.0	100.0
	제주	(13)	39.1	14.5	0.0	3.3	43.2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30.0	19.0	2.5	0.3	48.1	100.0
	중 · 소도시	(507)	24.8	21.1	2.3	0.7	51.2	100.0
	읍/면	(134)	18.5	21.2	0.9	2.0	57.4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15.5	35.0	4.2	1.6	43.7	100.0
	중도	(580)	19.3	15.5	1.4	0.3	63.6	100.0
	보수적	(286)	54.1	12.5	1.6	0.3	31.4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0.0	100.0	100.0
종교별	불교	(257)	43.4	17.8	2.2	0.7	35.9	100.0
	기독교	(243)	26.2	21.4	3.7	0.8	47.8	100.0
	천주교	(73)	30.6	17.6	2.7	1.7	47.4	100.0
	기타	(3)	18.5	28.7	0.0	0.0	52.9	100.0
	종교없음	(603)	19.5	21.0	1.7	0.5	57.4	100.0
	모름/무응답	(21)	11.3	18.3	0.0	0.0	70.4	100.0

표 54. 박근혜 대통령 직무 평가

문) ○○님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잘하고 있다	② 대체로 잘하고 있다	①+②	③ 대체로 잘못 하고 있다	④ 매우 잘못 하고 있다	③+④	모름/무응답	계
			%	%	%	%	%	%	%	%
전 체		(1,200)	7.5	43.8	51.4	37.8	10.1	47.9	0.8	100.0
성별	남자	(612)	6.6	41.0	47.6	39.7	12.1	51.7	0.7	100.0
	여자	(588)	8.5	46.8	55.3	35.8	8.0	43.8	0.8	100.0
연령별	19~29세	(248)	1.7	38.4	40.1	49.2	9.8	58.9	1.0	100.0
	30대	(269)	3.4	40.4	43.7	42.6	13.5	56.1	0.2	100.0
	40대	(304)	6.6	43.4	49.9	37.0	12.3	49.3	0.8	100.0
	50대 이상	(378)	15.1	50.3	65.4	27.5	6.1	33.6	1.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28.3	39.7	68.0	23.9	6.8	30.7	1.4	100.0
	고졸	(518)	6.9	49.1	56.0	34.7	8.4	43.1	0.9	100.0
	대재 이상	(591)	5.0	39.6	44.7	42.7	12.2	54.8	0.5	100.0
	모름/무응답	(2)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33.3	17.3	50.6	24.8	24.6	49.4	0.0	100.0
	자영업	(203)	11.1	47.8	59.0	29.3	11.2	40.5	0.6	100.0
	블루 칼라	(307)	6.9	44.4	51.2	39.3	8.9	48.2	0.6	100.0
	화이트칼라	(314)	5.1	37.3	42.4	45.1	12.1	57.2	0.4	100.0
	전업 주부	(230)	8.9	53.9	62.8	30.1	5.5	35.6	1.6	100.0
	무직/기타	(130)	4.0	37.1	41.1	45.2	12.8	58.0	1.0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16.4	46.3	62.7	30.3	7.0	37.3	0.0	100.0
	200~299만원	(227)	11.9	42.5	54.4	33.9	11.2	45.1	0.5	100.0
	300~399만원	(393)	4.7	47.5	52.1	35.0	11.3	46.3	1.5	100.0
	400만원 이상	(481)	6.0	41.0	47.0	43.4	9.2	52.7	0.4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4.7	41.6	46.3	44.1	8.2	52.3	1.4	100.0
	충청권	(120)	10.5	47.9	58.4	28.7	12.9	41.6	0.0	100.0
	호남권	(115)	2.7	24.4	27.1	45.1	27.8	72.9	0.0	100.0
	영남권	(309)	12.5	54.8	67.3	26.9	5.8	32.7	0.0	100.0
	강원	(35)	16.5	38.4	54.9	33.8	11.3	45.1	0.0	100.0
	제주	(13)	16.6	35.6	52.2	30.3	13.8	44.2	3.7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5.1	43.2	48.3	44.3	6.4	50.6	1.1	100.0
	중 · 소도시	(507)	9.1	45.5	54.6	31.9	12.8	44.8	0.6	100.0
	읍/면	(134)	11.8	40.1	51.9	32.8	15.3	48.1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3.5	33.3	36.7	46.4	16.2	62.6	0.7	100.0
	중도	(580)	5.5	44.6	50.1	41.2	8.4	49.6	0.3	100.0
	보수적	(286)	16.5	54.8	71.3	21.0	6.4	27.4	1.3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0.0	0.0	0.0	100.0	100.0
종교별	불교	(257)	11.8	49.5	61.3	29.7	7.8	37.5	1.2	100.0
	기독교	(243)	8.1	40.4	48.5	38.6	11.4	50.0	1.5	100.0
	천주교	(73)	8.7	50.1	58.8	26.2	13.5	39.7	1.5	100.0
	기타	(3)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종교없음	(603)	5.5	42.3	47.7	42.2	9.9	52.1	0.2	100.0
	모름/무응답	(21)	4.8	30.7	35.6	45.2	19.2	64.4	0.0	100.0

표 55-1. 다문화 관련 인식
- ㉮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다

문)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찬성	② 다소 찬성	①+②	③ 반반/ 그저 그렇다	④ 다소 반대	⑤ 매우 반대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11.2	44.3	55.5	36.9	6.7	0.9	7.6	100.0
성별	남자	(612)	11.9	45.4	57.3	35.4	6.7	0.6	7.3	100.0
	여자	(588)	10.4	43.2	53.6	38.5	6.8	1.1	7.9	100.0
연령별	19~29세	(248)	9.8	45.8	55.5	35.3	8.5	0.7	9.2	100.0
	30대	(269)	12.9	40.0	52.9	40.0	6.4	0.7	7.1	100.0
	40대	(304)	13.5	45.2	58.7	34.7	5.4	1.1	6.6	100.0
	50대 이상	(378)	9.0	45.7	54.7	37.5	6.9	0.9	7.8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11.1	39.1	50.2	40.3	6.6	2.9	9.5	100.0
	고졸	(518)	8.4	44.7	53.1	39.3	6.6	1.0	7.7	100.0
	대재 이상	(591)	13.5	44.9	58.4	34.3	6.9	0.4	7.3	100.0
	모름/무응답	(2)	39.9	0.0	39.9	60.1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29.4	31.2	60.6	32.9	6.5	0.0	6.5	100.0
	자영업	(203)	12.1	45.9	58.0	32.5	8.1	1.5	9.6	100.0
	블루 칼라	(307)	9.4	42.7	52.2	40.9	6.1	0.8	6.9	100.0
	화이트칼라	(314)	12.8	46.9	59.6	33.0	6.9	0.5	7.4	100.0
	전업 주부	(230)	8.5	42.0	50.5	41.9	6.2	1.4	7.6	100.0
	무직/기타	(130)	12.6	45.4	58.0	35.2	6.8	0.0	6.8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10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9.4	41.6	51.0	43.4	4.0	1.6	5.6	100.0
	200~299만원	(227)	13.0	48.2	61.1	32.0	6.1	0.8	6.9	100.0
	300~399만원	(393)	8.2	42.6	50.8	41.4	6.8	1.1	7.8	100.0
	400만원 이상	(481)	13.1	44.5	57.6	34.3	7.5	0.6	8.1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10.0	45.9	55.9	38.6	4.8	0.7	5.4	100.0
	충청권	(120)	20.9	23.2	44.1	48.1	7.2	0.6	7.8	100.0
	호남권	(115)	12.8	44.3	57.0	29.7	10.6	2.6	13.2	100.0
	영남권	(309)	6.9	49.3	56.2	33.8	9.4	0.6	10.0	100.0
	강원	(35)	24.7	50.0	74.7	20.9	2.2	2.2	4.4	100.0
	제주	(13)	25.1	33.9	59.0	33.8	7.2	0.0	7.2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8.2	46.7	54.9	35.0	8.8	1.3	10.1	100.0
	중 · 소도시	(507)	13.8	45.3	59.1	35.5	5.1	0.3	5.4	100.0
	읍/면	(134)	13.6	30.7	44.4	50.3	4.1	1.2	5.3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13.0	49.5	62.5	32.4	4.5	0.5	5.1	100.0
	중도	(580)	10.4	41.8	52.1	41.2	5.8	0.9	6.7	100.0
	보수적	(286)	10.7	43.2	53.9	33.6	11.2	1.2	12.5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11.3	46.9	58.2	33.9	7.0	0.9	7.9	100.0
	기독교	(243)	14.2	41.6	55.8	35.0	8.5	0.7	9.2	100.0
	천주교	(73)	10.1	50.5	60.6	28.6	9.7	1.0	10.8	100.0
	기타	(3)	34.6	47.1	81.8	18.2	0.0	0.0	0.0	100.0
	종교없음	(603)	9.8	43.2	53.0	40.4	5.7	0.9	6.6	100.0
	모름/무응답	(21)	15.0	53.5	68.4	28.0	3.6	0.0	3.6	100.0

표 55-2. 다문화 관련 인식
- ㉯ 여러 민족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면 국가의 결속력을 해치게 된다

문)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찬성	② 다소 찬성	①+②	③ 반반/ 그저 그렇다	④ 다소 반대	⑤ 매우 반대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4.2	34.7	38.9	41.2	17.2	2.7	19.9	100.0
성별	남자	(612)	3.4	33.4	36.8	40.4	19.6	3.2	22.8	100.0
	여자	(588)	5.1	36.0	41.1	42.0	14.8	2.1	16.9	100.0
연령별	19~29세	(248)	5.0	32.9	37.9	38.3	21.2	2.6	23.8	100.0
	30대	(269)	4.0	32.6	36.6	42.5	18.6	2.4	20.9	100.0
	40대	(304)	4.0	36.1	40.1	38.8	18.3	2.7	21.1	100.0
	50대 이상	(378)	4.1	36.2	40.2	44.1	12.9	2.8	15.6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5.8	38.8	44.6	41.4	9.6	4.5	14.1	100.0
	고졸	(518)	3.7	37.3	41.0	42.4	14.8	1.7	16.6	100.0
	대재 이상	(591)	4.3	31.7	36.0	40.2	20.6	3.2	23.8	100.0
	모름/무응답	(2)	39.9	60.1	100.0	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12.6	42.8	55.5	19.1	18.2	7.3	25.4	100.0
	자영업	(203)	4.3	31.2	35.5	43.4	17.3	3.8	21.1	100.0
	블루 칼라	(307)	2.7	37.3	40.1	40.6	17.1	2.2	19.3	100.0
	화이트칼라	(314)	4.3	34.4	38.8	39.1	18.9	3.2	22.1	100.0
	전업 주부	(230)	5.0	38.9	43.9	43.3	11.5	1.3	12.8	100.0
	무직/기타	(130)	5.2	25.7	30.8	43.1	23.5	2.6	26.1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5.3	36.5	41.8	41.5	14.8	2.0	16.7	100.0
	200~299만원	(227)	3.2	33.8	36.9	43.0	15.9	4.2	20.1	100.0
	300~399만원	(393)	4.8	37.0	41.8	38.8	16.3	3.1	19.4	100.0
	400만원 이상	(481)	4.0	32.8	36.9	42.2	19.2	1.7	20.9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3.1	35.4	38.6	37.3	21.2	2.9	24.1	100.0
	충청권	(120)	5.8	18.9	24.7	55.9	18.7	0.6	19.4	100.0
	호남권	(115)	6.1	35.3	41.4	40.6	15.9	2.1	18.0	100.0
	영남권	(309)	4.9	40.2	45.1	42.1	9.6	3.2	12.8	100.0
	강원	(35)	6.7	29.6	36.4	49.7	14.0	0.0	14.0	100.0
	제주	(13)	0.0	23.8	23.8	45.7	19.9	10.6	30.5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4.1	33.4	37.5	39.3	20.3	2.8	23.1	100.0
	중 · 소도시	(507)	4.9	37.4	42.4	40.4	14.7	2.5	17.2	100.0
	읍/면	(134)	1.9	29.9	31.7	51.7	13.7	2.8	16.5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4.2	32.4	36.6	40.5	19.2	3.7	22.9	100.0
	중도	(580)	3.6	33.2	36.8	43.5	17.0	2.7	19.7	100.0
	보수적	(286)	5.6	40.5	46.1	36.9	15.4	1.5	17.0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100.0	0.0	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3.9	38.7	42.6	44.2	12.2	1.0	13.2	100.0
	기독교	(243)	3.6	35.3	38.9	38.4	18.8	3.9	22.6	100.0
	천주교	(73)	1.0	32.8	33.8	49.6	13.2	3.3	16.6	100.0
	기타	(3)	34.6	18.5	53.1	46.9	0.0	0.0	0.0	100.0
	종교없음	(603)	4.9	33.3	38.2	40.1	19.3	2.4	21.7	100.0
	모름/무응답	(21)	4.0	27.0	31.0	35.2	19.3	14.5	33.8	100.0

표 55-3. 다문화 관련 인식 – ㉰ 북한도 하나의 국가다

문)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찬성	② 다소 찬성	①+②	③ 반반/ 그저 그렇다	④ 다소 반대	⑤ 매우 반대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9.5	43.3	52.8	34.7	9.7	2.8	12.5	100.0
성별	남자	(612)	9.8	45.1	54.8	30.7	10.9	3.6	14.5	100.0
	여자	(588)	9.2	41.4	50.6	38.9	8.4	2.1	10.5	100.0
연령별	19~29세	(248)	10.3	41.1	51.4	37.4	9.1	2.2	11.2	100.0
	30대	(269)	12.9	44.1	57.0	34.1	6.3	2.6	8.8	100.0
	40대	(304)	9.4	42.2	51.5	32.0	12.3	4.1	16.5	100.0
	50대 이상	(378)	6.6	45.0	51.7	35.6	10.4	2.4	12.8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8.7	37.7	46.4	44.5	7.6	1.4	9.0	100.0
	고졸	(518)	8.1	45.0	53.1	34.8	9.8	2.4	12.1	100.0
	대재 이상	(591)	10.7	42.8	53.5	33.1	9.9	3.4	13.4	100.0
	모름/무응답	(2)	39.9	0.0	39.9	60.1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5.2	39.5	44.7	42.4	6.5	6.5	12.9	100.0
	자영업	(203)	10.2	45.6	55.8	32.3	9.0	2.8	11.9	100.0
	블루 칼라	(307)	8.0	41.2	49.2	38.5	10.1	2.3	12.3	100.0
	화이트칼라	(314)	13.0	41.8	54.8	30.7	9.9	4.7	14.6	100.0
	전업 주부	(230)	7.7	48.0	55.6	35.7	7.9	0.8	8.7	100.0
	무직/기타	(130)	7.1	40.1	47.3	37.1	12.8	2.9	15.7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8.7	41.3	50.0	38.2	8.3	3.5	11.8	100.0
	200~299만원	(227)	9.3	39.4	48.8	36.0	12.2	3.1	15.2	100.0
	300~399만원	(393)	9.8	46.8	56.6	33.6	7.9	1.8	9.7	100.0
	400만원 이상	(481)	9.4	42.7	52.1	34.3	10.2	3.4	13.6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8.6	42.7	51.3	34.1	11.6	3.0	14.5	100.0
	충청권	(120)	17.4	41.5	58.9	39.0	2.0	0.0	2.0	100.0
	호남권	(115)	12.4	39.8	52.2	36.1	10.3	1.4	11.7	100.0
	영남권	(309)	6.8	48.8	55.6	34.5	8.0	1.9	9.9	100.0
	강원	(35)	9.0	29.0	38.0	23.3	15.8	22.9	38.7	100.0
	제주	(13)	16.9	24.6	41.6	46.1	8.6	3.7	12.3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6.2	44.7	50.9	36.9	11.1	1.1	12.2	100.0
	중 · 소도시	(507)	13.6	46.1	59.8	27.9	7.7	4.5	12.3	100.0
	읍/면	(134)	7.3	26.7	34.1	51.3	11.2	3.4	14.6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12.1	46.5	58.6	30.1	7.8	3.5	11.3	100.0
	중도	(580)	9.6	41.5	51.1	39.4	8.3	1.2	9.4	100.0
	보수적	(286)	6.2	42.9	49.2	30.7	14.7	5.4	20.2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7.3	43.0	50.3	34.7	11.3	3.7	15.0	100.0
	기독교	(243)	11.5	42.5	54.0	32.3	10.3	3.3	13.7	100.0
	천주교	(73)	5.7	44.6	50.3	33.0	11.7	5.0	16.7	100.0
	기타	(3)	0.0	53.1	53.1	18.2	28.7	0.0	28.7	100.0
	종교없음	(603)	10.0	43.5	53.5	35.7	8.7	2.1	10.8	100.0
	모름/무응답	(21)	13.5	44.6	58.2	41.8	0.0	0.0	0.0	100.0

표 56. 가구 소득 계층

문) 한국의 일반적인 가정과 비교했을 때, ○○님 댁의 소득 수준은 중간보다 얼마나 높다고 또는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중간보다 훨씬 높다	② 중간보다 약간 높다	①+②	③ 중간과 비슷하다	④ 중간보다 약간 낮다	⑤ 중간보다 훨씬 낮다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0.7	9.8	10.5	48.4	33.1	8.1	41.2	100.0
성별	남자	(612)	0.8	9.5	10.2	47.6	33.6	8.7	42.2	100.0
	여자	(588)	0.6	10.1	10.7	49.2	32.6	7.4	40.0	100.0
연령별	19~29세	(248)	0.8	12.3	13.0	57.7	21.9	7.3	29.2	100.0
	30대	(269)	0.4	8.5	8.9	50.1	35.4	5.5	41.0	100.0
	40대	(304)	1.1	6.9	7.9	51.0	33.6	7.5	41.1	100.0
	50대 이상	(378)	0.5	11.4	11.9	38.9	38.4	10.7	49.2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0.0	4.4	4.4	23.1	43.6	28.9	72.5	100.0
	고졸	(518)	0.7	8.4	9.1	45.4	37.4	8.1	45.5	100.0
	대재 이상	(591)	0.8	11.8	12.6	54.8	27.6	4.9	32.6	100.0
	모름/무응답	(2)	0.0	0.0	0.0	39.9	60.1	0.0	60.1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0.0	6.5	6.5	24.1	56.1	13.3	69.4	100.0
	자영업	(203)	2.2	8.5	10.7	46.0	35.7	7.6	43.3	100.0
	블루 칼라	(307)	0.6	9.8	10.4	43.3	35.4	11.0	46.3	100.0
	화이트칼라	(314)	0.2	12.5	12.7	55.4	27.3	4.6	31.9	100.0
	전업 주부	(230)	0.0	8.2	8.2	45.3	38.8	7.7	46.5	100.0
	무직/기타	(130)	0.9	8.4	9.3	55.7	24.6	10.3	34.9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0.0	100.0	0.0	10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0.0	2.9	2.9	25.4	39.4	32.3	71.7	100.0
	200~299만원	(227)	0.0	3.6	3.6	36.5	48.0	11.9	59.9	100.0
	300~399만원	(393)	0.0	4.9	4.9	45.3	41.0	8.7	49.8	100.0
	400만원 이상	(481)	1.7	18.1	19.8	61.2	18.3	0.7	18.9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0.8	13.1	13.9	44.1	34.8	7.2	41.9	100.0
	충청권	(120)	1.9	8.1	10.0	50.2	35.2	4.6	39.8	100.0
	호남권	(115)	0.0	8.5	8.5	46.8	35.6	9.2	44.7	100.0
	영남권	(309)	0.0	4.2	4.2	57.2	29.0	9.6	38.6	100.0
	강원	(35)	2.2	9.5	11.7	44.9	30.2	13.3	43.5	100.0
	제주	(13)	3.6	14.0	17.6	43.8	19.9	18.8	38.6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0.9	7.9	8.8	46.4	37.0	7.8	44.7	100.0
	중 · 소도시	(507)	0.5	12.9	13.4	50.1	29.0	7.4	36.4	100.0
	읍/면	(134)	0.4	5.8	6.2	49.7	32.5	11.5	44.1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0.6	11.2	11.8	52.4	29.9	5.8	35.8	100.0
	중도	(580)	0.3	9.9	10.2	49.3	32.5	8.0	40.5	100.0
	보수적	(286)	1.5	7.9	9.4	41.6	38.1	10.9	49.0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100.0	0.0	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0.3	9.5	9.8	45.1	35.6	9.5	45.1	100.0
	기독교	(243)	1.4	10.9	12.3	45.8	33.2	8.7	41.8	100.0
	천주교	(73)	1.1	12.8	13.8	46.4	30.0	9.8	39.8	100.0
	기타	(3)	0.0	0.0	0.0	34.6	47.1	18.2	65.4	100.0
	종교없음	(603)	0.5	9.1	9.6	51.5	32.1	6.8	38.9	100.0
	모름/무응답	(21)	0.0	11.6	11.6	37.7	38.8	11.9	50.7	100.0

표 57. 사회 계층

문) ○○님은 자신이 한국사회에서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상의 상	② 상의 하	①+②	③ 중의 상	④ 중의 하	③+④	⑤ 하의 상	⑥ 하의 하	⑤+⑥	모름/무응답	계
			%	%	%	%	%	%	%	%	%	%	%
전 체		(1,200)	0.3	3.2	3.5	27.0	46.5	73.5	17.3	5.6	22.9	0.1	100.0
성별	남자	(612)	0.4	3.1	3.4	27.8	45.7	73.5	17.0	6.1	23.1	0.0	100.0
	여자	(588)	0.2	3.4	3.6	26.2	47.4	73.6	17.5	5.1	22.6	0.1	100.0
연령별	19~29세	(248)	0.0	3.4	3.4	32.6	45.8	78.5	13.5	4.7	18.2	0.0	100.0
	30대	(269)	0.4	2.8	3.2	25.7	49.8	75.5	16.0	5.3	21.3	0.0	100.0
	40대	(304)	0.6	3.0	3.6	27.3	48.2	75.5	16.7	4.3	20.9	0.0	100.0
	50대 이상	(378)	0.2	3.6	3.8	24.0	43.3	67.3	21.2	7.4	28.6	0.2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0.0	0.0	0.0	11.4	31.3	42.7	31.9	24.5	56.4	0.8	100.0
	고졸	(518)	0.6	3.4	4.0	22.2	46.6	68.8	21.5	5.7	27.2	0.0	100.0
	대재 이상	(591)	0.1	3.6	3.7	33.5	48.9	82.5	11.2	2.7	13.9	0.0	100.0
	모름/무응답	(2)	0.0	0.0	0.0	39.9	0.0	39.9	60.1	0.0	60.1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0.0	0.0	0.0	20.3	47.2	67.6	19.2	13.3	32.4	0.0	100.0
	자영업	(203)	1.8	2.9	4.8	26.7	43.9	70.7	20.2	4.3	24.6	0.0	100.0
	블루 칼라	(307)	0.0	4.4	4.4	25.3	39.3	64.7	24.2	6.5	30.7	0.2	100.0
	화이트칼라	(314)	0.0	3.0	3.0	31.0	53.1	84.1	8.4	4.4	12.9	0.0	100.0
	전업 주부	(230)	0.0	2.5	2.5	23.6	49.0	72.5	19.9	5.1	25.0	0.0	100.0
	무직/기타	(130)	0.0	3.0	3.0	28.5	47.2	75.7	13.0	8.2	21.2	0.0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0.0	0.0	0.0	11.3	25.6	36.9	33.6	28.8	62.3	0.8	100.0
	200~299만원	(227)	0.4	2.8	3.2	16.6	47.3	64.0	28.0	4.8	32.8	0.0	100.0
	300~399만원	(393)	0.0	3.0	3.0	18.6	50.9	69.5	21.6	5.8	27.5	0.0	100.0
	400만원 이상	(481)	0.6	4.3	4.8	42.0	46.9	88.9	5.3	1.0	6.3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0.2	4.3	4.5	27.9	46.6	74.5	16.7	4.3	21.0	0.0	100.0
	충청권	(120)	0.6	2.0	2.6	35.6	44.8	80.4	14.9	2.0	17.0	0.0	100.0
	호남권	(115)	0.0	2.5	2.5	24.0	46.5	70.6	17.7	8.6	26.3	0.6	100.0
	영남권	(309)	0.3	2.2	2.5	21.6	48.2	69.8	19.9	7.8	27.7	0.0	100.0
	강원	(35)	2.1	2.2	4.3	36.4	36.3	72.6	13.8	9.3	23.0	0.0	100.0
	제주	(13)	0.0	0.0	0.0	32.3	47.2	79.5	10.5	9.9	20.5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0.2	3.0	3.2	24.0	49.7	73.7	18.7	4.5	23.1	0.0	100.0
	중 · 소도시	(507)	0.5	3.6	4.1	32.6	43.2	75.7	13.9	6.2	20.2	0.0	100.0
	읍/면	(134)	0.0	2.8	2.8	18.3	46.2	64.5	24.1	8.0	32.2	0.6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0.4	2.5	2.9	30.8	49.2	80.0	13.8	3.3	17.1	0.0	100.0
	중도	(580)	0.2	3.3	3.5	26.7	45.9	72.6	17.7	6.1	23.8	0.1	100.0
	보수적	(286)	0.5	3.9	4.4	23.4	44.5	67.9	20.5	7.2	27.7	0.0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0.4	3.2	3.6	27.9	43.0	70.9	17.9	7.3	25.2	0.3	100.0
	기독교	(243)	0.5	3.1	3.6	24.3	46.3	70.5	20.0	5.9	25.9	0.0	100.0
	천주교	(73)	0.0	2.8	2.8	33.7	43.0	76.7	16.5	4.0	20.5	0.0	100.0
	기타	(3)	0.0	0.0	0.0	0.0	81.8	81.8	0.0	18.2	18.2	0.0	100.0
	종교없음	(603)	0.2	3.4	3.6	27.5	48.7	76.2	15.7	4.5	20.2	0.0	100.0
	모름/무응답	(21)	0.0	4.1	4.1	11.5	38.4	49.9	30.0	15.9	45.9	0.0	100.0

표 58. 생활 수준 개선도

문) ○○님의 현 생활수준은 부모님께서 ○○님의 현재 나이였을 때와 비교해서 얼마나 좋아졌다고 또는 나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훨씬 좋아졌다	② 약간 좋아졌다	①+②	③ 차이가 거의 없다	④ 약간 나빠졌다	⑤ 훨씬 나빠졌다	④+⑤	잘 모르겠다	계
			%	%	%	%	%	%	%	%	%
전 체		(1,200)	31.2	38.0	69.2	21.4	5.4	1.7	7.1	2.4	100.0
성별	남자	(612)	31.9	38.4	70.3	19.6	5.8	1.3	7.1	3.0	100.0
	여자	(588)	30.6	37.5	68.0	23.2	4.9	2.1	7.0	1.8	100.0
연령별	19~29세	(248)	26.7	38.5	65.2	24.1	2.9	2.0	4.9	5.8	100.0
	30대	(269)	25.7	37.6	63.3	25.5	7.6	1.3	8.9	2.3	100.0
	40대	(304)	30.9	42.4	73.3	18.8	5.3	1.7	7.1	0.8	100.0
	50대 이상	(378)	38.5	34.3	72.7	18.7	5.5	1.7	7.2	1.4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27.0	34.0	61.0	22.7	10.8	2.2	13.0	3.3	100.0
	고졸	(518)	30.7	36.3	67.0	23.5	6.8	1.3	8.1	1.3	100.0
	대재 이상	(591)	32.3	40.2	72.4	19.3	3.3	1.7	5.0	3.2	100.0
	모름/무응답	(2)	39.9	0.0	39.9	0.0	0.0	60.1	60.1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38.9	28.6	67.5	5.2	27.3	0.0	27.3	0.0	100.0
	자영업	(203)	33.4	37.7	71.1	20.7	5.1	1.9	7.0	1.2	100.0
	블루 칼라	(307)	25.9	40.5	66.3	21.5	7.1	3.1	10.2	2.0	100.0
	화이트칼라	(314)	37.0	38.2	75.1	17.1	3.5	0.8	4.3	3.4	100.0
	전업 주부	(230)	29.4	37.4	66.8	25.6	5.4	1.5	6.9	0.7	100.0
	무직/기타	(130)	29.4	33.6	63.0	27.0	3.5	0.7	4.2	5.8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100.0	0.0	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23.2	24.8	48.0	28.7	14.3	3.3	17.6	5.7	100.0
	200~299만원	(227)	25.3	37.6	62.9	27.3	6.1	2.2	8.2	1.5	100.0
	300~399만원	(393)	27.0	38.2	65.2	24.0	7.0	1.7	8.8	2.1	100.0
	400만원 이상	(481)	39.2	40.7	79.8	14.9	1.9	1.1	2.9	2.3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24.4	39.5	63.9	24.8	5.2	2.5	7.6	3.7	100.0
	충청권	(120)	32.2	34.4	66.6	21.2	8.7	2.2	10.9	1.3	100.0
	호남권	(115)	43.9	35.6	79.5	16.3	3.6	0.0	3.6	0.7	100.0
	영남권	(309)	38.1	37.7	75.7	18.0	4.8	0.6	5.4	0.8	100.0
	강원	(35)	31.7	43.0	74.7	13.8	9.3	2.2	11.5	0.0	100.0
	제주	(13)	66.0	13.2	79.2	7.1	3.5	0.0	3.5	10.1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33.7	39.0	72.8	19.5	3.9	1.9	5.8	2.0	100.0
	중 · 소도시	(507)	30.1	36.2	66.3	23.1	6.6	1.7	8.2	2.4	100.0
	읍/면	(134)	25.1	40.1	65.2	22.8	7.0	0.9	7.9	4.1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29.9	44.9	74.8	18.0	3.6	1.3	4.9	2.4	100.0
	중도	(580)	30.0	34.5	64.5	24.5	6.8	1.8	8.6	2.3	100.0
	보수적	(286)	35.4	37.1	72.5	18.9	4.6	1.9	6.5	2.1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종교별	불교	(257)	36.9	33.3	70.2	19.5	7.3	1.6	8.8	1.5	100.0
	기독교	(243)	28.2	39.4	67.6	22.5	4.5	3.0	7.5	2.4	100.0
	천주교	(73)	34.6	33.2	67.8	22.9	8.3	1.1	9.3	0.0	100.0
	기타	(3)	63.3	0.0	63.3	18.5	0.0	0.0	0.0	18.2	100.0
	종교없음	(603)	29.4	40.0	69.4	21.8	4.7	1.3	6.0	2.9	100.0
	모름/무응답	(21)	34.4	41.0	75.4	14.5	4.1	0.0	4.1	6.0	100.0

표 59. 15세 이전 최장기 거주 지역

문) ○○님께서 만15세까지 가장 오래 산 지역은 어디이십니까?

		사례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강원도
			%	%	%	%	%	%	%	%	%
전 체		(1,200)	17.6	7.3	4.2	3.1	2.0	2.9	1.3	15.4	4.3
성별	남자	(612)	17.5	7.3	4.0	3.2	2.1	3.0	1.3	15.4	5.1
	여자	(588)	17.6	7.3	4.5	3.0	1.9	2.9	1.2	15.3	3.5
연령별	19~29세	(248)	23.7	7.3	4.7	5.6	2.4	3.2	1.8	19.0	2.3
	30대	(269)	21.8	8.7	4.4	2.9	2.8	3.1	1.2	18.9	3.2
	40대	(304)	15.2	7.5	4.4	2.1	2.5	3.3	0.5	15.6	4.4
	50대 이상	(378)	12.4	6.2	3.7	2.4	0.9	2.4	1.7	10.2	6.3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6.9	4.6	5.2	3.2	0.0	1.4	2.1	13.7	6.0
	고졸	(518)	15.9	8.4	3.5	2.2	1.9	2.1	1.0	14.4	5.5
	대재 이상	(591)	20.6	6.7	4.7	3.9	2.4	3.9	1.4	16.3	3.0
	모름/무응답	(2)	0.0	0.0	0.0	0.0	0.0	0.0	0.0	60.1	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8.5	7.3	0.0	0.0	0.0	0.0	0.0	0.0	0.0
	자영업	(203)	17.0	5.8	5.0	1.0	1.7	5.9	0.7	9.8	6.3
	블루 칼라	(307)	12.6	10.9	3.4	3.6	3.0	2.5	1.1	20.4	2.5
	화이트칼라	(314)	21.3	6.8	4.1	2.5	2.3	2.2	1.4	14.3	2.6
	전업 주부	(230)	19.4	5.9	4.8	3.5	0.7	2.3	1.4	11.9	5.4
	무직/기타	(130)	19.0	4.7	5.0	6.3	2.2	2.2	2.4	22.7	8.0
	모름/무응답	(1)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9.5	5.6	1.8	3.1	0.0	1.7	0.7	14.4	6.5
	200~299만원	(227)	12.6	9.4	5.4	3.0	0.0	0.9	0.3	16.6	5.4
	300~399만원	(393)	15.1	9.1	4.0	2.7	3.3	3.1	1.7	14.3	2.9
	400만원 이상	(481)	23.5	5.2	4.4	3.5	2.4	4.1	1.5	15.9	4.4
지역별	수도권	(608)	33.0	1.8	1.0	6.0	0.6	0.8	0.4	28.8	4.2
	충청권	(120)	4.7	0.0	0.0	0.0	0.6	25.2	0.0	2.0	0.7
	호남권	(115)	2.0	0.7	0.0	0.0	16.9	0.0	0.0	2.8	0.6
	영남권	(309)	0.7	24.0	14.5	0.0	0.0	0.0	4.2	0.3	0.0
	강원	(35)	0.0	2.2	0.0	2.2	0.0	0.0	0.0	7.0	70.5
	제주	(13)	0.0	7.0	0.0	2.1	3.6	0.0	0.0	0.0	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24.3	12.3	8.0	6.0	3.8	5.8	2.8	7.2	2.2
	중 · 소도시	(507)	13.4	3.5	1.2	0.6	0.5	0.6	0.0	21.6	6.6
	읍/면	(134)	4.9	0.7	0.0	0.2	0.6	0.0	0.0	26.1	4.2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24.9	8.3	1.4	3.3	1.3	2.9	1.2	14.2	3.9
	중도	(580)	17.0	6.6	4.7	2.9	2.6	3.3	1.0	15.8	3.4
	보수적	(286)	9.8	7.6	6.6	3.3	1.7	2.2	1.8	15.9	6.5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종교별	불교	(257)	8.2	11.5	7.8	1.6	0.6	1.9	1.5	10.2	4.0
	기독교	(243)	27.8	5.2	3.3	7.8	1.9	2.4	0.8	15.5	2.6
	천주교	(73)	23.4	3.4	2.5	2.4	1.0	4.3	0.9	11.4	10.7
	기타	(3)	0.0	18.2	0.0	0.0	0.0	0.0	0.0	0.0	0.0
	종교없음	(603)	17.2	6.9	3.5	1.6	2.5	3.5	1.5	17.4	4.4
	모름/무응답	(21)	4.9	4.8	0.0	14.6	11.0	3.6	0.0	33.8	3.7

(continued)

표 59. 15세 이전 최장기 거주 지역

문) ○○님께서 만15세까지 가장 오래 산 지역은 어디이십니까?

		사례수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외국	계
			%	%	%	%	%	%	%	%	%
전 체		(1,200)	4.9	6.0	5.0	7.4	8.3	9.1	1.0	0.1	100.0
성별	남자	(612)	4.3	5.5	5.4	7.4	8.8	8.8	1.0	0.0	100.0
	여자	(588)	5.6	6.5	4.7	7.4	7.9	9.4	1.1	0.2	100.0
연령별	19~29세	(248)	3.2	3.9	3.2	4.7	6.5	7.5	1.1	0.0	100.0
	30대	(269)	5.2	4.3	4.2	3.4	7.2	7.3	1.2	0.4	100.0
	40대	(304)	4.9	7.4	5.4	8.7	8.9	8.3	0.9	0.0	100.0
	50대 이상	(378)	6.0	7.4	6.5	11.0	9.9	12.0	1.0	0.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89)	7.4	7.7	3.8	10.8	18.0	8.6	0.6	0.0	100.0
	고졸	(518)	4.5	6.1	6.6	8.8	6.8	11.1	1.0	0.2	100.0
	대재 이상	(591)	5.0	5.5	3.9	5.7	8.3	7.4	1.2	0.0	100.0
	모름/무응답	(2)	0.0	39.9	0.0	0.0	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5)	16.0	17.5	17.5	0.0	11.7	21.5	0.0	0.0	100.0
	자영업	(203)	7.8	6.2	5.0	8.6	8.5	8.5	2.2	0.0	100.0
	블루 칼라	(307)	4.3	5.2	4.4	7.2	6.7	11.1	1.3	0.0	100.0
	화이트칼라	(314)	4.1	7.1	5.3	7.3	11.4	7.0	0.3	0.0	100.0
	전업 주부	(230)	5.1	6.5	3.9	8.7	8.1	11.2	0.7	0.4	100.0
	무직/기타	(130)	2.5	2.7	6.6	4.8	4.8	5.1	1.0	0.0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99)	4.8	8.7	10.6	13.1	10.3	6.8	2.5	0.0	100.0
	200~299만원	(227)	6.7	8.4	3.9	7.1	8.3	9.8	1.9	0.4	100.0
	300~399만원	(393)	4.7	5.1	6.0	5.3	10.9	11.5	0.4	0.0	100.0
	400만원 이상	(481)	4.4	5.0	3.6	8.1	5.8	7.2	0.9	0.0	100.0
지역별	수도권	(608)	3.4	3.8	3.8	6.2	3.8	2.0	0.2	0.2	100.0
	충청권	(120)	27.5	37.9	0.6	0.0	0.7	0.0	0.0	0.0	100.0
	호남권	(115)	0.7	0.0	31.2	44.4	0.8	0.0	0.0	0.0	100.0
	영남권	(309)	0.2	0.8	0.0	0.0	24.0	31.3	0.0	0.0	100.0
	강원	(35)	11.3	2.1	2.2	0.0	2.5	0.0	0.0	0.0	100.0
	제주	(13)	0.0	0.0	0.0	0.0	3.6	0.0	83.8	0.0	100.0
지역 크기	대도시	(560)	2.4	2.6	3.4	5.9	5.3	7.7	0.2	0.2	100.0
	중 · 소도시	(507)	6.2	9.0	6.6	8.0	10.9	10.6	0.8	0.0	100.0
	읍/면	(134)	11.2	8.8	6.0	11.3	11.3	9.3	5.3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33)	4.3	4.6	7.2	7.3	6.0	7.7	1.1	0.3	100.0
	중도	(580)	5.1	6.9	4.0	8.0	9.1	8.7	1.0	0.0	100.0
	보수적	(286)	5.4	5.9	4.7	6.4	9.6	11.5	1.0	0.0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종교별	불교	(257)	4.5	7.0	5.1	4.2	11.2	18.5	2.2	0.0	100.0
	기독교	(243)	3.9	5.7	6.6	8.4	4.2	3.4	0.6	0.0	100.0
	천주교	(73)	10.1	4.5	3.7	11.1	4.3	5.7	0.7	0.0	100.0
	기타	(3)	0.0	0.0	0.0	63.3	0.0	0.0	18.5	0.0	100.0
	종교없음	(603)	4.9	5.8	4.8	7.8	9.5	8.1	0.7	0.0	100.0
	모름/무응답	(21)	5.0	8.1	0.0	3.6	2.3	0.0	0.0	4.6	100.0

부록: 설문지

SNUIRB No. E1405 / 001-004

A

208 SAJIK-DONG CHONGRO-KU SEOUL, KOREA, 110-054 TEL(02) 3702-2100 / FAX (02)3702-2121 / E-mail info @gallup.co.kr / internetwww.gallup.co.kr
한국갤럽 GALLUP KOREA affiliated with GALLUP INTERNATIONAL

Gallup 2014-161- 017

2014 통일의식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면접원 □□□입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소에서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통일의식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질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님의 응답은 조사항목에 대하여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라는 식으로 통계를 내는 데에만 사용됩니다. 그 외의 목적에는 절대로 사용되는 일이 없으니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를 하신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 연구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 아니오 □

연구 주관 기관: IPUS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원장 : 박 명 규 (☎ : 02-880-4052)

2014년 7월
한 국 갤 럽 조 사 연 구 소
회 장 박 무 익
담당연구원 장 은 혜 (☎ 02-3702-2119)
실사연구원 노 혜 란 (☎ 02-3702-2674)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208

▣ 지 역 : □□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 지역크기 : 1. 대도시 2. 중·소도시 3. 읍/면

▣ 성 별 : 1. 남자 2. 여자

SQ1) 실례지만 ○○님의 **나이(연세)는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생일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나라 나이에서 한 살을 뺀 만 나이로 응답해 주십시오.

만 _____ 세 ⇨ 만 19세 미만, 만 66세 이상 조사 중단

지금부터 '남북통일' 에 대한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문 1) ○○님은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반반/그저 그렇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매우 필요하다
2. 약간 필요하다
3. 반반 / 그저 그렇다
4. 별로 필요하지 않다
5. 전혀 필요하지 않다

문 2) **(보기카드 1 제시)**
남북한 통일에 대한 ○○님의 생각은 다음 중 어느 것에 가장 가깝습니까?

1.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
2.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3. 현재대로가 좋다
4.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문 3) ○○님은 **남북한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1. 5년 이내
2. 10년 이내
3. 20년 이내
4. 30년 이내
5. 30년 이상
6. 불가능하다

Copyright(c) 2014 Gallup Korea Ltd. All rights reserved.

A

문 4) ○○님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쌀·비료W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 은요?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쌀·비료·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	1	2	3	4
㉯ 학술인·예술인·체육인·종교인 교류 등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	1	2	3	4
㉰ 금강산개성관광·개성공단사업 등 남북한 경제협력	1	2	3	4
㉱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	1	2	3	4

문 5)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시급하다', '다소 시급하다' '별로 시급하지 않다', '전혀 시급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는요?

	매우 시급하다	다소 시급하다	별로 시급하지 않다	전혀 시급하지 않다
㉮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1	2	3	4
㉯ 북한의 개방과 개혁	1	2	3	4
㉰ 군사적 긴장 해소	1	2	3	4
㉱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	1	2	3	4
㉲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1	2	3	4
㉳ 북한의 인권 개선	1	2	3	4

문 6) **(보기카드 2 제시)**

○○님은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같은 민족이니까
2.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
3. 남북 간에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
4. 북한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5.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6. 기타 (적을 것 : _____)

다음은 '통일 전후의 변화' 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7) ○○님은 통일이 **남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2.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3.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4.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문 8) ○○님은 통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2.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3.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4.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문 9)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빈부격차' 는요?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 빈부격차	1	2	3	4	5
㉯ 부동산투기	1	2	3	4	5
㉰ 실업문제	1	2	3	4	5
㉱ 범죄문제	1	2	3	4	5
㉲ 지역갈등	1	2	3	4	5
㉳ 이념갈등	1	2	3	4	5

Copyright(c) 2014 Gallup Korea Ltd. All rights reserved. :: 한국갤럽 www.gallup.co.kr :: 2014 통일의식조사:: :: 2

A

문 10) **(보기카드 3 제시)**
○○님은 통일이 **남한의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통일이 되어야 남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2. 남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
3.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문 11) **(보기카드 4 제시)**
○○님은 통일이 **북한의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통일이 되어야 북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2. 북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
3.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문 12) **(보기카드 5 제시)**
○○님은 **통일한국**이 어떤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남한의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2. 남한과 북한의 체제를 절충한다.
3. 통일 이후에도 남북한 두 체제를 각기 유지한다.
4. 통일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다

문 13) ○○님은 현 정부의 **'통일대박론'** 에 대하여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매우 공감한다', '대체로 공감한다', '보통이다',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매우 공감한다
2. 대체로 공감한다
3. 보통이다
4.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5.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북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문 14) **(보기카드 6 제시)**
○○님은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지원 대상**이다
2. 우리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3. 우리와 선의의 **경쟁을 하는 대상**이다
4.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5.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 대상**이다

문 15) ○○님은 통일을 함께 논의할 상대로 **북한 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가능하다', '어느 정도 가능하다', '별로 가능하지 않다', '전혀 가능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매우 가능하다
2. 어느 정도 가능하다
3. 별로 가능하지 않는다
4. 전혀 가능하지 않는다

문 16) ○○님은 **북한 정권이 얼마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원한다', '다소 원한다', '별로 원하지 않는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매우 원한다
2. 다소 원한다
3. 별로 원하지 않는다
4. 전혀 원하지 않는다

문 17) ○○님은 **'현재의 북한 정권은 앞으로 안정될 것이다'** 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매우 동의한다', '대체로 동의한다', '그저 그렇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매우 동의한다
2. 대체로 동의한다
3. 그저 그렇다
4.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5.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문 18) ○○님은 **최근** 몇 년간 **북한이 얼마나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변하고 있다', '약간 변하고 있다', '별로 변하지 않고 있다',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많이 변하고 있다
2. 약간 변하고 있다
3. 별로 변하지 않고 있다
4.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Copyright(c) 2014 Gallup Korea Ltd. All rights reserved. :: 한국갤럽 www.gallup.co.kr :: 2014 통일의식조사:: :: 3

A

문 19) ○○님은 앞으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다', '약간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많이 있다
2. 약간 있다
3. 별로 없다
4. 전혀 없다

문 20) ○○님은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매우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이 있다', '전혀 모른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선군정치' 는요?

	매우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 본적 있다	전혀 모른다
㉮ 선군정치	1	2	3	4
㉯ 주체사상	1	2	3	4
㉰ 천리마운동	1	2	3	4
㉱ 고난의 행군	1	2	3	4
㉲ 장마당	1	2	3	4
㉳ 아리랑 축전	1	2	3	4

문 21) ○○님은 **북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있다' 또는 '없다' 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북한이나 금강산, 개성 등을 방문해 본 경험은요?

	있다	없다
㉮ 북한이나 금강산, 개성 등을 방문해 본 경험	1	2
㉯ 탈북자(새터민)과 만나 본 경험	1	2
㉰ 북한 방송이나 영화, 소설 등을 접해본 경험	1	2
㉱ 대북 관련 활동이나 단체에 참여해 본 경험	1	2

문 22)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선거방식' 은요?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 선거방식	1	2	3	4
㉯ 생활수준	1	2	3	4
㉰ 역사인식	1	2	3	4
㉱ 언어사용	1	2	3	4
㉲ 활풍습(관혼상제 등)	1	2	3	4
㉳ 가치관	1	2	3	4

문 23) ○○님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얼마나 **위협**을 느끼십니까? 혹은 느끼지 않으십니까?
'매우 위협을 느낀다', '다소 위협을 느낀다', '별로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매우 위협을 느낀다
2. 다소 위협을 느낀다
3. 별로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4.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문 24) ○○님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매우 동의한다', '다소 동의한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매우 동의한다
2. 다소 동의한다
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 잘 모름

Copyright(c) 2014 Gallup Korea Ltd. All rights reserved. :: 한국갤럽 www.gallup.co.kr :: 2014 통일의식조사:: :: 4

지금부터는 '대북 지원 및 정책' 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25) **(보기카드 7 제시)**
○○님은 **바람직한 대북정책**이 다음 중 어떤 내용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남북간 교류협력과 대북지원
2. 북한의 개방 개혁 및 인권신장
3. 적극적인 통일정책과 통일재원 준비
4. 북한 핵중단을 위한 국제협력
5. 평화협정체결

문 26) ○○님은 **대북 지원**이 북한 주민의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도움이 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매우 도움이 된다
2. 약간 도움이 된다
3.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 27) ○○님은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도움이 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매우 도움이 된다
2. 약간 도움이 된다
3.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 28) ○○님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혹은 불만족 하십니까?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매우 만족
2. 다소 만족
3. 다소 불만족
4. 매우 불만족

문 29) ○○님은 **"남북한 간 체결한 합의 사항은 정부의 교체와 무관하게 계승되어야 한다"** 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매우 동의한다', '다소 동의한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매우 동의한다
2. 다소 동의한다
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 잘 모름

문 30)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약간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개성공단은 유지되어야 한다' 는요?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 약간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개성공단은 유지되어야 한다	1	2	3	4	5
㉯ 금강산 관광은 재개되어야 한다	1	2	3	4	5
㉰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대북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	1	2	3	4	5
㉱ 대북삐라 살포는 하지 말아야 한다	1	2	3	4	5
㉲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야 한다	1	2	3	4	5
㉳ 한국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	1	2	3	4	5

Copyright(c) 2014 Gallup Korea Ltd. All rights reserved. :: 한국갤럽 www.gallup.co.kr :: 2014 통일의식조사:: :: 5

A/B

문 31) ○○님은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각 국의 책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크다', '조금 크다', '중간', '별로 크지 않다', '거의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북한' 의 책임은요?

	아주 크다	조금 크다	중간이다	별로 크지 않다	거의 없다
㉮ 북한의 책임	1	2	3	4	5
㉯ 한국의 책임	1	2	3	4	5
㉰ 미국의 책임	1	2	3	4	5
㉱ 중국의 책임	1	2	3	4	5
㉲ 일본의 책임	1	2	3	4	5

다음은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문 32)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새터민)**가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혹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별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2.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3. 별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4.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문 33) ○○님은 **탈북자(새터민)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매우 꺼림', '다소 꺼림', '반반/그저 그렇다', 별로 꺼리지 않음', '전혀 꺼리지 않음'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먼저, '동네 이웃' 은요?

	매우 꺼림	다소 꺼림	반반/그저 그렇다	별로 꺼리지 않음	전혀 꺼리지 않음
㉮ 동네 이웃	1	2	3	4	5
㉯ 직장 동료	1	2	3	4	5
㉰ 사업 동업자	1	2	3	4	5
㉱ 결혼상대자	1	2	3	4	5

문 34) **(보기카드 8 제시)**

○○님은 **한국에 들어오기 원하는 탈북자(새터민)**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2. 원하는 사람 중에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3.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문 35)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먼저 '탈북자(새터민)들은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요?

	매우 동의	다소 동의	별로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 탈북자(새터민)들은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	1	2	3	5
㉯ 정부는 탈북자(새터민)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	1	2	3	5
㉰ 탈북자(새터민)들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 진다	1	2	3	5
㉱ 탈북자(새터민)들도 조직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	1	2	3	5

이번에는 '한국을 둘러싼 주변국과의 관계' 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36) **(보기카드 9 제시)**

○○님은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를 가장 가깝게** 느끼십니까? (단수응답)

1. 미국
2. 일본
3. 북한
4. 중국
5. 러시아

문 37) **(보기카드 9 제시)**

그러면, 다음 국가들 중에서 어느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1. 미국
2. 일본
3. 북한
4. 중국
5. 러시아

Copyright(c) 2014 Gallup Korea Ltd. All rights reserved. :: 한국갤럽 www.gallup.co.kr :: 2014 통일의식조사:: :: 6

B

문 38) ○○님은 만약 **월드컵에**서 북한 팀과 미국 팀이 대결한다면 어느 편을 응원하시겠습니까?

1. 북한 팀
2. 미국 팀
3. 양 팀 모두 응원하겠다
4. 어느 팀도 응원하지 않겠다
5. 기타 (적을 것 : _____)

문 39) ○○님은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협력 대상', '경쟁 대상', '경계 대상', '적대 대상' 중에서 말씀해주십시오.먼저 '미국' 은요?

	협력 대상	경쟁 대상	경계 대상	적대 대상
㉮ 미국	1	2	3	4
㉯ 중국	1	2	3	4
㉰ 일본	1	2	3	4
㉱ 러시아	1	2	3	4

문 40) **(보기카드 10 제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4국은 어떻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미국' 은요?

	한국을 도울 것이다	북한을 도울 것이다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중립을 지킬 것이다
㉮ 미국	1	2	3	4
㉯ 중국	1	2	3	4
㉰ 일본	1	2	3	4
㉱ 러시아	1	2	3	4

문 41) ○○님은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미국' 은요?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 미국	1	2	3	4
㉯ 중국	1	2	3	4
㉰ 일본	1	2	3	4
㉱ 러시아	1	2	3	4

문 42)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다음 국가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미국' 은요?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 미국	1	2	3	4
㉯ 중국	1	2	3	4
㉰ 일본	1	2	3	4
㉱ 러시아	1	2	3	4

문 43) ○○님은 '남북관계 개선' 과 '한미공조'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남북관계 개선
2. 한미공조
3. 똑같이 중요하다

문 44) 최근 중국과 북한 사이에 다방면으로 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우려스럽다
2. 우려스러운 편이다
3. 별로 상관없다
4. 바람직한 편이다
5. 매우 바람직하다

Copyright(c) 2014 Gallup Korea Ltd. All rights reserved. :: 한국갤럽 www.gallup.co.kr :: 2014 통일의식조사:: :: 7

B

지금부터는 '해방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 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문 45) ○○님은 다음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긍정적이라고 혹은 부정적이라고 평가하십니까? '매우 긍정적' , '대체로 긍정적' , '대체로 부정적' , '매우 부정적'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4·19' 는요?

	매우 긍정적	대체로 긍정적	대체로 부정적	매우 부정적	잘 모름
㉮ 4·19	1	2	3	4	5
㉯ 5·16	1	2	3	4	5
㉰ 10월 유신	1	2	3	4	5
㉱ 광주민주화운동	1	2	3	4	5
㉲ 6월 항쟁 (1987년)	1	2	3	4	5
㉳ 남북정상회담	1	2	3	4	5

문 46) ○○님은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심각하다' , '약간 심각하다' , '별로 심각하지 않다' , '전혀 심각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빈부격차' 는요?

	매우 심각하다	약간 심각하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 환경파괴	1	2	3	4
㉯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	1	2	3	4
㉰ 빈부격차	1	2	3	4
㉱ 실업문제	1	2	3	4
㉲ 지역 간 불균형	1	2	3	4
㉳ 종교갈등	1	2	3	4
㉴ 이념갈등	1	2	3	4
㉵ 부정부패	1	2	3	4

지금부터는 현재의 정치, 경제, 사회 현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 47) ○○님은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얼마나 만족 또는 불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 , '다소 만족' , '다소 불만족' , '매우 불만족'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매우 만족
2. 다소 만족
3. 다소 불만족
4. 매우 불만족

문 48) ○○님은 자신이 **한국인인 것을 어느 정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혹은 자랑스럽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자랑스럽다' , '다소 자랑스럽다' ,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 ,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매우 자랑스럽다
2. 다소 자랑스럽다
3.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
4.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문 49) **(보기카드 11 제시)**
그럼, 현재 **남한 사회**는 어느 정도 민주적인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1점부터 10점까지의 점수로 평가해 주십시오. 1점은 '매우 비민주적' , 10점은 '매우 민주적' 입니다.

문 50) ○○님은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다' , '약간 있다' , '별로 없다' , '전혀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많이 있다
2. 약간 있다
3. 별로 없다
4. 전혀 없다

문 51) ○○님은 개인적으로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매우 관심이 있다' , '다소 관심이 있다' , '별로 관심이 없다' , '전혀 관심이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매우 관심이 있다
2. 다소 관심이 있다
3. 별로 관심이 없다
4. 전혀 관심이 없다

Copyright(c) 2014 Gallup Korea Ltd. All rights reserved. :: 한국갤럽 www.gallup.co.kr :: 2014 통일의식조사:: :: 8

B

문 52) ○○님은 자신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진보적', '약간 진보적', '중도', '약간 보수적', '매우 보수적'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매우 진보적
2. 약간 진보적
3. 중도
4. 약간 보수적
5. 매우 보수적

문 53) ○○님은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1. 새누리당
2. 새정치민주연합
3. 통합진보당
4. 정의당
5. 지지정당 없음

문 54) ○○님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매우 잘하고 있다', '대체로 잘하고 있다', '보통이다',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매우 잘하고 있다.
2. 대체로 잘하고 있다
3.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4. 매우 잘못하고 있다

문 55)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다' 는요?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다	1	2	3	4	5
㉯ 여러 민족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면 국가의 결속력을 해치게 된다	1	2	3	4	5
㉰ 북한도 하나의 국가다	1	2	3	4	5

자료 분류용 질문

지금까지 질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분류를 위해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항목들은 통계적인 자료 분류 목적 이외에는
결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D 1) ○○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 농업/수산업/축산업 (가족종사자 포함)
2. 자영업 (종업원 9명 이하의 소규모 업소주인 및 가족종사자, 약국, 개인택시운전사)
3. 판매/서비스직 (상점점원, 세일즈맨, 보험설계사 등)
4. 기능/숙련공 (중장비/트럭운전사, 전자/가전제품 A/S기술자, 숙련공 등)
5. 일반작업직 (토목관계의 현장작업, 청소, 수위, 육체노동 등)
6. 사무/기술직 (일반회사 사무직, 기술직,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교사, 회사에 소속된 웹디자이너,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7. 경영/관리직 (5급 이상의 고급공무원, 교장, 기업체부장 이상의 직위 등)
8. 전문/자유직 (대학교수, 변호사, 예술가, 종교가, 언론인, 고소득 프리랜서, 의사, 디자이너/프로그래머 등)
9. 가정주부
10. 학생 (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
11. 군인/경찰
12. 무직
13. 기타 (적을 것 : _____)

D 2) ○○님은 **결혼**하셨습니까?

1. 미혼 2. 기혼 3. 이혼/별거 4. 사별

D 3) 실례지만, ○○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1. 초등학교 졸업 이하
2. 중학교 졸업
3. 고등학교 졸업
4. 대학재학/대학졸업
5. 대학원재학 이상

D 4) ○○님에게는 **종교**가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1. 불교
2. 기독교 (개신교)
3. 천주교 (가톨릭)
4. 기타 (적을 것 : _____)

98. 종교 없음
99. 모름/무응답

Copyright(c) 2014 Gallup Korea Ltd. All rights reserved. :: 한국갤럽 www.gallup.co.kr :: 2014 통일의식조사:: :: 9

B

D 5) 현재 **함께 살고 계시는 가족 모두의 한달 평균 총수입**은 얼마 정도입니까? 저축, 임대소득, 이자 등을 모두 포함하여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가구 월평균 총수입을 말씀해 주십시오.

1. 월 49만원 이하
2. 월 50 ~ 99만원
3. 월 100 ~ 149만원
4. 월 150 ~ 199만원
5. 월 200 ~ 249만원
6. 월 250 ~ 299만원
7. 월 300 ~ 349만원
8. 월 350 ~ 399만원
9. 월 400 ~ 499만원
10. 월 500 ~ 599만원
11. 월 600 ~ 699만원
12. 월 700만원 이상

D 6) **한국의 일반적인 가정과 비교**했을 때, ○○님 **댁의 소득 수준**은 중간보다 얼마나 높다고 또는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1. 중간보다 훨씬 높다
2. 중간보다 약간 높다
3. 중간과 비슷하다
4. 중간보다 약간 낮다
5. 중간보다 훨씬 낮다

D 7) **(보기카드 12 제시)**
○○님은 자신이 한국 사회에서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상의 상
2. 상의 하
3. 중의 상
4. 중의 하
5. 하의 상
6. 하의 하

D 8) ○○님의 **현 생활수준은 부모님께서 ○○님의 현재 나이였을 때와 비교**해서 얼마나 좋아졌다고 또는 나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1. 훨씬 좋아졌다
2. 약간 좋아졌다
3. 차이가 거의 없다
4. 약간 나빠졌다
5. 훨씬 나빠졌다

_____

6. 잘 모르겠다

D 9) ○○님께서 **만 15세까지 가장 오래 사셨던 지역**은 어디입니까? (단수응답)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도
9. 강원도
10. 충청북도
11. 충청남도
12. 전라북도
13. 전라남도
14. 경상북도
15. 경상남도
16. 제주도
17. 북한
18. 외국

면접후기록

응답자 이름			
응답자 주소			
응답자연락처	1. 일반전화 ( )-( )-( ) 2. 휴대폰 ( )-( )-( )		
조사일시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분부터 _____시 _____분까지 (분간) (반드시 적어 주세요)		
협조정도	1. 상 2. 중 3. 하		
응답 신뢰도	1. 상 2. 중 3. 하		
조사원 이름		지역	조사원 ID

Supervisor	검 증 원

오랜 시간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c) 2014 Gallup Korea Ltd. All rights reserved. :: 한국갤럽 www.gallup.co.kr :: 2014 통일의식조사:: :: 10